일 리 등 록 번 호
71-3930000-000055-14

2011年度

京畿道指定文化財

實測調査報告書

● 淸 閒 堂

365열린도서관
B00000045020

京 畿 道
安 山 市

여 백

여 백

2011年度

京畿道指定文化財

實測調查報告書

● 淸　聞　堂

305열린도서관
행정자료
B45020
년 월 일

京畿道・安山市

여 백

문화유산헌장



문화 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슬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 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 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1.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1.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1.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

1997 년 12 월 8 일

■ 청문당(淸聞堂)

□ 원경



청문당 전면 원경



청문당 배면 원경

□ 근경



청문당 전면 근경



청문당 배면 근경

□ 안채



안채 전면 전경



안채 전면 우측부 전경



안채 전면좌측부 기단



안채 전면우측부 기단



안채 우측면 기단



안채 전면중앙부 기단



안채 전면 기단부 전경



안채 배면 기단부 전경



안채 우측면 초석8



안채 우측면 초석10



안채 전면중앙부 우측 기둥



안채 전면중앙부 좌측 기둥



안채 대청상부 대량과 대공



안채 중앙부 대공



안채 대청상부 중보와 도리



안채 대청상부 중도리



안채 대청상부 중도리 결구



안채 대청상부 대량 결구



안채 부엌상부 종도리와 대공 결구



안채 전면우측부 처마



안채 좌측면배면부 처마



안채 전면중앙부 처마



안채 전면 중앙부 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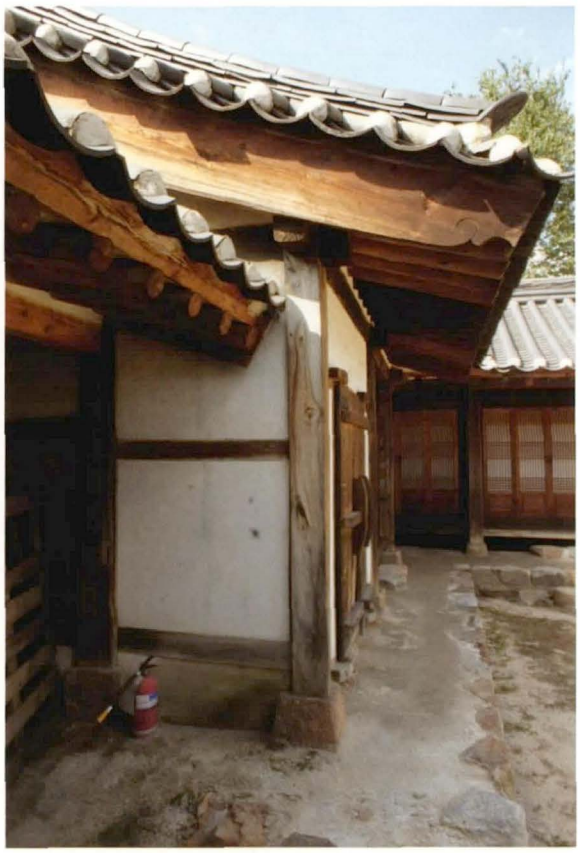
안채 우측단부 벽체수장



안채 우측부 벽체수장



안채 전면 벽체 창호 수장



안채 좌측전면부 벽체수장



안채 우측부 벽체수장 전경



안채 대청마루



안채 전면우측부 툇마루



안채 전면중앙부 툇마루



안채 전면우측부 툇마루



안채 우측부 툇마루



안채 전면중앙부 툇마루



안채 우측면 툇마루



안채 부엌 아궁이



안채 우측퇴마루하부 아궁이



안채 전면 창호 전경



안채 대청 배면부 창호



안채 전면좌측부 부엌판문



안채 좌측면 외부창호



안채 대청 창호



안채 우측면 지붕 전경



안채 우측면 지붕과 합각



안채 좌측부 지붕마루



안채 전면 용마루

□ 사랑채



사랑채 전면 전경



사랑채 배면 전경



사랑채 좌측면 근경



사랑채 배면 근경



사랑채 전면 기단



사랑채 전면우측단부 기단



사랑채 전면 초석



사랑채 전면누마루 하부 초석



사랑채 전면우측부 벽체수장



사랑채 대청 전면 벽체수장



사랑채 전면좌측부 벽체수장



사랑채 전면 벽체수장



사랑채 전면 퇴와 누마루



사랑채 전면 툇마루



사랑채 전면우측부 퇴보 가구



사랑채 전면우측부 처마와 가구



사랑채 배면 광상부 처마 가구



사랑채 배면 부엌상부 가구



사랑채 전면우측단부 선자서까래



사랑채 대청 상부가구



사랑채 방 전경



사랑채 좌측단부 방 전경



사랑채 방 전면 내부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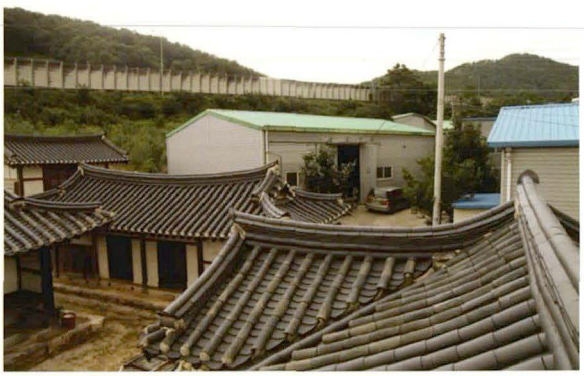
사랑채 전면 방 창호



사랑채 대청 창호



사랑채 우측부 합각



사랑채 배면 지붕 전경

□ 대문채



대문채 외부 전면 근경



대문채 내부 지붕 전경



대문채 대문 외부 전경



대문채 대문 내부 전경

□ 바깥채(아래채)



바깥채 외부 전면/좌측면 전경



바깥채 외부 전면/우측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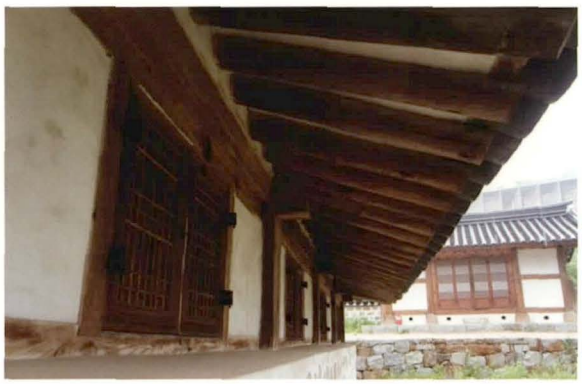
바깥채 외부 좌측면 전경



바깥채 외부 배면/좌측면 전경



바깥채 전면좌측단부 추녀



바깥채 배면 처마



바깥채 내부 온돌방 창호



바깥채 배면좌측부 내림마루

□ 사당(祠堂)



사당 외부 전면 전경



사당 외부 전경



사당 좌측면 근경



사당 내부 대량과 종도리 결구



사당 내부 가구결구



사당 내부 전경

□ 사주문(四柱門)



사주문 우측면 전경



사주문 좌측면 전경



사주문 가구



사주문 우측상부 수장상세

□ 담장(墻垣)



전면부 외부 담장 전경



안채 좌측부 외부담장 전경

□ 우물



안마당 우물 전경



안마당 우물내부 전경

□ 화단(花園)



뒷마당(후원) 화단과 축대 전경



후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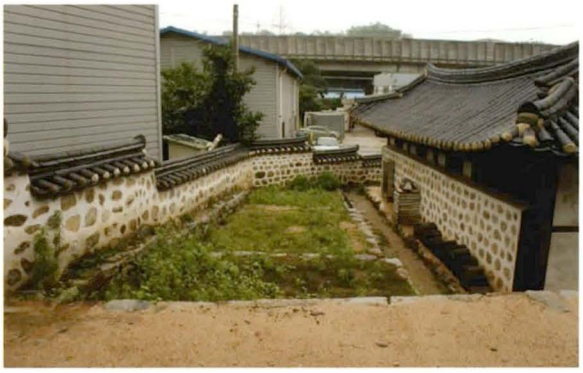


가옥뒤 과수원 전경

□ 채마밭(菜麻田)



안채 좌측부 채마밭 전경



바깥채 배면 채마밭 전경

□ 연지(蓮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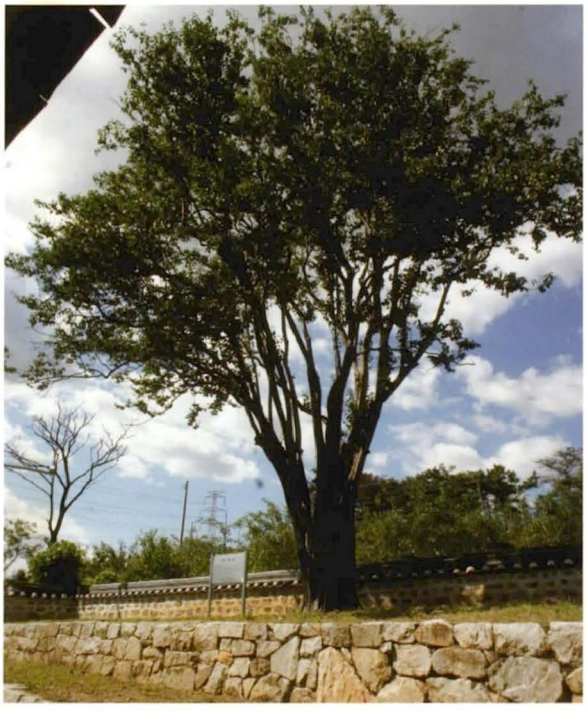


연지 전경



연지와 청문당 전경

□ 수목(樹木)



후원 모과나무 전경



은행나무 전경

목 차

원색화보

제1장. 사업 개요

1. 조사 일반 ····· 3
2. 조사 지침 ····· 4
3. 과업 추진 일정 ····· 9
4. 보고서 발간 및 관계자 ····· 10
5. 실측조사 방법 ····· 11

제2장. 안산과 부곡동의 일반 환경

1. 안산 지역 ····· 15
2. 인문 환경 ····· 19
3. 부곡동 지역 ····· 25

제3장. 청문당의 개관

1. 연혁 ····· 67
2. 가옥 개관 ····· 67
3. 문화재 지정 ····· 72
4. 문화재 수리 ····· 74
5. 건축적 특성 ····· 79

제4장. 청문당의 정밀실측

1. 안채(本棟) ····· 87
   1- 1. 평면 ····· 87
   1- 2. 기단과 초석 ····· 88
   1- 3. 기둥 ····· 92
   1- 4. 가구 ····· 94
   1- 5. 공포 ····· 102
   1- 6. 창호 ····· 102
   1- 7. 처마 ····· 105
   1- 8. 천장 ····· 111
   1- 9. 지붕 ····· 112
   1-10. 수장 ····· 117

2. 사랑채(舍廊棟) ····· 118
2- 1. 평면 ····· 119
2- 2. 기단과 초석 ····· 120
2- 3. 가구 ····· 122
2- 4. 창호 ····· 126
2- 5. 처마와 지붕 ····· 127
2- 6. 수장 ····· 131
3. 부속 건축물 ····· 134
3- 1. 바깥채(庫棟) ····· 134
3- 2. 사당(祠堂) ····· 140
3- 3. 문(門) ····· 145
3- 4. 담장(垣墻) ····· 147
3- 5. 화단(花壇) ····· 147
3- 6. 기타(장독대·우물·안내판) ····· 149

제5장. 종합고찰

1. 사용척(使用尺,用尺) ····· 155
2. 복원일고(復原一考, 調査者의 意見) ····· 157
3. 결론(結論) ····· 161

부록

1. 단색사진 ····· 165
2. 실측도면 ····· 214
3. 참고문헌 ····· 295

표 · 그림 · 사진 목차

[표 목차]

[표1.01] 대상 단위문화재 도면 목록 ····· 8
[표2.01] 안산시 위치 ····· 15
[표2.02] 안산시의 역사적 변천(年表) ····· 20
[표2.03] 부곡동의 지명 ····· 31
[표2.04] 안산시 문화유적 현황 ····· 58
[표2.05] 안산시 문화유적 목록 ····· 59
[표2.06] 부곡동의 문화유적 ····· 61
[표4.01] 안채 기단 실측치수 ····· 89
[표4.02] 안채의 초석 실측치수 ····· 91
[표4.03] 안채의 기둥 길이와 기둥크기 분석 ····· 92
[표4.04] 안채 창호 실측치수 ····· 103
[표4.05] 안채의 처마 내밀기 ····· 106
[표4.06] 안채의 서까래 치수 ····· 107
[표4.07] 안채의 평고대, 연함 크기 ····· 108
[표4.08] 마루곡 실측치수 ····· 115
[표4.09] 사랑채 기단 실측치수 ····· 121
[표4.10] 사랑채의 처마 내밀기 ····· 127
[표5.01] 주칸의 실측치수 ····· 156
[표5.02] 장여의 실측치수 ····· 156

[그림 목차]

[그림1.01] 기준선 설정도(안채) ····· 11
[그림2.01] 대동여지도(1860년대) ····· 16
[그림2.02] 청구도(1860년대) ····· 16
[그림2.03] 안산의 옛지도 ····· 24
[그림2.04] 부곡동 인근지도(2010) ····· 26
[그림2.05] 부곡동 지도(1918) ····· 26
[그림2.06] 부곡동 지형도(1970년대) ····· 32
[그림2.07] 부곡동 지형도(2003) ····· 32
[그림2.08] 경성당 배치평면도 ····· 37
[그림2.09] 강세황의 초상화 ····· 49
[그림2.10] 강세황의 수결 ····· 49
[그림2.11] 강세황 영정 ····· 49
[그림2.12] 기축사마동방록 ····· 51
[그림2.13] 용만가회사마동방록(1602) ····· 51
[그림2.14] 부곡동의 문화유적(경기문화재단) ····· 60
[그림3.01] 지상편도(池上篇圖) ····· 70
[그림3.02] 연지와 연당(지상편도) ····· 71
[그림3.03] 괴석원 태호석(지상편도) ····· 71
[그림3.04] 청문당 배치 평면도(안산시사,1999) ····· 73
[그림3.05] 청문당 배치 평면도(경기문화재단,2002) 73
[그림3.06] 청문당 배치 평면도(보수설계도면,2004) 74
[그림3.07] 청문당 부지 단면도 ····· 80
[그림3.08] 청문당 배치 평면도(2011) ····· 82
[그림3.09] 청문당 안채 종단면도(2011) ····· 83
[그림4.01] 안채 평면도 ····· 88
[그림4.02] 안채 기단 입면/단면상세도(전면/남동측) · 89
[그림4.03] 안채의 초석 실측치수 ····· 90
[그림4.04] 안채의 디딤돌 입면/단면상세도 ····· 91
[그림4.05] 안채 기둥 입면상세도 ····· 93
[그림4.06] 안채 기둥 입면상세도 ····· 94
[그림4.07] 안채 가구 구성도(종단면도) ····· 95
[그림4.08] 안채 가구 구성도(천장평면도) ····· 96
[그림4.09] 안채 가구 구성도(횡단면도) ····· 96
[그림4.10] 대들보 입면/단면상세도 ····· 97
[그림4.11] 퇴량 입면/단면상세도 ····· 98
[그림4.12] 종량 입면/단면상세도 ····· 99
[그림4.13] 보 상세 및 변위 전개도 ····· 99
[그림4.14] 도리 상세 및 변위 전개도 ····· 100
[그림4.15] 대공 상세도 ····· 101
[그림4.16] 안채 정면도(건넌방/안방) ····· 103
[그림4.17] 안채 정면창호(대청) ····· 104
[그림4.18] 안채 정면창호(부엌) ····· 104
[그림4.19] 안채 창호철물 상세도 ····· 105
[그림4.20] 연목 실측도 ····· 106
[그림4.21] 추녀 실측도 ····· 107
[그림4.22] 합각부 박공 실측도 ····· 108
[그림4.23] 박공 실측도(좌측/부엌) ····· 109
[그림4.24] 안채 안허리곡 입면상세도 ····· 110
[그림4.25] 안채 앙곡 입면상세도 ····· 111
[그림4.26] 안채 지붕평면도 ····· 112
[그림4.27] 안채 기와곡 상세도 ····· 114
[그림4.28] 안채 마루곡 입면상세도 ····· 114
[그림4.29] 안채 내림마루곡 및 추녀마루곡 상세도 · 116
[그림4.30] 안채 망와상세도 ····· 116
[그림4.31] 안채 벽체수장도(전면) ····· 117
[그림4.32] 사랑채 평면도 ····· 120
[그림4.33] 사랑채 종단면도(사랑방) ····· 123
[그림4.34] 사랑채 가구 구조도 ····· 125
[그림4.35] 사랑채 횡단면도(전면부) ····· 125
[그림4.36] 사랑채 가구 단면 상세도 ····· 126
[그림4.37] 사랑채 지붕평면도(와복도) ····· 129
[그림4.38] 사랑채 벽체 수장(전면) ····· 131
[그림4.39] 바깥채 평면도 ····· 135
[그림4.40] 바깥채 가구구조도 ····· 137
[그림4.41] 바깥채 지붕 평면도 ····· 138
[그림4.42] 바깥채 벽체입면도(정면도) ····· 139
[그림4.43] 바깥채 벽체입면도(배면도) ····· 139
[그림4.44] 바깥채 벽체입면도(측면도) ····· 139
[그림4.45] 바깥채 벽체입면도(종단면도) ····· 140
[그림4.46] 사당 평면도 ····· 141

[그림4.47] 사당 가구구조도 ····· 142
[그림4.48] 바깥채 지붕 평면도 ····· 143
[그림4.49] 사당 벽체입면도(정면도) ····· 144
[그림4.50] 사당 벽체 입면도(좌측면) ····· 145
[그림5.01] 가옥의 배치 변화 ····· 157
[그림5.02] 안채의 평면 변화 ····· 157
[그림5.03] 사랑채의 평면 변화 ····· 158
[그림5.04] 바깥채의 평면 변화 ····· 159
[그림5.05] 사당의 평면 변화 ····· 159

[사진 목차]

[사진2.01] 부곡동 항공사진(다음지도.2010) ····· 32
[사진2.02] 경성당 사랑채 전경 ····· 36
[사진2.03] 경성당 안채 전경 ····· 36
[사진2.04] 경성당 만수동 표석 전경 ····· 36
[사진2.05] 경성당 사랑채 당호 편액 ····· 36
[사진2.06] 모산 류원성 ····· 47
[사진2.07] 모산 류원성의 부계팔경도 ····· 47
[사진2.08] 박창규 낙화산수 8곡병풍(조선중기) ····· 52
[사진2.09] 사군자팔곡병풍 ····· 53
[사진2.10] 개천군 전도 병풍(1906) ····· 54
[사진2.11] 부계전도 ····· 56
[사진2.12] 안산시의 문화유적 ····· 60
[사진2.13] 류석 선생 묘역 ····· 61
[사진2.14] 류석 선생 신도비 ····· 61
[사진2.15] 정정옹주 묘역 ····· 63
[사진2.16] 정정옹주 묘비 ····· 63
[사진3.01] 청문당의 전면 원경 ····· 79
[사진3.02] 청문당의 배면 근경 ····· 79
[사진3.03] 원부곡마을 주거지 배치도(다음,2010) ·· 79
[사진4.01] 안채의 전경 ····· 87
[사진4.02] 안채의 전경(2011년) ····· 87
[사진4.03] 안채의 전경 (2002년) ····· 87
[사진4.04] 안채 기단(전면, 대청) ····· 90
[사진4.05] 안채 기단(우측면, 안방/건넌방) ····· 90
[사진4.06] 안채 초석(전면/기둥3) ····· 90
[사진4.07] 안채 초석(전면/기둥14) ····· 90
[사진4.08] 안채 디딤돌(전면/기둥4~5) ····· 91
[사진4.09] 안채 디딤돌(전면/기둥6~7) ····· 91
[사진4.10] 기둥(평주:전면/대청) ····· 93
[사진4.11] 기둥(평주:건넌방/부엌) ····· 93
[사진4.12] 상부가구(대청 대들보) ····· 95
[사진4.13] 상부가구(대청 중도리) ····· 95
[사진4.14] 안채 대들보(대청/우측부) ····· 97
[사진4.15] 대들보 결구(대청/전면부) ····· 97
[사진4.16] 도리·퇴보의 결구(전면,대청) ····· 98
[사진4.17] 도리·보 결구(전면,대청) ····· 98
[사진4.18] 종도리(부엌상부) ····· 101
[사진4.19] 판대공(대청상부) ····· 101
[사진4.20] 안채 창호(건넌방전면) ····· 102
[사진4.21] 안채 창호(대청배면) ····· 102
[사진4.22] 안채 창호(건넌방전면/내부) ····· 105
[사진4.23] 안채 창호(건넌방전면/외부) ····· 105
[사진4.24] 안채 서까래(대청,외부) ····· 106
[사진4.25] 안채 서까래(배면,추녀부) ····· 106
[사진4.26] 안채 박공(좌측부/부엌) ····· 109
[사진4.27] 안채 박공(좌측부/안방) ····· 109
[사진4.28] 안채 박공(구. 우측부/건넌방) ····· 109
[사진4.29] 안채 박공(현. 우측부/건넌방) ····· 109
[사진4.30] 안채 연등천장(대청) ····· 111
[사진4.31] 안채 천장(안방) ····· 111
[사진4.32] 안채 마루곡(좌측 부엌부) ····· 112
[사진4.33] 안채 회첨부(우측 건넌방부) ····· 112
[사진4.34] 안채 지붕(전면,대청상부) ····· 113
[사진4.35] 안채 마루곡(좌측/부엌) ····· 115
[사진4.36] 안채 마루곡 (우측/건넌방) ····· 115
[사진4.37] 안채 마루고(좌측/부엌) ····· 116
[사진4.38] 안채 대청 및 좌측면 수장 ····· 117
[사진4.39] 안채 배면 수장 ····· 117
[사진4.40] 안채 대청마루(내부) ····· 118
[사진4.41] 안채 툇마루(정면) ····· 118
[사진4.42] 사랑채 전경 ····· 118
[사진4.43] 사랑채 전경(옛모습) ····· 118
[사진4.44] 사랑채 배면 전경 ····· 119
[사진4.45] 사랑채 배면 전경(옛모습) ····· 119
[사진4.46] 사랑채 전경 ····· 119
[사진4.47] 사랑채 기단(전면) ····· 120
[사진4.48] 사랑채 기단(좌측) ····· 120
[사진4.49] 사랑채 기단(전면/우측) ····· 121
[사진4.50] 사랑채 기단(배면) ····· 121
[사진4.51] 사랑채 주초석(기둥4) ····· 121
[사진4.52] 사랑채 주초석(기둥9) ····· 121
[사진4.53] 사랑채 전경 ····· 122
[사진4.54] 사랑채 디딤돌(근경) ····· 122
[사진4.55] 사랑채 기둥(전면/중앙부) ····· 123
[사진4.56] 사랑채 기둥(좌측우주) ····· 123
[사진4.57] 사랑채 상부 가구 ····· 125
[사진4.58] 사랑채 충량 ····· 125
[사진4.59] 사랑채 도리/보의 결구(사랑방) ····· 126
[사진4.60] 사랑채 도리/퇴보 결구(대청방) ····· 126
[사진4.61] 사랑채 창호(대청/우측) ····· 127
[사진4.62] 사랑채 창호(사랑방전면/내부) ····· 127
[사진4.63] 사랑채 창호(사랑방) ····· 127
[사진4.64] 사랑채 창호(대청/사랑방) ····· 127
[사진4.65] 사랑채 처마 전경(전면) ····· 127
[사진4.66] 사랑채 처마(전면좌측/추녀부) ····· 127
[사진4.67] 사랑채 추녀 전경(우측전면/외부) ····· 128
[사진4.68] 사랑채 추녀 전경(우측전면/내부) ····· 128
[사진4.69] 사랑채 지붕 전경(우측/남동측) ····· 130
[사진4.70] 사랑채 지붕 전경(좌측/북서) ····· 130

[사진4.71] 사랑채 전경(전면/우측면) ····· 130
[사진4.72] 사랑채 근경(우측면) ····· 131
[사진4.73] 사랑채 근경(우측/보수후) ····· 132
[사진4.74] 사랑채 근경(우측/보수전) ····· 132
[사진4.75] 사랑채 대청 우물마루 ····· 132
[사진4.76] 사랑채 툇마루(뒤사랑방) ····· 132
[사진4.77] 사랑채 천장(대청방) ····· 133
[사진4.78] 사랑채 천장(사랑방) ····· 133
[사진4.79] 사랑채 전면 전경(보수후) ····· 133
[사진4.80] 사랑채 전면 전경(보수전) ····· 133
[사진4.81] 문간채 전경(전면) ····· 134
[사진4.82] 문간채 전경(배면) ····· 134
[사진4.83] 바깥채 전경 ····· 134
[사진4.84] 바깥채 전경(경기문화재단,2002) ····· 134
[사진4.85] 바깥채 전경(정면/좌측) ····· 135
[사진4.86] 바깥채 전경(배면/좌측) ····· 135
[사진4.87] 바깥채 전경(정면/우측) ····· 136
[사진4.88] 바깥채 전경(좌측) ····· 136
[사진4.89] 바깥채 가구(전면/남서측) ····· 136
[사진4.90] 바깥채 가구(우측/북동측면) ····· 136
[사진4.91] 바깥채 벽체 가구와 수장(좌측면) ····· 137
[사진4.92] 바깥채 처마(좌측면) ····· 137
[사진4.93] 바깥채 벽체 가구와 수장(우측면/북서) ·· 138
[사진4.94] 바깥채 벽체 창호와 수장(전면/남) ····· 138
[사진4.95] 사당 전경(전면/보수후) ····· 140
[사진4.96] 사당 전경(전면/보수전) ····· 140
[사진4.97] 사당 전경(전면/보수전) ····· 140
[사진4.98] 사당 전경(전면/보수전) ····· 140
[사진4.99] 사당 전경(전면) ····· 141
[사진4.100] 사당 전경(배면) ····· 141
[사진4.101] 사당 기단 전경(전면) ····· 141
[사진4.102] 사당 초석(전면) ····· 141
[사진4.103] 사당 내부가구(전면/남서측) ····· 142
[사진4.104] 사당 외부가구(우측면/남동측) ····· 142
[사진4.105] 사당 가구(대량) ····· 143
[사진4.106] 사당 가구(우측) ····· 143
[사진4.107] 사당 창호(정면/남서측) ····· 144
[사진4.108] 사당 벽체와 수장(우측/배면) ····· 144
[사진4.109] 협문 전경(전면/남서측) ····· 145
[사진4.110] 협문 전경(배면/남동측) ····· 145
[사진4.111] 협문 전경(측면/북동측) ····· 146
[사진4.112] 협문 상부 가구 ····· 146
[사진4.113] 문간채 전경(전면/보수전) ····· 146
[사진4.114] 문간채 전경(전면/보수후) ····· 146
[사진4.115] 담장 전경(서북측/안채) ····· 147
[사진4.116] 담장 전경(서북측/문간채) ····· 147
[사진4.117] 담장 전경(남동측/바깥채) ····· 147
[사진4.118] 담장 전경(남측/사랑채) ····· 147
[사진4.119] 화단 전경(전면/북동측) ····· 147
[사진4.120] 화단 전경(측면/남서측) ····· 147
[사진4.121] 보호수 전경(모과나무) ····· 148
[사진4.122] 보호수 전경(은행나무/외곽) ····· 148
[사진4.123] 텃밭 전경(남서측/안채) ····· 149
[사진4.124] 텃밭 전경(남동측/바깥채) ····· 149
[사진4.125] 안채 안마당 전경(남동측) ····· 149
[사진4.126] 안채 안마당 전경(옛사진) ····· 149
[사진4.127] 장독대의 전경(안마당) ····· 150
[사진4.128] 장독대의 전경(상부) ····· 150
[사진4.129] 안내판과 안내표석 ····· 151
[사진4.130] 안내판과 고택 진입로 ····· 151

제1장. 사업개요

1. 조사 일반
2. 조사 지침
3. 과업 추진 일정
4. 보고서 발간 및 관계자
5. 실측조사 방법



여 백

제1장. 사업 개요

1. 조사 일반

가. 조사경위 및 조사대상

○ 과업대상 : 청문당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4호)

나. 과업 목적

○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정밀현황 실측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수리공사시 설계자료로 활용해서 설계기간의 단축과 예산절감을 통한 수리공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 축적된 중요목조문화재의 정밀실측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문화재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다. 과업 내용

○ 정밀현황 실측도면 작성

○ 설계물량 및 내역서 작성(전체내역, 보수내역)

○ 공사시방서 작성

○ 고증 및 문헌조사

○ 각종 문양조사 등(단청문양, 벽화, 조각물, 기와류, 용두 등)

○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발간 및 배포

라.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2011.6.3~2011.11.4)

마.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용역책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계획서(조사대상, 시설내용, 명단, 공정표, 기타 의견 등)를 제출한다.

○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 조사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한다.

○ 발주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조사내용의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과업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 용역업체는 최종성과물 제출 전에 용역내용에 대해 감독공무원의 최종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조사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경기도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 조사업무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따르며 기타 조사시

제기된 문제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용역수행으로 실측건물(주변건물)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훼손 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한다.

2) 특기사항

○ 실측조사시 현장대리인은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인원 등 관리자(소유자)측과 협의하여야 한다.

○ 조사시 현장입구 및 작업현장에 조사안내판과 안내문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이해 및 안전에 유의하고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조사시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화재예방에 주의해야 하며, 내부 조사시 조명은 플래쉬를 사용하고 만약 전등을 사용할 시 국가에서 인정한 전기기술자의 참여하에 관리자 측의 허가를 받아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사용한다.

○ 현장대리인은 조사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요하며 용역업체 대표는 조사원의 재해보상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만전을 기한다.

○ 조사일지를 작성하고 관리자측의 열람을 거쳐 작업종료 이후의 현장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가설한 시설물은 종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조사 지침

가. 문헌자료조사

– 건축물에 남아있는 상량문이나 창건, 수리시의 기록(낙서포함), 등 모든 문서명을 빠짐없이 옮겨 적고 한글로 번역하여 발간한다.

– 기와명문, 현판, 주련, 조각, 조각물, 벽화, 단청문양 등 글씨·문양을 탁본, 모사,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보고서를 넣어 발간한다.

○ 소장 자료

– 소장하고 있는 문헌자료는 목록을 작성하여 간략히 해설하고, 창건, 중수 등 문화재의 연혁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는 표지를 포함하여 전문(全文)과 번역문을 보고서에 넣어 발간한다.

– 현재 소재지가 변동되어 옮겨진 자료에 대해서도 소장 자료에 준해서 조사한다.

○ 관련문헌

– 관련된 역사기록은 원문을 옮겨 적고 출처를 명기한다.

– 관련문헌, 최근 자료 등 모두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나. 인문 및 자연환경 조사

○ 입지조건

– 문화재 주변의 산천, 교통로, 마을, 인접도시와의 거리등 입지에 관련한 지리학적 사항을 조사하여 입지의 특성을 밝힌다.

– 조사대상 근접한 조경수는 수종, 수령, 규격 등을 조사하고, 당해 문화재와 연관관계를 조사한다.

○ 지정현황

- 문화재별 지정사항, 보호구역 등 문화재 관리현황을 조사한다.

○ 관련계획

- 향후의 보수 및 정비계획을 조사한다.

다. 실측조사 및 실측방법

1) 조사 일반 및 특기 사항

○ 일반사항

- 용역책임자(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계획서(조사대상, 시설내용, 명단, 공정표, 기타 의견 등)를 제출한다.
-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 조사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한다.
- 발주처(갑)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조사내용의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과업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용역업체(을)가 책임을 진다.
- 용역업체(을)는 최종성과물 제출 전에 용역내용에 대해 감독공무원의 최종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조사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안산시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 조사업무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따르며 기타 조사 시 제기된 문제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용역수행으로 실측건물(주변건물)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훼손 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실측조사시 현장대리인은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인원 등 관리자(소유자)측과 협의하여야 한다.
- 조사시 현장입구 및 작업현장에 조사안내판과 안내문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이해 및 안전에 유의하고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조사시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화재예방에 주의해야 하며, 내부 조사시의 조명은 플래쉬를 사용하고 만약 전등을 사용할시 국가에서 인정한 전기기술자의 참여하에 관리자 측의 허가를 받아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사용한다.
- 현장대리인은 조사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요하며 용역업체 대표는 조사원의 재해보상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만전을 기한다.
- 조사일지를 작성하고 관리자측의 열람을 거쳐 작업종료 이후의 현장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가설한 시설물은 종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정밀현황 실측조사

- 배치 및 건물 측량시 첨단기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측량시의 오차를 최소화 한다.

○ 배치

- 전체 배치조사는 용역단위 문화재 및 보호구역내(또는 일곽 내)에 관련되어 있는 목조물 및 석조물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 배치시 평판 측량하고 대지경사는 고저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 대상단위 문화재

- 실측은 정밀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 내·부의 전체 부재를 실측하고 형상 및 규격이 다른 부재는 도면화하여 세부치수를 기입한다.
- 건물외부는 강관비계로 견고히 수직으로 설치하되 실측조사에 용이 하게 발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건물내부는 강관비계를 수평으로 설치하고 발판을 설치한다.
- 비계는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조물과의 이격거리를 3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 기준선을 내·외부에 설치하고 수시로 실측기준선을 설정하여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실측조사 단위는 미터(meter)법을 사용하여 ㎜단위로 측정하고 필요할 경우 m와 ㎝를 병기하며 중요치수는 ( )안에 영조척을 표기한다.
- 주칸은 기둥의 상·중·하부 중심에서 각각 측정하고 수장폭 등의 실측치와 비교하여 조영척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처마의 안허리곡과 앙곡, 기둥의 안쏠림과 귀솟음, 창방과 귀틀의 변위 등에 유의하여 조영 척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단은 다듬은 돌과 막돌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 기와류는 실측과 함께 각 종류별로 도면화 한다.
- 보수과정에서 교체 및 첨가된 부재는 별도로 구분하여 원형을 밝혀야 한다.
- 주요부재 특히 공포와 기둥, 보, 창방 등의 형태와 결구, 치목기법 등은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3) 사진촬영

- 사진은 120㎜ 칼라 슬라이드 및 프린터 필름으로 촬영한다.
- 건물 내·외부의 전경, 부분, 상세별로 빠짐없이 촬영한다.
- 사진 촬영은 4면을 반드시 촬영하도록 하고 목부재의 결구상태, 현상이 특이 하거나 동일부재라도 마무리 상태가 다른 것은 전부 촬영한다.
- 외부사진은 일조상태를 고려하여 짙은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촬영하여야 하며, 내부사진은 자연광을 이용하여 촬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토 플래쉬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진 촬영방법은 도면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방향에서 촬영하고 해당사진에는 도면의 쪽수(page)를 명기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 보수, 주변정비 등 현상변경 사항은 관련도서를 확인 변경하여 변경 이전의 상황과 현황을 비교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손상, 오염상태 등 보존관리현황 및 저해요인을 조사한다.
-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이동된 유물에 대하여는 원 위치 표시하여야 한다.
- 문헌에 있는 현존하지 않는 소속 건조물은 별도 지시에 따른다.

라. 지도위원회

- 용역업체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측대상 건축물의 특성규명 및 조사방향 등에 대하여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업체 부담으로 한다.
- 지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본 용역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 지도위원회는 실측조사 현장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 지도위원회의 위촉, 위원회의 개최시기, 발주 측의 참석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자문지도 내용
자문위원: 김왕직(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전경기도문화재위원,문화재청전문위원) 자문일시 및 장소: 2011년 6월25일, 청문당 현장
1. 건물은 과업지침서와 같이 안채를 정밀실측하고, 사랑채 및 바깥채 그리고 사당은 근래에 보수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변형이 되었으므로 약실측을 시행한다. 2. 건물 특히 안채는 조선중기의 전통건축수법이 보이는 건물이므로 부분적인 건축기법이 잘 나타나도록 정밀실측을 한다. 3. 청문당은 조선중기 사대부 가옥으로 회화(강세황(姜世滉/1713~1791]의 「지상편도(池上篇圖)」) 등에 건물의 예전 모습이 보이는 자료를 통하여 이와 비교 건물 및 공간을 해석함이 복원시에 필요하므로 이를 보고서에 기록하고, 더 나아가 주변경관 및 환경에 비추어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조선후기 4대 만권당으로서 가옥 및 주변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 성과품 작성

○ 실측도면

- [표1.01]에 명기된 도면은 반드시 포함하고, 도면 구성상 같은 면에 그릴 경우 축척은 통일한다.
- 도면은 컴퓨터 도화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수작업을 할 수 있다.
- 배치도에는 건축물의 평면을 그려 넣는다.
- 도면은 현황실측도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복원도는 영조척, 변형부분을 고찰하여 복원도를 작성한다.

- 각 도면에는 도면 명칭과 번호, 치수, 축적자(bar scale), 방위표, 찾음표(key map)를 기입한다.
- 선 굵기는 단면선, 외곽선, 입면선, 보조선 등을 단계적으로 구분한다.
- 보수설계도서와 복원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납품하되 보수범위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 정밀실측도 및 보수설계도는 CAD로 작성하여 납품하되 부재 상세도 등 담당원이 지정하는 도면은 원형대로 작성한다.

○ 설계물량 및 내역서 (2가지로 작성 복원시, 보수시)

- 목재, 기와 등 각종부재의 자재수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내역서를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 (2가지로 작성 : 복원시, 보수시)

- 문화재의 양식, 특성, 결구기법, 부재의 재질과 가공 상태, 수리 및 보존방법 등 문화재 전반에 대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 고증 및 관련자료 조사

- 각종 문헌 및 고증자료와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정밀 조사한다.

○ 사진첩

- 촬영한 각각의 사진에는 건축물 명칭과 촬영부위를 기록하고 각 사진첩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한다.
- 칼라 사진은 필름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름과 밀착 인화사진을 좌우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표1.01] 대상 단위문화재 도면 목록

명 칭		축 척	비 고
배 치 도		1/200~1/600	문화재구역 일곽의 부속건축물 포함
배치단면도		1/200~1/600	종단, 횡단 (각 1)
평 면 도		1/20~1/30	
입 면 도		"	동·서·남·북 (각 1부)
단 면 도	종 단 면	"	
	횡 단 면	"	
앙 시 도		"	상층 및 하층
지붕평면도		"	상층 및 하층
공포실측도	주 상 도	"	입면, 단면, 앙시도 등 (각 1)
	귀 공 포	"	입면, 앙시도 등 (각 1)
	주두,소로,첨차	"	평면, 입면, 단면, 앙시도 등 (각 도표작성)
가구실측도	대 공	"	
	보 아 지	"	
	기 둥	1/5~1/30	활주포함
	추녀결구	1/5~1/10	
	보	1/5~1/30	
	창 방	"	변위도 포함
	기단 및 계단	"	입면, 단면도 등
	초 석	"	앙시, 단면, 상세도 등
	천 장	"	입면, 단면, 상세도 등
	현 판	"	입면, 단면도 등
	기 와	1/1~1/3	명문와, 막새, 망와, 용두 등 각 입면, 단면도 등
	지 붕	1/5~1/30	지붕변곡, 마루곡 등
	처 마	"	앙곡, 안허리곡, 연목 및 부연상세도 등
	박 공	"	목기연 상세도 등
	벽화, 포벽화	"	배치, 입면
	단청(그림포함)	"	배치, 무늬(색상 없음)
	철물 상세도	1/1~1/2	

- 칼라 슬라이드는 중성 마운트 및 내지를 사용하여 변질을 방지한다.

○ 실측보고서

- 보고서 규격은 아래와 같이 통일하고 색상은 기 발간된 실측조사보고서와 같은 진녹색으로 통일한다.
  · 규　격 : 372mm×263mm("별첨" 규격서 참조)
- 보고서에는 별도의 실측조사보고서의 번호, 간행물등록번호, 한국표준 심의번호를 부여받아 명기하여야 한다.
- 주변현황, 연혁, 관련인물, 당해 건물에 관계된 각종 문헌내용, 건축 구조적 특성 및 양식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고찰내용 등을 수록한다.
- 각 부재별 상세도 및 사진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록한다.
- 기준선 설정, 실측방법, 기록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건물에 사용된 영조척을 찾고 실측한 주요부분과 각 부재의 수치는 일람표를 작성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설명한다.
- 조사시 발견된 기법과 표현법을 기록하고 부식 훼손된 상태 및 변형된 부분의 내용을 사진과 함께 수록한다.
- 실측도는 부재별 상세도를 포함하여 축소하고 사진에 대한 설명등과 함께 수록한다.
- 보고서 발간 후 모든 관계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완성된 보고서 및 시디(CD)는 문화재청의 배포계획에 용역자가 직접 배포하여야 하며 거주지 변경 등 반송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반송처를 기재하고 재 발송토록 함.
- 배포가 완료된 경우 발송확인 증명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바. 기타

○ 정밀조사시 문양묘사 할 부분이 없을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 실측시 대상종류에 따라 특별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기 실측조사 세부 과업지시서에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실측조사시 감독공무원이 부분적으로 보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기둥 동바리, 지붕 일부 번와 보수, 벽체 및 기단의 부분 보수 등)에 대하여 용역책임자는 보수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밀실측도서, 보수설계도서, 내역서, 공사시방서 등 성과품은 납품예정일 10일 전에 발주처의 사전검사를 받도록 한다.

○ 보고서 원고는 인쇄전 초고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최종원고(식자 원고)는 인쇄 전 최종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과업 추진 일정

2011년　5월11일　용역입찰공고

2011년　5월17일　개찰 및 낙찰, 적격심사서류 제출

2011년　6월 2일　낙찰자통보

2011년　6월 2일　용역계약

2011년 6월 8일 용역착수
2011년 6월10일 용역관련 협의 및 현장조사(1차/주변현황 및 야장 사진촬영)
2011년 6월18일 관련자료 및 문헌조사 및 실측용 야장 정리
2011년 6월24일 청문당 실측조사(2차), 수평수직 기준틀 설치
2011년 6월25일 청문당 주변조사
자문위원 현장 방문 협의, 측량기구 및 실측방법 체크 확인
2011년 6월30일 부속건축물 실측, 석조물 실측
2011년 7월 5일 현장실측자료(야장) 정리, 도면목록 검토
2011년 7월15일 현장 약실측 및 건물별 사진촬영
2011년 7월19일 도면 작성(안채), 보고서 정리 (인문환경/ 배치 구조 양식)
2011년 7월29일 미비사항 보완 실측, 도면목록 재검토
2011년 8월 2일 청문당관련 정밀실측
2011년 8월 5일 청문당관련 약실측 및 탁본, 자료조사
2011년 8월10일 도면 작성(사랑채/ 아래채, 사당), 보고서 각 건물 사진 정리
2011년 9월 6일 도면 작성(안채), 보고서 각 건물 사진 정리
2011년 9월30일 도면 작성(상세도), 부분별(옥외담장, 조경) 조사 정리
2011년 10월 6일 청문당 보고서 내용 검토 보완, 도면 검토보완
2011년 10월13일 보고서 및 내역서(초고본) 작성완료
2011년 10월17일 자문위원 보고서 검수
2011년 11월 4일 최종보고서(인쇄본), 성과품 제출

4. 보고서 발간 및 관계자

○ 지도 위원: 김왕직 (명지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문화재전문위원)
○ 총괄책임자: 강선중(주.미추홀건축사사무소 소장, 공학박사,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
○ 조사책임자: 강선중(주.미추홀건축사사무소 소장)
○ 실측조사 및 도면작성: 신광순(주.미추홀건축사사무소 이사, 실측설계사보)
김상태, 정구필, 김성용, 백동순, 강호제
○ 지형 측량: 김성용, 강호제
○ 사진 촬영: 강선중, 정구필
○ 탁본 조사: 백동순, 강호제
○ 원고작성 및 편집: 강선중, 김성용, 백동순
○ 자료 협조: 안산시청 문화관광과, 안산문화원, 안산시도서관, 경문당
○ 감독 기관: 안산시
김철민(안산시장)
김진근(행정국 국장)
안상철(문화예술과 과장)
이종규(문화예술과 문화시설 팀장)
강우창(문화예술과 문화재 담당)

5. 실측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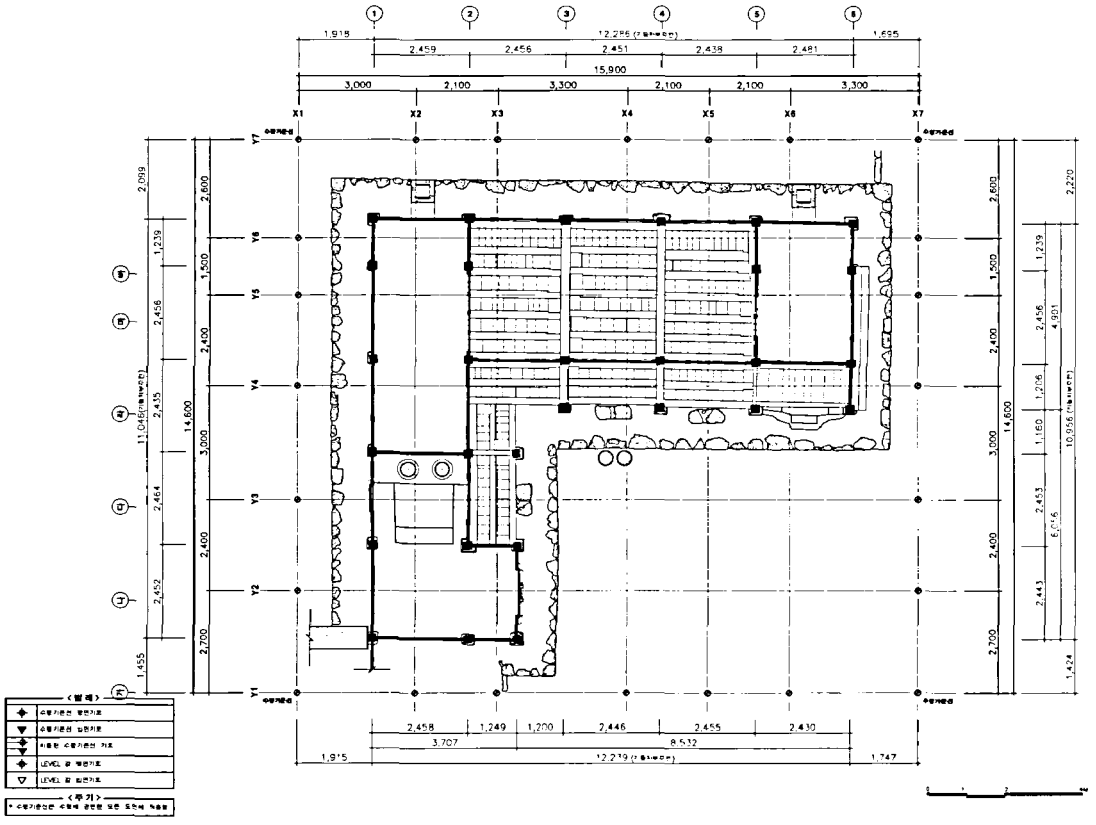
가. 실측조사

- 현장에서의 실측조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두고 실측하였다.
- 현상을 있는 그대로 조사 기록한다.
- 수직,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위치를 확인한다.
- 조각된 것이나 곡선의 부재는 탁본 등을 하여 실측하며 사진실측도 겸한다.
- 조사시 발견된 모든 문자나 묵서명 등은 수집하여 기록 보존한다.
- 미터법을 준수하며 ㎜를 단위로 측정한다.

나. 실측방법

1) 비계 설치

- 외부에는 쌍줄비계를 매어 기둥과 보머리의 결구, 처마, 지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녀높이가 낮은 부분은 틀비계와 강관비계를 동시에 가설하여 조사 하였다. 조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건조물의 훼손 방지와 추 내림시에 추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조물과 30㎝정도 띄어서 가설을 하였다.
- 건물 내부에서는 천장높이가 높은 곳은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였고, 기타의 부분은 말비계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림1.01] 기준선 설정도(안채)

2) 기준점

- 기본적으로 기단의 상면에 입면 및 단면실측의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수평을 측정해 나간다.

3) 규준틀의 설치

- 각목과 못, 실 등을 사용하여 4 귓기둥 밖에 'ㄱ'자형으로 설치하였고 규준틀 설치시 4귀의 직각은 트랜시트(Transit)로 측정하면서 수시로 보정하였다.

4) 기준선의 설정

- 기준선은 실측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써 건물의 내외를 연결시키면서 측정이 용이하도록 평면기준선과 수평기준선, 수직기준선을 설치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는 보조기준선을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평면기준선은 'ㄱ'자 규준틀의 기준선을 외부 기준선으로 하고 4 귓기둥에서 약간 띄어서 다시 하나의 외부 기준선을 설치하였다. 또한 트랜시트를 이용하여 외부기준선을 내부로 끌어들여 내부 기준선을 설정하였다.
- 처마의 안허리 측정은 추를 내려뜨려 측정하였다. 입면과 단면실측을 위한 수평기준선은 기둥의 상부와 하부의 두 곳에 건물 4면에 걸쳐 설치하고, 수직기준선은 각 기둥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의 전후좌우에 추를 내려 설치하였다.
- 지붕마루의 곡 및 높이 측정을 위해 용마루, 합각마루, 추녀마루에도 보조기준선을 설치하였으며 합각부의 실측을 위해서도 수평, 수직의 보조기준선을 설치하였다.

5) 실측기구

- 실측에 필요한 자는 3m, 7.5m, 30m의 법랑을 입힌 철제자를 사용하였으며, 곡재 및 부정형재의 실측에는 곡척 두 개를 합쳐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기울기나 침하 등은 트랜시트, 수준계, 물 수평 그리고 추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6) 실측

- 단위 구간별로 측정하고 전체를 확인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곡재나 궁글러진 부분은 곡척을 사용하였다. 기록은 대장을 만들어 일람표에 부재별로 수치를 기입하되 혼동이 가지 않도록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분류와 정리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7) 사진 촬영

- 전경, 원경 그리고 건물 각 부분의 상태는 슬라이드와 흑백 및 칼라 필름 및 디지탈카메라를 사용하여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였다. 특히 천장 속 등 외부에서 보이지 않거나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의 촬영에 주의하였다.

제2장. 안산과 부곡동의 일반환경

1. 안산지역
2. 인문 환경
3. 부곡동 지역



여 백

제2장. 안산과 부곡동의 일반 환경

1. 안산 지역

가. 위치

안산시는 경기도 남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다. 육지의 경계는 북으로 인천광역시・시흥시・안양시(만안구)와 접해 있고, 동으로는 군포시 군포동, 의왕시 초평동, 수원시 장안구와 접해 있으며, 남으로는 수원시의 권선구, 화성군의 매송면・비봉면・남양면・송산면・서신면, 충청남도의 당진군 등과 각각 접하고 있다. 바다에서는 서북쪽으로 인천광역시, 대부도 남쪽으로 화성군 우정면, 남쪽으로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과 접해 있다. 안산시의 각 방면별 접경과 행정구역은 [표2.01]과 같다.

[표2.01] 안산시 위치 (경도와 위도의 극점)

극단	지명	극점
동	안산시 사사동	북위 37° 17′ 33″/ 동경 126° 56′ 29″
서	안산시 북동 변도	북위 37° 17′ 30″/ 동경 126° 31′ 45″
남	안산시 풍도동 미육도	북위 37° 04′ 39″/ 동경 126° 28′ 01″
북	안산시 수암동	북위 37° 22′ 25″/ 동경 126° 53′ 02″

안산시는 경・위도상으로 동경 126°28′01″~126°56′29″, 북위 37°04′40″~ 37°22′26″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표 2-01).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우리나라 남북의 중간적 성격을 나타내어 기후・식생・토양 등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가옥 구조 등의 인문환경에서도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안산시의 시청 소재지는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이며, 서울에서 32.0km, 인천에서 37.5km, 수원에서 18.0km, 안양에서 19.0km 거리이다. 시간적으로는 이들 대도시로부터 30분 정도의 거리이다.

이와 같이 안산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대도시들과 가까워 오늘날 확대되는 수도권 인구와 기능을 분산・수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및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등의 개통에 따른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인구와 산업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나. 자연환경

1) 지형・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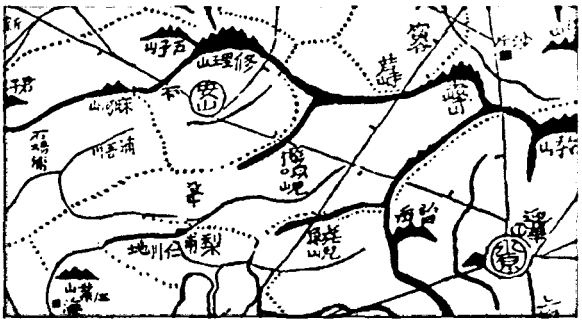
가) 지형

광주산맥에 속하고, 남쪽으로 뻗은 4개의 산줄기에 의해서 시역을 구분된다. 북서쪽 의왕시와 경계지역에는 광교산(582m)・백운산(564m)・바라산・형제봉 등으로 이루어진 해발고도 400m 이상의 남북방향 산지가 있다. 광주시 경안동 남쪽에서 정남 방향으로 뻗어 내리는 산지는 동부동을 두 갈래로 크게 가르는데 태화산(645m)・노고봉(574m)・발리봉・정광산・형제봉・쌍령산 등의 산이 솟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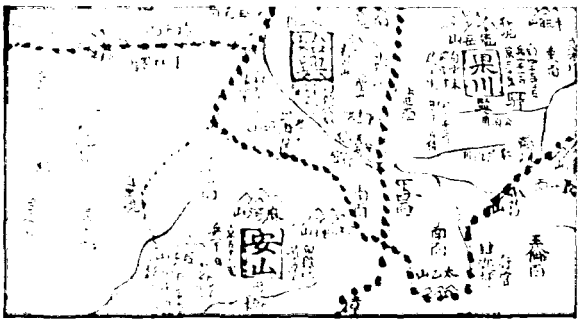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보아 산지가 남북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침식저지와 충적지들도 남북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가장 서쪽의 저지는 한강 지류인 탄천과 진위천의 지류인

신갈천이 형성한 충적지와 그 주위의 저위 침식구릉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이 저지대를 통과하고 있다. 중앙에 있는 남북방향의 저지대는 시역의 중심적 기능을 하는 곳으로 용인시청이 여기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광주행 국도와 남으로 안성행 국도가 지나간다.

자연환경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삶의 형태를 이루는 바탕이 된다면, 안산시의 자연환경은 안산의 지역적 특징을 형성하는 기저를 이룬다.



[그림2.01] 대동여지도(1860년대)



[그림2.02] 청구도(1860년대)

나) 지세

강원도 북부에서 남서로 달리는 광주산맥의 말단부 남쪽에 위치하며, 북동부는 비교적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해안을 따라 서부와 남부는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대부도를 제외한 안산시의 지세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해안으로부터 내륙에 이르기까지 해안에 인접한 해성충적지대(海性沖積地帶)와 잔류성구릉지대(殘留性丘陵地帶), 그리고 저산지대(低山地帶)로 나눌 수 있다. 해안을 따라 넓게 분포하는 평탄지대는 대부분 해성퇴적 기원의 충적물과 일부 하천변의 하성퇴적물(河性堆積物)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랜 동안의 꾸준한 간척사업에 의해 육지화 되었다.

해발 고도 40~100m에 이르는 저평한 구릉지는 시화공단 지역과 원곡동 · 선부동 일대, 그리고 시의 동쪽에 있는 사사동과 사동 일대에 분포한다. 저산 지대는 군포시와 안양시의 경계에 있는 수리산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안양시와 경계를 이루는 북동부의 수암봉(395m) 일대를 거쳐 한 줄기는 서진하여 시흥시와 경계를 이루는 마산(馬山, 246m)을 향하고, 다른 한 줄기는 남진하여 수원시에 있는 칠보산(七寶山, 239m)을 향해 뻗어 있다. 따라서 안산시는 전체적으로 안산천(安山川)의 상류 방향으로 점차 높아지는 북고남저(北高南低) 또는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세를 나타낸다.

안성군에서 용인군 · 수원시 · 부천시 · 김포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한남정맥(漢南正脈)은 한강의 남쪽 분수계가 되는데, 그 맥은 연속성이 약하고 고도도 낮지만 경기 지역 내에서 문화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리적 환경을 지니고 있다. 한남정맥은 조선시대의 산맥 분류 체계의 한 가지이다.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우리 국토의 등줄기를 이루며 지리산까지 뻗은 백두대간(白頭大幹)에서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이 갈라져 나오고, 한남금북정맥은 죽산 칠현산에서 그친다. 여기서 한남정맥이 시작되어 서북으로 뻗어 올라간다.

한강 남쪽의 정맥, 즉 한남정맥(漢南正脈)의 흐름을 보면, 죽산 칠현산→안성 백운산→양지 구봉산→대소곡돈현→양지 성륜산→수유산→용인 부아산→용인 보개산→용인 석성산→객망현→수원 광교산→사근현→광주 오봉산→안산 수리산→안산 오자산→인천 소래산→인천 성현→인천 주안산→부평 원적산→경명산→김포읍 북성산에 이르러 그친

다. 안산은 한남정맥의 서쪽에 위치하며, 안산의 수리산과 오자산은 한남정맥의 주요 봉우리를 이룬다.

이러한 안산의 지세를 「경기지(京畿誌)」의 안산읍지 '명산(名山)'조에서는 "수리산의 한 맥이 남쪽으로 굽어 돌아 군내면의 노적봉(露積峯)이 되어 성곶포(聲串浦)에서 그치며, 또 다른 한 맥은 북쪽으로 뻗어 초산면의 응봉(鷹峯), 잉화면의 마하산(麻霞山), 마유면의 군자봉(君子峯)이 되었으며, 와리면의 옛 소릉(昭陵)을 이루고 성두(城頭)에서 그친다."라고 설명하였다.

경기 지역에서 평야의 분포가 넓은 곳은 황해안과 접한 개성·파주·고양시 지역을 비롯해 김포·인천·시흥·안산·화성 지역과 남부의 평택 지역, 동남부의 이천·여주 지역 등이다. 특히 평택 지역과 경기 동남부의 이천·여주 지역은 풍화와 침식에 약한 화강암이 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야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환경이 바탕이 되어 충적지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농경지가 개척되었고, 그에 인접한 침식 평야에는 많은 촌락들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성 지형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은 데다 집수면적(集水面積)이 큰 산지가 적기 때문에 풍화물 침식 지형이 넓게 분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도시의 발달이 미약한 편이었다. 그러나 각종 용수를 상수도에 의존하게 되면서 풍화물 침식 지형이 넓게 분포한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의 도시화나 도시의 평면적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의 발전, 고양시의 일산이나 안산 지역 일대에 신도시가 건설된 것은 지역의 풍화물 침식 지형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업화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에는 과거 임야나 묘지 또는 밭으로 이용되던 지역에 대규모의 주택단지가 조성되거나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인공구조물이 들어서고 있다. 이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형적 조건은 지표의 물이 지하로 잘 스며들고 습하지 않으며 홍수시에도 침수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풍화물 침식 지형은 배수가 잘 되는 데다 침수의 위험이 거의 없고, 지표의 기복을 쉽게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택지 개발이나 공업단지 조성 등에 매우 적합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된 경기 지역에서는 도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밭이나 임야로 이용되던 구릉성 침식지가 주택지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구릉화된 침식지는 배수상태가 양호한 데다 구릉성 침식지를 깎아내어 토지를 평탄화시키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안산시 지역은 남부 해안의 중앙부와 반월천 연안에 충적지가 발달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구릉성 산지와 풍화물 침식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안산 지역의 도시 발달은 충적지 주변의 풍화물 침식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지역의 도시화는 처음에는 서남부의 풍화물 침식지와 간척지를 중심으로 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그 북부의 침식 평야에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해안의 공업단지와 내륙의 주택단지의 중간 지대에는 구릉성 저산지가 분포하고 있다. 주택지구가 구릉성 산지의 북쪽에 입지한 것은 남부 해안 지역의 공업지대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북쪽의 주택지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후 안산시의 도시화와 시가지의 수평적 확대는 충적지 주변의 풍화물 침식지를 따라 진행되어, 현재는 저습한 충적평야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 하천(河川)

주요 하천은 북류하여 한강으로 유입하는 금령천, 서쪽에서 평택시를 지나 분향만으로 유입하는 구흥천, 동남쪽으로 흘러 남한강으로 유입하는 청미천으로 크게 구분된다.

2) 기후(氣候)

우리나라는 기후상 온대의 중위도 편서풍대에 속한다. 그러나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같은 위도상의 다른 서구 지역과는 여름과 겨울에 따라 기후 특징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안산시는 이러한 기후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한랭 건조하고,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 고온 다습한 특징을 지닌다.

한반도의 중서부의 안산시는 온난한 남부 지방으로부터 대륙성의 북부 지방으로 옮아가는 지대에 속하여 있다. 특히 안산시는 수심이 얕고 내륙성인 서해와 접하고 있으며, 지형상으로는 경기의 저평한 평야 지대에 속하는 소규모 구릉성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겨울 기온이 연안을 따라 낮은 특색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안산시는 온난습윤기후구(Cf)로부터 한랭동계소우기후구(Dw)로 옮아가는 점이 지대에 위치하여, 한국의 소기후구분상 중부서안형(DMW)에 속해 있다. 중부서안 기후형이 나타나는 지역은 서해에 접한 한반도 중서부의 평야 지역으로, 멸악산맥 남쪽에서부터 차령산맥의 북쪽까지 이른다. 이 지역은 대개 해발고도 500m 이하의 평야지역으로 곳곳에 구릉이 남아 있으며, 북부서안 기후형과 남부서안 기후형과의 점이 지역으로서 위도에 따른 기온 변화와 식물 분포상의 변화가 뚜렷하다. 연평균 기온은 10℃ 내외이고 1월 평균 기온이 −3.5℃ 가량이다.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이 탁월하여 해안에는 파도가 높을 때가 많다. 북부기후형 지역과 남부기후형 지역과의 점이 지대를 이루어 이들 지역의 식물이 혼생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이모작이 가능하다.

가) 기온

최근 30년 간 안산시의 연평균 기온은 11.1℃로서 전국 평균인 12.6℃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중 최한월은 1월로 평균 기온이 −3.9℃이고, 최난월은 8월로서 평균 기온이 25.1℃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거의 30℃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인천의 11.4℃, 서산의 11.6℃, 서울의 11.8℃ 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기온의 계절적인 변화는 겨울과 여름의 기온 차가 심하며, 월별간 변화는 초봄인 3월과 4월에 7.2℃, 늦가을인 10월과 11월 사이에 7.3℃로 가장 큰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봄과 늦가을의 환절기에 나타나는 기압 배치의 역전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밤낮의 기온 차(일교차)가 커서 복사무에 의한 안개 일수가 많고 월교차도 심하다. 월평균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달은 1월~2월로, 연중 2개월이 평균 기온 영하를 기록하고 있다.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간의 연평균 기온 변화를 살펴보면, 최고기온은 1994년의 13.2℃, 최저기온은 1986년의 10.7℃이었으며, 10년 동안의 평균 기온은 11.8℃로 앞서 언급하였던 11.1℃보다 0.7℃ 정도 상승하였음을 보인다.

나) 강수량

1,850㎜내외로 많은 편이나 연강수량의 편차가 심한 편이며 연평균 기온은 11.7℃, 1월 평균기온 −2.5℃로 연교차도 심한편이다.

3) 지질(地質)

1972년 당시의 국립지질조사소에 의해 간행된 「남양지질도폭(南陽地質圖幅)」 설명서에 의하면 안산시 인근 지역은 노년기 지형으로서 경기 평야의 중서부에 위치하여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중앙을 동북 방향으로 발달하는 광주산맥의 서남단에 위치한다. 이 지역의 지형은 지형적 특징에 따라 이대분(二大分)이 가능한데 이는 구성암석 및 지질구조에 기인한다. 첫째, 안산시 동부의 산지지역은 대부분이 편암(片岩) 및 편마암류(片麻岩類)로 구성되어 있고, 주릉(主陵)은 남북방향으로 발달하며, 지릉(支陵)은 북동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 특히 풍화에 강한 석영편암(규암)층이 분포한 지역은 험준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둘째, 안산시와 시흥시 부근의 서부해안지역은 대부분이 구릉성 산지를 형성하며, 침식해안을 이루고 있다. 안산과 시흥 신도시 건설 이전에는 활발한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넓은 갯벌 지대가 육화되어 우리나라 굴지의 염전지대를 이루었고, 그 일부는 이미 전답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구릉성 산지도 모두 절개·평지화되어 안산 시가지와 반월 및 시흥공업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대형 방조제 건설에 따른 인공 시화호가 형성되어 있다.

안산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기만 일대는 한반도의 중앙에서 남남서 방향으로 뻗어 나간 광주산맥의 서남단에 위치한 해안 지역으로서, 내륙은 구릉성 산지가 발달한 노년기 지형 특성이 뚜렷하고, 해안에는 이들 구릉성 산지의 절단과 해식애(海蝕崖)의 발달이 현저한 암석해안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또한 조차가 커 해안을 따라 조차 간만의 차가 나타나는 조간대(潮間帶)가 넓게 발달되어 있으며, 이 조간대는 대부분 갯벌로 이루어진 간석지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해안선은 조차가 큰 환경을 반영하여 구릉성 산지와 만나는 암석해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입자가 작은 모래의 간석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일부 해안 지역과 섬 지역에서는 파랑의 작용과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에 해빈과 해안사구(海岸砂丘)가 나타나기도 한다.

2. 인문 환경

가. 역사적 변천

1) 고대

선조들의 삶이 시작된 것은 대략 신석기 시대부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은 시흥시로 편입된 정왕동의 오이도(烏耳島)에서 발굴된 조개무지와 빗살무늬토기의 조각을 비롯해 초지동에서 발견된 조개무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양상동과 월피동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5기와 삼국 시대의 토기 조각이 발굴되었으며, 군자동 뒷산 서쪽 구릉지대에서는 민무늬토기 후기에 속하는 검은간토기 조각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목내동에서는 삼국 시대의 성터 등이 발굴되어 이미 이곳이 상당한 인구를 포용하였던 외적 방어용 군사기지가 있었다.

[표2.02] 안산시의 역사적 변천(年表)

시 대	연 대	주 요 사 항
고 대	신석기	조개더미(초지동)
	청동기	고인돌(양상동·월피동)
삼 국	고구려	장항구현(獐項口縣)
	신라 757년(경덕왕16)	장구군(獐口郡)으로 개칭. 한주에 소속
고 려	940년(태조23)	안산군(安山군)으로 개칭
	1018년(현종9)	안산현(安山縣)으로 개편, 수주의 속현
	1308년(충렬왕34)	지군사로 승격
조 선	1463년(세조9)	강희맹이 중국에서 연꽃시를 가져 와 심음. 연성이라고 함. 숙종·영조때 이익이 첨성리에서 후진 양성에 주력
	1895년	인천부 안산군
	1896년	경기도 안산군
일제강점기	1914년 3월	금천군· 과천군을 통합하여 시흥군(始興郡)으로 개편
	1919년 3월30일	독립만세 시위
대한민국	1976년 12월	경기도 반월신도시 건설 결정
	1977년 1월	경기도 반월 도시개발지원 사업소 설치
	1979년 8월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 설치, 반월지소· 수암지소· 군자지소 설치
	1986년 1월1일	안산시 승격(법률 제3798호)

2) 삼국시대

삼국 시대에는 서해안의 요충지인 남양만에 이르는 초지동에 별망성(別望城)을 쌓아서 삼국 쟁패의 거점이 되었으며, 또한 당나라 사신이 상주하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안산 지역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유하고 있던 5세기 말부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장항구현(獐項口縣) 또는 고사야홀차현(古斯也忽次縣, 左斯也忽次縣)로 불리었다.

신라 진덕왕이 장구현으로 고쳤으며 신문왕때 장구군(獐口郡)으로 승격되었다.

3)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 때인 757년(경덕왕16) 9주(州)를 두고 군·현으로 명칭을 고칠 때 장구군(獐口郡)으로 개칭되어 한주(漢州)의 속군으로서 태수(太守)가 배치되는 중요 지역으로 승격되었다. 장구군(獐口郡)을 설치했던 곳의 위치는 고종 시대에 발간된 「안산군읍지」 등의 문헌에 장곡(獐谷)으로 기록된 곳으로, 지금의 장상동 노리울(노루혈;獐口穴) 밤석골에서 고깔봉에 이르는 큰골 부근으로 추정된다.

이때 인근의 화성은 수성군(水城郡)으로, 남양은 고구려 때 당성군(唐城郡)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신라 경덕왕이 당은군(唐恩郡)이라 개칭하였던 것을 흥덕왕 때 폐하고 진(鎭)을 설치한 바 있다. 시흥은 곡양현 또는 율진군·장구군(獐口郡)으로 개칭되었는데, 안산의 신라 때 이름인 장구군(獐口郡)과는 일정한 상관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4) 고려시대

940년(태조23)에 안산현(安山縣)으로 고쳐서 오늘날과 같은 지명이 되었는데 인근의 시흥은 곡양현에서 금주(衿州 또는 黔州)로, 과천은 율진군에서 과주(果州)로 각각 그 이름이 함께 바뀌었다. 지방제도 개편 때는 양광도남경유수(楊廣道南京留守;楊州)에 소속된 수주(水

州;水原)의 속현으로서 수주(水州:현재 수원) 안산현(安山縣)이 되었다가, 뒤에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감무(監務)를 두는 고을로 승차되었다. 시흥은 같은 해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의 속현이 되었다가 안산보다 훨씬 뒤인 1172년(명종2) 감무가 파견되는 고을로 승격되었다.

1271년(원종 12)에는 몽고군이 선단을 이끌고 대부도 등 안산 지역에 침입하자 주민들은 민병을 조직하여 이를 물리쳤다. 이때 몽고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주하였는데, 부사(府使) 안열(安悅)이 이 전쟁을 마무리 지어 승리로 이끌었다. 이 같은 주민들의 공로로 안산현이 소속된 수원부는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로 승격되었고, 부사 안열은 도호부사로 승진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별망성의 항몽 유적과 함께, 고려 시대에 외세와 맞서 싸운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고 있다.

안산이 지군사(知郡事)로 승격된 것은 1308년(충렬왕34)의 일이었다. 문종 임금이 외가인 이곳에서 탄생한 때문이었다. 문종의 외조부는 안산(安山) 김씨(金氏) 시조의 아들(시조는 肯弼)인 김은부(金殷傅;945~1017)인데, 그는 성종・목종・현종 3대를 섬긴 중신(重臣)이었다. 안산이 지군사로 승격됨과 동시에 김은부는 안산군개국후(安山郡開國侯)로 추증되었다.

고려 때의 안산은 삼국 시대에 이어 중국으로 가는 중요한 뱃길의 출발지였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의 중심지였고, 당화(唐貨)가 쌓이는 부촌(富村)의 면모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잿머리(城頭) 포구는 큰 배들이 오갈 수 있는 외항으로 축조되었으며, 무역에 종사하기 위하여 체류하는 당인(唐人;중국인)들이 점차 늘어나 당인촌(唐人村)을 형성할 정도이었다.

지군사로 승격된 안산은 이후 화성과 시흥, 그리고 과천의 승강(昇降)에 따라 약간의 변모를 보이기는 하나 조선 초기까지 별다른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오늘날의 학교와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향교가 안산에 세워진 것은 안산이 지군사로 승격된 1308년 직후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지군사로 승격되면 관아의 건물 칸수와 향교・군영 등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이 상례이었기 때문이다.

5) 조선시대

안산이란 지명 외에 세조 때부터는 연성(蓮城)이라고도 흔히 불리었는데 이는 1463년(세조 9) 문신이며 농학자인 강희맹(姜希孟)이 중추원부사로서 진헌부사(進獻副使)가 되어 명나라 남경에 갔다가 귀로에 전당(錢塘)에서 연꽃 씨를 가지고 와서 시흥 관곡지(官谷池)에 시험재배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그 뒤부터는 안산의 별호를 연성(蓮城)이라 했다고 안산군읍지에 기록되어 있으나 1400년(정종2)에 안산김씨인 김정경이 박포의 난을 평정하고, 좌명공신에 올라 연성군(蓮城郡)에 봉군되었던 점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연성으로 불리운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413년(태종13) 전면적인 지방통치 조직의 개편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실시된 8도제의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 예속, 안산군으로 되어 이후 군수가 파견되기에 이르렀다.

안산군(安山郡) 서남쪽 30리 되는 곳에는 초지량영(草地梁營)이었고, 1656년(효종7)에 이곳 초지(草芝)를 강화도로 옮기면서 종래 안산의 초지진을 1초지, 강화를 2초지라

고 부를 만큼 서해안의 주요 요새지로 삼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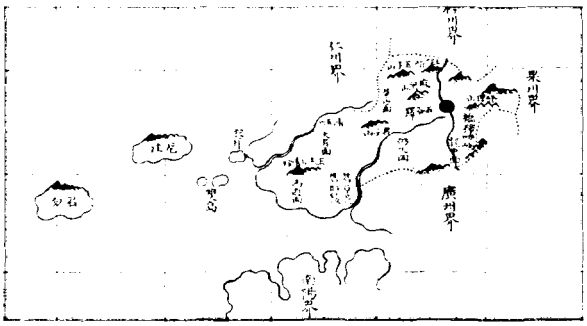
1895년(고종32)에 인천부(仁川府)에 딸린 한 군이 되었고, 다음 해에 경기도의 4등군(4等郡)이 되었다. 잠시 인천부의 속군(屬郡)으로 존치되었던 안산군은 이듬해인 1896년 1월 11일 단행된 전국 규모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독립된 군으로 일신(一新)되었다. 이는 1894년 7월 6일 반포된 갑오개혁(甲午改革)에 의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기관의 이름과 기능을 일시에 신식(新式)으로 바꾸는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때 국왕이 직접 대·소 관료와 국민에게 반포한 윤음(綸音)에는 모든 낡은 것을 버리고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새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힘찬 결의로 채워져 있었다.

이에 따라 1895년 2월 2일 반포된 '학교 설립과 인재 양성에 관한 조칙'에 의하여 이때까지도 건재했던 우리의 안산향교 안에 심상학교 3년제가 잠시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이로부터 16년 후인 1910년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국권이 상실되는 치욕을 당해야 했다.

비극적으로 전개되었던 풍운(風雲)의 민족사 속에서 서해안의 주요 포구(浦口)였던 안산 역시 온갖 시련을 감내해야 했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을 강제로 체결하기 위해 일제는 1년 전, 즉 1904년 2월 8일 자기 나라 군대(일본 육군)를 인천·남양·군산 등 서해안으로 상륙시키는 과정에서 한 떼의 일군(日軍)이 대부도에 상륙하여 목마(牧馬)를 강제 징발해 간 사건이 있었다. 이때까지도 대부도에는 사복시(司僕寺) 직할의 국립목장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중립 선언도 무시하고 서울에 진주하여 조약 체결에 무력시위의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1. 시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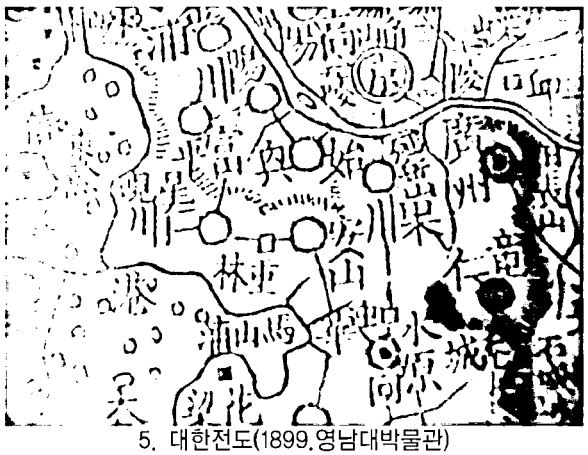
2. 안산군 지도(팔도군현지도1767~76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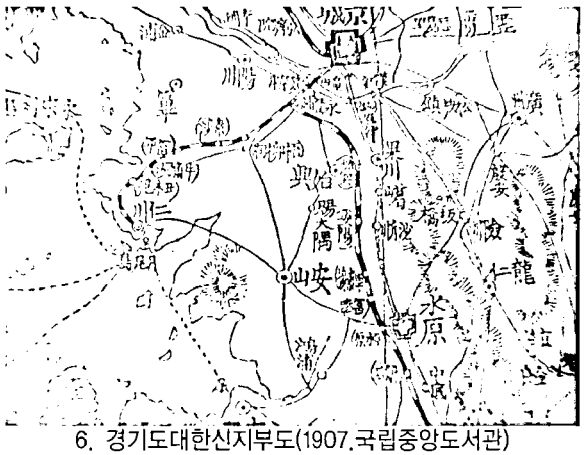
3. 고려도동비여도(17세기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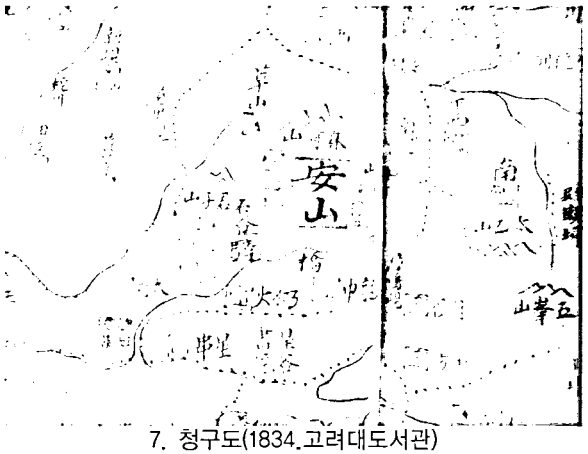
4. 동국팔로분지도(18C후반.성신여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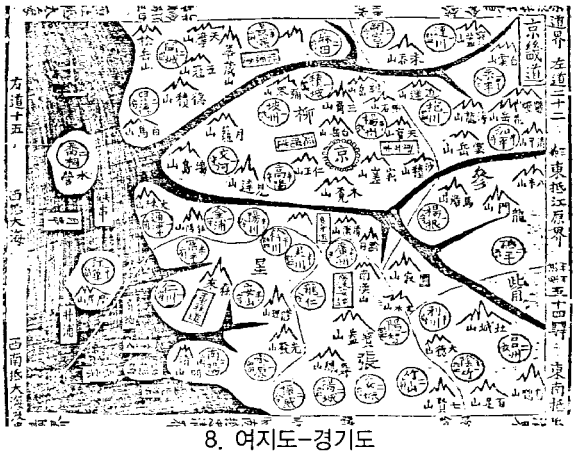
5. 대한전도(1899.영남대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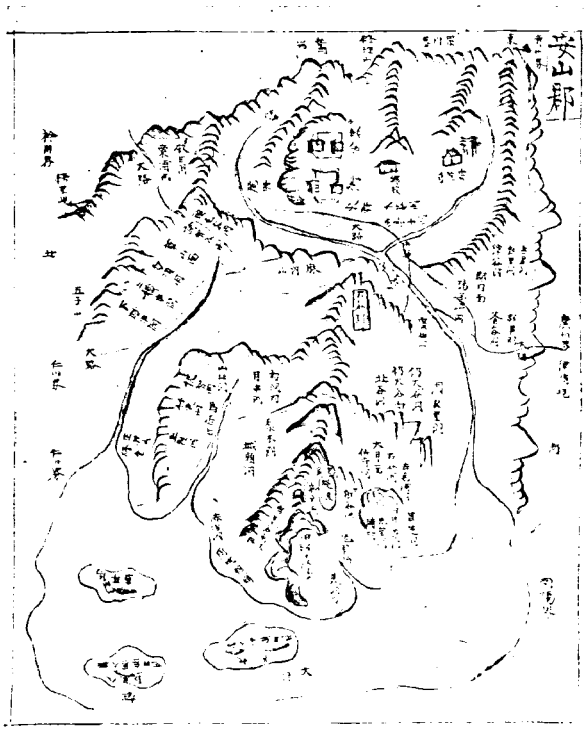
6. 경기도대한신지부도(1907.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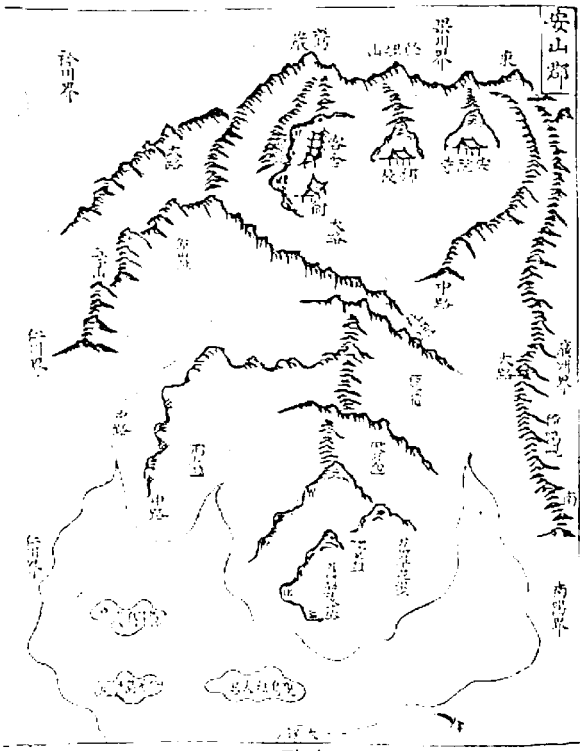
7. 청구도(1834.고려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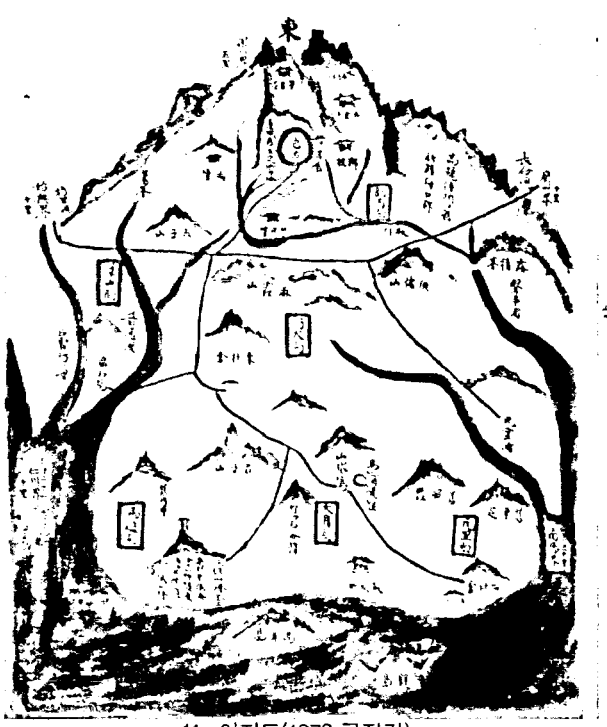
8. 여지도-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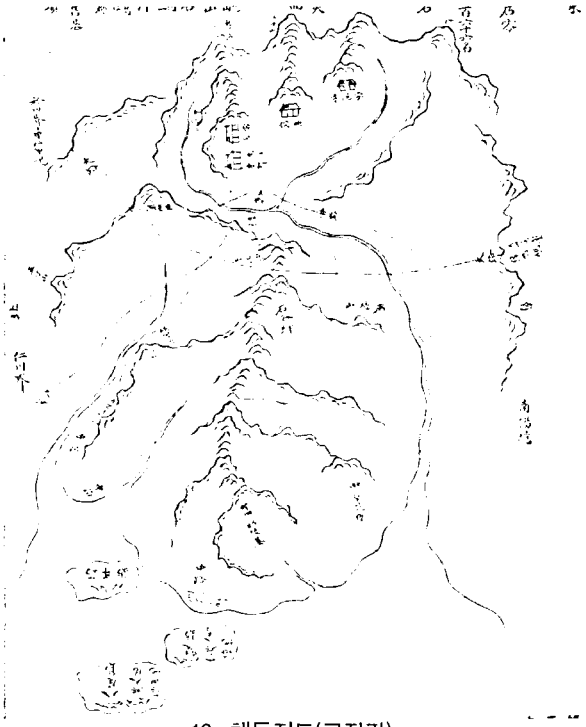
9. 지승(地乘) 〈奎 15423〉 경기도 안산군 (安山郡)



10. 광여도



11. 여지도(1872,규장각)



12. 해동지도(규장각)

[그림2.03] 안산의 옛지도

6) 일제강점기

1910년 일본은 강제로 국권을 침탈한 후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였는데, 1914년에 시흥, 과천, 안산의 3개군이 시흥군(始興郡)이란 명칭으로 통합되었다. 이 때 면리의 폐합도 이루어졌는데 1천 년 가까이 지켜 내려온 안산군의 이름조차 빼앗겨 버렸다. 군내면·인화면·초산면이 수암면으로, 마유면·대월면·와리면이 군자면으로 폐합되어 시흥군에 합속되고, 월곡면·북방면·성곶면은 반월면이 되어 수원군 관할이 되었다

근대사와 관련하여 안산을 크게 빛낸 사건은 1919년 3·1독립운동이었다. 안산시 부곡동에서 조선조 숙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정재 류명현(靜齋柳命賢;1643~1702)의 7대손으로 태어난 류익수(柳益秀;1870~1926)는 3·1운동이 일어나자 3월 30일 수암면·군자면·반월면과 화성 일대의 동지들을 규합하여 홍순칠(洪淳七)·김봉문(金奉文)·윤동욱(尹東旭)·강경식(姜敬植)을 지역대표로 삼아 일제히 봉기, 안산읍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또 하나 빛나는 역사로는 소설 「상록수」와 그 실제 주인공 최용신(崔容信) 의 구국운동이다. 최용신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가난과 무지와 절망 속에 빠진 민중들을 위해 문맹 퇴치를 통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는데, 이의 산실(産室)이 바로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작품 배경이 되었던 청석골, 즉 우리 시의 샘골[泉谷]이다. 지금도 이곳에는 당시 강습소로 사용되었던 천곡교회가 있고, 교회 옆 언덕에는 소설의 주인공 채영신의 실제 모델이었던 최용신의 묘소가 있다.

최용신은 본관이 경주이며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났다. 원산의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협성여자신학교 농촌과에 재학하면서 농촌계몽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31년에는 학교를 중퇴하고 농촌운동에 전념할 것을 결심, 감리교 선교사 밀러 목사의 후원을 받는 한편 와이엠시에이(YMCA) 소속으로 처음 파송되어 온

곳이 안산시 샘골이었다. 처음에는 야학으로 시작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식 교사를 지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 어린이들을 가르쳤다. 교육 내용은 문맹 퇴치를 위한 한글강습뿐만 아니라 산술·보건 및 농촌생활에 필요한 상식과 기술을 폭넓게 교습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국심과 자립심을 북돋우는 의식 계몽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당시 김활란(金活蘭) 등은 이와 같은 최용신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34년 일본의 고베신학교(神戶神學校)에 유학했으나 신병으로 곧 귀국하여 샘골에서 휴양하면서 농촌교육을 계속하다가 27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마쳤다.

7) 현대

1976년 시흥군의 수암면, 군자면과 화성군의 반월면 일부가 반월신공업도시 (半月新工業都市)로 조성되어지면서 해마다 인구가 증가되어 1986년 1월 1일 시승격과 함께 안산의 뿌리를 찾아 안산시로 부르게 되었다

3. 부곡동(釜谷洞) 지역

안산시 동북부에 있는 마을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속하는 법정동이자 행정동이다. 동쪽으로 군포시, 서쪽으로 수인산업도로를 경계로 월피동, 남쪽으로는 일동, 북쪽으로 장상동과 이웃하고 있다.[1)]

가. 변천

1) 행정변천

조선 시대에 안산군 군내면 부곡리(安山郡 郡內面 釜谷里)와 신리(新里)였다가, 1914년 3월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수암면 부곡리(始興郡 秀岩面 釜谷里)로 되었고, 이어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따라 안산시 부곡동(安山市 釜谷洞)으로 되었다.

안산시가 발전함에 따라 1991년 11월 18일 안산시 조례 제416호에 의거, 와동에서 월피동으로 분동이 되었으며, 1995년 3월 2일 안산시 조례 제605호에 의거하여 월피동과 부곡동으로 분동이 되었다. 1996년 11월 18일 안산시 조례 제696호에 의거, 10개 통 45개 반이 증설되어 총 32개통 135개 반으로 구성, 2002년 11월 1일 구제 실시에 따라 상록구에 속하게 되었다.

2003년 11월 17일 안산시 조례 1093호에 의거 4개통 6개반이 증설되어 36통 141반으로 구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곡동은 2009년 6월 30일 현재 총 8,403가구에 22,152명(남자 11,331,여자 10,821)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36개통 141개 반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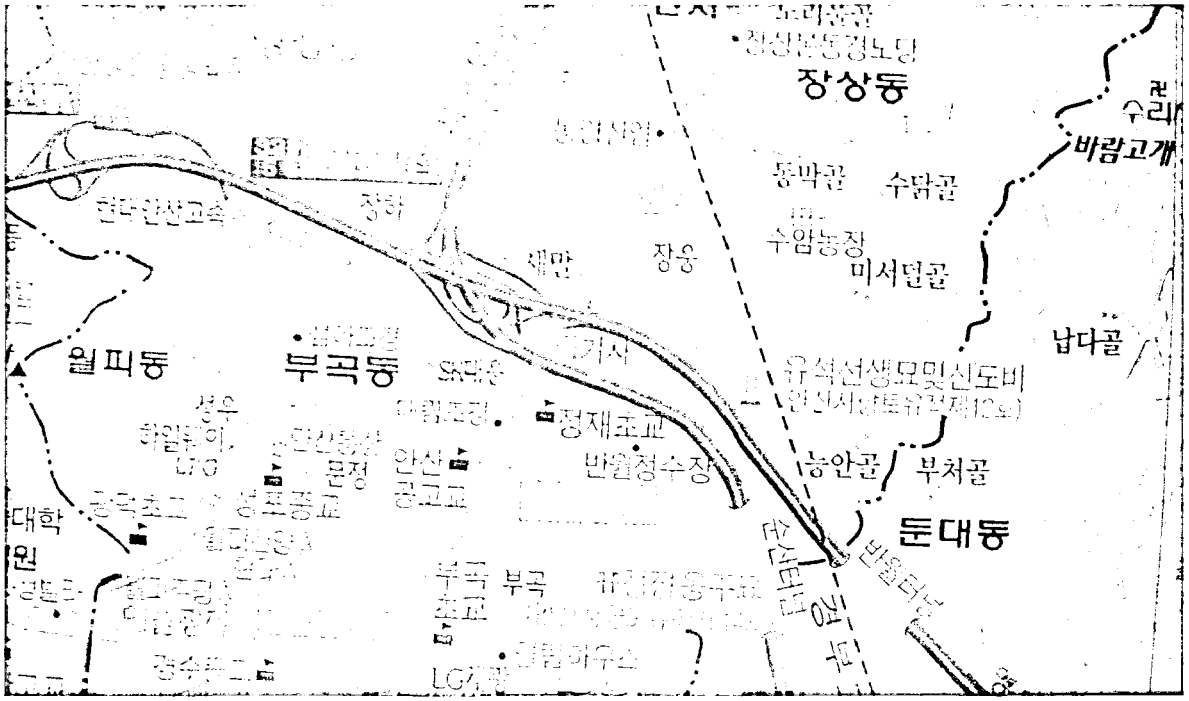
2) 전통 마을

진주류씨가 오래전부터 세거해 오던 곳으로 개멀·벌터·새마을·시랑골·신촌·옹기마을·정재골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으나 남부 지역은 시랑골·신촌 등이 폐동되어 택지 및 양궁경기장·제일스포츠센터 등이 들어섰고, 북부 지역은 개멀·벌터 등의 자연마을이 남아 있지만 안산~신갈 간 고속국도가 마을 중앙을 관통하고 있다. 안산시가 발전함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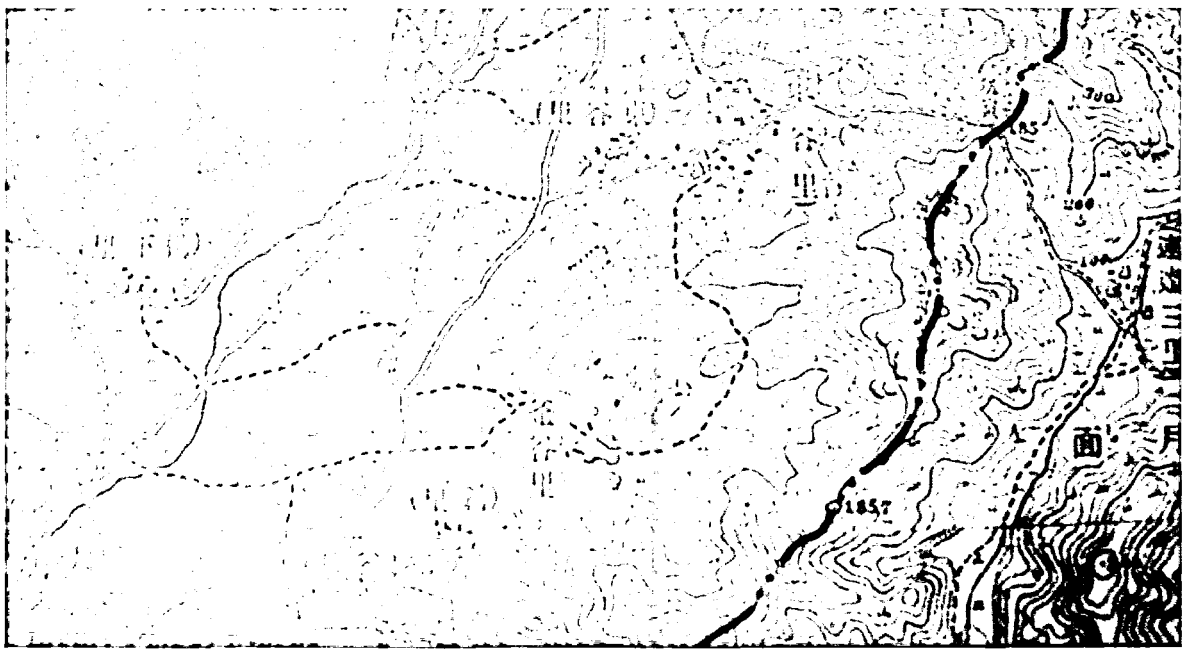
1) 안산시,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재인용)

안산시 동부 외곽 지역에 위치하여 수인산업도로와 영동고속국도·서해안고속국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넓고 길게 조성된 성호공원과 단원조각공원이 동네 앞에 조성되어 있고, 수리산 자락이 넓게 동네를 감싸고 있는 전원적인 주거 지역이다.

주요 기관 및 시설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립 어린이집과 노인정 4개소,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등이 있고, 부곡동 뒷산에 산책로 및 수리산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



[그림2.04] 부곡동 인근지도(2010)
(영진문화사지형도,1/50,000)



[그림2.05] 부곡동 지도 (1918)
(조선총독부, 근세오만분지일지형도,1/50,000)

나. 대표적 묵향(墨香)과 예향(藝香)인 부곡동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한때 묵향으로 불린 곳이 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이다.

1) 기호남인의 대표 문중 진주류씨 가의 터전

부곡동에서 누대에 걸쳐 살아온 진주류문(晋州柳門)은 17세기 후반 기호남인 3대 가문 중의 하나이다.[2)]

진주류씨 문중은 선조로부터 받은 넓은 사패지(賜牌地)와 안산 바닷가 어염권을 기반으로 이곳에 세거해 왔으며,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류적이 선조의 부마가 된 데 이어 조카 류명견(柳命堅:1628~1707)· 류명천(柳命天:1633~1705)· 유명현(柳命賢:1643~1703) 등 3형제가 판서에 오르는 등 한때 진주류씨 문중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현재에도 이러한 문중이 흔적은 청문당과 경기도 전통명가로 꼽히는 경성당(竟成堂)이 매미골에 가까운 거리에 이웃하여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상록구 부곡동 산50~40번지에는 진주류씨 가의 선영(先塋)이 있었다. 류적과 정정옹주의 묘소(안산시 향토유적 제14호)를 비롯한 여러 분묘가 자리하고 있다.

2) 조선후기 4대 만권당[3)]의 하나-청문당

진주류씨 대종가인 청문당에는 1만 권의 서책이 저장된 만권루(萬卷樓)가 있었다.

조선 후기 청문당의 만 권에 이르는 서책에 대해서 여항(閭巷)에 까지 알려지자 길거리의 아동조차 "원컨대 우리들 소원은 류감사 댁 서고의 좀 벌레가 되어 만 권 서를 배불리 먹고 싶네.[公嘗貯萬卷詩書 伊時童謠 吾願爲柳監司宅魚 飽食萬卷書 野史載之]"라는 표현이 시중에 떠돌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류씨 집에서 「삼국유사」 · 「광주지(廣州志)」 · 「명사말권(明史末卷)」 · 「속통고(續通考)」 등 책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류명현의 손자인 류경종(柳慶種)에게 썼던 사실이 그 한 사례가 있고,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학자로 손꼽히는 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1712~1791)[4)]과 관련된 일화도 남아 있다.

---

2) 류명천(柳命天:1633-1706)대에 조선 후기 기호(畿湖) 남인 3대 가문인 목래선(睦來善:1617-1704,좌의정)의 사천목씨(四川睦氏)와 민점(閔點:1636-1694,우의정)민희(閔熙)· 민암(閔黯)의 여흥민씨(驪興閔氏)와 더불어 안산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가문이다.

3) 조선 후기 4대 만권당은 이정구(李廷龜,月沙) 고택과 이인엽(李寅燁)· 이하곤(李夏坤) 부자의 희와재(時窩齋), 그리고 부곡동에 소재하는 유명현(柳命賢)의 경성당(竟成堂)과 청문당을 일컫는다. 16세기 조선 중기에서부터 18세기에 이르는 동안 조선의 4대 만권당 중 두 곳이 이곳 안산에 있었다는 강준흠(1768~ 1833)의 증언은 한 마디로 안산의 사대부문화를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준흠은 정조 때의 초계문신이며 우승지를 지낸 안산 사람으로 강희맹의 후손이다.

4) 순암 안정복(安鼎福(順菴,;1712~1791년)
조선 후기 안산 지역에서 활동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백순(百順), 호는 순암(順庵)· 한산병은(漢山病隱)· 우이자(虞夷子)· 상헌(橡軒). 아버지는 오위도총부부총관을 지낸 안극(安極), 어머니는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이익령(李益齡)의 딸, 처는 창녕성씨(昌寧成氏)로 성순(成純)의 딸이다.
안정복은 1712년(숙종38) 12월 25일 충청도 제천에서 출생하였다. 4세 때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 건천동(乾川洞) 외가에서 살았다. 이후 전라도 영광과 울산 등으로 옮겨가며 생활하다가 25세 때인 1736년(영조12) 경기도 광주 경안면 덕곡[현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터골] 선영 곁으로 옮겨왔다. 덕곡에 우거하면서 「성리대전(性理大全)」, 「심경(心經)」 등 주자서를 독서하였다.
1738년 목민관의 지침서로 「임관정요(臨官政要)」의 초고를 저술하였다. 1740년에는 「하학지남(下學指南)」을 저술하였고, 1741년 「내범(內範)」을 저술하였다. 1746년 안산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성호(星湖) 이익(李瀷)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면서 뒤늦게 이익의 문인이 되었으며 이후 이익의 학문을 착실하게 전수함은 물론, 이미 이익 문하의 학자들과도 폭넓은 학문 교류를 하였다.
이후 안정복의 학문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38세 때인 1749년 3월 이익의 추천을 받아 동몽교관에 제수되고 같은 해 5월 후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같은 해 11월 만녕전참봉을 임명받고 12월에 부임하였다. 1751년 이후에는 의영고봉사를 비롯해 정릉직장(靖陵直長), 귀후서별제, 사헌부감찰 등을 지내다가 부친상을 당하여서 다시 덕곡에 칩거하면서 「동사강목(東史綱目)」

그 옛날 기호 남인의 학문적 기반으로 명공거관(名公巨官)들이 제 집인 양 드나들며 매화나무 늙은 등걸 밑에서 만 권의 책과 함께 시·서·화를 벗을 삼아 매화음(梅花吟)을 즐겼던 조선의 4대 만권당(萬卷堂)으로 불리던 청문당도 지금은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다만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3) 청문당에서의 문화활동

가) 문중

강세황의 처남인 해암(海巖) 류경종(柳慶種:1714~1784)은 조선 후기 안산의 문화를 꽃피운 주역이었다.[5] 현재 정재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오교촌장(午橋村莊)의 주인이었던 류경종은 안산 일대의 넓은 사패지(賜牌地)와 일찍이 선조로부터 하사받은 바닷가의 어염권에 의하여 축적된 자산을 이익(李瀷:1681~1763)[6]의 문하에 대한 지원과 '안산

을 편찬하였다. 1772년 세자익위사익찬(世子翊衛司翊贊)에 제수되어 왕세자[뒷날의 정조] 교육에 참여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9월 목천현감(木川縣監)에 임명되어 2년 6개월 동안 봉직하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1783년 돈녕부주부를 거쳐 장릉영(長陵令)을 지냈고, 1784년에는 의빈부도사와 세자익위사익찬을 잠시 역임하였다. 안정복은 노론 천하인 1790년에 종2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으며, 1791년 7월 20일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안정복은 천부적인 자질이 온화하고 순수하였으며, 정신과 풍채가 깨끗하고 밝았다.

문인 황덕길(黃德吉)은 「순암선생행장(順庵先生行狀)」에서 안정복의 학문 세계에 대해 "선생은 학문을 함에 있어서 먼저 본원(本源)을 함양하였으며, 특히 성찰(省察)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였다. 그리하여 학문과 사변(思辨)에 있어서 독실하게 하고 시청(視聽)과 언동(言動)에 있어서 부지런히 하면서, 순박하고 진실한 바탕 위에서 순서 있게 차근차근 공부해 나갔다.

정밀한 의리와 요약된 경지에 이르러서는 명백하고 광대한 근원을 분명하게 보았다. 그러므로 크게는 천지와 음양의 운행을, 세밀하게는 새와 물고기, 동물과 식물의 모든 사물을, 멀리는 고금의 치란(治亂)과 인사(人事)의 변천을, 가까이로는 성정(性情)의 은미함과 일상생활의 동정(動靜)과 어묵(語默) 등에 이르기까지 우주 안의 모든 사물의 소이연(所以然)의 이치와 소당연(所當然)의 법칙이 만 갈래이면서도 근본은 하나인 것을 두루 보고 하나로 관통하여 절충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라고 평하였다.

안정복은 정통 유학에 바탕을 두고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여 당시 성호학파 내에서는 일부가 양명학이나 천주교에 심취한 것과는 달랐다. 당시 조정에서 천주교나 양명학에 대한 탄압의 기미를 보이자 안정복은 성호학파의 붕괴를 막고 학자들의 신상을 걱정하여 양명학이나 천주교로부터 손을 떼도록 온갖 회유와 설득을 다하였다.

그러나 당시 젊은층의 서양 문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혁사상을 꺾을 수는 없었고 이를 염려한 조정에 의한 천주교 박해가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1763년 이익이 타계한 뒤 이병휴(李秉休)와 윤동규(尹東奎) 등의 성호 문인의 원로들마저 각각 1766년과 1773년 세상을 떠남에 따라 안정복이 원로로서 성호학파를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시문집으로 『순암선생문집(順庵先生文集)』이 있다. 주요 저술로는 경학과 관련된 「하학지남(下學指南)」을 비롯해 규중의 규범을 기록한 「내범(內範)」, 옛 사람들을 논한 「희현록(希賢錄)」, 예학을 정리한 「가례집해(家禮集解)」, 주자의 춘추필법에 바탕하여 저술한 역사책인 「동사강목(東史綱目)」 등이 있다. 기타 「시명물고(詩名物攷)」, 「홍범연의(洪範演義)」, 「잡괘설(雜卦說)」, 「소학강의(小學講義)」, 「사감(史鑑)」, 「열조통기(列朝通紀)」, 「임관정요(臨官政要)」, 「광주지(廣州志)」, 「목주지(木州誌)」 등의 저술이 전한다.

1801년(순조1) 천주교 탄압에 앞장선 노론 벽파(僻派)로부터 천주교 비판의 공을 인정받아 정2품의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광성군(廣成君)에 추봉되었다. 이런 이유로 안정복은 성호학파의 남인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1871년(고종 8) 3월 문숙(文肅)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묘소는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텃골에 있다.

[참고문헌] 「순암선생문집(順庵先生文集) 「안산시사」(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5) 청문당이 유명해지게 된 데에는 시·서·화 삼절(三絕)로 조선 후기 화원의 대표였던 표암 강세황의 영향이 컸다. 서울 남산에서 태어난 그는 21세 때 진천(鎭川)에 머물던 아버지가 별세하자 3년상을 치렀고, 뒤이어 25세 때 다시 어머니상을 당해 시묘살이를 마쳤다. 그리고 집안이 몽색해지자 32세에 처가가 있는 안산에 들어와 61세로 벼슬에 나갈 때까지 30여년을 머물렀다.

부곡의 처가와 5리 떨어진 곳[현재의 상록구 수암동으로 추정]에 살았던 강세황은 부인을 잃은 뒤 시와 그림에 능하였던 처남 류경종의 청문당에서 그림도 그리고 시도 짓고 읊으며 지냈다.

그런데 청문당에서 강세황의 지도를 받으며 그림을 배운 이가 김홍도(金弘道,檀園:1741~1806?)이었다. 그때 김홍도의 나이 8~9세로, 강세황은 김홍도를 귀여워하였고, 김홍도 또한 강세황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청문당은 조선 후기 화단의 대표적 화가인 김홍도와도 인연이 깊은 셈이다.

6) 이익(李瀷,星湖:1681-1763년)

조선 후기 안산에서 활동한 유생이자 학자이다. 본관은 여주(驪州)이고, 자는 자신(子新), 호는 성호(星湖)이다. 아버지는 이하진(李夏鎭), 어머니는 안동권씨(安東權氏)로 권대후(權大後)의 딸, 처는 고령신씨(高靈申氏) 신필청(申必淸)의 딸과 사천목씨(泗川睦氏) 목천건(睦天健)의 딸이다.

이익은 1681년(숙종7) 10월 18일 아버지 이하진의 유배지인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났다. 1682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선영이 있는 안산의 첨성리(瞻星里: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로 돌아와 어머니 권씨 슬하에서 자라났다. 둘째 형인 이잠(李潛)에게서

15학사'의 창작 공간으로 쾌적하였다.

시문에 능하고 의학에 조예가 깊어 유의(儒醫)로 칭송 받던 류경종은 매부인 강세황, 지기인 안정복과 함께 성호 이익의 문하에 들어가서, 청문당에서 10리 떨어진 성촌의 성호장(星湖庄)에 출입하였다. 특히 안정복이 70여 세 때 한 짐의 서책과 손녀의 혼수에

글을 배웠다. 25세 되던 1705년 증광시에 응했으나, 녹명(錄名)이 격식에 맞지 않았던 탓으로 회시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 1706년 형 이잠이 왕세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인해 장살(杖殺)되면서 과거에 응할 뜻을 버리고 평생을 첨성리에 칩거하였다. 집 인근에 성호(星湖)라는 호수가 있어서 그의 호도 여기에 연유되었고, 그 고장에 있던 그의 전장(田莊)도 성호장(星湖莊)이라 일컬어졌다. 이익은 여기에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토대로 생활하였다.

35세 되던 1715년에 어머니 권씨마저 여의자 노비와 집기를 모두 종가(宗家)로 돌려보냈다. 47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학문적 능력을 높이 사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을 제수했으나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가세는 퇴락되었고, 70세가 넘어서는 일찍이 문과 장원으로 급제해 예조정랑과 만경현감을 지낸 외아들 이맹휴(李孟休)마저 오랜 병고 끝에 죽었다.

그 동안에 가산도 탕진되어 만년에는 한 명의 고노(雇奴) 외에는 송곳을 세울 만한 전지도 없으리만큼 영락하였다. 83세 되던 1763년(영조39) 조정에서는 우로예전(優老例典)에 따라 이익에게 첨지중추부사로서 승자(陞資)의 은전을 베풀었으나, 그 해 12월 17일 오랜 병고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학문과 사상을 보면 성호는 선현의 언행을 샅샅이 기억하고 일찍부터 시나 문을 잘 외었다. 『맹자(孟子)』, 『대학(大學)』, 『소학(小學)』, 『논어(論語)』, 『중용(中庸)』, 『근사록(近思錄)』 등을 읽고, 다시 『심경(心經)』, 『역경(易經)』, 『서경(西京)』, 『시경(詩經)』을 거쳐 정주(程朱)와 이황의 학문을 탐독해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허목(許穆), 윤휴(尹鑴) 등의 뒤를 이어 주자(朱子)에게로만 치우치는 폐풍에서 벗어나 수사학(洙泗學)[공자가 사수(泗水)에서 제자를 가르친 데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원시유학을 지칭함]적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부흥을 기하였다. 또 이이(李珥)와 류형원(柳馨遠)의 학풍을 존숭해 당시의 사회 실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무(世務)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재구(材具)의 준비가 있어야만 실학(實學)[진정한 학문이라는 뜻]이라고 보고 사장(詞章), 예론(禮論)에 치우치거나 주자의 집전(集傳), 장구(章句)에만 구애되는 풍조, 종래의 주자학적으로 경화된 신분관, 직업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또 당시 중국을 통해 전래된 서학(西學)에는 학문적인 관심을 기울여 천문, 역산(曆算), 지리학, 천주교 등에 관련된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를 널리 열람하고 「만국전도(萬國全圖)」, 시원경(視遠鏡), 서양화(西洋畵) 등 서양 문물에 직접 접하면서 세계관, 역사의식을 확대하고 심화시킬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종래 중국 중심의 화이관(華夷觀), 성인관(聖人觀)에서 탈피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시야를 지닐 수 있게끔 하였다.

역사관에 있어 다른 일반의 주자학자들과는 다른 인식을 보였다. 즉 이익은 역사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파악할 것은 '시세(時勢)', 즉 역사적 추세이며, 시비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 정치적으로 고질화된 당쟁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와 사회를 안정시키려면 한편으로 인재 등용의 방법을 고쳐서 문벌이나 당색 중심의 정치를 타파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기구를 개편하는 동시에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치한 소비 생활을 하는 양반들의 생리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신분제적인 사회 구조를 고쳐서 점진적으로나마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 사농의 합일과 같이 양천(良賤)의 합일도 아울러 주장하여 근대적인 직업관, 신분관에 접근했음을 나타내 준다. 또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실현을 위해 덕치(德治)로써 인정(仁政)을 베풀어야 한다는 본원적인 유교정치를 지표로 삼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17세기 이래 조선의 사회 변동에 따른 개혁을 지향하였다. 특히 토지제도에서는 전지 측량을 철저히 하여 호세가(豪勢家)에 의한 전지광점(田地廣占)을 막기 위해 전지 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전법(限田法)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또 나라에서 일가(一家)의 기본수요전적을 1결(結)로 정해 이것을 한 가호(家戶)의 영업전(永業田)으로 삼자고 하면서 그 이상의 전지를 차지한 자에게는 자유 매매를 허용하되 그 이하의 점유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엄금하며 일체의 전지 매매는 관청에 보고해 관에서 전안(田案)을 비치하고 문권을 발급해 법적 보증이 되게끔 관리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익은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면 현재의 점유 전지를 줄여서 빼앗거나 더 주지 않더라도 전지 점유는 균등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전지를 많이 차지한 자는 그들의 자손에 의해 분점(分占)되거나 혹은 불초한 자의 파락(破落)으로 말미암아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전지가 줄어 평민과 균등하게 되는 반면 빈농의 전지 매각을 금하면 호세가의 토지 겸병이 불가능하고 빈민은 지혜와 힘을 다해 절검과 증식에 노력한다면 조금씩이라도 전지를 사서 제한량까지는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십일세법(什一稅法)의 원칙을 엄수해야 하고 불법적인 징수를 억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타 형정의 병행을 주장하거나, 정치 기강의 확립을 위해 의정부의 기능을 복구할 것, 능력 본위의 인사 시행, 병농일치 및 양천합일(良賤合一)에 의한 향병제(鄕兵制)의 확립 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익의 학문은 가문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많은 준재가 배출되었다. 아들 이맹휴는 『예론설경(禮論說經)』, 『춘관지(春官志)』, 『접왜고(接倭考)』 등을 남겼고, 손자 이구환(李九煥)은 조업(祖業)을 계승하였다. 그 위에 종자(從子) 이병휴(李秉休)는 예학(禮學)으로, 종손(從孫) 이중환(李重煥)은 인문지리로 이름을 남기고, 이가환(李家煥)은 정조의 은총을 받아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렀으나 천주교를 신앙해 1801년(순조 1)의 신유사옥 때에 옥사하였다. 이밖에도 문인으로 윤동규(尹東奎), 신후담(愼後聃), 안정복(安鼎福), 권철신(權哲身) 등이 있어 당대의 학해(學海)를 이루어 그 흐름이 정약용(丁若鏞)에게까지 미쳤다.

저서로는 『성호사설(星湖僿說)』, 『곽우록(藿憂錄)』, 『성호선생문집(星湖先生文集)』, 『이선생예설(李先生禮說)』, 『사칠신편(四七新編)』, 『상위전후록(喪威前後錄)』, 『사서삼경질서(四書三經疾書)』, 『근사록질서(近思錄疾書)』, 『심경질서(心經疾書)』, 이황의 언행록인 『이자수어(李子粹語)』 등이 있다. 문집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1917년에 간행된 50권 27책의 퇴로당본(退老堂本)과 1922년에 간행된 70권 36책의 모렴당본(慕濂堂本)이 있다.

묘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으며, 1867년(고종 4) 우의정 류후조(柳厚祚)의 건의로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쓸 가마와 말을 빌려 달라고 할 정도로 류경종과 안정복은 가까운 사이이었다.

류경종은 말년에 청문당을 중심으로 '오천시사(午川詩社)'를 결성하였는데 경향 각지의 많은 문인과 묵객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한여름의 복날에는 청문당에서 개장국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장면은 표암 강세황의 『현정승집(玄亭勝集)』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 밖에 부곡동의 모임에 대해서는 안정복의 시와 채제공(蔡濟恭)의 시, 그리고 강세황의 시 등을 비롯하여 여러 편의 기(記)·서(序)·발(跋) 등에 전한다. 이때 모임의 중심인물은 류경종을 비롯한 이용휴(李用休), 강세황, 임희성(任希聖), 허필(許佖), 류중림(柳重臨), 조중보(趙重輔), 엄경응(嚴慶膺), 이수봉(李壽鳳), 최인우(崔仁祐), 이맹휴(李孟休), 이광환(李匡煥), 채제공, 박도맹(朴道孟), 신택권(申宅權) 등 일일이 거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들은 생활과 교유의 공간을 함께 하는 동지의 특성을 넘어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받으며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심교(心交)의 지경에 이르렀다. 대부분 정치적으로 일탈된 인사들이었기에 세속적 욕구를 초탈하였고, 따라서 서로에게 바라는 바가 없었다. 다만 그들을 이어주는 것은 학문과 예술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를 마음으로 인정하는 심교가 가능하였다.

1754년 청문당에서 강세황·이용휴·안정복·신광수·류경종·류경용 등이 모여 같은 운(韻)을 써서 연구를 이룬 시 한 편이 류경종의 『해암고(海巖稿)』에 전하고 있으며, 강세황의 『표암유고(豹庵遺稿)』에도 같은 제목의 시가 실려 있다. 이 처럼 부곡동의 청문당은 성호 이익의 문인들이 중심이 된 '안산15학사'의 문예 창작의 중심지였고, 표암 강세황과 해암 류경종은 예술가들을 부곡동으로 불러 모으는 데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 표암 강세황

청문당이 유명해지게 된 데에는 시·서·화 삼절(三絶)로 조선 후기 화원의 대표였던 표암 강세황의 영향이 컸다. 서울 남산에서 태어난 그는 21세 때 진천(鎭川)에 머물던 아버지가 별세하자 3년 상을 치렀고, 뒤이어 25세 때 다시 어머니상을 당해 시묘살이를 마쳤다. 그리고 집안이 옹색해지자 32세에 처가가 있는 안산에 들어와 61세로 벼슬에 나갈 때까지 30여 년을 머물렀다.

부곡의 처가와 5리 떨어진 곳(현재의 상록구 수암동으로 추정)에 살았던 강세황은 부인을 잃은 뒤 시와 그림에 능하였던 처남 류경종의 청문당에서 그림도 그리고 시도 짓고 읊으며 지냈다. 그런데 청문당에서 강세황의 지도를 받으며 그림을 배운 이가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1741~1806)이었다.[7] 그때 김홍도의 나이 8~9세로, 강세황은

7) 김홍도(金弘道;1745년~1806년 이후)
조선 후기 화단의 단원 김홍도는 조선 전기 최대의 화가로 손꼽히는 현동자 안견(安堅;15세기) 및 기우는 왕조의 말미를 마지막 타오르는 불꽃처럼 화사하게 장식한 오원 장승업(張承業;1843년~97년)과 함께 '조선3대화가(朝鮮三大畵家)'로 지칭된다. 본관 김해(金海). 자 사능(士能). 호 단원(檀園)·단구(丹邱)·서호(西湖)·고면거사(高眠居士)·첩취옹(輒醉翁).
강세황(姜世晃)의 천거로 도화서 화원(圖畵署畵員)이 된 뒤 1771년(영조47)에 왕세손(뒤의 正祖)의 초상을 그렸고, 1781년(정조5)에 어진화사(御眞畵師)로 정조를 그렸다. 1788년 스승 김응환(金應煥)이 왕명을 받고 몰래 일본의 지도를 그릴 임무를 띠고 떠날 때 그를 수행, 부산까지 갔으나 김응환이 거기서 병으로 죽자 홀로 쓰시마섬[對馬島]에 가서 일본 지도를 모사(模寫)해 가지고 돌아왔다.
1790년 수원 용주사(龍珠寺) 대웅전에 《삼세여래후불탱화(三世如來後佛幀畵)》를 그렸고, 1795년(정조19) 연풍현감(延豊縣監)이 되었다가 곧 사임하였다. 이듬해 왕명으로 용주사의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삽화를 그렸으며, 1797년 정부에서 간행한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의 삽화를 그렸다. 산수화·인물화·신선화(神仙畵)·불화(佛畵)·풍속화에 모두 능하였고, 특히 산수화와 풍속화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산수화는 사실(寫實)묘사와 조국애가 어울려서 조국 강산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시킨 것으로 당시의 신윤복(申潤福)·이인문(李寅文)·김석신(金碩臣)·김득신(金得臣) 같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또, 풍속화는 서민사회의 생활정서와 농(農)·상(商)·공(工) 등의 생활정서를 주제로 하여 그들의 생활모습을 익살스럽고 구수한

김홍도를 귀여워하였고, 김홍도 또한 강세황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청문당은 조선 후기 화단의 대표적 화가인 김홍도와도 인연이 깊은 셈이다.

강세황은 또 수암동 원당골에 우거한 심사정(沈師正:1707~1769)과 교유하며 수암동 뒤편의 수리산 기슭에 자리한 원당사(元堂寺)에서 그림을 그리곤 하였다. 그리고 30여세 위인 이익의 글방을 드나들면서 같은 연배인 이용휴(이익의 조카)와 학문을 논하고 세정(世情)을 이야기하였다.

강세황은 이렇듯 류경종의 도움을 받아 청문당이 위치한 부곡동을 묵향과 예향(藝香)이 가득 찬 공간으로 창출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부심으로 류원성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부곡동 일원의 8가지 뛰어난 경승을 손수 여덟 폭의 병풍으로 꾸민 것이 『부계팔경도(釜溪八景圖)』 이다.[8]

다. 땅이름(地名)

부곡동(釜谷洞)은 본래 안산군 군내면 지역으로써 지형이 가마솥처럼 생겼으므로 가마울, 가며울, 개멀, 부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벌터, 신촌을 병합하여 부곡리라 해서 시흥군 수암면에 편입되었는데, 1979년 경기도 반월출장소 수암지소의 관할이 되었다가 1986년 안산시에 편입되었다.[9]

청문당이 소재하고 있는 마을이 개멀이며, 능안, 원부곡(元釜谷)이라 불렀다.

[표2.03] 부곡동의 지명

지 명	구 분	내 용 설 명
원부곡(元釜谷)	마을	부곡리의 원마을
새말(新村)		가마을 옆에 새로 된 마을
벌터		가마울 서쪽, 벌판에 있는 마을

[마을]

부곡동은 원래 진주류씨 누대의 세거지로 개멀(釜谷)·벌터·새마을·시랑골(侍郎谷),·신촌(新村)·옹기마을(店村)·정재골(靜齋谷) 등의 자연마을(部落)이 있었다.

그러나 남부 지역의 시랑골·신촌 등은 폐동되어 새로운 주택과 양궁경기장·제일스포츠센터 등이 들어섰고, 개멀·벌터 등 북부 지역은 예전의 자연 취락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산~신갈 간 고속국도가 마을 중앙을 관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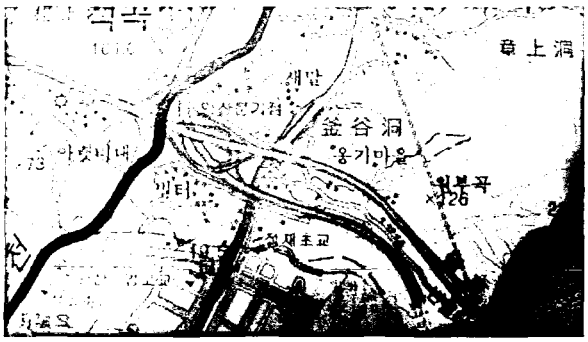
필치로 그린, 일종의 사회풍자를 곁들인 작품들이다. 기법도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여 과감히 시도하였는데, 용주사의 《삼세여래후불탱화》 에서 볼 수 있듯이 색채의 농담(濃淡)과 명암으로써 깊고 얕음과 원근감을 나타낸, 이른바 훈염기법(暈染技法)이 그것이다. 작품에 《소림명월도(踈林明月圖)》, 《신선도병풍(神仙圖屛風)》, 《쌍치도(雙雉圖)》, 《무이귀도도(武夷歸棹圖)》, 《낭구도(浪鷗圖)》, 《군선도병(群仙圖屛)》, 선동취적도(仙童吹笛圖)》, 《풍속화첩(風俗畵帖:야공도·서당도·씨름도·무악도 등)》,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 등이 있다.

4) 「표암유고(豹菴遺稿)」, 「해암고(海巖稿),변영섭, 「표암 강세황 회화연구」 (일지사, 1988),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홍영의, 「안산의 옛 경관」 (책과함께, 2008)
- 강경훈, 「18세기 안산의 풍광과 제영: 시로 읽는 안산의 옛 노래」 (「한국한문학연구」 25, 한국한문학연구회, 2000)
- 정은진, 「강세황의 안산활동과 문예활동: 류경종과의 교유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5, 한국한문학연구회, 2000)
- 박용만, 「18세기 안산과 여주이씨 가의 문학활동: 섬사 편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5, 한국한문학연구회, 2000)
- 김동준, 「해암 유경종의 시문학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9) 한글학회, 한국의 지명총람18 경기편(상), 정화인쇄문화사, 1986, 426쪽



[그림2.06] 부곡동 지형도(1970년대)
(국립지리원, 지형도, 1/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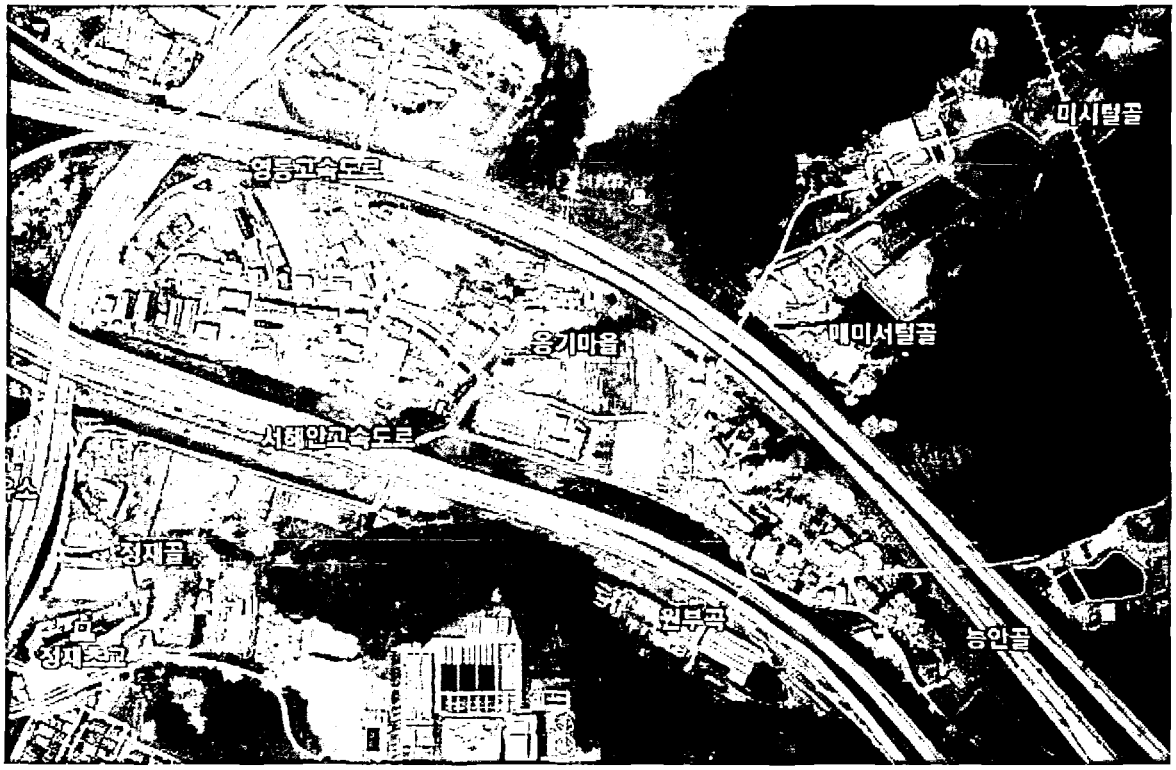
[그림2.07] 부곡동 지형도(2003)

□ 개멸[元釜谷, 능안, 만수동萬樹洞][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자연마을이다.

[명칭유래]

마을 남쪽에 있는 산이 풍수로 보아 가마(釜)를 엎어 놓은 형국이어서 '가마산(伏釜山)'이라 하였으며, 후에 이곳에 취락이 형성되자 산 이름을 따서 '가마골'이라 하였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개멸(元釜谷)'로 통칭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마을 북쪽 지역이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진 곳이라 하여 '만수동(萬樹洞)'이라 불렀고, 동쪽 지역이 골짜기 안에 위치한다고 '안골', 또는 관찰사를 지낸 류석(柳碩:1595~1655)의 묘가 능같이 크다 하여 '능안'이라 불렀다. 개멸이라고 하면 보통 능안을 지칭한다.



[사진2.01] 부곡동 항공사진 (다음지도,2010)

10) 류해엽(柳海曄:1910. 8.7, 부곡동 237) 구술

□ 벌터[11]

들이 넓어 밭을 가는 농부가 소를 크게 꾸짖는다는 뜻으로 질우지(叱牛地, 또는 耆老地)라 불렀는데, 일제 강점 초인 1910년대에 이르러 안양시 안양 3동 후두미에 살던 류원형(柳元馨)이 농작(農作)을 위해 세거한 후, 개멀·시랑골 등 거주 주민들이 분가를 하면서 호수가 늘기 시작하였다.

정재초등학교 북쪽에 위치한 벌터는 안산-신갈 인터체인지로 편입되었으며, 마을에서는 1986년 이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10월 1일~3일 사이에 길일을 택해 개멀 뒷산인 곤우봉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 새마을[12]

벌터와 시흥시 장상동 동막골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6·25 직후 황해도 옹진·신천 등 난민들이 정착하면서부터 취락이 형성되었으며, 1970년대의 새마을사업으로 취락구조가 개선되었다. 마을에서는 1986년 이전까지만 해도 음력 10월 1일~3일 사이에 개멀 뒷산인 곤우봉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 시랑골[侍郎谷][13]

조선왕조 제14대 임금인 선조의 사위이자 정정옹주의 부군인 류적의 묘가 부곡동 동쪽 산기슭(제일스포츠센터 앞)에 있는데, 류적이 생전에 이부시랑(吏部侍郎)의 관직을 역임했다 하여 '시랑골[侍郎谷]'이라 칭하고 있다.

시랑골은 신촌과 양궁경기장 사이에 있던 마을로 류시행(柳時行)의 후손인 진주류씨의 세거지이다. 그후 경주 이씨, 평창 이씨, 초계 정씨 등이 세거해 38가구가 살다가 1982년 폐동되어, 원주민들은 부곡동·인천·안양·여주 등지로 분산·이주했고 현재는 택지로 조성되어 있다.

□ 신촌(新村)[14]

조선 시대에는 안산군 군내면 신동리(安山郡 郡內面 新洞里)라 했다가 조선 말엽에 이르러 신리(新里)로 개칭된 마을로, 시랑골과 제일스포츠센터 사이에 있다. 신촌(新村)은 개멀·시랑골 등지에 살던 류시행의 후손이 분가를 하면서 터를 잡고 살았으며, 그후 나주 나씨, 초계 정씨, 파평 윤씨 등이 세거하면서 취락이 이루어졌다. 폐동 전에는 모두 26호가 살았는데, 원주민들 대부분이 부곡동·인천을 비롯해 장상동 등지로 분산·이주했다. 안산 신도시 개발로 폐동되자 인근의 월피동·부곡동(시랑골·정재골 등) 이주민단지가 조성되어 1980년부터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곳에는 류시행(柳時行;교리), 정정옹주(貞正翁主;선조의 딸), 류적(柳頔), 류영(柳穎) 등의 묘와 제일스포츠센터가 있다.

□ 옹기마을[店村][15]

벌터와 개멀 사이에 있는 마을로, 한국전쟁 직후 시흥시 수암동 출신인 류일성 등이

11) 류해엽(柳海曄;1910. 8. 7), 부곡동 237
류진형(柳晋馨;1908. 11. 7), 부곡동 536-7

12) 류대형(柳大馨;1934. 12. 6), 부곡동 534-9

13) 류진형(柳晋馨;1908. 11. 7), 부곡동 536-7

14) 류진형(柳晋馨;1908. 11. 7), 부곡동 536-7

15) 류해엽(柳海曄;1910. 8. 7), 부곡동 237

이 마을 초입에서 옹기를 구웠으므로 '옹기마을[店村]'이라 칭하였다. 당시 옹기를 굽던 옹기장(甕器匠;도공)들은 대부분 천주교인들로, 이들은 1970년대에 이르러 도시화로 옹기가 사양길에 접어들자 이곳을 떠났고, 옹기를 굽던 가마터는 현대식 가옥들이 들어섰다. 1986년 이전에는 해마다 음력 10월 1일~3일 사이에 길일을 택해서 개멸 뒷산인 곤우봉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 **정재골[靜齋谷]**[16]

벌터와 신촌 사이에 있던 마을로, 조선 숙종 때 형조판서를 지낸 류명현(柳命賢;1643~1703년)이 현 안산시 정수장 밑에 살았다는 연고로 그의 아호를 따서 '정재골[靜齋谷]'이라 했으며, 그 후 그의 아들 류래(柳徠;1687~・년, 안동판관)가 이곳에 사당을 지은 후(일제 강점 중엽에 폐사) 그의 후손(진주 류씨)들이 세거하면서 취락이 이루어졌다. 1971년에는 당시 안산국교장(사학규)의 요청으로 후손인 류진형이 교지(校地)로 3천5백여 평을 희사해 정재초등학교가 세워져 교육의 요람지가 되었다. 정재골은 폐동(1984년) 전에는 19호가 살았으나 원주민 대부분이 부곡동 이주단지(신촌)로 이주했다.

라. 전통가옥

1) 주생활

안산 지역에서 전통가옥은 상류층의 경우 기와집, 일반 서민들은 짚으로 만든 초가집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지역별로 기후에 따라 집의 구조와 건축 재료에서 차이가 났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정부가 시행한 새마을운동 사업 중 하나인 지붕개량 사업으로 초가지붕은 슬레이트나 양기와 혹은 함석으로 바뀌었다. 이후 1980년대에 급격한 경제발전과 서양식 주택들이 유입되면서 처음 주택을 지을 때 서양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외관은 전통가옥을 유지하더라도 내부는 서양식 입식 부엌으로 변형시키고 욕실 안에 좌변기를 넣어 욕실과 화장실을 통합하였으며 침대·식탁 등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안산시의 경우도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흐름에 놓여 있었으며, 특히 산업도시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변화되었다. 현재는 청문당·경성당과 같은 향토 유적을 제외하고는 전통가옥 특히 초가집과 같은 일반 서민가옥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2) 서민 전통가옥

우리나라의 전통가옥들의 특징은 남녀 간의 공간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편으로 크게 여성생활 공간인 안채와 남성생활 공간인 사랑채로 나뉜다. 또한 지역마다 독특한 가옥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한반도일지라도 지리적 환경에 따라 기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옥의 구조면에서 볼 때 가옥은 크게 겹집과 홑집으로 나눌 수 있다.

겹집은 종도리를 중심으로 하여 전후 2열로 방을 배치하는 복렬형(複列形) 가옥이며, 홑집은 종도리를 중심으로 1열로 방을 배치하는 방식의 단열형(單列形) 가옥이다. 겹집은 동북부 지방의 추운 기후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실내로 햇볕이 들지 않아 실내가

16) 류진형(柳晋馨;1908. 11. 7), 부곡동 536-7

어둡고 습기가 많은 편이다. 이에 반해 홑집은 햇볕이 잘 들어 실내가 밝고 통풍이 잘되지만 외부의 기온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안산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중부지방에 속하는데, 중부지방의 경우 홑집과 겹집의 절충형 주거가 일반적이다. 대개 'ㅁ'자형으로 주거가 대각선으로 벌어지면서 튼 입구'ㅁ'자형이다. 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름과 겨울이 길고 해안가와 인접해 있어, 겨울의 강한 바람과 바닷바람을 막을 수 있고, 여름의 더위를 견디기 위해 주거 공간이 분산된 'ㅁ'자형으로, 여기서 조금 변형되어 'ㄴ'과 'ㄱ'이 합쳐진 튼 'ㅁ'자형과 'ㄷ'자형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는 대지 주변을 따라 대문채·안채 등이 연결되어 있다.

또 '장지'가 있고 마루방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방앗간과 축사가 따로 있지 않고 몸체와 일치한다. 부엌·안방·윗방 등이 중심이 되며, 마루방은 안방 또는 윗방에 붙어서 직각으로 구부러져 있다. 또한 사랑채는 대문채와 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붕은 대부분 짚으로 이엉을 엮어 만든다. 대개 2년마다 한 번씩 묵은 지붕을 걷고 새 지붕을 얹는다. 짚은 구입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 논이 있는 집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얻는 경우가 많다. 안산의 해안가 지역에서는 짚을 구할 수 없을 경우 갈대를 엮어 지붕을 얹기도 하였다. 이는 해안가 지역에서는 짚보다 갈대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갈대는 짚보다 가볍고 얇아서 장마철에 비가 새는 문제가 있어 보편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았다.

3) 상류 전통가옥

현재 안산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조선시대 상류가옥으로 청문당과 경성당이다.

가) 청문당(淸聞堂)

청문당은 진주류씨 16세손인 류시회(柳時會)가 지은 것으로 당대 학자 및 예술가들의 교유에 중심적 구실을 하였던 곳이다. 청문당은 본래 'ㄷ'자형의 안채 및 사랑채 우측에 일자형의 바깥채가 있는 튼 'ㅁ'자형이다. 사랑채와 바깥채 사이에는 중문을 세우고 안채와 바깥채는 샛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붕은 팔작지붕에 기와를 덮었다.(제3장 청문당 개관 참조)

나) 경성당(竟成堂)[1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237번지에 위치하는데 수리산 기슭 매미골이다. 매미골은 만수동천 또는 만수동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골짜기는 진주류씨 집성촌으로 약 200년 전에 형성되었다.[18] 가옥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류승종이다.

경성당(竟成堂)
경성당 당호는 당초 진주류씨 18세손 류명천(柳命天)·류명현(柳命賢) 형제가 공부하던 서실로 정재골에 있었으나 그후 류원성(柳遠聲)이 차명한 당호로서, 진주류씨 21세손인 류신(1748~90년)의 아들인 중서(重序;1779~1846년)가 둘째아들인 방(1823~87년)이 살림을 날 때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안채와 누마루가 있는 사랑채로 되어 있다. 현재의 안채는 13년 전에 서울의 한옥을 이건한 것이지만 사랑채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경성당은 청문당만큼 오래 된 한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또한 18~19세기의 안산 지역 양반사회의 주거 양식을 보여 주는 문화재 자료로서 청문당과 함께 중요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17) 문화재청, 안산 부곡동 경성당, 2008년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2-경기도, 230-231쪽

18) 안산문화원장을 지낸 고 류문형(柳文馨)에 따르면, 집터에 대해서 따로 전해지는 말은 없으나, 풍수사인 오 아무개가 "수십 대를 이어가면서 보전해야 할 자리다. 재벌 정 아무개의 재산과 바꾸어도 아까울 만큼 좋은 자리다." 라는 극찬을 남겼다고 한다.



[사진2.02] 경성당 사랑채 전경



[사진2.03] 경성당 안채 전경

경기도 전통명가로 꼽히는 경성당(敬成堂)은 진주류씨 가의 21세손이자 차종손인 류신(柳蓋:1748~1790)의 아들 류중서(柳重序:1779~1846)가 둘째아들 류방(柳雱:1823~1887)이 살림을 날 때 지어 준 집이라고 한다.

경성당이란 당호(堂號)는 원래 정재골에 있는 진주류씨 18세손 류명천(柳明天)·류명현(柳命賢) 형제가 공부하던 방(書室)인데, 후에 류원성(柳遠聲)이 차명하여 썼다.

2009년 현재 경성당을 지키고 있는 이는 고인이 된 류문형(柳文馨)의 부인이자 차종부가 되는 권보남(權寶南)이다. 고 류문형(진주류씨 27세손) 집안은 기호 남인을 대표하는 3대 가문중 하나인 진주류씨 집안으로, 이 집안은 대종가에서 5대조 때 분파한 차종가이다.

경성당은 1850년경 건립된 가옥으로, 안채는 약 200여 년 전에 지어졌으나 1983년에 붕괴되어 철거하고 25년전에 서울에 있던 한옥을 이건하여 재건 신축한 것이다. 안채의 재목은 서울의 미아리와 종로구 당주동에 있던 헌 한옥에서 많이 가져다 썼으며, 들보는 인천에서 구입한 수입목인 미송(美松)으로 대신하였다.

사랑채는 안채보다 30년후인 약 170여 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2년에 중수되었는데 이때 대부분의 부재를 신재로 교체하였는데 평면과 가구는 원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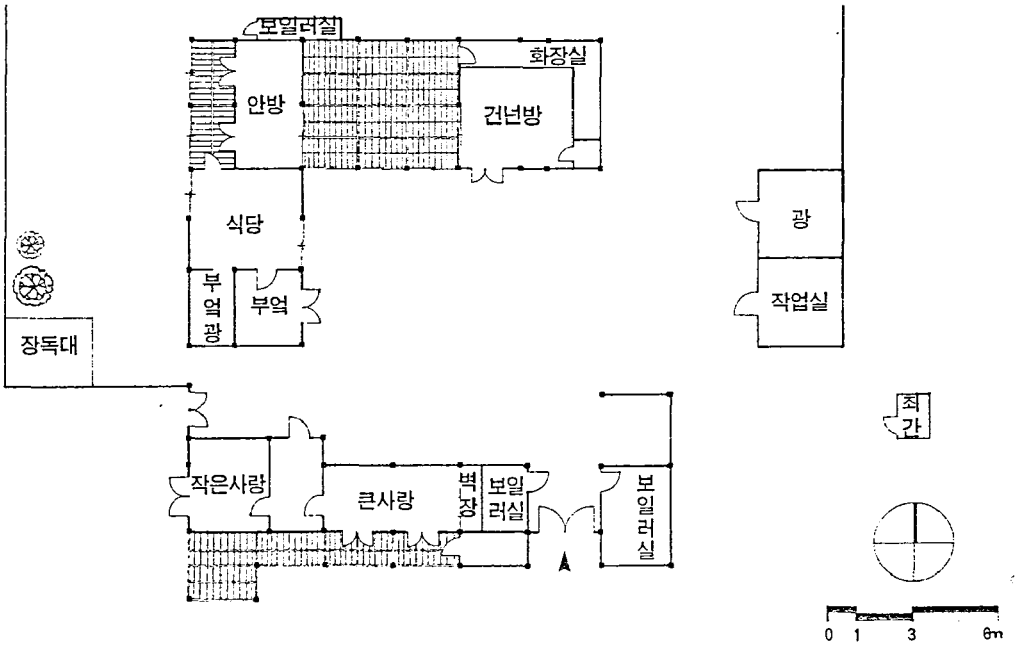
바깥채는 약 25년 전 철거되고, 그 자리에서 동쪽으로 조금 물러난 자리에 시멘트 건물 한 채를 세웠다.



[사진2.04] 경성당 만수동 표석 전경



[사진2.05] 경성당 사랑채 당호 편액



[그림2.08] 경성당 배치평면도

원래는 사랑채 동남쪽에 각 1칸씩의 잿간과 뒷간, 그리고 3칸의 헛간으로 구성된 헛간채가 따로 있었고, 노비들이 기거하던 4채의 행랑채도 있었다. 또 사랑 마당 남쪽에 330.58㎡에 이르는 넓은 연못이 있었으나 사랑채 누마루 곁에 있는 우물물이 줄어들어 급수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40여 년 전 밭으로 만들었다.

경성당의 안채·사랑채·바깥채는 완전한 'ㅁ'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가인 안채 부엌 서쪽으로 각 1칸씩의 헛간과 뒷광이 이어 달려 있는데, 뒷광에는 김치·짠지 등이 담긴 독을 두었다. 뒷대문은 행랑 출입을 위한 것이다. 대청 지붕틀은 무고주7량(無高柱七樑) 형식으로 걸었으며 전면에는 여섯 짝의 분합문을 달았다.

사랑채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서쪽 끝에 1칸의 누마루를 내어 지었다. 사랑채는 '一'자형이며, 사랑채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서쪽 끝에 한 칸의 누마루를 내어 지었다. 본래 누마루 뒤쪽에 작은 사랑과 마루가 있었으나, 생활공간을 늘리기 위해 마루를 반으로 줄이고 방을 늘렸다. 즉 누마루 뒤쪽에 각 1칸씩의 방[작은사랑]과 마루가 있었으나, 마루를 반으로 줄이는 대신 방을 그만큼 넓혔다. 큰사랑과 툇마루 사이에는 가로 57㎝, 세로 130㎝의 두 짝 여닫이를 설치하고 동쪽 끝에 벽장을 붙였다. 벽장문은 네 짝으로 크기는 각각 가로 69㎝, 세로 133㎝이며, 매화·난초·대나무 등의 그림을 붙여 선비의 방다운 고졸한 분위기가 풍긴다.

경성당의 누마루에 걸린 3개의 주련에는 "높은 산 화모봉 아래 빗살처럼 모여 사는 한 가문, 이들이 사는 깊은 골 부곡 마을에는 집들이 솥발처럼 들어섰구나[山高華帽峰下居簪纓之族村深覆 釜谷中有鐘鼎之]"와 "선조께서 내려주신 땅, 한 줌이라도 남에게 넘기지 말라[宜廟賜牌之局 寸土勿與於他人]", "성조(14조인 성산공 星山公)께서 터를 잡으신 곳이니 후세까지 보전해 나가라[星祖定礎之基十世相傳于後裔]"라는 글이 있는데, 이런 글에서도 알 수 있듯 아직도 진주류씨 종손이 자부심을 지니며 거주하고 있다.

경성당은 청문당과 이웃한 건물로 그 만큼 오래된 건물은 아니더라도 19세기 경기도 안산 지역의 양반 사회 주거 양식을 보여 주는 중요한 문화적 자료가 된다.[19]

4) 현대의 가옥

안산의 가옥은 새마을운동보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기 전까지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였고, 특히 농업 종사자들이 더 많아 농촌형 주거 형태를 띠었다. 가축이나 농기구를 보관할 부속건물이 있거나 가옥과 일체되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새마을운동과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생업 수단인 농업이 산업으로 바뀌면서 농업과 관련되었던 공간이 사라지고, 다른 주거 공간들도 서양화되기 시작했다.

공업단지 건설과 함께 공업 인구가 늘면서 농지는 택지로 변경되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고잔동의 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성포동·월피동·선부동·본오동 등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으며, 현재에도 아파트 건설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주거 형태가 도시형으로 변모하였다.

마. 진주류씨(晉州柳氏)문중과 인물[20]

1) 문중

시조는 고려때 상장군(上將軍)을 지낸 류정(柳挺)으로, 그의 11세손 류영정(柳永貞:벼슬 司僕寺正)의 후손부터 안산에 세거하였다. 이 진주류씨문중(晉州柳門)은 조선후기 기호 남인 3대 가문의 하나로써 17세손 류적(柳頔,晉安尉)이 선조의 부마가 되었고, 그의 조카 류명견(柳命堅)·류명천(柳命天)·류명현(柳命賢) 등 3형제가 판서에 오르는 등 한때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이 집안의 사위이었던 표암 강세황 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면에서도 큰 성취를 남겼다. 문과를 하거나 문학으로 이름을 떨친 이들로는 류격(柳格), 류근(柳根,西坰,大提學), 류석(柳碩,觀察使), 류래(柳徠), 류경종(柳慶種,海巖), 류신(柳藎,勤齋), 류원명(柳遠鳴,蒼巢), 류원성(柳遠聲,帽山) 등을 들 수 있다.

독립운동가 류익수(柳益洙)는 정재 류명현의 7대손이다. 부곡공의 '정재초등학교'는 류명현의 자손들이 그가 살던 오교장(午橋莊)의 부지를 정부에 기부체납하여 그 땅위에 세워진 학교이다. 400년 전에 세워져 지금까지도 그 안채가 남아있는 청문당(淸聞堂)과 함께 오교장은 조선후기 문화운동사에 아주 중요하게 손꼽히는 명소이다. 세거지는 부곡동 일대이다.

2) 인물

가) 류격(柳格)

류시회의 아버지로 증영의정(贈領議政)이다. 부인은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이희천(李希天)의 딸이다.

---

19)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경기도전통증가 여성생활사」 (경기도향토사연구회, 2004),
내고장 안산편찬위원회 편, 「내 고장 안산」 (안산문화원, 1990),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경기민속지」 4(경기도박물관, 2001)최인학 외,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 (민속원, 2001)

20)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나) 류시회(柳時會:1562~163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중가(仲嘉), 호는 수촌(水村)·성산(星山)이다.

1589년(선조22)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600년 용천군수를 역임하였으며 이후 호조정랑, 회양부사, 중화부사, 사옹원정(司饔院正) 등을 역임하였다. 1612년(광해군4) 평산부사를 지냈으며, 1620년에는 선산부사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1624년(인조2) 홍주목사를 역임하였다.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묘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다.

그와 함께 사마시에 합격한 동방(同榜)들이 1602년(선조35) 평북 의주 지방에 있는 용만 청심당(淸心堂)에서 자신들의 모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한 「용만가회사마동방록(龍灣佳會司馬同榜錄)」을 류시회의 후손인 류문형(柳文馨,상록구 부곡동 거주)이 소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선조실록(宣祖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안산시사』(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다) 류시행(柳時行:1566~1606)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중건(仲健), 호는 기정(棄汀). 아버지는 류격(柳格), 어머니는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이희천(李希天)의 딸, 처는 한산이씨(韓山李氏)로 이대화(李大禾)의 딸이다. 형은 사옹원정을 지낸 류시회(柳時會)이다.

류시행은 1589년(선조22)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태천현감(泰川縣監)을 지냈다. 1599년(선조32) 별시문과에 병과 6등으로 급제하여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등을 역임하였다. 1603년 세자시강원문학을 지냈고, 1604년에는 홍문관부교리, 홍문관교리 등을 역임하였으며, 1606년에는 장악원첨정을 거쳐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등을 지냈다. 이조판서 등에 추증되었다.

묘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으며, 1666년(현종 7) 묘표를 세웠다.

[참고문헌]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안산시사』(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라) 류석(柳碩:1595~165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덕보(德甫), 호는 개산(皆山). 아버지는 사옹원정 류시회(柳時會), 어머니는 안동권씨(安東權氏)로 상주판관(尙州判官) 권길(權吉)의 딸, 처는 광주이씨(廣州李氏)로 이정험(李廷馦)의 딸이다.

류석은 1613년(광해군 5) 진사시에 합격하고, 1625년(인조3) 별시문과에 병과 6등으로 급제하였다. 1625년 홍문관정자로 있을 때 선조의 제7자이자 인조의 삼촌인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이 화를 당하자 한문제(漢文帝)의 포속지요(布粟之謠)[한문제가 무고에 의하여 이복동생인 류남(劉南)을 처형한 뒤 백성들 간에 널리 퍼진 그 일을 비판하는 노래]를 비유한 과격한 소(疏)를 올려 인성군을 구하고자 했다. 그 뒤 강원도관찰사겸 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를 지냈다.

류석은 사람됨이 강직하여 사헌부장령 재직시 척화론(斥和論)의 대표 예조판서 김상헌(金尙憲)을 "대명의리(對明義理)와 대청주전론(對淸主戰論)을 제일 열렬히 주장했으면서도 책임질 줄 모르고 군왕을 배반했으니 마땅히 문책해야 한다."라고 탄핵했기도 했다. 또 문장에 뛰어났는데 특히 변려체(駢儷體)[문장이 4자와 6자를 기본으로 한 대구로 이루어져 수사적으로 미감을 주는 문체]는 당시 사대부들이 가히 소동파(蘇東坡)의 경지에 들어갈 만하다고 칭찬할 정도였다.

중추부사 조경(趙絅)이 신도비문을 찬하고, 글씨는 삼척부사 허목(許穆)이 썼으며 아울러 전자(篆字)했다. 의정부좌찬성겸판의금부사 등에 추증되었다.

묘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다. 1690년(숙종16) 세워진 신도비와 함께 1991년 11월2일 안산시 향토유적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조경(趙絅)이 찬(撰)하고 허목(許穆)이 서(書)한 그의 신도비(神道碑)에는, 공은 인품이 강직하고 방정했으니, 그것은 타고난 천성 이었다. 그리고 특립독행(特立獨行)의 지조가 있었으며, 문장을 하는 것도 그 위인(爲人)과 같았다. 선배에 남곽(南郭) 박동열(朴東說) 같은 이가 있어 '공의 변려문은 소장공(蘇長公:東坡) 의 당(堂)에 들어갈 만하다'고 칭찬하였다.

[참고문헌]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마) 정정옹주(貞正翁主: 1595-1666)[21]

조선 14대 왕인 선조의 여덟 번째 딸이다. 선조(宣祖)의 첫 번째 비(妃)인 의인왕후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며, 후궁 공빈김씨 소생으로 임해군과 광해군이 있었다. 선조는 임진왜란을 치르는 동안 임해군이 성질이 포악하다는 이유를 들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그런데 선조의 두 번째 왕비인 인목왕후가 뒤늦게 영창대군을 낳으면서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즉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大北派)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小北派)로 나뉘어 정권 다툼을 벌이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선조(宣祖)이며, 어머니는 정빈홍씨(貞嬪洪氏)로 현감을 지낸 홍여겸(洪汝謙)의 딸이다.

정정옹주는 선조의 여덟 번째 딸로 해주행궁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자질이 뛰어났다. 아버지한테 직접 『효경(孝經)』 과 『내칙(內則)』 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자라면서 단정하고 의젓하여 스스로 예법을 배워 실천하였다. 1604년(선조 37) 정정옹주라는 작호를 받았고, 1606년 교리 류시행(柳時行)의 아들 진안위(晋安尉) 류적(柳頔)과 혼례일을 택하려 하였으나, 류적이 부친상을 당하여 탈상 후인 1610년(광해군 2)에 출가하였다.

한편 서자로서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왕통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후환을 없애고자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유폐시키고 살해한 뒤 인목대비(仁穆大妃)마저 폐위하려 하였다. 이때 정정옹주는 남편과 함께 대비 폐위를 반대하여 유배 위기까지 몰렸다. 이후 궁궐 출입을 삼간 채 왕실의 대소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칩거하던 중 1619년(광해군 11) 남편이 병을 얻어 2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 뒤 광해군을 몰아내고 즉위한 인조는 광해군 치하에서 류적이 정의롭게 처신한 점을 칭송하였으며, 정정옹주에게도 두터운 예로 대우하였다. 후사가 없어 시동생 류영(柳潁)의 아들 류명전(柳命全)을 입양하였으나, 그도 문과에 급제한 지 2년 만에 사망하고 이후 2년여 만에 정정옹주도 세상을 떠났다. 이에 임금이 정사를 폐하고 장례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몸소 빈소에 가서 남편 류적과 합장하도록 명하기도 하였다.

이어 내린 유제(諭祭)에서 "왕실에서 종성(宗姓)으로 태어나 성품이 온화·공손하여 어머니의 교훈에 따르니 유가(柔嘉)하고 덕용(德容)하더라. ……선왕의 사랑과 도움이 각별하였고, 스스로 종친들과 돈목(敦睦)하여 잘 돌보고 대우하였으며, 두루 고르게 하였

21)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재인용

으니, 이것이 옹주가 평생 동안 지키고 남긴 자취이었다."라며 정정옹주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1871년(고종8) 류적에게는 효숙(孝肅)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묘소는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산50-40번지에 있으며, 1991년 11월 2일 안산시 향토유적 제14호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홍재전서(弘齋全書)』
내고장안산편찬위원회편, 『내 고장 안산』(안산문화원, 1990)
안산시사』(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정정옹주묘비명(貞正翁主墓碑銘)」

바) 류적(柳頔:15958~1619)

조선시대의 부마. 자는 군미(君美), 호는 사휴(四休),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시행(時行:知製敎)의 장남이며., 어머니는 한산이씨로 대화(大禾:郡守)의 딸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총명하여 경서나 사서를 한번만 읽어도 익혔으며, 특히 해서를 잘쓰는 신동(神童)이라 하였다.

11세 때 부마 간선이 있을 때 선조가 그의 용모와 행동이 단정하고 의젓하여 음성이 낭낭함을 보고 정정옹주에게 장가를 들게 하고 진안위(晉安尉)라 작호를 내렸다. 그러나 1606년(선조30) 아버지가 타계하고, 2년 뒤 선조가 죽자 탈상 후인 1610년(광해군2) 혼인을 하였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선비로써 왕가와 통적하면서 호족의 풍습을 깍고 갈아 복식과 거처가 한결 같이 가난한 선비 같았고, 옷 가지나 수레·말 따위도 소박한 것을 취하여 검소하게 지냈다.

1614년(광해군6) 2월 영창대군(永昌大君)이 죽고 이어 선조의 계비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모하려 하자 임금에게 "인륜의 강기가 다 멸하게 되므로 국가는 망한다."고 아뢴 후 병을 핑계로 정청(政廳)에 나아가지 않자 대간으로부터 귀양보내라는 논의가 있었으나 삭출(削黜)을 면하고 동양도위(東陽都尉) 신익성(申翊聖)과 함께 성 밖에 나가 살게 하였다. 이후 광해군 11년 병을 얻어 25세 일기로 타계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하자 임금으로부터 광해군 치하에서 의롭게 처신하였다 하여 도위(都尉)로 추증되었다.

그는 문장에 일가를 이루어 많은 글을 남겼으나 전란 등으로 대부분 소실되고, 고금체시(古今體詩) 80~90여 편이 전해지고 있다 하나 현존 여부를 알 수가 없다. 후사가 없어 동생 영(穎)의 장남 명전(命全)을 입양하였고, 묘는 안산시 부곡동에 있다.

사) 류영(柳穎:1603~164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세이(洗耳), 호는 류항(柳巷)이다. 할아버지는 격(格), 아버지는 교리(校理) 류시행(柳時行), 어머니는 한산이씨(韓山李氏)로 이대화(李大禾)의 딸, 처는 진주강씨(晋州姜氏) 강홍적(姜弘勣)의 딸과 전의이씨(全義李氏) 이윤신(李潤身)의 딸이다.

류영은 1603(선조36)에 태어났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글재주가 비상하여 9세에 세인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시를 지었다 한다. 1627년(인조5)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子),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設書) 등을 역임하였다. 외직으로 나가 간성현감(杆

城縣監)에 재직하였는데 당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난민들을 구제, 위로하는 데 힘썼다. 1636년(인조14) 이조좌랑을 거쳐 이듬해 관서어사(關西御使)로 나아갔다가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헌납(獻納), 응교(應敎), 사인(舍人), 사성(司成)을 역임하였다. 1645년(인조23)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청나라에서 돌아와 참상을 당하자 애통해 하다가 병을 얻어 죽었다. 겉으로는 유순하였으마 속으로는 방정하고 성품이 검소하다는 평을 들었다.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묘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다.

[참고문헌]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아) 류명전(柳命全:1628~1664)

조선 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사완(士完), 아버지는 사성(司成) 류영(柳穎)이고 장남이며, 큰아버지 적(적)에게 입양되었다. 어머니는 전의이씨(全義李氏) 이윤신(李潤身)의 딸이다. 이조참판을 지낸 명견(命堅), 이조판서를 지낸 명천(命天)과 명현(命賢)의 형이다. 1628년(인조6)에 태어났다.

1657년(효종8)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선공감부봉사(繕工監副奉事)를 지냈고, 1662년(현종3) 정시(庭試)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정자(正字) 등을 역임하였다. 1664년(현종5)에 사망하여 묘는 안산시 부곡동에 있다.

자) 류명견(柳命堅:1628~1707)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백고(伯固), 호는 모산(茅山). 아버지는 사성(司成) 류영(柳穎), 어머니는 전의이씨(全義李氏) 이윤신(李潤身)의 딸이고, 처는 광주이씨(廣州李氏) 이억(李億)의 딸이다. 동생이 이조판서를 지낸 류명천(柳命天)과 류명현(柳命賢)이다.

류명견은 1672년(현종 13) 별시문과에 병과 6등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에 제수된 후 사간원정언을 지냈고, 1675년(숙종 1) 도당록(都堂錄)에 들었으며, 1677년 수찬이 되었다. 숙종 초년에 남인의 논의가 갈라졌을 때는 윤휴(尹鑴)와 대립하였다. 1680년 경주부윤 재임 시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몰락할 때 파직당하였다.

1682년 남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서인의 과격파인 우의정 김석주(金錫胄)와 어영대장 김익훈(金益勳)이 무고를 하여 투옥되었다가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1689년 전해에 태어난 희빈장씨(禧嬪張氏) 소생을 원자(元子)로 정하는 문제로 남인이 다시 집권하게 되자 승지를 거쳐 부제학, 대사간을 지냈다. 1692년 이조참판이 되었다가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로 다시 남인이 실각하여 파직당하자 고향인 안산에서 은거하였다.

1701년 서인 김춘택(金春澤)의 사주를 받은 민언량(閔彦良)이 이우정(李宇鼎)의 집에서 장희재(張希載) 등과 류명견, 류명천, 류명현 삼형제가 인현왕후(仁顯王后)를 살해하려 했다고 무함(誣陷)을 하여 연행되었다. 대질 결과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으나 적당(賊黨)의 공초(供招)에 이름이 올랐다 하여 전라도 위도(蝟島)에 안치되었다가 1704년 풀려 나왔다.

묘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다.

[참고문헌]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차) 류명천(柳命天:1633~1705)

조선 후기 안산 지역에서 활동한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사원(士元), 호는 퇴당(退堂)·청헌(靑軒)이다. 아버지는 사성(司成) 류영(柳穎), 어머니는 전의이씨(全義李

氏) 이윤신(李潤身)의 딸이며, 처는 고령신씨(高靈申氏) 신기한(申起漢)의 딸과 한양조씨(漢陽趙氏) 조송년(趙松年)의 딸이다. 양부는 강원도관찰사 류석(柳碩), 양모는 광주이씨(廣州李氏)로 이정겸(李廷謙)의 딸이다. 형은 이조참판을 지낸 류명견(柳命堅), 동생은 이조판서를 지낸 류명현(柳命賢)이다. 후사가 없어 동생 류명현의 장남을 입양하였다.

류명천은 1633년(인조11)에 태어났으며, 1651년(효종2)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남인 계열이라 출사하지 못하다가 1672년(현종13) 이조판서 이경억(李慶億)의 천거로 효릉참봉(孝陵參奉)을 지냈다. 이 해 10월 별시문과에 갑과로 장원급제하여 성균관전적에 제수된 후 사헌부감찰을 거쳐, 1673년 예조좌랑, 병조좌랑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만경현령(萬頃縣令)을 역임하였다.

1674년 다시 병조좌랑으로 있다가 곧 병조정랑으로 승진되었고 그 뒤 홍문관교리, 홍문관헌납을 지냈다. 1676년(숙종2) 승정원동부승지, 승정원우승지, 장례원판결사, 예조참의, 사간원대사간, 호조참의를 거쳐 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형 류명견이 수찬에, 동생 류명현이 부교리에 재임 중이라 3형제가 홍문관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상소하여 사임하였다.

1677년 대사간으로 있을 때 허적(許積)의 의논을 지지하여 송시열(宋時烈)의 처단을 반대하다가 사임하였다. 1680년 이조참판에 재직 중 경신대출척으로 음성에 유배되었다가 1683년 풀려났다. 이후 안산에서 시부(詩賦)와 독서로 소일하던 중 지난날의 옥사가 무고라 하여 1688년 강계부사(江界府使)에 기용되었으나 자형 윤이제(尹以濟)가 평안도관찰사로 재직 중이라 피하고 싶다는 뜻을 올려 사임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정권이 뒤바뀌자 공조판서에 중용되고, 다시 예조판서로 옮겨 홍문관제학을 겸하였다. 그 후 사직서제조, 평시서제조(平市署提調), 전의감제조, 승문원제조를 역임하고 이어 사헌부대사헌, 의정부우참찬겸지의금부사, 이조판서겸내의원제조, 부묘도감당상(祔廟都監堂上)을 역임하였다. 1692년 다시 우참찬을 거쳐 호조판서로 옮겼고, 1693년 사복시제조(司僕寺提調)를 겸하여 경복궁 수리를 주관하고 보국숭록대부에 올랐다.

1693년 11월 판중추부사로서 동지사가 되어 청나라에 갔다가 1694년 3월에 돌아왔다. 같은 해에 갑술옥사가 진행되면서 지난날 김기문 옥사(金起門獄事)에 임금을 오도하였다는 죄로 파직불서용(罷職不敍用)의 명이 내려졌다. 이어 장령 유집일(兪集一), 지평 김시걸(金時傑) 등이 권력을 천단하며 악행과 음모로 백성을 병들게 한다고 상소하였다가 흑산도에 위리 안치되었다.

1699년 동궁의 병환이 나은 것을 기념한 사면 때 고향에 돌아가도록 풀려났으나 1701년 장희재(張希載)와 공모하여 인현왕후(仁顯王后)를 모해하려 했다는 지평 이동언(李東彦)의 탄핵을 받고 나주 지도(智島)에 안치되었다. 1704년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후 1705년(숙종31) 가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안산시 부곡동에 살았으며, 말년을 보낸 충북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에 묘소가 있다.

타) 류명현(柳命賢:1643~1703)

조선 후기 안산 지역에서 활동한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사희(士希), 호는 정재(靜齋). 교리 시행(時行)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사성(司成) 류영(柳穎)이고, 어머니는 전의이씨(全義李氏) 이윤신(李潤身)의 딸이며, 처는 평산신씨(平山申氏) 신명유(申命儒)의 딸과 양

천허씨(陽川許氏) 허우(許遇)의 딸이다. 류명천의 아우로 1643년(인조21)에 태어났다.

류명현은 1675년(현종14)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전적, 좌랑, 정언, 지평, 부수찬(副修撰), 사인(舍人), 부제학(副提學)을 지냈고, 1678년(숙종4)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남인으로 1680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실각할 때 허견(許堅)의 추종자라 하여 관작을 삭탈당하고 문외출송(門外出送)당하였다.

1689년(숙종15)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승지가 되었으며 형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 판의금부사에 이르렀다. 1694년(숙종20)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흑산도에 유배되었다가 1699년 안산으로 돌아왔다. 1701년(숙종27) 장희재(張希載)와 공모하여 인현왕후(仁顯王后)를 해치려 하였다는 탄핵을 받아 남해도(南海島)에 안치되었다가 1703년(숙공29)에 유배지에서 죽었다.

묘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다.

[참고문헌]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카) 류래(柳徠:1687~1728)

조선 후기 안산 출신의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자산(子山)이고 호는 서림(西林)이다. 아버지는 류명현(柳命賢)으로 2남이며, 어머니는 양천허씨(陽川許氏)로 허우(許堣)의 딸, 처는 사천목씨(泗川睦氏) 목천민(睦天民)의 딸과 안동권씨(安東權氏) 권중경(權重經)의 딸이다.

류래는 현재의 경기도 안산시에서 1687년(숙종13년)에 태어났다. 1711년(숙종37) 진사시에 합격한 뒤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726년(영조2) 12월 성균관유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거두어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라는 특혜를 받았다. 1727(영조3)년 문과중시에 급제한 뒤 승정원가주서와 성균관전적을 지냈다.

특히 성균관전적 재직 시인 1728년(영조4) 박문수(朴文秀)가 영남안무사(嶺南按撫使)로 파견되었을 때 조문명(趙文命), 송인명(宋寅明) 등의 요청으로 사인(舍人) 강규환(姜奎煥)과 함께 종사관에 차출되었다가 바로 안동판관(安東判官)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이인좌(李麟佐)가 주도하여 일으킨 무신란(戊申亂)에 연루되어 같은 해 5월 9일 곤장을 맞아 사망하였고 며칠 뒤 동생 류뢰(柳耒) 역시 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묘는 안산시 부곡동에 있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파) 류경종(柳慶種;1714~1784)

조선 후기 안산 지역에서 활동한 문인으로 조선 후기 안산의 문화를 꽃피운 주역이었다.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덕조(德祖), 호는 해암(海巖). 할아버지는 이조판서를 역임한 류명현(柳命賢), 아버지는 성균진사였던 류뢰(柳耒), 어머니 사천목씨(泗川睦氏)로 목임일(睦林一)의 딸이다.

류경종의 가문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남인계 가문으로 조부대의 류명천(柳命天), 류명현, 류명견(柳命堅), 류명전(柳命全)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1680년(숙종 6)의 경신환국과 1694년(숙종20)의 갑술환국 이후 정치적으로 실세하였다.

류경종은 1728년(영조4) 숙부 류래(柳徠)가 이인좌(李麟佐)가 일으킨 무신란에 연루되어 장살되었을 때 아버지 류뢰 역시 연루되어 해남(海南)에 유배되자 유배지에 따라갔다가 이듬해에 유배지에서 부친상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나마 입지가 좁았던

관로 진출에서 류경종 가문은 더더욱 곤란을 겪게 되었다.

무신란 이후 4년 뒤에 온 집안이 한양을 떠나 안산의 향저로 낙향하였는데 19세부터 21세까지는 경향간(京鄕間)을 왕래한 뒤에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단념하였다. 27세 무렵에 송도를 유람하고 돌아온 것이 그나마 먼 거리 여행이었을 뿐 류경종은 안산권을 벗어나지 않았다. 56세에 모친상을 당해 4년간, 63세에 영조의 국상을 당해 1년간 저술을 폐했던 일 이외에는 내내 안산에 거주하며 독서와 시문 창작에 전념하였다. 류경종은 평소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다.

류경종은 조부대에 형성된 청문당(淸聞堂), 경성당(竟成堂) 등에 소장된 많은 서적을 통해 독서 범위가 매우 넓었고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서당에서 학문과 예절을 배우며 안산 일대의 남인, 소북(小北) 문인들과 교류하는 등 학문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재야 학인으로 성장하였다. 류경종의 문학은 문장재도론(文章載道論)의 관점을 문학의 출발점으로 상정하고, 여기에 육경(六經) 중심의 상고적인 문학관과 남인 계열을 추숭한 계통의식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류경종은 매우 신중하고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로 주변 인사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었으며 따르는 이도 많지 않았다. 함께 교유한 이용휴(李用休), 이광환(李匡煥), 강세황(姜世晃), 조중보(趙重普), 이수봉(李壽鳳), 최인우(崔仁祐), 엄경응(嚴慶膺), 류중림(柳重臨), 허필(許佖), 임희성(任希聖), 안정복(安鼎福), 목만중(睦萬中), 채제공(蔡濟恭), 신택권(申宅權), 신광수(申光洙) 등과 '안산십오학사(安山十五學士)'로 불렸다. 현 정재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오교촌장(午橋村莊)의 주인이었던 류경종은, 안산 일대의 넓은 사패지(賜牌地)와 일찍이 선조로부터 하사받은 바닷가의 어염권에 의하여 축적된 자산을 이익(李瀷)[1681~1763]의 문하에 대한 지원과 '안산15학사'의 창작 공간으로 쾌척하였다.

문집으로 『해암고(海巖稿)』가 있다. 문집에 실린 4,000여 수의 시를 통해 류종경은 자신이 살고 있던 안산 지방의 삶과 풍속을 시화함으로써 기속시인이 보여 주었던 사실성과 비판성을 획득하였고 또 형식에 있어 이전에는 쉽게 보이지 않았던 파격과 해학으로 우리나라의 한시가 나아갈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또 연작(連作)의 활용과 파격적인 양식을 통해 한시의 규범적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운 시 정신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시의 주제는 자연보다는 인간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시각의 전환을 의도하였고, 시국과 사회상의 비판, 일상쇄사와 주변 인물에 대한 관찰, 재야 사인으로서의 견문 등 제재의 범위를 최대화하였다. 또 시적 표현 면에서는 마음 가는 대로의 시 쓰기를 구사하여 형식에 매이지 않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안산시사』(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하) 류원명(柳遠鳴:1760-1831)

조선 후기 안산 지역에서 활동한 문신이다.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진옥(振玉), 호는 창소(蒼巢)이다. 선조부마 진안위 적의 7대 사손(嗣孫)으로 할아버지는 류정열(柳庭說), 아버지는 류운흡(柳雲翕), 어머니는 청주한씨(淸州韓氏)로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의 5세손 한덕용(韓德龍)의 딸이다.

안산십오학사(安山十五學士)의 한 사람인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의 손녀사위이다.

1794년(정조18) 정시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고, 같은 해 정조로부터 초계문신(抄啓文臣)에 선발되었다. 시문에 뛰어나 정조의 문체반정을 위한 『정시문정(正始文程): 초계문신과 성균관 유생들이 친시에서 제출한 답안지 가운데 모범이 되는 것을 뽑아서 1795년에 제작한 책』에 다수의 시가 실리기도 하였다.

1796년 주서 재직시 장령 현중조(玄重祚)가 류원명의 아들이 경종 대에 처형된 목호룡(睦虎龍)의 심문 기록에 등장한다고 하여 비난하였다. 1801년(순조1) 사헌부지평을 거쳐 부안현감, 삭녕군수 등을 지냈다. 특히 삭녕군수 재직시에는 관내 지역 진전(陳田)의 세금 감면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1818년에는 사간원사간을 지냈고, 1820년(순조20) 승정원우승지(承政院右承旨)에 오른 후 은퇴하여 향저인 안산에서 살았다.

묘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제일스포츠센터 옆 진안위 류적 묘역에 있다.

[참고문헌] 『정조실록(正祖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거) 류재(柳栽): 1651~1709)

조선후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자는 운경(雲卿)으로 명전(明全)의 장남이며, 어머니는 초계정씨이다. 1651년(효종2)에 태어났으며, 1673년(현종14)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1679년(숙종15) 정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서 교리(校理)를 역임하였다. 1709년(숙종35)에 사망하였으며, 안산 부곡동에 묘소가 있다.

너) 류관수(柳灌秀:1849~1917년)

조선시대의 문신이다.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고(景皐), 원문(遠聞)의 아들로 고종 병자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강녕군수(康寧郡守)를 지냈다.

더) 류익수(柳益秀:1870~1926년)

일제강점기 안산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본관은 진주(晋州), 아버지는 류원형(柳遠衡)이다.

1870년(고종7) 지금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출생으로 3·1운동 당시에는 지금의 상록구 월피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3·1운동때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1919년 3월 30일 능곡리의 윤병소(尹秉昭), 와리(瓦里)의 홍순칠(洪淳七), 화정리(花井里)의 김병권(金秉權), 수암리(秀岩里)의 이봉문(李奉文), 산현리(山峴里)의 윤동욱(尹東旭) 등과 함께 수암면 비석거리에서 인근 18개 동리 2,000여 명의 주민들을 인솔하고 선두에 서서 읍내의 향교·면사무소·보통학교 등을 돌면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였다.[22]

일본 경찰이 해산을 요구하며 총을 쏘려 하자 흥분한 군중들의 시위가 과격해지므로, 폭력의 자제를 호소하여 평화적 시위가 되도록 하였다. 류익수는 다음날에도 반월면 장날을 이용하여 주민 600여 명과 함께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곳에서도 시위가

22) 비립동(碑立洞)의 독립만세운동
수암면의 19개 동리 약 2천 명의 주민들은 1919년 3월 30일 오전 10시를 기하여 각각 지휘자의 인도 아래 우선 집합장소인 비립동에 모여 만세를 힘차게 불러 기세를 올렸다. 당시 인도자는 류익수(柳益秀;부곡동 출신)·윤동욱(尹東旭;산현동 출신)·윤병소(尹秉昭;능곡동 출신)·홍순칠(洪淳七;와동 출신) 등으로 군중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이끌고 경찰관 주재소·보통학교(현 안산초등학교)·향교 등을 돌았다.
류익수는 월피동 집에서 성포리 구장이 인솔하는 시위행렬과 함께 비립동까지 갔는데 이때 성포리 구장이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오. 만일 주재소라도 습격하면 큰일이오. 귀하가 알아서 군중을 지휘하면 염려가 없을 것이오." 하였다. 류익수는 군중을 지휘하여 읍내 도살장까지 갔다. 이때 왜경이 "읍내로 들어가지 말고 해산하라." 하였으나 류익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군중 앞에 서서 읍내로 들어가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과격해지자 "건물이나 기물은 우리 민족의 재산이므로 파손하지 말자."고 호소하여 평화적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어 사재(私財)를 털어 태극기를 만들고 성포리(聲浦里)의 노적봉 정상에 올라가 이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음식을 마련하여 제공하였다.

1919년 4월 5일 일본 경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고 같은 해 5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소요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여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으로 감형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6년여를 병석에서 고생하다가 1926년 5월29일에 사망하였다. 묘소는 안산시 부곡동에 있다.

1983년 대통령표창,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국가보훈처, 1985)
『시흥군지』 (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경기인물지』 (경기도, 1991)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러) 류원성(柳遠聲:1851~1945)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 안산 출신의 관인으로 본관은 진주(晋州)이고, 자는 주명(周鳴), 호는 모산(帽山)·백산(白山)이다. 아버지는 처사(處士) 류방(柳滂)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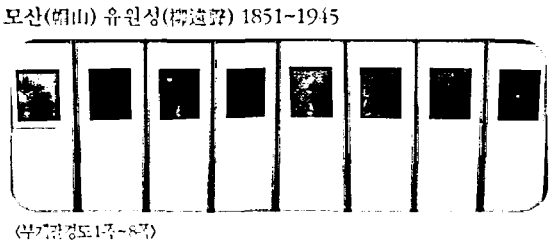
1851년(철종2) 출생하였고 1945년 사망하였다. 묘는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다.

류원성은 1874년(고종11)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897년에는 법부주사로서 고종이 원구단에서 고유제를 지낼 때 재랑(齋郎)으로 참여하였다. 1899년 평리원주사를 거쳐 같은 해 겸임법규교정소주사를 지냈다. 1901년 산릉도감낭청(山陵都監郎廳)과 평리원검사(平理院檢事)를 지냈고, 법부 법률기초위원과 법부교정소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1906년 개천군수(价川郡守) 등을 지냈고, 이듬해인 1907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이르렀다.

저서로 『모산집(帽山集)』 이 있다. 1926년 시흥 지방 인사들의 한시동인회 연성음사(蓮城吟社) 회원으로도 활동하였다. 묘소는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다.



[사진2.06] 모산 류원성



[사진2.07] 모산 류원성의 부계팔경도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머) 류기형(柳箕馨:1895~1943)

행정가로 수암면장을 2회 5년간 역임하였는데, 본관은 진주(晉州), 호는 현암(玄巖)이다. 안산시 부곡동에서 출생하였으며, 이조판서 명현(命賢)의 9대손이다. 표암 강세황의 작

품 중 하나인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를 잘 관리 보관함으로써 후손 류승봉에게 전해지고 있다. 묘는 안산시 부곡동에 있다.

버) 류문정(柳文楨:1919~1981)

교육가,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홍장(弘章)이고, 호는 옥포(玉圃)이다 선조의 부마 진안위 류적의 12대손으로 할아버지는 진형(進馨), 아버지는 승철(承哲), 어머니는 남양 홍씨(南陽洪氏)이다. 아들 4형제중 둘째로 영등포공립보통학교에서 졸업하였다. 그 후 경성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본으로 건너 가 농업기술전문 교육기관에서 2년간 새로운 농업기술을 배우던 중 일제 강점기 말기의 학도병 징집을 피하여 고향인 안산시 부곡동에 숨어 지내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1947년 제천농업고등학교 교사(실습주임)로 재직 중 한국전쟁을 당하였다. 수복 후 고향의 불우한 청소년들이 안산의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인 안산고등공민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제천농고의 복직을 포기하고 안산고등공민학교의 교사로 부임하였으며, 이 학교에서 교감을 거쳐 1955년 김완종(金完鐘) 교장이 안양여자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게 되자 제2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1961년 학제 변동으로 인하여 교장을 사임하고 개인사업에 종사하였다. 묘는 시흥시 하중동 선영에 있다.

3) 기타 관련인물

가) 강세황(姜世晃,豹菴;1713~1791)[23]

조선 후기 안산지역에서 활동한 문신이자 서화가 및 서화평론가이다.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광지(光之), 호는 첨재(忝齋)·노죽(露竹)·산향재(山響齋)·박암(樸菴)·의산자(宜山子)·견암(蠒菴)·노죽(露竹)·표암(豹庵)·표옹(豹翁)·해산정(海山亭)·무한경루(無限景樓)·홍엽상서(紅葉尙書)이다. 할아버지는 강백년(姜柏年), 아버지는 강현(姜鋧), 어머니는 광주이씨(廣州李氏)이며, 처는 진주류씨(晉州柳氏)와 나주나씨(羅州羅氏)이다.

아들로 진주류씨 소생인 강인(姜[인人+寅])·강흔(姜垠)·강관(姜[人寬])·강빈(姜儐)과 나주나씨 소생의 강신(姜信)이 있다. 강신의 아들 강이오(姜彛五), 강흔의 손자 강진(姜晉)이 그림으로 이름이 있었다.

강세황은 한양에서 태어났다. 32세 때 가난 때문에 한양을 떠나 처가가 있는 안산으로 이주하여 처음 벼슬길에 오르는 61세 때까지 30여 년 간 학문과 서화에만 전념하였다. 시, 글씨, 그림을 모두 잘하여 시서화 삼절(三絶)로 불렸으며, 당시의 문화계 즉 '예원(藝苑)'의 총수로 일컬어졌다. 매형인 임정(任珽)의 영향을 받았고, 안산에 거주하며 처남 류경종(柳慶種) 외에도 허필(許佖), 이수봉(李壽鳳) 등과 절친하게 지냈으며, 이익(李瀷), 강희언(姜熙彦) 등과도 교유하였다. 영조의 배려로 61세 때 처음 벼슬길에 올라 64세 때 기구과(耆耉科)에, 66세 때 문신정시에 수석 합격하여 영릉참봉(英陵參奉), 사포별제(司圃別提), 병조참의, 한성부판윤 등을 두루 거쳤다.

71세 때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감으로써 이른바 삼세기영지가(三世耆英之家)로 칭송받았다. 72세 때 북경사행(北京使行), 76세 때 금강산유람을 하고 기행문과 실경사생 등을 남겼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관직생활과 예술활동 등은 영·정조의 배려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

23)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people.aks.ac.kr/index.aks

며 더욱이 51세 때 영조가 신하들에게 그를 보호하여 그림 잘 그린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계기로 오랫동안 절필(絶筆)하였다.

강세황은 한국 회화사에 있어 산수와 화훼에서 한국적인 남종문인화풍을 정착시켰으며, 진경산수화를 발전시키고 풍속화·인물화를 유행시켰으며, 새로운 서양화법을 수용하는 등의 공을 남겼다. 작품 세계에 있어 평생 속기(俗氣) 없는 글씨와 문인화를 추구하였으며 공간감의 확대, 담백한 필치, 먹빛의 변화와 맑은 채색 등으로 독자적인 화풍을 이룩하였다. 또 서화에 대한 확고한 이론과 뛰어난 감식안으로 수많은 서화평을 남겨 당대 최고의 평론가의 위치에 있었다. 제자로는 김홍도(金弘道)와 신위(申緯) 등이 있다. 저술로 문집인 『표암유고(豹庵遺稿)』가 있으며, 대표적 회화 작품집 및 작품으로 『현정승집(玄亭勝集)』, 『첨재화보(忝齋畵譜)』, 『표현연화첩(豹玄聯畵帖)』, 『송도기행첩(松都紀行帖)』, 『임왕서첩(臨王書帖)』, 「벽오청서도(碧梧淸暑圖)」, 「난죽도(蘭竹圖)」, 「묵죽팔폭병풍(墨竹八幅屛風)」 등이 있다.

묘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에 있다. 시호는 헌정(憲靖)이다.1979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그의 문집인 《표암유고》를 영인, 출판하였다.[24]

[참고문헌]

변영섭, 『표암 강세황 회화연구』(일지사, 1988), 『안산시사』(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그림2.09] 강세황의 초상화
유지본(油紙本) 장화상, 1966년 이전, 자본 담채(淡彩), 286.6*19.8㎝, 강주진 소장.



[그림2.10] 강세황의 수결
수결(手決)이란 당시의 사인이다.



[그림2.11] 강세황 영정[25]

24) 朝鮮王朝實錄
豹菴遺稿
經山集
警修堂全藁
海巖稿
槿域書畵徵(吳世昌, 啓明俱樂部, 1928)
姜豹菴(崔淳雨, 考古美術 110, 1971)
豹菴姜世晃의 山水畵硏究(裵貞龍, 考古美術 138·139, 1978)
豹菴姜世晃의 繪畵硏究(邊英燮,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6)

25) 강세황의 초상화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으며 1975년 5월 16일 보물 제50호로 지정되었다. 강세황 영정은 본래 2폭(幅)으로서, 1폭은 강세황 자신이 그린 자화상이며 또 1폭은 이명기(李命基)가 그렸다고 전해진다. 현재 사진은 이명기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작품으로, 그림에서 강세황은 관복과 관모를 착용한 모습이다. 직접 그린 자화상에서 강세황은 옥색(玉色) 도포(道袍) 차림을 하고 있다. 이 사진의 그림은 복색을 제외하고는 자세나 시선이 강세황의 자화상과 거의 같으며 그림에 어제제문(御製祭文)이

나) 강희맹(姜希孟,私淑齋;1424~1483년)

안산(安山)과 인연을 맺은 것은 안산 출신 순흥인(順興人) 안숭효(安崇孝)의 딸을 배필로 맞으면서부터였다. 그는 잠시 벼슬에서 물러나 안산 가까운 금양(衿陽;지금의 경기도 시흥)에 퇴거해 농사일을 연구하기도 하였으며, 1483년(성종14) 60세로 세상을 뜬 뒤 안산 즙천리에 묻혔다.

바. 관련기록

1) 하당팔영(荷堂八詠)

류명천은 청문당(淸聞堂) 인근의 경치를 읊은 시 「하당팔영(荷堂八詠)」 여덟 수를 남겼다.

2) 고행록 2점(苦行錄 二點)

안산시 부곡동 237번지 류문형가에서 소장하고 있다.

가) 한산이씨 고행록(漢山李氏 苦行錄)

진주류씨 제18세손 류명천(柳命天;1633~1705년)의 삼취 정경부인 한산이씨의 한글 수필본이다. 내용은 이씨 부인이 시집온 1676년부터 별세한 1727년까지 50여 년간 남편인 류명천의 여러 차례의 유배생활과 겹치는 집안의 우환으로 인한 생활의 괴로움을 유려한 궁체로 기록한 수필이다. 한산이씨의 아버지는 수빈(壽賓), 조부는 진사인 부(阜), 증조부는 판서를 지낸 경전(慶全), 고조부는 영의정을 지낸 아계(鵝溪) 산해(山海)이다. 이 고행록은 현재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유려한 문체로 조선 중기 수필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받을 만하며, 또한 한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세로 34㎝, 길이 557㎝이다.

나) 한산이씨 고행록 안동권씨 필사본(漢山李氏 苦行錄 安東權氏 筆寫本)

고행록은 한산 이씨의 8대손이던 화은(華隱) 류해엽(柳海曄;1910~1996년)의 부인 안동 권씨 태임(1908~1967년)이 18세 되던 해인 1926년에 이씨 부인의 고행록을 그의 시할아버지인 모산(帽山) 류원성(柳遠聲)이 다시 구술하는 것을 받아 적어 남긴 것이다. 원전인 한산 이씨본과 약 2백 년의 차이가 나는데, 한글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7세기 조선 시대의 풍속과 사대부의 생활상을 밝히는 민속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수필문학을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더욱이 2백 년 전후의 어휘 변화, 철자 변화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어서 1996년 교육학술진흥기금에 의한 연구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김영배 교수 외 5인의 학자가 3년여에 걸쳐 연구한 결과가 출판사 태학사(太學社)에 의하여 출간될 예정으로 있다.

3) 회화류

가) 기축사마동방록(己丑司馬同榜錄)[26]

1589년 사마시(司馬試)에 함께 합격한 동기생 5인이 1602년(선조35) 함경도 의주(義州)에서 만나 계회를 갖고 제작한 계회도첩(契會圖帖)이다. 이 계첩은 용천군수(龍川郡

적혀 있는 것을 보아, 이명기가 강세황 사후 그의 자화상을 보고 따라 그린 그림으로 생각된다.

26) 경기도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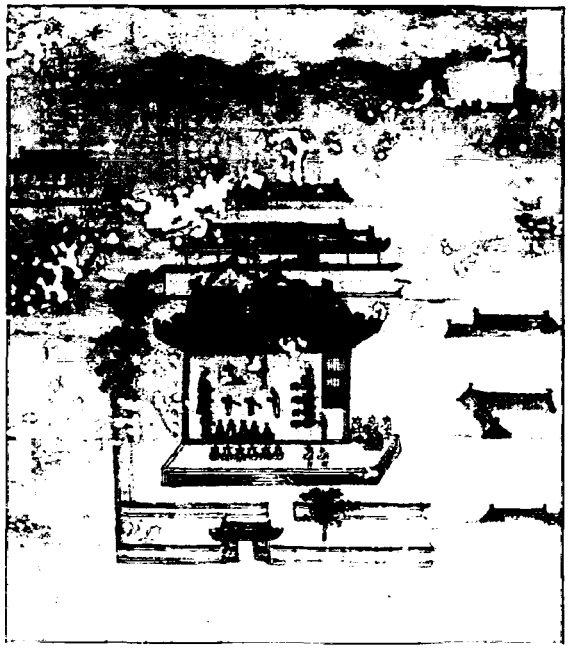
守) 류시회(柳時會)가 세자시강원보덕(世子侍講院輔德) 홍경신(洪慶臣), 의주부판관(義州府判官) 홍유의(洪有義), 병조정랑(兵曹正郎) 윤안국(尹安國), 평안도도사(平安道都事) 이호의(李好義) 등 1589년(선조22)의 사마시 동방 5인과 계회를 갖고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이다.

과거시험에 같이 합격한 동기생들을 동방(同榜)이라 하며, 이들의 관계는 형제에 비유될 만큼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사마시는 벼슬길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었기에 사마동방(司馬同榜)들의 동류의식은 일생을 통해 지속되었다.

첩의 구성은 그림 1면, 좌목(座目) 1면, 시문(詩文) 3면 및 그의 후손 류해수(柳海睟)가 쓴 발문(後跋)이 별도의 면에 수록되어 있다. 첩(帖)의 표지에는 후대에 써 붙인 '용만가회사마동방록(龍灣佳會司馬同榜錄)'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좌목은 주선(朱線)으로 칸을 구획한 후 각 인물의 품계, 관직, 이름, 호(號), 자(字), 생년, 본관, 과거(科擧)사항 등을 기재하였다. 좌목의 내용을 보면, 홍경신은 어사(御史)로 평안도에 파견되었고, 병조정랑 윤안국은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으로 가던 도중에 여기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첩에 홍경신이 쓴 시문에 의하면 1602년(선조35) 5월 지금의 의주(義州)인 용만(龍灣)에서 만난 5인의 동방들이 객관(客館)인 청심당(淸心堂)에서 계회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다.

시문의 마지막에는 '萬曆壬寅午月旬二日 鹿門洪德公 書于龍灣之淸心堂'이라 적혀 있어 방회(榜會)의 시점과 장소가 파악된다. 그림에는 계회가 베풀어지는 건물을 화면 중앙에 배치하였고, 부감시(俯瞰視)를 적용하여 건물 내부에서의 연회장면을 주변경관과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원산(遠山)의 표현에는 다소 간략하게 가해진 단선점준(短線點皴)이 남아 있어 17세기 초엽까지도 조선초기의 전통적인 화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회의 장면에는 촛불이 켜져 있어 야간에 모임을 가진 것으로 짐작되며, 기녀(妓女)와 악사(樂師)가 동원된 연회의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 방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관으로 가 있던 인물들이 지방에서 사적(私的)으로 가진 경우도 많아, 지방에서 그려진 계회도의 화풍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대단히 흥미롭다.



[그림2.12] 기축사마동방록



[그림2.13] 용만가회사마동방록(1602)

나) 용만가회사마동방록(龍彎佳會司馬同榜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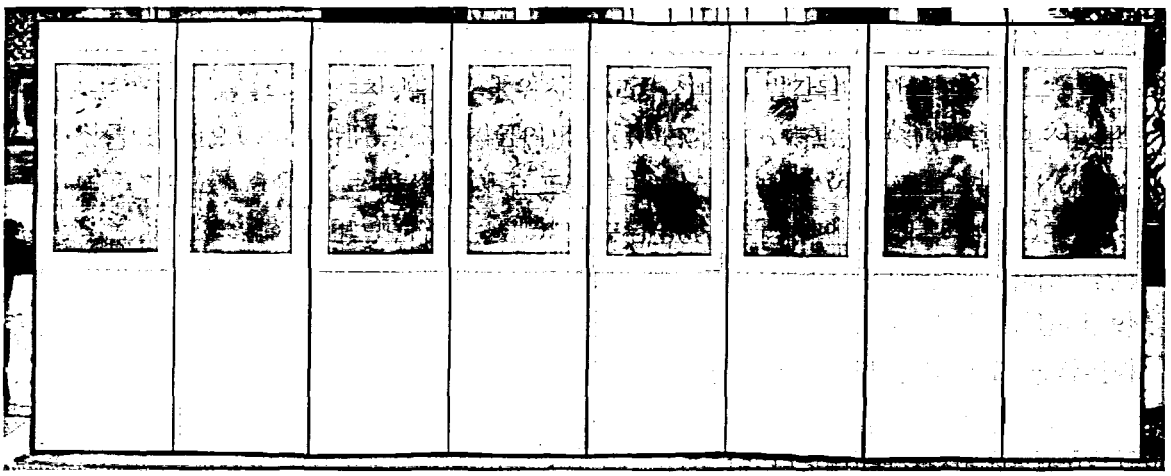
화첩은 선조 35년(160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평안북도 의주 지방에 있는 용만(龍彎)의 청심당에서 선조 22년 기축사마시(己丑司馬試)에 합격한 동기생들인 당시 용천군수 류시회(柳時會), 어사 홍경신(洪慶臣), 의주부 판관 홍유의(洪有義), 서장관 윤안국(尹安國), 평안도 도사 이호의(李好義) 등이 자신들의 모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5개의 동일한 화첩 중의 하나이다. 모두 다섯 본이었을 화첩 중 현존하는 것은 류문형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 유일본으로 이 화첩의 끝 부분에는 용천군수 류시회의 8세손 류원성(柳遠聲)의 발문이 추가되어 있다.

이 화첩은 안산 부곡동의 류시회의 문중에 전해 오는 것으로 동일본이 2부가 있다. 아마도 당시 5부를 만들어 각각 하나씩 지녔으나 무슨 연유인지 한 사람이 두 본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섯 사람 중에 윤안국은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 도중에 배가 뒤집혀 순직하였고, 이호의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탄 왕조실록의 중간을 위하여 기주관(記註官)을 하였던 인물이다.

전체 5쪽의 첩으로 첫장은 압록강변 의주(義州) 청심당(淸心堂)의 전경과 연회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계회도이고, 제2쪽은 다섯 동기생들이 연배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직명·자(字)·호(號)·생년·관향, 그리고 을축년 사마시를 거친 이후 등과한 연기(年紀)가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이들이 모였음을 기리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고, 그 말미에는 만력(萬曆) 임인(壬寅;1602년) 5월 12일이라고 기록해 확실한 제작 연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첩을 보관한 류해엽(柳海曄;1910~1996년)이 기록한 발문이 들어 있다.

중앙에 청심당에 앉아 연회를 즐기는 5인의 선비를 우측에 4인, 좌측에 1인을 그렸고 당의 중앙에는 춤추는 기녀를, 당의 앞으로는 연회 참가자를 그렸다. 그리고 주위의 풍경으로 강 너머 중국의 원산을 희미하게 그렸다. 원근법 없이 사물을 대소로 표시하였고 당의 측벽이나 측면 담장의 경우는 평면으로 표시하였다. 길이 33.7㎝, 폭 28.5㎝으로 진채(眞彩)로 그렸다. 진주류씨(柳氏) 차종가(次宗家) 류문형가(柳文馨家) 소장하고 있다.

다) 박창규낙화산수 8곡병풍(朴昌珪落花山水八曲屛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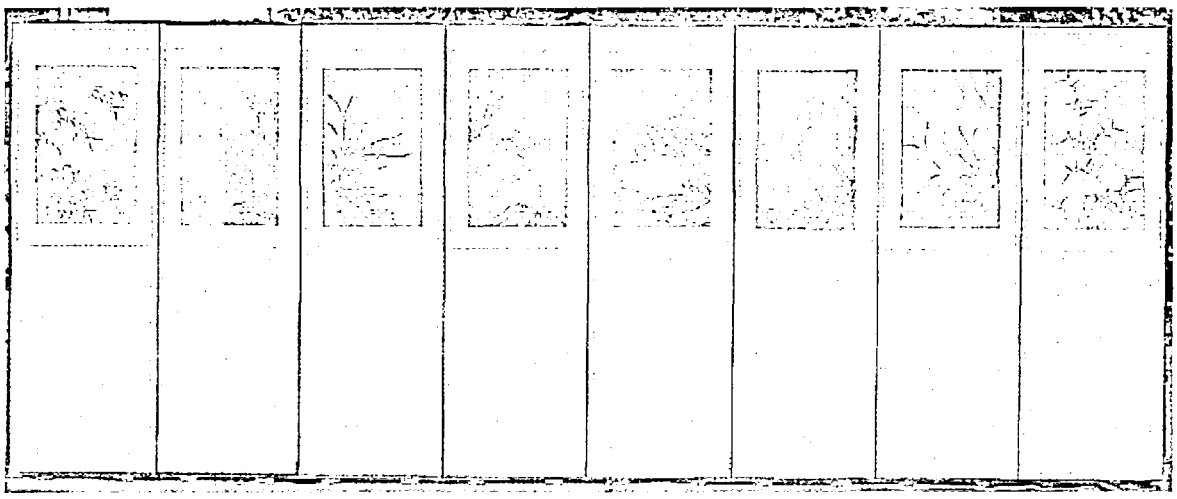
[사진2.08] 박창규 낙화산수 8곡병풍(조선중기)

역사 및 유래 장지를 인두로 지져서 산수를 그렸는데 그림은 박창규(朴昌珪:1783~?)가 그리고, 화제는 어시자(於是子)와 기제(杞薺)라는 사람이 붙였다.

각 장의 내용은 오른편부터 산수-누각산수-한가산수-우중조어-누각산수-누각산수-도선도-기로노인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풍은 조선 중기의 산수 경향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지극히 정교하고 붓으로 그린 것보다도 더 생동감이 넘친다. 각 장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적은 글들이 낙서로 남아 있다.

박창규는 1783년(정조7)에 태어났으나 죽은 해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함양인으로 자는 성민(聖玟), 호는 수산(遂山), 그리고 화화도인(火畵道人)이라고 하였으며 낙화로 당시의 제일이라 하였다. 8폭 병풍으로 각 장의 그림 크기는 70.0㎝×37.4㎝이며, 안산시 부곡동 237번지 류문형 씨 소장하고 있다.

라) 사군자 8곡병풍(四君子八曲屛風)



[사진2.09] 사군자팔곡병풍

□ 소장

안산시 부곡동 237번지 류문형 씨 소장

□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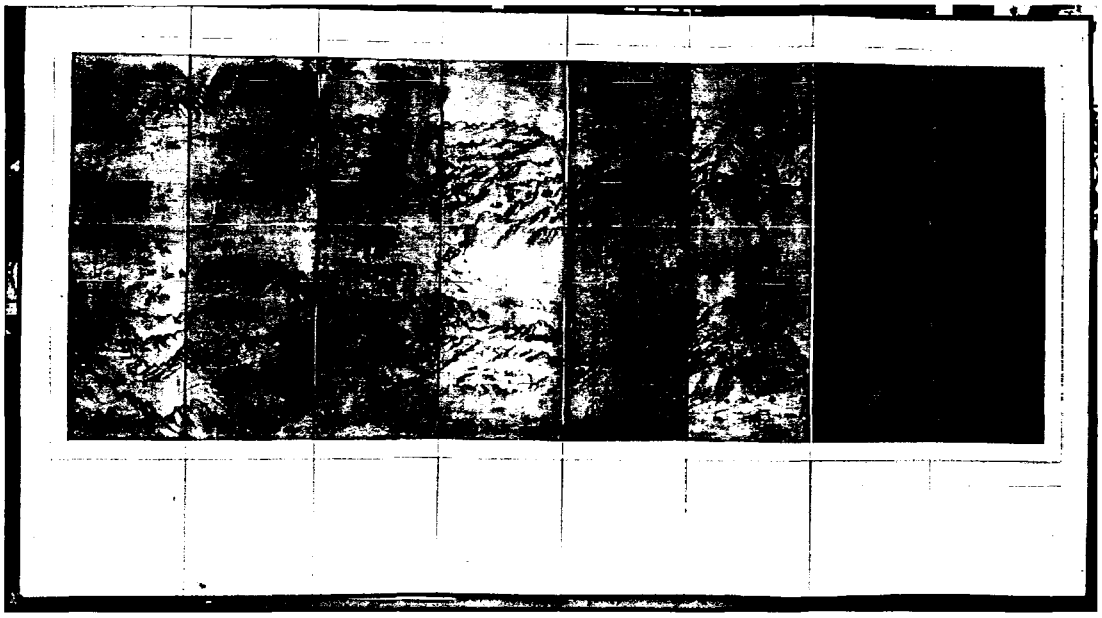
각 장의 길이 53.5㎝, 폭 32.8㎝이며 견본에 수묵으로 그린 8곡병풍이다.

□ 역사 및 유래

병풍에는 표암 강세황의 작품으로 되어 있지만 화풍이 표암의 것과는 거리가 있고 그 시대가 더 오래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다. 병풍의 표암 운운 제목은 소장해 온 류씨 집안에서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매화 1폭, 난초 2폭, 국화 2폭, 소나무 1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원래 병풍이 아니라 낱장으로 전해 오던 것을 근래에 표구하였다 하므로 원래 10곡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암벽의 처리나 냇물을 그리는 기법에서 조선 중기 이전의 화풍이 남아있는 작품들로서 한 사람의 솜씨로 여겨진다.

마) 개천군 전도(价川郡全圖)

모산 류원성이 개천군수로 있을 때 제작토록 한 지도로 청해후인(淸海後人) 이재하(李在夏)가 그렸다. 첫 번째 폭에는 '조양군지지주록'이라는 제하에 이 지도를 그린 연유를 적었고, 나머지 7폭에는 개천군의 전경을 연결하여 그렸다. 상부에 청천강을 배치하고 중앙에 개천군을 두었으며 중심에 개천군의 나루인 관진을, 그리고 개천군의 중심에 조양관을 두고 마을을 포진시켰다.



[사진2.10] 개천군 전도 병풍(1906)

산이나 집은 간략히 세필로 표현하였지만 상대적인 위치는 정확히 표현하였고 길은 붉은 주선으로 표시하였다. 안산시 부곡동 237번지 류문형 씨 소장하고 있으며, 길이 114.5cm, 각 장의 폭 35.7cm로서 비단에 갈필 수묵이다.

1900년대초 당시 개천 지방을 살펴볼 수 있는 지도로서 매우 중요하며, 당시의 마을생활이나 개천의 교통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민속자료라고 할 수 있다. 광무 11년(1906년) 작이다.

바) 부계팔경도(釜溪八景圖)

지 정 번 호	안산시 향토유적 제16호
소 재 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237번지
시 대	일제강점기
규 모	그림-31.2×24.8cm 병풍-150×560cm

□ 위치

안산시 부곡동 237번지 류문형가(柳文馨家)

□ 구조

총 8폭으로 그림 31.2×24.8cm, 병풍 150×560cm

□ 역사 및 유래

부계팔경도는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일원의 팔경을 그림으로 묘사한 병풍이다. 강세황은 이렇듯 류경종의 도움을 받아 청문당이 위치한 부곡동을 묵향과 예향(藝香)이 가득찬 공간으로 창출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부심으로 모산 류원성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땅 부곡지방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그린 8폭의 부곡 8경은 산수와 전원기암괴석을 독특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부곡동 일원의 8가지 뛰어난 경승을 손수 모두 8폭으로 그려져 있는데 『부계팔경도(釜溪八景圖)』에는 「모산초적(帽山草笛)」과 「부곡 시냇가의 달빛 속 낚시[釜溪釣月]」, 「숲속 봄날의 꽃비[萬樹花雨]」, 「진벽루의 흰 구름[鎭碧白雲]」, 「지평 뜰에서 들려오는 농군들 노랫소리[芝坪農歌]」, 「먼 바다에서 돌아오는 돛단배[望海歸帆]」,

「우산에 지는 석양[牛山落照]」, 「판천교 다리의 게잡이 불빛[板川蟹火]」 등이 들어 있다. 각 경관마다 화제(畵題)가 있고 독특한 필치로 산수와 전원 또는 기암괴석을 묘사하였다. 특히 전경도에는 지형·산세·지명까지 기록되어 있어 지명 연구 등 향토사적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 특기 사항

1920년대 부곡 지방의 지형 구조가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사) 부계전도(釜溪全圖)

지 정 번 호	안산시 향토유적 제17호(1991.11.2)
소 재 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237
시 대	묘 - 일제강점기(1920)
규 모	그림- 76.2×133cm 족자 - 120×180cm

□ 위치

안산시 부곡동 237번지 류문형가(柳文馨家, 진주류씨 백참판공파 문중)에서 그동안 보관하여 왔다가 2008년 12월 10일 진주류씨 백참판공파 종손 류기정과 전통 종가 경성당 종손 류승종이 안산시에 기탁하여 성호기념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 구조

그림 72.2×133cm, 족자 120×180cm

□ 역사 및 유래

경성당(竟成堂) 주인 모산(帽山) 류원성(柳遠聲:1851~1945)이 1900년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에 있는 진주류씨 조상의 묘소와 종토의 위치를 정확히 표기하여 후손들이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서편에서 부감법으로 부곡동을 사실적으로 그린 지도이다. 그러나 단순히 조선 시대의 다른 지도와는 달리 대단히 사실적인 필치로서 일종의 진경산수라고 할 수 있다. 세필로 각 지역의 지형산세 지명등의 특징을 잘 표현하였으며 중요한 지점들은 세필로 상세히 표시하였고 중요 지점에 대해서는 한자로 지명을 명기하였다. 그리고 산소가 있는 곳은 붉은 점을 찍어 표시하고 땅은 자신의 것과 타인 소유를 글씨를 적어 표시하였다. 지형도의 위에 후손에게 부곡동의 토지와 산소를 철저하게 수호할 것을 염원하는 발문을 적고 있으며 제작한 연기와 작자를 정확히 명기하고 있다.

1920년대 부곡지방의 지형, 산세, 지명 등 구조를 변모를 볼 수 있는 개발 이전의 안산의 모습을 원형대로 볼 수 있는 자료일 뿐 아니라 명기된 지명들은 이 지역의 지명을 고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아) 부계서화첩(釜溪書畵帖)

□ 소장

안산시 부곡동 237번지 류문형 씨 소장.

□ 규격

전책이 30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기는 22.5cm×15.5cm이다. 화문전지를 사용하였다.

□ 역사 및 유래

모산공 류원성이 서문과 그림을 넣고 그림에 대한 제(題)는 조카인 류혁수가 붙였다. 모산공이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의 8명승을 담채로 그렸으며 말미에는 부계도를 시점을 달리하여 그렸다.



[사진2.11] 부계전도

이 그림은 류씨 일가가 안산에 자리 잡게 된 가장 먼 조상의 묘가 있는 시랑동의 그림 등 류씨 집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지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서화첩 말미에는 허헌의 글이 붙어 있다.

8편의 그림에는 화제가 붙어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그림은 화모봉(華帽峰)인데 자신의 호가 이 산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는 진천(眞川)·지로평(芝老坪)·만수동(萬樹洞)·망해암(望海岩)·부계일산정(釜溪一傘亭)·병암일휴정(屛岩一休亭)·응암(鷹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의 그림이 단아하고 섬세하며 각 풍경의 특성을 문기 있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여러 지명을 기입해 넣었다.

4) 서간첩류

가) 경성당 '선대교승서간첩' 간찰첩(竟成堂'先代交承書簡帖'簡札帖)

□ 소장

안산시 부곡동 237번지 류문형 씨 소장.

□ 규격

책자의 크기는 길이 41.8cm, 폭이 28.5cm이다.

□ 유래

진주류씨 문중에서 누대에 걸쳐 교류하였던 간찰 모음 책자로 총 20매가 들어 있다. 이 중에는 안정복·강세황·이후원·구운·정유악·강세구·권유·이서우·오시복·심완·이담명·이태화·홍중정·홍수보·박도상·강인·김상정·홍준·홍의호·강노 등의 간찰이 포함되어 있다.

나) 모산공 교승서간첩(帽山公交承書簡帖)

□ 소장

안산시 부곡동 237번지 류문형 씨 소장

□ 규격

책자의 길이 40.0cm, 폭은 31.9cm이다.

□ 역사 및 유래

모산공 류원성이 받았던 간찰을 모은 것으로 이 속에는 김사준·박기양·주석면·김가진·이하영·성기운·이경하·이기동·강경희·정문섭·민영선·함태영·조종필·이수면·정현석·박제순·박의양 등 여러 인사의 간찰이 총 23매 포함되어 있다.

5) 목제품류

가) 목판일괄(木板一括)

□ 소장

안산시 부곡동 237번지 류문형 씨 소장

□ 규격

죽매문 목판:14.1×5.4cm

매난국죽 백초향목판:18.7×7.4cm

초문 목판:23.3×7.7cm

파초문목판:25.5×12.6cm. 사변에 초문으로 테를 둘렀다.

죽문:23.5×13.3cm. 여친구우 문한제(如親舊雨 文漢濟)명

세로줄 속에 3가지의 대나무를 각하였다.

부적판:39.3×20.3cm

괘지목판:36.8×20.3cm

책보목판:23.5×13.3cm. 뇌문이 주위에 있고 중심은 사선문을 교대로 배열하였다.

능화문책보판

나) 소나무궤

소나무 판목 궤짝으로 크기가 작아 돈궤 혹은 잡동사니 궤로 추측된다. 위로 열리는 뚜껑은 상면의 절반을 덮게 되는데 꽃 모양으로 오린 무쇠 장식이 붙어 있다. 폭이 46.8cm, 너비 29.0cm, 높이 31.2cm이다. 안산시 부곡동 237번지 류문형 씨 소장하고 있다.

다) 연상(硯床)

모산 류원성 이전부터 사용하던 것이라고 전하므로 족히 100년 이상은 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리는 개다리를 뒤집은 방향으로 만들었고 상면은 연상,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서랍이 붙어 있는데 반달 모양의 백동 손잡이를 만들어 붙였다. 돌배나무로 만든 것으로 폭 41.0cm, 너비 23.8cm, 높이 31cm이다. 안산시 부곡동 237번지 류문형 씨 소장하고 있다.

사. 문화유산(文化遺産)

1) 안산시

안산에는 문화유적 현황을 살펴보면 [표2.04]와 같다.

[표2.04] 안산시 문화유적 현황

계	국가지정	도지정					시향토유적	전통사찰
	중요무형	소계	유형	무형	기념물	문자		
34	1	11	1	1	7	2	20	2

도지정문화재 11개소 중 안산읍성과 관아지는 안산의 진산인 수암봉과 연계하여 관아·향교·사직단·우사단·여단 등을 복원할 계획이며, 사세충렬문의 잔디광장을 확장하여 문화공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별망성지에는 주차장을 확보하여 문화관광 명소로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면 안산은 그야말로 전통과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보기 드문 도시가 될 것이다.

지정문화재외에도 선사·역사 유적 및 유물로 별망패총(別望貝塚), 흘곶패총, 말부흥패총과 월피동(月陂洞) 지석묘군(支石墓群), 양상동(楊上洞) 지석묘군(支石墓群) 및 양상동(楊上洞) 적석토광묘(積石土壙墓)가 있다.

삼국시대의 성으로 성곡동(城谷洞) 성지(城址)와 목내동(木內洞) 성지(城址) 고려시대의 일동(一洞) 고분(古墳) 그리고 조선시대 현덕왕후릉지(顯德王后陵址) 출토 유물로 난간석주, 명안공주(明安公主) 묘 및 관련 유물 화림선원(華林禪院)에 보관되어 있는 목련경(目蓮經) 및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지형(紙型) 고잔동(古棧洞) 태봉(胎封)이 있다.

[표2.05] 안산시 문화유적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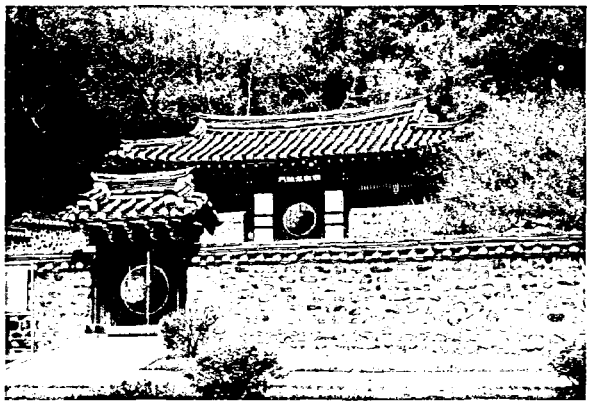
구 분	지정별	지정번호	지정 명칭	소 재 지	지정일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53호	한응인영정및재실유물일괄 (韓應寅影幀및齋室遺物一括)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11	1995.04.24
		제181호	쌍계사목조여래좌상(雙溪寺木造如來坐像)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058	2002.09.16
		제182호	쌍계사현왕도(雙溪寺現王圖)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058	2002.09.16
	기념물	제32호	팔곡리향나무(八谷里향나무)	안산시 상록구 팔곡1동 53-3	1976.08.27
		제40호	이익선생묘(李瀷先生墓)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5	1977.10.13
		제73호	별망성지(別望城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6	1979.09.03
		제83호	안탄대선생묘(安坦大先生墓)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5-1	1985.09.20
		제101호	고송정지(枯松亭址,炭翁古址)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산58	1988.03.21
		제127호	안산읍성및관아지(安山邑城및官衙址)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산26-4일원	1991.10.19
		제157호	한응인묘역(韓應寅墓域)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11	1995.08.17
		제186호	취몽헌오태주묘역(醉夢軒吳泰周墓域)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산48	2003.04.21
		제194호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 (安山大阜鑛山堆積巖層)	안산시 구 대부동, 선감동147-1	2003.09.24
	문화재자료	제7호	오정각(五旌閣)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29	1983.09.19
		제8호	사세충렬문(四世忠烈門)	안산시 단원구 와동 151	1983.09.19
		제94호	안산청문당(安山淸聞堂)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261-15	2000.03.24
		제110호	쌍계사아미타회상도(雙溪寺阿彌陀會上圖)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058	2002.09.16
		제127호	구대부면사무소(舊大阜面事務所)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647	2004.05.06
시지정	향토유적	제1호	잿머리성황당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76	
		제2호	선부동지석묘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27	
		제3호	강징선생묘 및 신도비(姜澄先生墓,神道碑)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산16-3	
		제4호	김여물 장군묘및신도비((金汝岉軍墓,神道碑)	안산시 단원구 와동 141	
		제5호	신점선생묘(申點先生墓)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산9-2	
		제6호	홍명원 선생묘(洪命元先生墓)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78	
		제7호	김류선생영정(金瑬先生墓)	안산시 단원구 와동 102-10	
		제8호	최정걸장군묘(崔挺傑先生墓)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92	
		제9호	정연벽선생묘(丁彦璧先生墓)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산7	
		제10호	최혼선생묘(崔渾先生墓)	안산시 상록구 사동 83-8	
		제11호	이인현선생묘(李仁賢先生墓)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산87	
		제12호	류석선생묘 및 신도비(柳碩先生墓,神道碑)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산5-1	
		제13호	홍처윤선생묘(洪處尹先生墓)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2-2	
		제14호	정정옹주묘(貞正翁主墓)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산50-40	
		제15호	윤강선생묘 및 신도비(尹絳先生墓,神道碑)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7-2	
		제16호	부계팔경도(釜溪八景圖)	안산시 단원구 부곡동 237	
		제17호	부계전도(釜溪全圖)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237	
		제18호	최용신선생묘(崔容信先生墓)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4	
		제19호	홍정희 효자문(洪貞義孝子門)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748	
		제20호	자선비(慈善碑)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8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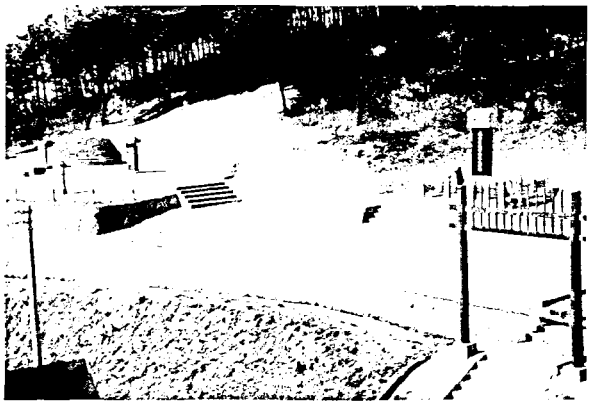
1. 별망성지



2. 안탄대 선생 묘소 전경



3. 사세충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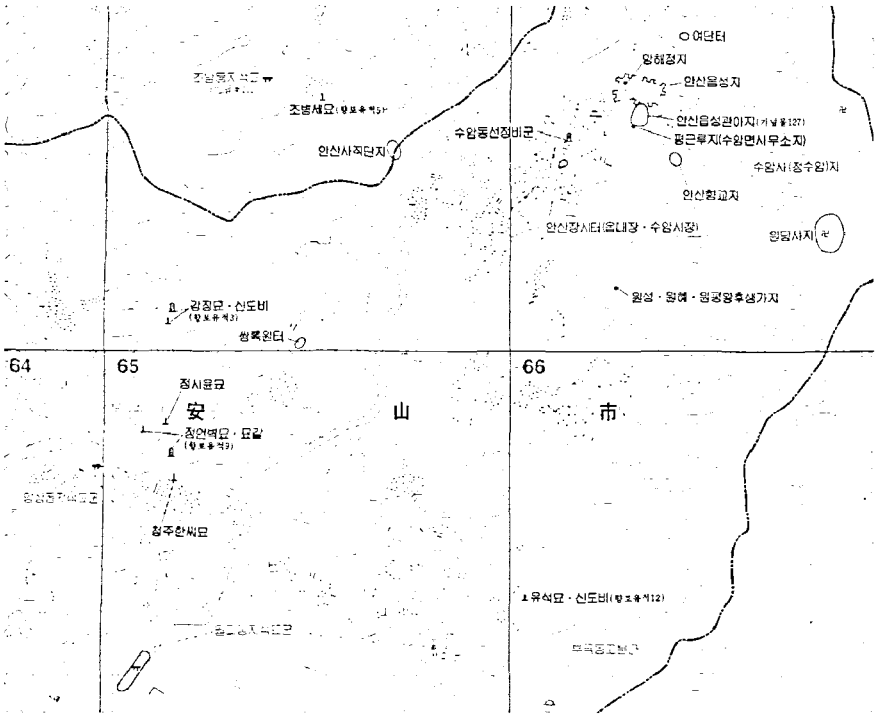


4. 최정걸 장군 묘역

[사진2.12] 안산시의 문화유적

2) 부곡동 지역

부곡동에는 문화재로는 국가 지정 문화재는 없고, 도 지정문화재로 문화재자료 1개소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안산시 향토 유적이 3개소 소재하고 있다.



[그림2.14] 부곡동의 문화유적(경기문화재단)

[표2.06] 부곡동의 문화유적

구 분		지 정 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 재 지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94호	안산청문당(安山淸聞堂)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261-15 진주류씨성산공파종친회
	시지정	향토유적	제12호	류석선생묘 및 신도비 (柳碩先生墓,神道碑)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산5-1
		향토유적	제14호	정정옹주묘(貞正翁主墓)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산50-40
		향토유적	제16호	부계팔경도(釜溪八景圖)	안산시 단원구 부곡동 237

가) 류석 선생 묘 및 신도비((柳碩先生墓,神道碑)

지 정 번 호	안산시 향토유적 제12호
소 재 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산5-1
시 대	묘-효종6년(1655) / 신도비- 숙종16년(1690)
규 모	봉분 - 128×370cm / 신도비 - 212×96×38cm

□ 위치

안산시 부곡동 산 5-1번지. 수인산업도로 안산에서 인천 쪽으로 향하다 보면 신갈-안산고속도로와 교차하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우측으로 보면 류석 선생의 묘소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보이고 소로를 따라 올라가면 류석 선생의 묘역이 나타난다.

□ 역사 및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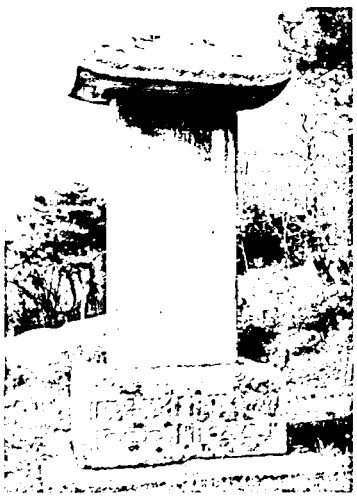
묘소는 효종 6년(1655년)에 조성되었으나 비의 건립 연대는 숙종 16년(1690년)으로 조경(趙絅)이 비문을 짓고 허목(許穆)이 글을 썼다.

류석은 조선 시대의 문신으로 자는 덕보(德甫), 호는 개산(皆山), 본관은 진주(晋州)이다. 시회(時會)의 아들로 조부 격(格)은 정언을 지냈고, 어머니는 안동 권씨이다. 인조 3년(1625년) 강원도 관찰사겸 병마수군절도사에 이르렀는데 그는 천성이 강직하고 지조가 있어 인조를 30년 동안 받들었고 효종도 7년이나 섬겼는데 두 임금 모두의 신임이 두터웠다.

신도비는 묘역 입구에 위치하며, 구조는 대석위에 비신을 세우고 팔작지붕형태의 옥개석을 얹었다. 신도비 내용중에는 "공은 인품이 강직하고 방정했으니 그것은 타고난 천성이다. 그리고 특립독행(特立獨行)의 지조가 있었으며 문장을 하는 것도 그 위인과 같았다. 선배에 남곽·박동열 같은 이가 있어 공의 변려문은 소장공(蘇長公;東坡)의 당에 들어갈 만하다."고 칭찬하는 글이 씌어 있다. 공의 저서로는 「개산집(皆山集)」 이 전해지고 있다.



[사진2.13] 류석 선생 묘역



[사진2.14] 류석 선생 신도비

□ 구조

봉분 128×370cm, 비신 212×96×38cm인데 신갈-안산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원래의 위치에서 약간 이동된 상태이다.

묘역의 석물로는 상석·향로석을 비롯하여 동자석·문신석·망주석이 각 한 쌍씩 있고, 장명등이 중앙에 있었으나 1980년대에 도난당하여 지금은 빈 자리만 남아 있다.[27]

나) 류영묘 (柳穎墓)

□ 위치

안산시 부곡동.

□ 구조

묘소의 석물로는 묘갈과 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문인석(文人石) 등이 있는데 묘갈의 규모는 147×64×21cm이고 상석은 146×88×58cm이며 문인석의 높이는 100cm이다.

□ 역사 및 유래

묘갈의 전면에는 "贈嘉善大夫吏曹參判行通訓大夫弘文館應敎柳公諱穎之墓 贈貞夫人全義李氏○○" 쓰여 있어 이 묘소는 류영과 그의 부인 전의(全義) 이씨(李氏)의 합장 무덤임을 알 수 있다.

다) 류적묘 (柳頔墓)

□ 위치

안산시 부곡동.

□ 구조

이 묘역에는 류시행(柳時行) 류영(柳穎) 등의 묘도 함께 있는데 류적의 묘가 가장 상좌에 있다. 석물로는 묘갈과 상석·향로석·망주석·동자석·문인석 등이 있는데 그 규모는 비신이 124×60×19cm, 기대석이 98×61×30cm, 상석이 157×95×64cm이고 동자석·문인석의 높이는 각각 84cm, 172cm이다.

□ 역사 및 유래

묘갈은 풍화가 심해 비문을 판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묘갈의 전면에는 "贈通憲大夫晉安尉行順義大夫晉安尉柳Z之墓貞正翁主○○" 쓰여 있어 부인인 정정옹주와 합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류시행묘(柳時行墓)

□ 위치

안산시 부곡동.

□ 구조

이 묘역에는 류시행의 묘를 비롯하여 류영·정정옹주의 묘소 등 모두 4기의 봉분이 있는데 그 중 류시행의 묘소는 남서쪽 가장 낮은 곳에 있다. 묘는 쌍분이며 석물로는 묘갈과 상석·향로석이 가운데 있고 상석 좌우에 동자석이 있으며 그 뒤쪽 좌우에 망주석과 문인석이 있다. 묘역 방위는 동남동-서북서향이다. 묘갈은 대리석으로 비신의 풍화가 심한데 묘갈의 규모는 비신이 141×65×16cm, 기대석이 98×60×20cm이다. 상석의

27) 문화재청, 2008년도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조사보고서2-경기도-12-06, 241쪽

재질은 화강암으로 그 규모가 160×95×57cm이고 동자석의 높이는 100cm이며, 망주석과 문인석의 높이는 각각 220cm, 280cm이다.

□ 역사 및 유래

비신의 전면에는 "贈嘉善大夫吏曹參判行通訓大夫弘文館校理柳時行之墓貞夫人李氏○○銘"이 새겨져 있다. 현재 안산에 세거하는 진주류씨는 당초 충북 괴산 선영하에서 세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1606년 류시행이 죽자 선조는 부마 류적(柳頔)이 한성에서 괴산까지 시묘 다니는 것이 어렵다 하여 한양 근교인 안산에 묘를 조성하고 부곡동 일대를 사패지로 하사, 류시행의 형인 류시회(柳時會)를 비롯하여 그 일가를 안산으로 이주케 하였다.

마) 정정옹주 묘(貞正翁主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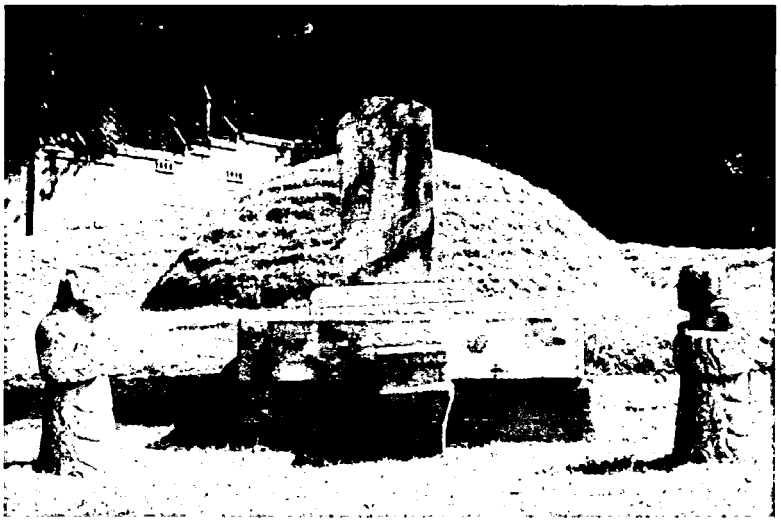
지 정 번 호	안산시 향토유적 제14호
소 재 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산50-40
시 대	조선조 현종7년(1666)
규 모	봉분 - 200×540cm

□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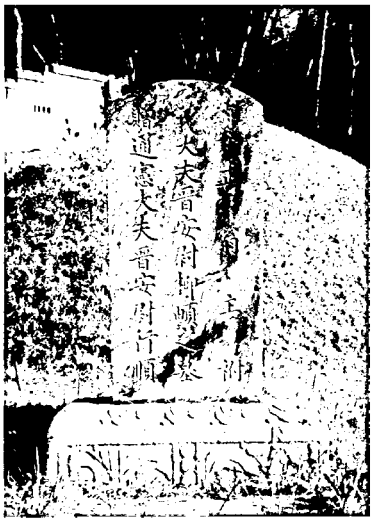
안산시 부곡동 산 50-40번지에 있다. 수인산업도로 안산에서 인천방향으로 가다보면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의 안산분기점이 나오고 정재초등학교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우회전하는 샛길을 통해 진입하면 부곡동이다. 정재초등학교를 지나 제일스포츠센터 쪽으로 향하다 보면 정정옹주 묘의 표지판과 만날 수 있다.

□ 구조

봉분 200×540cm



[사진2.15] 정정옹주 묘역



[사진2.16] 정정옹주 묘비

□ 역사 및 유래

선조의 후궁 정빈 홍씨(貞嬪洪氏)의 소생으로 선조의 9째딸이다. 1604년(선조37) 정정옹주로 봉해지고, 광해군 2년 진안위(晋安尉) 류적(柳頔)에게 출가하였다. 광해군의 이복동생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이 강화도에서 증살(烝殺)되었고, 이어 광해군이 선조의 계비(繼妃)인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모하려 하자 지아비와 더불어 이를 반대하였다.

후에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하자 인조는 광해군 치하에서 진안위가 정의롭게 처신하

였다 하여 추증하고 정정옹주에게도 두터운 예로 대우하였다.

후사가 없어 시동생 영(穎)의 아들 명전(命全)을 양자로 삼았으나 명전도 문과에 급제한 지 2년 만에 요절하였다. 이후 2년 만에 옹주도 타계하니 현종은 정사를 폐하고, 장례 비용을 후사하였으며 스스로 빈소에 나아가 진안위 묘에 합장하도록 하였다. 묘는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다.

바) 부곡리 백제 토기 포함층 유적

신갈-안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공사 때 확인되어 발굴한 유적이다. 지표 조사를 통하여 선사 시대에서 조선 시대에 이르는 여러 가지 토기들을 발굴·채집하였다.27) 발굴 결과 삼국 시대 백제 토기들이 들어 있는 문화층을 확인하였고, 움을 파고 만든 야외 노지 형태의 구조물이 1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기가 들어 있는 지층은 겉흙층 아래로, 흑갈색 사질토의 아래 부분과 그 밑에 있는 흑갈색 사질염토층에서 백제 토기들이 나왔다.

토기 종류는 적갈색 연질토기, 흑색 연질토기, 회청색 경질토기 등이었다. 적갈색 연질토기는 삼발형 토기로서 풍납리 토성에서 나온 바 있는 조질 유문토기와 같은 것이었고, 흑색 토기는 한강 유역의 백제 초기 유적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회청색 경질토기는 곧은 목을 가진 단지에 어깨 아래로 삿자리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 등 그릇꼴이 여러 가지였다. 바라진 입술이 있는 단지, 굽단지, 뚜껑 달린 단지 등이 보였다. 적갈색 토기 가운데는 완형토기와 소뿔형 손잡이도 보였다. 회색 연질 토기는 단지류가 대부분으로 이 유적에서 가장 많이 나온 토기였는데, 몸체에는 격자 무늬와 삿자리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부곡리 유적에서 나온 토기들은 대체로 한강 유역에서 나온 백제 초기 유적 출토품과 비슷한 시기의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간혹 늦은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었다. 유적의 성격이 분명하지 못하고 유물이 많지 않아 정확한 성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삼국 시대 백제 사람들이 남긴 것은 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장. 청문당의 개관

1. 연혁
2. 가옥 개관
3. 문화재 지정
4. 문화재 수리
5. 건축 특성



여 백

제3장. 청문당(淸聞堂)의 개관

1. 연혁

가. 창건

진주류씨 16대손 삼척부사를 지낸 류시회(柳時會: 1562~1635,류정의 16세손)가 순수 청문당의 건물을 조영하여 건립하였으므로 건물의 가구는 17세기 초기 구조로 판단된다.

나. 중수

안채 대청상부의 상량문에 의하면 1927년(龍 中元丁卯三月初七日酉時乙未立柱上樑 龜)에 상량한 것으로 보여 이때 중수한 것으로 보이는 창건이후 300년이후가 되므로 최소한 3~4 차례 중수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3월24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4호로 등록되면서 2004년도에 전면 보수하였다.

2006년도에는 사당과 주변이 정비되었으며, 2008년에는 방연재 도포,와 주변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현상변경처리기준안이 작성되었고, 2009년에 안채 보수, 금년도에는 기록화사업으로 정밀실측조사가 되었다.

2. 가옥 개관

가. 내력

안산의 사대부문화와 관련하여 진주류씨 대종가가 청문당이다. 조선 중기에 이 집은 오준・허목・채유후・강백년・허적 같은 당대 명사들이 매화음(梅花吟)을 즐겼던 집이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 집안의 사위인 표암 강세황의 미술과 혜환 이용휴의 시문학, 그리고 순암 안정복의 민족사학이 태동한 역사와 문화의 현장이다. 조선 후기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남인 문사들의 교류 장소가 되었고, 더 나아가 기호남인들의 학문적인 기반이 된 실학의 산실이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집은 5천여 평의 대지 위에 현정(玄亭)・하당(荷堂)・희한당(熙閑堂)・만권당 서실(萬卷堂書室) 등 부속건물, 괴석원(怪石園) 등 정원이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집을 실경(實景)으로 그린 강세황의 「지상편도(池上扁圖)」가 지금도 종가와 그의 본댁에 각각 전해지고 있다.

나. 마을 입향과 세거

1) 입향(入鄕)

초창시기 진주류씨 집안은 본래 충청북도 괴산군 몽촌에 살고 있었는데, 안산으로 옮겨온 것은 동향에 살고 있었던 류시회의 조카인 류적(柳頔,永貞派,1595~1619)이 선조의 9번째 부마로 정해진 후 류적의 아버지 류시행(柳時行1566~1606)이 세상을 뜨자, 선조는 어린사위가 한양에서 괴산까지 무려 100㎞ 이상을 오갈 것을 걱정하여 40㎞ 안쪽에 묘 터를 잡으라는 (한양에서 1백 리 안쪽에 묘를 잡으라는) 선조의 명에 따라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새 터에 묘를 정하였다고 한다. 즉 안산의 진주류씨(晋州柳氏)는 시조 류정의 17세손 류적(柳頔)이 안산에 아버지 묘자리를 정한 이래 후손들이 세거하면서 형성된 성씨이다.

이 마을은 진주류씨 누대의 세거지가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조선왕조 제14대 임금인 선조와 정빈(貞嬪) 홍씨(洪氏)의 소생인 정정옹주(貞正翁主;1595~1666년)가 동갑인 류적(柳頔)과 혼인하기로 약정되었으나 12세 때 시아버지 될 류시행(柳時行)이 별세하자 3년상을 치렀다. 류시행은 본래 선산인 괴산에서 예장을 치룰 계획이었으나 서울에서 3백 리 이상이나 되는 원거리인 데다가 왕가의 장지는 1백 리를 넘을 수 없다는 법도에 따라 개멸에 사패지를 하사받아 진주류씨의 세장지가 되면서 후손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정정옹주가 14세 때 뜻밖에 선조가 돌아가자 다시 3년상을 치룬 후인 17세에 이르러 혼인을 치렀다. 그러나 부군인 류적이 몸이 허약해 25세 때 죽자 청상이 되었다.

2) 세거(世居)

원래 안산 부곡동의 진주류씨 문중은 시회의 후손들로 원래 충청북도 괴산군 몽촌에서 살았다. 괴산에서의 진주류씨 문중은 류정(柳挺)을 시조로 하는데 고려의 상장군으로 토진주(土晉州)로 불리게 된다. 류적이 선조의 부마가 된데 그의 조카 류명견(柳命堅), 류명천(柳命天), 류명현(柳命賢) 형제가 판서에 오르는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이 집안의 사위였던 표암(豹庵) 강세황(姜世晃) 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면에서도 큰 성취를 남겼다.

문과에 급제하거나 문학으로 이름을 떨친 이들로는 류격(柳格), 대제학을 지낸 서경(西坰) 류근(柳根), 관찰사를 지낸 개산(皆山) 류석(柳碩), 류래(柳徠), 해암(海巖) 류경종(柳慶種), 근재(勤齋) 류신(柳藎), 창소(蒼巢) 류원명(柳遠鳴), 모산(帽山) 류원성(柳遠聲) 등을 들 수 있다. 류명현의 7세손 류익수(柳益秀)는 독립운동가였다. 류명현의 후손들이 상록구 부곡동에 류명현이 살던 오교장(午橋莊)의 부지를 정부에 기부 체납하여 그 땅 위에 정재초등학교를 세웠다.

즉 부곡동(개멸)에서 넓은 사패지(賜牌地)와 안산 바닷가의 어염권을 기반으로 400여년을 살아 온 것이다.

[참고문헌]

『연성성보(蓮城姓譜)』 -갑자보(甲子譜),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안산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안산시·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2

다. 사대부 문화활동

선조의 또 다른 부마 금양위(錦陽尉) 박미(1592~1645)는 동서인 류적을 쫓아 그의 고향 저택(鄕邸)이 있는 안산을 자주 드나들며 안산에 대한 여러 편의 명구(名句)를 지었으며, 예조판서로서 명필인 오준(吳竣;1587~1666)은 처남인 류석을 따라, 그리고 미수 허목(1595~1682)은 지금도 부곡동에 있는 청문당(淸聞堂)의 매화꽃에 반하고 친구인 류석의 우정에 취하여 신춘(新春)에 안산을 찾아 봄이 깊어서야 안산을 벗어나는 생활을 여러 해 계속하였다.

시로써 이름이 있던 대제학 채유후(蔡裕後;1599~1660)와 표암 강세황의 조부이며 예조판서와 판부사를 지낸 설봉 강백년(雪峯姜栢年;1603~1681), 영의정 허적(許積;1610~1680) 역시 청문당의 빈객으로 한때는 안산 사람이나 다름없이 이곳 바닷가 아름다운 향촌의 정취에 젖어 살았다. 이들 모두가 안산 사람들과 함께 안산의 사대부문화를 가꿔 준 사람들이다.

강세황의 처남인 해암(海巖) 류경종(柳慶種;1714~1784)은 조선 후기 안산의 문화를 꽃피운 주역이었다. 현 정재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오교촌장(午橋村莊)의 주인이었던 류경종은, 안산 일대의 넓은 사패지(賜牌地)와 일찍이 선조로부터 하사받은 바닷가의 어염권에 의하여 축적된 자산을 이익(李瀷;1681~1763)의 문하에 대한 지원과 '안산15학사'의 창작 공간으로 쾌척하였다.

시문에 능하고 의학에 조예가 깊어 유의(儒醫)로 칭송 받던 류경종은 매부인 강세황, 지기인 안정복과 함께 성호 이익의 문하에 들어가, 청문당에서 10리 떨어진 성촌의 성호장(星湖庄)에 출입하였다. 특히 안정복이 70여 세 때 한 짐의 서책과 손녀의 혼수에 쓸 가마와 말을 빌려 달라고 할 정도로 류경종과 안정복은 가까운 사이이었다.

류경종은 말년에 청문당을 중심으로 '오천시사(午川詩社)'를 결성하였는데 경향 각지의 많은 문인과 묵객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한여름의 복날에는 청문당에서 개장국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장면은 표암 강세황의 『현정승집(玄亭勝集)』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 밖에 부곡동의 모임에 대해서는 안정복의 시와 채제공(蔡濟恭)의 시, 그리고 강세황의 시 등을 비롯하여 여러 편의 기(記)·서(序)·발(跋) 등에 전한다. 이때 모임의 중심인물은 류경종을 비롯한 이용휴(李用休), 강세황, 임희성(任希聖), 허필(許佖), 류중림(柳重臨), 조중보(趙重輔), 엄경응(嚴慶膺), 이수봉(李壽鳳), 최인우(崔仁祐), 이맹휴(李孟休), 이광환(李匡煥), 채제공, 박도맹(朴道孟), 신택권(申宅權) 등 일일이 거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들은 생활과 교유의 공간을 함께 하는 동지의 특성을 넘어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받으며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심교(心交)의 지경에 이르렀다. 대부분 정치적으로 일탈된 인사들이었기에 세속적 욕구를 초탈하였고, 따라서 서로에게 바라는 바가 없었다. 다만 그들을 이어주는 것은 학문과 예술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를 마음으로 인정하는 심교가 가능했다.

1754년 청문당에서 강세황·이용휴·안정복·신광수·류경종·류경용 등이 모여 같은 운(韻)을 써서 연구를 이룬 시 한 편이 류경종의 『해암고(海巖稿)』에 전하고 있으며, 강세황의 『표암유고(豹庵遺稿)』에도 같은 제목의 시가 실려 있다.

이처럼 부곡동의 청문당은 성호 이익의 문인들이 중심이 된 '안산15학사'의 문예 창작의 중심지였고, 표암 강세황과 해암 류경종은 예술가들을 부곡동으로 불러 모으는 데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라. 관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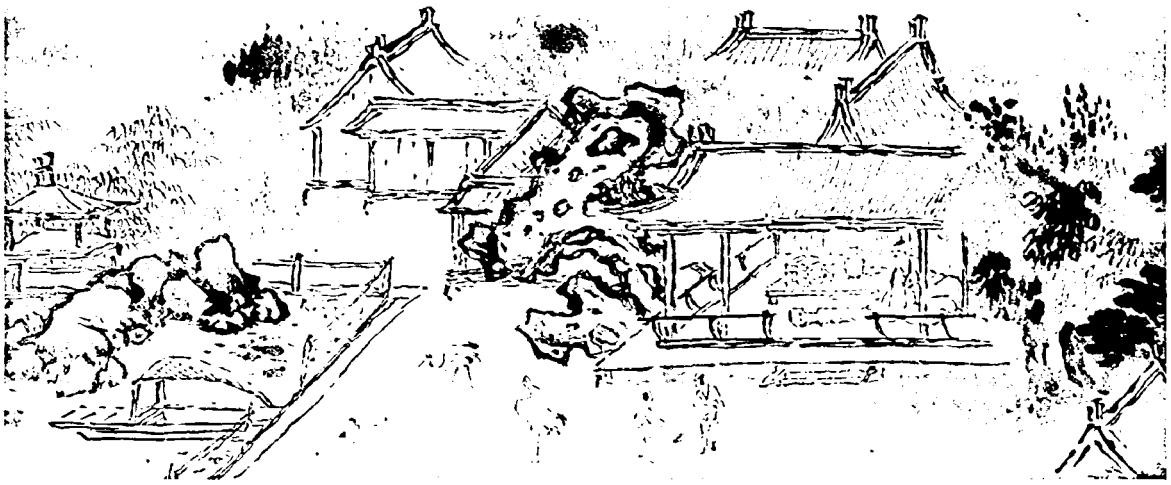
1) 지상편도(池上篇圖)

만조가 되면 정원 밖으로 배를 띄울 수 있게 조영된 청문당의 실경을 그린 표암 강세황(姜世晃:1713~1791)의 그림으로 표암이 34세인 1748년()에 그린 그림이다. 현재 처가인 진주류씨 가문과 진주강씨 본댁에 각각 1점씩 전하고 있다.

청문당은 16,529㎡의 대지 위에 현정(玄亭)·하당(荷堂)·희한당(熙閑堂)·만권루 등의 부속 건물과 괴석원(怪石園) 등 정원이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1748년에 친구인 류경용을 위하여 그린 작품이다. 이 그림에서는 건물이나 난간 등의 윤곽선을 그릴 때 붓을 들었다 때었다 하면서 꼬불꼬불 그어진 선이 특징적이다. 격조

있게 꾸며놓은 중국식의 정원에 작은 배를 띄울 수 있는 연못이 있고 집채만한 태호석도 눈에 띈다.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는 하인들과 한적하게 노닐고 있는 학의 모습 뒤에는 집 주인이 느긋하게 앉아서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 나무숲에 파묻힌 건물의 지붕선이 강하게 살아있다. 특히 다른 경물은 대부분 묵빛으로 처리한 반면에, 숲은 맑은 담채로 산뜻하게 채색하여 화면전체에 생동감과 청신함을 부여하고 있다. 그림의 재료는 종이에 채색, 크기는 20.3×61.0㎝이다.



[그림3.01] 지상편도(池上篇圖)

가) 주요건물

안산 청문당 앞에 있는 연지 동쪽에 바깥사랑채에 해당하는 연당(蓮塘)이 있었고, 그 서쪽에 현정(玄亭)이 있었으며, 북쪽에는 우물과 느티나무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찾을 수 없다.

(1) 안채

안채는 합각지붕을 가지는 건물로 지붕부만 표현된다.

(2) 사랑채

사랑채는 앞쪽으로 사랑마당이 있다. 건물은 합각지붕의 건물이고, 기둥이 있으나 어칸의 주칸은 다른 부분보가 넓었다고 판단된다. 마루에는 난간이 있었고 전면 기단의 중앙부에 계단이 설치되고. 좌측에는 호석, 우측에는 나무가 있었다.

(3) 바깥채(아래채)

바깥채는 안채와 달리 직교축의 건물로 지붕부만 보인다.

나) 부속건물

(1) 연지(蓮池)

청문당 집의 내력에서 보듯이 조원시설을 보며 많은 손님들이 내방하였으므로 이 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집 남서편으로 약 3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네모진 연못이다. 이 연못은 석축을 쌓아 만들었는데 사방이 각각 14~15m 정도 되며 입수구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나 출수구는 서남쪽 모서리에 있다. 이 연못은 류씨 집안에 전해 오는 화첩에도 보이는 것으로서 당시의 양반사회의 주거문화와 정원문화를 보여 주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연지에는 기암과

배가 있었다.

(2) 연당(蓮塘)

연지 동쪽에 바깥사랑채에 해당하는 연당(蓮塘)이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사모지붕을 가지는 방형의 정자이다. 연지 북측부에서 진입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정(玄亭)

연당 서쪽에 현정(玄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림에서 정확한 위치를 판단하기 어렵다. 북쪽에는 우물과 느티나무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찾을 수 없다.

(4) 만권루(萬卷樓)

진주류씨 대종가인 청문당에는 1만 권의 서책이 저장된 만권루(萬卷樓)가 있어서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고택과 이인엽(李寅燁)·이하곤(李夏坤) 부자의 회와재(晦窩齋), 류명현(柳命賢)의 경성당(竟成堂)과 더불어 조선 후기 4대 만권당으로 꼽히기도 했다.

현재 청문당의 각 건물에서 건물별 당호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당호는 주인 남자가 기거하는 사랑채에 대부분 설치된다. 즉 진주류씨 대종가로써 대대로 안산지방에 세거하던 선비들이 드나들고 교류하던 장소는 바로 청문당에서의 사랑채가 된 것이고, 만권루 또한 사랑채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조선 후기 청문당의 만 권에 이르는 서책에 대해서는
> "원컨대 유감사 댁 서고의 좀벌레가 되어 만 권 서를 배불리 먹고 싶네
> [公嘗貯萬卷詩書 伊時蠹魚 願爲柳監司宅魚 飽食萬卷書 野史載之]"
> 라는 표현이 시중에 떠돌 정도였다고 한다.
> 유씨 집에서 책을 빌려갔던 이들 중에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학자로 손꼽히는 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1712~1791)도 있었다.



[그림3.02] 연지와 연당(지상편도)



[그림3.03] 괴석원 태호석(지상편도)

(4) 기타 건물

전해지는 건물로 하당(荷堂), 희한당(熙閑堂)등의 당호를 가지는 건물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다.

(5) 우물과 느티나무

북쪽에는 우물과 느티나무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찾을 수 없다. 지금도 안사랑채와 안채 상이에 우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곧 만권당인 사랑채의 북쪽이 된다.

(7) 괴석원(怪石園)

사랑채 좌측에 커다란 괴석이 있는데 태호석으로 중국식 정원의 형상을 지닌다. 이러한 괴석은 연지의 가운데도 설치하고 있다.

다) 멸실된 건물

사랑채의 좌측 현재 사주문이 설치된 부분에 북측으로 태호석 뒤에 행랑형식의 사랑채와 나란한 축의 건물이 2차례 꺽이면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그 후면부에 아래채와 같은 방향으로 합각지붕을 가지는 건물이 1동이 설치된다. 행랑은 1칸의 연속된 광으로 여겨진다.

2) 노가주(露柯酒)

사람들의 입에 자연스레 오른 것이 별미로 담그는 특미인 가양주(家釀酒)가 노가주(露柯酒)이다. 이 술은 선조의 아홉째 딸인 정정옹주(貞正翁主)가 하가(下稼)해 올 때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

피나무와 찹쌀을 원료로 하여 이슬을 맺히게 하여 담그는 이 술은 궁중에서만 전래되는 것으로, 류석의 사촌형인 진안위 류적 댁에 전수된 명주(名酒)였다고 기록은 전한다. 이제는 안산의 전통주로서 손색이 없을 노가주의 맥도 끊기고, 그 옛날 기호 남인의 학문적 기반으로 명공거관(名公巨官)들이 제 집인 양 드나들며 매화나무 늙은 등걸 밑에서 만 권의 책과 함께 시·서·화를 벗삼아 매화음(梅花吟)을 즐겼던 조선의 4대 만권당(萬卷堂)으로 불리던 청문당도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다만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3. 문화재 지정

가. 지정현황

종 목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4호
명 칭	안산청문당(安山淸聞堂)
분 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수량 / 면적	1곽
지정(등록)일	2000년 3월24일
소 재 지	경기 안산시 부곡동 261-15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진주류씨 성산공파 종친회
관리자(관리단체)	진주류씨 성산공파 종친회

청문당은 안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가옥으로 진주류씨 16세 손 류시회(柳時會:1562~1635)가 지었다고 전하는 가옥이다. 원래는 충북 괴산에 살았는데 선조의 부마가 된 어린조카 류적(1595~1619)과 함께 선조가 내린 사패지인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류시회의 조카 적이 선조의 사위로 정해진 후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선조의 명으로 이곳 안산에 묘자리를 정하고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였다. 이후 나라에서 넓은 땅과 안산 바닷가의 어염권을 받아 대대로 살아오면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이 집은 ㄱ자의 안채와 ㄱ자의 사랑채가 마주 보고 있으며, 현재는 후일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일자형의 바깥채가 중앙마당을 중심으로 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안채는 팔작지붕이고, 그 위에 기와를 덮었으며 대청은 6칸으로 중앙부 뒤쪽으로 반칸을 내어서 벽장을 달고 좌우 양쪽에 세살문을 붙였다. 사랑채의 지붕도 팔작지붕이며 이곳에는 만권서적이 보관된 서고가 있었고 이들은 모두 귀중본이었으며 일만권의 서책이 저장된 조선4대 만권당중 하나였던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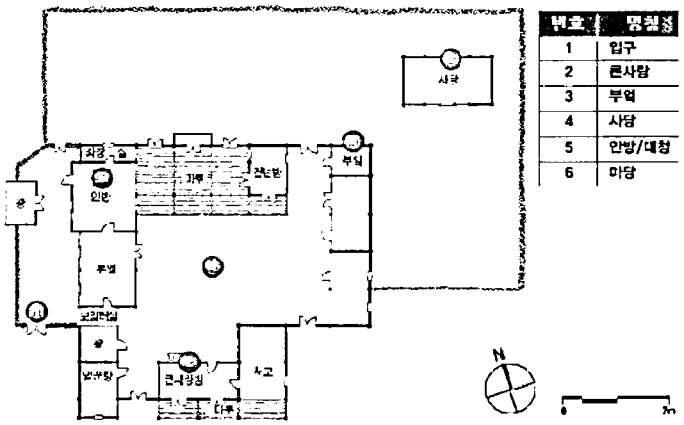
청문당은 조선 후기에 와서 정치권력에서 소외된 문인들의 교류장으로 쓰였다. 이곳에서 조선후기 시, 서, 화(詩,書, 畵)의 삼절(三絶)로 추앙을 받은 표암 강세황과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태생하고 성장한 곳이기도 하다. 즉 조선 후기의 학문과 예술발전에 기반이 된 장소이었다.

2000년 3월24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4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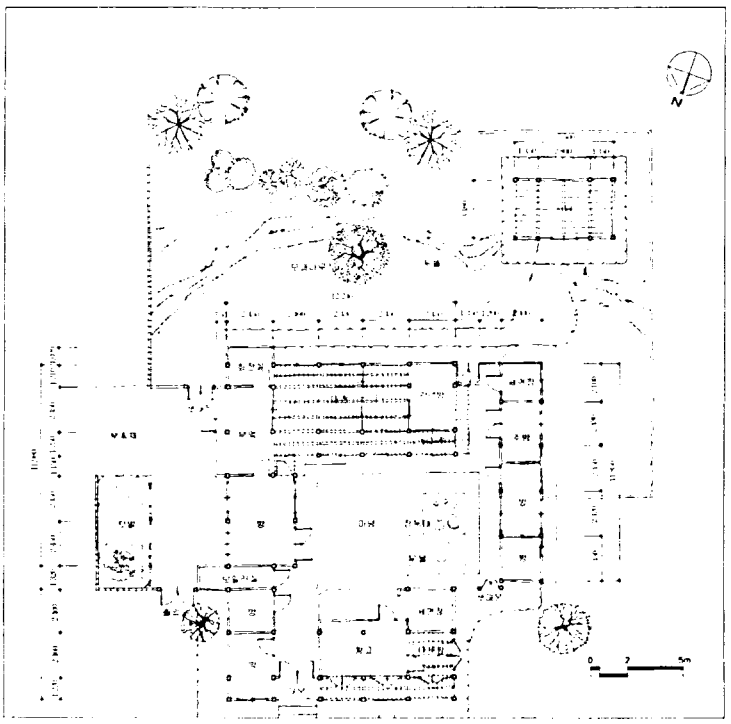
나. 가옥조사

2000년 3월24일 경기도 문화재 자료가 지정되기 이전의 가옥에 대한 조사내용은 안산시사에 수록되어 있다.[그림3.0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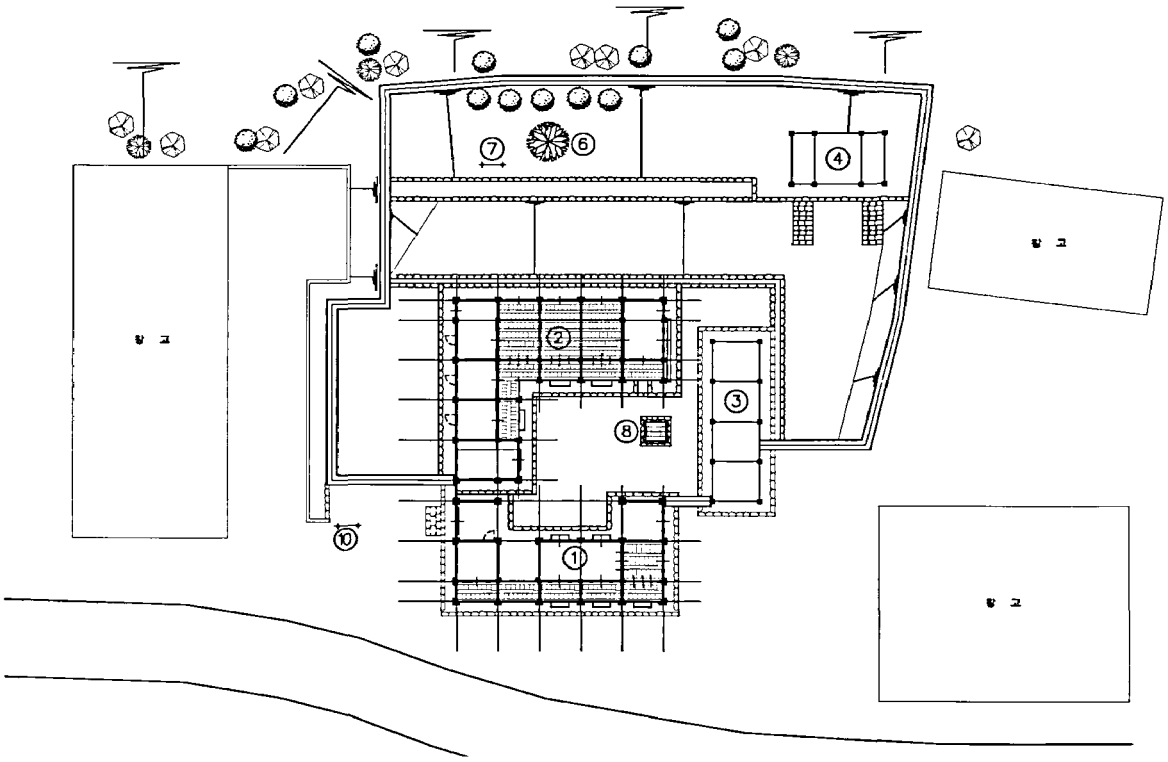
도한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의 전통가옥 조사에 의한 가옥으로 그 내용은 [그림3.05]과 같은데 이 두 건물과 마당의 구성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림3.04] 청문당 배치 평면도(안산시사,1999)



[그림3.05] 청문당 배치 평면도(경기문화재단,2002)



[그림3.06] 청문당 배치 평면도(보수설계도면,2004)

4. 문화재 수리

가. 수리 내용(년도별)

년도	사업내용	사업량	예산내역(천원)					
			계	국비	도비	시책	시군비	자부담
2004	청문당 보수정비공사	안채, 사랑채 사당, 바깥채	520,000	---	260,000	-	260,000	-
2006	청문당 사당 및 주변 정비공사	사당, 주변정비 종합계획	280,000	-	140,000	-	140,000	-
2008	방연제 도포사업	방연 도포	4,000	-	2,000	-	2,000	-
2008	현상변경처리기준안 작성	기준안 작성	4,000	-	2,000	-	2,000	-
2011	정밀실측 보고서							

2000년 3월24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4호로 등록되면서 2004년도에 전면 보수하였다.

2006년도에는 사당과 주변이 정비되었으며, 2008년에는 방연재 도포와 주변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현상변경처리기준안이 작성되었고, 2009년에 안채 보수, 금년도에는 기록화사업으로 정밀실측조사가 되었다.

나. 세부 보수내용[1)]

1) 2004년도[2)]

1) 문화재관리국, 90문화재수리보고서, 111쪽. (발췌 재인용)
안산시, 문화재관리대장-안산청문당, 보수실적 및 계획, 2010.10 (발췌 인용)

2) 안산시, 문화재보수공사실시설계, 주삼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004 (발췌 재인용)

○ 예 산

일억삼백이만육천원정(₩103,026,000)

○ 현 황

가옥의 정면부에는 사랑채가 "ㄷ"자 형태로 건립되어 있고 이 사랑채를 지나 안으로 진입하면 바로 "ㄱ"자 형태의 안채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안채와 사랑채의 사이에는 마당과 장독대 및 수돗가가 설치되어 있다. 안채의 좌측으로는 조적조로 축조된 창고가 있으며 우측으로는 바깥채가 위치하고 있다. 안채의 배면에는 후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안산시에서 지정한 보호수가 있고 사당이 자리 잡고 있다.

청문당의 좌, 우측 및 배면의 삼면에는 현재 콘크리트 블록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 사업 지침(사랑채 보수)

- 사 당 : 면적 : 17.31㎡ (5.23평)
  구조 : 3량 가구에 맞배지붕, 와구토마감
  양식 : 몰익공양식
- 바깥채 : 면적 : 24.20㎡ (7.32 평)
  구조 : 3량가구에 팔작지붕, 와구토마감
  양식 : 물익공 양식

○ 공사 내용(요사채 개축)

가설공사

• 가설건물

- 목재나 생석회 등 주요자재가 비나 습기에 젖지 않도록 자재보관창고(면적 : 20㎡)를 요사채 건립부지 전면에 설치한다.
- 공사현장에 안전수칙판과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는 공사안전띠를 설치한다. 안전띠 설치는 말뚝(90×90×1,200㎜)을 3m 간격으로 설치하여 안전띠를 연결한다.
- 공사 안내판은 요사채 개축 부지 앞쪽에 1개소를 설치한다. 공사안내판에는 공사감독, 기술자, 기능자 등 공사관계자의 실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표기하고 공사안내판의 규격은 폭이 75㎝이고 높이는 150㎝이다. 안내판의 형태는 갈바크린 강판으로 설치한다.
- 공사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방화사를 요사채 신축 부지의 위쪽과 아래쪽에 설치한다.
- 흡연시에 반드시 설계도서상에 지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한다. (흡연장소는 방화사 좌측에 흡연장소 표지판을 설치한다.)

줄쳐보기 및 규준틀

- 공사착수에 있어서 설계도에 따라 대지에 건물의 위치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줄쳐보기를 한다.
- 공사중의 높이의 기준을 삼고자 하는 곳에 기준점을 설정 한다. 기준점은 바라보기 좋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공사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곳을 이용한다.
- 규준틀 설치는 건물의 각부 위치 및 높이, 기초의 나비 또는 길이 등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 변형이 없게 견고히 설치하는데 설치 높이는 지반면에서 0.6~1.2m 높이로 설치하고 개소는 귀모서리 4개소에 귀규준틀을 기둥앞 8개소에는 평규준틀을

설치하고 그 위치는 신축건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한다.

가설 비계

- 신축할 부지에 쌍줄 강관 비계는 건물이 세워질 위치에 토공사 등 기초공사가 완료되면 처마 길이에 맞추어 지붕의 끝에서 15㎝정도 떨어져 설치한다. (외부정면 22.4m, 외부배면 22.4m, 외부좌측면 11.9m, 외부우측면 11.9m를 설치하고 높이는 지면에서 3.60m이다)
- 내부 수평비계는 연목 설치 및 앙토 바르기 시 사용토록 하는데 비계목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비계 상부에는 작업시 하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발판을 놓는다. 수평비계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1.5m이고 크기는 가로가 16.5m, 세로가 6m로 설치한다.
- 강관 비계다리는 요사채 전면 강관비계에 폭 90㎝로 1개소를 설치하는데 그 경사로는 30°이하로 하며 비계다리의 길이는 7m이다. 특히 안전을 위하여 미끄름막이(4각목)을 철사로 걸어매며 난간은 견고하게 설치한다.

청소정리

-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공사현장에 방치를 하지 말고 즉시 반출하도록 하는데 반출시 먼지나 분진발생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한다. 반출 방법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톱밥, 기와파편, 석재파편, 목재 자투리 등)을 일정한 량이 되도록 분류를 하여 잘 모아두었다가 톱밥 등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8ton 트럭으로 안동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자연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 기초 및 기단공사

주초석

- 주초석 기초는 가로 120㎝, 세로 120㎝, 높이 30㎝ 정도 잡석을 고르게 펴 다진후 가로 100㎝, 세로 100㎝, 높이 100㎝ 정도 강회잡석으로 고르게 펴 다진 후 자연석 초석을 설치한다. 자연석 (가로 54㎝, 세로 54㎝, 높이 45㎝크기내외) 주초석을 설치한다. (자연석 주초석 허용오차 ±5㎝ 이내로 한다.)

기단

- 기단 기초는 폭 70㎝, 높이 20㎝ 정도 잡석을 고르게 펴 다진 후 폭 50㎝, 높이 30㎝ 정도 강회잡석으로 고르게 펴 다진 후 자연석 기단 (정면, 배면 길이 19.2m, 좌우 측면 길이 8.70m, 폭은 모두 1.35m)을 설치하며 두께 20㎝정도 뒷채움 잡석을 한다. 기단 높이는 4면이 모두 2벌대 (지면에서 45㎝)로 한다.

기단 바닥

- 기단 바닥은 (정면, 배면 길이 19.2m, 좌우 측면 길이 8.70m, 폭은 모두 1.35m) 잡석두께 15㎝ 정도 다짐 위에 두께 10㎝정도로 강회 다짐을 한다.
- 디딤석은 강회 다짐 위에 설치한다. (가로 150㎝, 세로 30㎝, 높이 25.0㎝ 정면 5개소)

* 자연석은 부근에 있는 석재 판매 회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강돌을 사용금지 한다.)

• 목공사

재료

-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육송으로 한다. (대체 부재는 담당원과 협의후 사용한다.)

- 연목 등 목재는 직선재를 전량 사용하지 말고 자연곡재를 혼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 요사채 신축에 사용되는 목재는 훈증소독을 실시하여 목재를 사용한다.

목재 치목

- 목재치목은 설계도서상에서 지정한 작업장(일간)에 치목을 한다.
- 치목 가공된 부재는 설계도서상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면에 각재를 깔아 목재를 적재하고 천막으로 덮어 직사광선을 피한다.
- 치목은 설계도서상 치수로 치목을 한다. (설계도서 치수는 부재 마감 치수)

원기둥: 지름 0.33m, 각기둥: 0.24×0.24m,
연목: 지름 0.15m, 부연: 0.105×0.12m,
대보: 0.33×0.37m, 종보: 0.27×0.33m, 충량: 0.27×0.33m,
도리: 지름 0.27m, 장혀: 0.105×0.18m,
하인방: 0.105×0.21m, 상인방: 0.105×0.18m, 중인방: 0.105×0.15m,

(단위: 재)

구분 / 단위	일반재			특수재			합계
	원목	각재	판재	원목	각재	판재	
재	8,261.22	6,089.49	3,092.40	0	2,857.14	73.8	20,374.05

* 목재는 재질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목재의 시험은 함수율 시험과 비중 시험, 강도 시험(인장 시험, 압축 시험, 휨 시험)이며 시료의 크기는 3×3×48㎝ 이고 옹이가 없고 흠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대패 마감치수로 시료의 수량은 40개이다.
* 평고대는 7.2m 이상 단일 부재를 사용한다.
* 목기연 끝부분 볼접기, 연목 끝걸기 등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치목한다.

• 지붕공사

- 건물은 "ㅡ"자형 팔작지붕으로 구성하였다. 지붕의 면적은 214.83㎡이다.
- 기와 잇기후 용마루곡, 내림마루곡, 귀마루곡, 앙곡, 안허리곡, 기와곡 등을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 연목을 설치 후 개판깔기를 한다. 개판깔기가 끝나면 그 위에 지붕 물매에 맞추어 적심목 (신재 반입하여 사용)을 깔고 그 위에 보토를 두께 10㎝정도 다짐을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물매를 잡은 후 두께 10㎝정도 강회다짐을 하여 바탕을 마무리한 다음 한식기와 중와 (KS 3510(점토기와) 규정에 합격한 제품) 잇기를 하며 바닥기와 (암기와)는 2.5겹 잇기를 하되 KS 생산 공장 제품을 사용한다.
- 용마루는 착고 위 부고 1단 놓고 적새 5단 쌓고 위에 수키와를 놓고 내림마루는 당골막이 1단 놓고 적새 3단 쌓기 위에 수키와를 놓고 용마루, 내림마루 끝부분에는 머거불을 놓고 그 위에 망와를 설치한다. (망와 주위는 강회반죽으로 비가 새지 않게 한다.)
- 처마 끝부분에는 와구토마감을 한다.

* 암기와 총 6,515매, 수키와 총 2,858매, 착고기와 106매, 망와총 10매 반입 (100%, 중와)
* 용마루 착고 부고 적새 5단 : 15.63m

* 내림마루 당골기와 위 적새 3단 : 12.0m, 추녀마루 당골기와 위 적새 3단 : 13.68m

• 미장 및 수장공사

- 건물 내, 외부 벽체는 외엮은 재사벽 설치 후 표면 미장 마감을 하며 그 위 한식벽지 바르기로 마감한다. 회벽의 면적은 정면 : 9.49㎡, 측면 : 12.80㎡, 배면 : 9.39㎡, 내부 :3.67㎡, 반침: 9.07㎡로 전체면적은 44.42㎡이다.
- 내부 온돌방은 한식온돌 산돌과 진흙을 사용해 고래를 설치후 자연석 구들 두께 9cm정도를 놓고 진흙 두께 6cm정도 고르게 펴 다진 후 한식 장판지를 깐다. 온돌의 면적은 19.8㎡이다.
- 콘크리트위에 심야전기 축열식 코일을 설치한다.
- 고막이 설치는 잡석을 사용하고 줄눈 나비가 균일하고 붕괴될 우려가 없게 쌓으며 회사반죽 표면미장 마감을 한다.
- 연목과 연목사이, 당골막이는 재사벽 미장 바르기를 한다.
- 방 부분은 목조반자틀 위 한식천장지 마감으로 한는데 그 면적은 주지방 : 19.8㎡, 대방 : 44.55㎡, 방-1 : 19.8㎡이다.
- 합각벽은 와편치장 쌓기로 마감을 한다.
- 아궁이 우측면에 1개소, 굴뚝은 배면에 1개소 설치한다.

• 창호공사

- 창호 조립, 치목 및 철물 및 마감 재료는 설계도서상에 지정제품을 사용한다.
- 창호 울거미와 울거미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며 세로살은 장부 맞춤하고 가로살은 내닫이 장부 맞춤하고 살과 살의 맞춤은 가로살은 후면에서 세로살은 정면에서 따내어 맞춤하여 신설한다.

번호	규 격	개 소	구 분	위 치	비 고
WD-1	1,340m/m×1,850m/m	5개소	궁판있는 2짝 여닫이 띠살문	정면 툇마루 방부분 3개소, 방출입문 2개소	외부
WD-1-1	1,400m/×1,910m/m	3개소	2짝 미서기 맹장지문	정면 툇마루 내부 방부분 3개소,	내부
WD-2	1,340m/m×1,680m/m	5개소	머름있는 2짝 여닫이 띠살문	정면 방부분 2개소, 배면 방출입문 3개소	외부
WD-2-1	1,400m/×1,740m/m	5개소	2짝 미서기 맹장지문	정면 방부분 2개소, 배면 방출입문 3개소	내부
WD-3	900m/m×1,980m/m	2개소	궁판있는 1짝 여닫이 띠살문	마루에서 방부분 2개소	내부
WD-4	2,760m/m×1,860m/m	1개소	4짝 미닫이 맹장지문	내부 방부분 1개소	내부
WD-5	2,640m/m×1,860m/m	1개소	4짝 미닫이 맹장지문	반침	내부
WW-1	1,120m/m×900m/m	5개소	2짝 여닫이 띠살창	외부 창문 5개소	외부
WW-1-1	1,180m/m×960m/m	5개소	2짝 여닫이 맹장지창	내부 창문 5개소	내부
WW-2	2,730m/m×500m/m	3개소	미닫이 고창	정면 와부 상부 창문 3개소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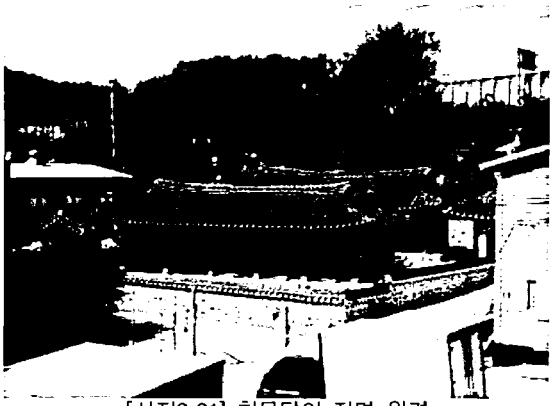
- 창호 목재는 육송 증기 건조목을 사용한다.

○ 공사추진 현황

접 수 일	1990.04.30	승 인 일	1990.05.08
설 계 자	태광건축사사무소 금동욱	설계검토자	문화재관리국 건축기사보 안직상
설계금액	41,700천원	공사계약일	1990.06.16
도 급 자	동일건설(주) 정태인	공사기간	1990.06.21~1990.11.19
현장대리인	보수 제 8호 이정표	공사감독자	용인군청 지방건축기원 이만우
준공검사일	1990.11.19	준공검사자	경기도청 지방건축기사 이진환
준공금액	40,300천원	시 행 청	용인군청

5. 건축적 특성

가. 입지(立地)



[사진3.01] 청문당의 전면 원경



[사진3.02] 청문당의 배면 근경

1) 입지

예전에는 안산의 바닷가의 갯고랑(하천)이 마을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뒤로 수암산 한 산자락이 내려 온 곳이 가마산이며, 이 산기슭에 진주류씨 문중의 가옥들이 배치되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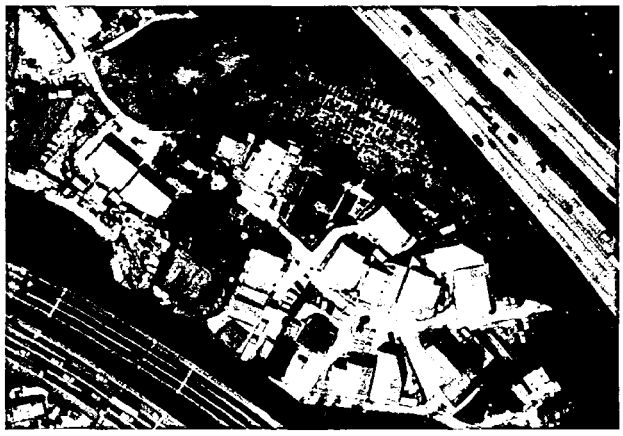
지금은 안산시에서 수인산업도로를 타고 인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처음으로 고가도로가 나오는데 상부는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하부인 전면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설치되었다. 이 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고가도로의 밑을 지나면서 바로 우측에 청문당 유도안내판이 있고, 곧 가옥으로 향하는 진입도로의 입구가 된다. 이 길을 따라 약 500m 가면 청문당이 길 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청문당은 마을의 내부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면과 좌·우측편 가옥주변으로는 규모가 큰 주류회사의 물류창고와 민간 창고,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고, 배면은 야산인데 사과나무가 식재된 과수원이다. 그 위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간다.

그러므로 청문당은 전면과 배면으로 높은 지대쪽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외부와 격리된 폐쇄된 영역을 지니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2) 마을 형국(陽基風水)

마을 남쪽에 있는 산이 풍수로 보아 가마[釜]를 엎어 놓은 형국(伏釜形局)이므로 가마산[伏釜山]이라 했고, 그 후 취락이 형성되자 산명을 취해서 '가마골'이라 불렀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개멀[元釜谷]'로 통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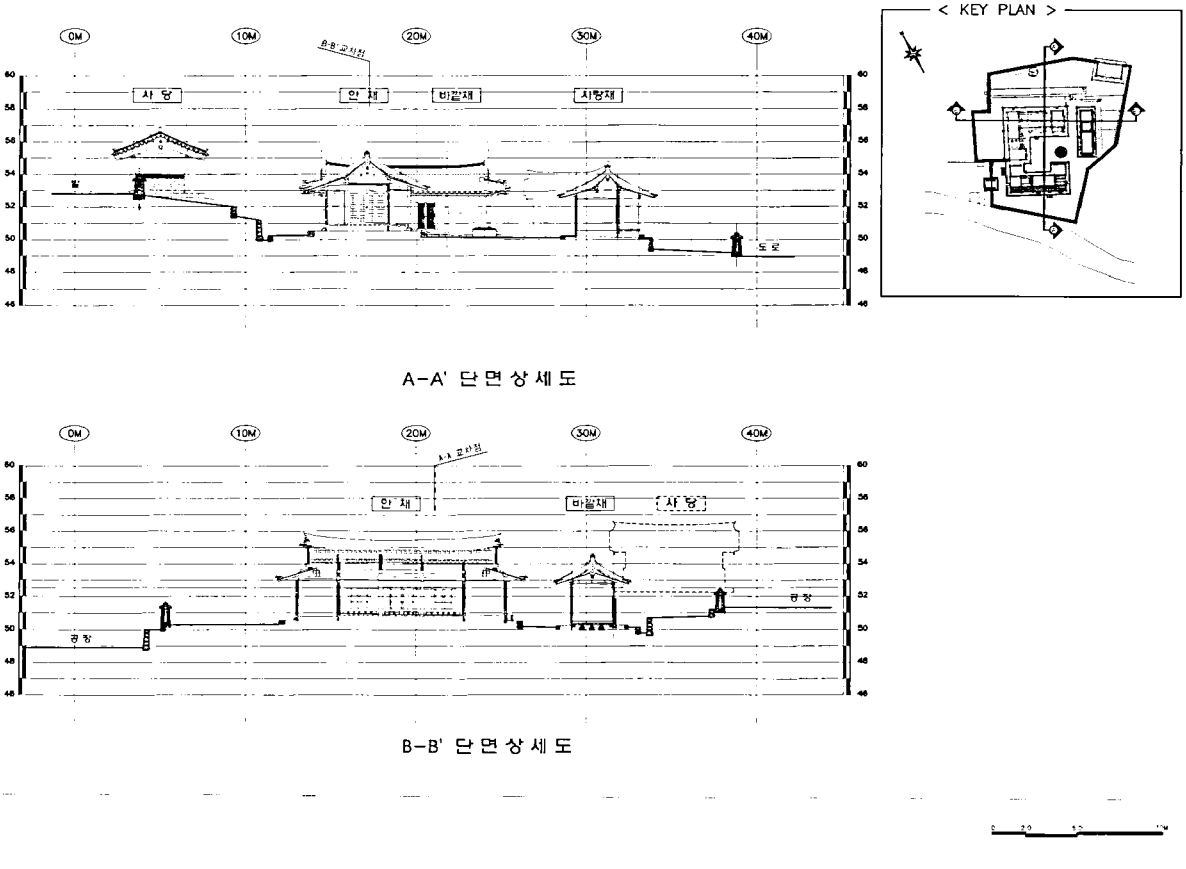
[사진3.3] 원부곡마을 주거지(다음지도,2010, 항공사진)

나. 가옥 배치

1) 부지 현황

고택은 마당을 포함해서 문화재지정구역은 1,095㎡(360.7평)이다. 부지가 자연스러운 산기슭 경사면을 취하며, 건물들이 자리하는 곳은 사당을 제외하고는 같은 높이의 평지이다. 이 건물부지는 하나의 평지가 되며 집터와 화단은 상하 인접한 부지와 단을 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옥은 2단계 단차이로 구분되고, 화단도 다시 2단계의 단차이를 가지고 있다. 부지형상은 남동측 방향으로 긴 一자형태가 된다.

즉 전면부 쪽으로 한단 아래 지형의 높이에 집터로 하고, 남서방향으로 경사를 주어 마을 매부 진입도로에 면하게 되며, 배면부에 한단 높은 축대를 설치하여 뒷동산과 분리한다. 그 가운데 평지를 조성해서 종방향으로 길게 가옥을 배치시켰다. 좌측부터 뒷마당→안채→안마당→사랑채→사랑마당→연지터 순서로 건물들을 배치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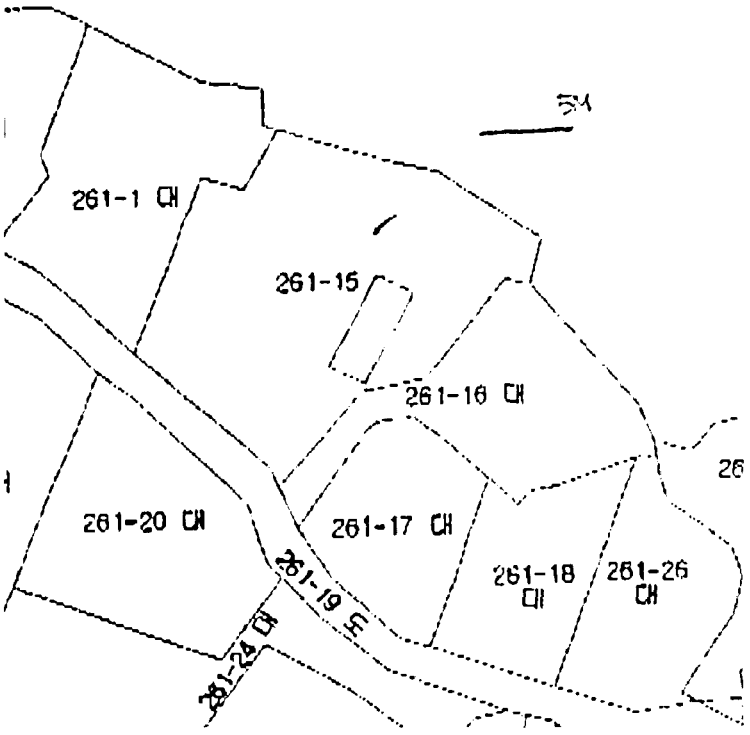
A-A' 단면상세도

B-B' 단면상세도

[그림3.07] 청문당 부지 단면도

가옥이 위치하는 토지는 행정구역상 안산시 상록구 261-15번지이다. 현재 소유자는 안산시이며, 관리자도 안산시가 된다. 문화재지정구역은 1,095㎡(360.7평), 문화재보호구역은 9,225㎡(2767.5평)이다.[3]

3) 안산시, 문화재관리대장, 2011.7.7 발행, 재인용

토지이용	지역, 지구 등 지정	국토이용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관리 지역
		다른 법령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지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해당사항 없음	
	가옥 및 문화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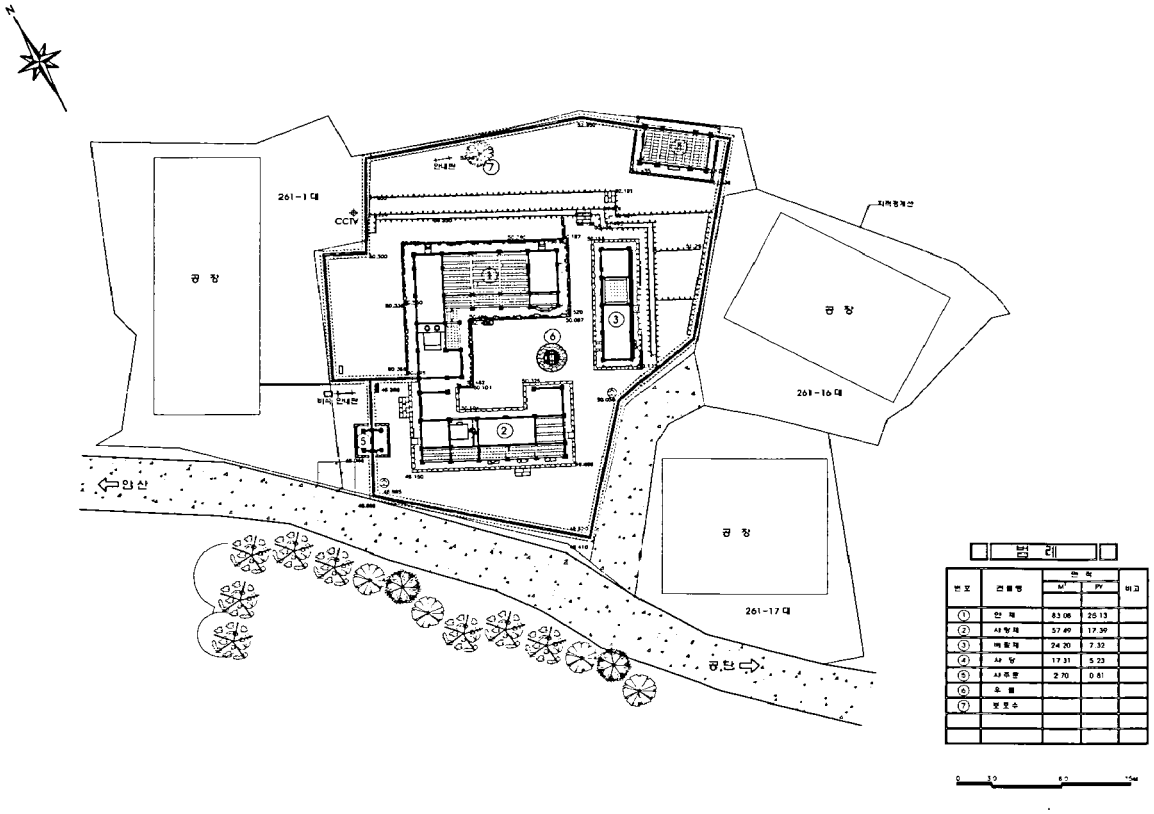
2) 배치

전체적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남동향으로 트인 'ㅁ'자형의 배치를 이루며 자리를 잡고 있다. 안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의 안채와 'ㄷ'자형의 사랑채가 전 · 배면으로 마주보고 있으며, 一자형의 바깥채(바깥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다. 사당은 바깥채 뒤쪽으로 후원에 가옥 내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별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근래에 이르러 기존 사랑채 대문간(현재 부엌아궁이가 있는 주칸부)을 복원을 하였고, 또 사랑채와 안채의 중간부에 대문을 두었다.

그리고 안마당의 장독대가 없어지고, 우물을 보수 정비하였으며, 뒤뜰(후원)의 석축 부분도 정비하였다.

뒤뜰은 경사지가 되어있어 2단의 석축으로 화계가 조성되고, 그 중앙부에 안산시 보호수인 모과나무가 있다. 안채의 왼쪽에는 텃밭으로 빈 공간인데 예전에 부속사(광채)가 있었던 곳이다.



[그림3.08] 청문당 배치 평면도(2011)

다. 가옥의 건축양식(建築樣式)

1) 공간구성

안채는 팔작기와 지붕집으로 안방 2칸, 대청 6칸, 건넌방 1.5칸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안방 남쪽으로 부엌 칸이 날개처럼 달려 있고, 대청 앞에는 툇마루를 두었다.

그러나 보수되기 이전에는 정면 3칸의 우물마루가 깔린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 입식부엌과 화장실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방이 있었다. 현재 부엌도 원래 안방을 개조한 것이고, 방은 부엌과 나뭇간을 개조하여 만든 것이다. 대청 오른쪽에는 건넌방이 있는데 이 방의 오른쪽에 두짝문을 달아 쪽마루로 출입할 수 있게 하였으나 지금은 벽으로 바꾸었고, 앞 쪽 퇴는 누마루로 꾸몄다. 대청 6칸중 1.5칸은 문을 달아 마루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청 앞쪽에는 원래 4짝 분합문이 달려 있었으나 별도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였고, 지금은 문선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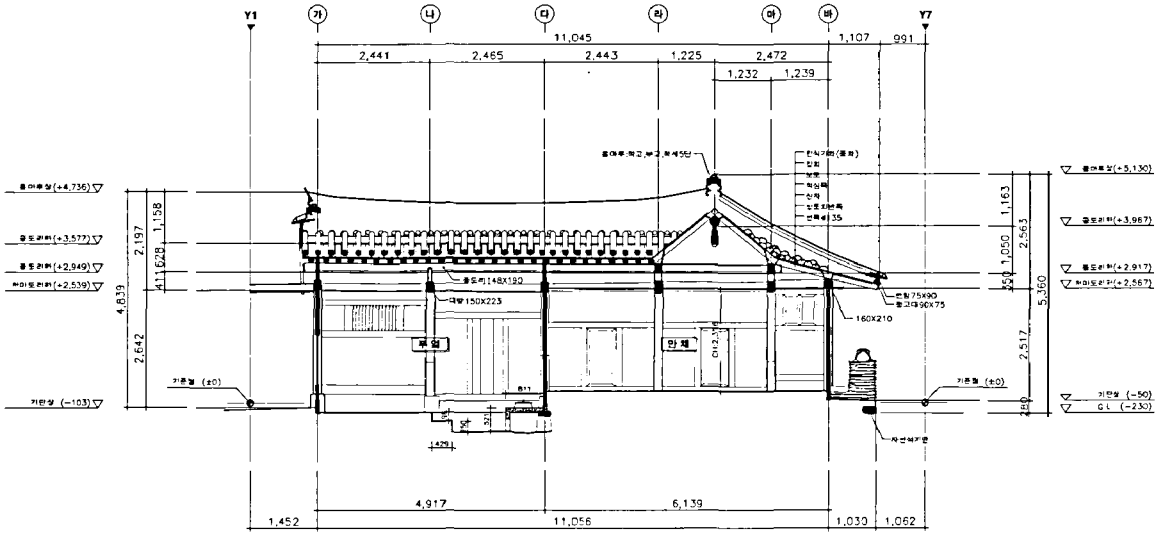
보수이전의 사랑채도 방-방-대문-창고-마루방-세면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쪽으로부터 광 1칸, 일꾼 방 1칸, 대문간 1.5칸, 사랑방 2칸, 서고 2칸이 배열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랑방 전면에는 툇마루가 시설되어 있다. 그러나 보수되는 과정에서 출입부 이전에 따라 변형이 되었는데 현재 사랑채는 변형되어 있는 부분은 주민 증언과 구조의 흔적을 통해서 원형을 추적할 수 있다. 배면으로 돌출된 부분이 지금은 방이지만 원래는 하인방에 딸린 부엌이었고, 그 아래 1.5칸의 방은 1칸만 하인의 방이었다. 앞쪽 툇칸은 누마루 일부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문간의 앞쪽 퇴는 하인방 툇칸으로

이어지는 누마루 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지금의 대문간은 원래 사랑방과 연결되었고, 상부 다락이었으며 하부는 함실아궁이가 있었다고 한다. 2칸의 창고는 원래 사랑방이었다. 사랑방 옆의 마루방은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서고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사랑방 앞 퇴에는 우물마루를 깔았고, 마루방 위쪽으로 돌출된 공간은 세면장으로 개조되었지만 원래는 광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당은 청문당에서 가장 오래 된 건물로 정면 2칸, 측면 1칸의 평면으로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다.

2) 구조



[그림3.09] 청문당 안채 종단면도(2011)

안채의 가구 구조는 1고주 7량으로 전·배면으로 퇴가 있는 구조이다. 기단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하였고, 주초석은 마름모꼴로 치석한 것이며, 기둥은 190×190㎜의 각재로 모서리를 접어서 바심질하였다. 주칸은 2,450㎜ 가량으로 설정되었으며, 툇칸은 약 1,210㎜이다. 지붕의 처마에는 차양이 없는 홑처마로 되었고, 처마선을 따라 함석을 접은 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다. 지붕형태는 팔작지붕으로 함석기와를 이었는데 기와는 구와와 신와를 썩어 사용하였다. 팔작지붕의 합각벽은 흙과 기와편을 사용하여 아자문양으로 치장 쌓기를 하였다.

사랑채 가구는 1고주 7량의 전퇴가 있는 구조이다. 기단은 자연석으로 쌓았으며, 상부는 흙을 다졌다. 초석은 자연석을 마름모꼴로 치석한 것이고, 기둥은 모서리를 모접기로 바심질한 각기둥이다. 지붕은 팔작지붕과 맞배지붕이 결합한 형태이고, 차양이 없는 홑처마 기둥이다. 지붕은 한식 구기와 잇기로 마감되어 있다.

사당은 3량으로 가구를 짜서 올렸다. 기단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되었으며, 초석은 치석된 것이다. 지붕은 홑처마로 된 맞배지붕이며, 한식기와를 올려서 마감하였다.

3) 기타

집 뒤의 후원에 감나무, 앵두, 밤나무, 모과나무를 심고, 아래채 뒤에는 텃밭과 담장이 설치되고 있다. 후원에는 화계의 조성, 식목, 뒤꼍의 활용, 경사지의 조절과 담의 구성방법 등은 향촌에 조영된 반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가옥의 전면 사랑채 마당 등에는 원래 괴석과 연지가 있어서 훌륭한 조원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현재는 폐허화 되어 있다. 즉 발굴조사를 통하여 연지를 복원하고 수목 등의 식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제4장. 청문당의 정밀실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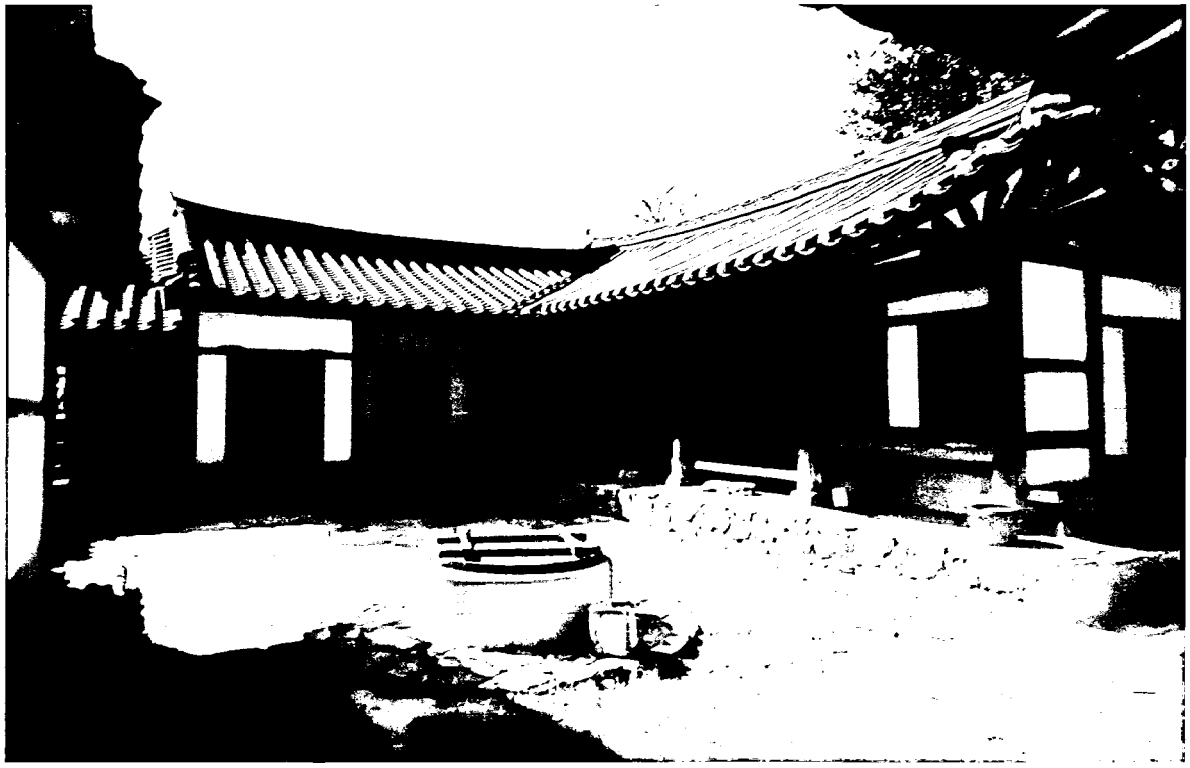
1. 안채
2. 사랑채
3. 대문채
4. 부대건축물
   가. 바깥채(아래채)
   나. 사당
5. 부대건축물
   가. 화계
   나. 담장
   다. 우물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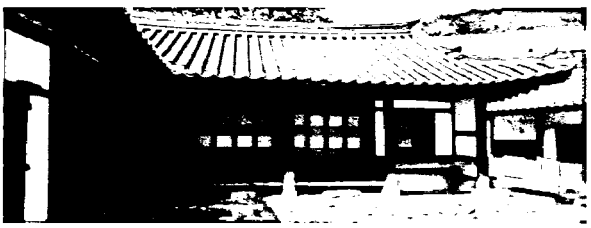
제4장. 청문당의 정밀실측

1. 안채



[사진4.01] 안채의 전경

청문당은 조선중기 중부지방 사대부 가옥으로 'ㄷ'자형의 배치중 안방과 사랑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서로 나란한 축, 그리고 후에 지어진 바깥채가 우측면에 놓여 남동향으로 트인 튼'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2004년 안채가 보수되었고, 2008년에 빙연제 도포작업이 시행되었다.



[사진4.02] 안채의 전경(2011년)



[사진4.03] 안채의 전경(2002년)

1-1. 평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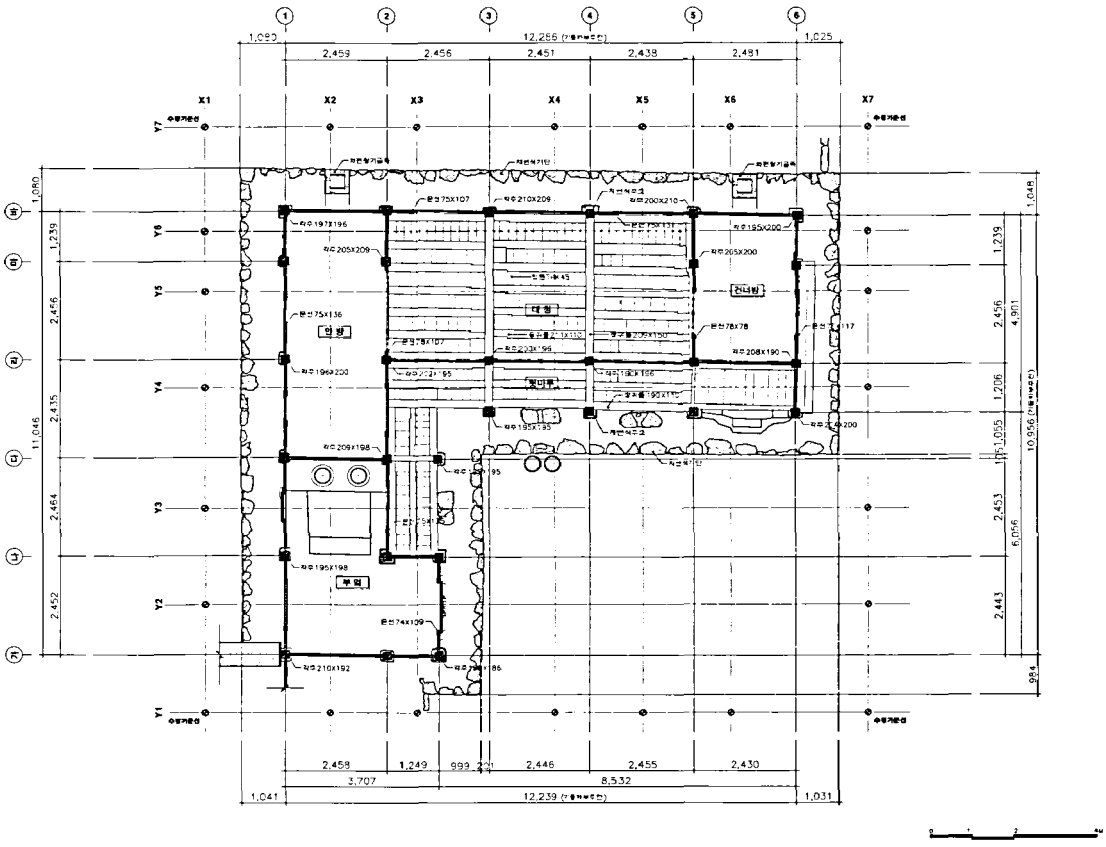
안채는 'ㄱ'자형 평면이다. 꺽임부(회첨부)의 가운데 대청을 3칸으로 오른쪽에, 그리고 2칸반 안방을 두고 안방 옆에는 부엌을 달아냈다. 대청 우측으로 건너방 1칸과 툇마루를

1) 평면구성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좌향은 주인과 손님(主客)이 보는 바에 따라 그 방향이 정반대가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을 방향의 기준으로 삼았다. 절대방위로 볼 때 전면(남서측), 배면(북측), 좌측면(남동측)그리고 우측면(북서측)으로 설정하여 표기하였다.

두었다. 안방 뒤편으로 조그마한 뜰이 있고, 좌측면 부엌은 대청마루 전면 툇마루가 연결되어 부엌 부뚜막에서 바로 음식을 제공(배선)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각 방의 규모를 살펴보면 안방이 2칸반, 좌로 부엌을 두는데 2칸이다. 안방 앞은 대청과 연결되고 전면 반칸은 툇마루로 둘러있다. 부엌은 2칸이며, 전면1칸은 툇마루와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다. 안방 우측으로 대청 3칸이 있고, 대청 전면에 툇마루가 놓여진다. 대청 우측으로 건넌방이 1칸 있고 툇마루가 한단 높여서 설치된 형태이다. 이는 하부에 난방용 부엌아궁이가 설치되기 때문이다.

예전의 안방은 장지문을 달아 아랫간과 웃간으로 구획하여 나누었으며, 부엌의 안마당 위쪽에는 툇마루로 통하는 두짝 세 살문이 설치되고 있다.



[그림4.01] 안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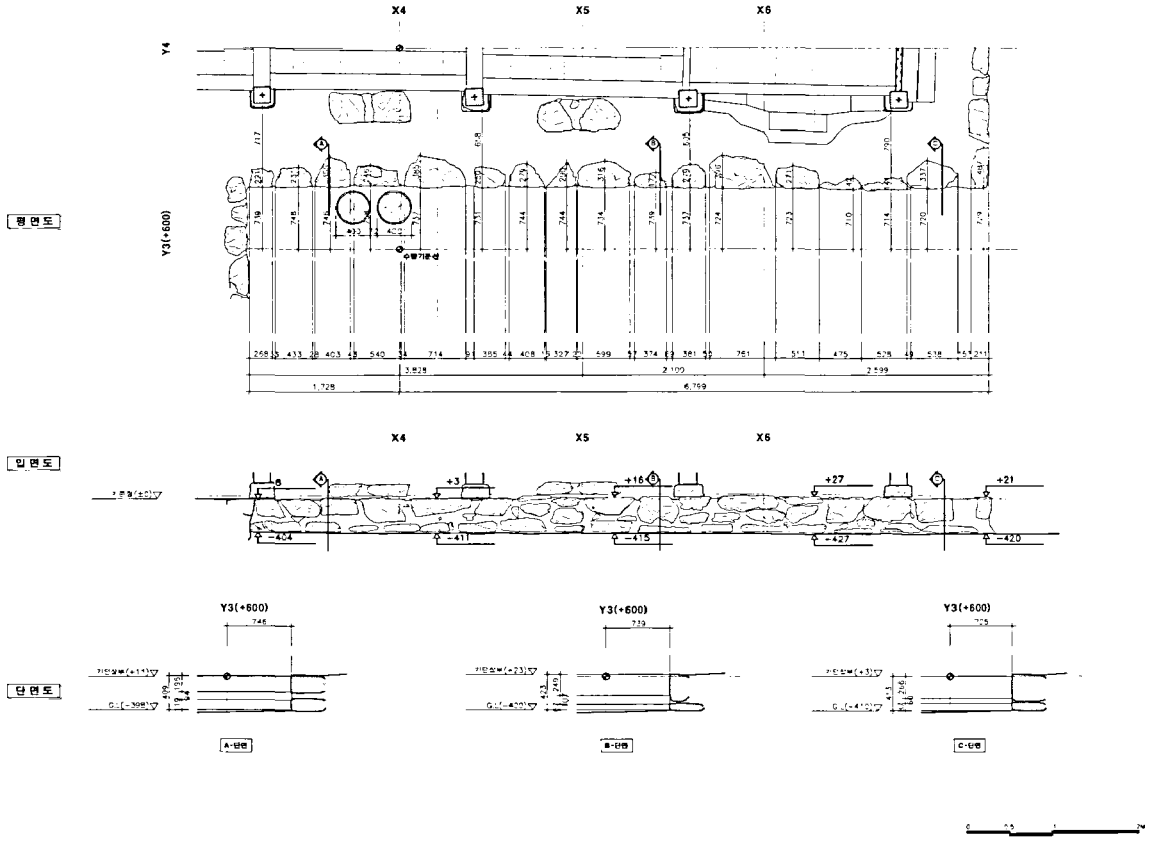
1-2. 기단과 초석

가. 기단(基壇)

가옥의 네 방향을 둘러싸고 있는 기단은 전면과 우측면은 두벌대이고, 그 외 2면은 외벌대인데 일부 자연석 기단이 사용되었고, 기단의 상부는 강회 다짐이다.

기단석의 길이는 대청을 중심으로 전면은 건넌방 전면부가 8,564㎜, 대청에서 부엌까지는 5,985㎜, 좌측면은 11,832㎜, 우측면은 6,061㎜, 배면은 웃방 부분이 돌출되었는데 배면의 전체 기단 길이는 14,391㎜, 좌측 부엌 사랑채 연결부분은 1,256㎜이다.

대청 전면 마당에서의 기단 높이는 좌측이 363~396㎜이고, 우측은 전면이 441㎜이고, 배면이 207~291㎜로 72~232㎜의 레벨차이를 보여 배면부가 낮다. 그리고 전면 대청 부분에서 높이차를 보면 배면부가 지형이 높고 전면에서 다시 우측면으로 구배가 형성된다. 여기서 그 높이 차이는 전면이 우측면보다 +1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4.02] 안채 기단 입면/단면상세도 (전면/남동측)

기단의 내밀기는 안채 대청 전면쪽 1,055㎜, 배면 우측단부 999㎜, 좌측단부 1,031㎜z이다. 전면기단의 내밀기는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984~1,080㎜의 수치를 보이며, 우측면은 1,025~1,031㎜, 배면은 1,048~1,080㎜, 전면 좌측은 984~1,080㎜로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안채 기단 상태로 보아 최근에 보수하여 정비한 것으로 잘 정돈되어있다.

[표4.01] 안채 기단 실측치수 (단위 : ㎜)

구분	대청마루 전면(안채)			배면 (안채)			좌측(안채)		
	좌측	중앙	우측	좌측	중앙	우측	좌측	중앙	우측
레벨	-41	± 0	+21	-3	+2	+17	+49	+50	-2
내밀기	1,055			1,064			1,032		



[사진4.04] 안채 기단(전면,대청)



[사진4.05] 안채 기단 (우측면,안방/건넌방)

나. 초석(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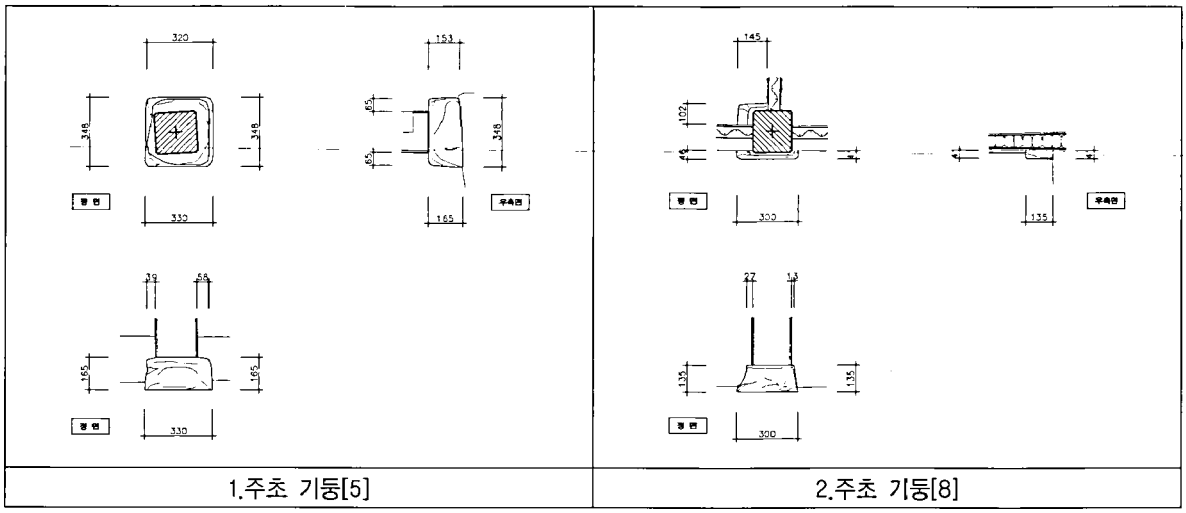
안채는 모두 화강석 초석을 사용하였으며, 사각형으로 다듬어 가공하였다. 초석의 총 개수는 29개인데 이중에서 21개가 실측 되었다. 초석들은 평주초석과 고주초석으로 나뉘는데 외부의 외진평주들은 실측이 가능하나 내진고주는 마루 밑이나 방밑에 있어서 일부는실측이 될 수가 없었다. 실측된 초석은 295~452㎜정도로써 크기가 다양한 편이다. 초석의 높이 또한 다양한 치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치수는 전면의 경우 131~261㎜이고 배면의 경우 112~170㎜내외이다.



[사진4.06] 안채 초석(전면/기둥3)



[사진4.07] 안채 초석(전면/기둥14)



1.주초 기둥[5]	2.주초 기둥[8]

[그림4.03] 안채 초석 실측치수

[표4.02] 안채 초석 실측치수 (단위 : ㎜)

구분		너비		높이		구분		너비		높이	
		X열방향	Y열방향	X열방향	Y열방향			X열방향	Y열방향	X열방향	Y열방향
기둥 1	상	285	301	261	239	기둥 3	상	295	302	166	186
	하	360	360				하	325	317		
기둥 2	상	285	309	184	195	기둥 4	상	306	282	152	180
	하	322	330				하	325	317		
* 초석의 높이는 기단바닥의 마감에서의 최대 높이임											

다. 디딤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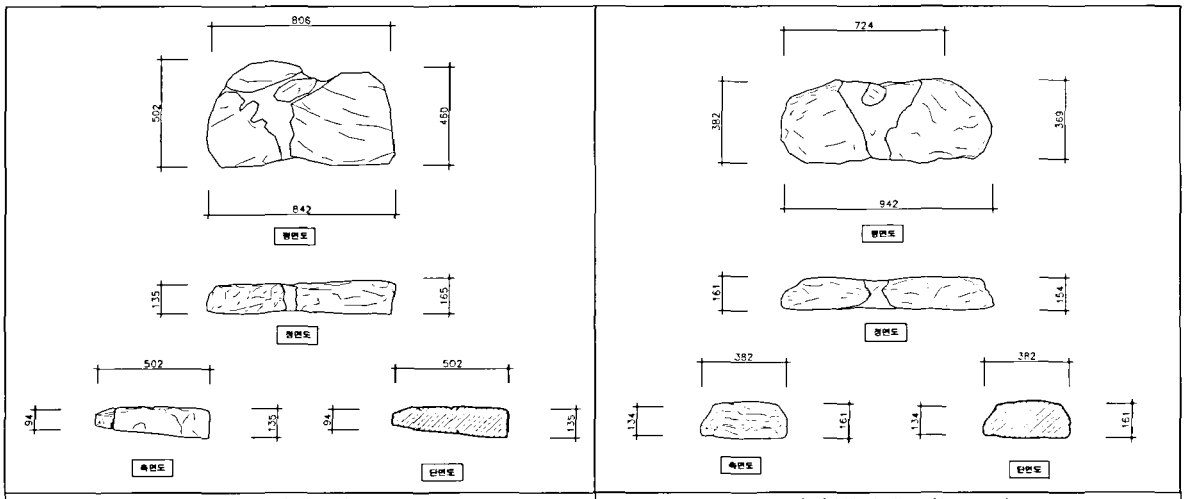
[사진4.08] 안채 디딤돌(전면,기둥4~5)



[사진4.09] 안채 디딤돌(전면,기둥6~7)

디딤돌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 대청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청마루 전면 기단에 설치한다. 가옥에서는 대청 전면, 좌측 부엌 전면 등 3개소에 설치되었다. 모두 마루의 이용방법에 의해서 필요한 개소에만 설치하였다. 디딤돌들은 자연석으로 두 부재를 강회몰탈 접합해서 설치하였다.

디딤돌의 크기는 대청 806×502㎜, 882×375㎜, 724×382㎜인데 높이는 대체로 94~161㎜로 대청마루의 높이(350㎜)의 1/2보다 다소 상회한 수치이다. 전면 디딤돌은 몰탈로 접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후에 필요에 의한 설치로 보아야 한다.



1.디딤석(전면, 기둥2~3) 2.디딤석(전면, 기둥5~6)

[그림4.04] 안채 디딤돌 입면/단면상세도 (전면,기둥 2,3/5,6)

1-3. 기둥

기둥은 외진 평주(邊柱)와 내진고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부 각주(角柱,각기둥,방형기둥)이다. 이 각주들은 민흘림을 가지고 있고 길이는 외진평주가 2,454~2,541㎜, 내진고주는 2,614~2,838㎜ 전후의 길이이다. 비교적 썩은 부재 없이 잘 보존되어 있다. 고주와 평주의 길이 차는 약 370㎜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가옥에 사용되는 보는 납도리(角道里, 方形道里) 사개맞춤으로써 맞춤은 매우 깨끗하게 되어 있다. 보머리는 기둥머리보다 작게 되어있다.

안채는 무고주 형식이고, 기둥은 고주가 모두 2개이며, 모두 29개의 기둥 중에서 나머지 평주는 21개로 주로 툇간에 설치되었다. 외진부에 평주를 제외한 내부 고주는 부재가 건물 안에 위치하여 전체 길이와 하부의 직경을 실측할 수 없었다.

[표4.03] 안채의 기둥 길이와 기둥크기 분석 (단위 : ㎜)

기둥위치		기둥높이	기둥의 크기(㎜)		비고
			기둥하부	기둥상부	
안 채	[1]	2,495	186 × 190	190 × 190	
	[2]	2,492	195 × 190	190 × 190	
	[3]	2,465	195 × 195	195 × 195	
	[4]	2,492	195 × 195	195 × 195	
	[5]	2,492	205 × 205	190 × 190	
	[6]	2,488	210 × 205	190 × 190	
	[7]	2,531	204 × 200	219 × 221	
	[8]	2,541	190 × 208	190 × 193	
	[9]	2,518	200 × 195	195 × 190	
	[10]	2,536	200 × 210	193 × 195	
	[11]	2,482	210 × 216	197 × 195	
	[12]	2,486	202 × 203	191 × 195	
	[13]	2,478	210 × 209	195 × 192	
	[14]	2,502	210 × 195	195 × 185	
	[15]	2,526	197 × 196	195 × 193	
	[16]	2,493	200 × 196	193 × 191	
	[17]	2,468	200 × 196	193 × 196	
	[18]	2,486	200 × 193	190 × 190	
	[19]	2,492	198 × 195	198 × 195	
	[20]	2,454	195 × 210	189 × 192	
	[21]	2,790	210 × 189	211 × 186	
	[22]	2,730	208 × 210	197 × 198	
	[23]	2,763	195 × 202	195 × 196	
	[24]	2,619	202 × 195	193 × 182	
	[25]	2,624	207 × 209	195 × 199	
	[26]	2,614	190 × 196	195 × 196	
	[27]	2,838	205 × 199	195 × 192	
	[28]	2,687	200 × 205	190 × 190	
	[29]	2,672	205 × 209	192 × 203	

가. 평주(平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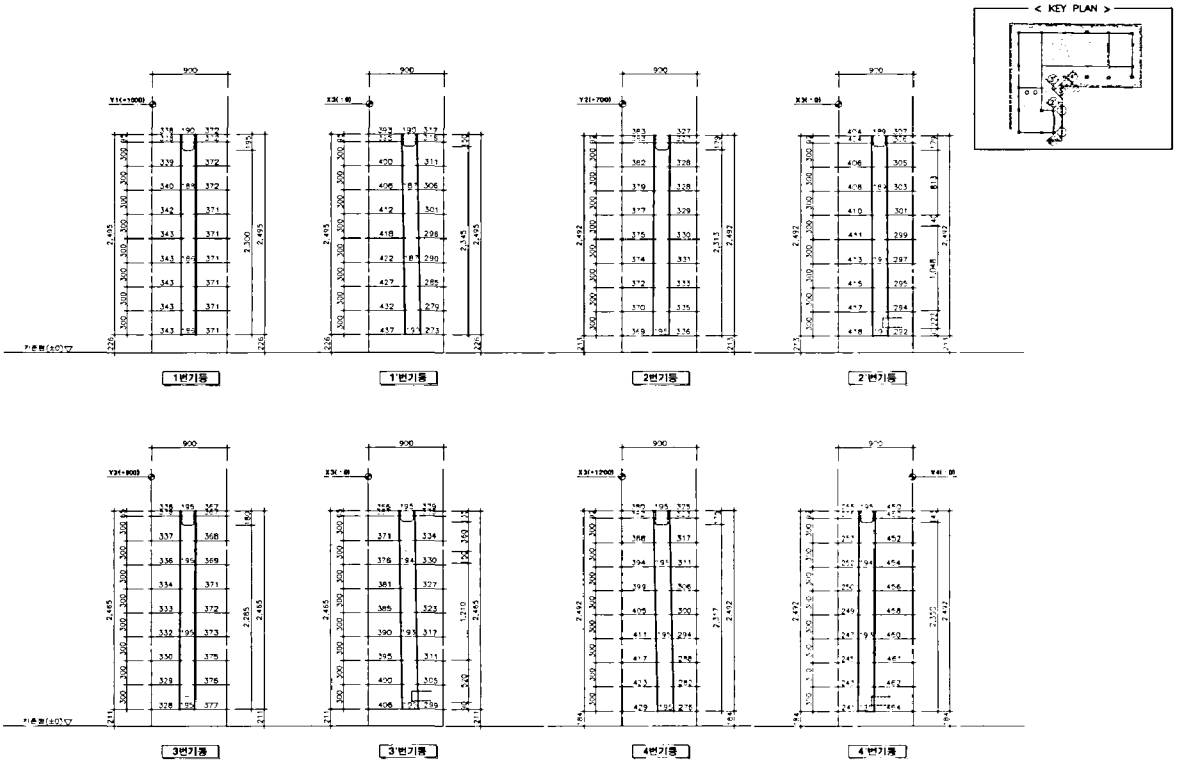
건물 외곽의 평주는 21인데 그 길이는 2,454~2,541㎜ 범위이다.
안채의 기둥은 민흘림으로 보이나 실측 후 나타난 수치가 유사하다.



[사진4.10] 기둥 (평주:전면/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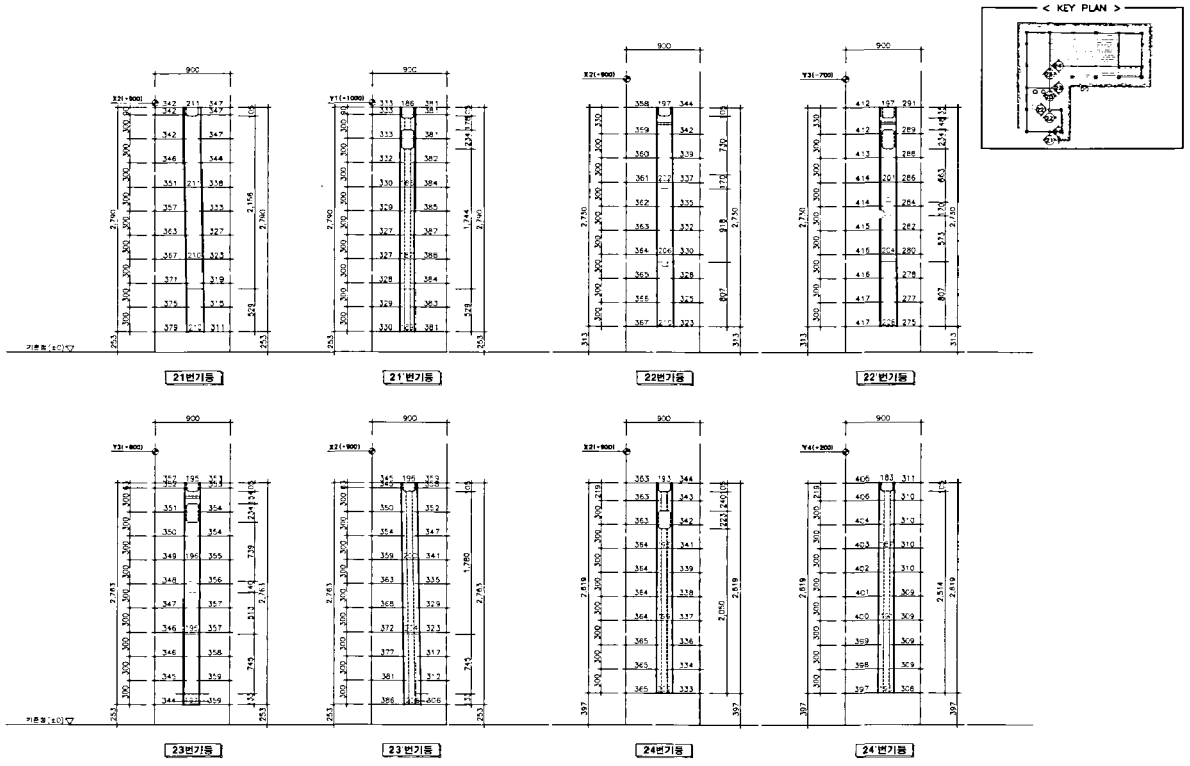
[사진4.11] 기둥 (평주:건넌방/부엌)



[그림4.05] 안채 기둥 입면상세도 (평주.기둥[1],[2],[3],[4])

나. 고주(高柱)

고주는 내진부에 위치하는데 대청마루와 방의 연결부가 된다. 모두 2개가 설치되는데 기본 가구를 구성하는 수직부재가 된다. 내진고주는 2,790㎜ 전후의 길이인데 이 길이는 대청마루 상부에서 실측한 실측치이다. 대청 전면에 위치하는 기둥[25]의 단면의 크기는 207×209㎜이다.



[그림4.06] 안채 기둥 입면상세도 (평주/고주 [21],[22],[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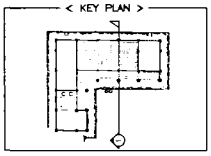
1-4.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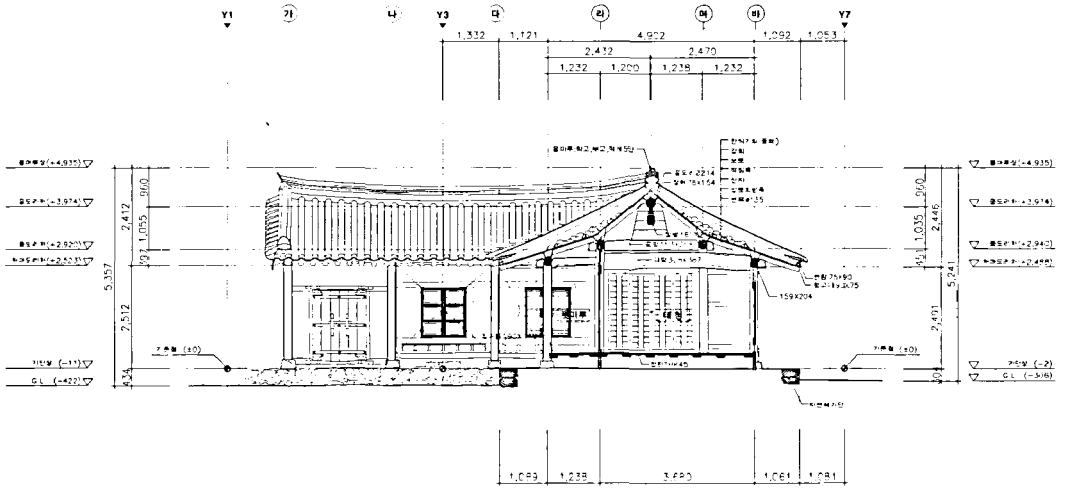
가구재는 보, 도리, 장여, 대공 등으로 구분되는데 가옥에서는 장여가 대청 종도리 하부에서만 사용되었다.

가. 구성(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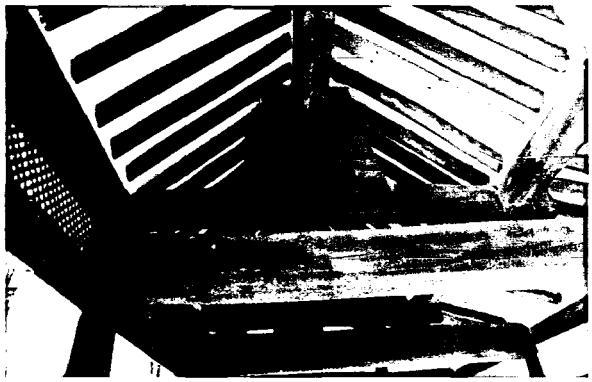
가구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1고주 5량이다. 전면 퇴보가 놓이는 고주와 배면 평주 상부에 대들보가 걸린다. 그리고 좌측면 부엌 또한 5량 가구 구조로서 좌측(서측)에 대들보를 걸어서 부엌은 방과 인접해서는 툇마루 동선으로 용이하다. 대청을 중심으로 전면과 배면에 맞보 형태로 고주에 결구 하였고, 그 위로 종보가 걸쳐지고 그 위에 판대공과 각대공을 얹어서 종도리와 연결된다.

안방은 평주와 고주에 대들보를 건너지르고 대공을 세워서 종도리를 걸었다. 5량 가구는 대들보가 만나는 중도리 위에서 장연과 단연이 만나고, 3량의 경우는 처마도리와 종도리에 1개의 연목이 걸치어 지붕을 형성하는데 청문당의 경우는 연목(서까래) 위에 흙과 돌을 혼합하여 쌓아 올린 다음 이것을 중심으로 지붕곡을 형성한다.





[그림4.07] 안채 가구 구성도(종단면도)



[사진4.12] 상부가구(대청 대들보)



[사진4.13] 상부가구(대청 중도리)

나. 보(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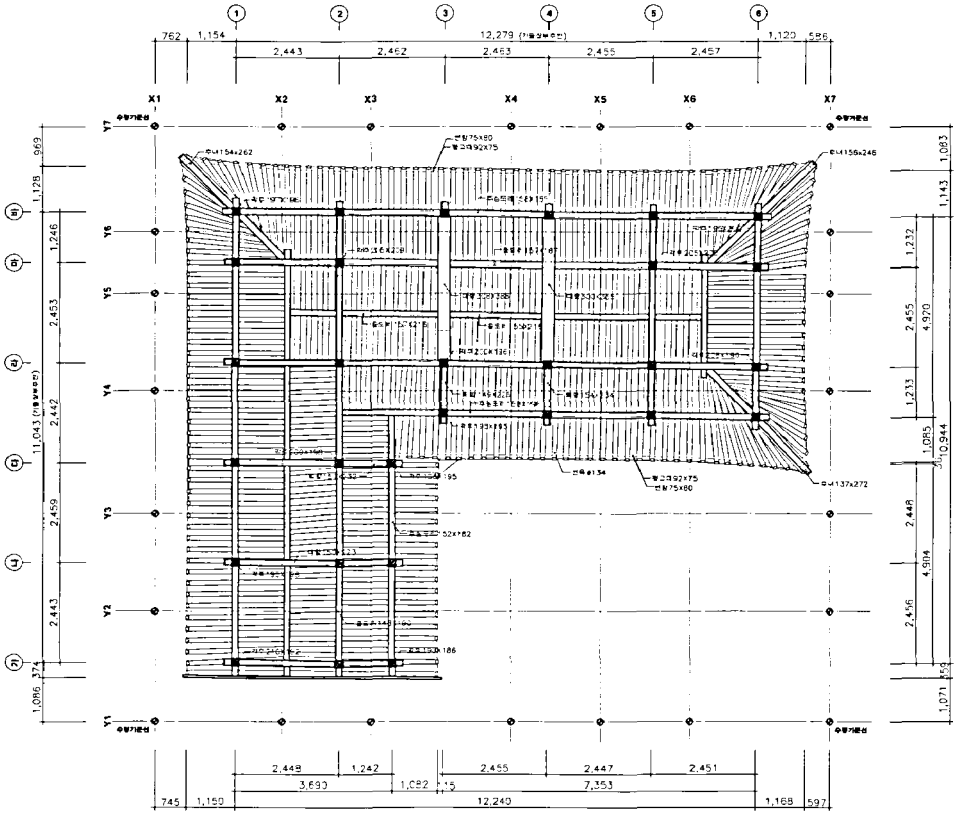
보는 대들보와 종보 및 퇴보가 있다.

안채에서의 대들보는 전면 본채에 3개, 좌측면 날개채에 4개, 우측 건넌방에 1개로 모두 8개가 있고, 대청 좌·우 및 배면에 결구되는 맞보만 제외하고, 모두 평주와 고주사이 길게 대들보로 가구를 형성한다. 그리고 종보는 대들보 상부에 동자주 위에 결구된 2개의 종류로 구분되고, 노출된 곳은 대청에서 노출되었으며 그 외는 대들보 좌우측면 및 하부만 노출되는데 상부에 모두 8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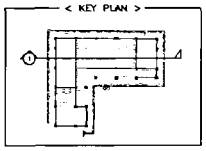
1) 대들보(大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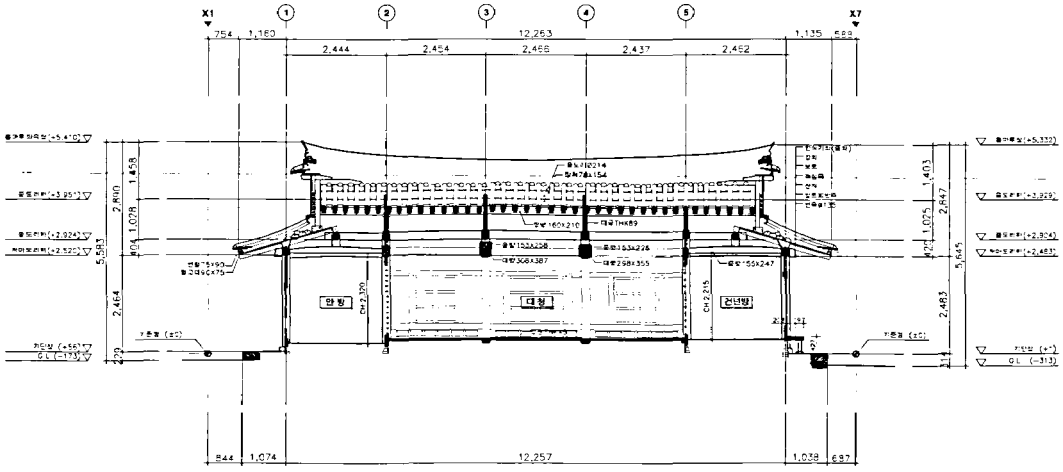
대들보 설치는 전면 본채에 3개, 좌측면 날개채에 4개, 우측 건넌방에 1개로 모두 8개가 설치되고 있는데, 대청 좌·우 고주 및 배면에 결구되는 맞보만 제외하고 모두 평주와 고주사이 길게 대들보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것이다.

전면 안채 대청 상부에 평주와 고주로 연결되는 장부재의 대들보가 위치하는데 단면의 크기는 309×398㎜이고, 그 길이는 3,47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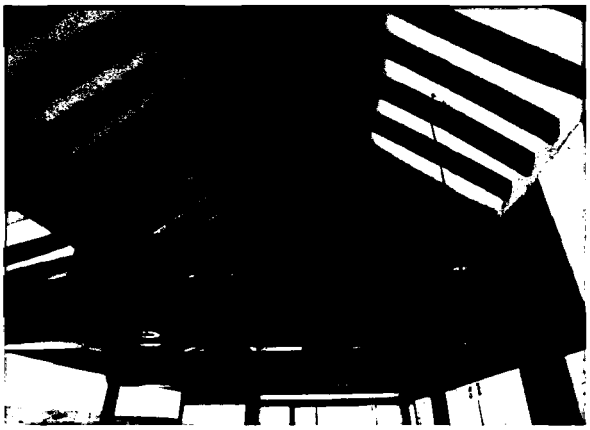


[그림4.08] 안채 가구 구성도(천장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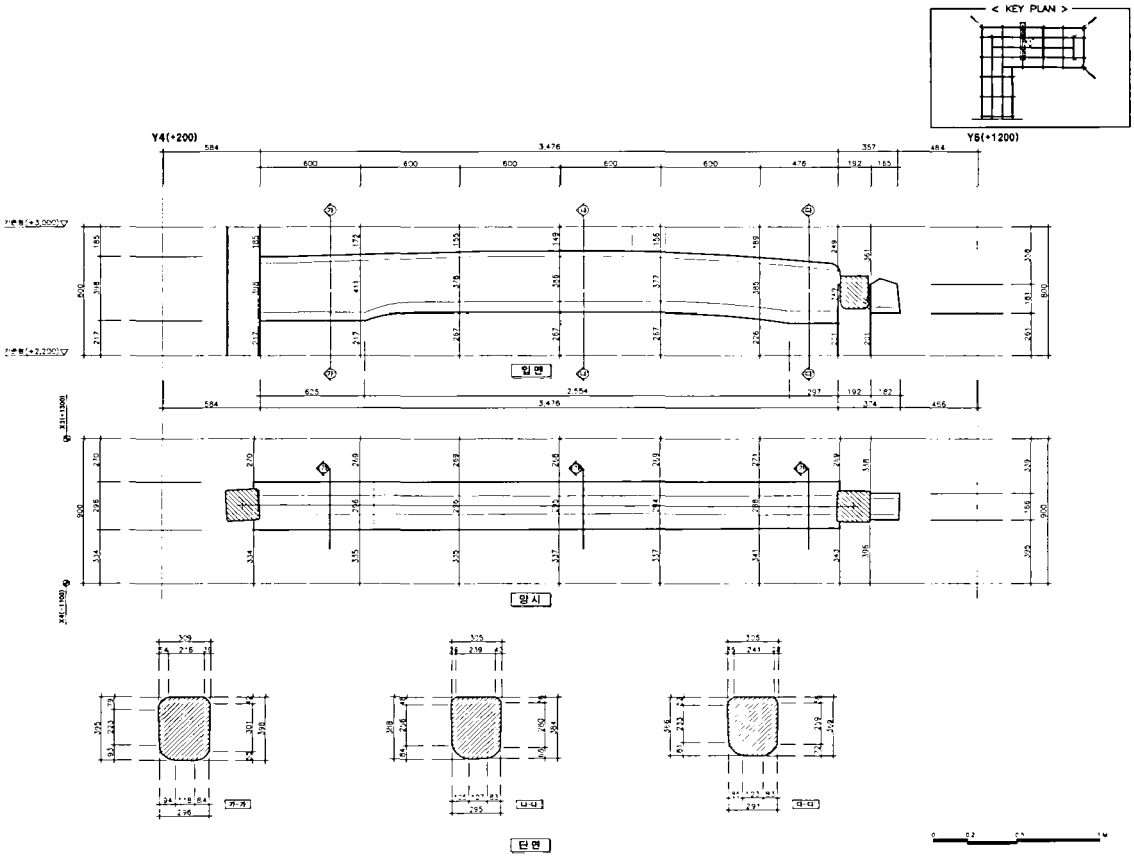
[그림4.09] 안채 가구 구성도(횡단면도)



[사진4.14] 안채 대청 대들보(대청/우측부)



[사진4.15] 대들보 결구 (대청/전면부)



[그림4.10] 대들보 입면/단면상세도

대들보의 형태 및 규격을 비교·검토 결과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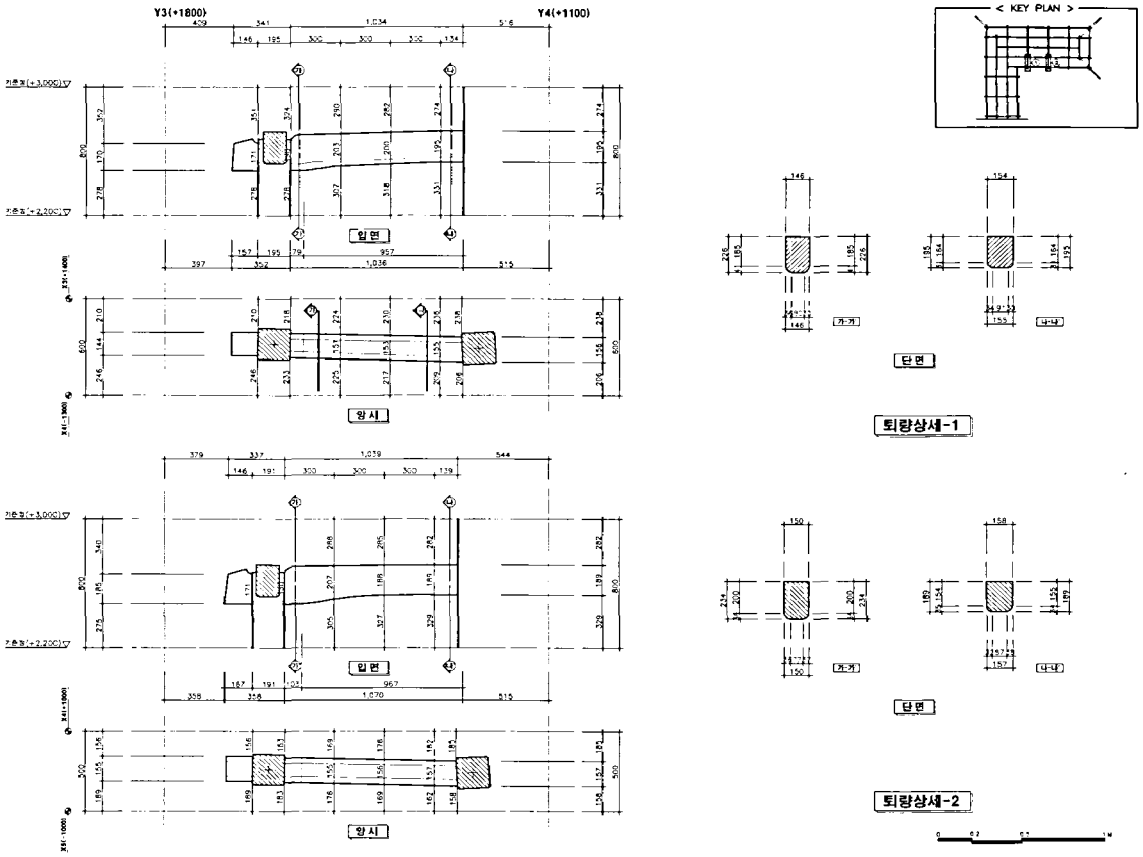
대부분 자연 곡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재의 규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단면을 정방형으로 정연하게 다듬은 형태이다. 보의 춤은 주칸의 1/9.415 정도이고, 보의 춤과 폭의 비율은 1:0.78 이다. 보머리는 183㎜정도 빠져 나왔으며, 말구는 대부분 직절(直切)하였다.



[사진4.16] 도리 · 퇴보의 결구 (전면,대청)



[사진4.17] 도리 · 보 결구 (전면,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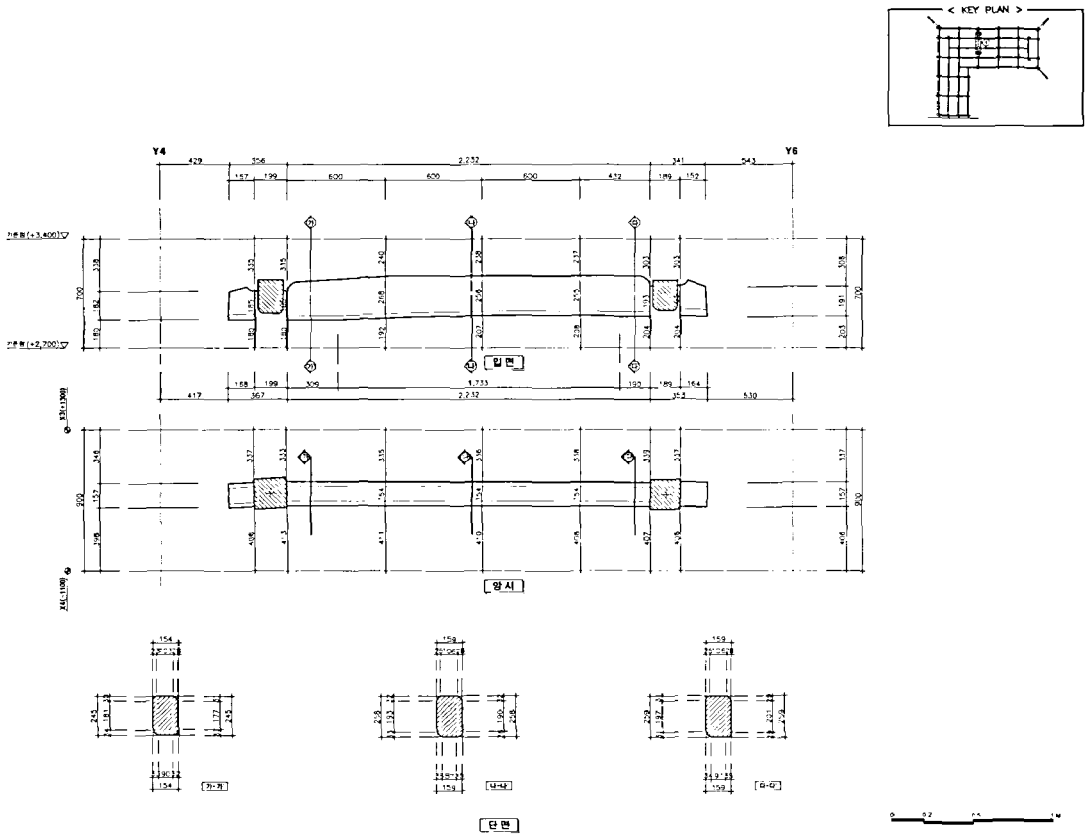


[그림4.11] 퇴량 입면/단면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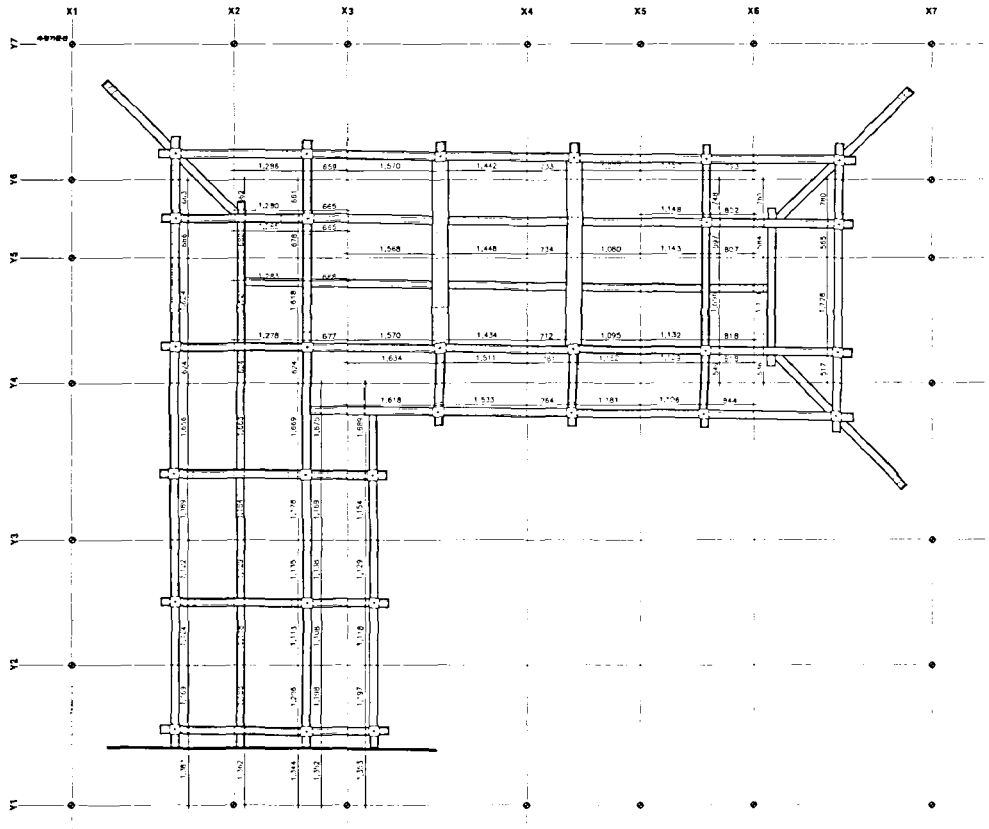
2) 종보(宗樑)

종보는 대들보 상부에 동자주 위에 결구된 2개의 종류로 구분되고, 노출된 곳은 대청에서 노출되었으며 그 외는 대들보 하부만 노출되는데 안채 대들보 상부에 모두 4개가 있다.

종보의 맞춤은 동자기둥에 사개맞춤으로 되어 있다. 보머리는 직절하였으며, 보 단면의 크기는 178×207㎜이고, 사용된 종보마다 조금씩 규격의 차이는 보이고 있다.



[그림4.12] 종량 입면/단면상세도



[그림4.13] 보 상세 및 변위 전개도

다. 도리(道里)

도리는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로 구분된다.

1) 주심도리(柱心道里)

주심도리는 홑처마일 경우 처마도리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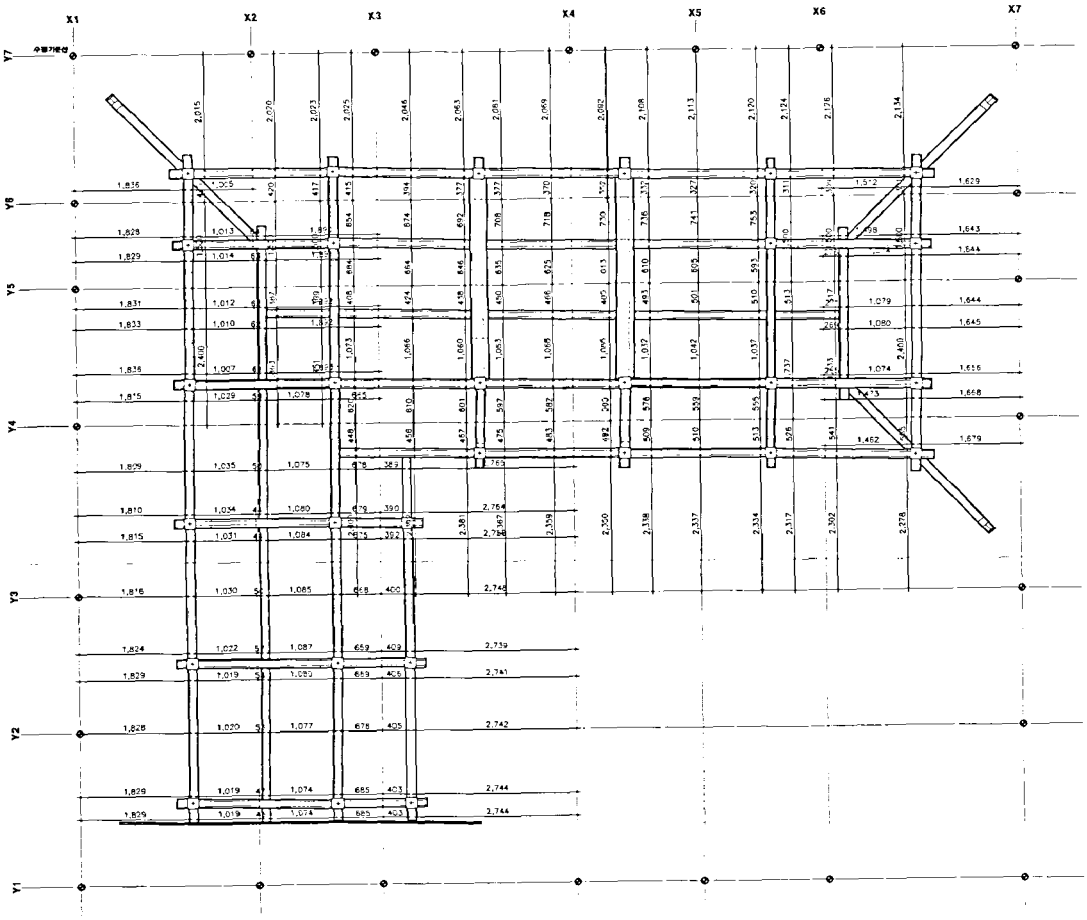
안채 전체에 걸쳐서 납도리인 주심도리의 단면의 크기는 159×204㎜이다. 도리하부에는 대청 부분에서만 중도리 및 종도리 장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설치되지 않는다. 안채 주심도리의 폭과 춤의 비율은 1:1.28이다.

2) 중도리(中道里)

중도리는 안채 전체에 걸쳐서 설치되는데 납도리로서 단면의 크기는 (151~155)×(194~214)㎜이다. 도리하부에는 대청 부분에서만 종도리 장여가 설치되어 있고, 중도리의 폭과 춤의 비율은 1:1.42이다.

3) 종도리(宗道里)

종도리는 대체로 지붕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굴도리이다. 안채 전면 본채에서 종도리의 단면의 크기는 ∅214㎜이고, 주심도리와 중도리와 마찬가지로 도리하부에는 대청 부분에서만 종도리 장여 밑에 소로가 받치고 하부를 창방이 받치는 가구형식이다.



[그림4.14] 도리 상세 및 변위 전개도

라. 장여(長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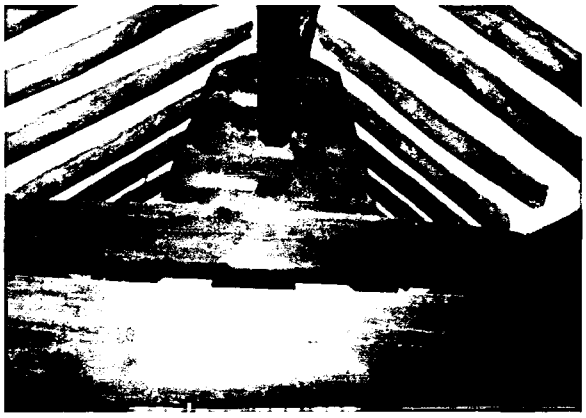
장여가 모든 가옥의 부재 치수를 결정하는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도리하부에는 대청 부분에서만 처마도리 하부와 종도리 하부에 장여가 설치되어 있다. 대청 종도리 장여 단면의 크기는 78×154㎜, 중도리 장여는 창호로 인해 설치하였는데 크기는 75×63㎜이다. 종도리 장여의 폭과 춤의 비율은 1:1.97이고 중도리 장여 폭과 춤의 비율은 1:0.84이다.

마. 대공(臺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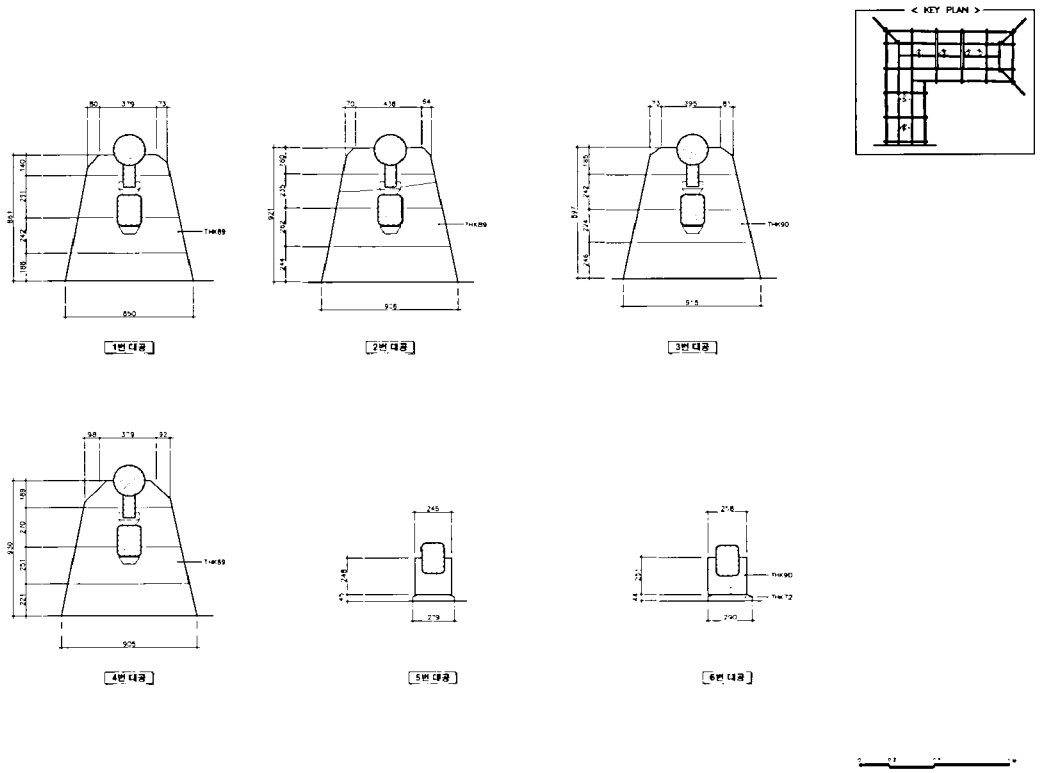
대공은 종보 위에 놓여서 종도리를 받는 부재로 판대공과 동자대공이 설치되는데 총 8개가 된다. 판대공은 1개의 단일부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작은 판재 1개씩 얹어서 모두 4개의 판재로 구성되었는데 상부쪽으로 폭이 줄어드는 사다리꼴 형태이다.



[사진4.18] 종도리 (부엌상부)



[사진4.19] 판대공 (대청상부)



[그림4.15] 대공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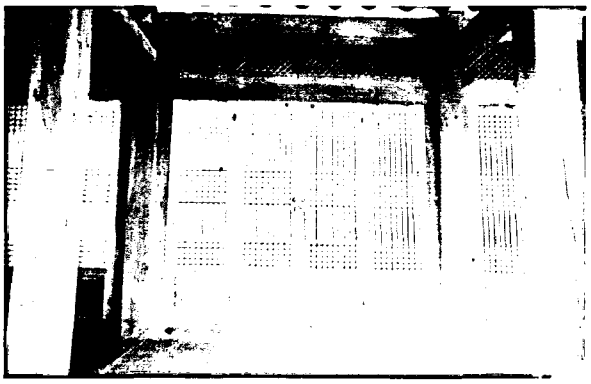
1-5. 공포

청문당은 소로수장집이다. 즉 대청마루 종도리부분에 소로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지붕물매를 주면서 생기게 되는 높이에 대한 처리와 또 천장이 노출되는 부분을 보다 화려하게 하는 기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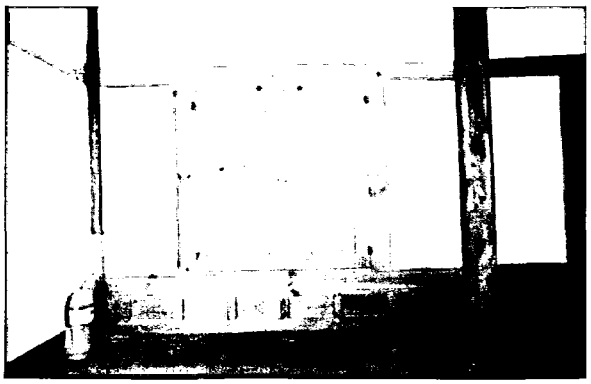
그러나 안채의 다른 부분에서는 소로가 사용되지 않고 보의 뺄목부분도 장식이 없이 민머리 형식으로 가공한다. 즉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와 같이 기둥상부는 공포를 꾸미지 아닌 것으로 가세에 비해서 소박하게 지어진 조선중기 중류층 주택이다.

1-6. 창호

가. 창호(窓戶)



[사진4.20] 안채 창호(건넌방전면)



[사진4.21] 안채 창호(대청배면)

안채의 창호는 대부분이 세살문형식이나 전면 좌측의 부엌 및 대청 배면 등의 문은 일반 나무 판장문으로 달았고, 부엌 동선이 변화는 과정에서 많은 변형이 일어났으며 그 외는 대체적으로 원래의 문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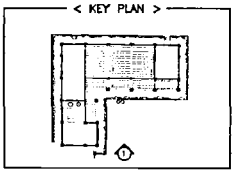
그리고 건넌방 출입문 크기는 1,082×1,220㎜, 내부 대청에서의 출입문은 격자살창 맹장지문으로 1,097×1,828㎜, 대청의 출입문은 분합들창문으로 2,044×1,871㎜으로 3개소가 있다. 규격은 유사하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격자살창 맹장지문(2,042×1,857㎜)이며 세살문(723×719㎜), 세 살문(606×1,315㎜) 등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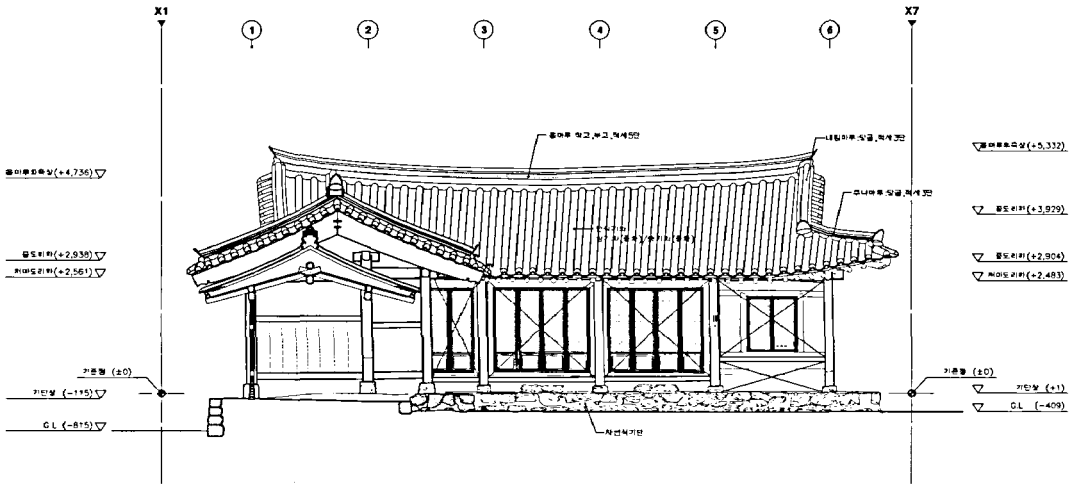
모든 외벽에서 방으로 연결된 부분에는 여닫이문이 설치된다. 외부 대청 분합문 위로는 광창(2,065×340㎜)이 설치되어있다.

부엌은 외부로 모두 판장문으로 설치되는데 용도에 따라 외짝이나 양짝여닫이문의 형태를 가진다. 안방부엌 상부에는 환기와 채광을 위한 살창이 배면에 설치되며, 안채 배면에 설치된 골판 창문은 각각 1,091×1,222㎜, 1,434×1,226㎜, 1,090×1,215㎜이다. 건넌방 우측면 쪽마루에서 출입문은 세살 2짝 여닫이문으로 1,025×1,272㎜이다.

안채건물의 대부분 창호는 외부면에 둘러싸여있으며 안방과 건넌방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 다시 말하면 대청에서의 문이 설치되었다. 외부면의 창호는 대청과 인접한 부분은 전면을 제외하고 머름을 설치하였다.

창호의 세부적인 크기는 아래 [표4.04]와 같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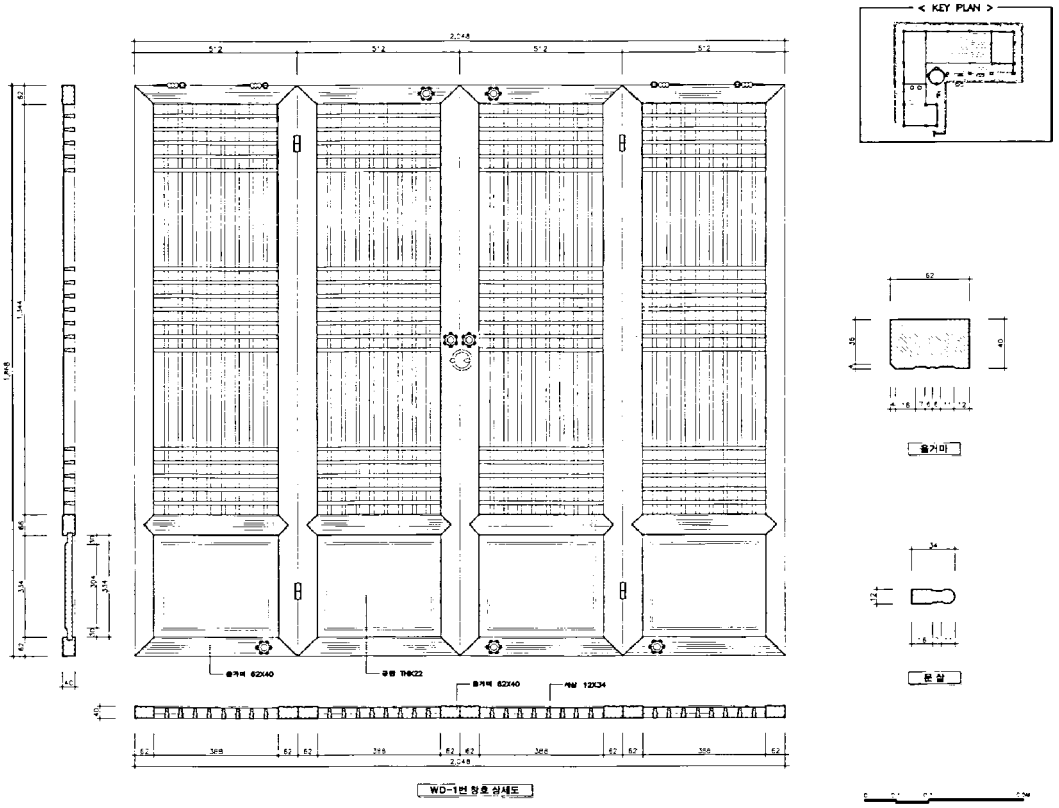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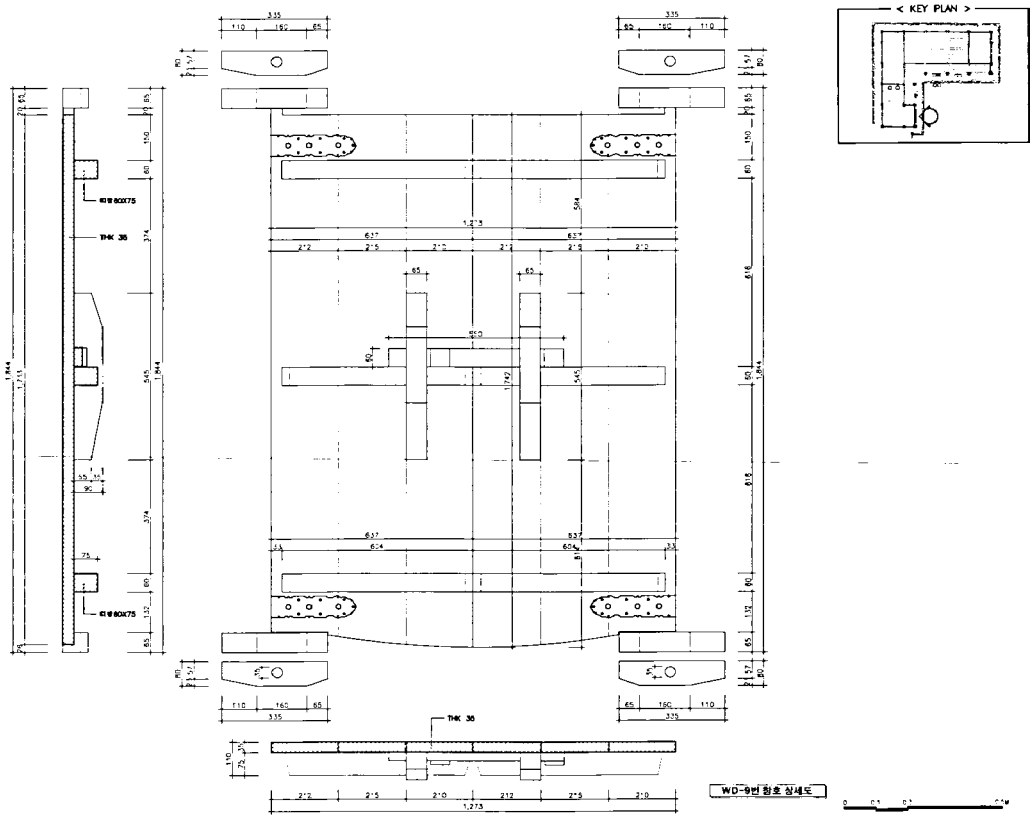
[그림4.16] 안채 정면도 (건넌방/안방)

[표4.04] 안채 창호 실측치수 (단위 : ㎜)

위치			창호종류	개소	문짝		울거미		문살		비고 (형상)
					너비	춤	너비	춤	너비	춤	
창호	1/WD	대청/전면	4짝분합 들문	1	2,048	1,868	62	40	12	34	세살
	2/WD	대청/전면	4짝분합 들문	1	2,044	1,871	62	40	12	34	세살
	3/WD	대청/전면	4짝분합 들문	1	2,040	1,875	62	40	12	34	세살
	4/WD	건넌방/대청	2짝여닫이문	1	1,082	1,220	59	43	11	37	세살
	5/WD	부엌/대청	2짝여닫이문	1	1,081	1,215	56	42	11	37	세살
	6/WD	안방/대청	4짝분합 들문	1	2,042	1,857	55	36	12	36	맹장지
	7/WD	건넌방/대청	2짝여닫이문	1	1,097	1,828	35	45	12	35	맹장지
	8/WD	건넌방/우측	2짝여닫이문	1	1,025	1,272	62	40	12	34	세살
	9/WD	부엌/전면	2짝여닫이문	1	1,273	1,844		35			목재판문
	10/WD	부엌/배면	1짝여닫이문	1	730	1,942		30			목재판문
	1/WW	대청/전면	광창(고정)	1	2,065	340	55	45	11	35	세살
	2/WW	대청/전면	광창(고정)	1	2,070	340	55	45	11	35	세살
	3/WW	대청/전면	광창(고정)	1	2,063	345	55	45	11	35	세살
	4/WW	대청/배면	2짝여닫이창	1	1,091	1,222	64	39		22	목재골판
	5/WW	대청/배면	2짝여닫이창	1	1,434	1,226	64	39		22	목재골판
	6/WW	대청/배면	2짝여닫이창	1	1,090	1,215	64	39		22	목재골판
	7/WW	건넌방/우측	2짝여닫이창	1	655	565	40	50	12	33	세살
	8/WW	안방/배면	2짝여닫이창	1	723	719	57	45	11	36	세살
	9/WW	안방/배면	1짝여닫이창	1	606	1,315	65	40	11	36	세살
	10/WW	안방/배면	1짝여닫이창	1	606	1,315	65	40	11	36	세살
	11/WW	부엌/배면	환기창 살창	1	1,057	571			23	55	목재
	12/WW	부엌/전면	2짝여닫이창	1	1,089	1,220	64	39		22	목재골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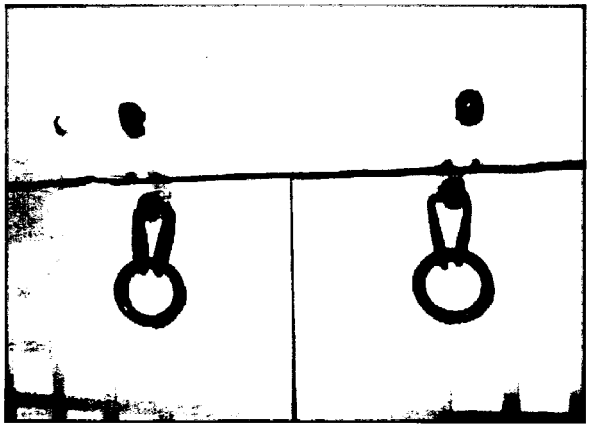
[그림4.17] 안채 정면창호 (대청)



[그림4.18] 안채 정면창호 (부엌)

나. 창호철물(窓戶鐵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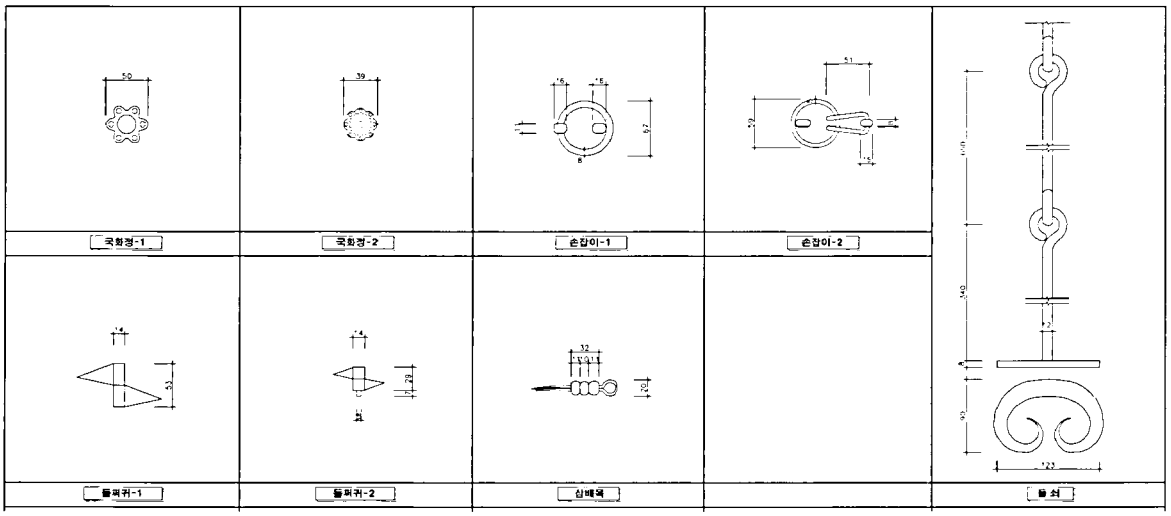
2짝 여닫이문의 경우 3개의 문고리와 좌·우측단부에 상하 1개씩 돌쩌귀가 모두 4개 설치되었고, 외여닫이문인 경우 문고리 1개와 돌쩌귀 2개가 설치된다. 창호에 사용된 문고리는 사슬이 없는 고리, 미서기문이나 맹장지문의 경우 오목손잡이가 사용되었다.



[사진4.22] 안채 창호(건넌방전면/내부)



[사진4.23] 안채 창호(건넌방전면/외부)



[그림4.19] 안채 창호철물 상세도

1-7. 처마

가. 구성(構成)

처마는 전·배면 모두 홑처마이다. 안채의 연목 굵기는 ∅110~145㎜, 건넌방과 좌측 부엌채의 연목 굵기는 ∅107~152㎜이다, 처마 내밀기는 대청 전면 1,121㎜, 배면 1,128㎜이고, 좌측부의 처마 내민 길이는 1,150㎜이다. 우측 처마 내민 길이는 1,168㎜ 이며 좌측부는 박공으로 마감하여 문간채와 연결되며 우측부는 팔작으로 마감되어있다. 좌측은 처마의 안허리곡이나 앙곡은 중앙부에서 우측으로 팔작이 형성되는 부분은 다소의 치켜 올림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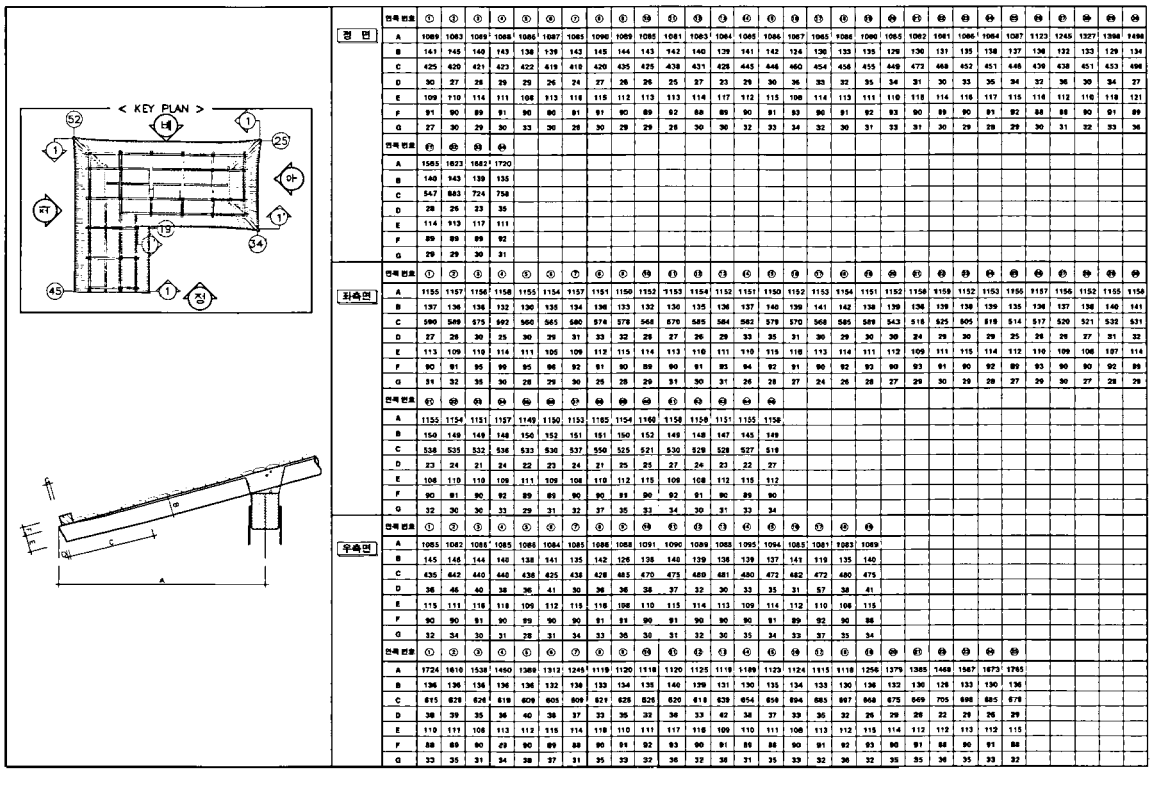
기둥 밑에서 처마 끝을 연결하는 내각이 대청마루 부분에서는 약 25.0°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처마가 25°~26°정도를 이루고 있어 청문당의 처마는 일반적인 내각 수치를 지닌다.

[표4.05] 안채의 처마 내밀기 (단위 : ㎜)

구분 (안채)	대청마루 중앙부	구분 (날개채)	측면 중앙부
전면(남측)	1,121	좌측면(서남측)	1,150
배면(북측)	1,128	우측면(동측)	1,168

나. 서까래(椽木)



[그림4.20] 연목 실측도



[사진4.24] 안채 서까래 (대청.외부)



[사진4.25] 안채 서까래 (배면.추녀부)

서까래는 처마도리와 중도리를 연결하는 장연(長椽, 긴서까래)과 중도리와 종도리를 연결하는 단연(短椽,짧은서까래)이 있다. 장연은 굵기가 ∅118~152㎜이고 말구는 ∅107~123㎜이다. 말구에서 훌치기를 하기 때문에 말구직경이 중앙부직경보다 작다. 훌치기는 말구에서 600㎜정도부터 이루어졌다.

단연의 크기는 ∅120㎜이다. 3분변작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장연의 길이가 무척 길다. 대청부분에서 장연은 2,480㎜이고, 단연은 1,81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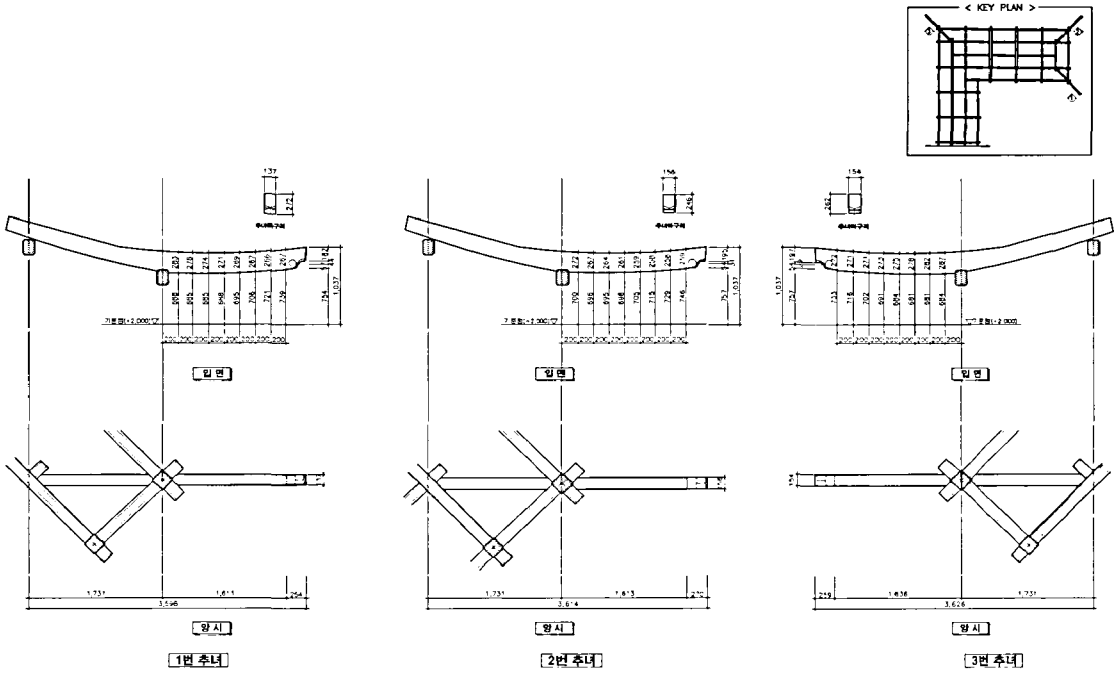
좌익채의 서까래 길이는 장연은 2,500㎜이며 단연은 1,310㎜이고, 평서까래는 1,370㎜ 중도리와 중도리를 한부재로 연결하는 5량으로 설치되었다. 서까래의 마구리는 사절하였다. 마구리를 사절하는 이유는 밑에서 올려다 볼 때 말구가 옆으로 긴 타원형으로 보이지 않고 정원(正圓)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착시교정의 효과를 위한 것이다.

[표4.06] 안채의 서까래 치수 (단위 : ㎜)

구분(본채)	전면대청마루 중앙부	구분(날개채)	우측부엌 중앙부
전면(남측)	∅110~145	좌측면(서남측)	∅107~146
배면(북측)	∅110~141	우측면(동측)	∅108~155

다. 추녀(椿舌)

안채에서 추녀는 건넌방 우측과 안채 배면부가 만나는 곳으로 3개소이다. 추녀목의 크기는 좌측면 전면 137×272㎜이고, 배면 156×246㎜이다. 안채의 배면 추녀는 154×262㎜이다. 좌우측으로 선자연서까래가 배열된다. 추녀의 폭과 춤의 비율은 1:1.98과 배면측면 추녀 비율은 약≒ 1:1.60이다.



[그림4.21] 추녀 실측도

라. 평고대와 연함

1) 평고대(平高臺)

평고대는 추녀와 추녀 사이를 길게 건너질러 지붕의 물매를 결정하여 주는 부재로 지붕곡선에 맞게 미리 휘어서 사용한다. 안채는 홑처마로 부연이 없기 때문에 이매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평고대는 일반적으로 빗이음을 하며 안채의 경우 모든 곳에서 평고대는 폭 89~92㎜에 높이 73~75㎜의 부재를 사용했다.

[표4.07] 안채의 평고대, 연함 크기 (단위 : ㎜)

구 분	전면대청마루 중앙부		구분	우측부엌 중앙부	
	평고대크기	연함높이		평고대크기	연함높이
전면(남동측)	90×73	89	좌측면(서측)	92×74	93
배면(북동측)	90×75	90	우측면(동측)	89×74	92

2) 연함(椽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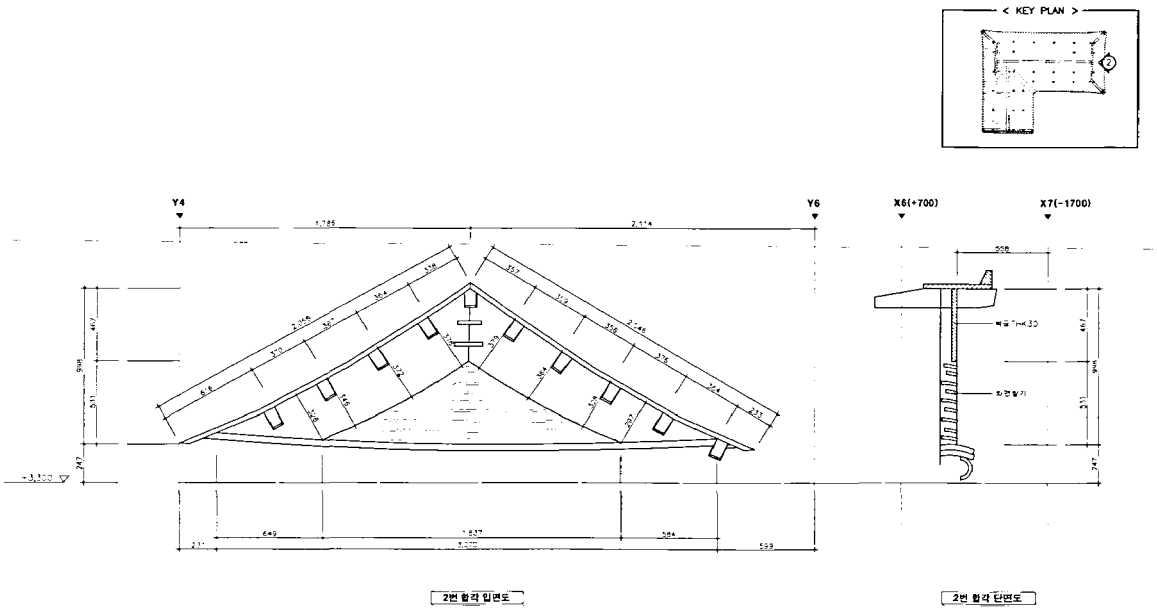
연함은 높이 89~93㎜이며, 이음은 맞댄이음이다.

마. 박공(朴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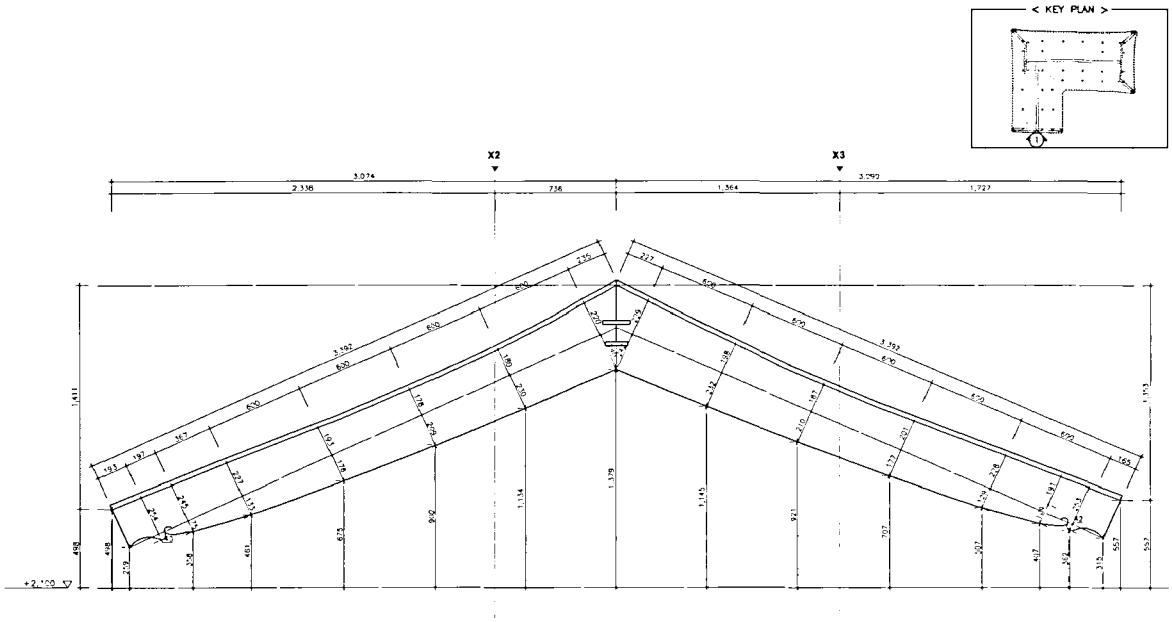
안채에서 박공면은 모두 6개소인데 전면 건물의 좌측면 2개소, 우측 건넌방 2개소, 안방 배면부 2개소 합각벽부분이다. 모든 박공부에는 풍판은 없다.

안채의 합각부 박공을 살펴 보면 박공은 두께 30㎜, 너비 최대폭 332㎜이고, 최소폭은 265㎜이다. 전면 우측 합각부 너비 최대 폭 379㎜이고 최소 폭은 297㎜, 좌측 박공두께 55㎜, 너비 최대 폭 271㎜이고 최소 폭은 263㎜, 좌측 합각부 박공은 최대 폭 297㎜인데 대체적으로 처마 쪽으로 갈수록 폭을 줄여 나갔다.

좌측 부엌측 박공은 게눈각을 초각하였으며 나머지 2개면은 합각벽이다. 박공재간의 연결은 꺽쇠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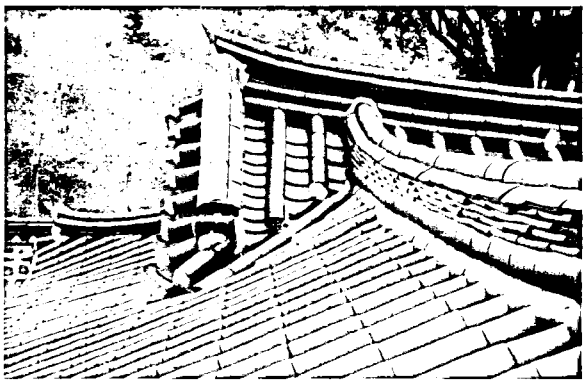
[그림4.22] 합각부 박공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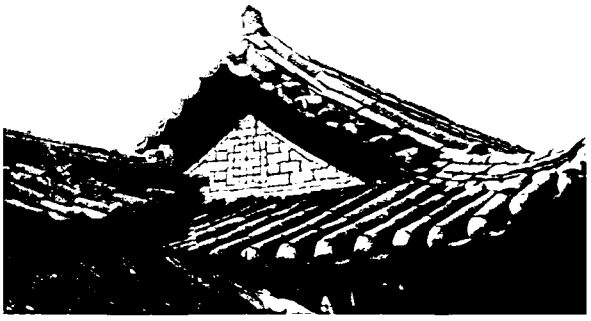
[그림4.23] 박공 실측도(좌측/부엌)



[사진4.26] 안채 박공 (좌측부/부엌)



[사진4.27] 안채 박공 (좌측부/안방)



[사진4.28] 안채 박공 (구. 우측부/건넌방)



[사진4.29] 안채 박공 (현. 우측부/건넌방)

바. 기법(技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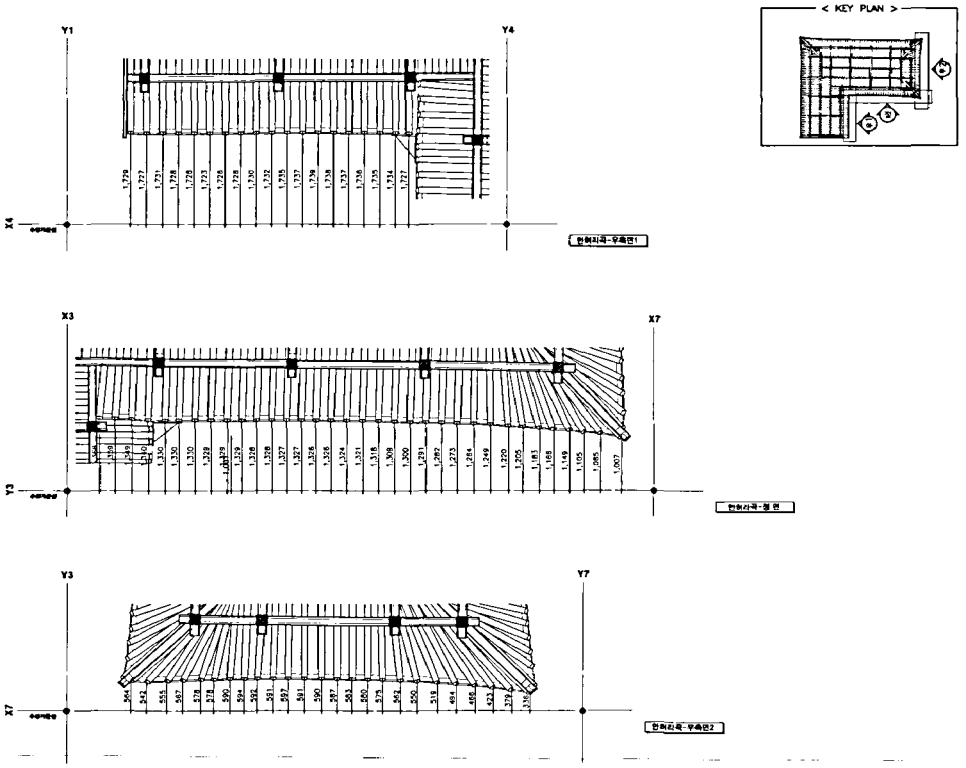
1) 안허리곡

안채 주 공간인 대청과 안방, 건넌방 등의 안허리곡 실측결과 전면과 배면 그리고 좌측 순으로 욱은 곡이 많다. 전면은 좌측 서까래에서 우측 추녀 서까래 종점으로 잡았을 때 가장 많이 들어 간 우측부에서 중앙부인 건넌방 전면(323㎜)이다.

그리고 안채 배면부 좌측 추녀에서 우측추녀 서까래 중심에서의 곡은 마찬가지로 건넌방배면부(북동측)인 최대(253㎜)이다. 우측면이면서 안방의 배면(서측)에 속하는 안허리곡은 최대(157㎜)이며 우측면인 건너방(동측)에서도 최대(155㎜)이다.

나머지 부엌이 자리하는 좌측전면부(남서측)서까래 내밀기 차는 최대(11㎜)이다.

본채가 있는 정면이 가장 곡이 크고, 이에 따라 방에서 부속채 위주의 곡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마 구성상 맞배지붕과 추녀지붕을 사용한 선자연의 내밀기로 보아 민가 형태에서 적당한 곡률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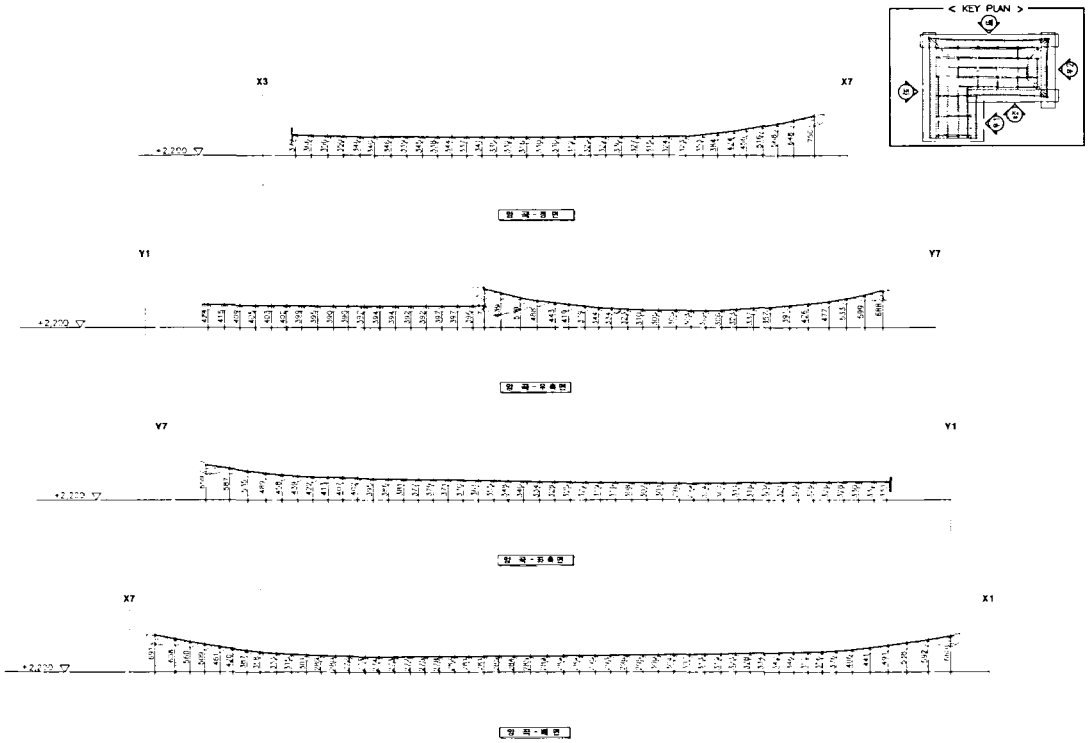
[그림4.24] 안채의 안허리곡 입면상세도(좌측.전면.우측)

2) 앙곡(仰曲,昻曲, 처마곡)

앙곡은 수평기준(+2,200)으로 실측한 결과 안채 대청 전면(남측)에서 중앙부는 거의 수평을 유지하다가 우측에서 410㎜ 치켜 올림을 가진다. 즉 평연구간에서는 거의 수평이고, 추녀부에서 앙곡을 주었고 안채 우측면의 맞배를 형성하는 부엌측은 거의 수평을 유지하였으며 합각이 형성되는 건넌방은 최대 425㎜ 올리고, 좌측면은 최대 363㎜ 치켜 올림을 가진다. 배면에서는 419㎜ 치켜 올림을 갖고 안허리와 마찬가지로 전면이

가장 크고, 추녀에 이르러 앙곡의 치켜 올림을 갖는다. 평연구간에서는 거의 수평이고, 추녀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면이면서 건넌방이 위치한 추녀부에 치켜 올림이 크고, 맞배를 형성하는 좌측면은 치켜 올림이 미비하다.



[그림4.25] 안채 앙곡 입면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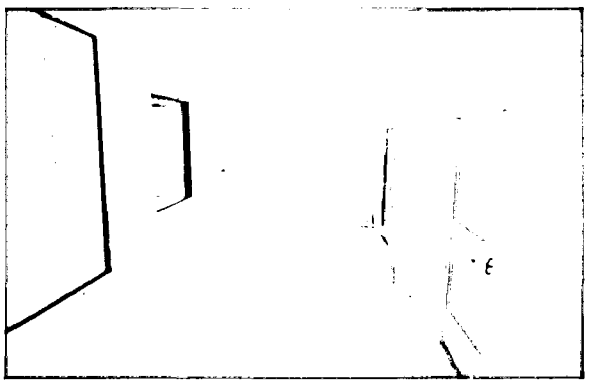
1-8. 천장

대청만 서까래와 도리가 노출된 연등천장이며 연목 위에 산자 엮기 후 앙토를 바르고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나머지 방들은 모두 목조천장틀위 천장지 마감을 하였다.

한옥에서 연등천장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천장의 반자 없이 가구를 노출시켜서 넓은 공간에 어울리게 천장을 높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보통 10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택의 방들은 좌식생활공간으로서 대청보다는 낮게 천장을 평반자로 마감(보통 7.5자)하여 실내의 보온 및 시각적 안정감을 고려하여 낮게 설치하였다.



[사진4.30] 안채 연등천장 (대청)



[사진4.31] 안채 천장 (안방)

1-9. 지붕

안채는 맞배의 합각지붕이고 부엌이 있는 곳도 맞배지붕이다. 그래서 교차부에 용마루와 내림마루가 구성되며, 회첨골이 형성된다. 용마루 2개, 내림마루 6개, 추녀마루 3개, 회첨골 2개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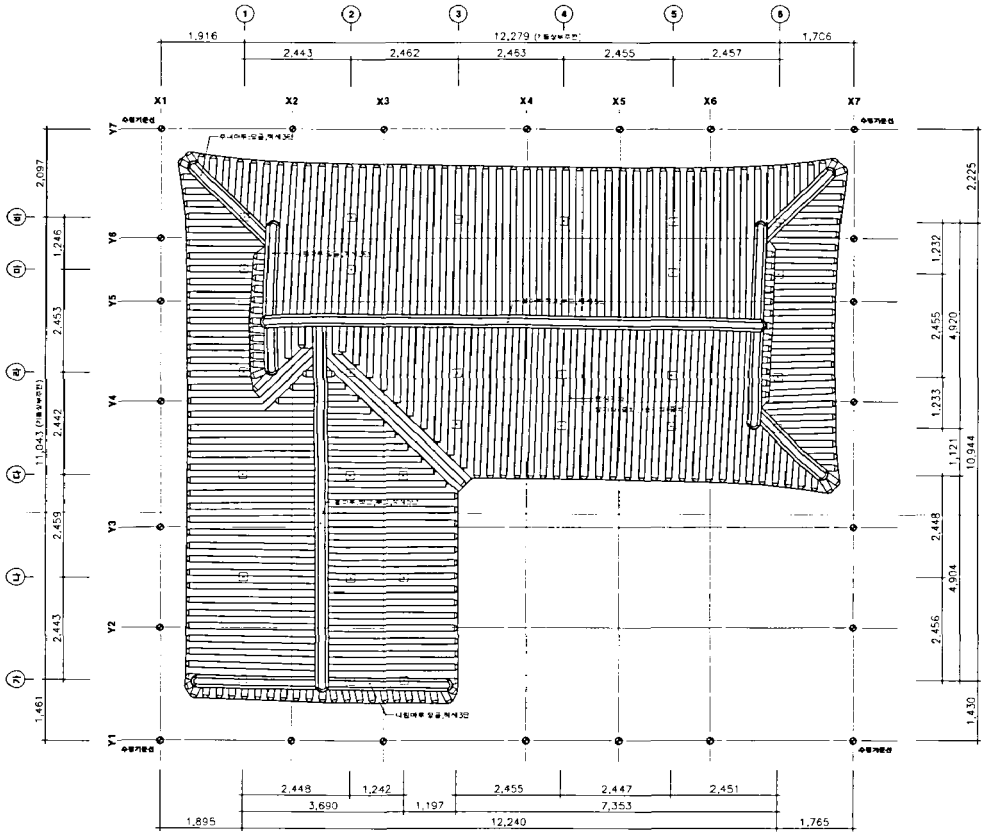
지붕은 보수한 흔적이 보이며 기와의 크기도 다르다. 대부분은 한식중와(中瓦)를 사용하였는데 막새기와는 사용하지 않고 단부에 아귀토 마감을 하였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에 5단의 적새를 올렸으며, 회첨골은 암기와 2열과 가운데 수키와 1열로 구성된다. 지붕 용마루는 대청상부와 건넌방과 직교된 좌측부분에 안방과 부엌 상부 두 곳에 설치된다.



[사진4.32] 안채 마루곡 (좌측 부엌부)



[사진4.33] 안채 회첨부 (우측 건넌방부)



[그림4.26] 안채 지붕평면도



[사진4.34] 안채 지붕 (전면, 대청상부)

2) 기법(技法)

가) 기와곡(蓋瓦曲.지붕물매)

바닥 기와면의 길이는 본채 전면 대청 중심부에서 전면은 3,906㎜, 배면은 3,881㎜로 전면이 25㎜ 긴데 이것을 보면 전면에 툇마루가 있으면 당연히 전면부가 긴 길이를 지니는데 배면부에도 퇴칸의 폭 만큼 확장된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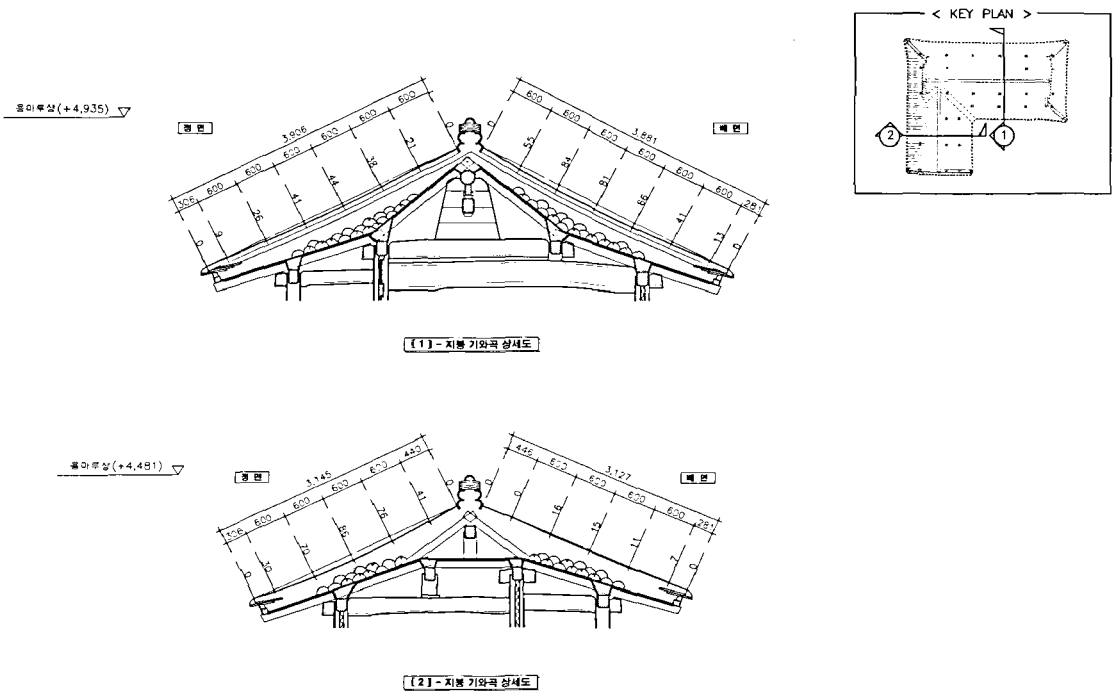
최대 만곡점은 중앙부보다 전면은 다소 상부측, 배면도 상부측에 위치하며, 전면은 44㎜, 배면은 84㎜로 차를 보인다. 민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붕곡의 경우 기와곡이 밋밋하게 내려온다.

그리고 부엌 중심부에서 바닥면의 길이는 정면은 3,145㎜, 배면은 3,127㎜로 전면이 86㎜, 배면은 16㎜로 그 차가 70㎜인데 "ㄱ"자형인 안채의 지붕 물매는 각 지붕의 배면부 즉 앞마당이 아닌 뒤뜰에서의 면이 물매 기울기가 크다.

아마도 뒤뜰 및 배수로로 연결하여 원활한 우수처리를 감안한 듯 보인다.

나) 마루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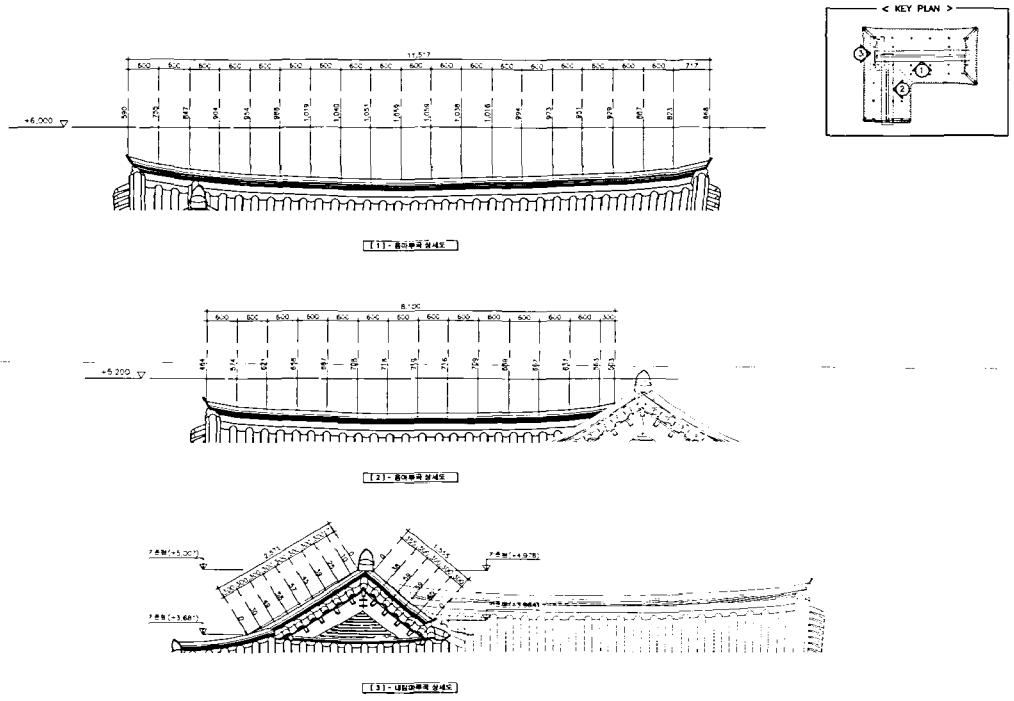
마루는 용마루로 대청과 건넌방이 위치하는 안채와 안방과 부엌이 달린 날개채에 각각 1개소, 각각 단부에 내림마루 3개소씩, 그리고 추녀마루 3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8개소로 구성된다. 좌측부에 속한 부엌은 내림마루가 시설된 맞배이고, 좌측 안방부는 팔작 형태이므로 내림마루와 추녀마루로 구성된다. 우측 건넌방 또한 팔작이므로 내림마루와 추녀마루로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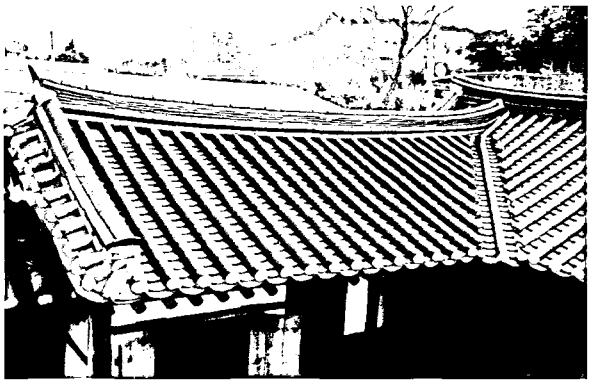
[그림4.27] 안채 기와곡 상세도

(1) 용마루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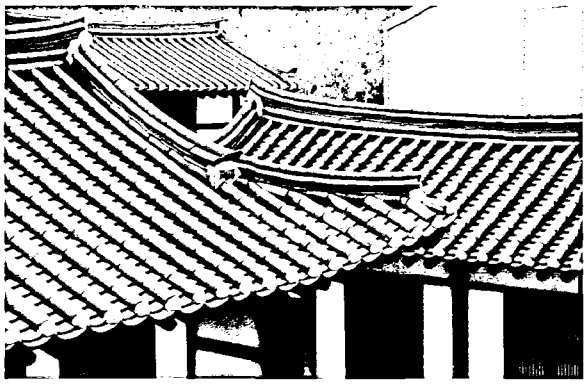
정면 망와간 용마루 상면의 길이는 본채가 11,517㎜이며 최대 중간지점은 432㎜의 곡으로 레벨(+6,000)에서 좌측용마루 상부가 우측 용마루상부보다 78㎜ 높게 측정되었다. 좌측부에서 배면측으로 날개채까지 길이는 8,100㎜이며, 중간지점 최대곡은 237㎜이다. 레벨(+5,200)의 오차는 정면의 용마루와 만나는 지점이 39㎜ 낮게 측정되었다.



[그림4.28] 안채 마루곡 입면상세도



[사진4.35] 안채 마루곡 (좌측/부엌)



[사진4.36] 안채 마루곡 (우측/건넌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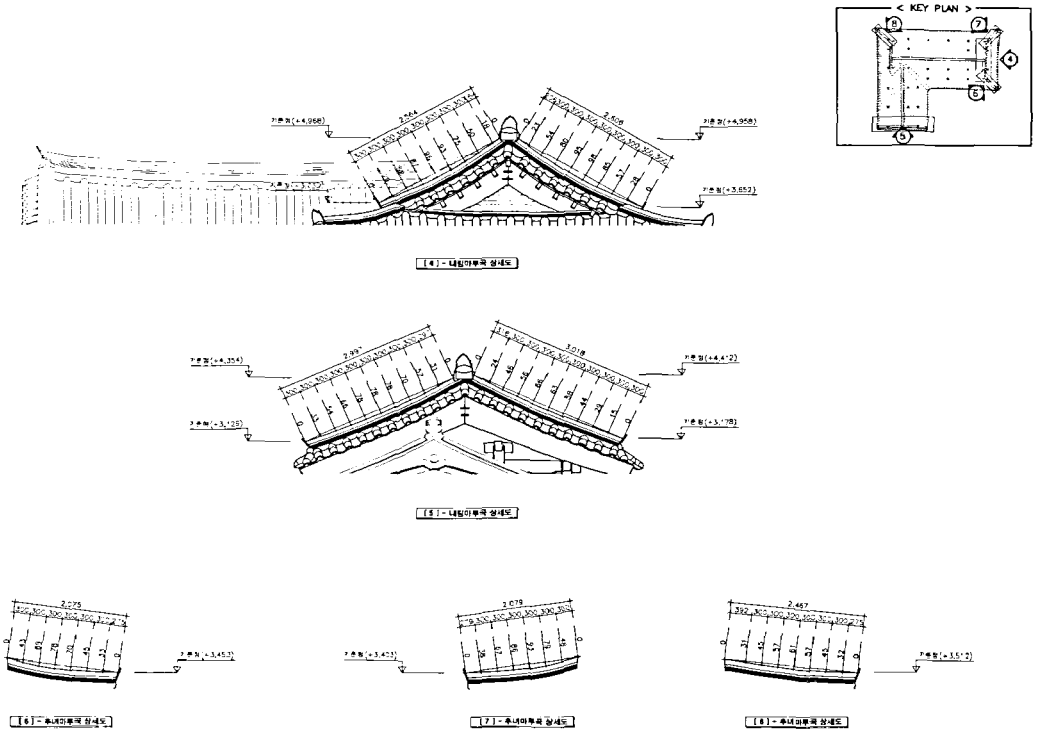
(2) 내림마루곡

내림마루의 길이는 안채 전면 좌측 2,571㎜(좌측), 1,555㎜(우측), 안채 전면 우측 2,564㎜(좌측), 2,606㎜(우측), 안채 날개채 부엌 2,997㎜(좌측), 3,018㎜(우측)이다. 전면 추녀마루는 2,075㎜이고 배면은 2,079㎜(좌측),2,467㎜(우측)이다.

기와곡은 하중이 쏠리는 방향으로 내림현상이 나타난다.

[표4.08] 마루곡 실측치수 (단위 : ㎜)

용마루(+6,000)			내림마루(대청)					기와곡		
위치	대청	안방	위치	전면좌측		전면우측		위치	중앙부(대청)	
거리(누계)	곡	곡	거리(누계)	좌측부	우측부	좌측부	우측부	거리(누계)	전면	배면
좌측단부	590	464	하단부	0	0	0	0	상단부	0	0
600	755	574	300	30	40	29	28	600	21	55
1,200	847	621	600	49	59	58	57	1,200	38	84
1,800	904	658	900	58	59	87	85	1,800	44	81
2,400	954	687	1,200	57	38	96	98	2,400	41	66
3,000	988	708	1,500	45	0	93	95	3,000	26	41
3,600	1,019	718	1,800	39	-	75	80	3,600	9	13
4,200	1,040	719	2,100	25	-	50	54	하단부	0	0
4,800	1,051	716	2,400	10	-	18	23	-	-	-
5,400	1,059	709	상단부	0	-	0	0	-	-	-
6,000	1,059	689	-	-	-	-	-	-	-	-
6,600	1,038	667	-	-	-	-	-	-	-	-
7,200	1,016	637	-	-	-	-	-	-	-	-
7,800	994	563	-	-	-	-	-	-	-	-
8,400	973	503	-	-	-	-	-	-	-	-
9,000	951	-	-	-	-	-	-	-	-	-
9,600	929	-	-	-	-	-	-	-	-	-
10,200	887	-	-	-	-	-	-	-	-	-
10,800	823	-	-	-	-	-	-	-	-	-
우측단부	668	-	-	-	-	-	-	-	-	-



[그림4.29] 안채 내림마루곡 및 추녀마루곡 상세도

3) 기와(蓋瓦)

기와는 암·수키와 망와(望瓦)가 사용되었다. 용마루에는 착고, 부고 위에 적새 5단으로 처리되었고, 내림마루에는 당골 위에 적새 3단이며 추녀마루 또한 이와 같다.

가) 암수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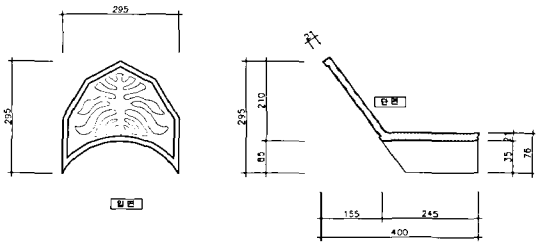
암·수키와는 한식중와(中瓦)를 사용하였는데, 암기와의 크기는 303×356㎜이며, 수키와는 165×310㎜이다.

나) 망와(望瓦)

망와는 전면과 좌·우측면의 내림마루, 추녀마루와 용마루 끝에 총 11개소이며 거미무늬문양을 넣은 망와로 사용되었다. 그 크기는 [그림4.30]과 같다.



[사진4.37] 안채 마루곡 (좌측/부엌)



[그림4.30] 안채 망와상세도

1-10. 수장

가. 벽체(壁體)

모든 벽체는 창호와 판장, 그리고 회벽 및 재사벽으로 이루어진다. 상인방(75×129㎜)과 중인방(76×145㎜), 하인방(76×213㎜)의 목조 가구를 노출시키는 벽선을 두었고 그 상하부는 회벽으로 마감처리를 하였다. 전면부는 대체적으로 오픈공간으로 구성되었고 4짝 분합들문이 설치되었으며 우측 건넌방은 양짝여닫이문이다.

좌측 부엌방 전면으로 양짝여닫이문을 두었고 우측 건넌방은 중인방과 하인방 사이에 재사벽으로 마감하였다. 배면은 목조 가구 부재를 노출시키는데, 창호는 대청에서 판장문 창호가 있으며 그 외는 전부 벽체로 구성하였고 대청 하부에는 머름을 설치하였다.

좌측면에서는 부엌내부의 출입용 문이 있고 중인방 위로 환기창(살광창)만을 두고 있다. 상부의 것은 부엌에서 발생되는 연기를 보내는 환기구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안방 부분에 중인방과 상인방, 그리고 상인방에 세살창을 두었다. 그리고 우측면은 건넌방에서 출입을 위한 2짝 여닫이문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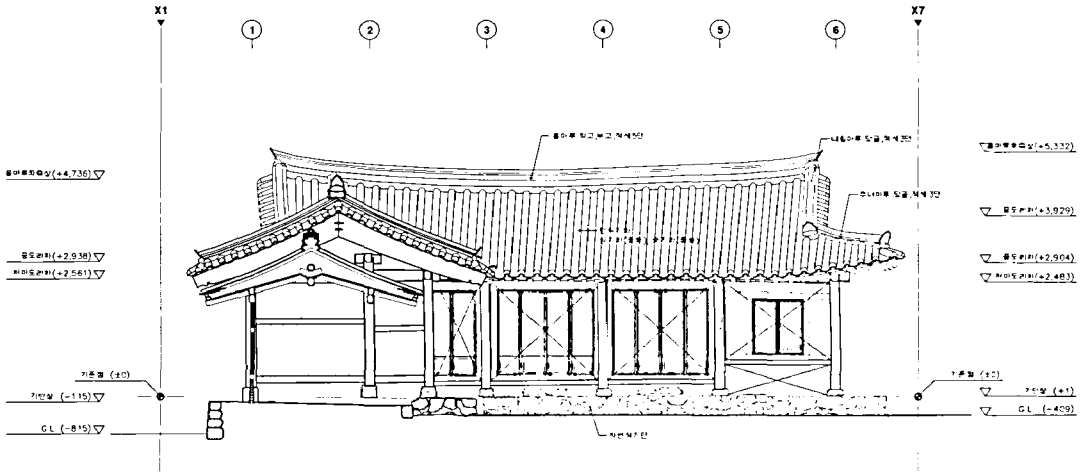
실 내부 방은 벽체는 종이벽지, 바닥이 온돌상부에 장판지 마감으로 되고, 부엌은 아궁이가 설치되어있다. 건물의 내부의 실의 구획은 창호 및 회벽(두께 75~76㎜)로 마감되었다. 그리고 벽체는 2004년도에 보수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하며 창호 또한 근래에 제작 설치된 창호들이 많이 있다.



[사진4.38] 안채 대청 및 좌측면 수장



[사진4.39] 안채 배면 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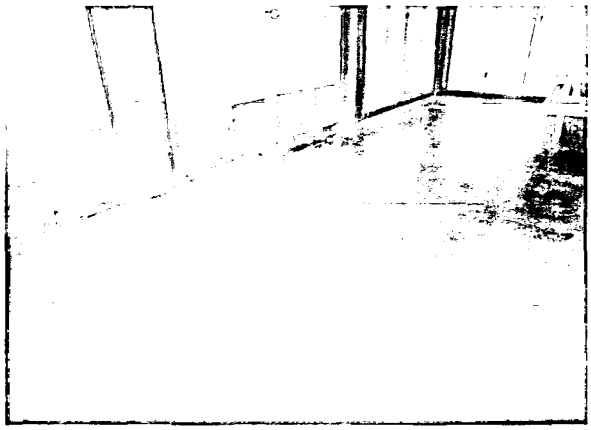
[그림4.31] 안채 벽체수장도 (정면)

나. 마루(床)

마루는 대청마루와 툇마루로 구분된다. 건물 내부 바닥에는 온돌방을 제외한 부분에는 모두 우물마루가 깔려있는데 그 상태는 양호하다.

대청마루와 전면 건넌방 앞의 툇마루, 배면과 우측에 툇마루도 우물마루이다. 대청마루는 3칸이며, 툇마루 대청마루 앞에 0.5칸×1칸이 규모이다. 장귀틀(172~210㎜)을 보 방향으로 걸었고, 동귀틀(197~266㎜)은 도리방향으로 양단부 2개소를 포함해 7개가 걸렸다. 그리고 마루 청판은 7~12장으로 구성했는데 두께는 45㎜이다.

건넌방 전면에 있는 툇마루는 0.5칸×1칸이 규모이고, 여모중방에 동귀틀을 도리방향으로 기둥열에 1개씩, 그 사이에 마루청판이 2열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마루 청판은 8~10장으로 구성했는데 두께는 45㎜이다. 좌측면, 우측면에 마주하는 툇마루을 설치하였으며, 툇마루 전체는 여모귀틀(180×130㎜)을 설치하였고, 마루 청판은 6~10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두께는 45㎜이다.



[사진4.40] 안채 대청마루(내부)



[사진4.41] 안채 툇마루(정면)

2. 사랑채



[사진4.42] 사랑채 전경



[사진4.43] 사랑채 전경(옛모습)

사랑채는 대문간에 붙여서 대문이 있는 측면에 위치하는데 'ㄷ'자 평면으로 구성된다. 방 2개소와 마루와 부엌 그리고 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면 사랑마당을 향해 툇마루를 두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의 건물의 축은 서로 직교한 남향 축을 가지고 있다. 안채와 같이 2004년에 보수 정비되었고, 2008년에 방연재도포가 있었다.



[사진4.44] 사랑채 배면 전경



[사진4.45] 사랑채 배면 전경(옛모습)

2-1.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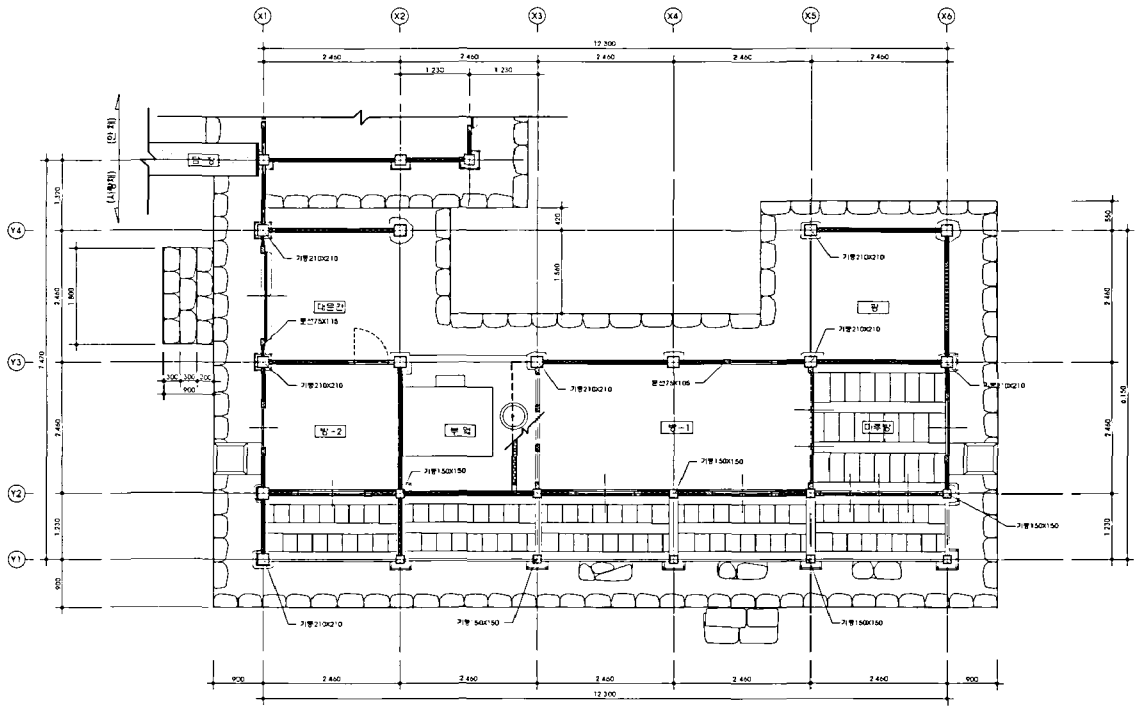
사랑채는 'ㄷ'자형 평면으로 그 규모는 모두 9.5칸이다. 평면은 3개의 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좌측과 중앙으로 방을 각각 1칸, 2칸으로 구성이 되는데 가운데 칸막이를 두고 있으며 우측에 대청 1칸이 있고 방사이에 부엌을 두었고 방 전면으로 0.5칸의 툇마루 2.5칸 즉 반칸 씩 툇마루를 달아냈다.

부엌은 원래 보수전에 집의 대문간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그러던 것이 출입부가 사랑채의 좌측전면부에 위치하게 되면서 대문간이 이전되고, 그 결과로 기존의 대문간은 좌우측에 위치하는 방의 아궁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엌간으로 변형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랑채 배면측으로 안채가 위치하고 있으며 안채 기단과 사랑채 기단이 만나서 기단 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툇마루 전면으로 사랑마당이 형성되며, 배면 안채의 마당과 좌측으로 사주문과 연결된다.



[사진4.46] 사랑채의 전경



[그림4.32] 사랑채 평면도

2-2. 기단과 초석

가. 기단(基壇)

기단은 부지가 비교적 평지이어서 경사지의 전면부는 다소 높여서 네벌대와 이벌대, 외벌대로 쌓은 자연석기단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중류가옥의 보편적인 방법과 같다.

기단상부 바닥면은 강회 마감이다. 기단위에는 마루를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들이 전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각 칸마다 3개소이다.

기단석의 길이는 전면은 14,100㎜가 되고, 좌측은 8,070㎜과 우측은 7,600㎜이다. 배면은 안채와 맞닿는 기단을 제외하고 총기단 길이가 13,930㎜이다.

사랑대청 전면의 마당에서의 기단 높이는 중앙이 500~750㎜이고, 우측은 285㎜으로



[사진4.47] 사랑채 기단 (전면)



[사진4.48] 사랑채 기단 (좌측)



[사진4.49] 사랑채 기단 (전면/우측)



[사진4.50] 사랑채 기단(배면)

[표4.09] 사랑채 기단 실측치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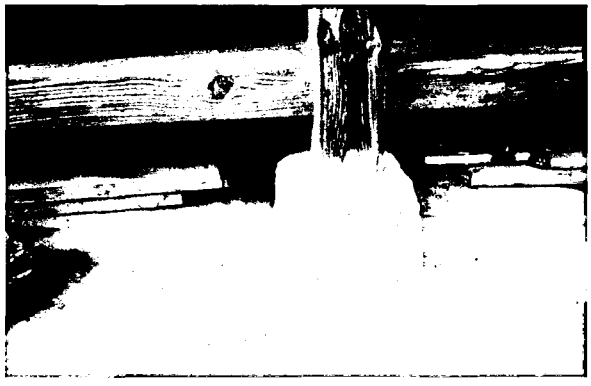
구분	사랑방 전면	사랑방 좌측면	사랑방 우측면	사랑방 배면
	중앙	중앙	중앙	중앙
내밀기	900	900	900	420/900/550

215㎜의 레벨차이를 보여 전면 방향으로 경사짐을 알 수 있고 배면은 135㎜의 기단 높이가 나타나는데 전면 우측과 배면의 기단 높이 차이는 350㎜이다. 마당의 경사는 배면과 우측부에서 전면 방향으로 경사지게 된다. 기단의 내밀기는 사랑채 전면(900㎜), 배면(420~900㎜), 그리고 좌측면(900㎜), 우측면(900㎜)로 모두 유사하게 내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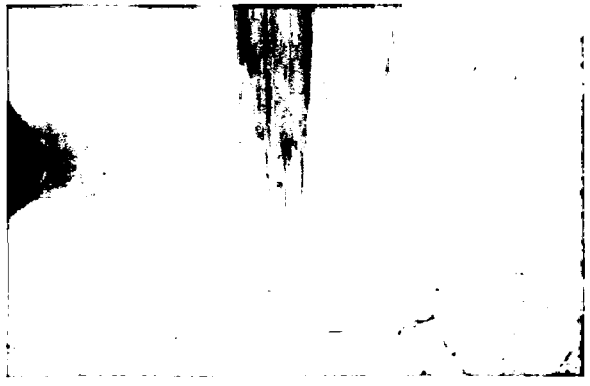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랑채의 초석이 전면이 높고 배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우수 흐름을 조정하기위해 초석을 조정하였으며 화강석 초석과 자연석 초석 등을 사용하였다. 옛 사진과 비교시 부엌과 초석높이 등이 상이하다. 다듬은 정도, 줄맞춤, 기단의 크기 등을 볼 때 그 격이 높았을 거라 사료된다.

나. 초석(礎石)

사랑채는 기본적으로 화강석 초석을 사용하였는데 사다리꼴로 높이를 가진 다듬은 초석을 사용하였다. 초석은 정교하게 다듬은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사다리꼴형의 화강석을 정다듬하여 대청부 초석으로 사용하였으며 다른 면은 자연석 덤벙주초를 사용하였다. 초석의 총 개수는 22개인데 이중에서 10개는 화강석 다듬어서 설치하였고 나머지는 자연석 초석이다. 초석들은 평주초석과 고주초석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면의 초석이 고주에 속한다.



[사진4.51] 사랑채 주초석 (기둥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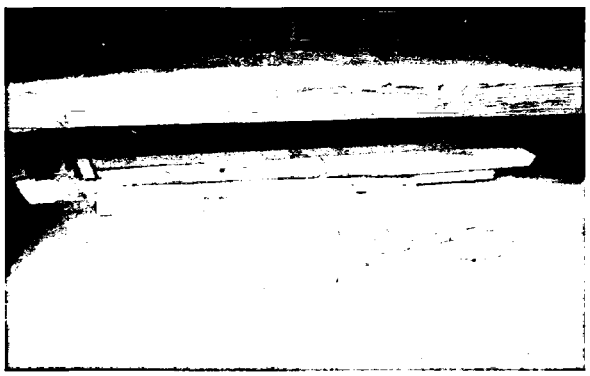
[사진4.52] 사랑채 주초석(기둥9)

다. 디딤돌

전면 기단바닥위에는 툇마루로 오르는 화강석으로 된 디딤돌이 각 주칸마다 1개소씩 모두 3개가 놓인다. 이것은 전면 사랑마당으로 손님(客)이 이용하는 툇마루를 사용해야 되므로 진입이 시작되는 곳에 디딤돌을 설치한 것이다. 디딤돌은 크기는 좌측부 디딤돌이 957×346×180㎜, 중앙부 디딤돌이 900×321×180㎜, 우측 디딤돌은 900×320×185㎜이다. 전부 화강석이며 가공과 다듬은 정도는 생김 그대로 사용하여 거친 마감을 하였고 두개 이상 부재를 몰탈 접합하여 사용하였다.



[사진4.53] 사랑채 전경



[사진4.54] 사랑채 디딤돌(근경)

2-3. 가구

가. 기둥(柱)

기둥은 외진 평주와 내진고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부 각주(角柱,네모기둥, 방형기둥)이다. 이 각주들은 민흘림을 가지고 있는데 길이는 2,300㎜ 전후이다. 최근에 보수가 이루어져 썩은 부재없이 잘 보존되어 있다. 본 건물에 사용된 기둥은 건물 외곽으로 돌아간 평주와 건물 안에 사용된 고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면 사랑채는 무고주 형식으로 고주는 모두 4개, 즉 기둥 22개 중에서 평주는 18개이고, 고주는 8개이다.

가구 구성상 1고주5량이며, 대량이 기둥 상부1/7지점에 결구된 형식으로 길이는 2,600㎜ 내외이다. 외진부에 평주를 제외한 내부의 평주와 고주는 건물로 묻혀서 전체길이와 하부 단면 크기를 실측할 수 없었지만 상부의 기둥은 각각 다르나 방형(150~195㎜ 내외)이다.

사랑채는 보수될 당시 한 주칸의 거리를 2,460㎜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집은 기본적으로 8.2자(尺)를 한 칸으로 잡혔다. 마찬가지로 안채 역시 조선중기 건축물이기에 용척에서 유사하다. 사랑채에서는 대부분의 주칸이 8.4자와 4.1자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

1) 평주(平柱)

건물외곽의 평주는 18개인데 이중에서 귓기둥은 8개이고 나머지 일반평주가 10개이다. 기둥길이는 2,230㎜정도이고, 단면크기는 일반평주가 150×150㎜이며, 부속된 구획상 혹은 교체된 기둥은 210×210㎜로 일반 평주보다 약간 굵은 것이 일부 있다.

2) 고주(高柱)

고주는 내진부에 위치하는데 즉 툇마루와 방과의 연결부가 되며, 모두 4개가 설치되었

다. 길이는 2,540㎜이며, 기둥 단면크기는 일반평주와 거의 같게 설치되었다.

나. 가구(架構)

가구재는 기둥(主), 보(樑), 도리(道里), 대공(臺工) 등으로 분류된다.

1) 구성(構成)

가구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1고주 5량이고, 부속으로 들어가는 대문간과 광은 3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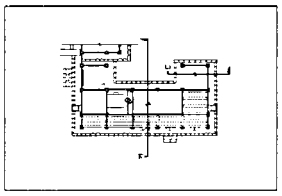
사랑채 양쪽은 보편적인 5량 가구로 전면의 평주가 퇴량과 고주와 만나고 배면의 평주에 대들보가 걸린다. 대들보 위에 동자기둥을 놓아 종량을 설치한 후 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걸은 경우가 된다. 좌측과 우측에 충량(2개소)이 외기도리에 받히는 곡재를 사용하였다. 도리의 간격은 사랑방 부분에서 처마도리와 중도리 사이에 전면 1,230㎜, 배면 1,230㎜이다. 반면에 중도리와 종도리 사이는 전면이 615㎜, 배면이 615㎜이다. 전배면 중도리의 간격은 3,69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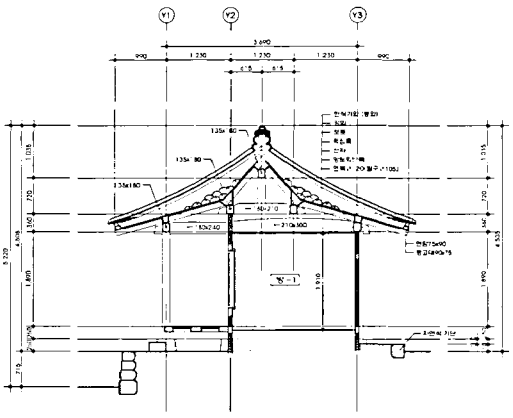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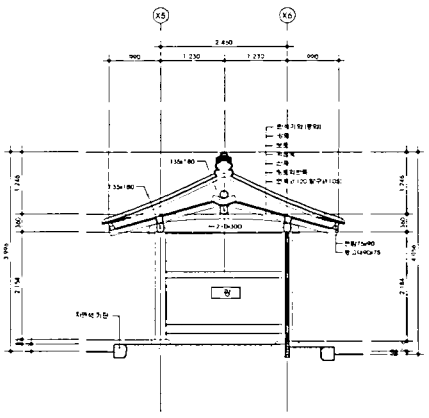
[사진4.55] 사랑채 기둥 (전면/중앙부)



[사진4.56] 사랑채 기둥 (좌측우주)







[그림4.33] 사랑채 종단면도(사랑방)

2) 보(樑)

보는 대들보와 종량, 충량과 퇴량이 있다.

가) 대들보(大樑)

대들보는 사랑채에 8개가 위치하며, 크기는 210×300㎜이고, 길이는 2,460㎜이다. 거의 정방형으로 정연하게 다듬은 형태이다. 긴 대들보는 거의 수평으로 다듬었으며 단면은 모를 죽인 방형이다. 보의 춤은 주칸의 1/8정도이고, 보의 길이와 주칸의 비율은 1:1이다. 보머리는 150㎜정도 빠져나왔으며, 말구는 사절하였다.

나) 종량(宗樑)

종량은 사랑방의 대량 상부에 4개소에서 볼 수 있다.

종보의 단면의 크기는 사랑방 전면에서 180×210㎜, 길이는 1,680㎜이다. 건물 안쪽에서 종보의 맞춤은 동자주에 사괘맞춤으로 되어 있고 보머리는 사절하였다.

다) 충량(衝樑)

충량은 사랑대청의 대들보에서 횡방향의 평주에 결구되는 보이다. 이것은 좌, 우측 평주는 상부의 도리 하중을 받고 다른 가구랑 결구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충량이 측면의 평주를 잡아주면서 측면의 주심도리와 맞춤된다. 충량의 단면의 크기는 180×270㎜이고, 길이는 2,650㎜이다.

라) 퇴량(退樑)

퇴량은 툇칸에 거는 보이다. 총4개로 전면 평주와 내부 고주에 걸고 다른 가구랑 결구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면의 평주를 잡아주면서 측면의 주심도리와 맞춤된다. 퇴량의 단면의 크기는 180×240㎜이고, 길이는 1,380㎜이다.

3) 도리(道里)

도리는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로 구분된다.

가) 주심도리(柱心道里)

주심도리는 홑처마일 경우 처마도리에 해당된다.

사랑채 전체에 걸쳐서 주심도리의 단면의 크기는 135×180㎜이다. 평주 양쪽에서 두겁주먹장 맞춤으로 되어 있다. 주심도리의 폭과 춤의 비율은 1:1.33이다.

나) 중도리(中道里)

중도리는 사랑채 전면부에 걸치며, 단면의 크기는 135×180㎜이다. 중도리의 교차는 좌측은 다락방 상부에서, 우측은 대청방 상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교차지점 상부에 추녀 뒷부리가 설치된다. 중도리의 폭과 춤의 비율은 1:1.3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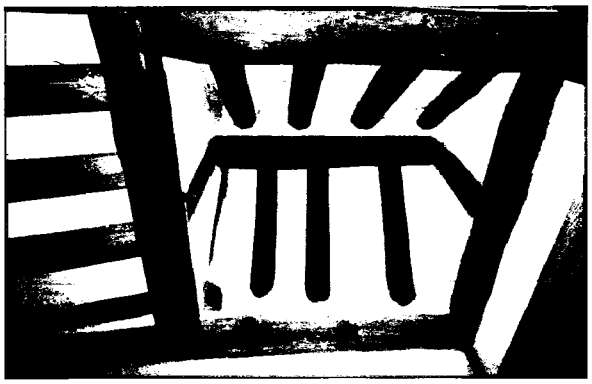
다) 종도리(宗道里)

종도리는 대체로 지붕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사랑채 전체에 걸쳐 종도리의 단면은 주심도리와 중도리와 같이 135×180㎜이다.

4) 대공(臺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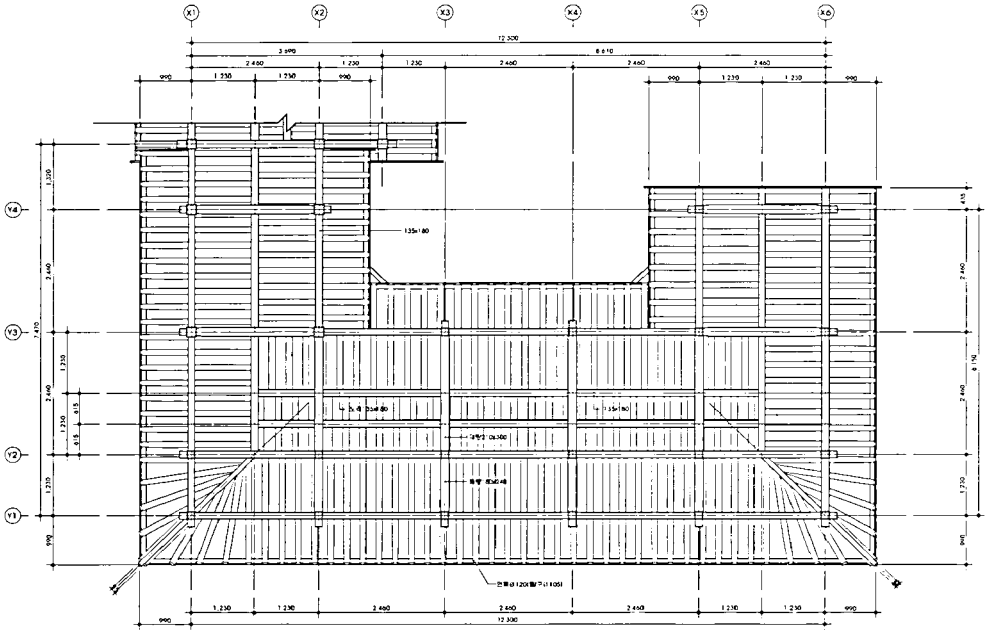
대공은 종보 위에 놓여서 종도리를 받는 부재로 각대공이며 전체에 걸쳐 설치된다. 사랑방위에서 대공은 크기는 150×1850㎜이며 높이가 510㎜이고, 높이는 63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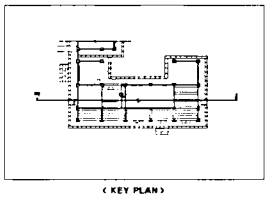
[사진4.57] 사랑채 상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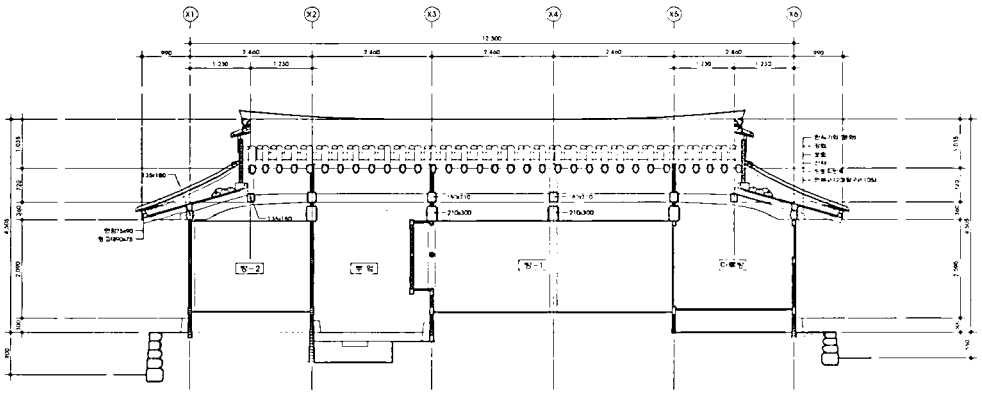


[사진4.58] 사랑채 충량



[그림4.34] 사랑채 가구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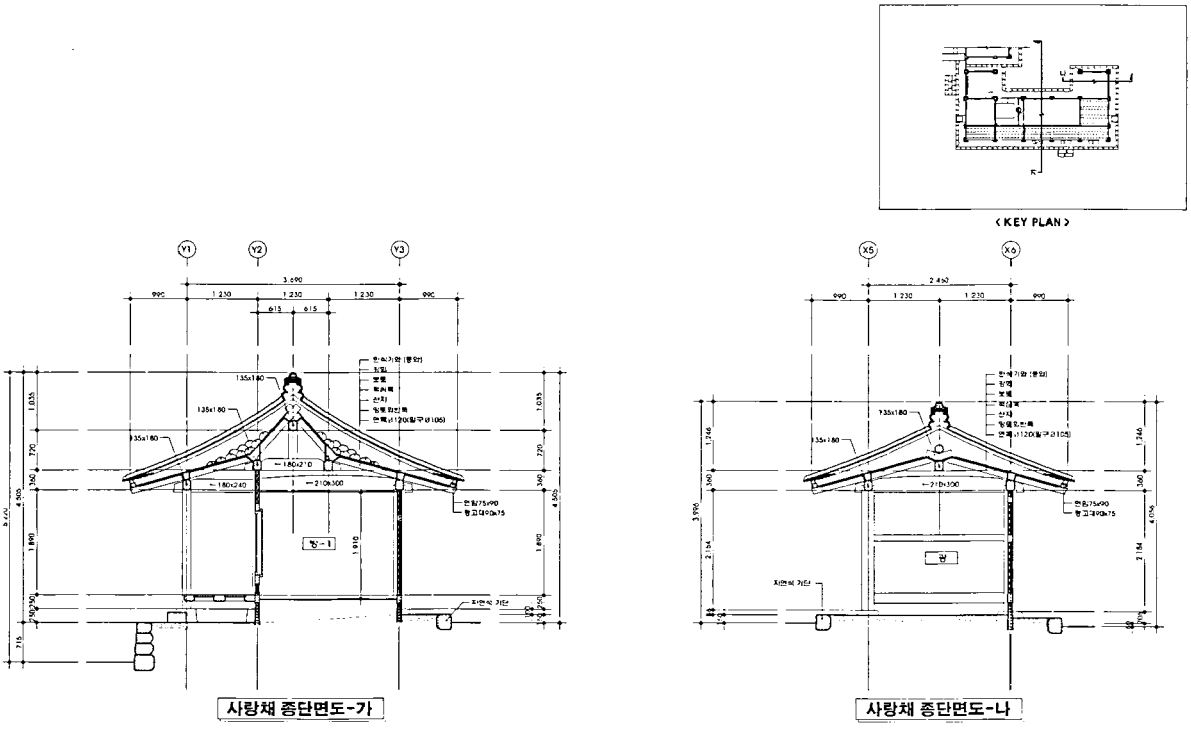
[그림4.35] 사랑채 횡단면도 (전면부)



[사진4.59] 사랑채 도리/보의 결구(사랑방)



[사진4.60] 사랑채 도리/퇴보 결구(대청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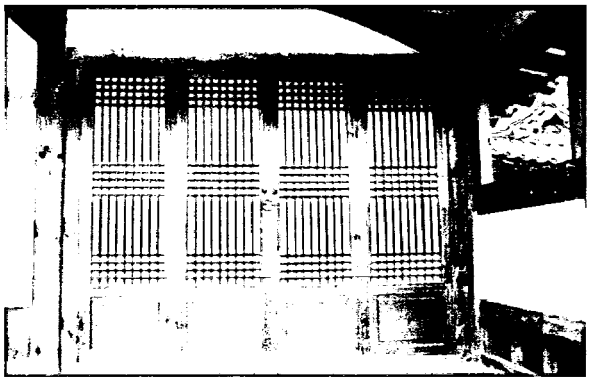
[그림4.36] 사랑채 가구 단면 상세도

2-4. 창호

대청마루 창호는 하부에 궁판이 있는 세살 4분합문(2,100×1,750㎜)이며 사랑방 전면 문은 머름들인 위에 두짝 여닫이세살창이다. 대청에서 사랑방으로 통하는 곳에는 2분합 들문이고, 우측 대청 외부는 세살문으로 크기는 1,750×2,070㎜이다.

배면쪽의 문은 세살문 2개소인데 크기는세살문 (750×1,320㎜)과 세살문 (600×1,320㎜)이 설치되었다. 특히 사랑방에는 외부의 세살 양여닫이문 안쪽 방향으로 별도의 창호를 두는데 겨울철 난방 관계로 미서기 맹장지문을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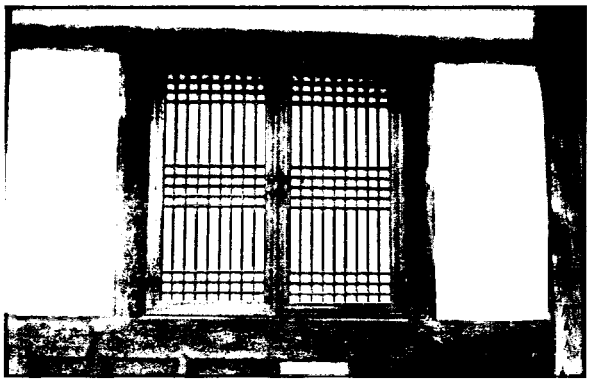
사랑채 울거미의 폭은 1.8치정도가 표준이며, 문살은 12㎜로서 4푼을 표준 폭으로 삼았다. 길이는 30㎜로서 1.0치를 표준 문살의 길이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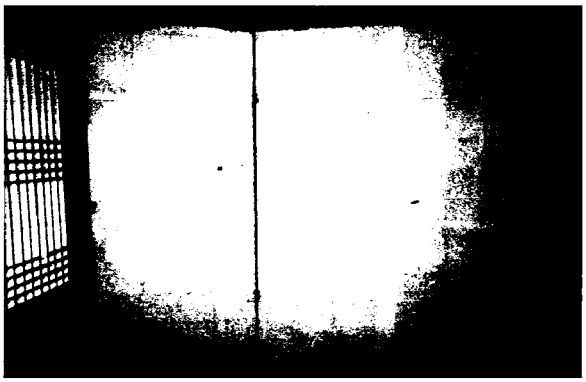
[사진4.61] 사랑채 창호 (대청/우측)



[사진4.62] 사랑채 창호 (사랑방전면/내부)



[사진4.63] 사랑채 창호 (사랑방)



[사진4.64] 사랑채 창호(대청/사랑방)

2-5. 처마와 지붕

가. 처마

처마는 전·배면 모두 홑처마로 연목의 굵기는 ∅120㎜이며, 처마 내밀기는 사랑대청 전면 990㎜, 배면 990㎜이며, 좌측부 990㎜, 우측부 990㎜이다.

[표4.10] 사랑채의 처마 내밀기 (단위 : ㎜)

구 분	사랑대청 부분	대청,다락 부분
전, 배면	990	990
좌,우측면	990	990



[사진4.65] 사랑채 처마 전경(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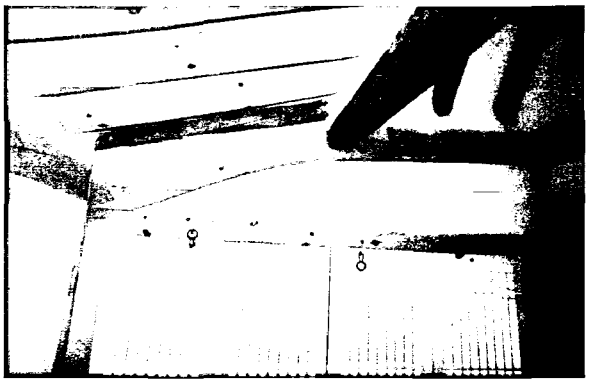
[사진4.66] 사랑채 처마(전면좌측/추녀부)

즉 사랑채의 모든 처마 내밀기는 990㎜ 내외가 된다. 그리고 처마의 안허리곡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앙곡은 좌우측 추녀부(선자연)에서만 치켜 올림 약 300㎜ 정도를 두었다. 기둥 밑에서 처마 끝을 연결하는 내측각도(內角)는 초석상부에서 약 25.0°내외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처마가 30°정도이하를 이루고 있어 청문당의 처마는 일반적인 내각 수치보다 낮게 지닌다.

1) 서까래(椽木)



[사진4.67] 사랑채 추녀 전경(우측전면/외부)



[사진4.68] 사랑채 추녀 전경(우측전면/내부)

서까래는 처마도리와 중도리를 연결하는 장연(長椽,긴서까래)과 중도리와 종도리를 연결하는 단연(短椽,짧은서까래)이 있다. 장연은 말구가 ∅105㎜이고 중앙부는 ∅120㎜이다. 말구에서 훌치기를 하기 때문에 말구직경이 중앙부직경보다 작다. 훌치기는 말구에서 600㎜정도부터 이루어졌다. 단연의 크기는 ∅120㎜이다.

3분변작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장연의 길이가 무척 길다. 사랑대청부분에서 장연은 2,290㎜이고, 단연은 1,260㎜이다. 서까래의 마구리는 사절하였다.

2) 추녀(椿舌)

사랑채에서 추녀는 2개소이다. 전면 2개이다. 추녀목의 크기는 95×160㎜이고, 추녀 끝단으로 사래가 설치된 것처럼 표현 하였다. 좌우측으로 선자연서까래가 배열된다.

3) 평고대(平高臺)와 연함(椽檻)

평고대는 추녀와 추녀 사이를 길게 건너질러 지붕의 물매를 결정하여 주는 부재이다. 평고대는 지붕곡선에 맞게 미리 휘어서 사용하는데 이를 조로 평고대라고 한다. 이 집에서는 부연이 없기 때문에 이매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평고대는 일반적으로 연귀맞댐 또는 턱솔맞춤으로 하며 사랑채의 경우 모든 곳에서 평고대는 폭 90㎜에 높이 75㎜의 부재를 사용했다. 연함은 최대높이 90㎜로 맞댄이음이다.

4) 박공(朴工)

박공은 건물의 측면 삼각형으로 되는 벽면 위에 있는 지붕 끝에 붙인 널이다. 박공지붕의 건물 지붕측면을 마무리는 판재로서 마루도리 · 중도리 · 처마도리의 마구리에 얹대고 서까래의 옆면을 막는 부재이며 꺽쇠로 박아 고정하였다. 합각박공(까치박공)으로 풍판은 없다. 박공은 두께 33㎜, 최대 폭 300㎜이다. 목기연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합각부는 와편 치장 쌓기로 되어있다.

5) 기법(技法)

가) 안허리곡

안허리곡의 실측결과 4면이 거의 같다. 평면 형태는 안채와 유사하나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건물이 단조롭고 격을 낮추려는 의도인 듯 보인다.

나) 앙곡(仰曲,昻曲,처마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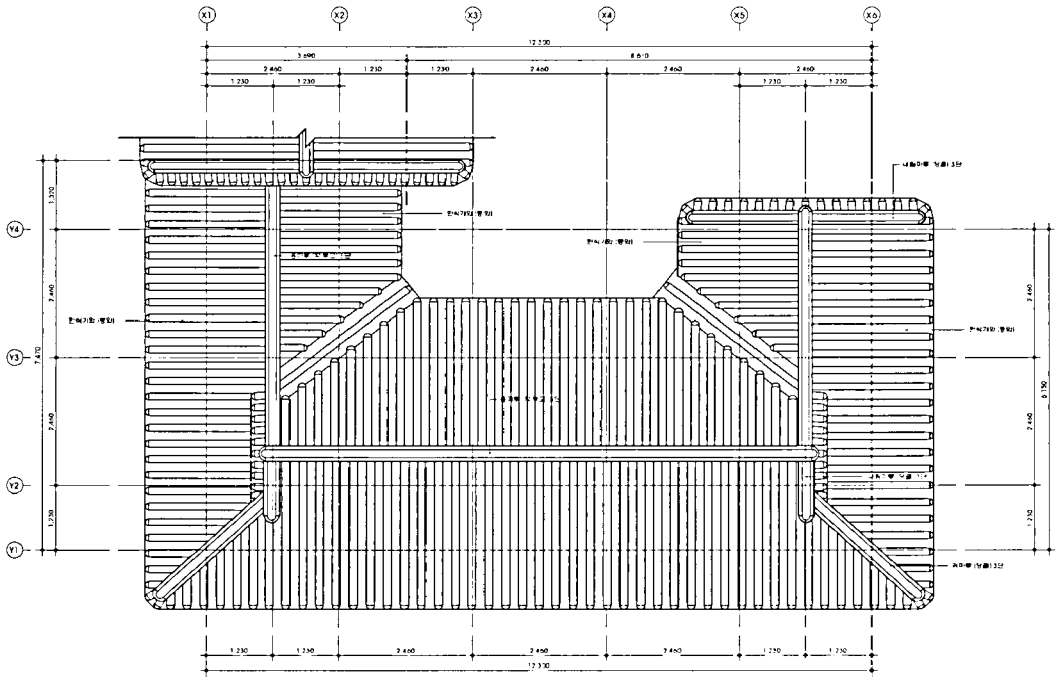
앙곡은 사랑대청 추녀가 있는 부분에 걸쳐 보이는데 추녀는 총 2개소로 전면부에 속한다. 그리고 평연구간에서는 거의 수평이고 선자연 구간에서만 현격하게 곡을 약 300㎜을 주었다. 이를 위해 추녀 옆 도리위에 대서 선자서까래의 앙곡을 잡기위하여 받치는 재로 추녀끝을 들어 올리는 갈모산방을 대었다. 원래는 평연구간에서부터 점점 앙곡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비교적 연목은 일관성이 있게 배열되어 있다.

나. 지붕(屋蓋)

1) 구성

사랑채는 팔작지붕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가 구성되는 곳이 된다. 따라서 용마루 1개, 내림마루 6개, 추녀마루 2개가 구성된다. 지붕은 새로 보수한 흔적이 보이는데 기와의 크기도 일정하며, 대부분 한식중와(中瓦)를 사용하였고, 막새기와는 사용하지 않고 아귀토로 처마단부를 마감을 하였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에 5단의 적새를 올렸으며 내림마루와 추녀마루는 당골 위에 3단의 적새를 올렸다. 안채와 연결부인 문간채는 박공부에 마감하였고 우측은 내림마루를 설치하여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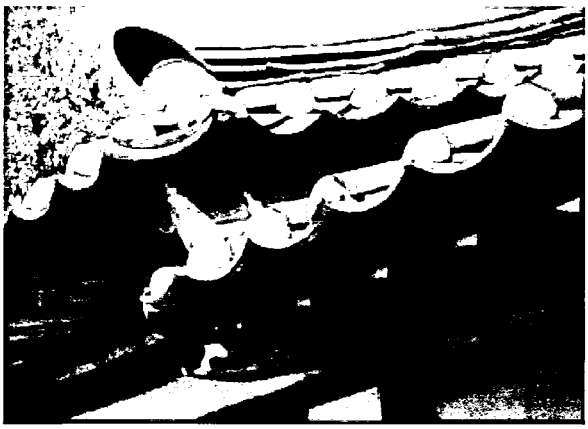
지붕 용마루는 전면중앙부와 상부 좌측 합각부와 배면 안채 날개채와 박공부에 맞물리고 우측은 좌측과 같은 내밀기로 마루를 설치하여 박공을 설치하여 마감하였다.



[그림4.37] 사랑채 지붕평면도(와복도)



[사진4.69] 사랑채 지붕 전경 (우측/남동측)



[사진4.70] 사랑채 지붕 전경 (좌측/북서)

2) 기와(蓋瓦)

기와는 암·수막새는 사용되지 않고 암·수키와, 망와(望瓦) 등이 사용되었다.

용마루에는 착고, 부고 위에 적새 5단으로 처리되었고, 내림마루에는 당골 위에 적새 3단으로 설치되었다.

가) 암·수키와

암·수키와는 한식중와(中瓦)를 사용하였는데 암기와의 크기는 305×345㎜이고, 수키와는 150×334㎜이다. 언강 부분은 30㎜, 두께는 21㎜이다.

나) 망와(望瓦)

망와는 전면과 배면의 내림마루와 용마루의 끝, 그리고 추녀마루 부분에 위치한다. 망와는 안채에서 사용하였던 문양과 달리 용문양을 사용하였다.



[사진4.71] 사랑채의 전경 (전면/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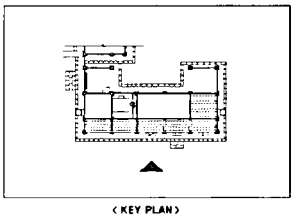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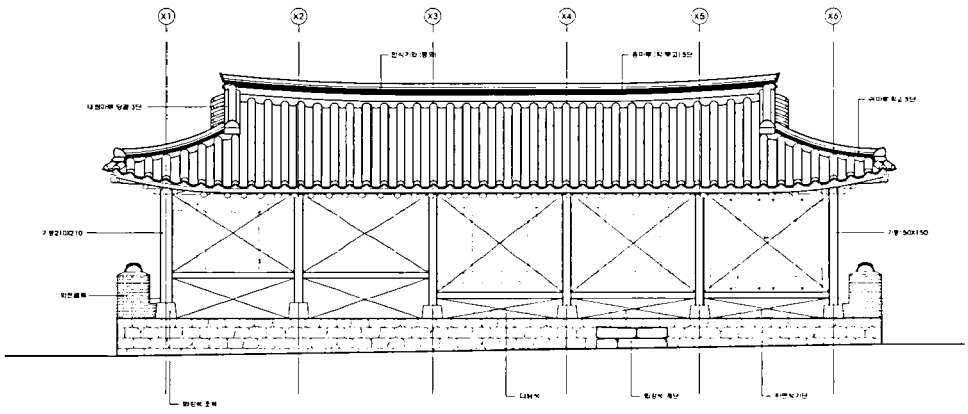
[사진4.72] 사랑채의 근경 (우측면)

2-6. 수장

가. 벽체(壁體)

모든 벽체는 머름과 창호, 그리고 회벽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인방(75×135㎜)과 우측면 벽체에 중인방(75×150㎜), 하인방(75×180㎜)의 목조 가구를 노출시키는 벽선을 두었고, 그 상하부는 재사벽으로 마감처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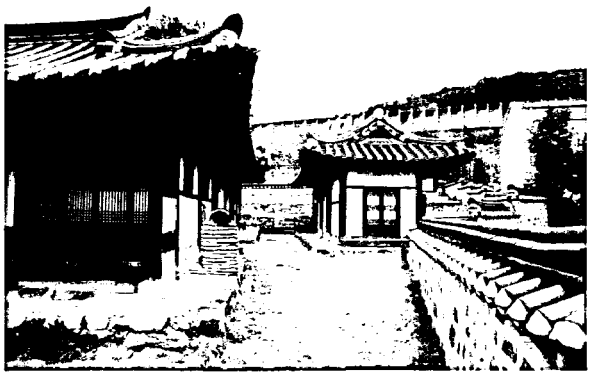




[그림4.38] 사랑채 벽체 수장 (전면)

사랑방 좌측 부엌에 반침을 설치하여 사랑방 개인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면과 측면은 머름을 설치하였는데 머름중방은 75×180㎜, 머름하방은 75×180㎜ 크기이다.

실 내부 방의 벽체는 종이벽지, 바닥이 온돌 위 장판지 마감이고, 부엌은 진흙강회다짐이므로 고막이 설치하였으며, 건물 내부의 실의 구획은 창호 및 회벽(두께 75㎜)로 마감하였다. 그리고 벽체에 연결된 굴뚝은 와편으로 강회와 섞어서 쌓아올렸는데 높이는 1,080㎜이다.



[사진4.73] 사랑채의 근경 (우측/보수후)



[사진4.74] 사랑채의 근경 (우측/보수전)

나. 마루(床)

마루는 대청마루 사랑대청의 본 마루와 툇마루로 구분되는데 모두 우물마루이다.

사랑대청마루는 생가의 우측부 위치하는데 1칸이며, 툇마루는 대청마루 앞에 반 칸, 그리고 사랑채 전면부 앞에 2칸을 두고 있다. 대청마루의 장귀틀(210×110㎜)은 도리방향으로 걸었는데 대청 양쪽은 장귀틀과 하인방이 놓여있는데 귀틀의 높이가 낮다. 마루청판은 9장으로 구성했는데 두께는 30㎜이다.



[사진4.75] 사랑채 대청 우물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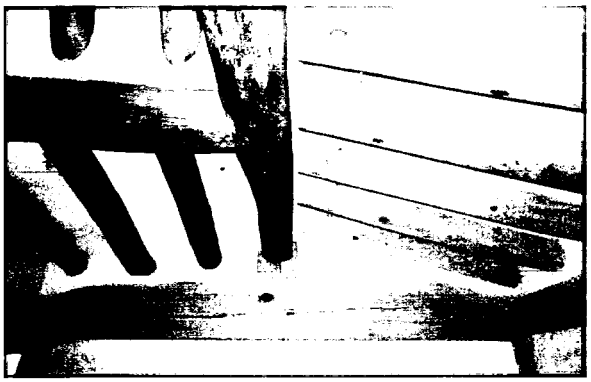


[사진4.76] 사랑채 툇마루 (뒤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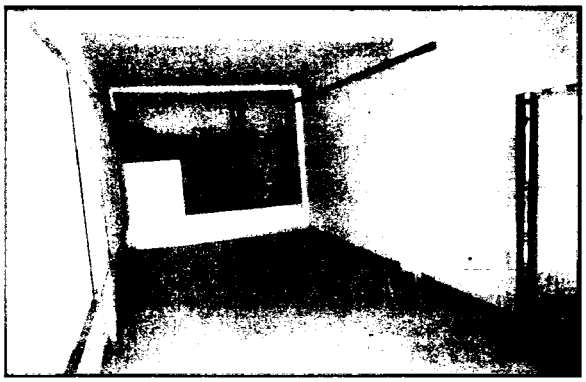
다. 천장(天障,天井)

사랑방은 목조 천장틀 위 천장지로 마감하였다. 툇마루 상부는 노출된 연등천장이고, 연목 위에 산자 엮기 후 앙토를 바르고 회반죽 마감하였다. 좌측 방과 중앙 방에는 중도리가 있는 곳에서는 반자로 마감하였으나 그 외는 전부 연등천장으로 마감하였다.

한옥에서 대청상부를 연등천장으로 하는 것은 입식생활 공간으로서 천장을 높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보통 10자), 방은 좌식생활공간으로서 대청보다는 낮게 천장을 평반자로 마감(보통 7.5자)하여 실내 보온 및 시각적 안정감을 고려하기 위해 천장을 조성한다.



[사진4.77] 사랑채 천장(대청방)



[사진4.78] 사랑채 천장 (사랑방)

라. 반침

고가에서는 부엌위에 반침을 설치하고 있다. 두께 39㎜의 널판을 깔아 설치되었다. 그리고 반침은 좌측면에 1개소를 부엌쪽 아궁이 상부에 설치된다. 특히 사랑방 반침은 이것은 주인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책, 기구 등 잡동사니를 수장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용도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머름

머름을 둔다는 것은 곧 출입하는 문과는 달리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한 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툇마루와 방이 연결되는 곳에 보통 머름을 설치한다. 사랑채에서 머름들인 곳은 모두 5개 면이다.

먼저 사랑방 전면의 툇마루 2칸, 부엌측면 반칸, 좌측 반칸, 우측 반칸에 머름을 들이고 툇마루2칸의 방과 연결된 그 위로 세살여닫이문을 달았다.

머름은 일반머름의 형태이며, 머름동자와 머름청판(두께30㎜)이 있고, 높이는 140㎜이다.



[사진4.79] 사랑채 전면 전경(보수후)



[사진4.80] 사랑채 전면 전경(보수전)

특히 사랑채와 안채와 연결된 문간채(大門棟,門間棟)는 별동으로 사랑채와 안채에 좌측(남서측) 아래쪽에 지어진 공간으로 외엮은 벽으로 1칸에 1칸으로 건립되었다.

현재 문간채는 사랑채 좌측 담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용은 외부 사주문에서 내부에 들어서기 용이하게 하였다.

문간채는 정면 1칸×측면 1칸 평면으로 목구조 단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4.81] 문간채 전경(전면)


[사진4.82] 문간채 전경 (배면)

내부 바닥은 강회 바닥으로 마감된 모습이다. 건물의 길이는 정면(도리칸)이 2,460㎜이고, 측면(보칸)이 2,460㎜로 정면과 측면의 길이 비율은 1:1이며, 면적은 6.05m2(1.83평)이다.

문간채의 기단은 자연석 찰쌓기 기단인 4벌대로 구성하였으며, 초석은 모두 부정형 초석으로 자연석 주초석으로 윗면을 평평하게 다듬어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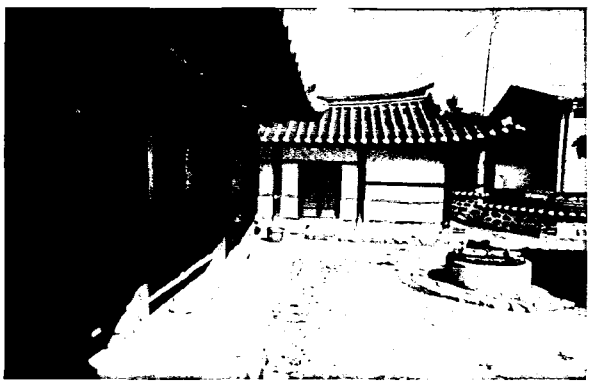
문간채의 기둥은 모두 4개 인데 각기둥(195×195㎜)을 설치하고, 정방형 단면으로 흘림이 없다. 이는 자연 곡재를 최소로 치목하여 사용한 원기둥을 각기둥으로 정비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구는 무고주 3량가이다. 전면 평주(변두리기둥) 상부에 처마도리가 대량을 받아주게 하였다. 대들보 위에는 대공을 두고, 그 상부에 종도리를 걸쳤다.

문간채 출입용으로 창호는 널문으로 2짝 양여닫이문으로 설치되어 있고, 문간채 벽체는 외엮고 재사벽으로 마감 되어있다.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연목(∅120㎜) 위에 산자 엮기 후 앙토를 바르고 회반죽 마감하였다. 처마는 전·후면 모두 홑처마로 처마 내밀기는 전·배면 990㎜이다. 문간채의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한식 토기와(중와 B)를 사용하였고, 기와의 상태는 양호하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에 적새 5단을 쌓고 수키와를 얹었으며, 내림마루는 당골 위에 적새 3단을 쌓은 후 마루 끝에 망와를 설치하였다.

3. 부속 건축물

3-1. 바깥채(아래채,庫棟)


[사진4.83] 바깥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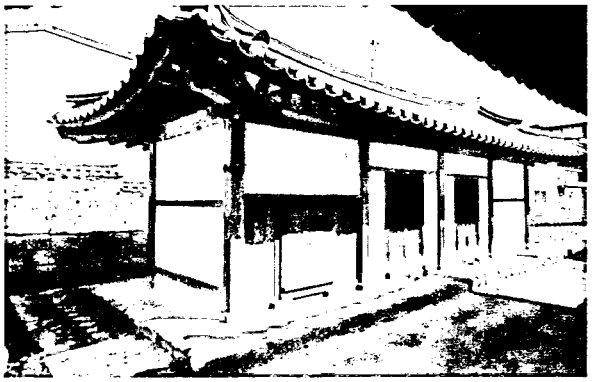

[사진4.84] 바깥채 전경(경기문화재단,2002)

청문당에서 안마당 일곽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물로 안채의 우측에 위치하는데 안채

와 사랑채의 직교축 좌향을 가진다. 원래 사랑채의 배면과 연계되어 대문이 자리하고, 이어진 바깥채가 안채 우측배면부(북동측)에 대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깥채는 세 부분으로 분류되는데 대문이 있어서 출입하는 사랑채와 거주부분인 안채를 연결하고 있는 공간이다. 보수하기 전 모습은 [사진4.84]와 같이 2002년의 사진을 보면 개량기와에 시멘트벽돌 조적조 건물로 모습이 보인다.

바깥채는 2004년도에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시행되었다.



[사진4.85] 바깥채 전경(정면/좌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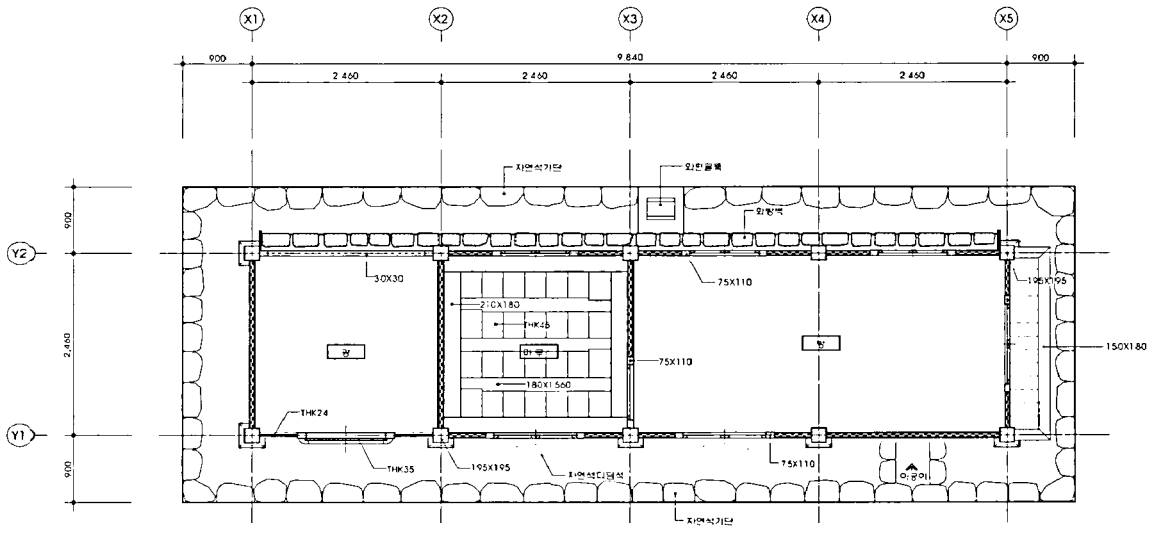
[사진4.86] 바깥채 전경(배면/좌측)

가. 평면(平面)

바깥채는 한 대지 내에서 건물의 바깥편에 있는 공간으로 정면 4칸, 측면 1칸의 '一'자형 평면으로 목구조 단층 건물로 구성된다.

북쪽부터 배치되는 실공간의 용도는 광 1칸, 대청 1칸과 방이 2칸으로 전체 4칸이다.

건물의 주칸은 전면부터 부엌부분은 2,460㎜, 대청부분은 2,460㎜, 그리고 우측 방부분의 1주칸 길이는 각 2,460㎜고, 측면으로는 1주칸이 2,460㎜이다. 건물의 길이는 정면(도리칸)이 9,840㎜이고, 측면(보칸)이 2,460㎜로 정면과 측면의 길이 비율은 1:4.0정도이며, 면적은 24.20㎡(7.32평)이다.



[그림4.39] 바깥채 평면도



[사진4.87] 바깥채 전경(정면/우측)



[사진4.88] 바깥채 전경(좌측)

나. 기단·초석(基壇·礎石)

바깥채의 기단은 자연석으로 지형에 맞추어 150~190㎜ 높이의 외벌대로 처리하였다.

기단의 전체길이는 전면과 배면이 11,640㎜이고, 측면 좌·우측 기단은 4,260㎜이다. 내밀기는 전면이 평균 900㎜, 배면이 900㎜로 동일하며, 우측면은 900㎜이다. 또한 기단높이는 사면의 사당(북측)측 기단부에서 150~190㎜로 차이를 보이는데 건물이 앉은 자리가 평지이므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기단상부는 강회다짐으로 마감한 상태로 양호하다.

초석은 모두 10개인데 측정이 가능한 외부는 모두 화강석 초석의 형태를 가지며 각 초석 위에 각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초석의 윗면을 평평하게 그렝이질로 다듬어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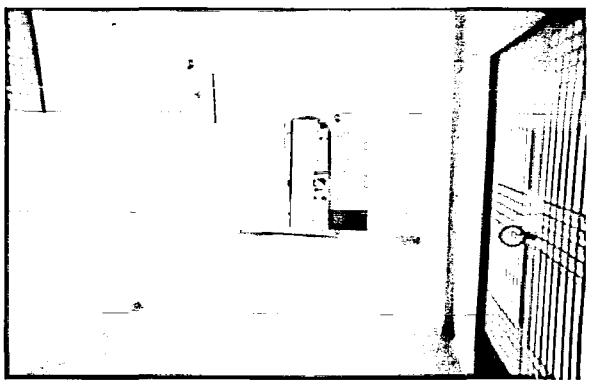
다. 목조가구

1) 기 둥(柱)

바깥채의 기둥은 평주로 모두 10개이다. 화강석 주초 위에 4면 모두 각기둥(195×195㎜)을 세웠는데, 정방형 단면으로 흘림이 없다.

2) 가구(架構) 및 포(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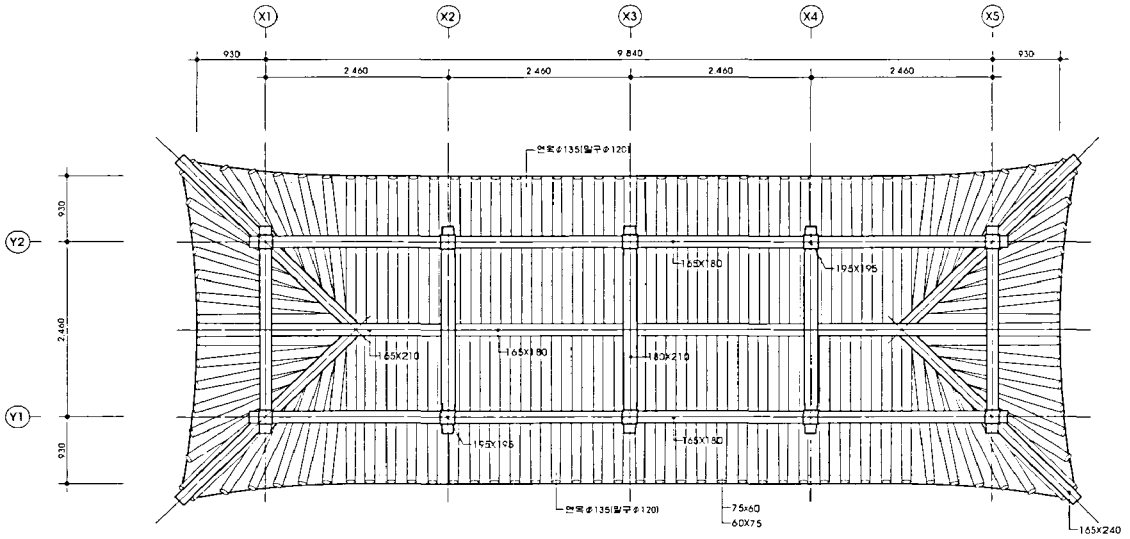
가구는 무고주 3량가 구조이다. 전면 평주(변두리기둥) 상부에서 처마도리와 대들보(大樑)를 받아주게 하였다. 그 위에 처마도리(140×200㎜)와 대들보(180×230㎜)위에는 대공(두께90㎜)을 세워서 종도리(140×200㎜)를 받치고 있다. 도리 하부의 장여 아닌 인방재 뿐이다.



[사진4.89] 바깥채 가구(전면/남서측)



[사진4.90] 바깥채 가구 (우측/북동측면)



[그림4.40] 바깥채 가구구조도

대들보의 형상은 모 죽임이 있는 각형인데 180×270㎜의 같은 크기이다. 이때 보머리는 삼분두 형태로, 마구리는 직절하였다. 처마의 주심도리는 모 굴린 납도리(角道里,方形道里)를 사용하였는데 크기는 165×180㎜이다.

전면 각기둥 위에 주두와 공포는 설치하지 않았고, 모두 보머리 가구만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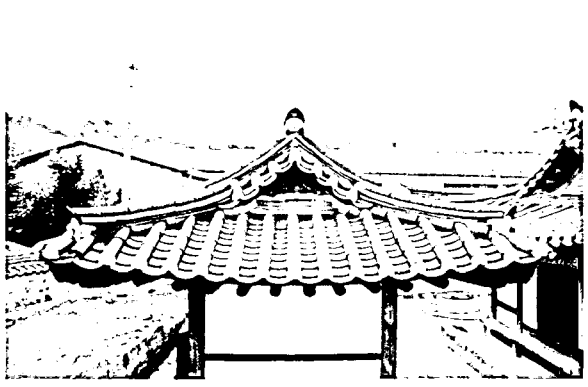
라. 천장 · 처마

천장은 방을 제외하고 연등천장으로 연목 위에 산자 엮기 후 앙토를 바르고 재사반죽 마감하였다, 방은 목조 천장틀 위 천장지로 마감하였다. 측면부는 팔작지붕 건물로 합각부 박공 두께 45㎜ 널을 달아 놓았다. 처마는 전 · 배면 모두 홑처마로 연목의 굵기는 Ø135㎜정도이며, 처마 내밀기는 전면 930㎜, 배면 930㎜이다. 처마의 안허리곡은 210㎜이며 앙곡 또한 210㎜로 선자연 서까래, 즉 추녀선부터 시작하여 곡을 이루고 있다.

바깥채는 팔작 건물이므로 추녀는 4개소이다. 추녀목의 크기는 165×240㎜이고, 추녀 끝단에 사래가 설치된 것처럼 보여진다. 좌 · 우측으로 선자연서까래가 배열된다.



[사진4.91] 바깥채벽체 가구와 수장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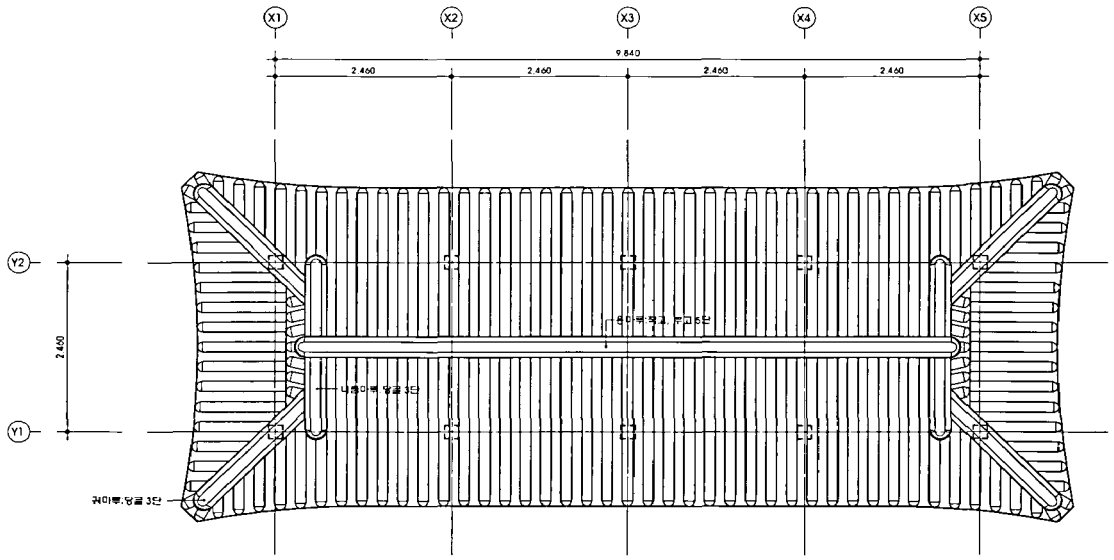


[사진4.92] 바깥채 처마 (좌측면)

마. 지붕 · 기와(屋蓋 · 蓋瓦)

바깥채의 지붕은 합각지붕으로 한식 토기와(중와 B)를 사용하였고, 기와의 상태는 양호하다.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 적새 5단을 쌓고 수키와를 얹었으며, 내림마루는 당골 위에 적새 3단을 쌓은 후 마루 끝에 망와를 설치하였다.

용마루의 앙곡은 1/4지점에서 치켜 올림이 보이며 그 위에 망와를 설치하였다. 용마루의 전면 길이는 약 9,045㎜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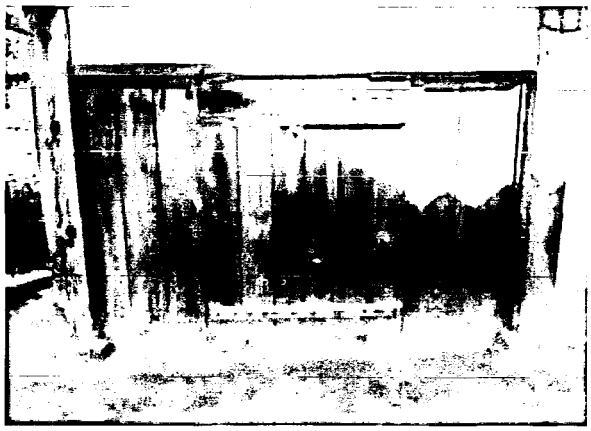


[그림4.41] 바깥채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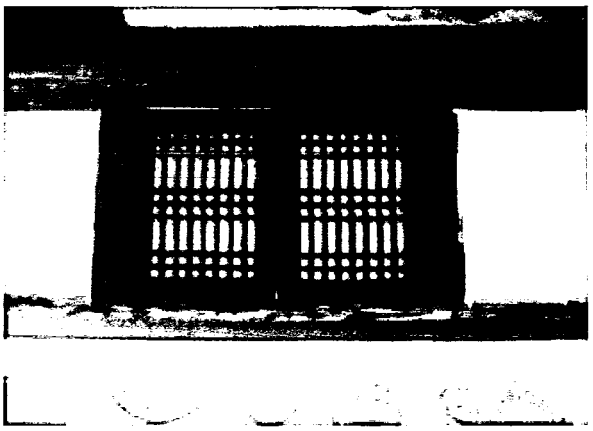
바. 창호(窓戶)

바깥채 전면 4칸의 기둥 사이에 사용된 모든 창호 중 전면은 출입문으로 2짝여닫이 세살문이고, 부엌은 목판 널문으로 되어 있으며, 배면은 환기용인 살광창(2,045×600㎜)과 세살창(900×600㎜)이 구성되었다. 널문은 2짝여닫이 목판문(1,040×1,405㎜)으로 되어 있는데 판문의 두께는 35㎜이고 상하부에 둔테를 두고 중간부에 빗장걸이를 두었다.

광을 제외한 마루, 방은 세살문과 세살창으로 설치되었고 배면 상부는 전체벽면이 재사벽과 화방벽으로 마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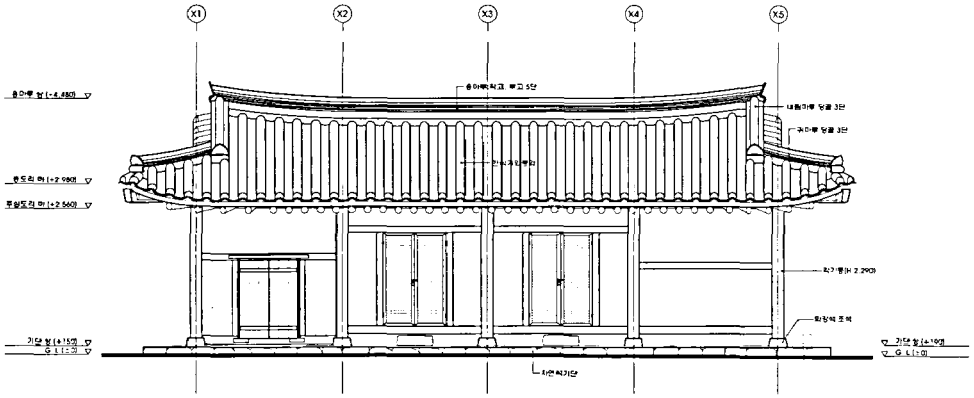
[사진4.93] 바깥채벽체 가구와 수장 (우측면/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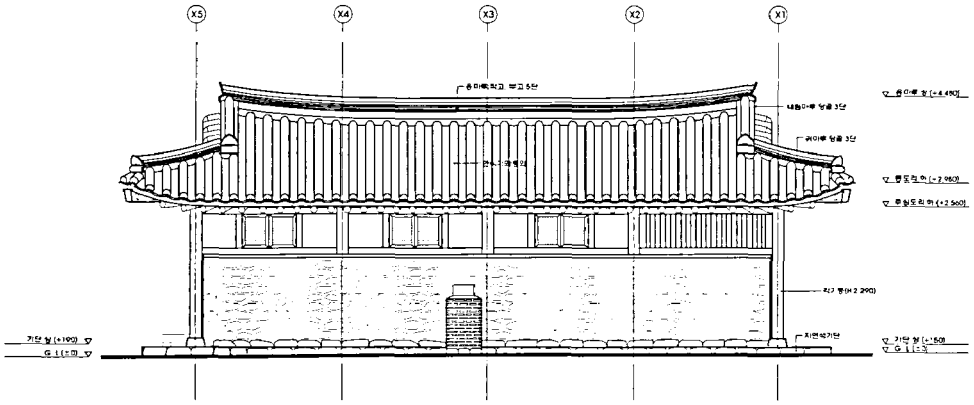
[사진4.94] 바깥채벽체 창호와 수장 (전면/남)

사. 수장(修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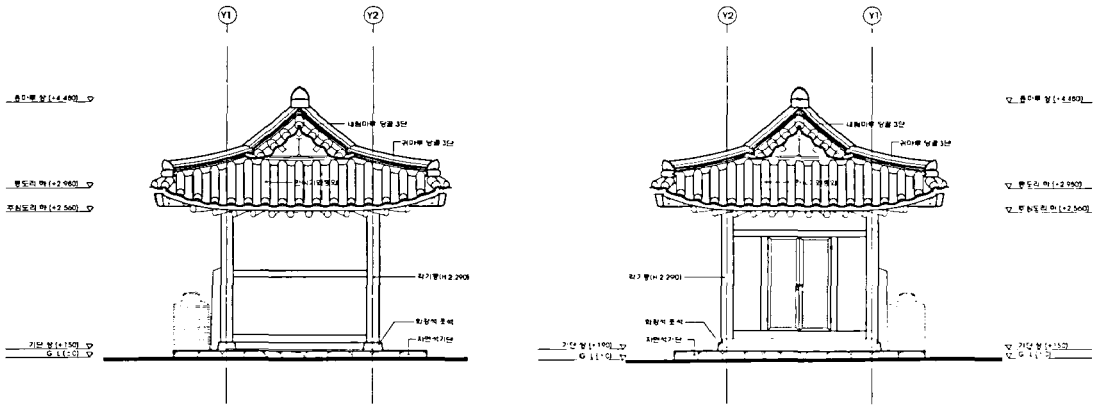
바깥채 내부 방의 벽체는 종이벽지, 바닥이 온돌 위 장판지 마감으로 되고, 마루방은 우물마루로 두께는 45㎜이다. 건물 내부의 실의 구획은 종이벽지와 창호 및 재사벽(두께 75㎜)로 마감하였다. 그리고 정면은 방은 그 위로 재사벽 마감이 설치되고, 배면으로는 중인방 하부에는 자연석 화방벽으로 설치된다. 우측면은 툇마루(폭:530㎜)를 설치하였고, 문선은 장방형 각재(75×110㎜)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좌측의 1칸에도 마찬가지로 배열되어 입면상 외벽의 통일감을 가져오고, 동시에 긴 통일된 입면감이 집의 규모를 더욱 확장되어 보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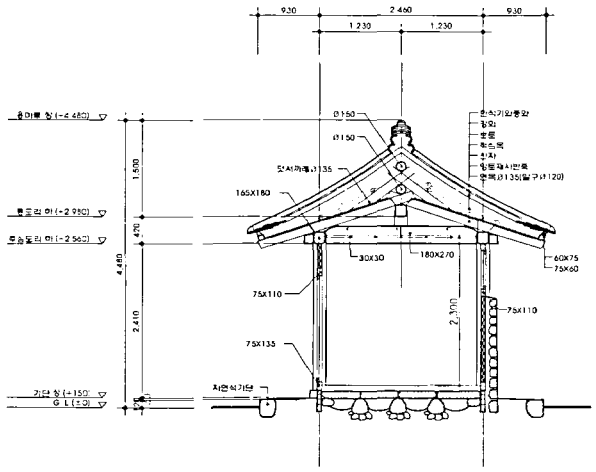
[그림4.42] 바깥채 벽체입면도 (정면도)



[그림4.43] 바깥채 벽체입면도 (배면도)



[그림4.44] 바깥채 벽체입면도 (측면도)



[그림4.45] 바깥채 벽체입면도 (종단면도)

아. 단청(丹靑)

연목과 부연 및 대량을 비롯한 기타 가구재도 단청을 하지 않은 백골집이다.

3-2. 사당(祠堂)



[사진4.95] 사당 전경 (전면/보수후)



[사진4.96] 사당 전경 (전면/보수전)



[사진4.97] 사당 전경 (전면/보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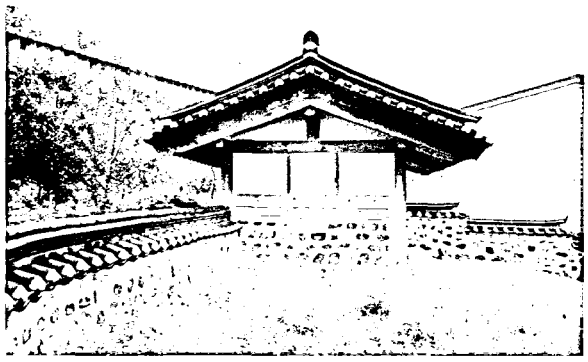
[사진4.98] 사당 전경 (전면/보수전)

청문당에서 가장 배면쪽 높은 자리에 있는 건물이 사당이 된다. 사당(祠堂)이란 신주(神主), 곧 죽은 사람의 위패(位牌)를 모셔 두고 제향하는 집으로 가묘(家廟)라 한다.

가옥의 우측부인 동측에 자리하므로 전형적인 배치방식이 적용되었다. 사당 전면으로 가림이 없이 터진 시야가 확보되고 있다. 2006년도에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시행되었다.



[사진4.99] 사당 전경 (전면)



[사진4.100] 사당 전경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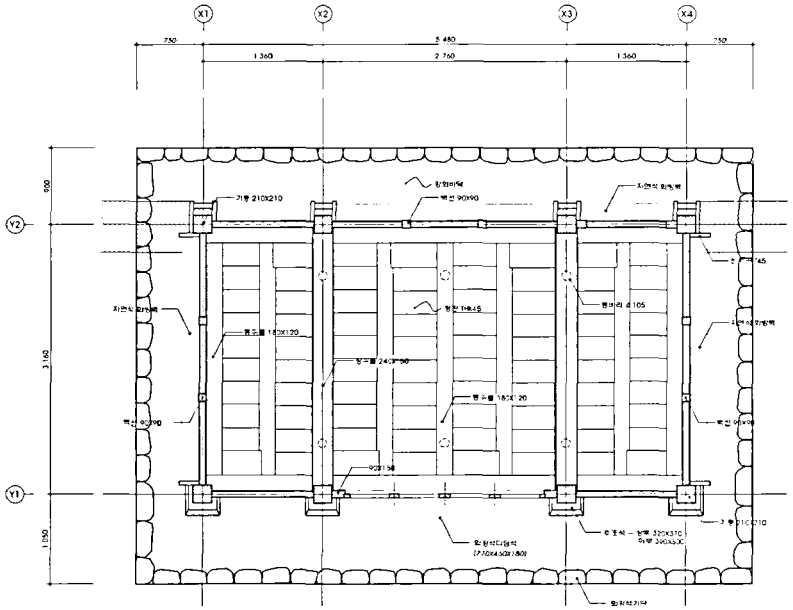
가. 평면(平面)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一'자형 평면으로 목구조 단층 건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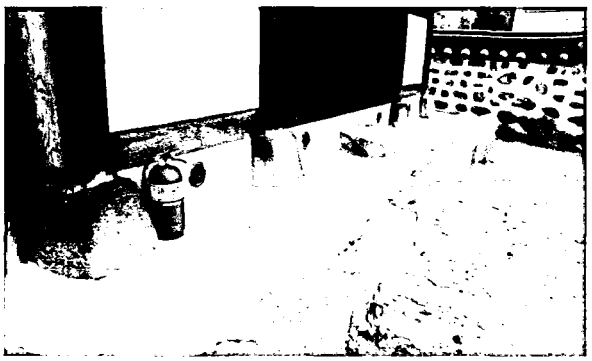
건물의 주칸은 도리방향 단면에서 1,360㎜, 2,760㎜, 1,360㎜이므로 중앙칸의 길이가 좌우협칸의 2배이다. 그리고 측면 보방향으로는 3,160㎜이다.

건물의 길이는 전면(도리칸)이 5,480㎜이고, 측면(보칸)이 3,160㎜로 정면과 측면의 길이 비율은 1:1.73정도이며, 면적은 17.31㎡(5.23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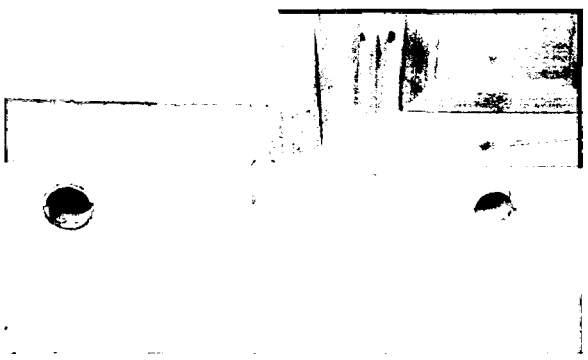
내부는 칸막이 없이 통칸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바닥은 우물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4.46] 사당 평면도



[사진4.101] 사당 기단 전경(전면)



[사진4.102] 사당 초석(전면)

나. 기단·초석(基壇·礎石)

사당의 기단은 화강석으로 지형에 맞추어서 처리하였는데 140~280㎜ 높이를 외벌대로 처리하였으며, 기단상부는 강회다짐으로 마감한 상태로 양호하다.

기단의 전체길이는 전면과 배면이 6,980㎜이고, 측면은 좌·우측 기단은 5,110㎜이며, 내밀기는 전면이 평균 1,050㎜, 배면이 900㎜로 동일하지 않으며, 측면은 750㎜이다. 또한 기단높이는 최대 45㎜로 차이를 보이는데 건물이 앉은 자리가 경사지이기 때문이다.

초석은 모두 8개가 사용되었다. 측정이 가능한 외부의 초석은 모두 화강석 사다리형 초석의 형태를 갖는다. 각 초석위에 각기둥을 세웠고 그렝이질로 다듬어 사용하였다.

다. 목조가구

1) 기둥(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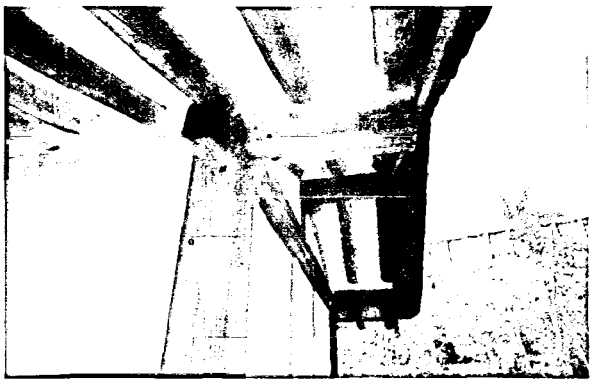
사당의 기둥은 평주로 모두 8개이다. 화강석 주초 위에 사면 모두 각기둥(210×210㎜)을 세웠는데, 정방형 단면으로 흘림이 없다.

2) 가구(架構) 및 포(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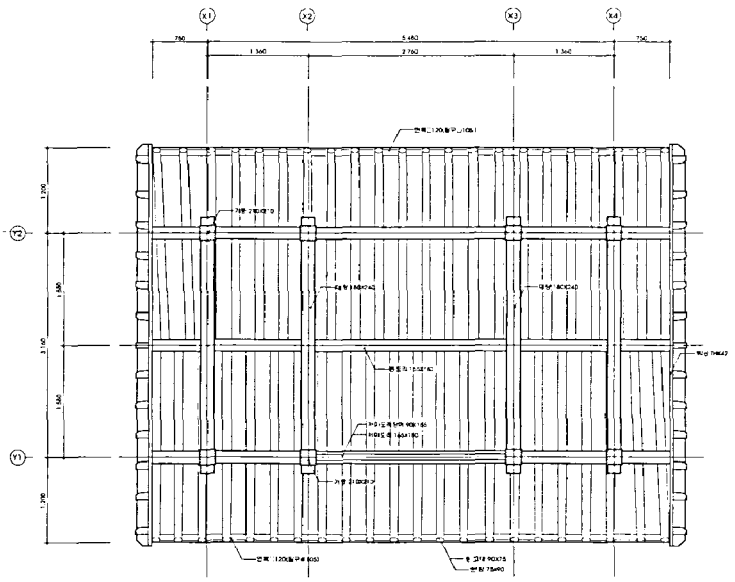
가구는 무고주 3량가이다. 전면 평주(변두리기둥) 상부에서 처마도리와 대들보(大樑)를 받아주게 되어 있다.



[사진4.103] 사당 내부가구 (전면/남서측)



[사진4.104] 사당 외부가구 (우측면/남동측)



[그림4.47] 사당 가구 구조도

도리, 대량은 모접기된 각재를 사용하고 도리는 모두 납도리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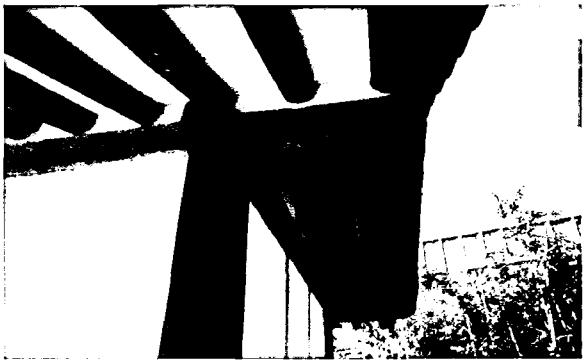
사당내부로 출입하는 중앙부 주칸에서 대들보의 크기는 모 죽임이 있는 각형인데 180×240㎜의 같은 크기이다. 이때 보머리는 삼분두 형태로, 마구리는 직절하였다. 대들보위에는 대공(210×210㎜)을 세워서 종도리(165×180㎜)를 받치고 있다.

라. 천장 · 처마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연목 위에 산자 엮기 후 앙토를 바르고 재사반죽 마감하였다, 측부에는 두께 42㎜ 박공널을 달아 놓았다. 처마는 전 · 배면 모두 홑처마로 구성하고 연목에 평고대, 연함을 연결하였다. 연목의 굵기는 ∅120㎜정도이며, 처마 내밀기는 전면1,200㎜, 배면 1,200㎜이며, 우측부의 박공의 내민 길이는 각각 750㎜이다. 처마의 안허리곡이나 앙곡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사진4.105] 사당 가구(대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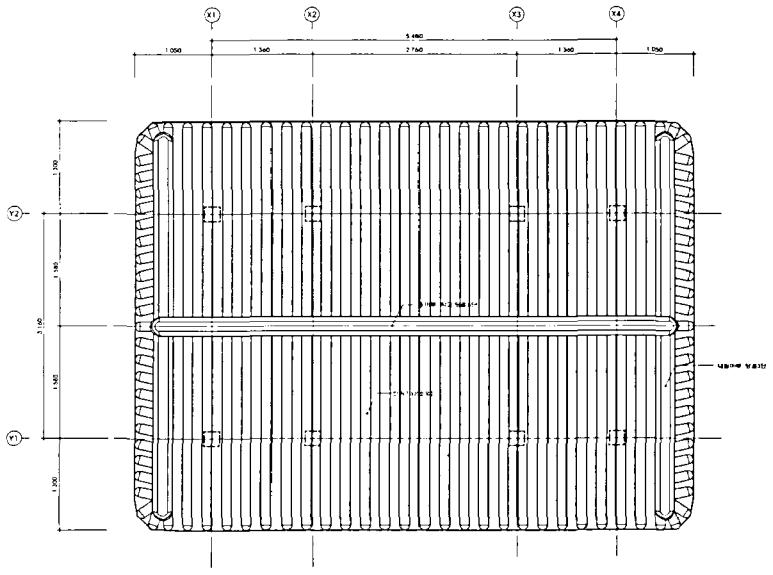


[사진4.106] 사당 가구(우측)

마. 지붕 · 기와(屋蓋 · 蓋瓦)

지붕은 '一'자형 맞배지붕으로 구성하였고, 기와는 한식 토기와(소와)를 사용하였으며 기와의 상태는 양호하다. 용마루는 착고 위 부고 1단 놓고 적새 5단 위에 수키와를 놓고 내림마루 및 귀마루는 당골막이 1단 놓고, 적새 3단 쌓기 위에 수키와를 놓고 마루 끝부분에는 머거불을 놓고 그 위에 망와를 놓고 처마끝부분에는 와구토로 구성하였다. 합각은 연함을 놓고 연함 하부로 박공을 설치하여 구성하였다.

용마루의 앙곡은 약간있으며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곡을 두었다. 길이는 7,06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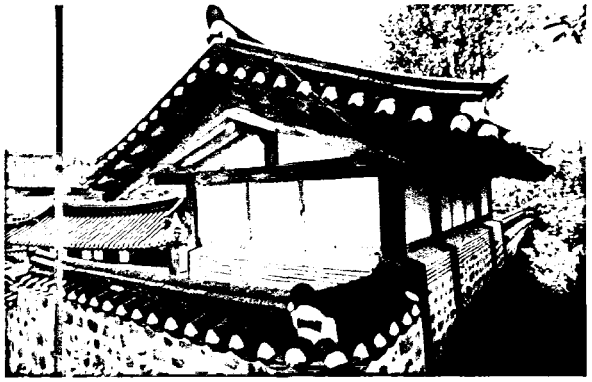
[그림4.48] 사당 지붕 평면도

바. 창호(窓戶)

사당 전면 중안칸에만 설치되는데 4짝 분합들문 궁판 세살문이다. 문선은 장방형 각재(90×165㎜)를 사용하였다. 그 외 벽체는 하방과 중방을 두고 외엮고 흙벽 바르기위 재사벽 마감이 설치되고 측면·배면으로는 중인방 하부에는 기와와 자연석을 이용하여 화방벽이 설치된다. 배면의 현황은 법면지로 청문당의 외곽경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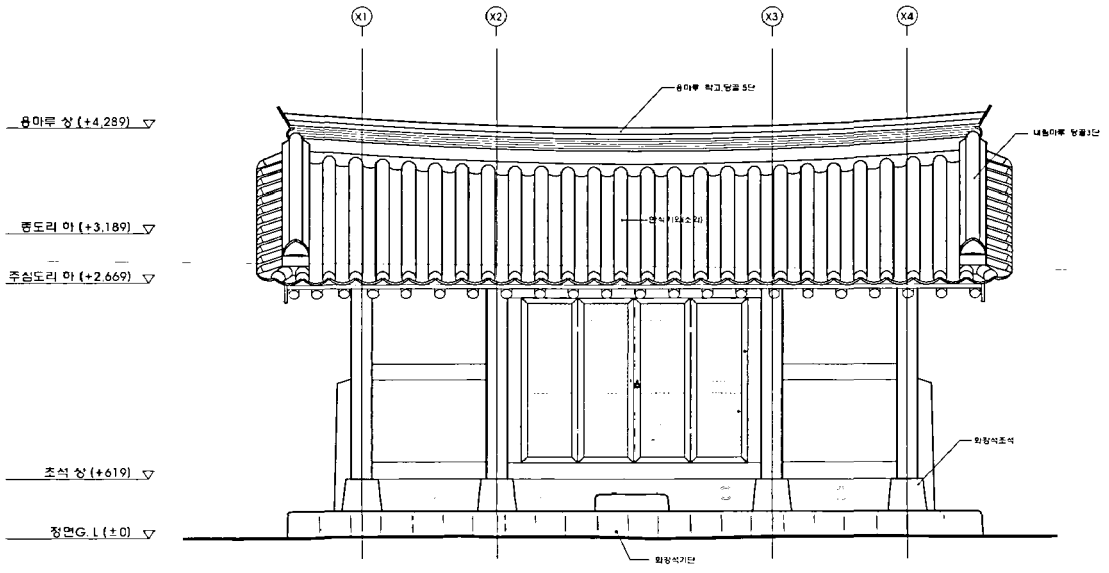
[사진4.107] 사당 창호 (정면/남서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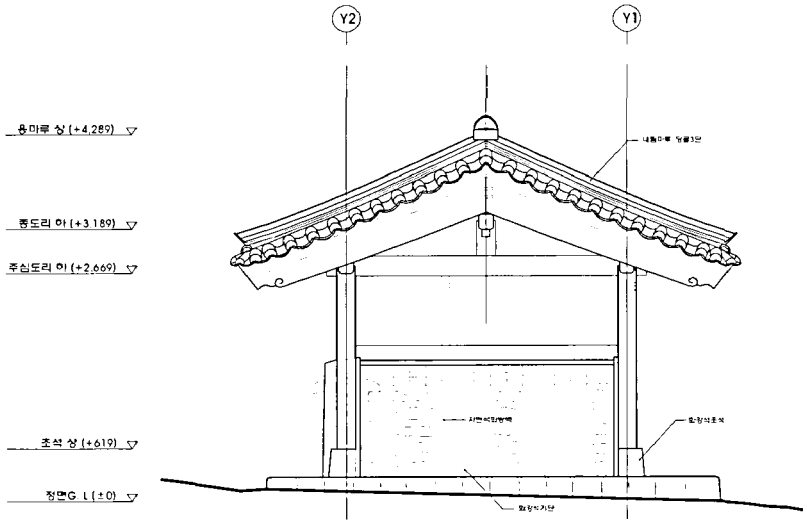
[사진4.108] 사당 벽체와 수장(우측/배면)

사. 수장(修粧)

실 내부 벽체는 재사벽(두께 90㎜), 바닥은 우물마루 마감으로 된다. 하인방 아래는 고막이 설치하였고, 건물 내부의 실의 구획이 없이 개방되었다. 배면과 좌·우측 벽체에는 중인방 하부로 화방벽을 쌓아 마감하였다. 구조적으로 수장재가 놓인 곳은 4면이 거의 같은 위치상에 놓인다. 그리고 전면부에 환기를 위해 고막이 구멍이 4개소가 설치되어있다.



[그림4.49] 사당 벽체입면도 (정면도)



[그림4.50] 사당 벽체 입면도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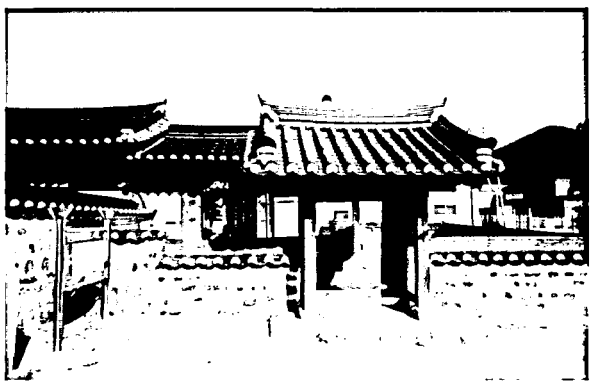
명칭 / 구분	사당양식	명칭 / 구분	사당규모
평면	전면 3칸, 측면 1칸, "ㅡ"자형	바닥면적	17.31㎡ (5.23평)
기단	자연석 기단 외벌대	기단내밀기	750~1,050m/m
기단바닥	강회다짐	기단높이	140~280m/m
주초석	화강석 주초	주초석크기	400×400×330m/m
기둥	각 기둥	기둥크기	210×210㎜, H = 2,150㎜
벽체	외엮은 재사벽치기	처마내밀기	1,200m/m
가구	3량 가구	처마높이	2,600m/m
처마	처마에 와구토마감	건물높이	4,300m/m
지붕	맞배 지붕		
천정	연등천장		

아. 단청(丹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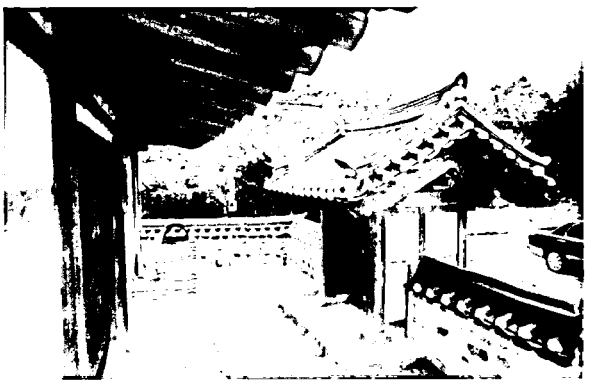
연목과 부연 및 대량을 비롯한 기타 가구재도 단청을 하지 않은 백골집이다.

3-3. 문(門)

가. 대문(大門,四柱門)



[사진4.109] 협문 전경(전면/남서측)



[사진4.110] 협문 전경(배면/남동측)



[사진4.111] 협문 전경 (측면/북동측)



[사진4.112] 협문 상부 가구

사주문은 청문당 내부로 진입하는 유일한 문이다. 가옥의 남서쪽 외곽 구획하는 담장에 설치된 측면부 출입문으로 외부마당과 내부 마당 및 살림공간을 연결시키는 문으로 현재 가옥의 대문 역할을 한다.

전면의 간사이는 1,800㎜로 하인방위에 좌·우측 단부에 각각 기둥(180×180㎜)을 세운 후 도리(150×180㎜)를 설치하였다.

기단은 자연석으로 바닥은 강회다짐이고, 배면은 고택의 북동쪽 대문간 계단에 연결된다.맞배지붕으로 한식 중와를 사용하였고,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에 적새 5단을 쌓았다. 처마도리와 종도리가 서까래를 받치고, 개판을 깔아 지붕을 얹었다. 처마 마구리는 막새기와 없이 와구토 마감을 하였으며, 박공널(두께 42㎜)은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나. 문(門)



[사진4.113] 문간채 전경 (전면/보수전)



[사진4.114] 문간채 전경 (전면/보수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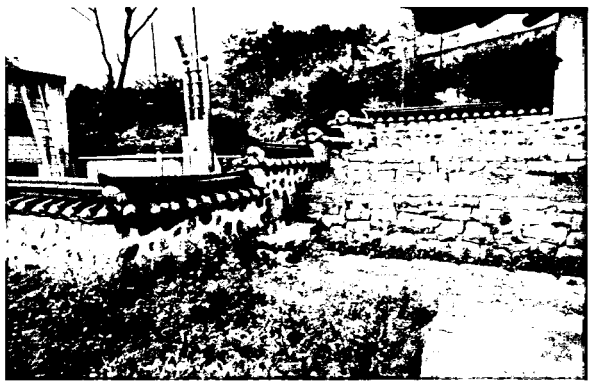
원래 사랑채 전면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바깥에 대문을 건립하게 되면서 방이 있었던 공간을 문간채로 만들고 그 입구에 문을 설치하였다. 당초 설치 모습은 [사진4.113]과 같다.

현재의 문은 사랑채를 보수할 때 같이 변형한 것으로 전면의 간사이는 2,460㎜로 하방위에 좌우측 단부에 각각 기둥(210×210㎜)을 세운 후 도리(135×180㎜)를 설치하였다.

별도의 기단은 설치하지 않았고 바닥은 진흙 강회다짐이고, 정면은 고택의 남서쪽 대문간 계단에 연결된다.

맞배지붕으로 한식 중와를 사용하였고, 용마루는 착고, 부고 위에 적새 5단을 쌓았다.

3-4. 담장(垣墻)



[사진4.115] 담장 전경 (서북측/안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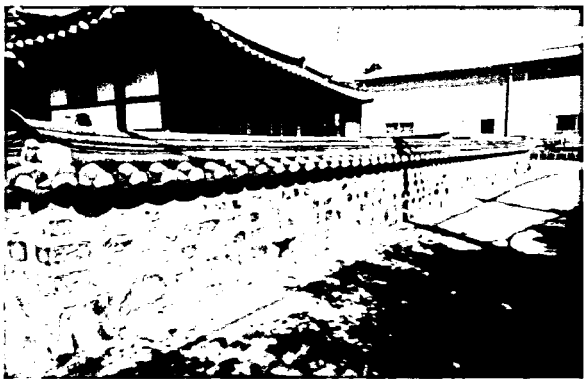
[사진4.116] 담장 전경 (서북측/문간채)

담장은 안채 배면에서 협문까지 연결되고 다시 사랑채에서 앞으로 길게 설치하여 바깥채 우측 기둥을 감싸고 청문당 북동측 사당 배면 화방벽에 연결하여 후원을 감싸고 안채를 두룬다. 담장은 막돌담장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2004년 현황조사에 의하면 청문당 좌, 우측 및 배면의 삼면에는 현재 콘크리트 블록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변형이 된 부분은 바깥채 전면부로 원래 안마당을 경계로 후원부분과 사랑채부분을 구분시키는 담장이 설치되었는데 현재는 이를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현재 진입하는 대문도 원래는 출입문 없이 담장으로만 설치된 공간이었다.



[사진4.117] 담장 전경 (남동측/바깥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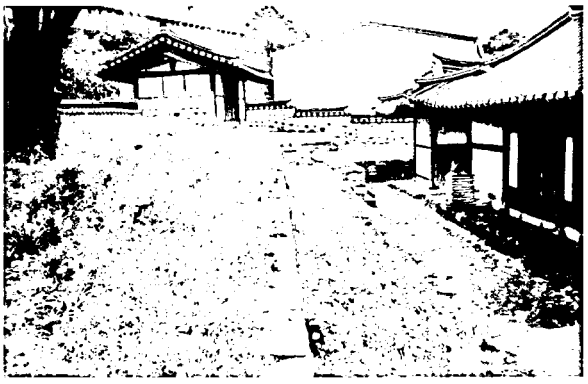


[사진4.118] 담장 전경 (남측/사랑채)

3-5. 화단(花階)



[사진4.119] 화단 전경 (전면/북동측)



[사진4.120] 화단 전경 (측면/남서측)

가. 후원(後苑)

안채와 바깥채 배면에 둘러싸여 바깥채 우측에서 담장까지 경사지인 면에 화계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안채 좌측면 북서쪽과 북동쪽의 담장까지 경사지 면으로 되어있어 일부 석축 등을 구성하여 경내를 정비하였으며 높이차를 간으로 처리한 화계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나. 수목

1) 부곡동 모과나무

고 유 번 호	경기- 안산-18
지 정 일	1982. 10. 15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261-15
수 종	모과나무
수 령	250년
수 고	높이 18m
관 리 자	부곡동장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수령 240년의 보호수로 진주류씨 종가의 뒤뜰에서 자라고 있다. 나무의 원줄기는 썩어 없어졌는데, 6·25전쟁 때 화재로 소실되었다고도 한다. 둘레에서 새 줄기가 나와 자라고 있으며, 가운데 부분이 가로 80㎝, 세로 42㎝ 정도 비어 있는 상태이다. 2007년 7월 안산시 녹지과에서 제작하여 설치되었다. 높이 14m, 가슴높이 둘레 3.4m, 나무 갓 너비 10m이다. 나무줄기의 모양이 기괴한 형태를 하여 관상 가치가 크며, 나무 전체의 모양이 수려하다. 진주류씨 선조가 울안의 풍치를 조성하고, 열매인 모과를 얻기 위하여 심었다고 전한다. 현재에도 매년 많은 모과를 수확하고 있다.

노거수로서 1982년 10월 15일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며, 관리는 안산시에서 하고 있다.

[참고문헌] • 『안산시사』 (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사진4.121] 보호수 전경(모과나무)



[사진4.122] 보호수 전경(은행나무/외곽)

2) 부곡동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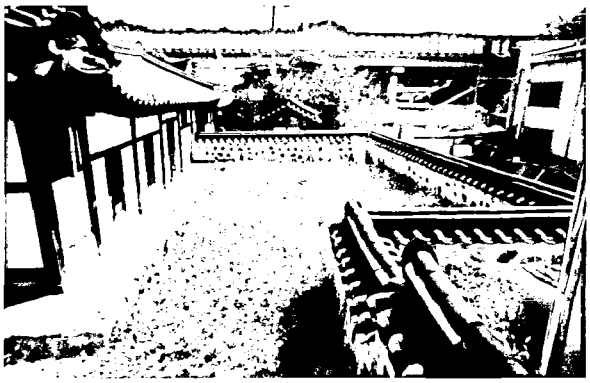
고 유 번 호	경기- 안산-19
지 정 일	1982. 10. 8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261-9
수 종	은행나무
수 령	160년
수 고	높이 18m
관 리 자	김성애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에 있는 수령 160년의 보호수로 진주류씨 종가의 전면우측부인 상록구 부곡동 261-9번지에 자라고 있다. 가지는 1개이고, 둘레에서 새 줄기가 나와 자라고 있으며, 높이 18m이다. 나무줄기의 모양이 견실하며, 나무 전체의 모양도 수려하다. 2007년 7월 안산시 녹지과에서 제작하여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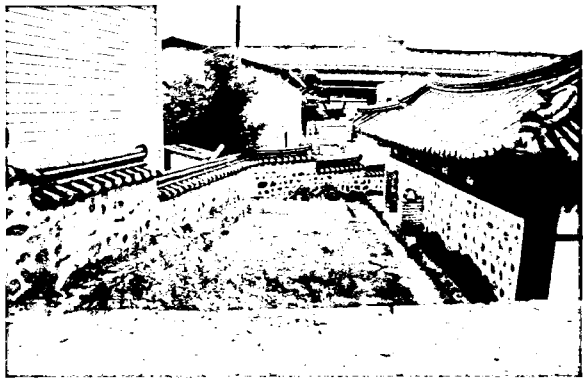
노거수로서 1982년 10월 8일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며, 관리자는 김성애이다.

나. 텃밭

집의 담장으로 둘러 쌓인 좌우측부에 현재 텃밭이 있는데 예전에는 안채좌측에는 광들이 있었던 곳이다. 아래채의 배면부에는 텃밭은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 부지의 여유가 있는 공간이었으나 근래 이르러 부지가 축소되어 지적경계선에 따라 담장이 둘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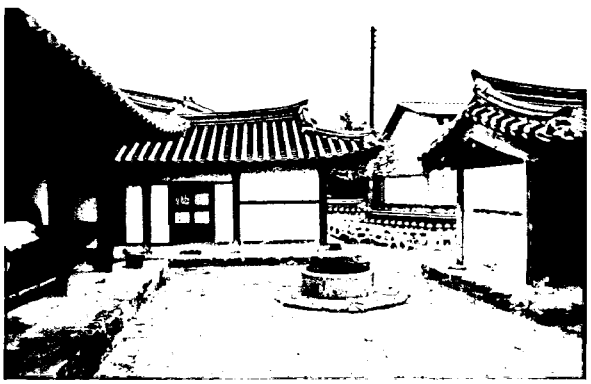
[사진4.123] 텃밭 전경 (남서측/안채)



[사진4.124] 텃밭 전경 (남동측/바깥채)

3-6. 기타

가. 장독대



[사진4.125] 안채 안마당 전경 (남동측)



[사진4.126] 안채 안마당 전경 (옛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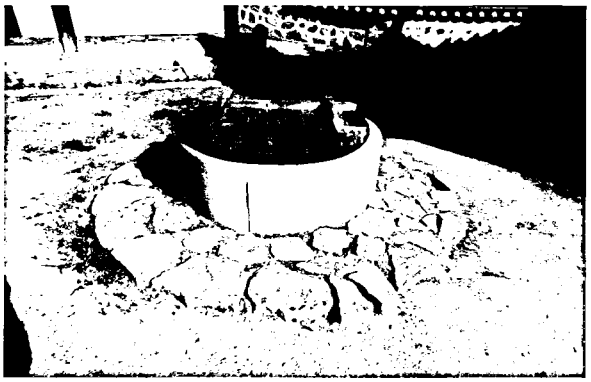
현재 후원에는 장독대가 보이지 않는다. 공간구성으로 볼 때 후원보다는 부엌과의 상관관계와 출입동선을 고려할 때 우측의 텃밭쪽에 장독대 설치공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사진4.126]에 의하면 우물에서 배면인 안채쪽에 장독대가 설치되어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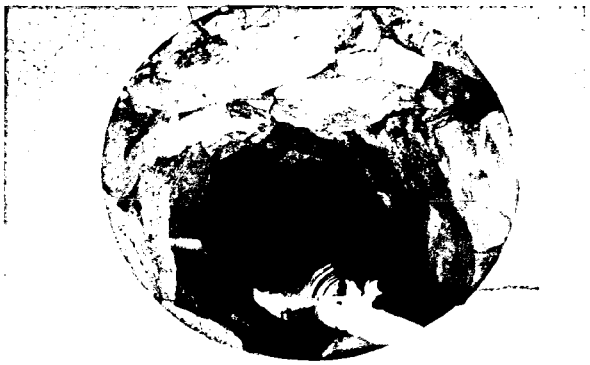
나. 우물

현재 우물은 안마당 사랑채 돌출부 배면에 위치한다. 물 웅덩이쪽에는 2개의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사용되고 있다. 상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낮게 화강암으로 원형으로 벽체를 세워서 두레박을 이용하게 하고, 상부에 목재로 뚜껑을 만들어 덮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도 조사된 [사진4.126]에 의하면 우물의 벽체도 다소 높게 되었고, 우물상부에 슬레이트를 얹은 지붕이 있었다.



[사진4.127] 장독대의 전경 (안마당)



[사진4.128] 장독대의 전경 (안마당)

다. 안내판(案內板)

1) 문화재안내판(文化財案內板)

고가로 진입하면 협문 좌측부에 C 형안내판으로 옆에 문화재안내표석이 설치된다.

안산 청문당(龍仁李桂國將軍古宅)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94호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261-5
진주류씨 16세 손 류시회(柳時會:1562~1635)가 처음 건립하였다고 전해지나 현재의 건물은 조선후기에 새로 건립한 것이다. 류시회의 조카인 류적(柳頔)이 선조의 부마로 정해진 후 아버지 류시행(柳時行)의 묘를 부곡동 새터에 정하면서 이후 진주류씨는 임금이 하사한 넓은 사패지(賜牌地)와 안산 바닷가의 어염권을 기반으로 이곳에 살면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였고, 조선중기 기호남인(畿湖南人)의 3대 가문의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또한 조선후기에 이르면 청문당 만권루(萬卷樓)는 조선 4대 서고의 하나로 기호남인들의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실학의 산실이 되었다. 부곡마을 안쪽의 낮은 경사지에 자리 잡은 청문당은 넓은 안마당에 면하여 뒷날개를 가진 ㄷ자형 사랑채가 있고 그 뒤로 ㄱ자의 안채와 一자형의 바깥채가 안마당을 둘러싸고 있어 전체적으로 튼ㅁ자형의 배치를 하고 있다. 안채 동북쪽에는 사당이 있고, 뒤뜰에는 화계(花階)가 조성되어 있다. 집 앞에는 연지가 있었으며, 연지 동쪽에는 바깥사랑채에 해당하는 연당(蓮堂), 서쪽에 현정(玄亭), 북쪽에 느티나무와 우물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연지의 석축만 남아 있다. 이 가옥은 경기지역의 민가와 사대부가의 형식이 절충ㅇ된 구성을 보여주는 살림집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사진4.130] 안내판과 안내표석



[사진4.131] 안내판과 고택 진입로

2) 마을안내 표석(마을案內 標石)

고가로 진입하게 되면서 앞마당 대문의 우각 꺾임부 외곽부에 자리한다. 사다리꼴형의 화강석 재료로 물갈기 한 바탕에 검은 글씨로 음각하였는데 전면에 마을안내 설명을 하였다.

개멸[元釜谷]
옹기마을 동쪽으로 마을 남쪽에 있는 산이 풍수로 보아 가마[釜]를 엎어 놓은 형국이어서 가마산[伏釜山]이라 했고, 그 후 취락이 형성되자 산명을 취해 가마골이라 불렀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개멸[元釜谷]로 통칭되었다. 이 마을은 진주류씨 누대의 세거지로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조선 제14대 임금인 선조와 정빈(貞嬪) 홍씨(洪氏)의 소생인 정정옹주(貞正翁主)[1595~1666년]가 동갑인 류적(柳적1595~년)과 혼인하기로 약정되었으나 12세 때 시아버지가 될 류시행(柳時行:1566~년,교리)이 세상을 떠나자 3년상을 치렀고, 14세 때, 뜻밖에 이번에는 선조가 세상을 떠나자 다시 3년 상을 치른 후인 17세에 이르러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군인 류적의 몸이 허약해 25세 때 죽자 청상이 되었다. 한편 류시행은 본래 선산인 충청북도 괴산군 몽촌에 예장을 치룰 계획이었으나 서울에서 3백 리 이상이나 되는 원거리인 데다가 왕가의 장지는 1백 리를 넘을 수 없다는 법도에 따라 이곳에 사패지를 하사받아 진주 류씨의 세장지가 되면서 후손들이 묘하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군내면 부곡리라 불렀던 개멸은, 마을 북쪽 지역은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진 곳이라 하여 만수동(萬樹洞)이라 부르고, 동쪽 지역이 골짜기 안에 위치한 마을이므로 안골, 또는 류석(柳碩:1595~1655년,관찰사)의 묘가 능같이 크다 하여 능안이라 칭하였다. 매년 음력 10월 1일과 3일 사이에 길일을 택해 마을 뒷산인 곤우봉(昆牛峯)에서 산신제를 지냈는데, 이 곳에는 류석(柳碩) 등의 묘가 있다.

제5장. 종합 고찰

1. 사용척
2. 복원일고
3. 결론



여 백

제5장. 종합고찰

1. 사용척

가. 분수(分數)

건물의 건립시 분수에 이용되는 용척[1]은 대체로 건물의 기능과 규모가 서로 다르므로 영조척 길이도 여러 개가 있어 분수에 따라 자신의 사용척(用尺, 營造尺)을 만들어 쓰는 경우가 있었다.

건물의 기본 틀인 주칸(柱間)이나 출목(出目), 주심포(柱心包)의 포작(包作)부재는 쉽게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준척은 주칸이겠지만 분수 방법에 따라 주칸의 중심간 거리실측치를 기본 단위척(單位尺)으로 하여 비교 검토하였다.[2]

나. 용척의 검토(檢討)

조선시대 사용되었던 영조척(營造尺=306.5㎜)[3]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곡척(曲尺=303.03 ㎜)과 비슷하기 때문에 영조척을 곡척(曲尺)으로 간주하여 환산하면 청문당에 사용하였던 기준 사용척(用尺)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평면 주칸(平面柱間)

가) 전배면(前·背面)

(1) 중앙(전퇴면[Y3-Y4], 우측면[Y4-Y6], 배면[X3-X4])

중앙 주칸(御間)은 전퇴면, 전면과 배면 기둥 상하부에서 측정하여 6개의 수치가 실측되었고, 이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2,403, 2,401, 2,507, 2,518, 2,506, 2,498㎜가 된다. 전체를 평균한 어칸의 평균치수는 2,472.16㎜가 된다. 이 치수를 용척으로 계산하면 2,472.16㎜÷12尺=206.01㎜ / 尺이다. 이것을 환산한 단위용척(평균)은 0.67曲尺이다.

(2) 좌(전면[Y4-Y6], 전면[X1-X2])

좌우 변칸(邊間, 夾間)은 전면, 전면과 배면 기둥 상하부에서 측정하여 4개가 실측되었고, 이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2,499, 2,491, 2,546, 2,537㎜가 된다.

전체를 평균한 협칸의 평균치수는 2,518.25㎜가 된다. 이 평균치수를 용척으로 계산하면 2,518.25㎜÷12尺=209.85㎜ / 尺 이고, 이것을 환산한 단위용척(평균)은 0.69曲尺이다.

---

1) 집을 지으려면 먼저 집의 분수를 한다. 대체로 분수의 방법은 문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하나는 선적방법(線的方法)으로 기둥 중심 간격 혹은 기둥사이 간격으로 분수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면적방법(面的方法)으로 한 칸이라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분수를 하는 것으로 어떤 기준 되는 방의 벽과 벽 사이에서 지름장과 가름장을 곱한 면적의 비례로 결정하는 것이 된다.

2) 당시에는 톱질을 하는 방법이 먹줄을 긋고 이를 톱심 사이로 잘라냈기 때문에 홈에 끼워지는 숫장부는 기준 치수에 약간 못 미쳐 수장재 폭이 결정됨으로 먹선 중심으로 톱질을 하였다고 추정한다. (정치수에서 약간 적다) 그리고 소로의 밑면 혹은 소로의 안춤 크기는 정치수에 맞아서 이것이 기준치수일 것이라고 추정하여 가공했다고 판단된다.

3) 일정한 표준이 없이 길이가 들쭉날쭉하던 척도를 1430년(세종12) 집현전(集賢殿)에서 통일하여 전국에서 시행함으로써 자의 길이가 고정되었다. 46년(세종28) 황종관(黃鐘管)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만들었고, 이것을 기준으로 황종척(黃鐘尺)·예기척(禮器尺)·주척(周尺)등을 청동으로 주조하여 각 지방 관청에 보내 표준척으로 삼게 하였다. 그 길이는 덕수궁에 소장되어 있는 황종척의 길이로 환산해 볼 때 30.65 cm이다.

[표5.01] 주칸의 실측치수(전·배면주칸/도리방향)

위 치			주 칸 길 이		추정척수	환산 영조척
			기둥 하부			
구 분		부 위	㎜	曲尺		하 부
열	위 치					
Y1	전 면	좌측협칸[1- 2]	2,559	8.44	8.4	8.34
		어 칸[3- 4]	2,463	8.12	8.1	8.03
		우측협칸[5- 6]	2,499	8.24	8.2	8.15
		합 계	7,521	24.81	24.8	24.53
X5	배 면	좌 측[16-17]	2,510	8.28	8.2	8.18
		어 칸[18-19]	2,506	8.26	8.2	8.17
		우 측[19-20]	2,546	8.40	8.4	8.30
		합 계	7,562	24.95	24.9	20.97
Y3	측 면	좌 측[1-22]	2,499	8.24	8.2	8.15
		우 측[9-10]	2,428	8.01	8	7.92
		합 계	4,927	16.25	16.2	16.07

2) 장여(長舌)

[표5.02] 장여의 실측치수 (평균치)

위 치			단면치수				비 고
			너비(폭)		춤(높이)		
구 분	열	기 둥	㎜	尺	㎜	尺	
종도리 하부	Y6열		84	0.27	100	0.33	

가) 너비

장여폭에 사용되는 자(尺) 단위의 정수로 분배되었으면 2치(寸)가 되므로 종도리에서 모든 장여(폭) = 84.0㎜ ÷ 303.03 = 0.277尺(310.0㎜→0.230尺)

나) 높이

장여높이에 사용되는 자(尺) 단위의 정수로 분배되었으면 주심도리는 4치(寸), 그리고 중도리와 종도리는 3-4치(寸)가 되는 113.0㎜와 127㎜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장여(춤) = 100㎜ ÷ 303.03 = 0.33尺(310.0㎜→0.409尺)

장여높이에 적용한 단위용척(평균)은 너비가 1尺의 1/3, 그리고 높이는 1尺의 2/3가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3) 용척의 추정(推定)

가) 사용척의 설정

청문당 안채는 수리과정을 자세히 적어 놓은 중수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용척의 설정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수리나 중수(重修)시 많은 부재가 교체되었다고 판단되나 각 부재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고 추정하고 이번에 실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당시에 사용되었던 용척(用尺)을 고찰한 것이다.

한식 목조건축의 법식(法式)에서는 장여(長舌)의 두께(너비, 幅)를 기본 단위척(單位尺)으로 삼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건물의 규모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부재의 크기를 산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아 건물의 용척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보이는 것은 우선 건물평면의 설정일 때 사용되는 용척의 산정이다. 특히 전면으로 보이는 건물의 주칸은 당시 용척을 완척으로 하여 건물의 주칸을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 사용척의 추정

실측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배면의 중앙 어칸과 좌·우측의 주칸 등은 당시 기준

용척을 완척으로 생각하고 계산해 보면 모두 0.69곡척(曲尺:209.85㎜)이 사용되었는데 당시의 영조척(營造尺)에 의해 척도가 잡혔다고 할 수 있다.

2. 복원일고(復原一考,조사자의 의견)

가. 건물의 원형 분석검토

1) 가옥 배치

[그림5.01]에 의하면 외부에서 진입하게 되는 대문과 전면담장의 설치위치가 변화되었다. 즉, 기존 사랑채 건물안 좌측에 설치된 대문간이 우측 방쪽 외부공간에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설치되어 위치가 옮겨져 사주문으로 되었고, 좌우측면은 외곽담장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바깥통과도로와 집이 격리되어 원형을 잃었지만 현황은 관리의 이점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안마당에서 바깥채와 사랑채 사이 우물이 있는 쪽에 사랑채와 바깥채를 연결하는 담장을 둘러서 외부에서 폐쇄된 집안 공간을 형성하였었다. 즉 안마당에서 생활하게 되는 아녀자들을 위한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유교사회에서의 내외 주인의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전통수법이었으나 현재는 담장과 문 시설 없이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안채와 바깥채 연결부로 후원과 사당으로 가는 쪽에도 협문을 두어 공간을 격리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시설 없이 개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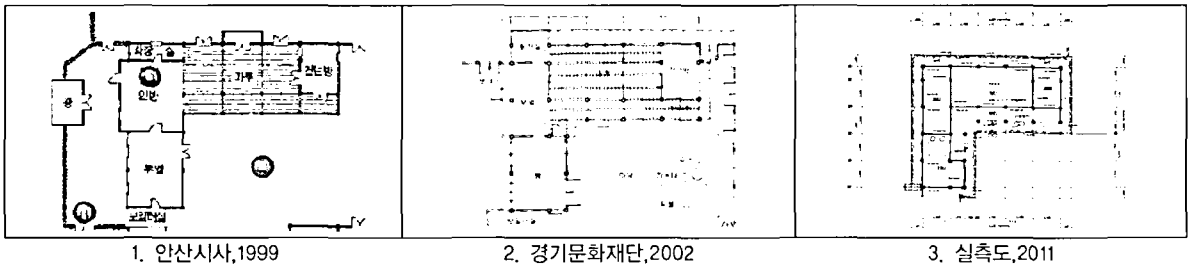
1. 안산시사,1999　2. 경기문화재단,2002　3. 실측도,2011

[그림5.01] 가옥의 배치 변화

전체적으로 현재 가옥의 배치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의 안채와 'ㄷ'자형의 사랑채가 기본적인 가구골격의 변형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안마당 우측의 바깥채와 좌측의 부속사(광채)의 변형이 있었는데 이 경우 대지의 소유관계에 따라 대지가 축소되면서 건물의 증설이 불가능하여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바깥채에 대한 현재 복원 결과에 대해 재검토 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2) 건물 평면

가) 안채



1. 안산시사,1999　2. 경기문화재단,2002　3. 실측도,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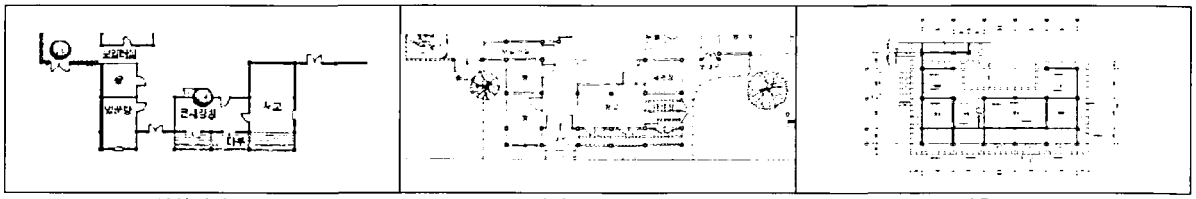
[그림5.02] 안채의 평면 변화

안채는 'ㄱ'자형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변형된 내용은 안방은 마루와 인접하고 있는 공간인데 2002년도 [그림5.02-2]을 보면 방을 입식부엌화하여 취사공간으로 변형시켰고, 배면쪽으로 화장실 면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2008년도 개보수하면서 측면에 돌출된 부분은 기둥선에 맞추어 공간을 축소하였다. 이 때 변형된 마루에 인접한 부엌부분을 원래 공간이었던 안방으로 환원시키고, 배면의 대청 갓기둥(평주열) 선까지 화장실을 철거하고 안방공간으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2002년도 설치되었던 방도 원래 기능이었던 부엌으로 환원시켰는데 부엌과 나뭇간으로 공간을 구분시켰다. 그리고 대청에서 외부 툇마루를 확장 연결시켜서 부엌에 바로 접근 할 수 있도록 배선동선을 만들었다.

대청 오른쪽에는 건넌방이 있는데 이 방의 오른쪽에 두짝문을 달아 쪽마루로 출입할 수 있게 하였으나 지금은 벽으로 바꾸었고, 앞 쪽 퇴는 누마루로 꾸몄다. 대청 도리방향 3칸중 감실을 둔 벽장구조물이 있었으나 2002년도 도면에 철거시켰고, 2002년도 사진을 보면 대청 앞쪽에는 원래 달린 4짝 분합문을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였고, 지금은 문선만 남아 있는데 툇마루 가에 알루미늄샤시 문을 달았었다.

그리고 기단상부 바닥의 높이가 반자정도 높이여서 마루까지의 높이가 낮아졌다.

나) 사랑채



1. 안산시사,1999　2. 경기문화재단,2002　3. 실측도,2011

[그림5.03] 사랑채의 평면 변화

사랑채는 가장 변형이 많은 부분이다. 2002년도의 [그림5.03-2]를 보면 평면구성은 방-방-대문-창고-마루방-세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99년도 [그림5.03-1]을 보면 서쪽으로부터 광 1칸, 일꾼방 1칸, 대문간 1.5칸, 큰사랑방 2칸, 서고 2칸이 배열되어 있고, 사랑방 전면에는 툇마루가 시설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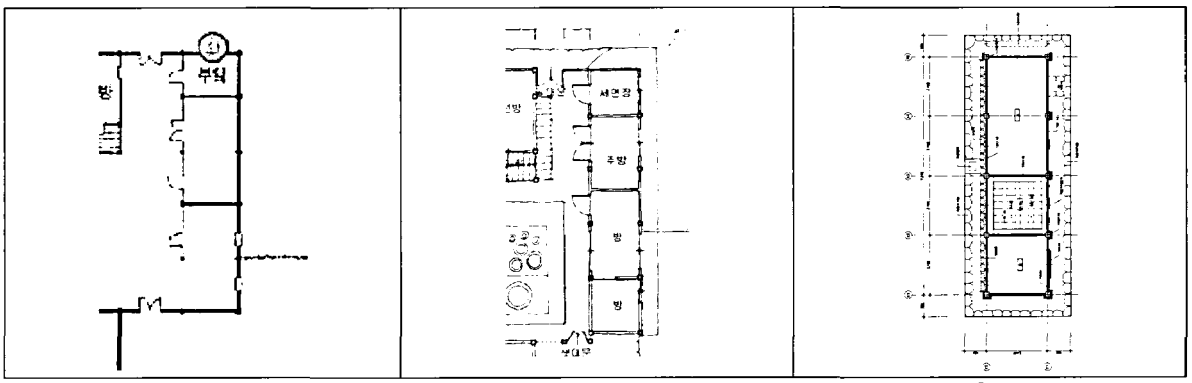
당초 건물의 기능으로 보아 후자의 경우가 원형이라 추정할수 있다. 현재 사랑채는 변형되어 주민 증언과 구조의 흔적을 통해서 원형을 추적할 수 있다. 서쪽의 배면으로 돌출된 부분이 지금은 대문간이지만 방으로 변형되었는데 원래는 하인방에 딸린 부엌이 달린 광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아래 1.5칸의 방은 1칸만 하인의 방이었는데 현재는 방 1칸과 누마루 형식의 툇마루 반칸을 퇴칸의 마루와 연결시켰다. (앞쪽 툇칸은 누마루 일부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문간의 앞쪽 퇴는 하인방 툇칸으로 이어지는 누마루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지금의 대문간은 원래 사랑방과 연결되었고, 상부 다락이었으며 하부는 함실아궁이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의 부엌간은 원래 대문칸으로 사용된 부분이다. 큰 사랑방과 방을 난방하기 위한 아궁이를 설치하는 공간으로 변형시켰으나 상부 구조를 보면 다른 용도 기능을 지닌 공간으로 추정된다. 2002년도 그림에서 2칸의 창고는 원래 사랑방이었다. 지금은 배면의 반침을 기둥열에 맞추어 축소 철거하였으며, 대신 부엌쪽에 반침을 만들어 두었다. 사랑방 좌측 옆의 마루방은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서고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루방 위쪽으로 돌출된 공간은 세면장으로 개조되었지만 원래는 광이었다고 하는데 1999년 그림에서 서고가 확장된 공간으로 되었는데 만권의 서적을 보관 할 수 있는 서고가 있었다는 소장공간에 비추면 서고로 사용됨이 올바른 공간해석이라 여겨진다. 사랑방 앞 퇴에는 우물마루를 깔았고, 원래 대문간으로 진입하기 위한 계단은 철거되었다.

따라서 현재 좌측부로 대문간의 이전은 잘못된 공간 해석이라 판단된다.

다) 바깥채



1. 안산시사,1999　　2. 경기문화재단,2002　　3. 실측도,2011

[그림5.04] 바깥채의 평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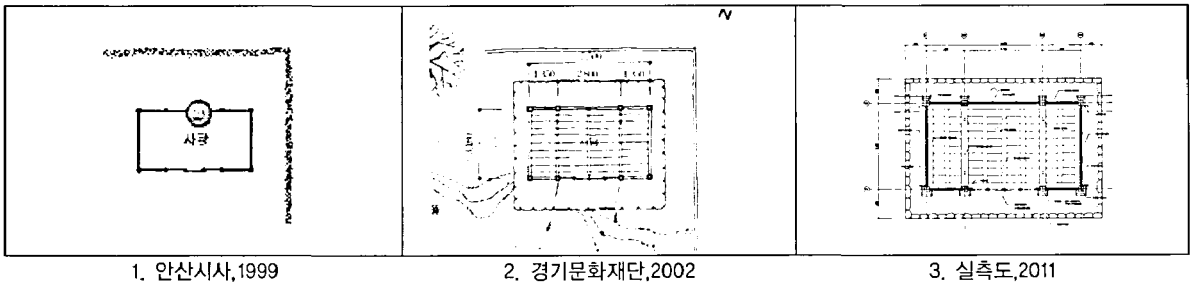
[그림5.0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과 2002년도의 건물 내용을 보면 같은 규모이기는 하나 공간간살이가 서로 다르다. 배면부로부터 부엌1칸은 세면장으로 사용되고, 방 2칸은 1칸방의 주방으로, 나머지 방2칸은 1칸반의 방과 전면부에 광으로 사용되었다.

2002년도 이 건물은 2007년에 전면적으로 해체 철거되고 새롭게 재축이 되는데 배면부분부터 부엌 1칸, 마루방 1칸과 방2칸 순으로 1칸이 축소되어 건립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전면기둥에 벽체와 사랑채 부분이 연결시키는 담장의 설치가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게 되었다.

조선중기 사대부집에서 볼때 사랑마당을 중심으로한 주인남자의 영역과 안마당을 중심으로 한 주인여자의 영역이 구분됨에 비추어 내외부 공간의 분리가 갖는 의미를 없애버렸다고 판단된다.

라) 사당



1. 안산시사,1999　　2. 경기문화재단,2002　　3. 실측도,2011

[그림5.05] 사당의 평면 변화

사당은 청문당에서 가장 오래 된 건물로 건물이 존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복원되었다.

그러나 복원되는 과정에서 마루하부의 고막이부분이 벽체로 되어 있는데 예전사진에 의하면 전배면부로 개방되어 통기가 되는 구조이었다.

마) 기타

안채와 사랑채의 사이에는 마당과 장독대 및 수돗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집 남서 측으로 약 3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네모진 연못이 있었는데 석축을 쌓아 만들어 사방이 각각 14~15m 정도 되었다고 한다. 주변에는 연당 및 현정 등 8개의 부속건물과 괴석(태호석)을 갖추는 정원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은행나무 및 향나무가 있었고 지금도 심어져 있어 전통고가의 운치를 보여주고 있다. 화계의 조성, 식목, 뒤꼍의 활용, 담의 구성방법 등은 향촌에 조영된 반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나. 건물과 주변환경 조성

1) 건물

지상편도에 의하면 대부분의 건물이 현재와 같으나 안채 좌측부의 건물은 모두 멸실되었다. 따라서 광의 기능이 있을 수 있도록 복원함이 바람직하다.

가) 중문채의 복원

현재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사랑마당과 안마당이 연속되어 있으나 원래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안채 앞마당 바깥채 뒤쪽으로 중문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원형 고증 후 복원하여 건물의 정비와 활용에 대한 장기적, 단계적인 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사랑채의 평면구성, 특히 청방과 아궁이의 위치, 최근에 안마당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화단 등에서 볼 때 사랑채의 왼쪽 모퉁이를 기점으로 사랑마당과 안마당을 구획하는 담과 중문채가 있어 각각의 공간을 명확하게 나누고 동선과 시선도 분리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면 사랑채의 전면과 측면의 구성에 대한 성격과 기능이 뚜렷해지고, 바깥채의 대문과 방의 위치, 안마당의 크기와 시선방향 등이 적절한 구성을 갖게 된다.

나) 문화재 용도에 맞는 활용방안

현재 고택 내에는 창고기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텃밭 등의 공간에 광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주변 환경

가) 진입로의 안내판 정비

현재 청문당의 위치는 고속도로로 인해 외부에서 인지되지도 않고 있다.

고택의 진입로는 차량이 이동하는 수인산업도로 진입부인 동구에서도 고택의 모습이 인지되지 않는다. 조선후기 상류층 살림집인 고가가 있다는 사실을 외부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유도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마을 내부로 들어 올 때 또 하나의 안내유도판이 경성당 표지판과 함께 추가설치 될 것이 요구된다.

나) 기존 주변건물의 정비

일반적으로 고택 내에는 안채, 사랑채, 바깥채가 구성되어 있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제 설비에 따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기능의 공간도 영역 내에 함께 소재하게

되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원형을 찾아 복구되었다고 판단된다. 현재 고택 내에는 안방 좌측 편에 큰 공간인 공자시설이 있고 반대편, 그리고 전면부에도 도처에 공장시설이 산재하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접부지의 건물들은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것 또한 원형 고증 후 복원하여 건물의 정비와 활용에 대한 장기적, 단계적인 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 화단의 정비

화계의 조성, 식목, 뒤안의 활용, 경사지의 조절과 담의 구성방법 등은 향촌에 조영된 반가의 특징을 보이도록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수목식재 및 활용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전 도면과 같이 후원과 주생활공간인 안마당과 경계를 구획하는 담장과 문의 설치가 추가 필용하다.

라) 주변 보호수 및 수목정비

주변에는 제례에 사용 할 수 있는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목전제는 물론 나무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 측면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집 주변에 또다른 식재계획이 필요하다.

다. 건물의 기법 배경

1) 목조 건축기법의 수용

안채의 대청 상부 가구 결구와 기둥과 주초석, 대량, 퇴량 그리고 건물내부 상부가구 부재 등의 치목 등, 그리고 사랑채와 바깥채 등에서 조선후기 건축기법을 엿볼 수 있다.

기법을 간략화해서 부재를 소박하게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공역을 들이는 건축기법이 채택된 점은 지방목수가 공역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건물을 복원하는 경우에 있어 건물의 기법이 보인 조선 후기대로 잘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석조물 기법 적용

건물의 격과는 달리 안채 전면 기단과 사랑채 일부는 화강석 장대석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외는 주변에 채집된 자연석 마감으로 혼용되어 있는데 향후 보수시 기단은 안채와 사랑채 화강석 장대석의 기단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가. 사회적 배경

진주류씨 16대손 삼척부사를 지낸 류시회(柳時會: 1562~1635,11세손)가 순수 청문당의 건물을 조영하여 건립하였으므로 그 시기는 17세기 초기로 판단된다. 이때 배후의 지원과 진주류시 가문의 재력을 바탕으로 바닷가 가까운 곳에 명당자리를 잡고, 넓은 들과 밭을 지닌 지역의 풍토 위에 가옥을 건립한 것이다.

나. 조형 기법

재력가에 의해 가옥이 창건되고, 그간 수차례 중수・보수되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고택이 건립된 17세기 초기이고, 그간 여러 차례 중수 및 보수가 시행되었다고 여겨진다.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면서 2000년대에 4차례의 보수공사가 있었다.

건물의 주초를 비롯한 사각형의 민흘림기둥은 중요부분에서 조선후기의 지방의 격식이 있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건물의 평면중 안채는 전면 5칸, 측면 2칸으로 전면을 개방한 형태를 하고 있다.

전면 기단은 장대석 외벌대 쌓기를 하고 배면과 우측은 자연석 외벌대와 이벌대 쌓기를 하였다. 일부는 방형의 다듬돌 주초를 놓고 사각기둥을 세웠으며, 안채와 사랑채 가구구조는 1고주 5량 집으로 되어 있고, 바깥채는 3량 가구로 처리하였다. 대들보를 전면 고주와 배면 평주(平柱)에 걸고, 이 위에 종량을 설치하고 높이가 낮은 판대공을 세워 중도리를 받치고 , 대청은 반자 없이 서까래를 노출하고 있다. 건물 내부는 건실한 우물마루가 깔려있고, 외부의 기단 위에는 강회다짐으로 마감하였으며, 처마는 홑처마이고, 양 측면에는 박공을 달았다.

안채는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고, 사랑채는 팔작지붕이다. 지붕은 여러 곡선들로 많은 곡을 지니며 모든 부분에서 곡을 찾아볼 수 있다.

부 록

1. 단색사진
2. 실측도면
3. 참고문헌



1. 단색사진(단색화보)

■ 청문당 도면(1984)

[그림001] 청문당 배치도 (안산시사,2006) ····· 167
[그림002] 청문당 배치도 (경기건축문화유산,2006) ···· 167

■ 청문당 옛사진(2006)

[사진001] 청문당 안채 전경 ····· 168
[사진002] 청문당 사랑채 전경 ····· 168
[사진003] 청문당 사랑채 및 아래채, 안마당 전경 ····· 168
[사진004] 청문당 안채 가구 전경 ····· 169
[사진005] 청문당 안채 합각부 전경 ····· 169
[사진006] 청문당 사랑채 전면 전경 ····· 169
[사진007] 청문당 사당 전경 ····· 169
[사진008] 청문당 사랑채 대문간 전면 전경 ····· 169
[사진009] 청문당 안채 마루 전경 ····· 169

■ 청문당(淸聞堂)

[사진010] 청문당 전면 원경 ····· 170
[사진011] 청문당 배면 원경 ····· 170
[사진012] 청문당 전면 근경 ····· 171
[사진013] 청문당 배면 근경 ····· 171

□ 안채

[사진014] 안채 전면 전경 ····· 172
[사진015] 안채 전면 우측부 전경 ····· 172
[사진016] 안채 전면부 전경 ····· 173
[사진017] 안채 배면부 전경 ····· 173
[사진018] 안채 배면 좌측부 전경 ····· 174
[사진019] 안채 배면우측부 전경 ····· 174
[사진020] 안채 전면좌측부 기단 ····· 175
[사진021] 안채 전면 기단 ····· 175
[사진022] 안채 전면 기단과 디딤돌 ····· 175
[사진023] 안채 전면우측부 기단 ····· 175
[사진024] 안채 기단 ····· 175
[사진025] 안채 우측면 기단 ····· 176
[사진026] 안채 배면좌측단부 기단 ····· 176
[사진027] 안채 전면중앙부 기단 ····· 176
[사진028] 안채 전면중앙부 기단 ····· 176
[사진029] 안채 전면 기단부 전경 ····· 176
[사진030] 안채 배면 기단부 전경 ····· 176
[사진031] 안채 전면 초석4 ····· 177
[사진032] 안채 전면 초석5 ····· 177
[사진033] 안채 우측면 초석8 ····· 177
[사진034] 안채 우측면 초석10 ····· 177
[사진035] 안채 전면 좌측부 초석과 디딤돌 ····· 177
[사진036] 안채 전면증앙부 우측 기둥 ····· 178
[사진037] 안채 전면증앙부 좌측 기둥 ····· 178
[사진038] 안채 좌측부 기둥 ····· 178
[사진039] 안채 부엌 기둥 ····· 178
[사진040] 안채 대청상부 대량과 대공 ····· 179
[사진041] 안채 대청상부 대공 ····· 179
[사진042] 안채 중앙부 대공 ····· 179
[사진043] 안채 대청상부 중도리와 연목 ····· 179
[사진044] 안채 대청상부 중보와 도리 ····· 179
[사진045] 안채 대청상부 중도리 ····· 179
[사진046] 안채 대청상부 중도리 결구 ····· 179
[사진047] 안채 대청상부 대량 결구 ····· 179
[사진048] 안채 우측배면부 처마 ····· 180
[사진049] 안채 좌측배면부 처마 ····· 180
[사진050] 안채 전면우측부 처마 ····· 180
[사진051] 안채 좌측면 처마 ····· 180
[사진052] 안채 전면중앙우측부 처마 ····· 180
[사진053] 안채 전면 중앙부 처마 ····· 180
[사진054] 안채 전면중앙부 처마 ····· 180
[사진055] 안채 전면중앙부 처마 ····· 180
[사진056] 안채 부엌상부 종도리와 대공 결구 ····· 181
[사진057] 안채 부엌상부 가구 결구 ····· 181
[사진058] 안채 우측단부 벽체수장 ····· 182
[사진059] 안채 우측부 벽체수장 ····· 182
[사진060] 안채 전면 벽체 창호 수장 ····· 182
[사진061] 안채 전면우측부 벽체수장 ····· 182
[사진062] 안채 전면 중앙부 벽체수장 ····· 183
[사진063] 안채 우측부 벽체수장 ····· 183
[사진064] 안채 우측부 벽체수장 전경 ····· 183
[사진065] 안채 배면부 벽체수장 전경 ····· 184
[사진066] 안채 좌측부 벽체수장 전경 ····· 184
[사진067] 안채 대청마루 ····· 185
[사진068] 안채 전면우측부 툇마루 ····· 185
[사진069] 안채 전면중앙부 툇마루 ····· 185
[사진070] 안채 전면우측부 툇마루 ····· 185
[사진071] 안채 우측부 툇마루 ····· 185
[사진072] 안채 전면중앙부 툇마루 ····· 186
[사진073] 안채 우측면 툇마루 ····· 186
[사진074] 안채 전면좌측부 툇마루 ····· 186
[사진075] 안채 전면우측부 툇마루 ····· 186
[사진076] 안채 부엌 아궁이 ····· 186
[사진077] 안채 우측부 부엌 아궁이 ····· 186
[사진078] 안채 전면 창호 전경 ····· 187
[사진079] 안채 배면 창호 ····· 187
[사진080] 안채 좌측면 부엌 판문 ····· 187
[사진081] 안채 대청 배면부 창호 ····· 188
[사진082] 안채 전면좌측부 부엌판문 ····· 188
[사진083] 안채 좌측면 외부창호 ····· 188
[사진084] 안채 좌측면 부엌 채광창호 ····· 188
[사진085] 안채 우측면 창호 ····· 188
[사진086] 안채 우측단부 창호 ····· 188
[사진087] 안채 우측 건넌방 내부창호 ····· 188
[사진088] 안채 대청 창호 ····· 188
[사진089] 안채 전면우측 창호철물 ····· 189
[사진090] 안채 전면 소슬창호 ····· 189
[사진091] 안채 전면 우측 국화정 ····· 189
[사진092] 안채 안방 문고리 ····· 189
[사진093] 안채 우측면 지붕 전경 ····· 189
[사진094] 안채 우측면 지붕과 합각 ····· 189
[사진095] 안채 좌측 지붕 ····· 189
[사진096] 안채 좌측전면 용마루 망와 ····· 189
[사진097] 안채 좌측면 합각 ····· 190
[사진098] 안채 좌측면 합각부 목기연 ····· 190
[사진099] 안채 전면 용마루 ····· 190
[사진100] 안채 좌측부 지붕마루 ····· 190
[사진101] 안채 지붕 전경 ····· 190

□ 사랑채

[사진102] 사랑채 전면 전경 ····· 191
[사진103] 사랑채 배면 전경 ····· 191
[사진104] 사랑채 좌측면 근경 ····· 192
[사진105] 사랑채 배면 근경 ····· 192
[사진106] 사랑채 전면 기단 ····· 193

[사진107] 사랑채 전면누마루 하부 기단 ····· 193
[사진108] 사랑채 전면부 기단 ····· 193
[사진109] 사랑채 전면우측단부 기단 ····· 193
[사진110] 사랑채 전면좌측단부 기둥 ····· 193
[사진111] 사랑채 우측면 기단 ····· 193
[사진112] 사랑채 전면 초석 ····· 194
[사진113] 사랑채 전면 중앙부 초석 ····· 194
[사진114] 사랑채 전면누마루 하부 초석 ····· 194
[사진115] 사랑채 누마루 하부 초석 ····· 194
[사진116] 사랑채 배면 기단과 초석 ····· 194
[사진117] 사랑채 전면 기단과 초석 ····· 194
[사진118] 사랑채 전면 가구 전경 ····· 195
[사진119] 사랑채 좌우단부 처마 ····· 195
[사진120] 사랑채 전면중앙부 처마 ····· 195
[사진121] 사랑채 전면우측부 처마와 가구 ····· 195
[사진122] 사랑채 전면우측부 퇴보 가구 ····· 195
[사진123] 사랑채 전면우측부 벽체수장 ····· 196
[사진124] 사랑채 대청 전면 벽체수장 ····· 196
[사진125] 사랑채 전면좌측부 벽체수장 ····· 196
[사진126] 사랑채 전면 벽체수장 ····· 196
[사진127] 사랑채 우측면 벽체수장 ····· 197
[사진128] 사랑채 배면부 벽체수장 ····· 197
[사진129] 사랑채 전면 툇마루 ····· 198
[사진130] 사랑채 전면 퇴와 누마루 ····· 198
[사진131] 사랑채 배면 부엌상부 가구 ····· 198
[사진132] 사랑채 배면 부엌상부 가구 ····· 198
[사진133] 사랑채 배면 광상부 처마 가구 ····· 198
[사진134] 사랑채 전면우측단부 선자서까래 ····· 198
[사진135] 사랑채 대청 상부가구 ····· 199
[사진136] 사랑채 대청 상부가구 ····· 199
[사진137] 사랑채 방 전경 ····· 199
[사진138] 사랑채 좌측단부 방 전경 ····· 199
[사진139] 사랑채 방 천정 ····· 199
[사진140] 사랑채 방 바닥 ····· 199
[사진141] 사랑채 배면 아궁이 ····· 199
[사진142] 사랑채 배면 우측부 판자 ····· 199
[사진143] 사랑채 전면 방 창호 ····· 200
[사진144] 사랑채 대청 창호 ····· 200
[사진145] 사랑채 툇마루 단부 창호 ····· 200
[사진146] 사랑채 대청상부 창호 ····· 200
[사진147] 사랑채 방 전면 내부창호 ····· 200
[사진148] 사랑채 좌측부 지붕 ····· 201
[사진149] 사랑채 전면 처마 ····· 201
[사진150] 사랑채 전면 툇마루와 누마루 ····· 201
[사진151] 사랑채 전면 툇마루 ····· 201
[사진152] 사랑채 우측부 합각 ····· 201
[사진153] 사랑채 우측부 용마루 망와 ····· 201
[사진154] 사랑채 배면 지붕 전경 ····· 201
[사진155] 사랑채 지붕 전경 ····· 201

□ 대문채

[사진156] 대문채 외부 전면 근경 ····· 202
[사진157] 대문채 외부 근경 ····· 202
[사진158] 대문채 대문 외부 전경 ····· 203
[사진159] 대문채 대문 내부 전경 ····· 203
[사진160] 대문채 대문간 외부 근경 ····· 204
[사진161] 대문채 대문간 내부 전경 ····· 204
[사진162] 대문채 지붕 전경 ····· 204

□ 바깥채(아래채)

[사진163] 바깥채 외부 전면/좌측면 전경 ····· 205
[사진164] 바깥채 외부 전면/우측면 전경 ····· 205
[사진165] 바깥채 외부 좌측면 전경 ····· 206
[사진166] 바깥채 외부 배면/좌측면 전경 ····· 206
[사진167] 바깥채 전면좌측단부 추녀 ····· 207
[사진168] 바깥채 배면 처마 ····· 207
[사진169] 바깥채 전면좌측부 판장문 ····· 207
[사진170] 바깥채 배면 창호 ····· 207
[사진171] 바깥채 내부 온돌방 ····· 207
[사진172] 바깥채 내부 온돌방 창호 ····· 207
[사진173] 바깥채 배면좌측부 내림마루 ····· 207
[사진174] 바깥채 좌측부 합각 ····· 207

□ 사당(祠堂)

[사진175] 사당 외부 전면 전경 ····· 208
[사진176] 사당 외부 전경 ····· 208
[사진177] 사당 외부 우측면/배면 전경 ····· 208
[사진178] 사당 좌측면 근경 ····· 208
[사진179] 사당 우측면 근경 ····· 208
[사진180] 사당 전면 기단 ····· 209
[사진181] 사당 우측면 벽체 수장 ····· 209
[사진182] 사당 내부 대량과 종도리 결구 ····· 209
[사진183] 사당 내부 가구결구 ····· 209
[사진184] 사당 내부 전경 ····· 209

□ 사주문(四柱門)

[사진185] 사주문 우측면 전경 ····· 210
[사진186] 사주문 좌측면 전경 ····· 210
[사진187] 사주문 가구 ····· 210
[사진188] 사주문 우측상부 수장상세 ····· 210
[사진189] 사주문 전경 ····· 210

□ 담장(墻垣)

[사진190] 전면부 외부 담장 전경 ····· 211
[사진191] 대문간 내부 담장 전경 ····· 211
[사진192] 바깥채 배면부 외부담장 전경 ····· 211
[사진193] 안채 좌측부 외부담장 전경 ····· 211

□ 부가시설물

[사진194] 안채 좌측부 소화방수전 ····· 211
[사진195] 안채 좌측부 감지기 ····· 211

□ 상수원

[사진196] 안마당 우물 전경 ····· 212
[사진197] 안마당 우물내부 전경 ····· 212

□ 화단(花園)

[사진198] 뒷마당(후원) 화단과 축대 전경 ····· 212
[사진199] 후원 전경 ····· 212
[사진200] 가옥뒤 과수원 전경 ····· 212

□ 채마밭(菜蔬田)

[사진201] 안채 좌측부 채마밭 전경 ····· 213
[사진202] 바깥채 배면 채마밭 전경 ·····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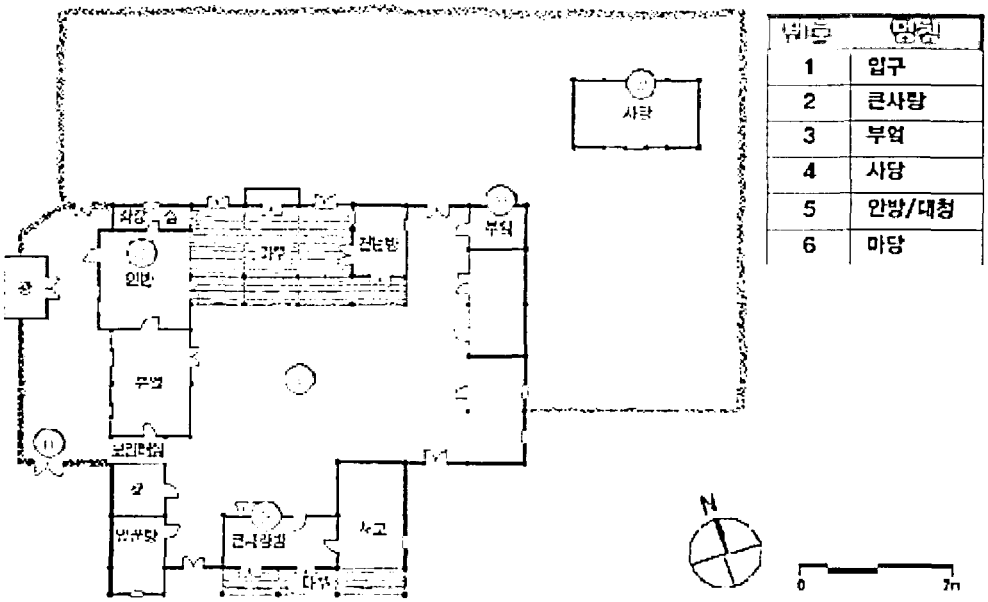
□ 연지(蓮池)

[사진203] 연지 전경 ····· 213
[사진204] 연지와 청문당 전경 ·····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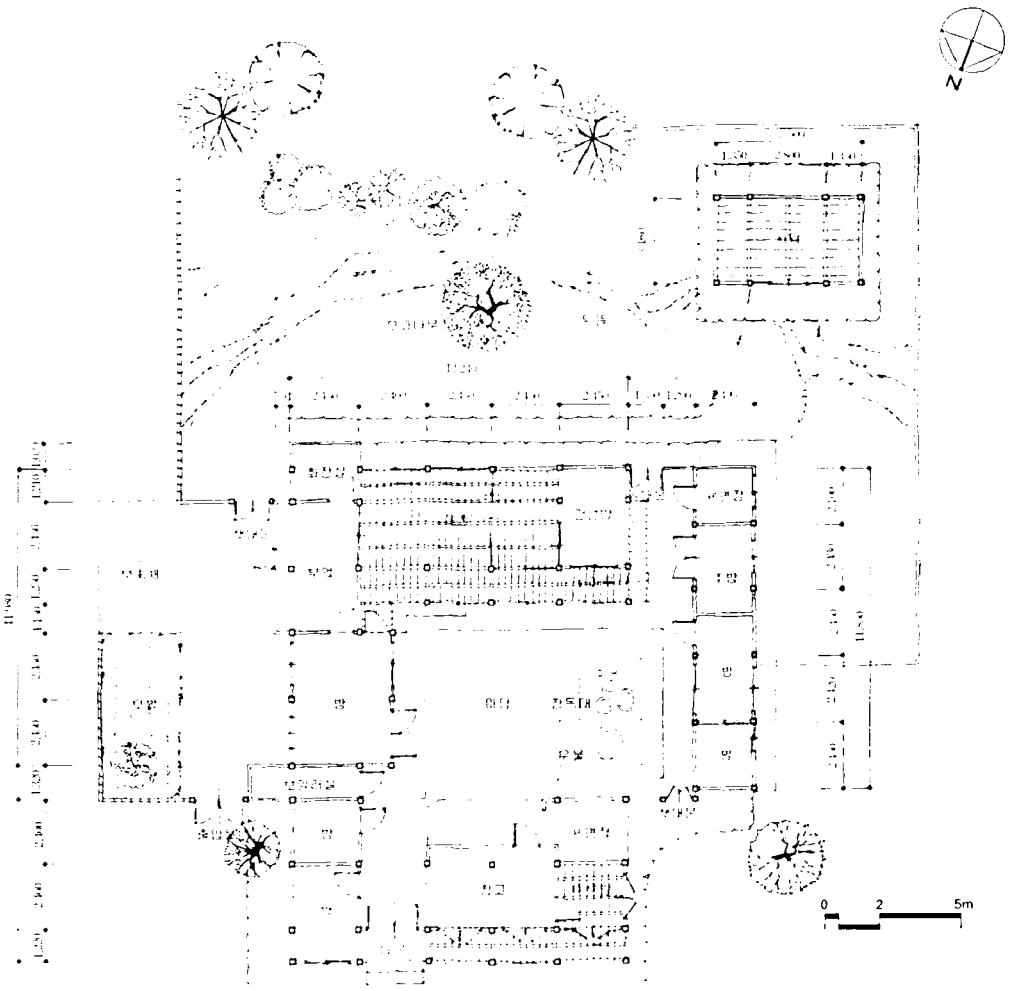
□ 수목(樹木)

[사진205] 후원 모과나무 전경 ····· 213
[사진206] 은행나무 전경 ····· 213

■ 청문당 도면(1984년)



[그림001] 청문당 배치도 (안산시사,2006)



[그림002] 청문당 배치도 (경기건축문화유산,2006)

■ 청문당 옛사진

(출전: 경기문화재단, 경기건축문화유산, 2006)



[사진001] 청문당 안채 전경



[사진002] 청문당 사랑채 전경



[사진003] 청문당 사랑채 및 아래채, 안마당 전경



[사진004] 청문당 안채 가구 전경



[사진005] 청문당 안채 합각부 전경



[사진006] 청문당 사랑채 전면 전경



[사진007] 청문당 사당 전경



[사진008] 청문당 사랑채 대문간 전면 전경



[사진009] 청문당 안채 마루 전경

■ 청문당(淸聞堂)

□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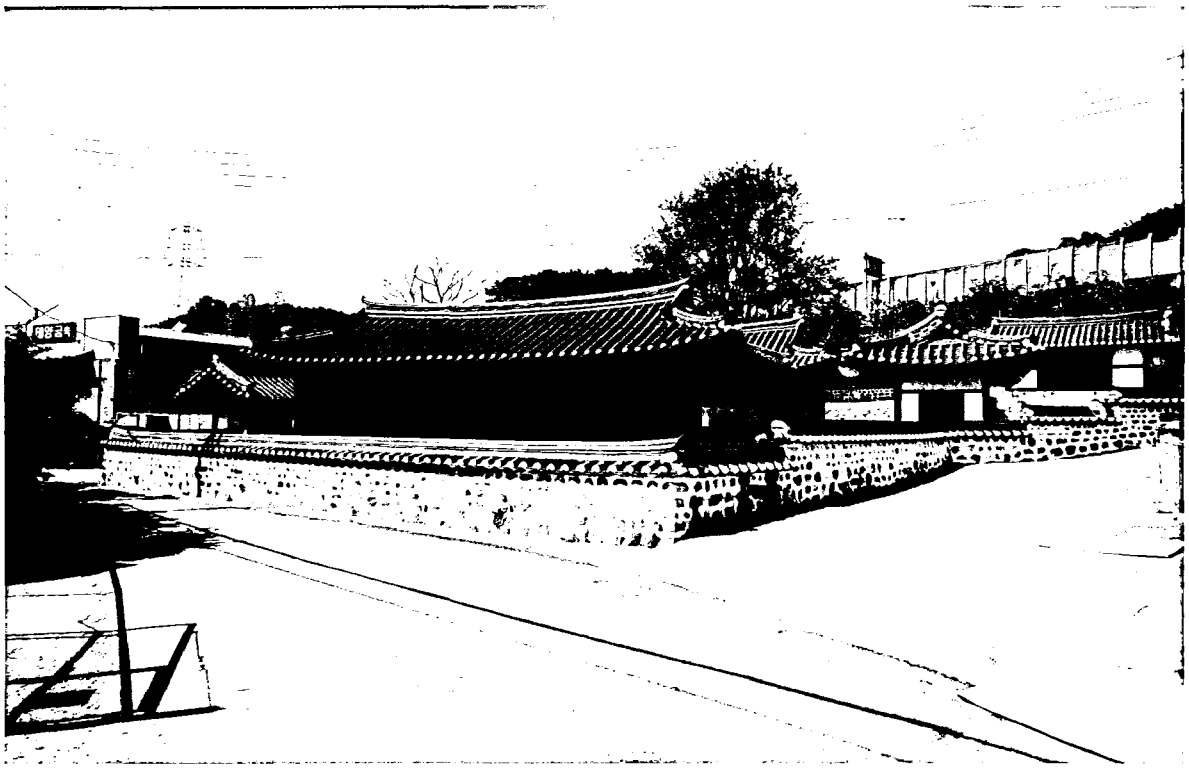


[사진010] 청문당 전면 원경



[사진011] 청문당 배면 원경

□ 근경



[사진012] 청문당 전면 근경



[사진013] 청문당 배면 근경

□ 안채



[사진014] 안채 전면 전경



[사진015] 안채 전면 우측부 전경



[사진016] 안채 전면부 전경



[사진017] 안채 배면부 전경



[사진018] 안채 배면 좌측부 전경



[사진019] 안채 배면우측부 전경



[사진020] 안채 전면좌측부 기단



[사진021] 안채 전면 기단



[사진022] 안채 전면 기단과 디딤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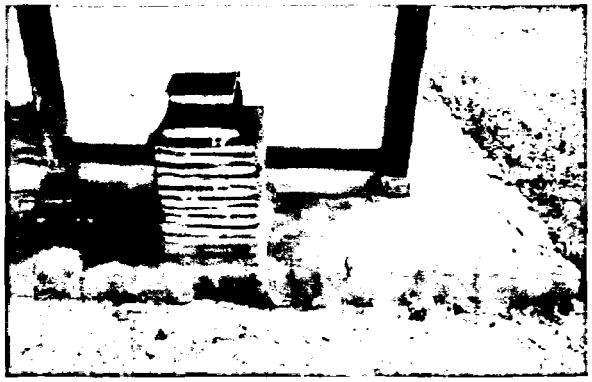
[사진023] 안채 전면우측부 기단



[사진024] 안채 기단



[사진025] 안채 우측면 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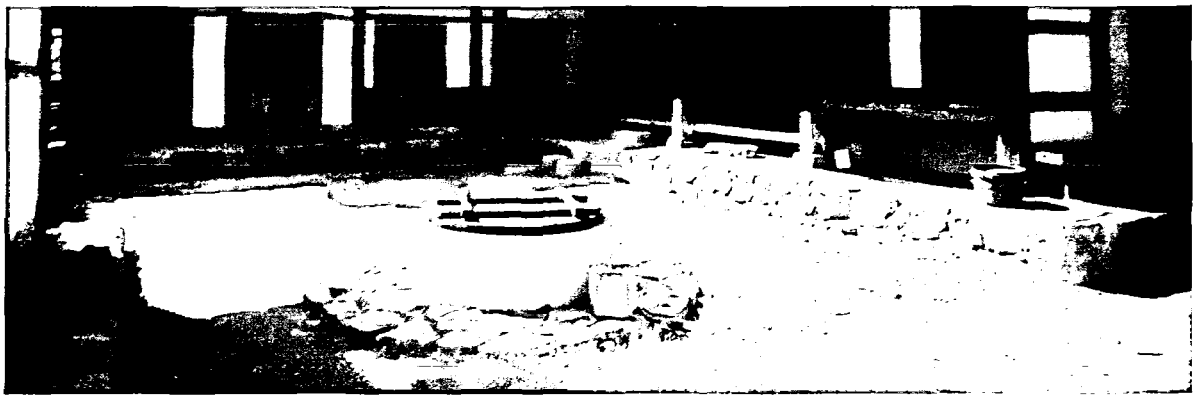
[사진026] 안채 배면좌측단부 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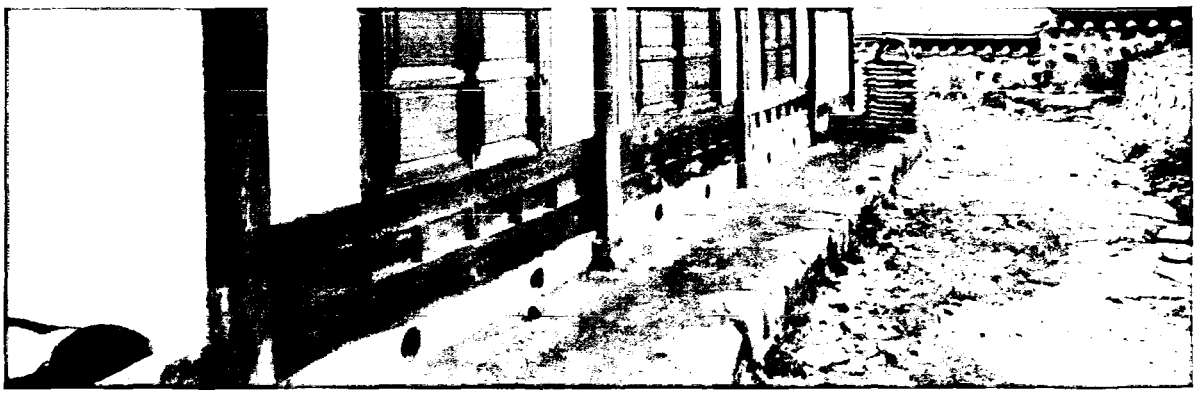
[사진027] 안채 전면중앙부 기단



[사진028] 안채 전면중앙부 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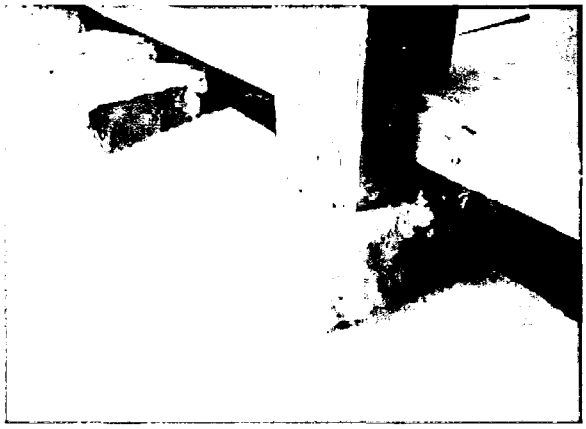
[사진029] 안채 전면 기단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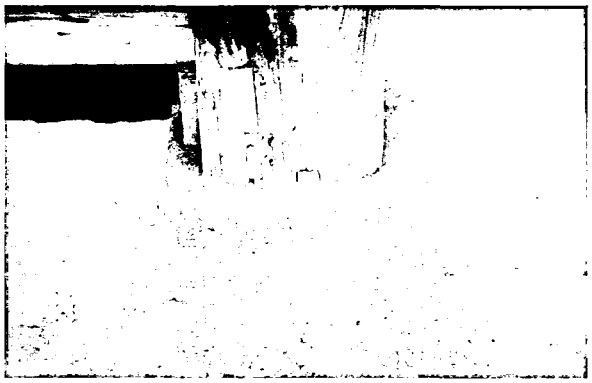
[사진030] 안채 배면 기단부 전경



[사진031] 안채 전면 초석4



[사진032] 안채 전면 초석5



[사진033] 안채 우측면 초석8



[사진034] 안채 우측면 초석10



[사진035] 안채 전면 좌측부 초석과 디딤돌



[사진036] 안채 전면중앙부 우측 기둥



[사진037] 안채 전면중앙부 좌측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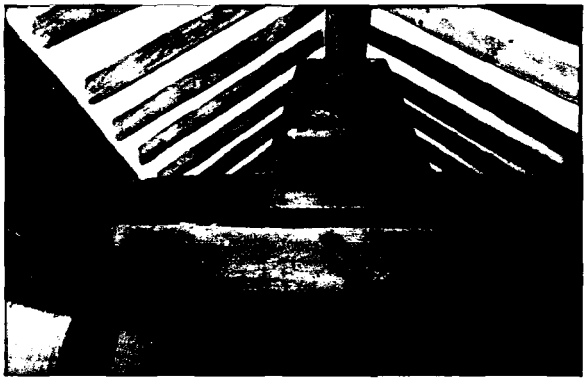
[사진038] 안채 좌측부 기둥



[사진039] 안채 부엌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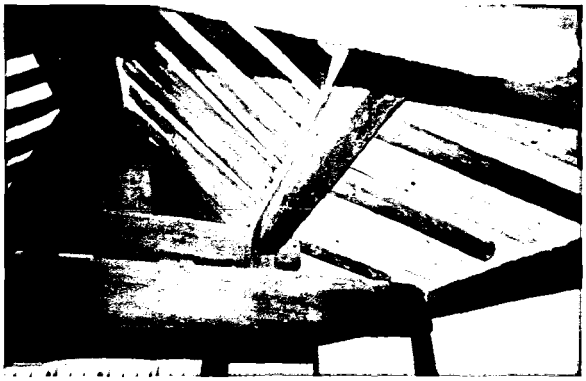
[사진040] 안채 대청상부 대량과 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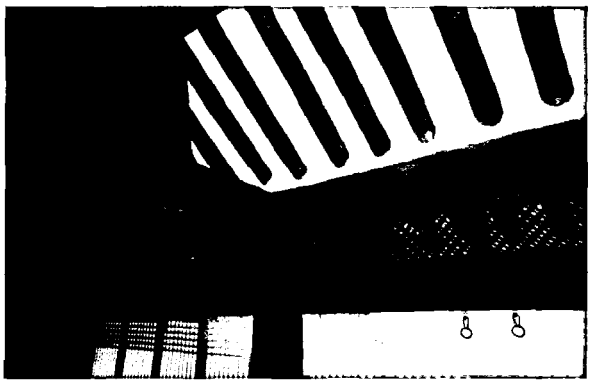
[사진041] 안채 대청상부 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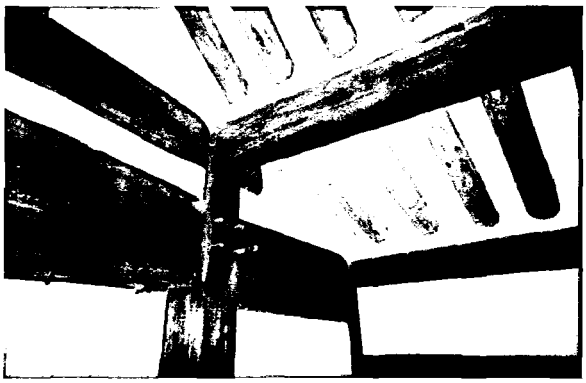
[사진042] 안채 중앙부 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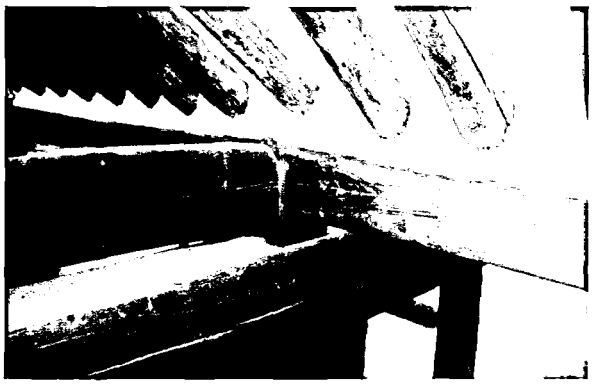
[사진043] 안채 대청상부 중도리와 연목



[사진044] 안채 대청상부 중보와 도리



[사진045] 안채 대청상부 중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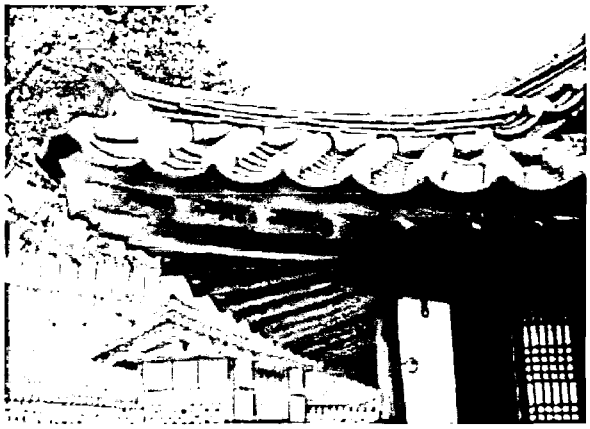
[사진046] 안채 대청상부 중도리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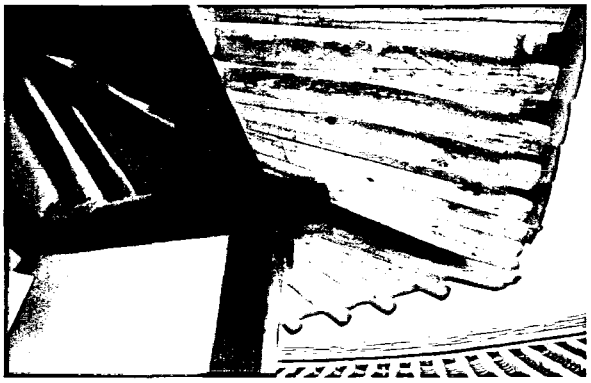
[사진047] 안채 대청상부 대량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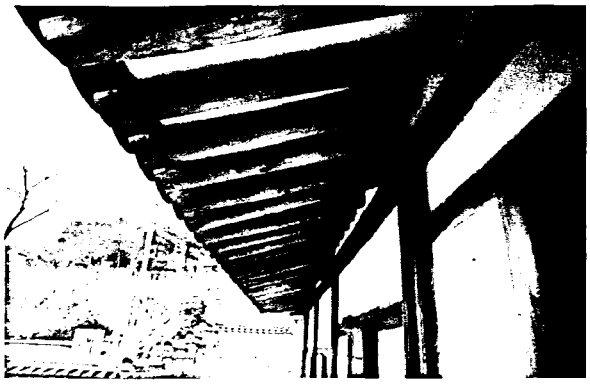
[사진048] 안채 우측배면부 처마



[사진049] 안채 좌측배면부 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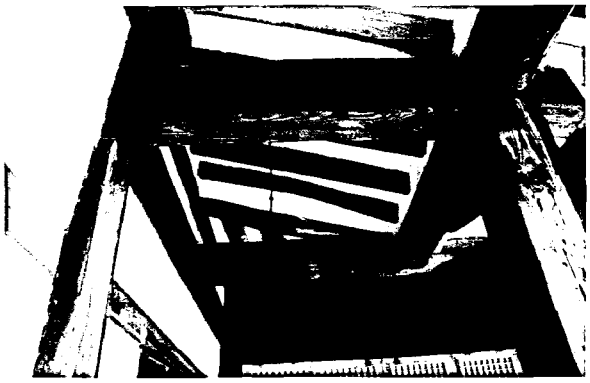
[사진050] 안채 전면우측부 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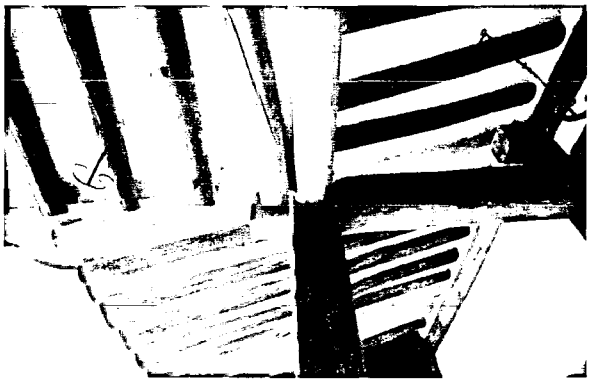
[사진051] 안채 좌측면 처마



[사진052] 안채 전면중앙우측부 처마



[사진053] 안채 전면 중앙부 처마



[사진054] 안채 전면중앙부 처마



[사진055] 안채 전면중앙부 처마



[사진056] 안채 부엌상부 종도리와 대공 결구



[사진057] 안채 부엌상부 가구 결구



[사진058] 안채 우측단부 벽체수장



[사진059] 안채 우측부 벽체수장



[사진060] 안채 전면 벽체 창호 수장



[사진061] 안채 전면우측부 벽체수장



[사진062] 안채 전면 중앙부 벽체수장



[사진063] 안채 우측부 벽체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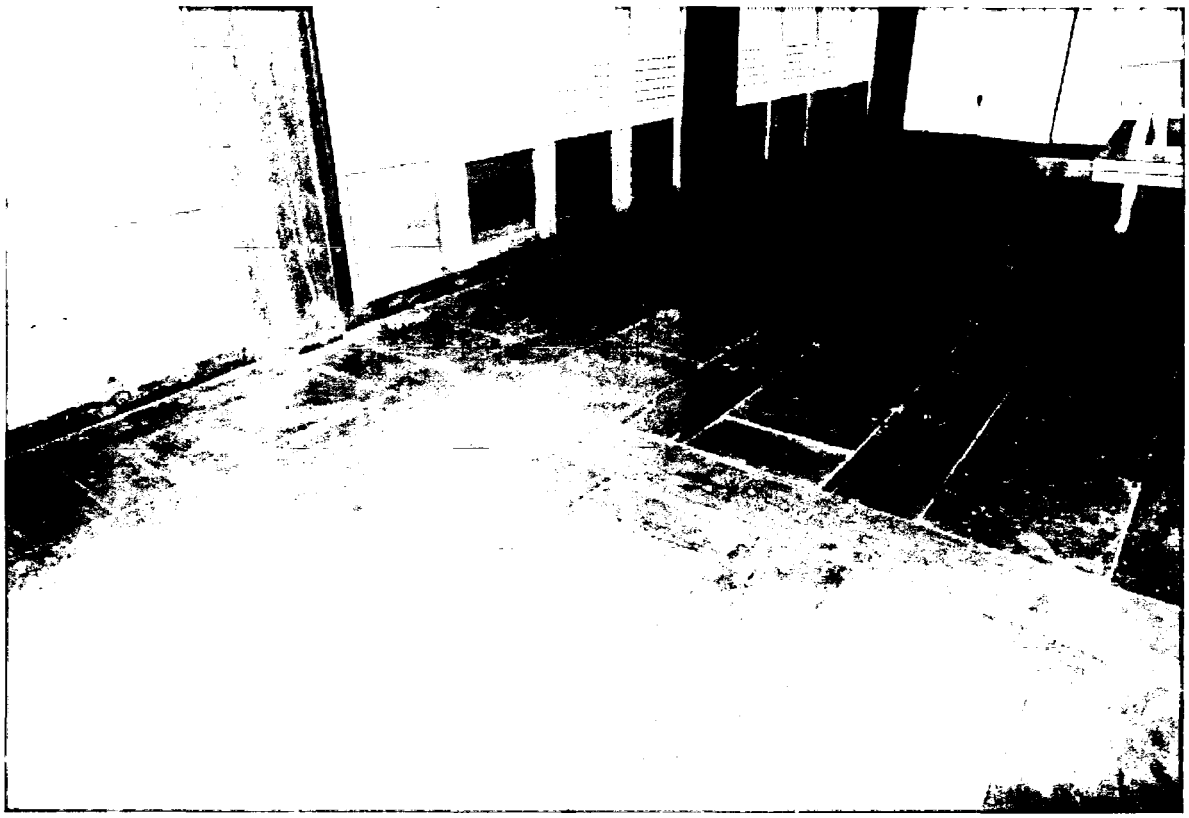
[사진064] 안채 우측부 벽체수장 전경



[사진065] 안채 배면부 벽체수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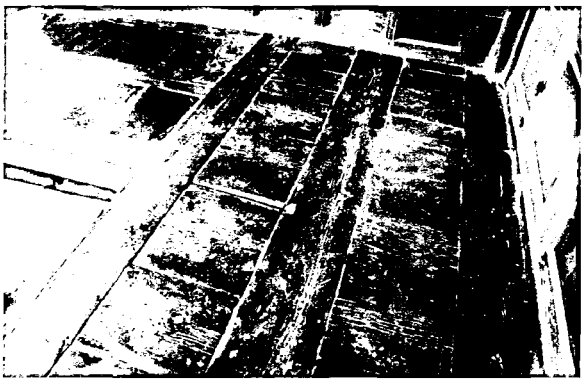
[사진066] 안채 좌측부 벽체수장 전경



[사진067] 안채 대청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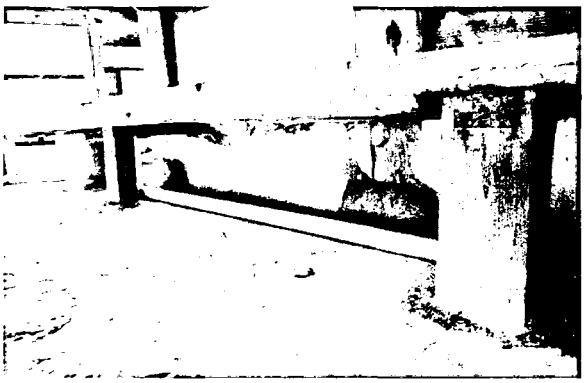
[사진068] 안채 전면우측부 툇마루



[사진069] 안채 전면중앙부 툇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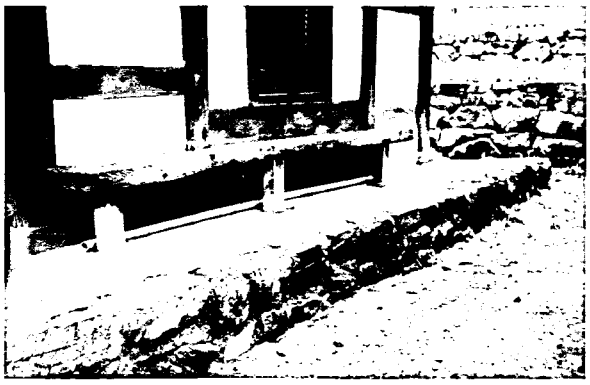
[사진070] 안채 전면우측부 툇마루



[사진071] 안채 우측부 툇마루



[사진072] 안채 전면중앙부 툇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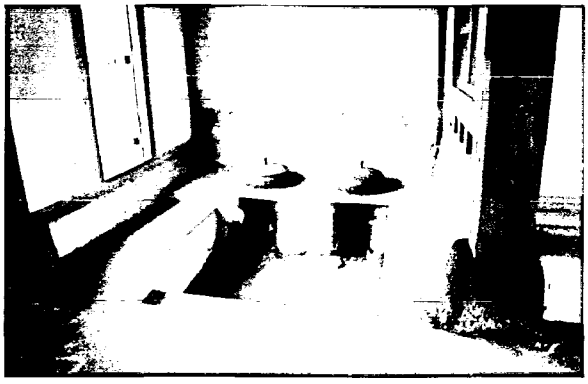
[사진073] 안채 우측면 툇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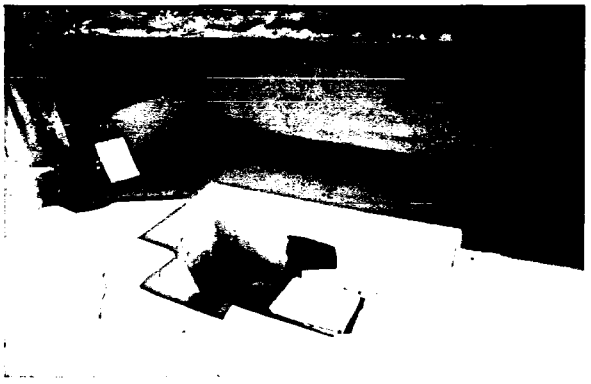
[사진074] 안채 전면좌측부 툇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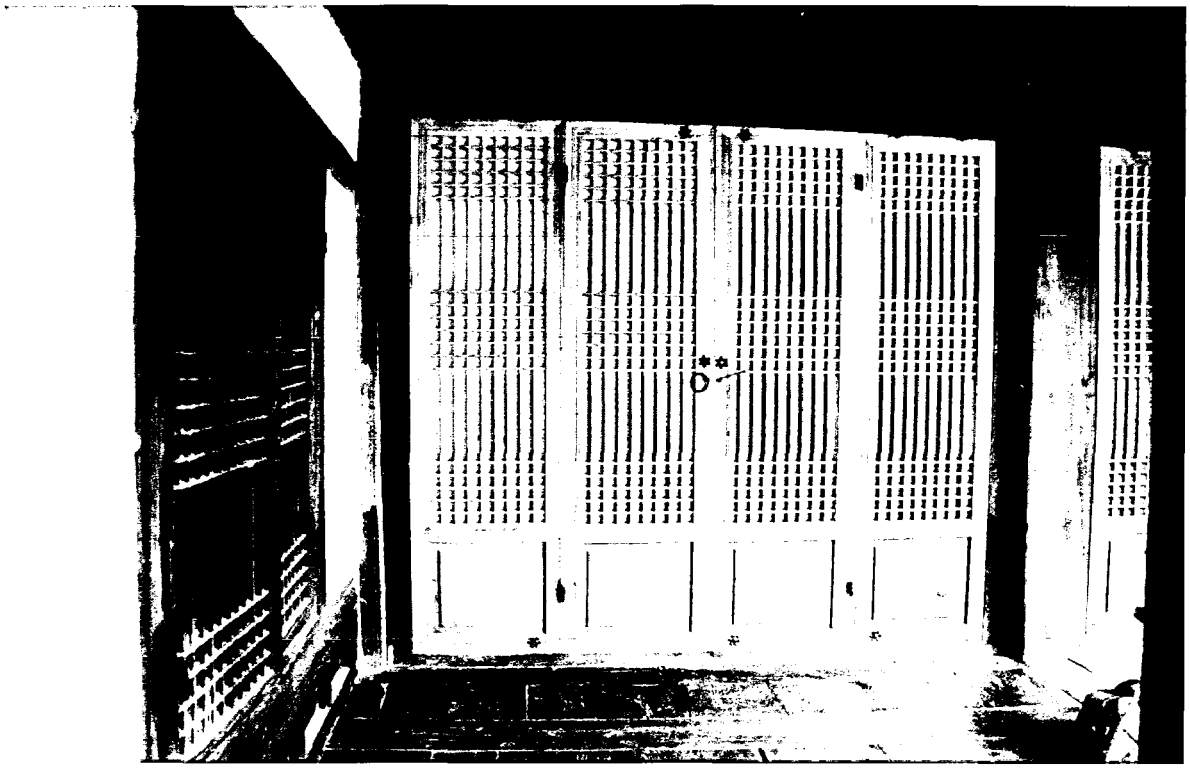
[사진075] 안채 전면우측부 툇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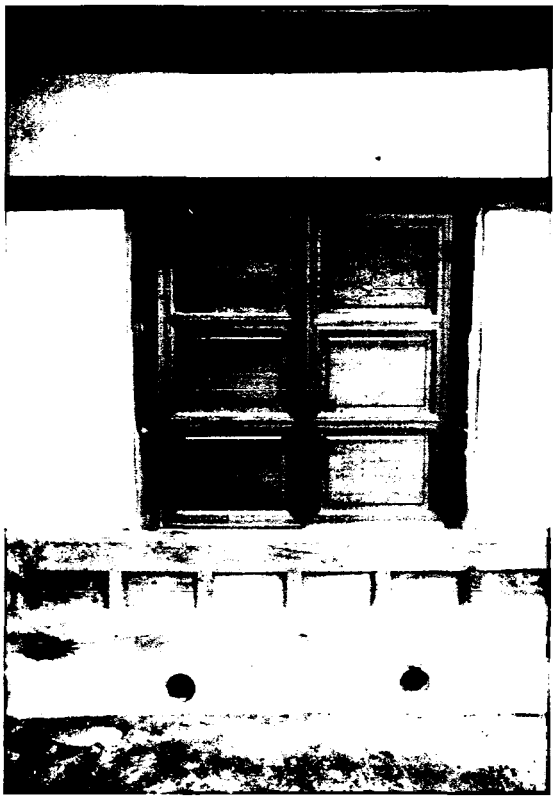
[사진076] 안채 부엌 아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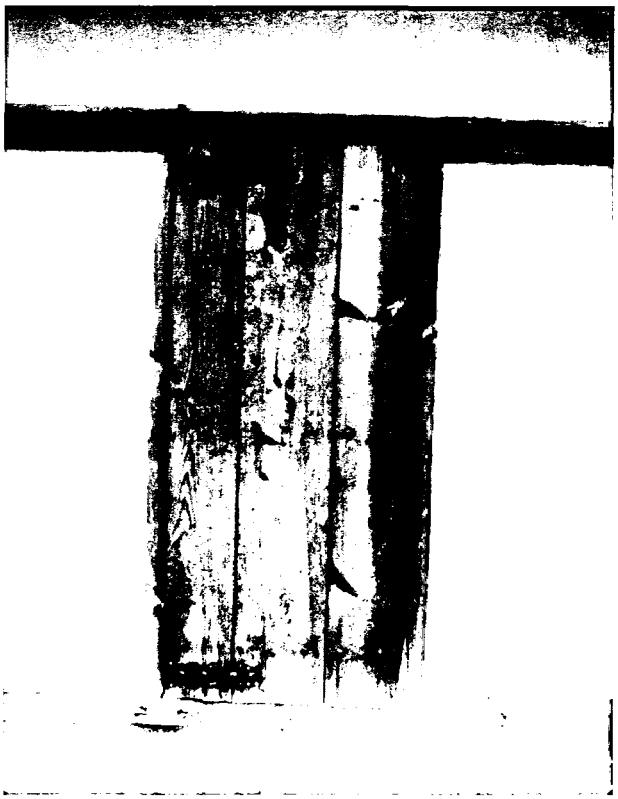
[사진077] 안채 우측부 부엌 아궁이



[사진078] 안채 전면 창호 전경



[사진079] 안채 배면 창호



[사진080] 안채 좌측면 부엌 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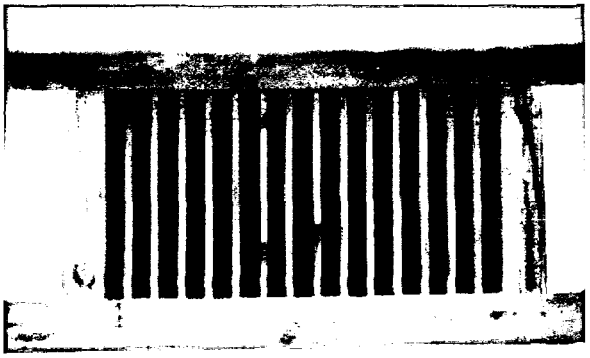
[사진081] 안채 대청 배면부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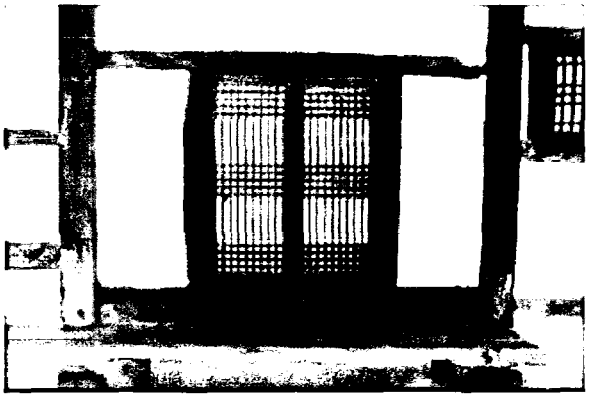
[사진082] 안채 전면좌측부 부엌판문



[사진083] 안채 좌측면 외부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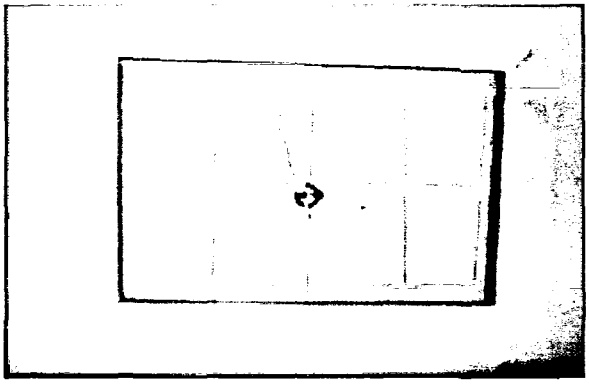
[사진084] 안채 좌측면 부엌 채광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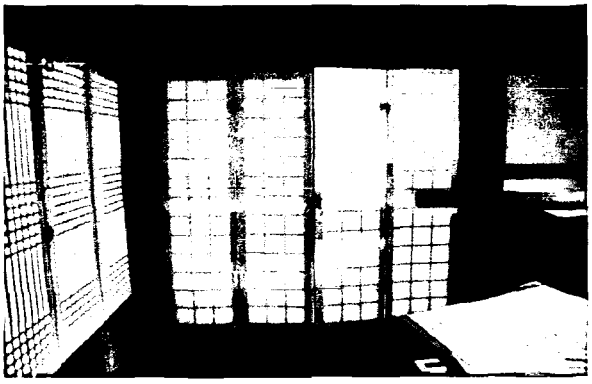
[사진085] 안채 우측면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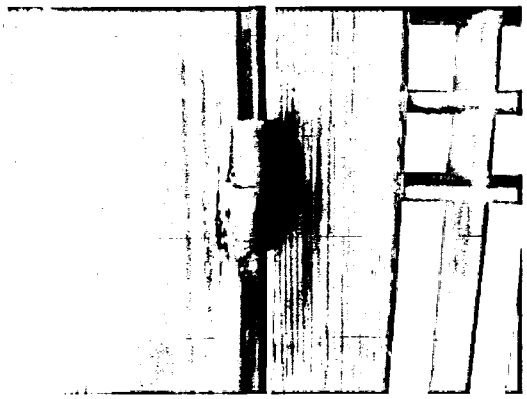
[사진086] 안채 우측단부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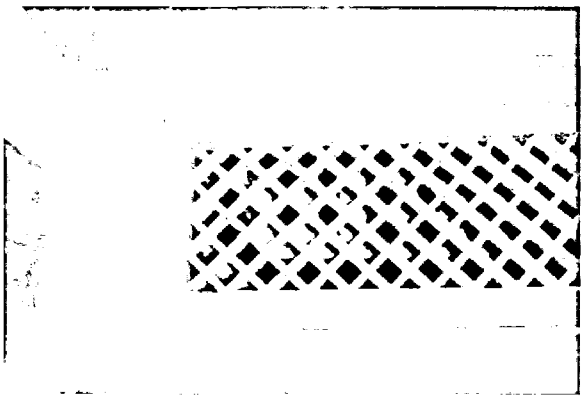
[사진087] 안채 우측 건넌방 내부창호



[사진088] 안채 대청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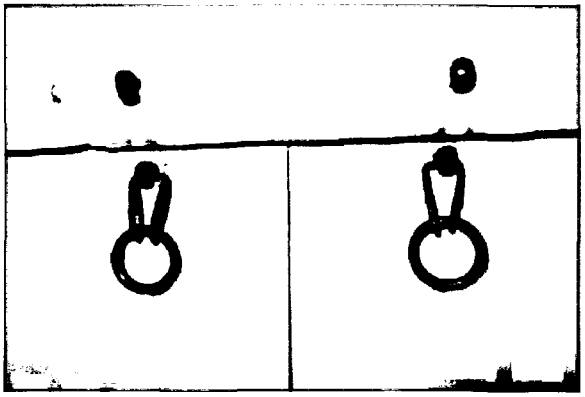
[사진089] 안채 전면우측 창호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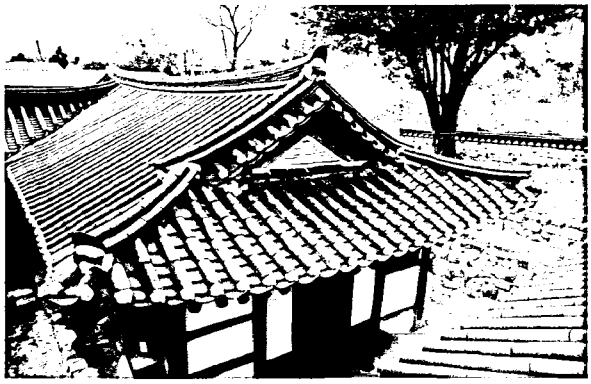
[사진090] 안채 전면 소슬창호



[사진091] 안채 전면 우측 국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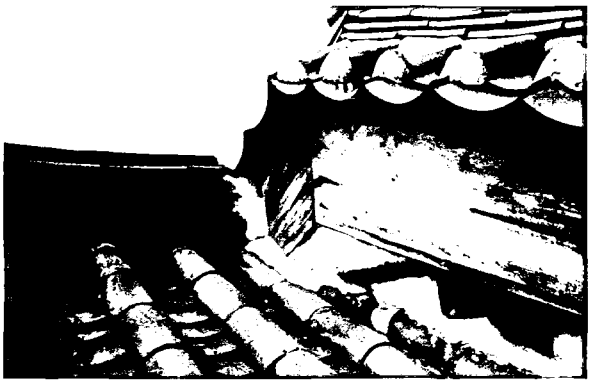
[사진092] 안채 안방 문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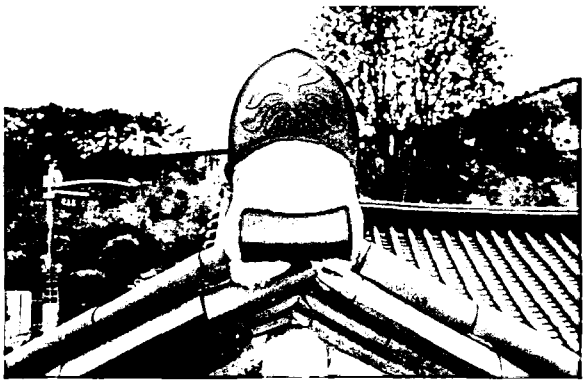
[사진093] 안채 우측면 지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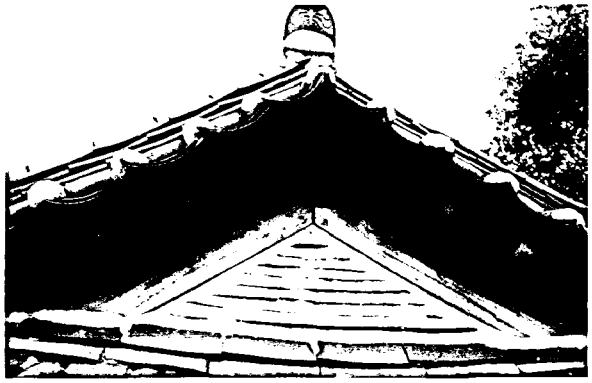
[사진094] 안채 우측면 지붕과 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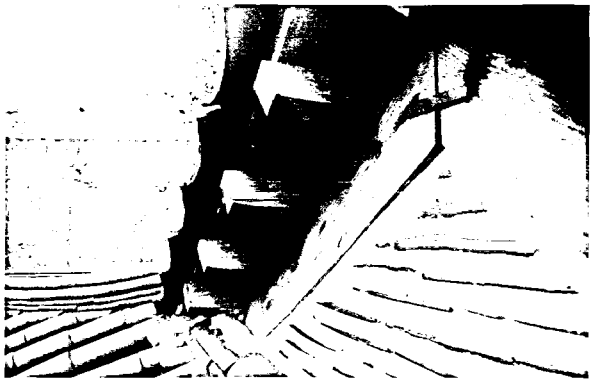
[사진095] 안채 좌측 지붕



[사진096] 안채 좌측전면 용마루 망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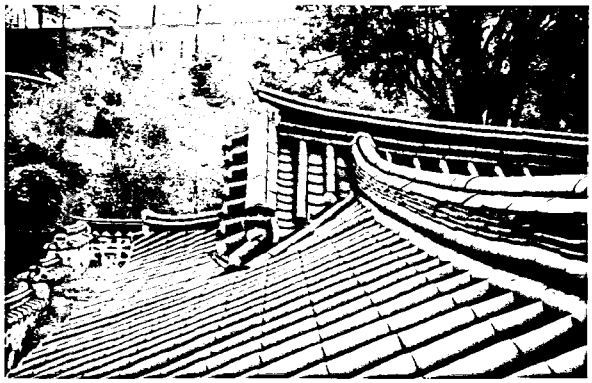
[사진097] 안채 좌측면 합각



[사진098] 안채 좌측면 합각부 목기연



[사진099] 안채 전면 용마루



[사진100] 안채 좌측부 지붕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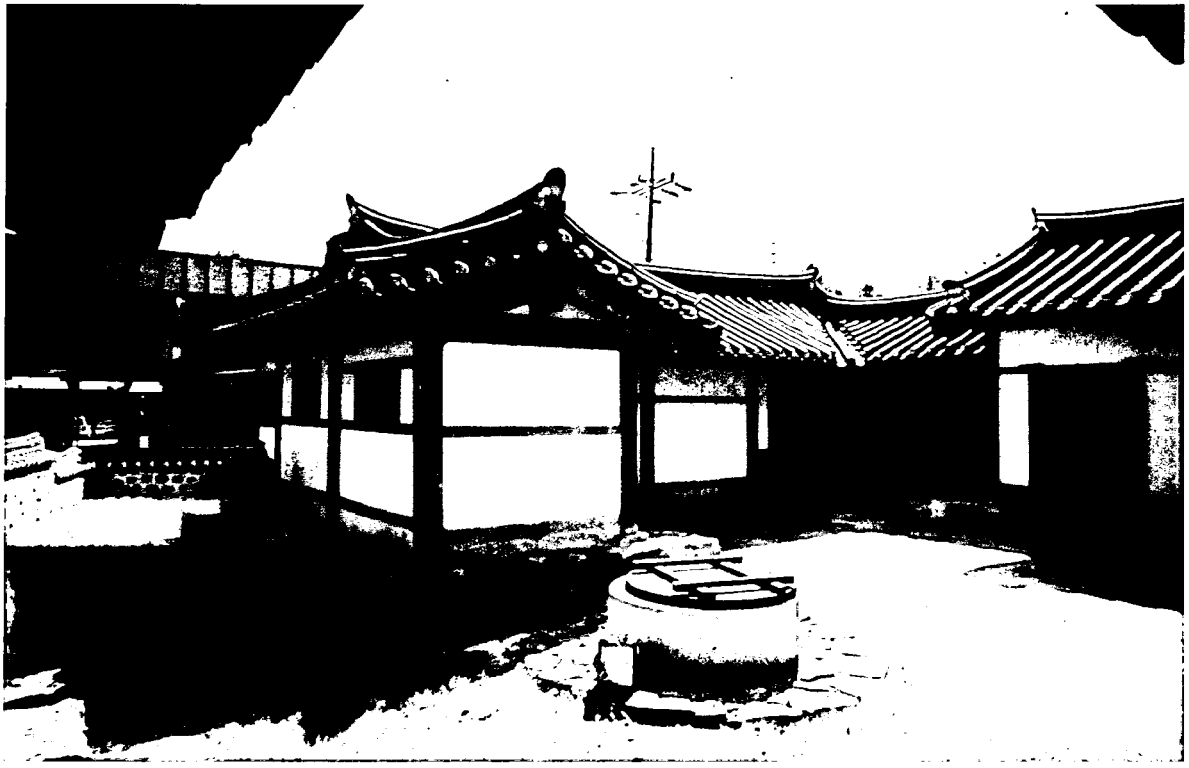


[사진101] 안채 지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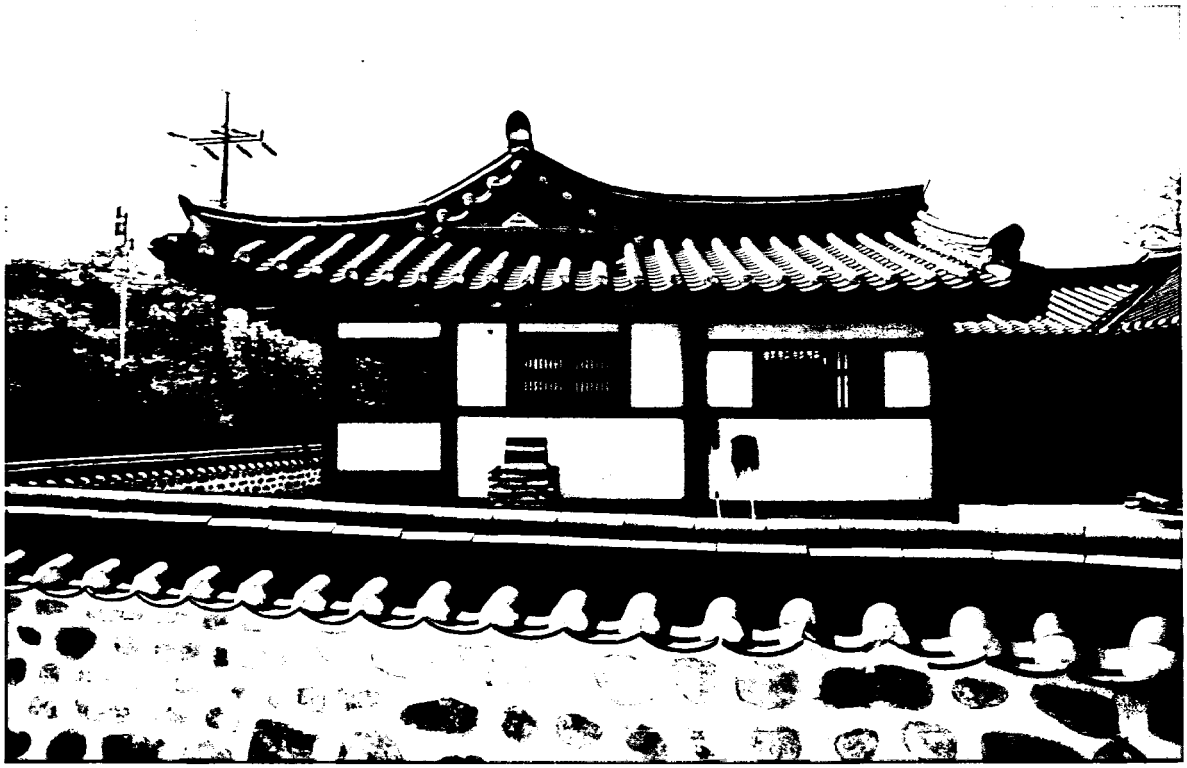
□ 사랑채



[사진102] 사랑채 전면 전경



[사진103] 사랑채 배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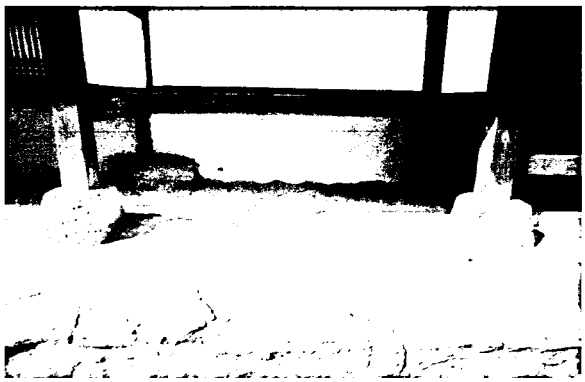
[사진104] 사랑채 좌측면 근경



[사진105] 사랑채 배면 근경



[사진106] 사랑채 전면 기단



[사진107] 사랑채 전면누마루 하부 기단



[사진108] 사랑채 전면부 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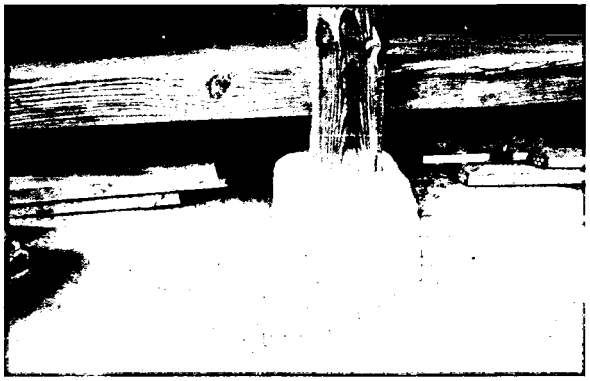
[사진109] 사랑채 전면우측단부 기단



[사진110] 사랑채 전면좌측단부 기둥



[사진111] 사랑채 우측면 기단



[사진112] 사랑채 전면 초석



[사진113] 사랑채 전면 중앙부 초석



[사진114] 사랑채 전면누마루 하부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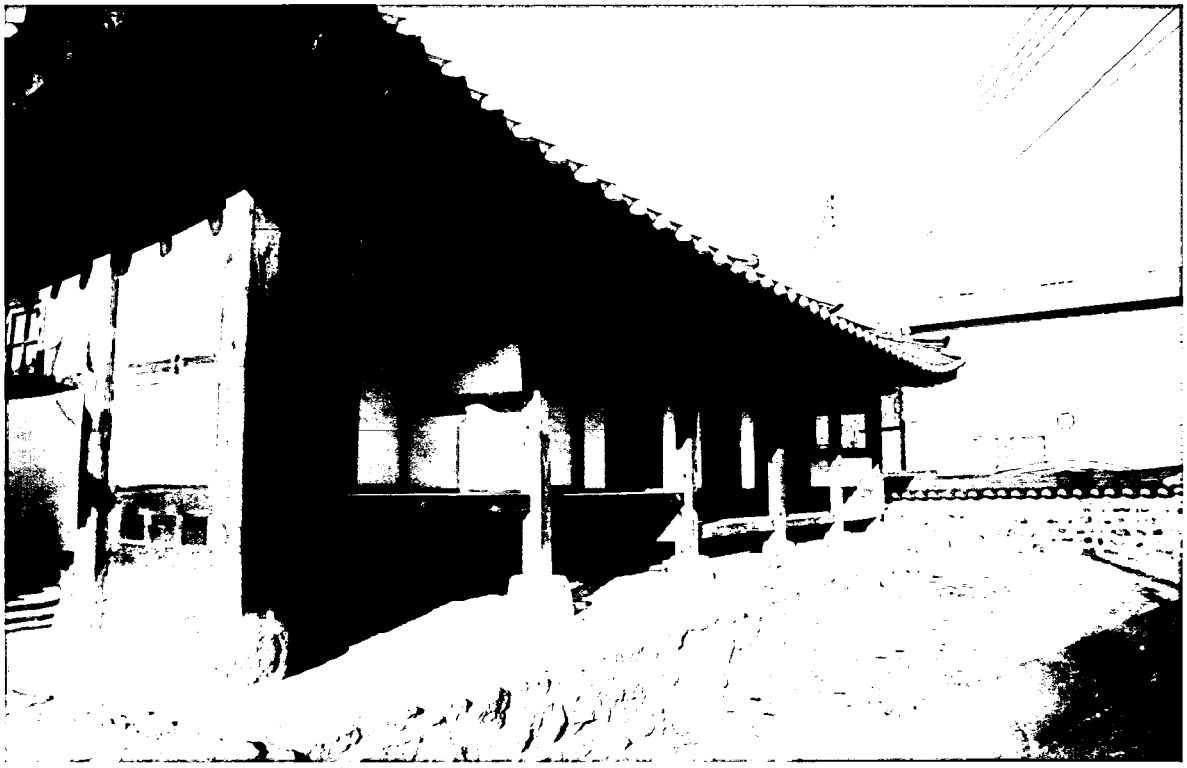
[사진115] 사랑채 누마루 하부 초석



[사진116] 사랑채 배면 기단과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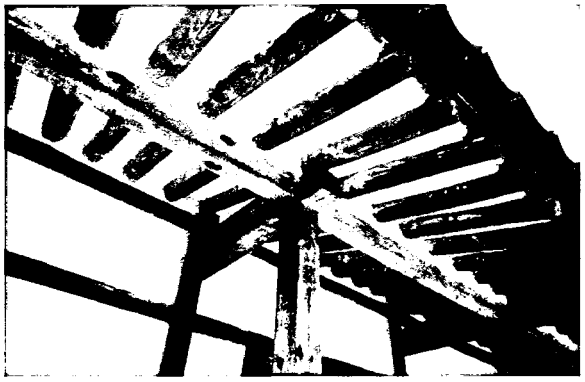
[사진117] 사랑채 전면 기단과 초석



[사진118] 사랑채 전면 가구 전경



[사진119] 사랑채 좌우단부 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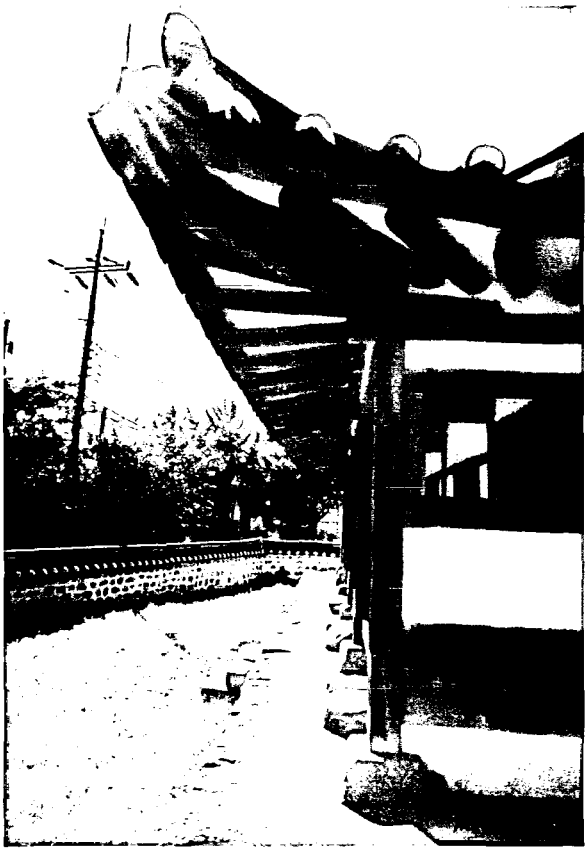
[사진120] 사랑채 전면중앙부 처마



[사진121] 사랑채 전면우측부 처마와 가구



[사진122] 사랑채 전면우측부 퇴보 가구



[사진123] 사랑채 전면우측부 벽체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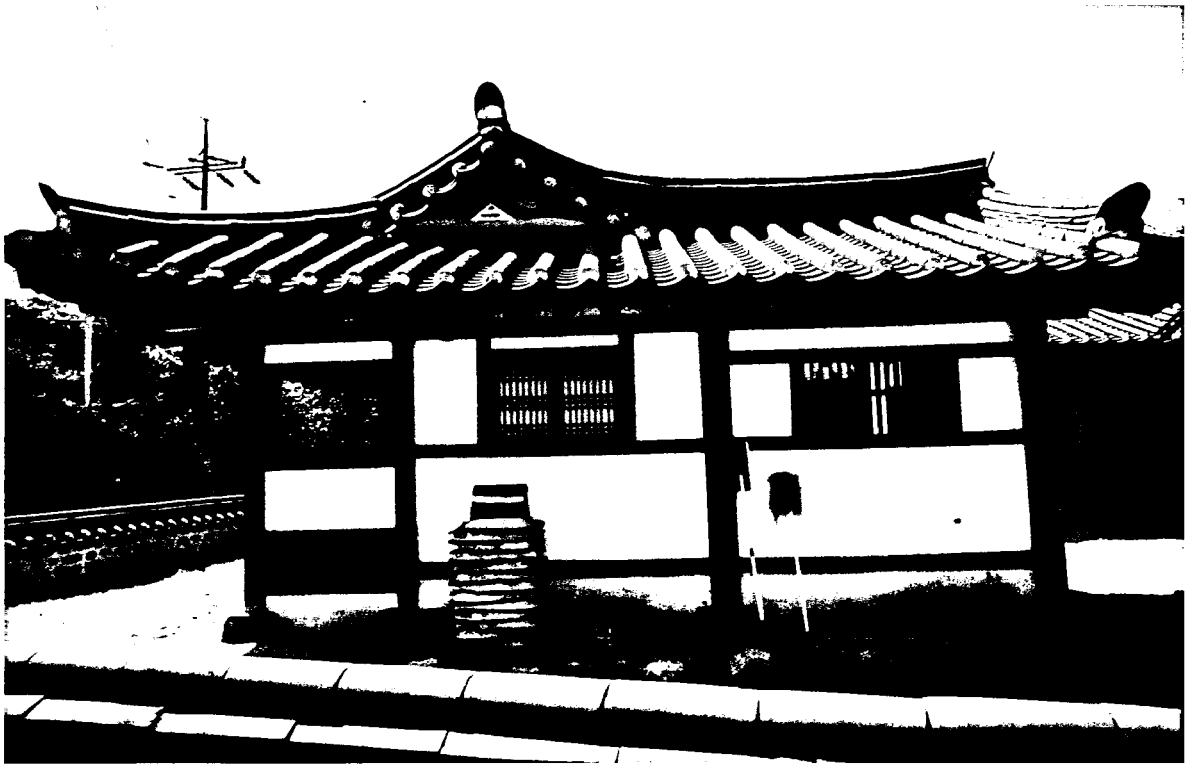
[사진124] 사랑채 대청 전면 벽체수장



[사진125] 사랑채 전면좌측부 벽체수장



[사진126] 사랑채 전면 벽체수장



[사진127] 사랑채 우측면 벽체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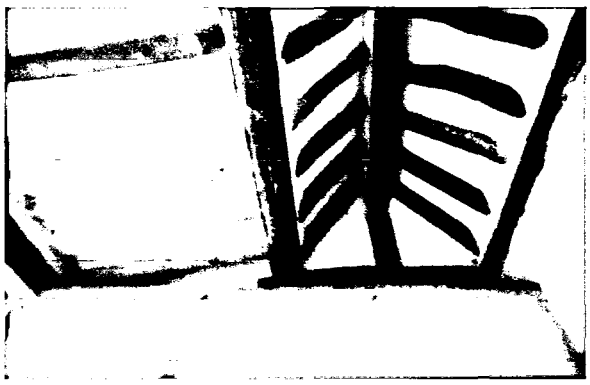
[사진128] 사랑채 배면부 벽체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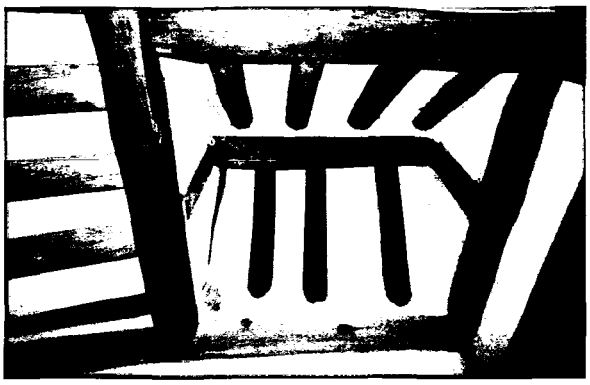
[사진129] 사랑채 전면 툇마루



[사진130] 사랑채 전면 퇴와 누마루



[사진131] 사랑채 배면 부엌상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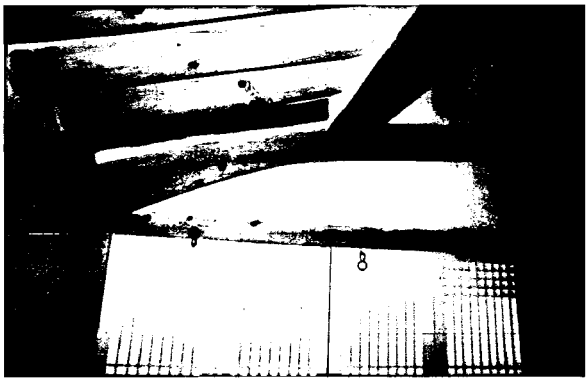
[사진132] 사랑채 배면 부엌상부 가구



[사진133] 사랑채 배면 광상부 처마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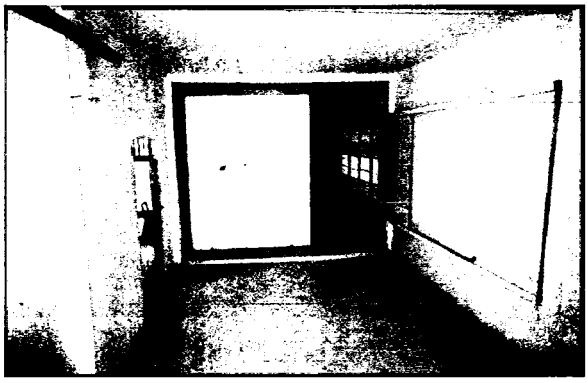
[사진134] 사랑채 전면우측단부 선자서까래



[사진135] 사랑채 대청 상부가구



[사진136] 사랑채 대청 상부가구



[사진137] 사랑채 방 전경



[사진138] 사랑채 좌측단부 방 전경



[사진139] 사랑채 방 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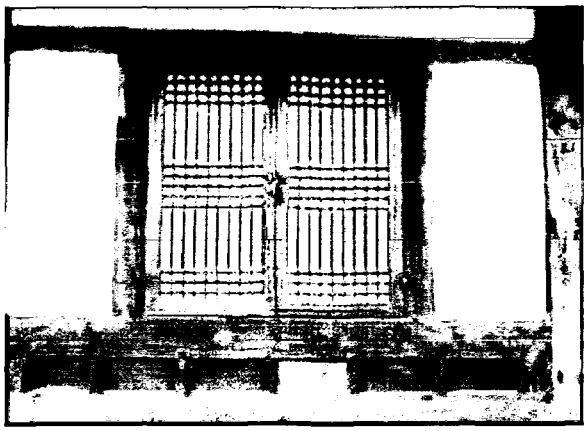
[사진140] 사랑채 방 바닥



[사진141] 사랑채 배면 아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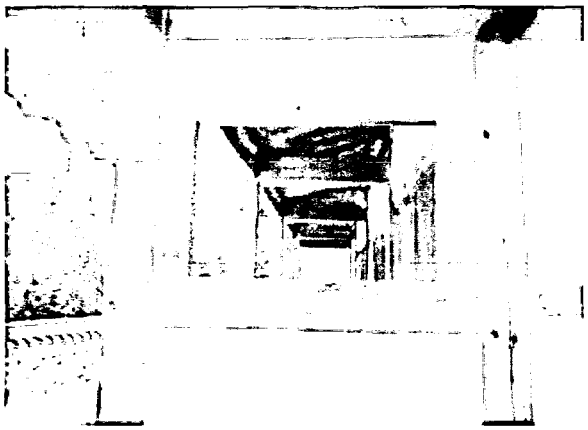
[사진142] 사랑채 배면 우측부 판자



[사진143] 사랑채 전면 방 창호



[사진144] 사랑채 대청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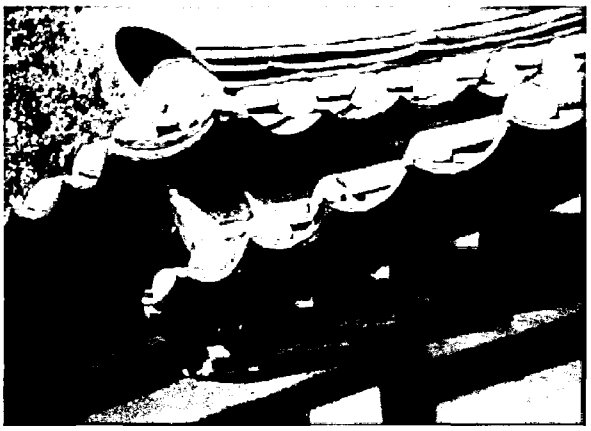
[사진145] 사랑채 툇마루 단부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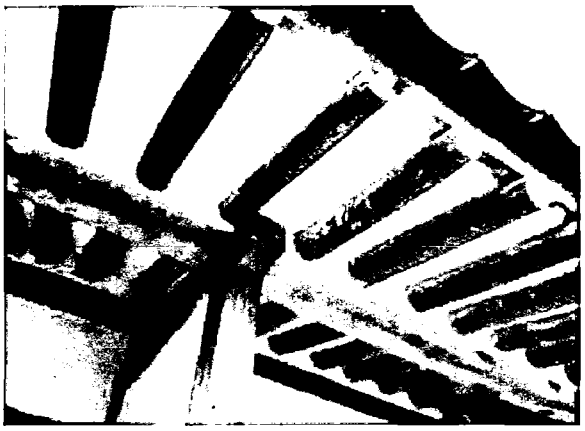
[사진146] 사랑채 대청상부 창호



[사진147] 사랑채 방 전면 내부창호



[사진148] 사랑채 좌측부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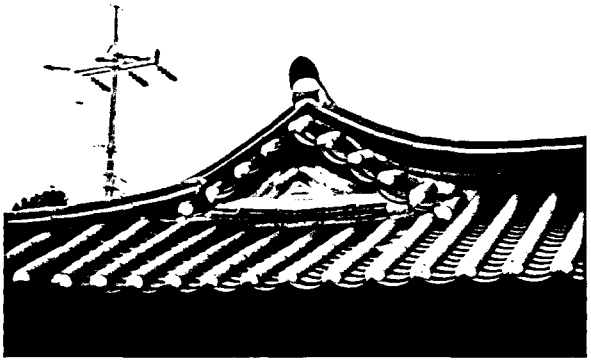
[사진149] 사랑채 전면 처마



[사진150] 사랑채 전면 툇마루와 누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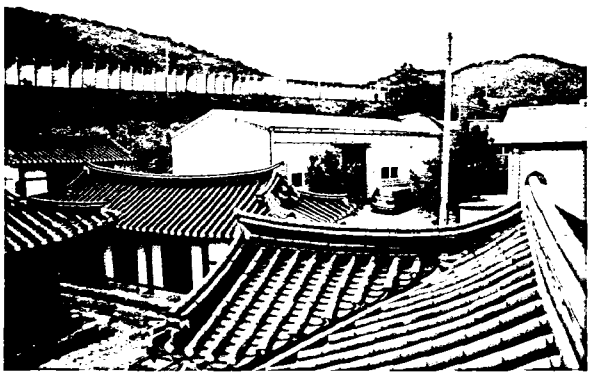
[사진151] 사랑채 전면 툇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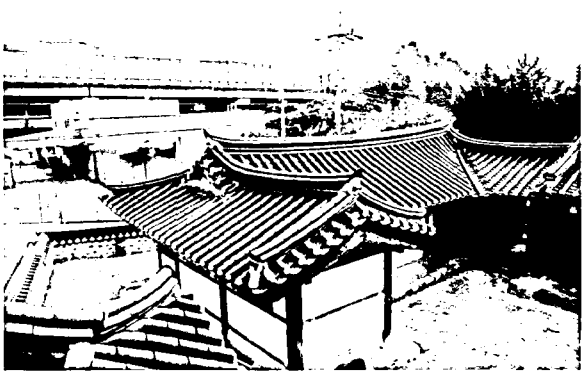
[사진152] 사랑채 우측부 합각



[사진153] 사랑채 우측부 용마루 망와



[사진154] 사랑채 배면 지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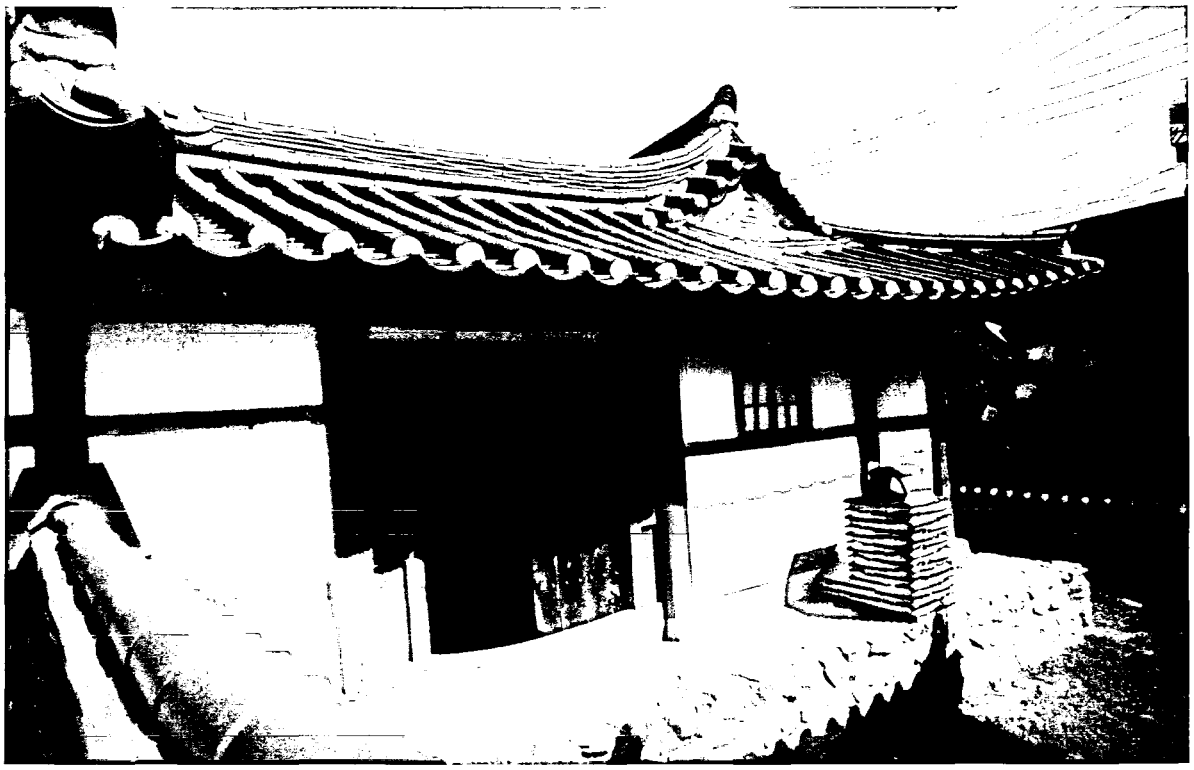


[사진155] 사랑채 지붕 전경

□ 대문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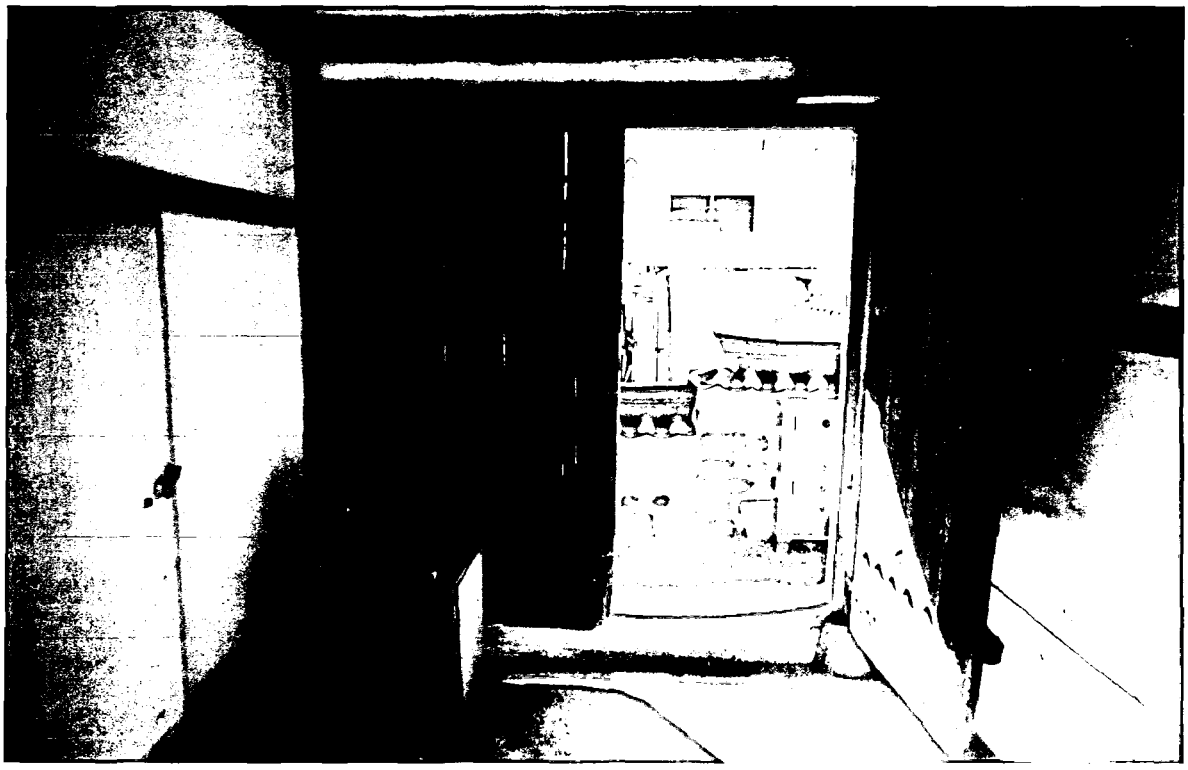
[사진156] 대문채 외부 전면 근경



[사진157] 대문채 외부 근경



[사진158] 대문채 대문 외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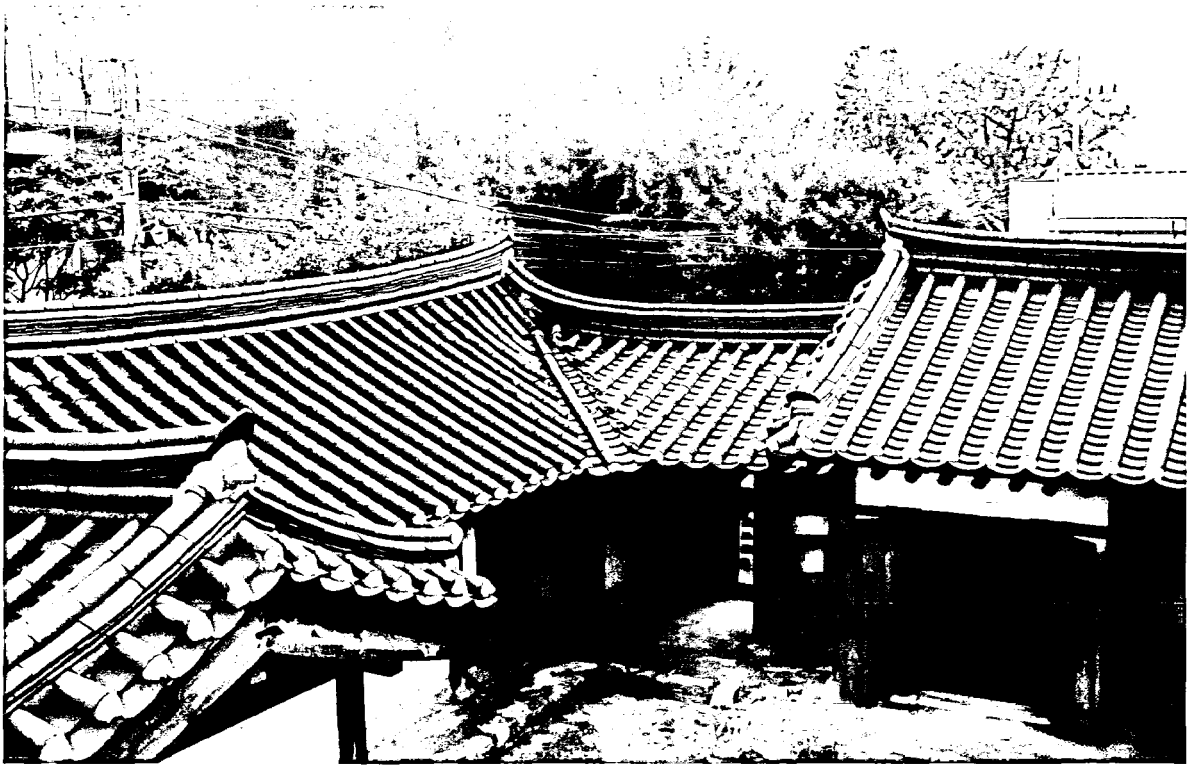
[사진159] 대문채 대문 내부 전경



[사진160] 대문채 대문간 외부 근경



[사진161] 대문채 대문간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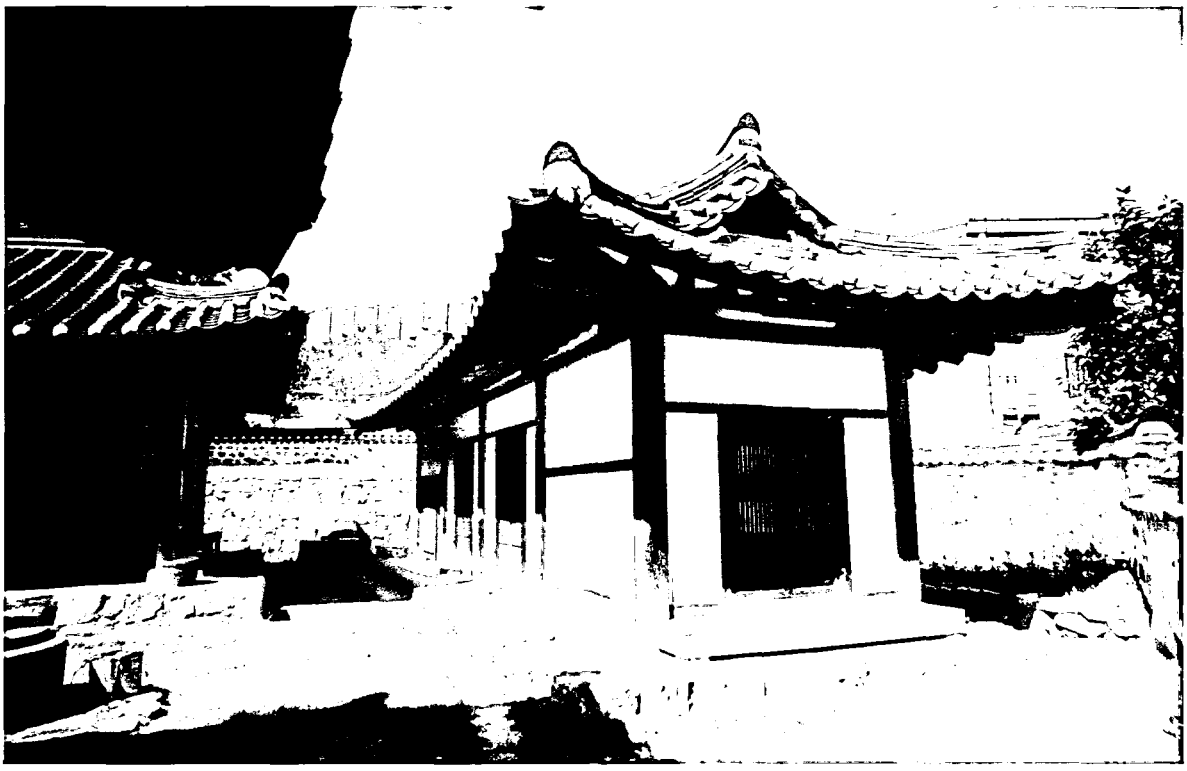


[사진162] 대문채 지붕 전경

□ 바깥채(아래채)



[사진163] 바깥채 외부 전면/좌측면 전경



[사진164] 바깥채 외부 전면/우측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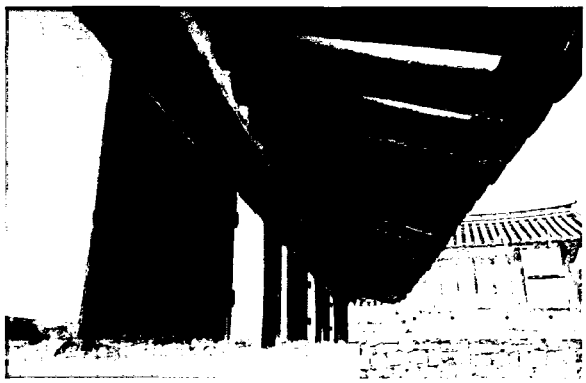
[사진165] 바깥채 외부 좌측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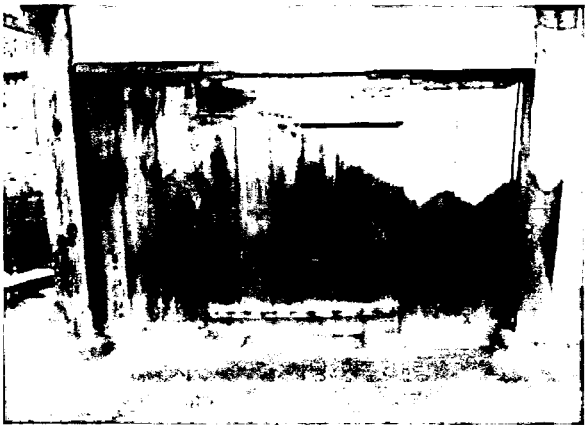
[사진166] 바깥채 외부 배면/좌측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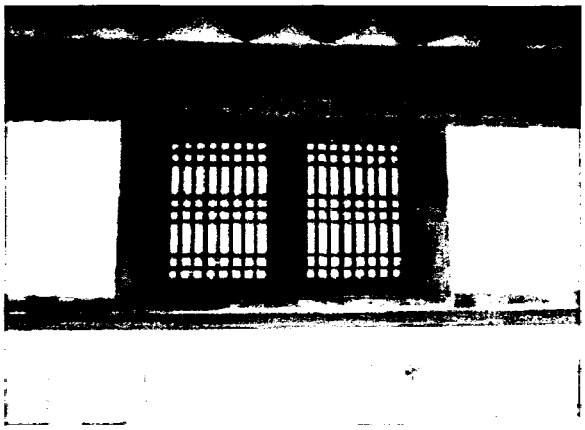
[사진167] 바깥채 전면좌측단부 추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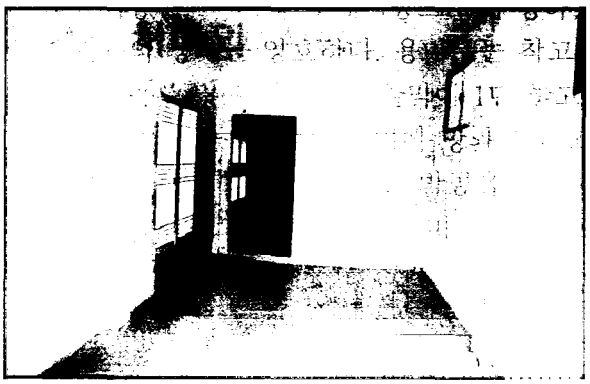
[사진168] 바깥채 배면 처마



[사진169] 바깥채 전면좌측부 판장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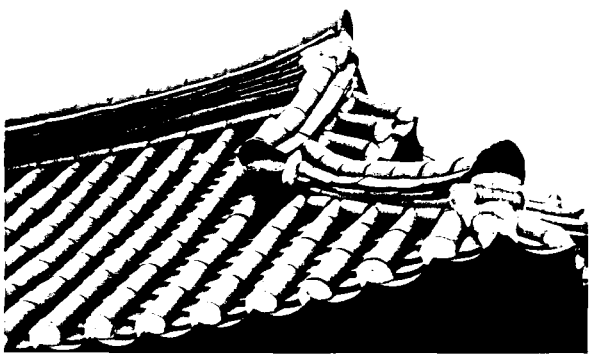
[사진170] 바깥채 배면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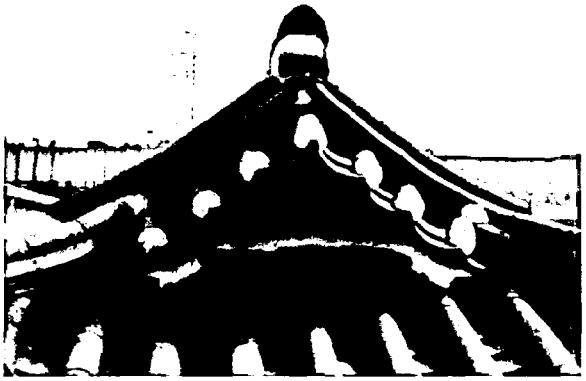
[사진171] 바깥채 내부 온돌방



[사진172] 바깥채 내부 온돌방 창호



[사진173] 바깥채 배면좌측부 내림마루



[사진174] 바깥채 좌측부 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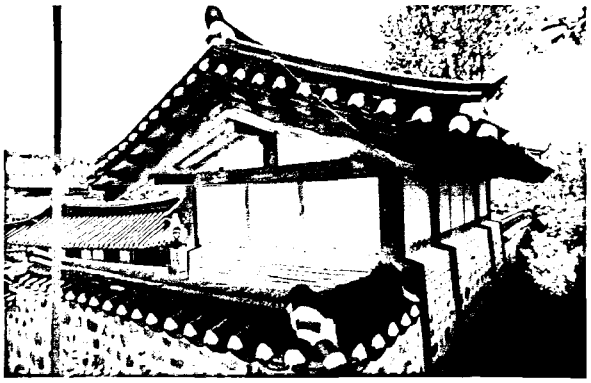
□ 사당(祠堂)



[사진175] 사당 외부 전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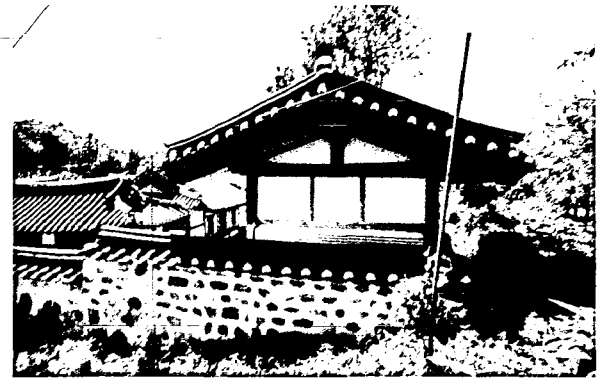
[사진176] 사당 외부 전경



[사진177] 사당 외부 우측면/배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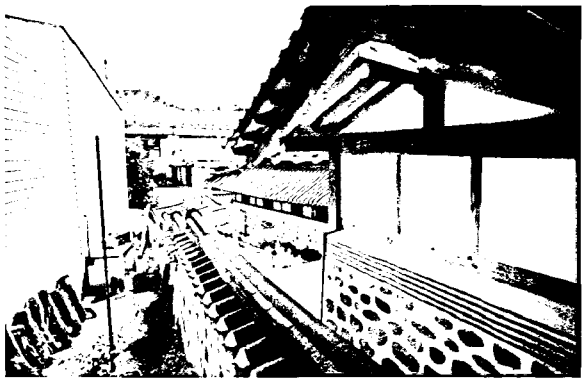
[사진178] 사당 좌측면 근경



[사진179] 사당 우측면 근경



[사진180] 사당 전면 기단



[사진181] 사당 우측면 벽체 수장



[사진182] 사당 내부 대량과 종도리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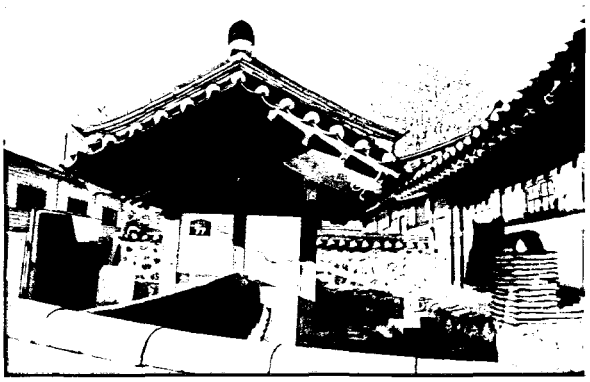


[사진183] 사당 내부 가구결구



[사진184] 사당 내부 전경

□ 사주문(四柱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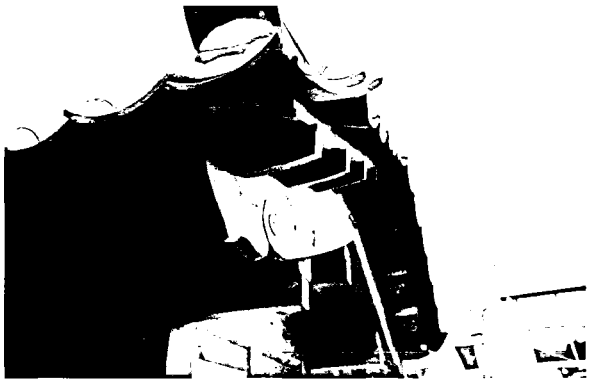
[사진185] 사주문 우측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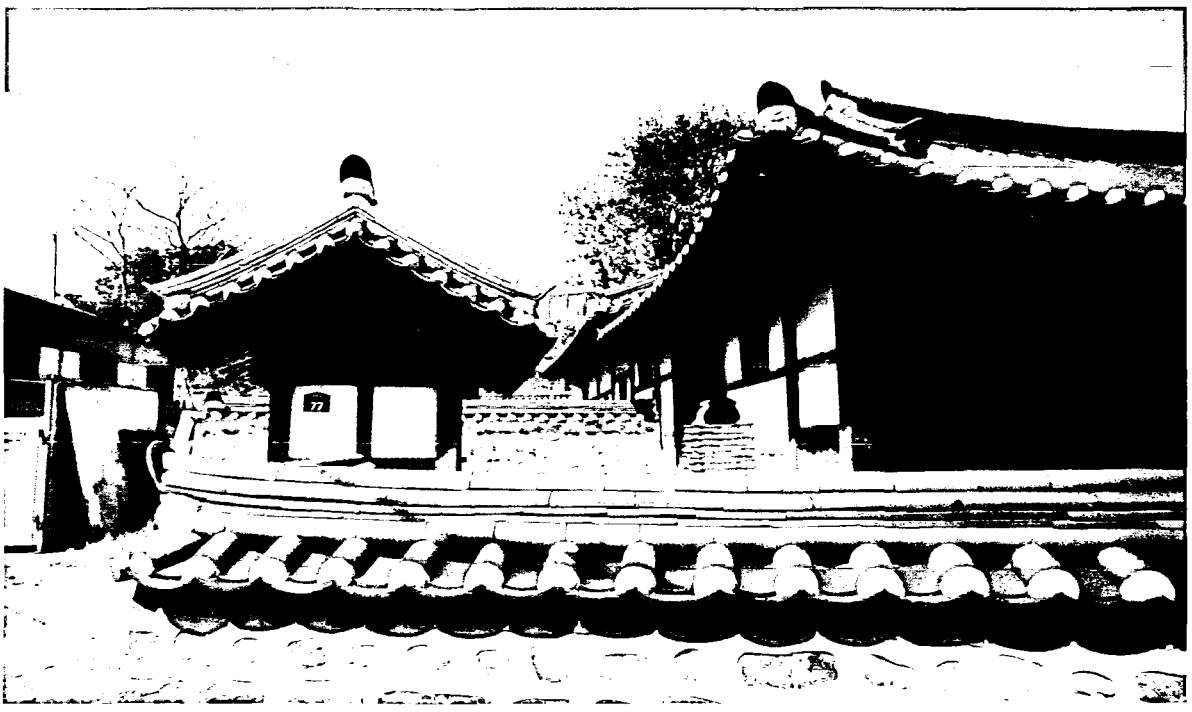
[사진186] 사주문 좌측면 전경



[사진187] 사주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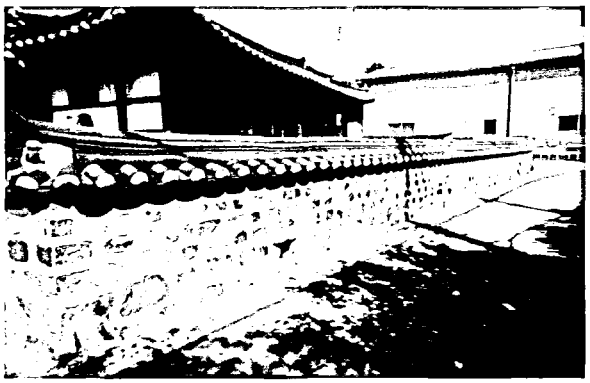


[사진188] 사주문 우측상부 수장상세



[사진189] 사주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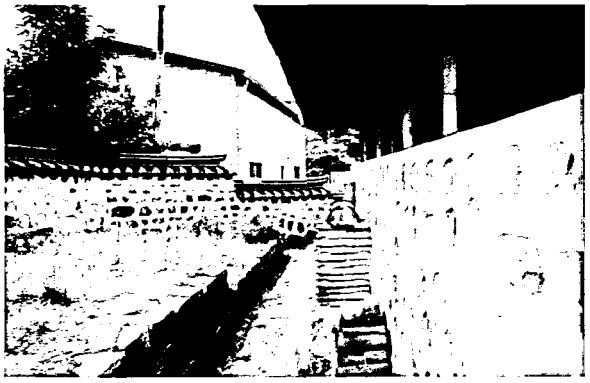
□ 담장(墻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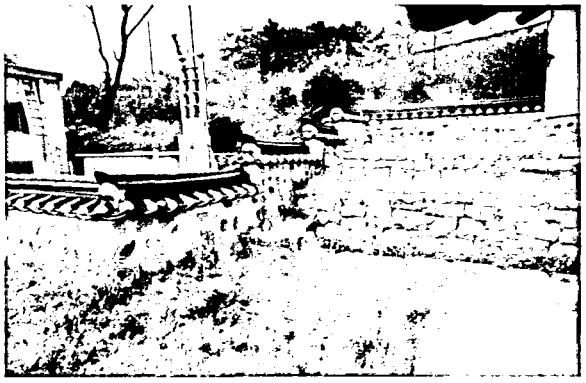
[사진190] 전면부 외부 담장 전경



[사진191] 대문간 내부 담장 전경



[사진192] 바깥채 배면부 외부담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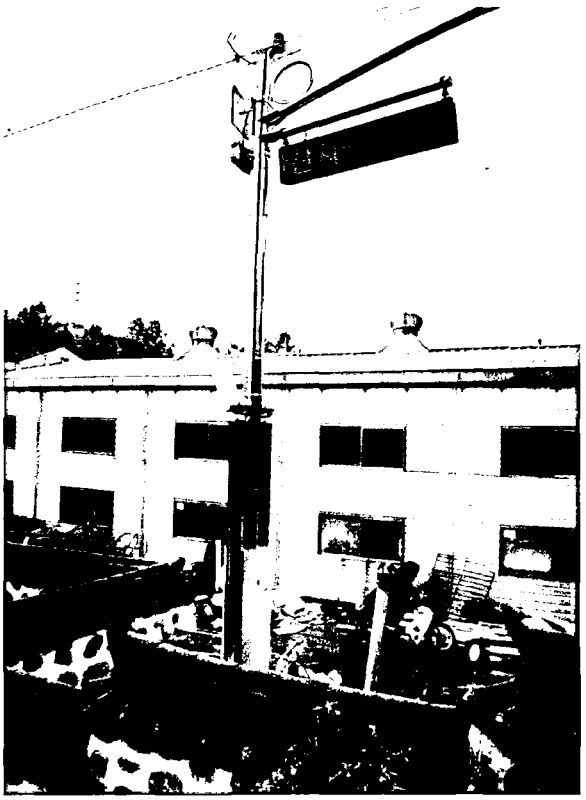


[사진193] 안채 좌측부 외부담장 전경

□ 부가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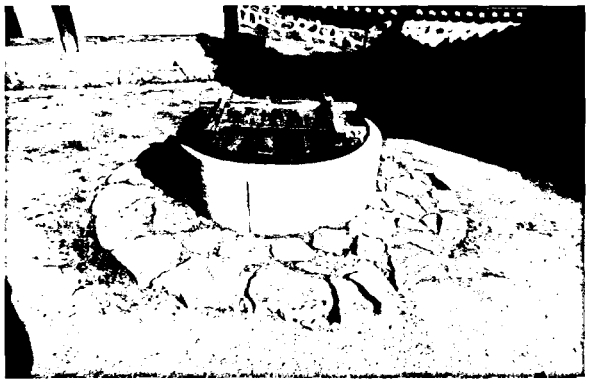


[사진194] 안채 좌측부 소화방수전



[사진195] 안채 좌측부 감지기

□ 상수원



[사진196] 안마당 우물 전경



[사진197] 안마당 우물내부 전경

□ 화단(花園)



[사진198] 뒷마당(후원) 화단과 축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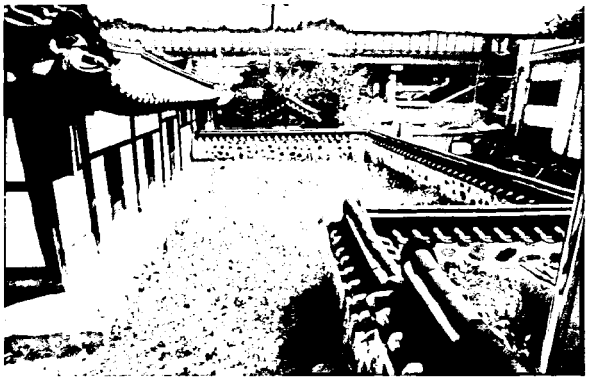


[사진199] 후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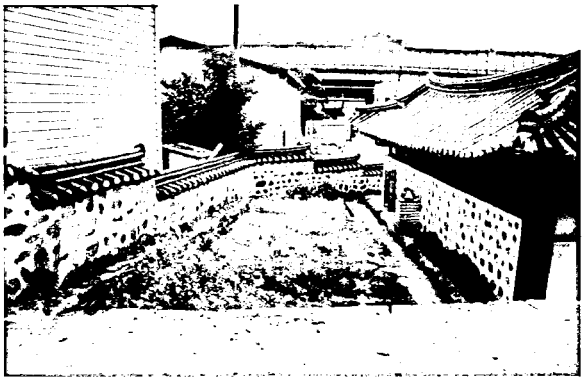


[사진200] 가옥뒤 과수원 전경

□ 채마밭(菜麻田)



[사진201] 안채 좌측부 채마밭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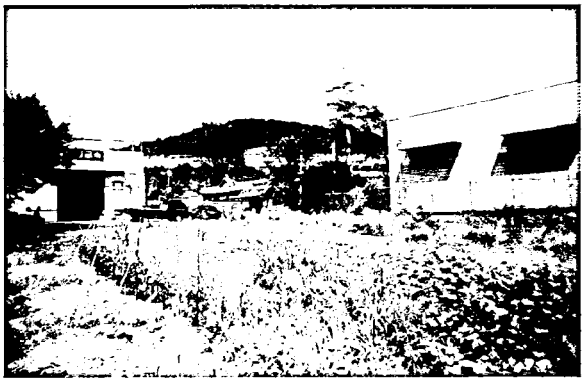


[사진202] 바깥채 배면 채마밭 전경

□ 연지(蓮池)



[사진203] 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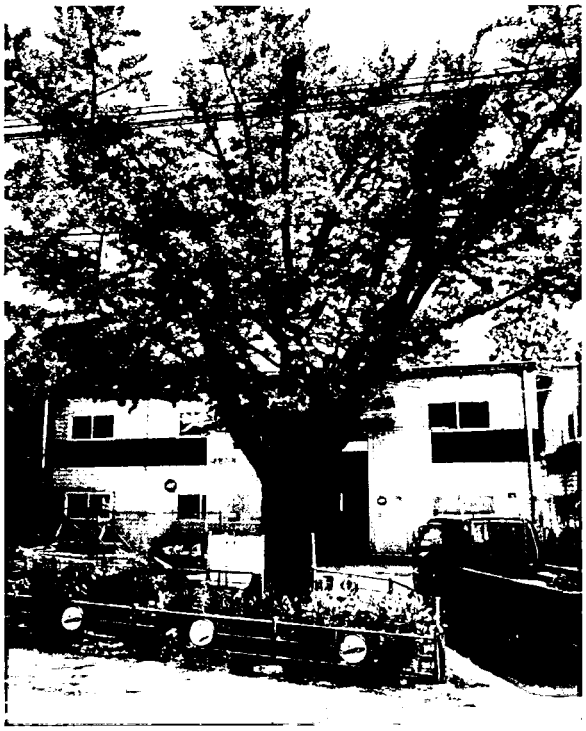


[사진204] 연지와 청문당 전경

□ 수목(樹木)



[사진205] 후원 모과나무 전경



[사진206] 은행나무 전경

2. 실측도면

□ 안채

[도면01] 청문당 배치도 ····· 215
[도면02] 대지 종횡단면도 ····· 216
[도면03] 안채 수평기준선설정도 ····· 217
[도면04] 안채 평면도 ····· 218
[도면05] 안채 정면도 ····· 219
[도면06] 안채 좌측면도 ····· 220
[도면07] 안채 우측면도 ····· 221
[도면08] 안채 배면도 ····· 222
[도면09] 안채 종단면도1 ····· 223
[도면10] 안채 종단면도2 ····· 224
[도면11] 안채 횡단면도1 ····· 225
[도면12] 안채 횡단면도2 ····· 226
[도면13] 안채 천장 평면도 ····· 227
[도면14] 안채 지붕 평면도1 ····· 228
[도면15] 안채 지붕 평면도2 ····· 229
[도면16] 안채 기단 상세도1 ····· 230
[도면17] 안채 기단 상세도3 ····· 231
[도면18] 안채 초석 상세도1 ····· 232
[도면19] 안채 초석 상세도3 ····· 233
[도면20] 안채 디딤석 상세도 ····· 234
[도면21] 안채 기단 석물 상세도 ····· 235
[도면22] 안채 기둥 기울기 상세도 ····· 236
[도면23] 안채 상부 주칸 실측도 ····· 237
[도면24] 안채 하부 주칸 실측도 ····· 238
[도면25] 안채 기둥 상세도1 ····· 239
[도면26] 안채 기둥 상세도3 ····· 240
[도면27] 안채 기둥 상세도5 ····· 241
[도면28] 안채 대량 상세도1 ····· 242
[도면29] 안채 종량 상세도1 ····· 243
[도면30] 안채 퇴량 상세도1,2 ····· 244
[도면31] 안채 대공 상세도 ····· 245
[도면32] 안채 추녀 상세도 ····· 246
[도면33] 안채 도리 변위도 ····· 247
[도면34] 안채 보 변위도 ····· 248
[도면35] 안채 인방 변위도1 ····· 249
[도면36] 안채 인방 변위도3 ····· 250
[도면37] 안채 합각 상세도1 ····· 251
[도면38] 안채 박공 상세도 ····· 252
[도면39] 안채 갈모산방 상세도 ····· 253
[도면40] 안채 처마부 상세 실측도1 ····· 254
[도면41] 안채 목기연 상세 실측도 ····· 255
[도면42] 안채 안허리곡 상세도1 ····· 256
[도면43] 안채 앙곡 상세도 ····· 257
[도면44] 안채 마루곡 상세도 ····· 258
[도면45] 안채 지붕 기와곡 상세도 ····· 259
[도면46] 안채 창호 부호도 ····· 260
[도면47] 안채 창호 상세도1 ····· 261
[도면48] 안채 창호 상세도2 ····· 262
[도면49] 안채 철물 상세도 ····· 263
[도면50] 안채 기와 상세도 ····· 264
[도면51] 안채 굴뚝 상세도 ····· 265

□ 사랑채

[도면52] 사랑채 평면도 ····· 266
[도면53] 사랑채 정면도 ····· 267
[도면54] 사랑채 측면도 ····· 268
[도면55] 사랑채 배면도 ····· 269
[도면56] 사랑채 종단면도 ····· 270
[도면57] 사랑채 횡단면도 ····· 271
[도면58] 사랑채 천장 평면도 ····· 272
[도면59] 사랑채 지붕 평면도 ····· 273

□ 바깥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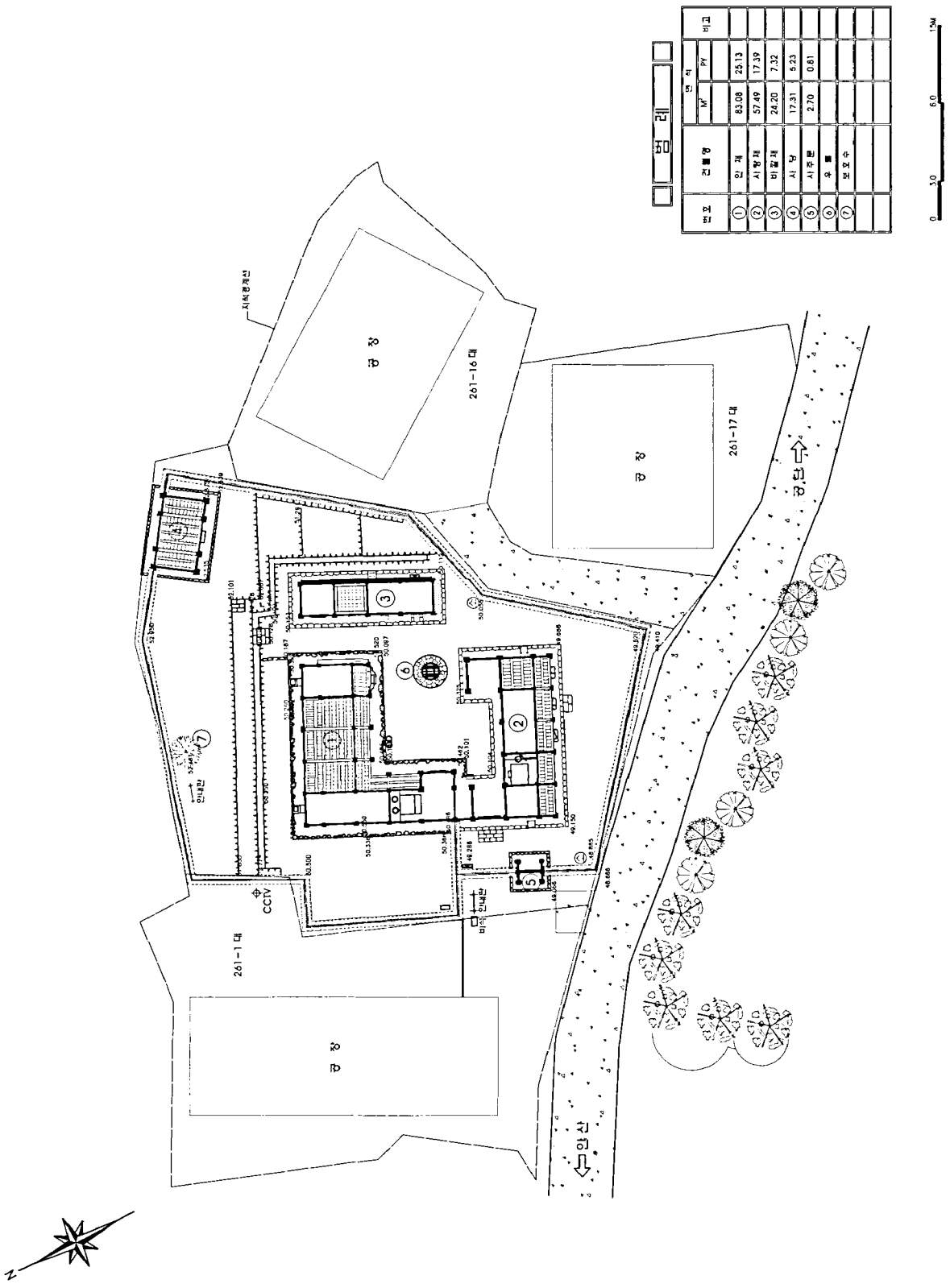
[도면60] 바깥채 평면도 ····· 274
[도면61] 바깥채 정면도 ····· 275
[도면62] 바깥채 측면도 ····· 276
[도면63] 바깥채 배면도 ····· 277
[도면64] 바깥채 종단면도 ····· 278
[도면65] 바깥채 횡단면도 ····· 279
[도면66] 바깥채 천장 평면도 ····· 280
[도면67] 바깥채 지붕 평면도 ····· 281

□ 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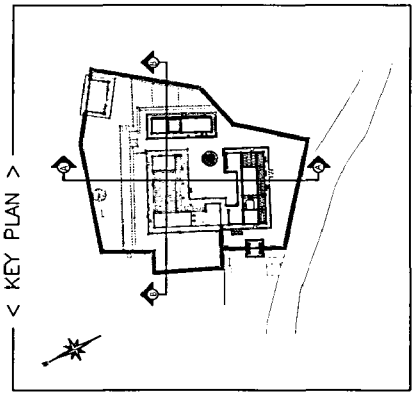
[도면68] 사당 평면도 ····· 282
[도면69] 사당 평면도 ····· 283
[도면70] 사당 좌측면도 ····· 284
[도면71] 사당 우측면도 ····· 285
[도면72] 사당 배면도 ····· 286
[도면73] 사당 종단면도 ····· 287
[도면74] 사당 횡단면도 ····· 288
[도면75] 사당 천장 평면도 ····· 289
[도면76] 사당 지붕 평면도 ·····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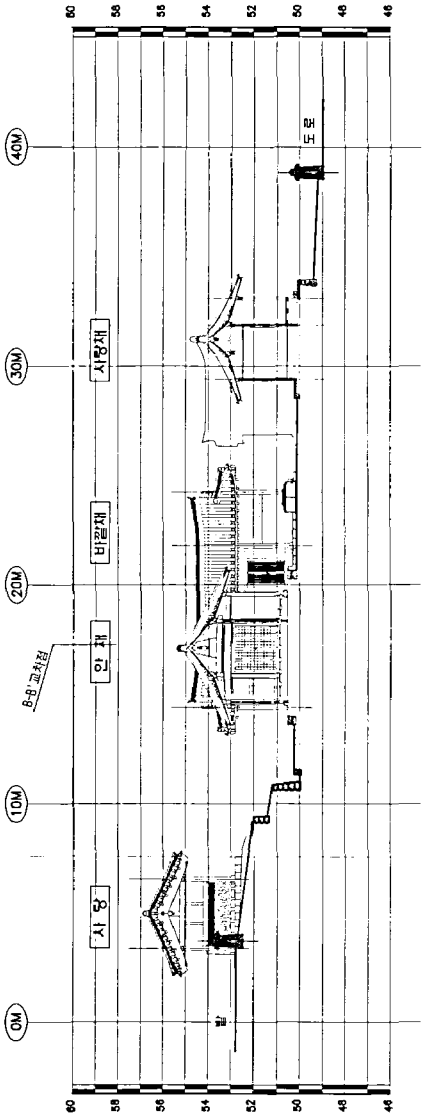
□ 사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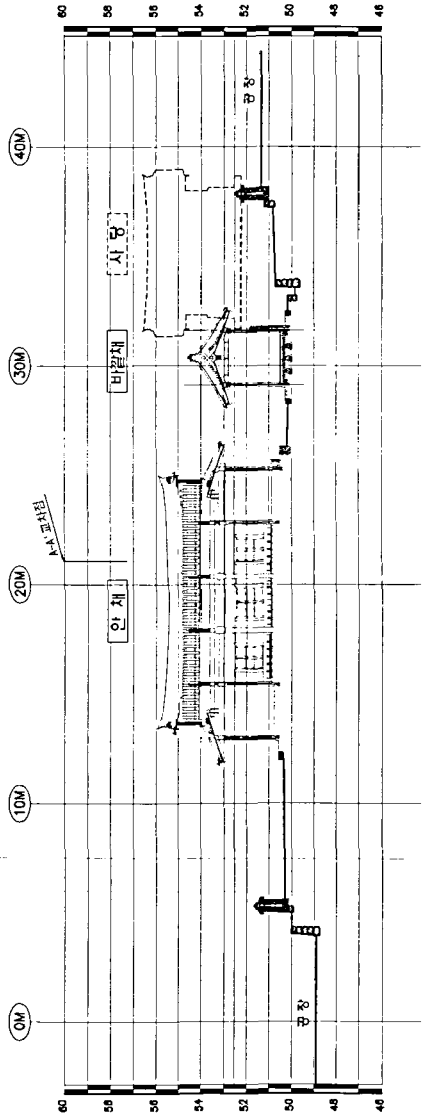
[도면77] 사주문 평면도, 정면도 ····· 291
[도면78] 사주문 측면도, 배면도 ····· 292
[도면79] 사주문 종단면도, 횡단면도 ····· 293
[도면80] 사주문 천장 평면도, 지붕 평면도 ····· 294


범 례
번호
건물명
면적 ㎡
면적 PY
비고
① 안 채 83.08 25.13
② 사 랑 채 57.49 17.39
③ 바깥채 24.20 7.32
④ 사 당 17.31 5.23
⑤ 사주문 2.70 0.81
⑥ 우 물
⑦ 보호수
0 3.0 6.0 15M
지적경계선
261-16 대
261-17 대
261-1 대
공 장
CCTV
인내천
비석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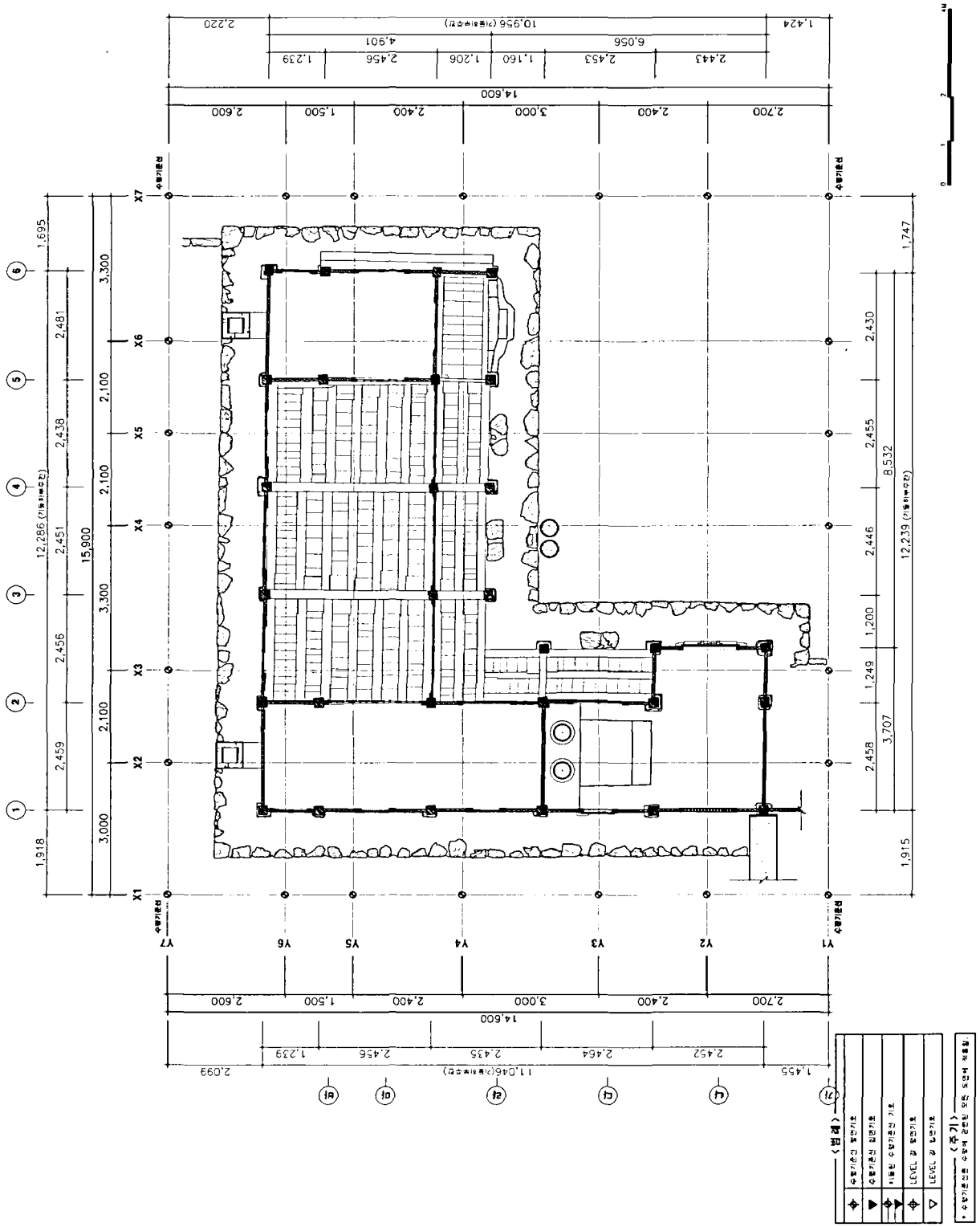
[도면01] 청문당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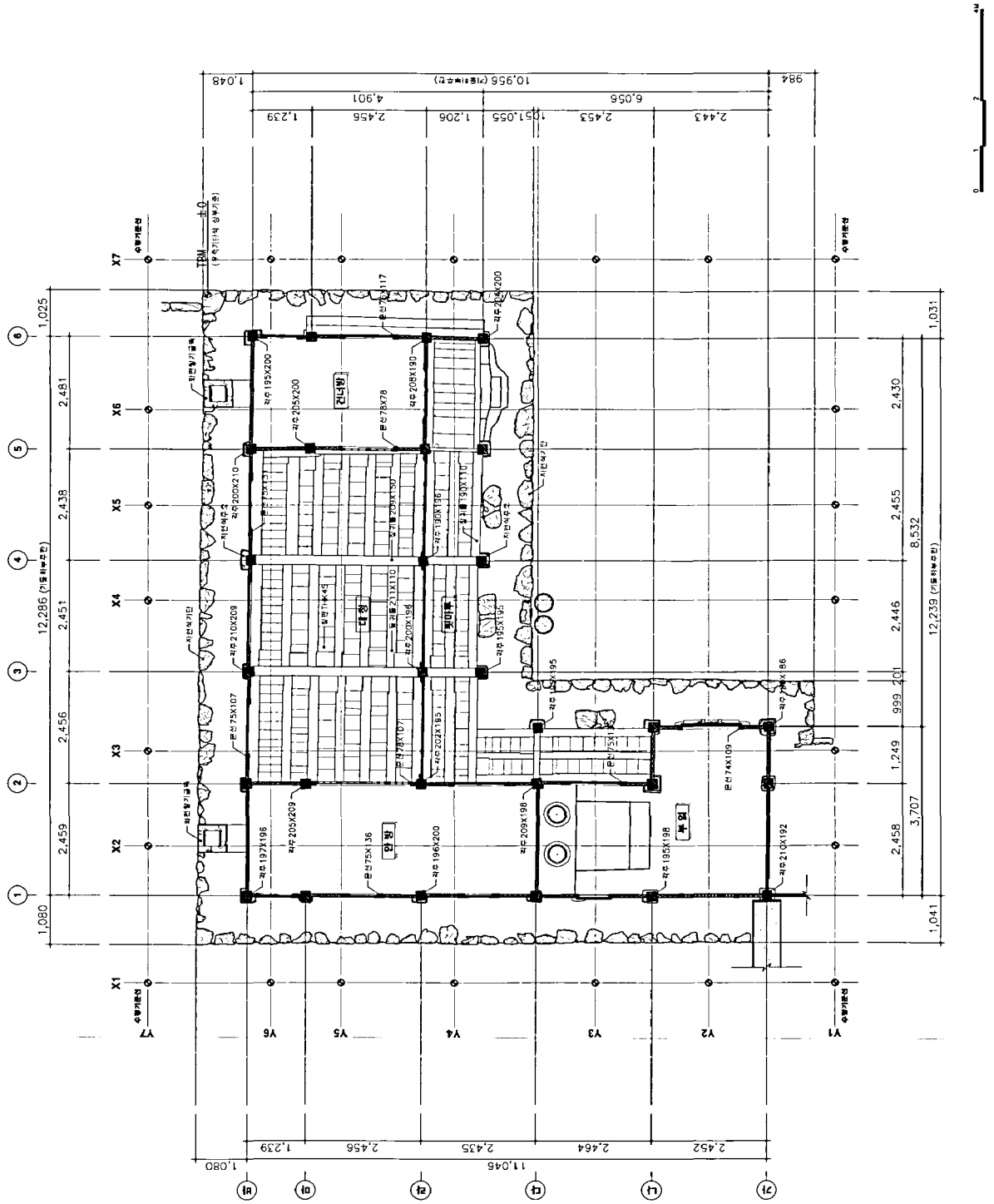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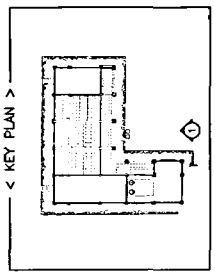
[도면02] 대지 종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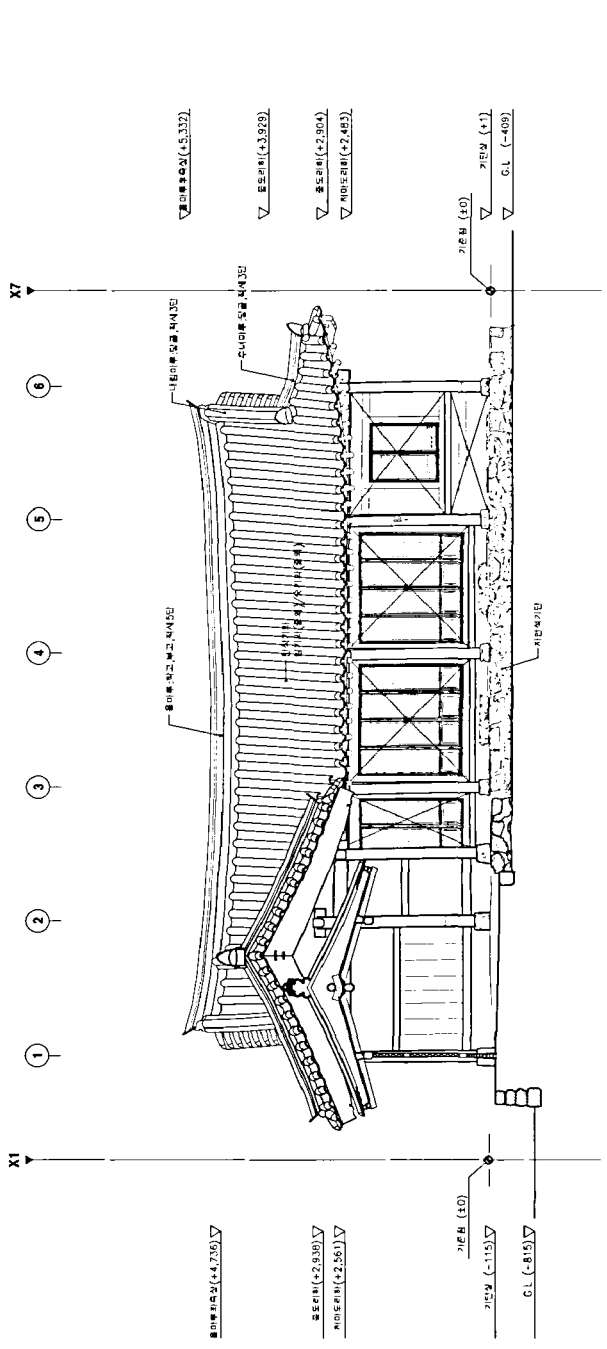


[도면03] 안채 수평기준선설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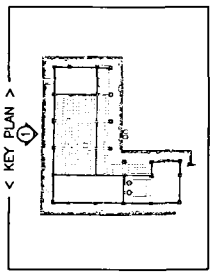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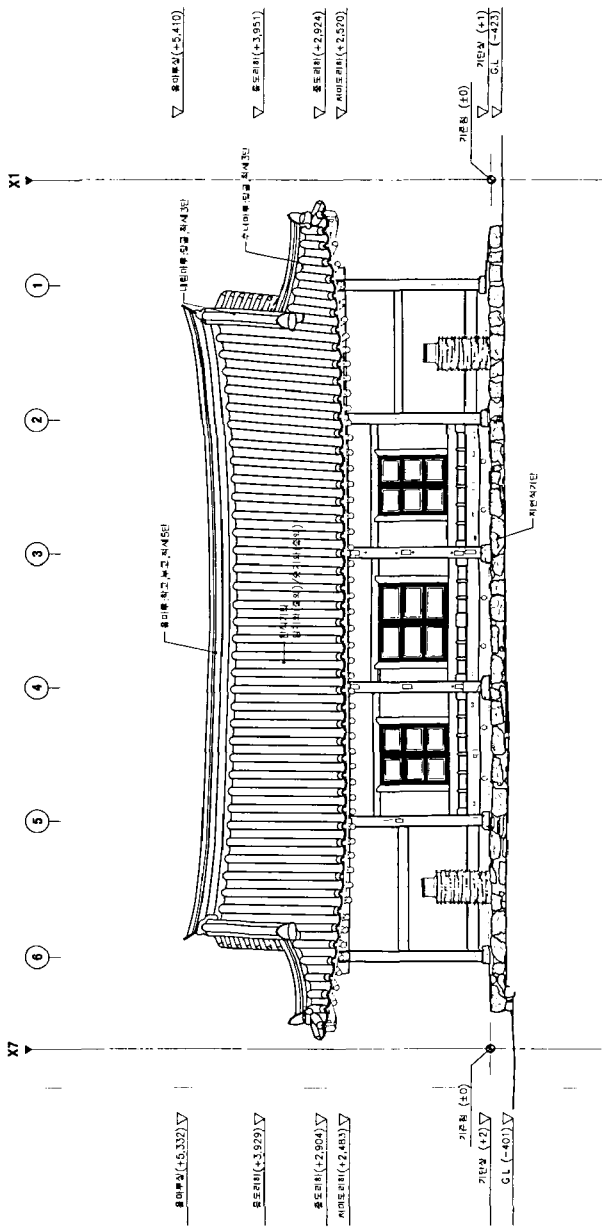
[도면04] 안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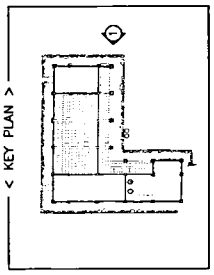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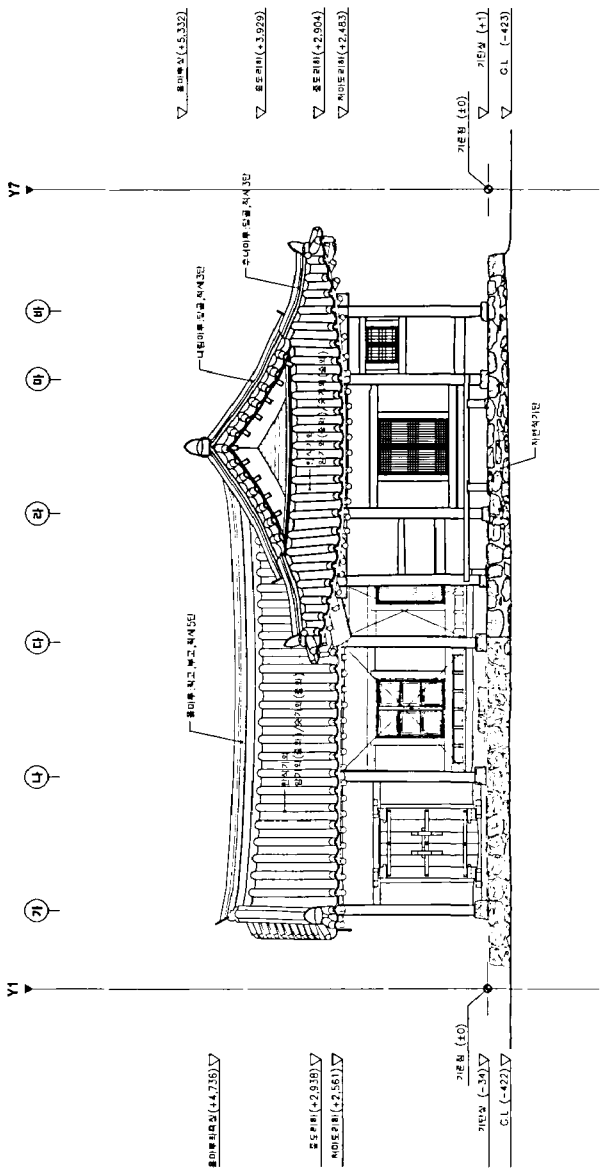
[도면05] 안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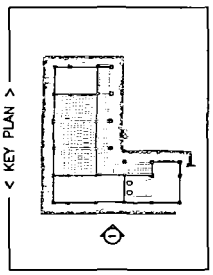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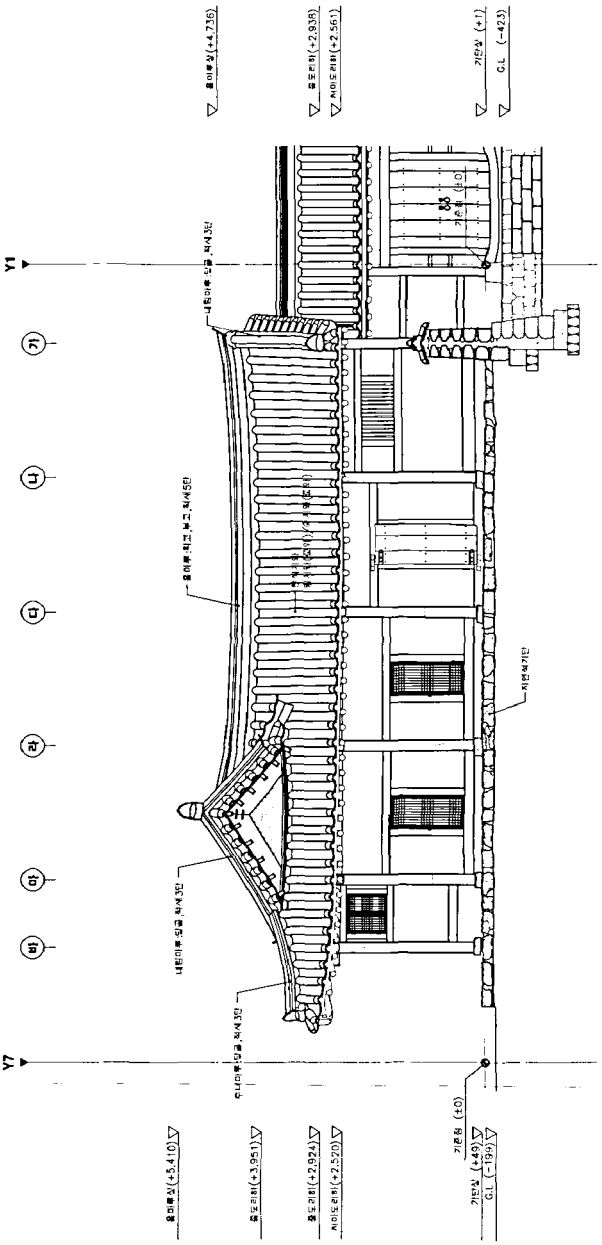
[도면06] 안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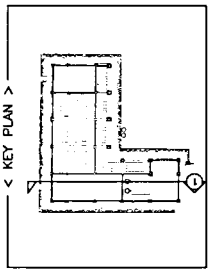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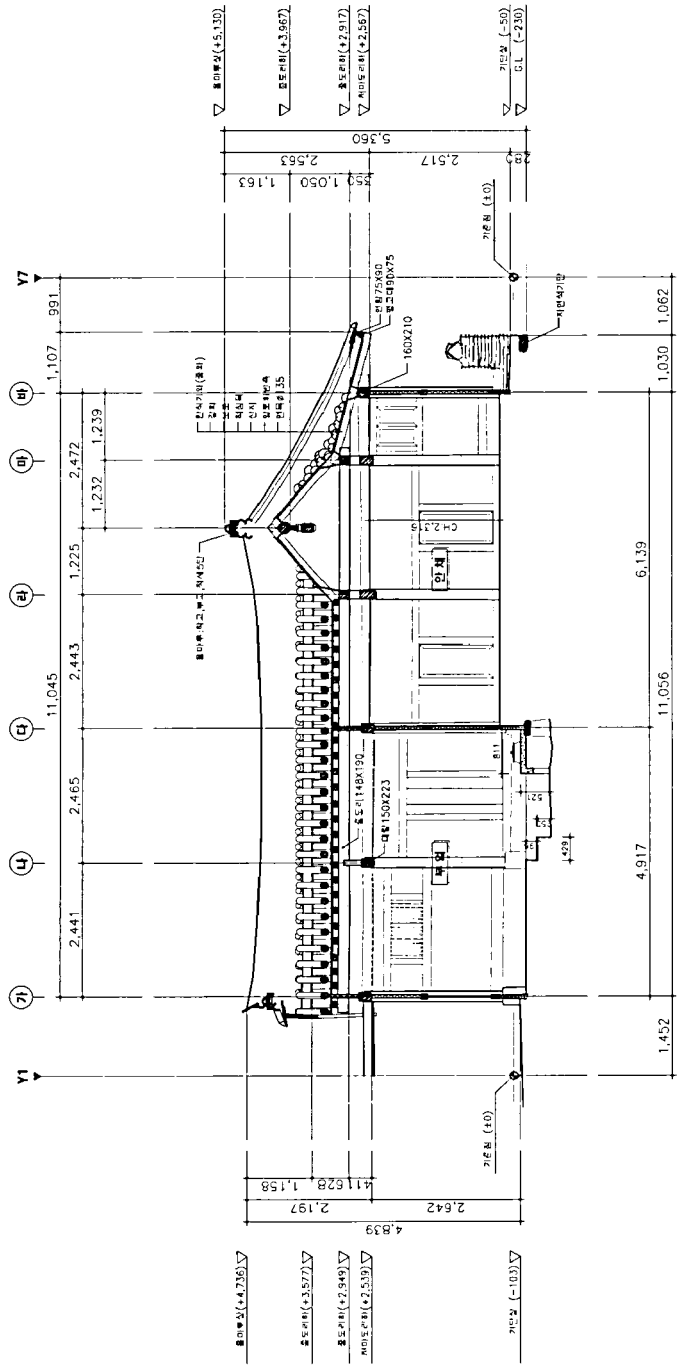
[도면07] 안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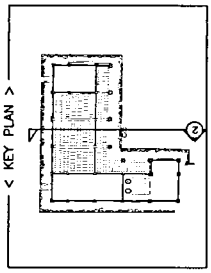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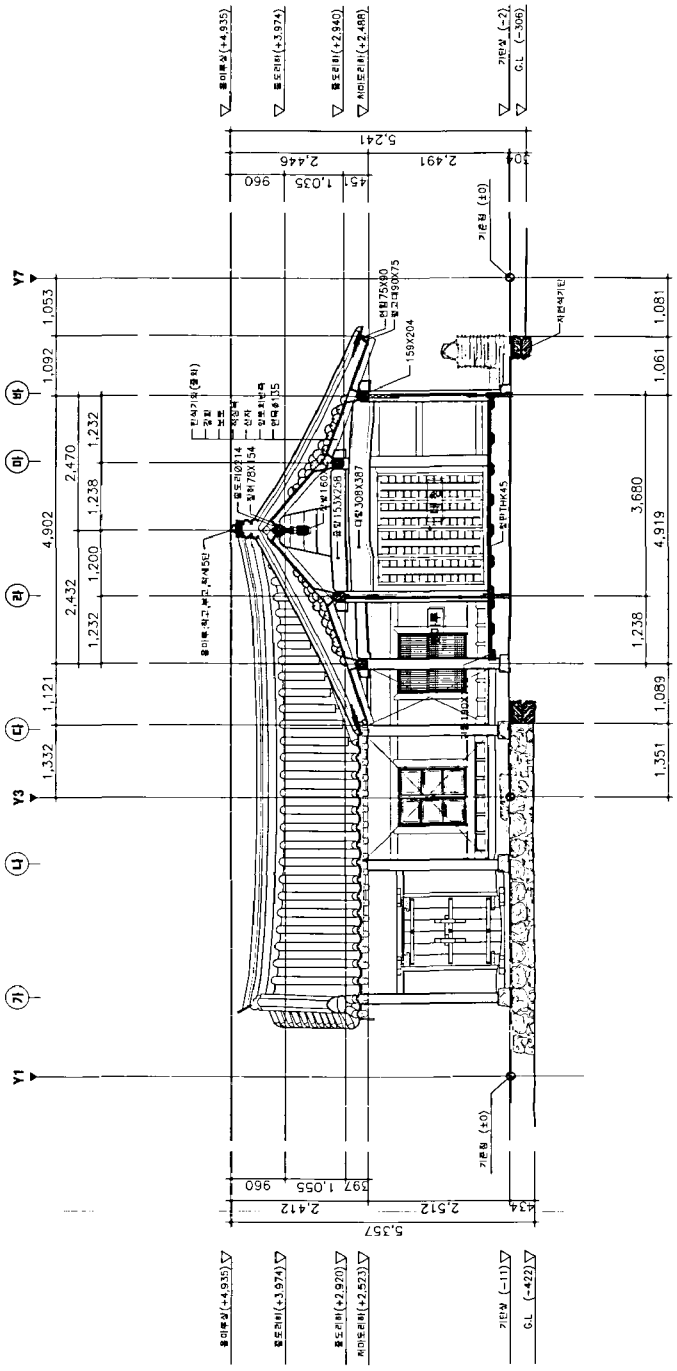
[도면08] 안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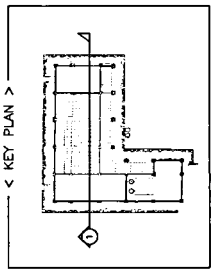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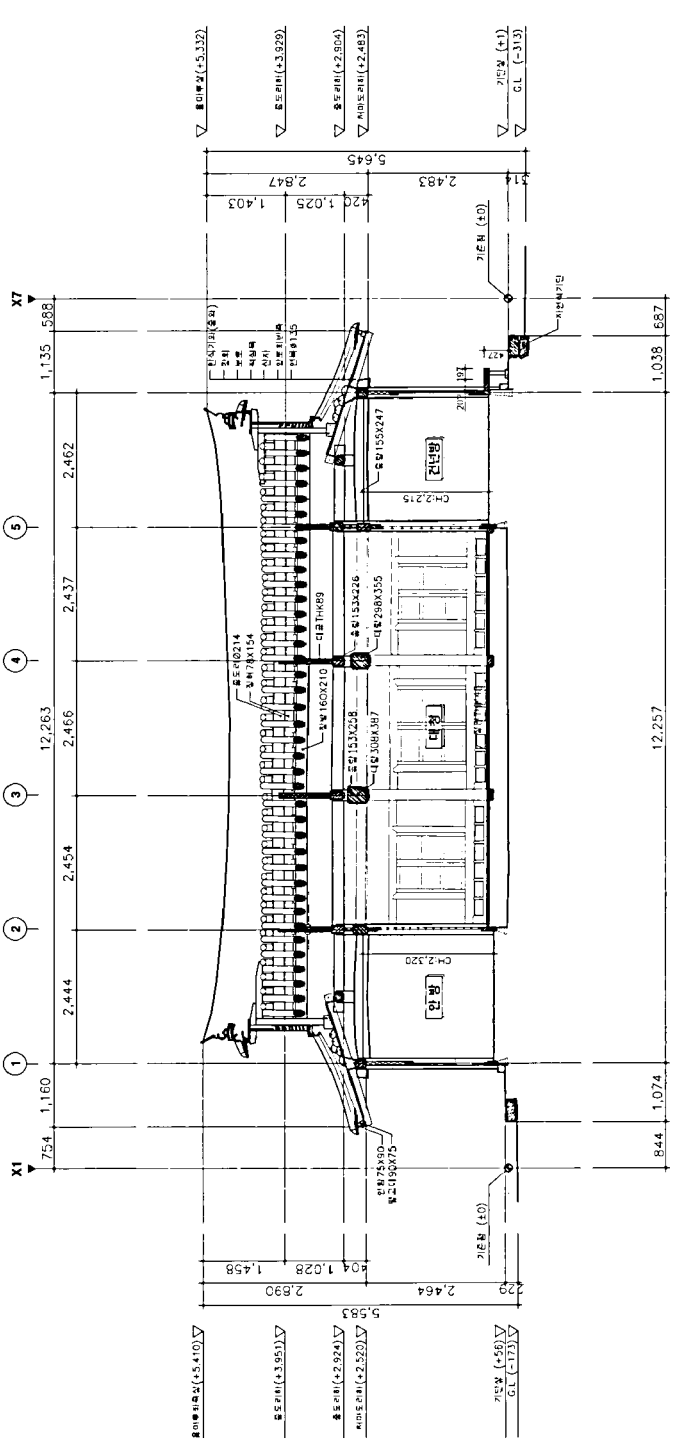
[도면09] 안채 종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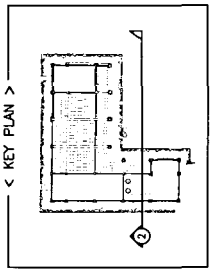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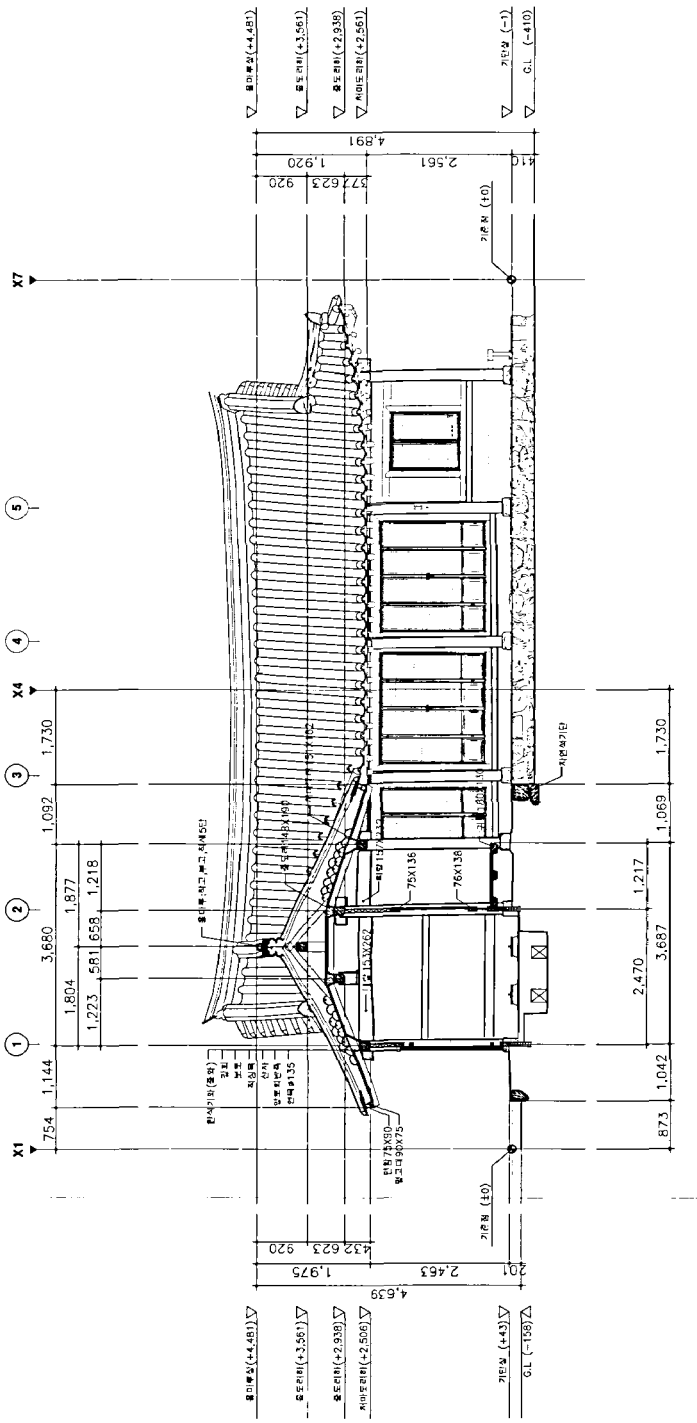
[도면10] 안채 중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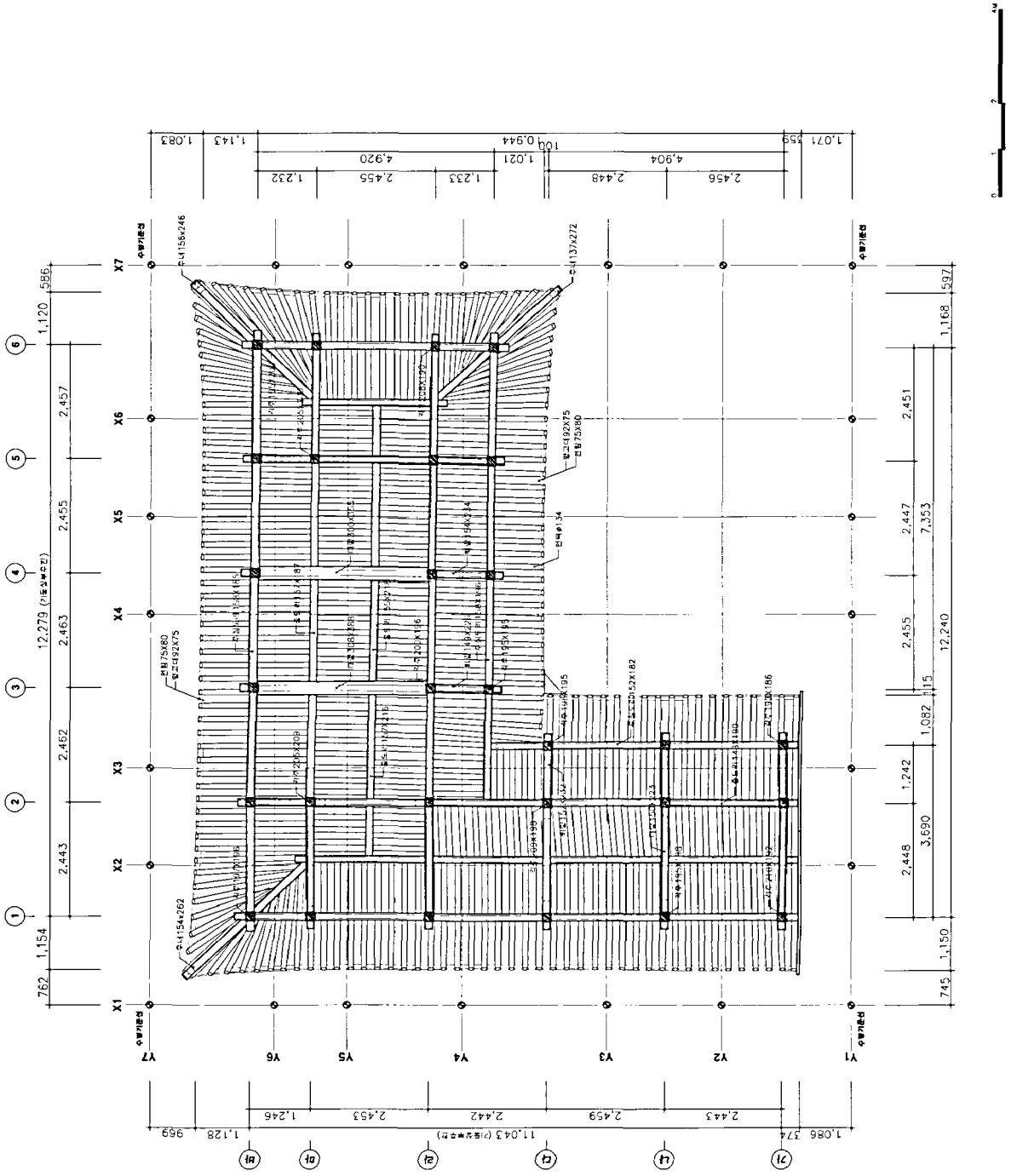


[도면11] 안채 횡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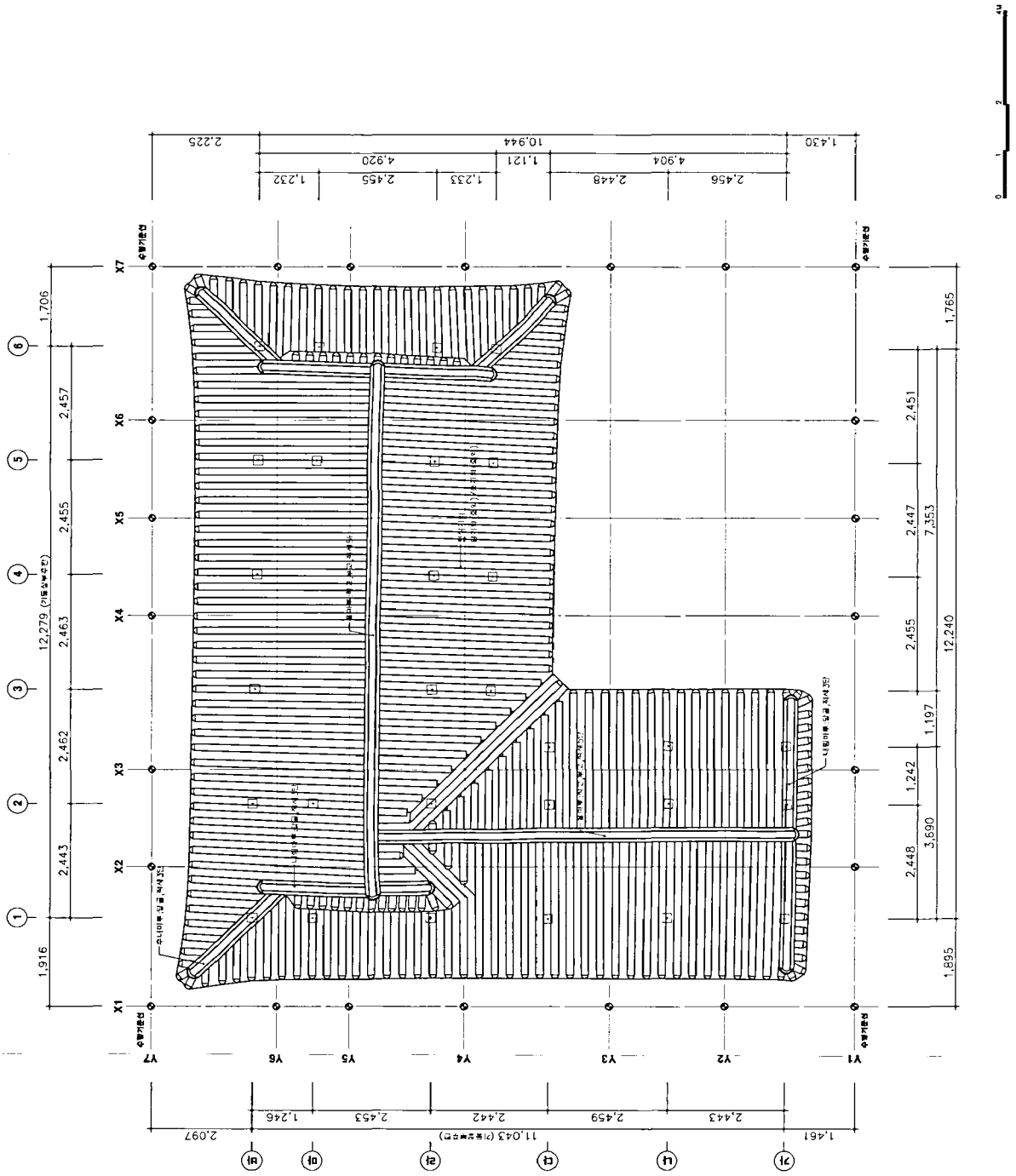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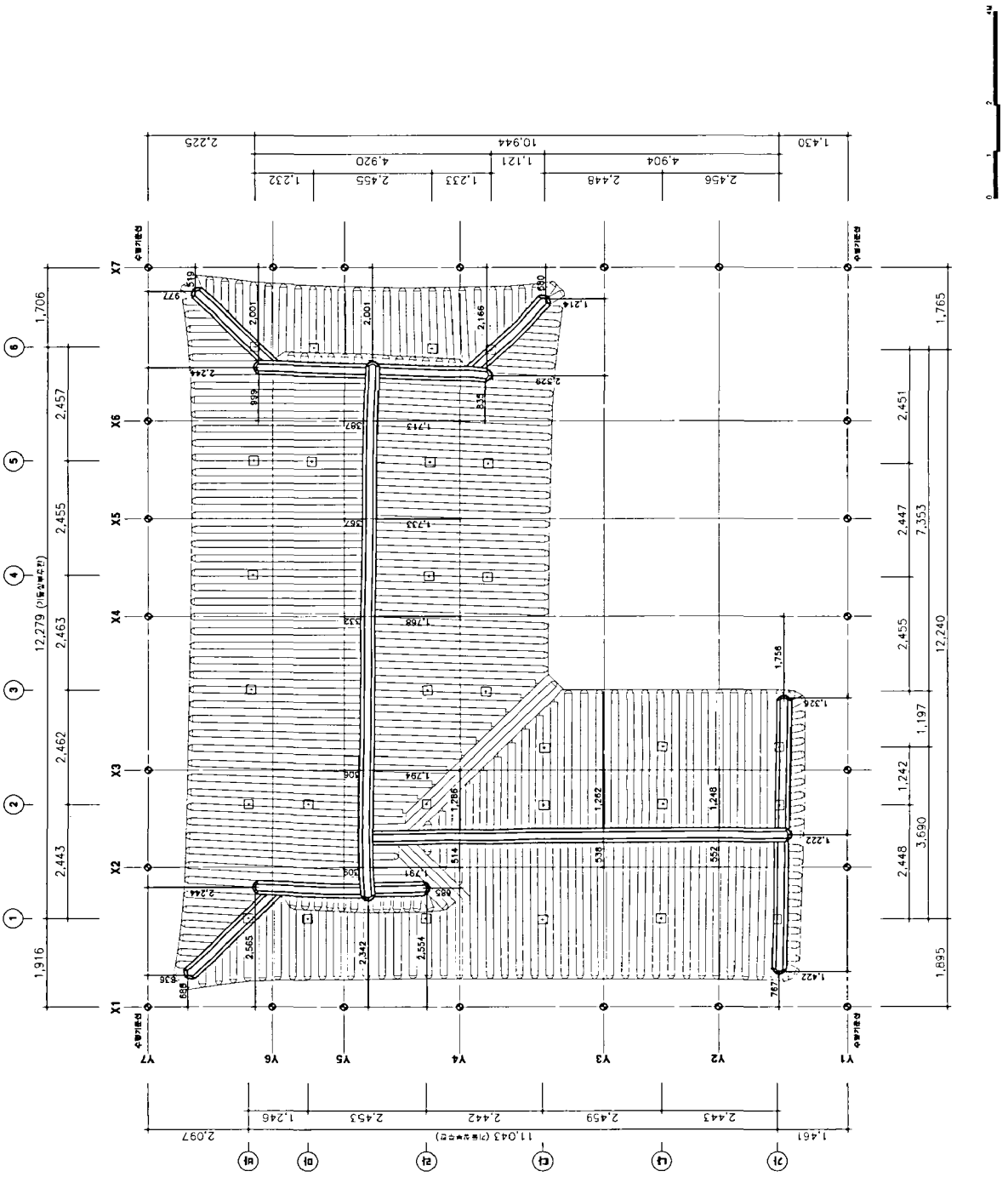
[도면12] 안채 횡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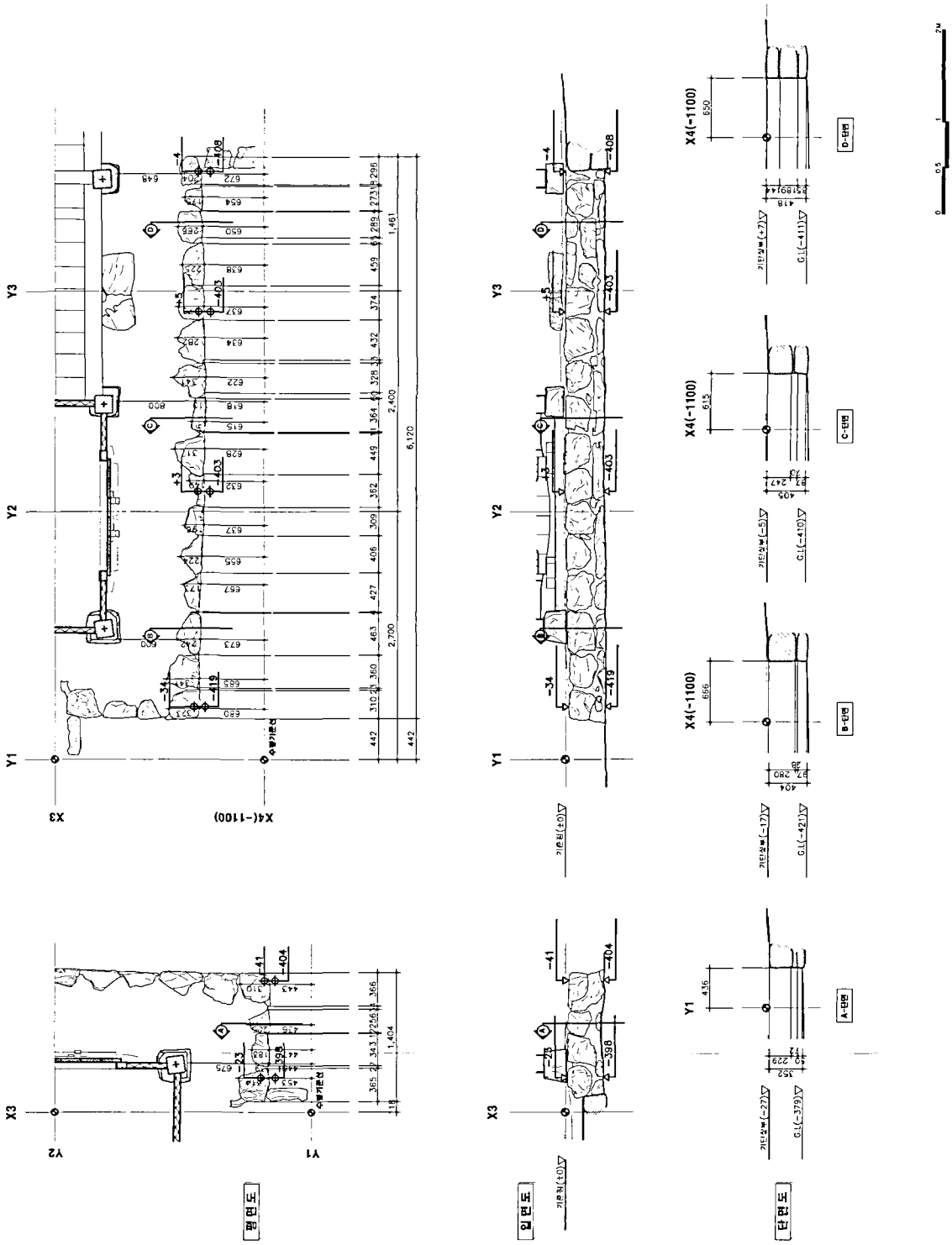
[도면13] 안채 천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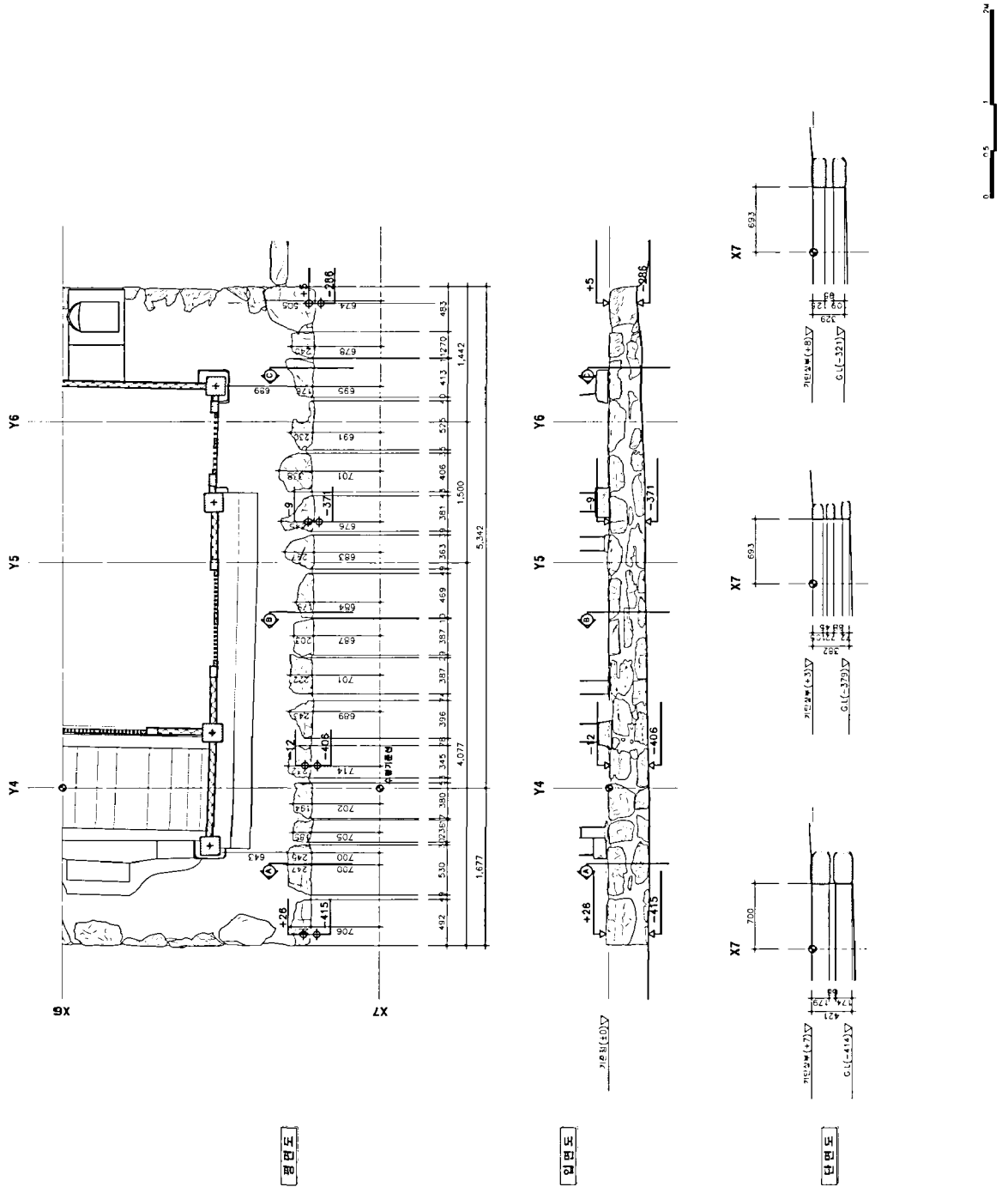
[도면14] 안채 지붕 평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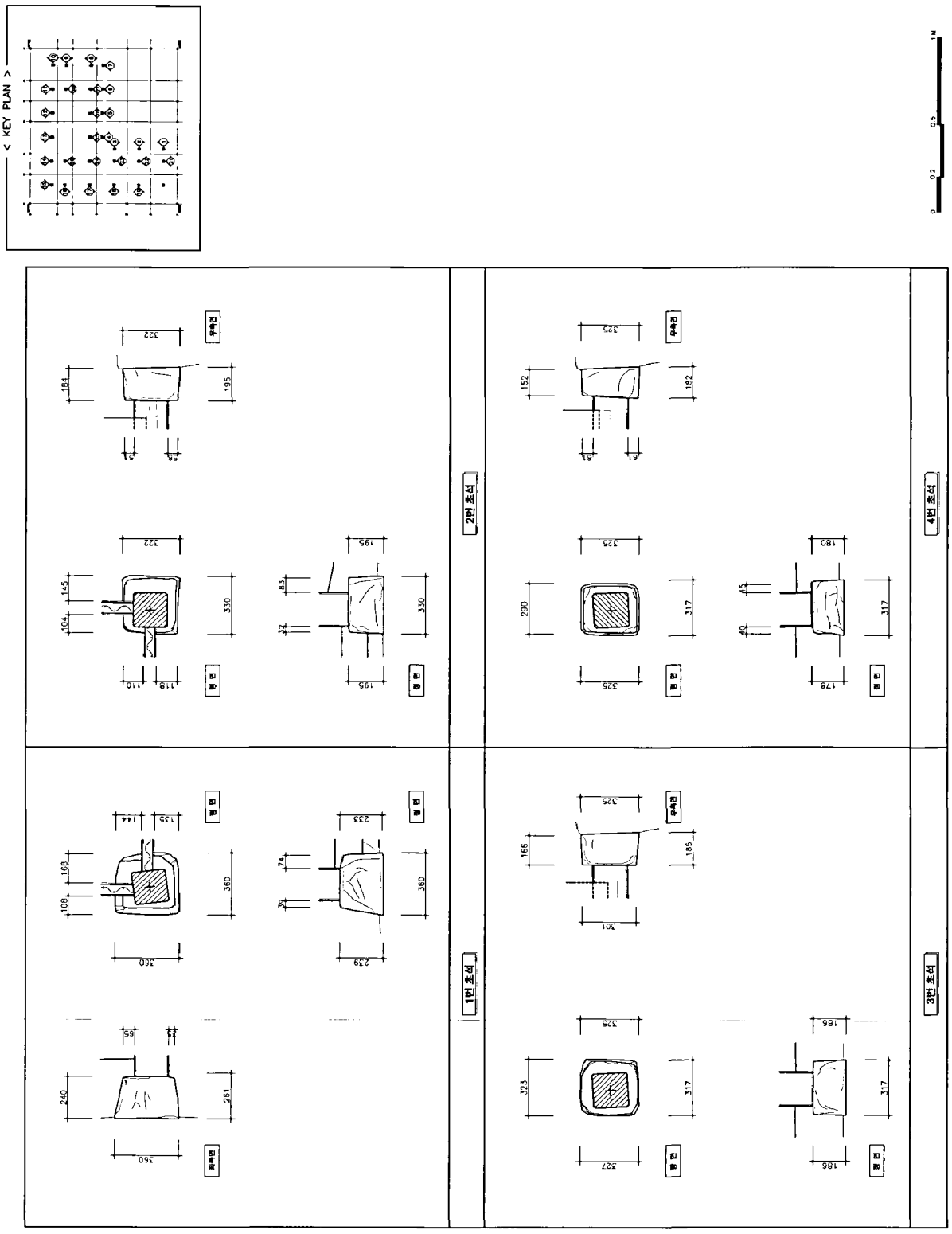
[도면15] 안채 지붕 평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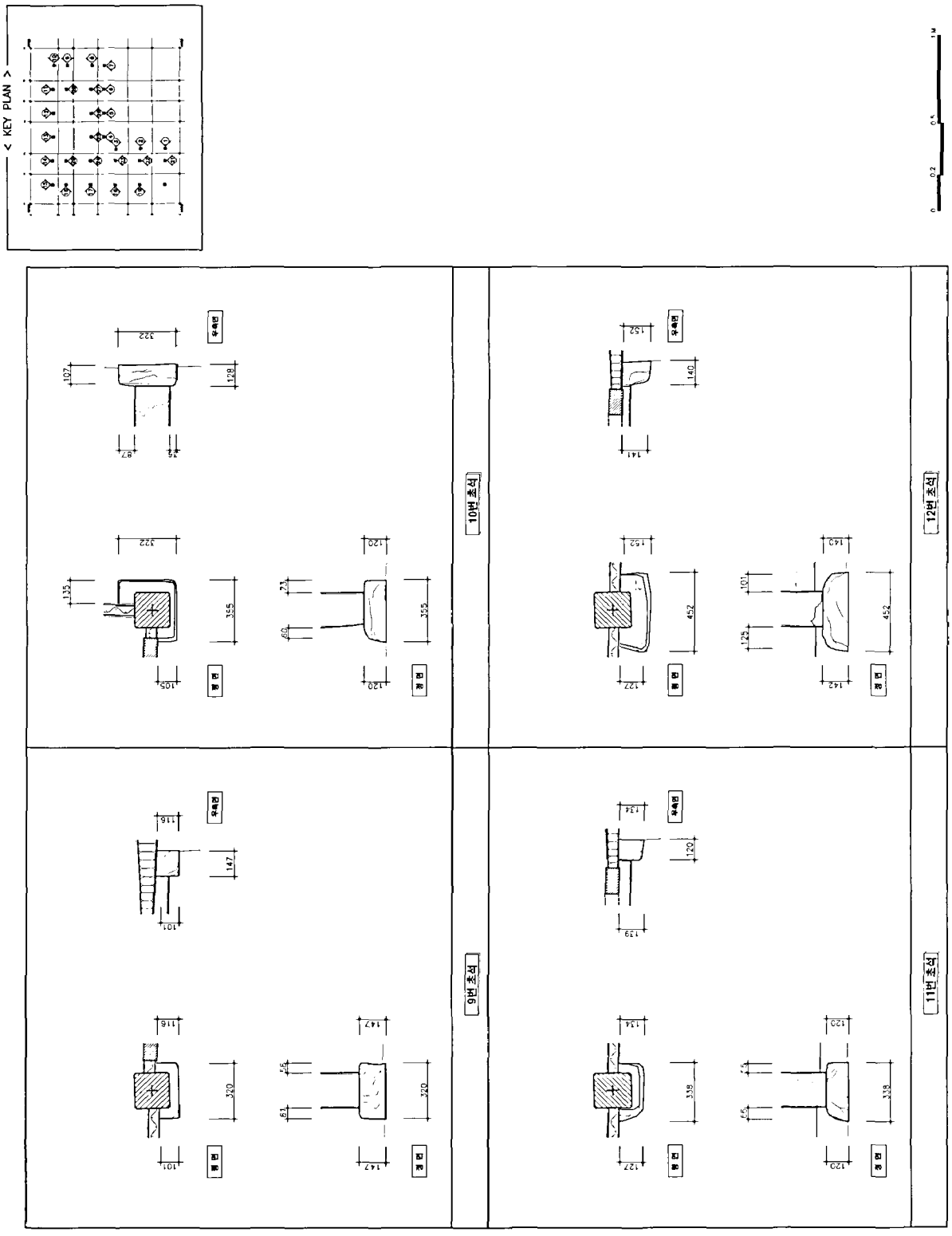
[도면16] 안채 기단 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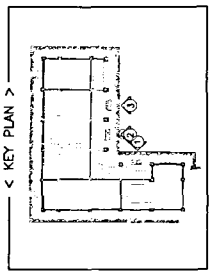
[도면17] 안채 기단 상세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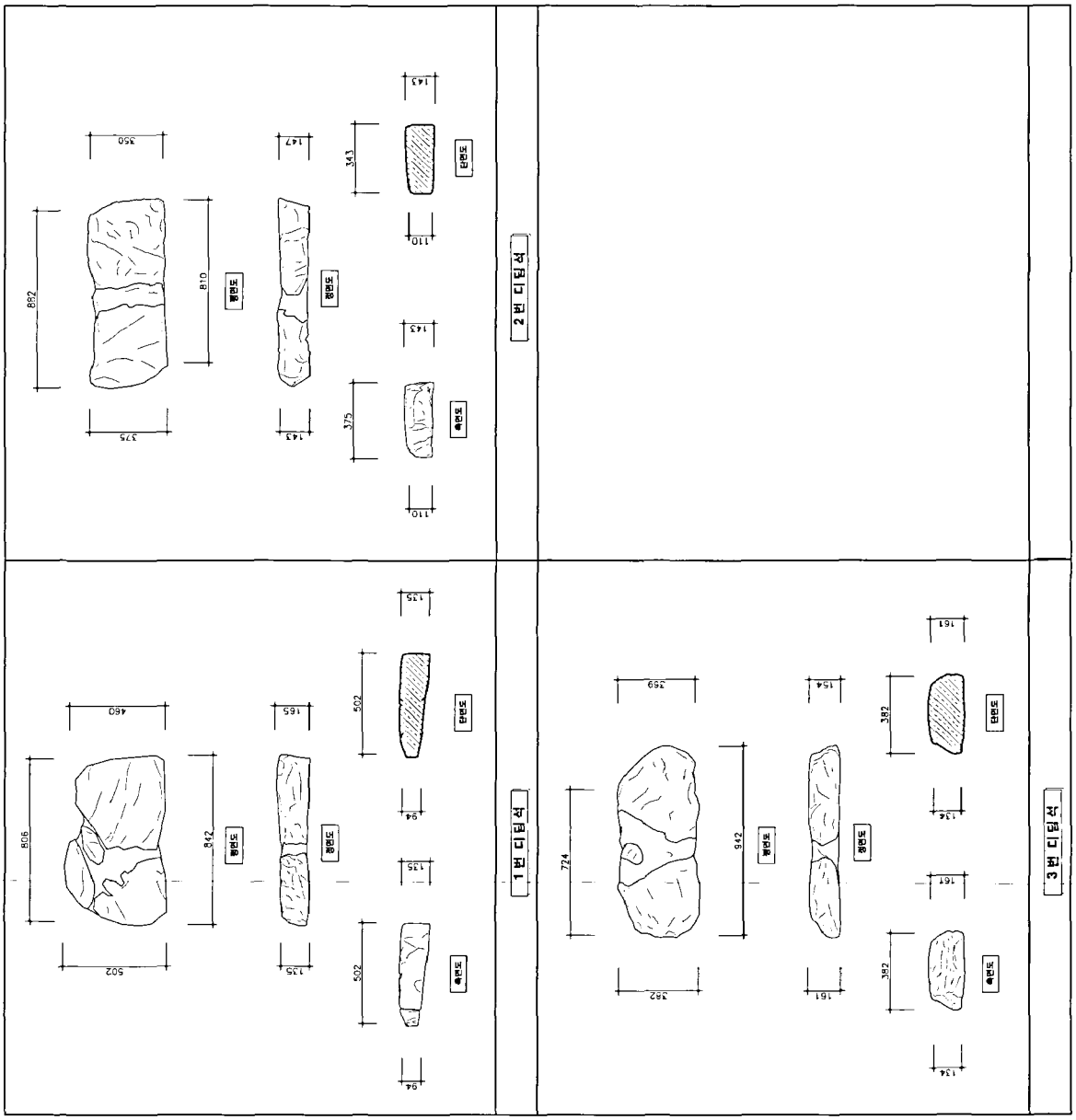
[도면18] 안채 초석 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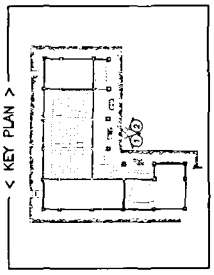
[도면19] 안채 초석 상세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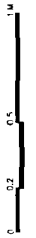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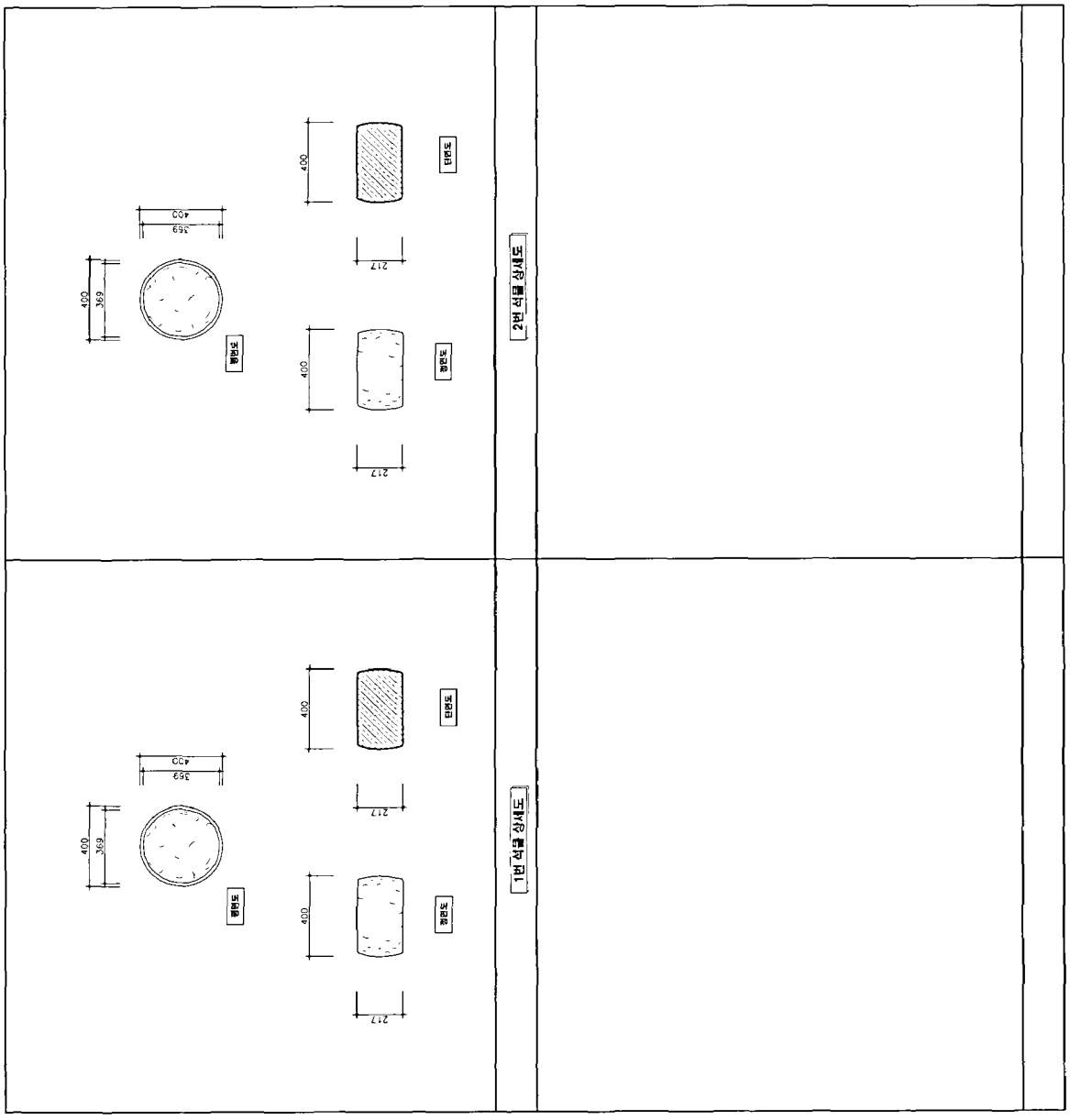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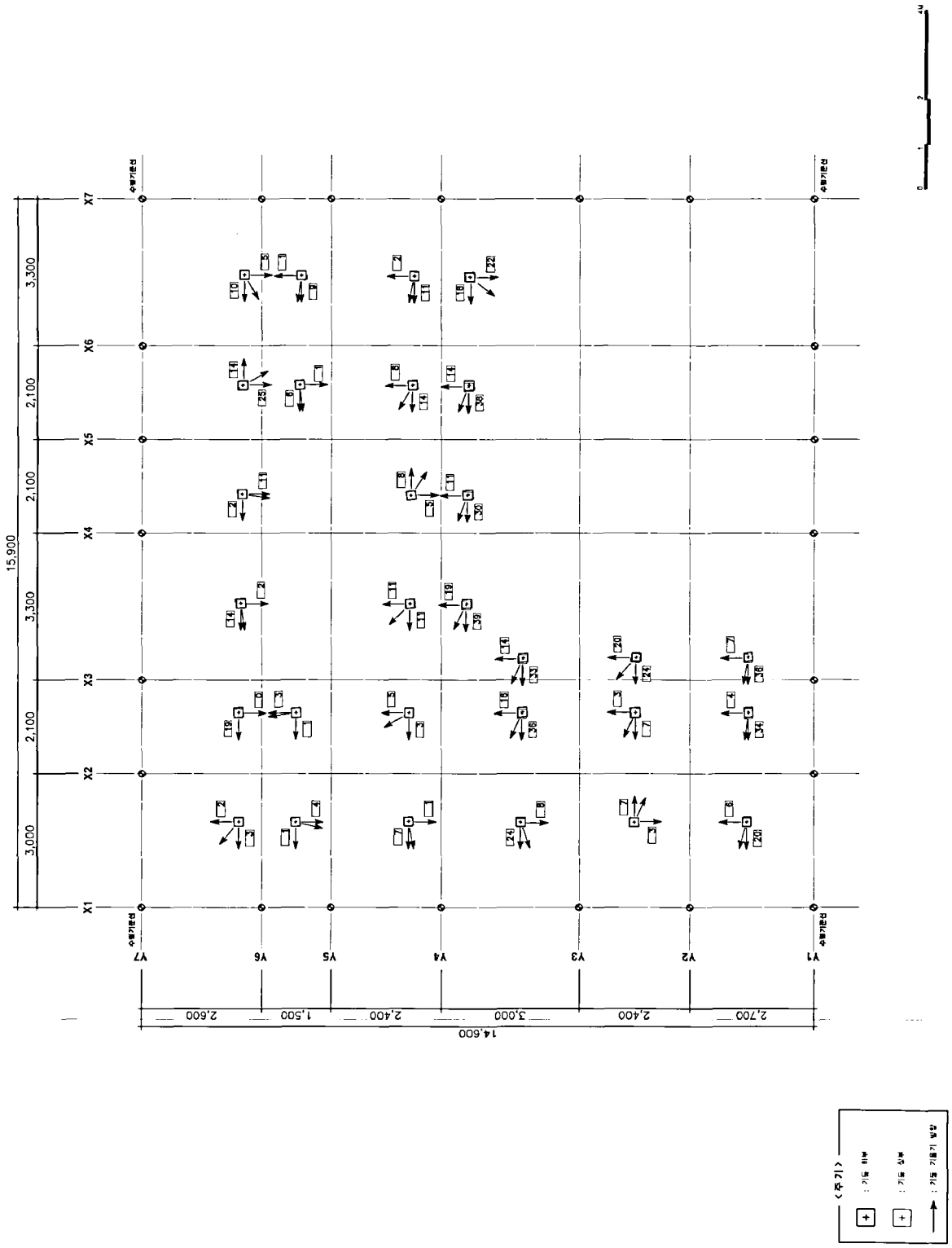
[도면20] 안채 디딤석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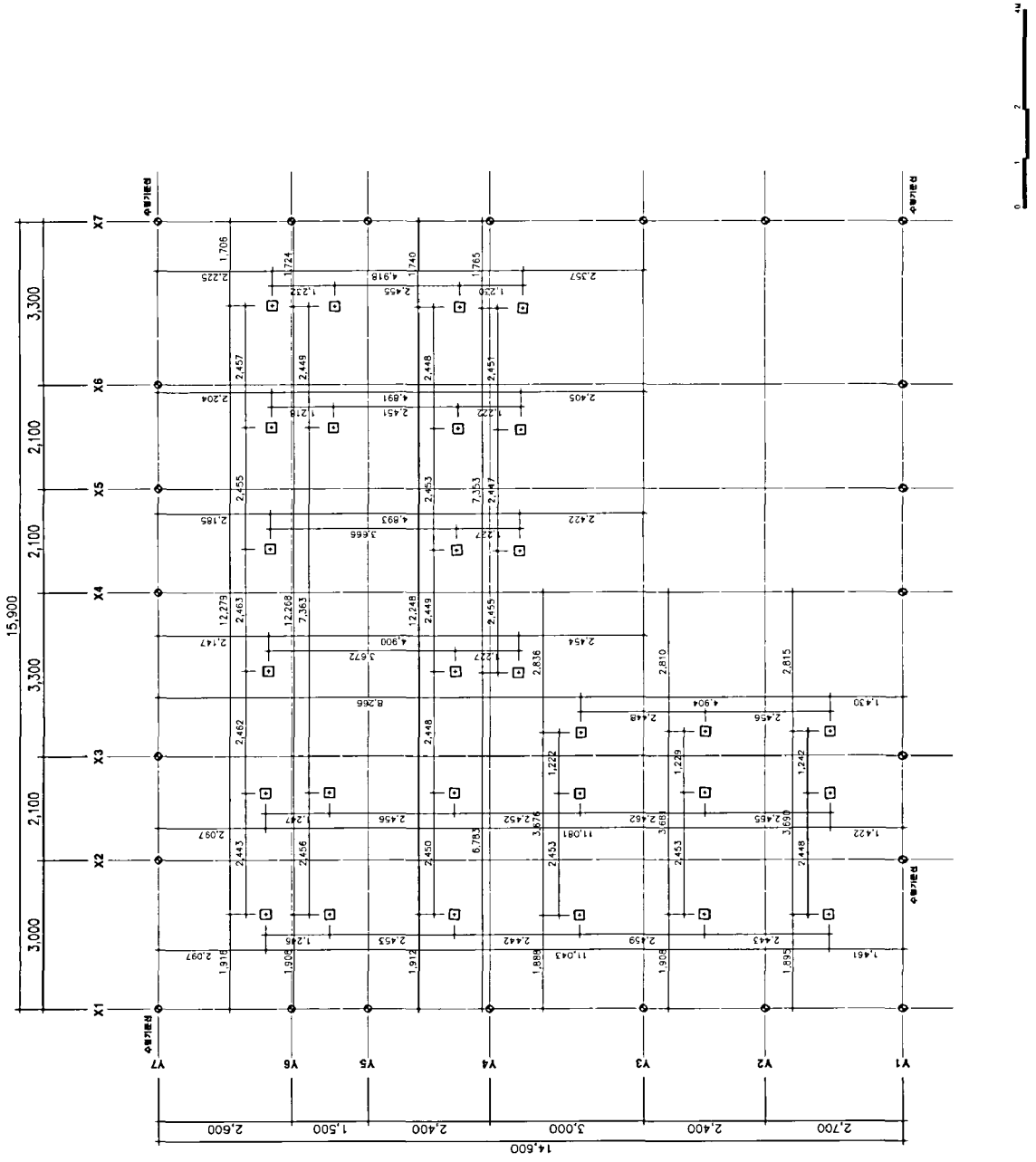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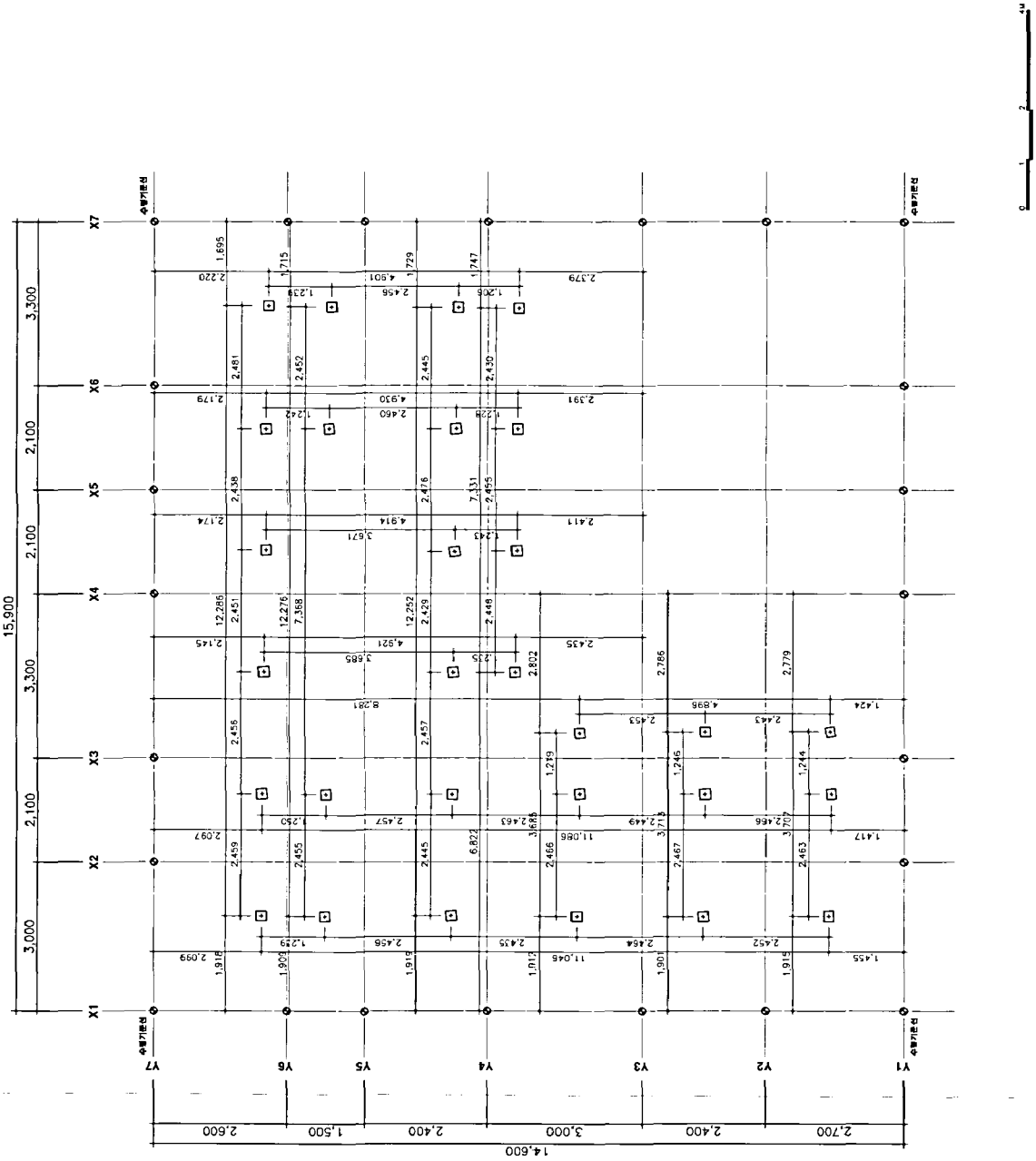
[도면21] 안채 기단 석물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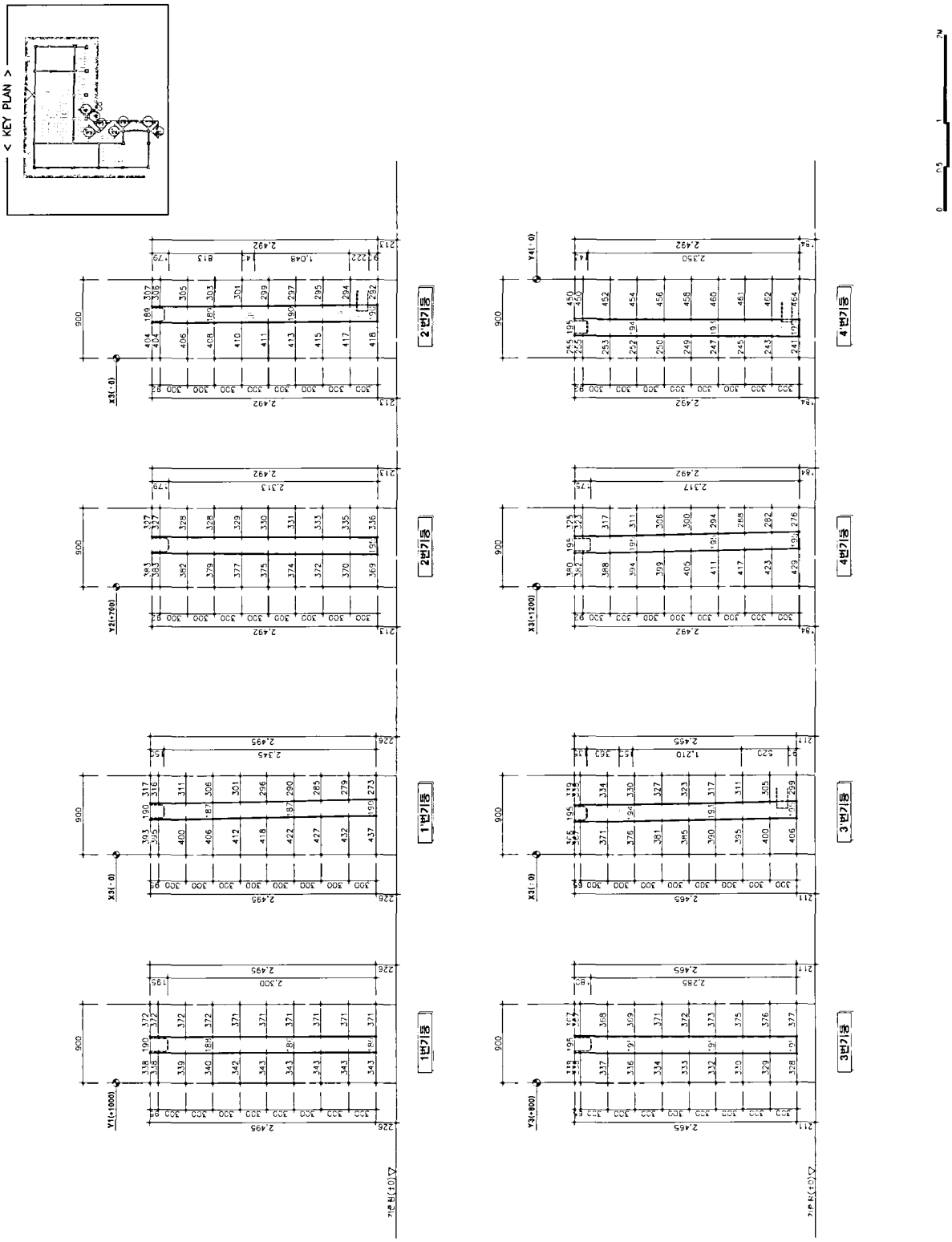
[도면22] 안채 기둥 기울기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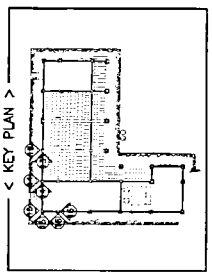
[도면23] 안채 상부 주간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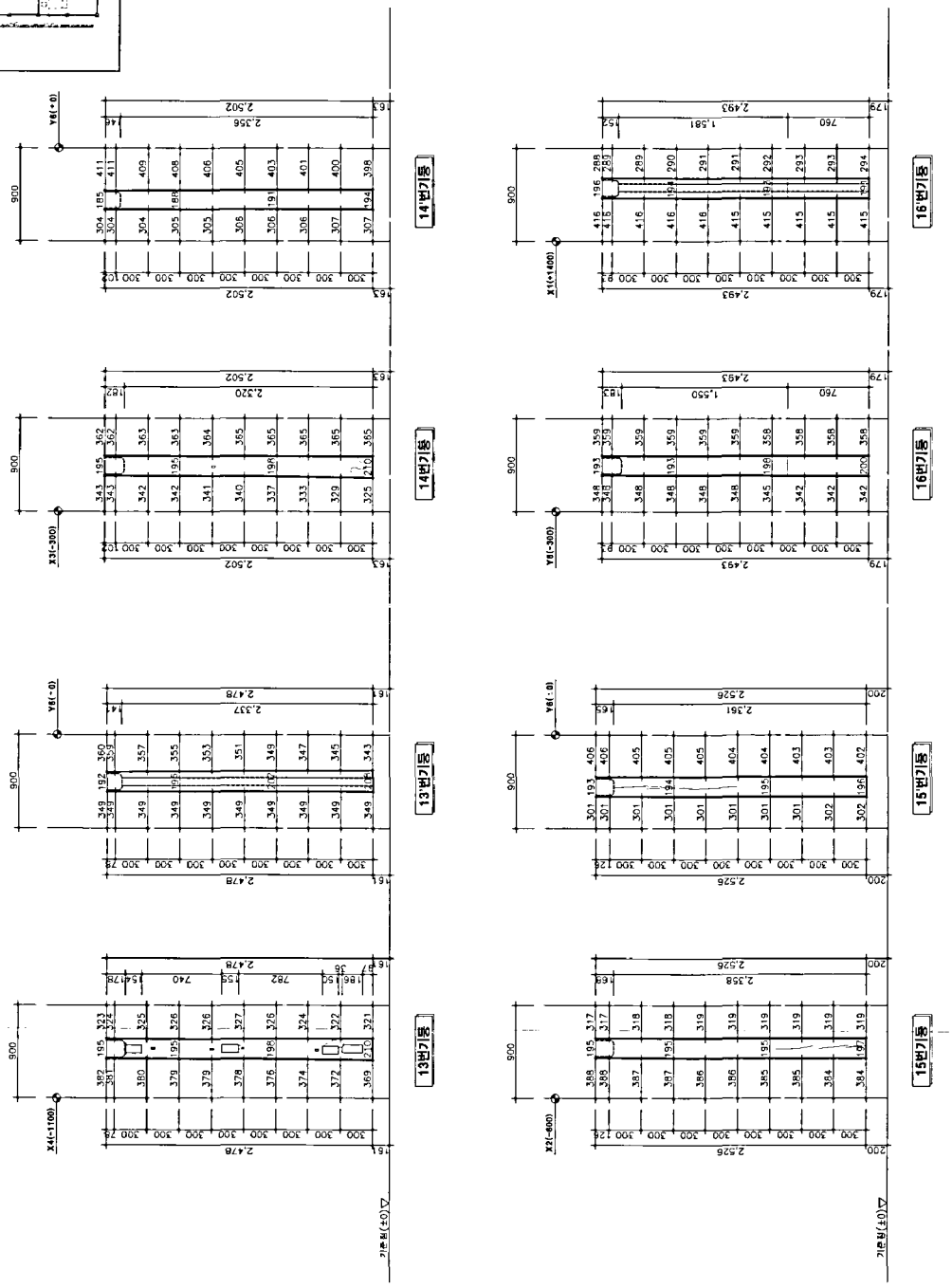


[도면24] 안채 하부 주간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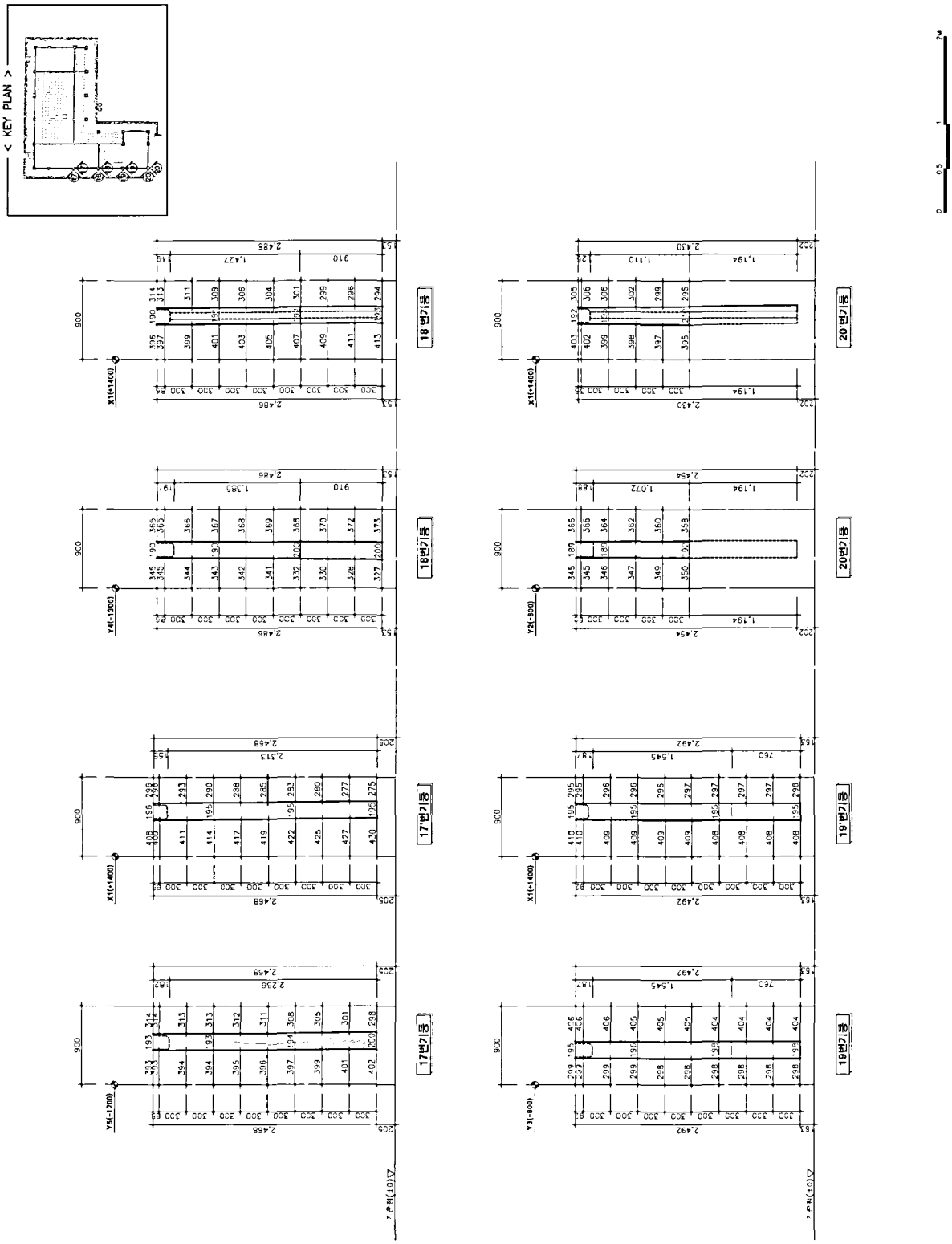


[도면25] 안채 기둥 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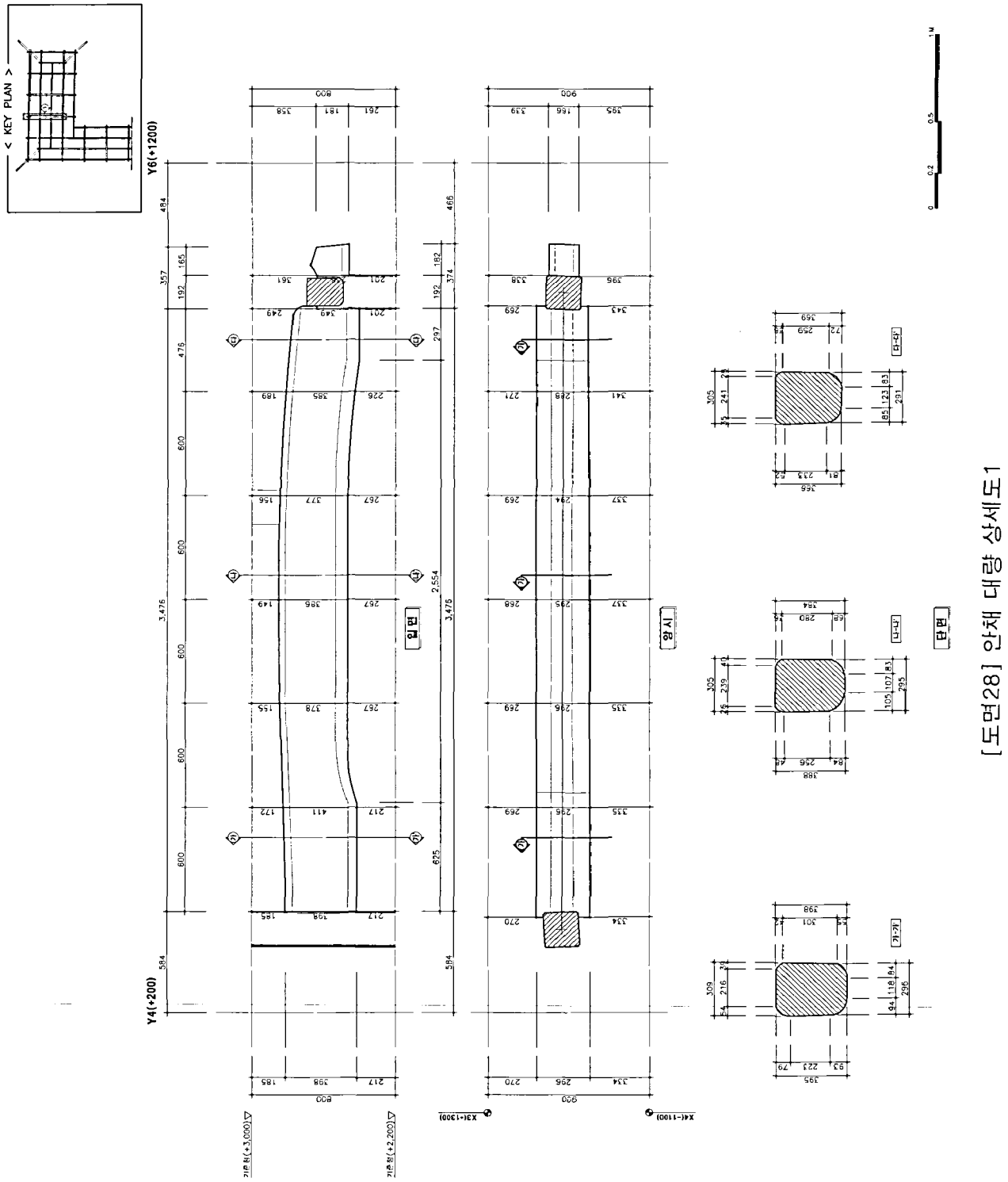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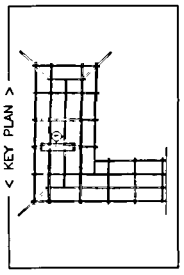
[도면26] 안채 기둥 상세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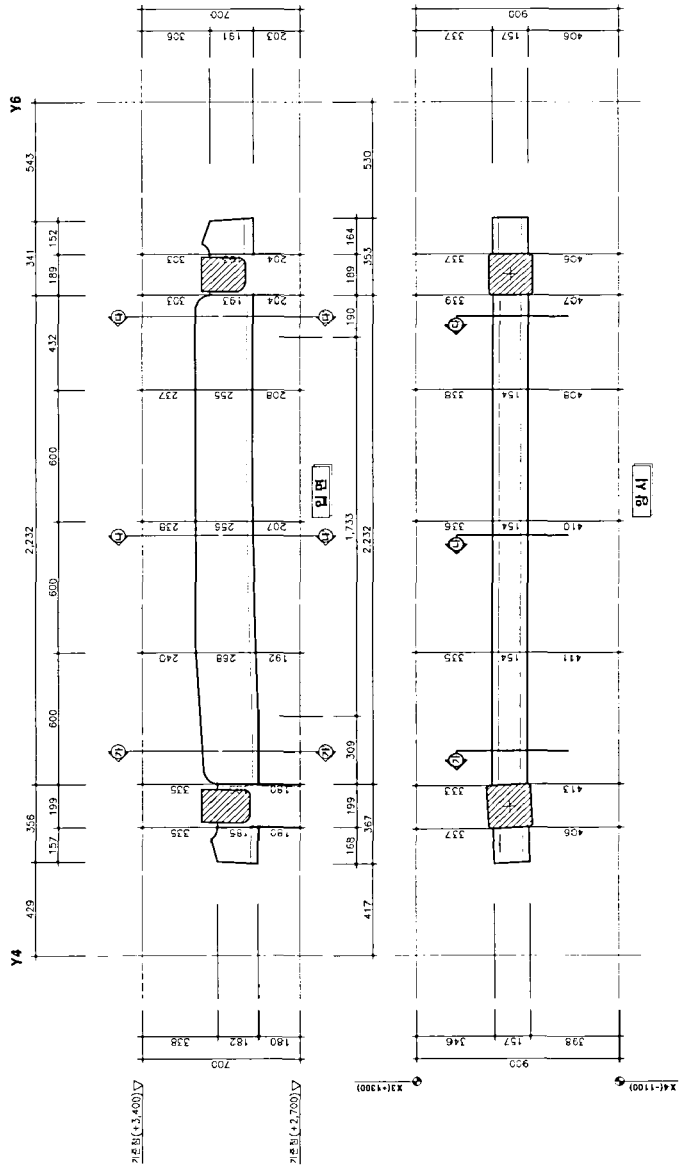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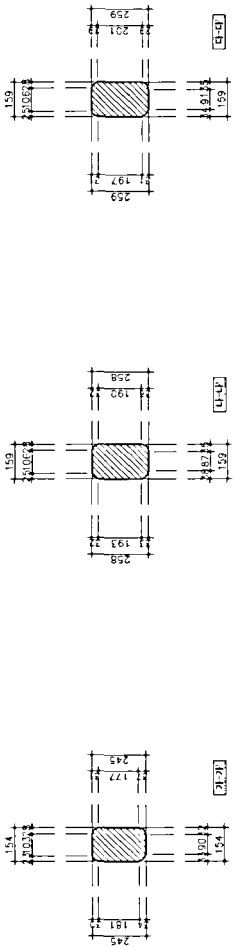
[도면27] 안채 기둥 상세도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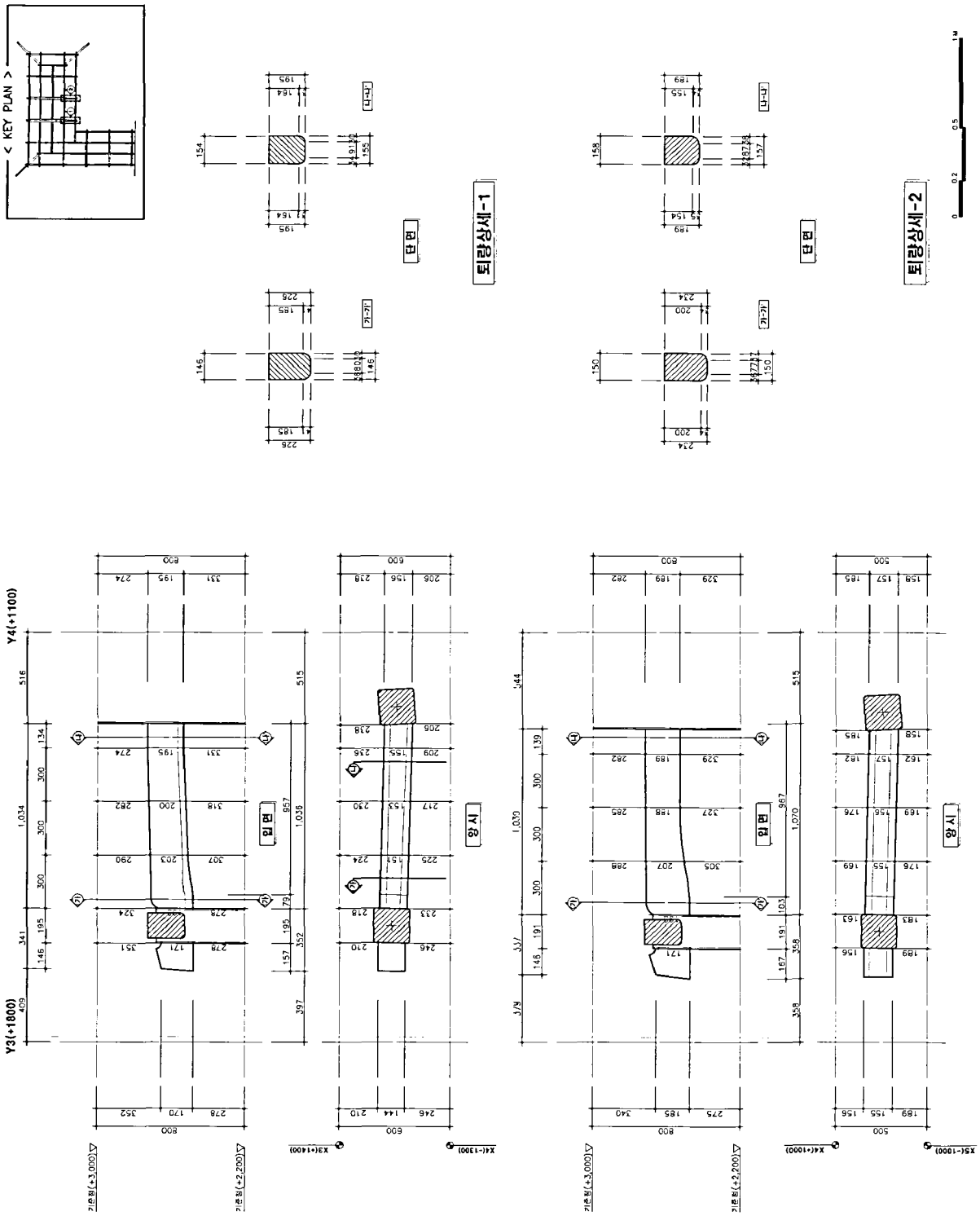
[도면28] 안채 대량 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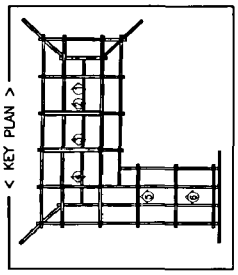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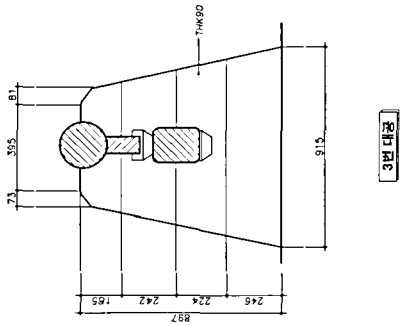
[도면29] 안채 종량 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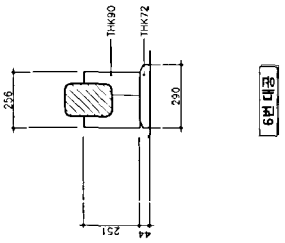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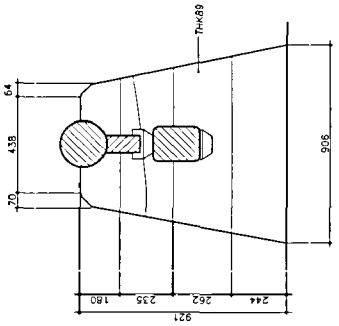
[도면30] 안채 퇴량 상세도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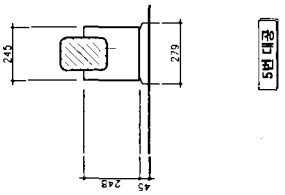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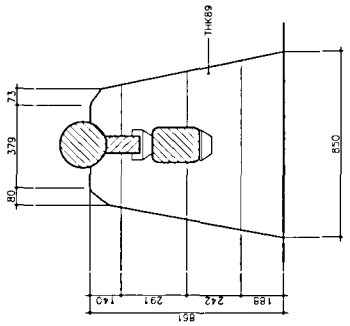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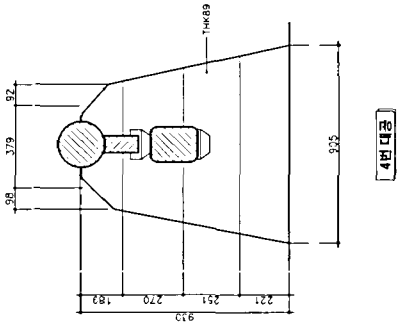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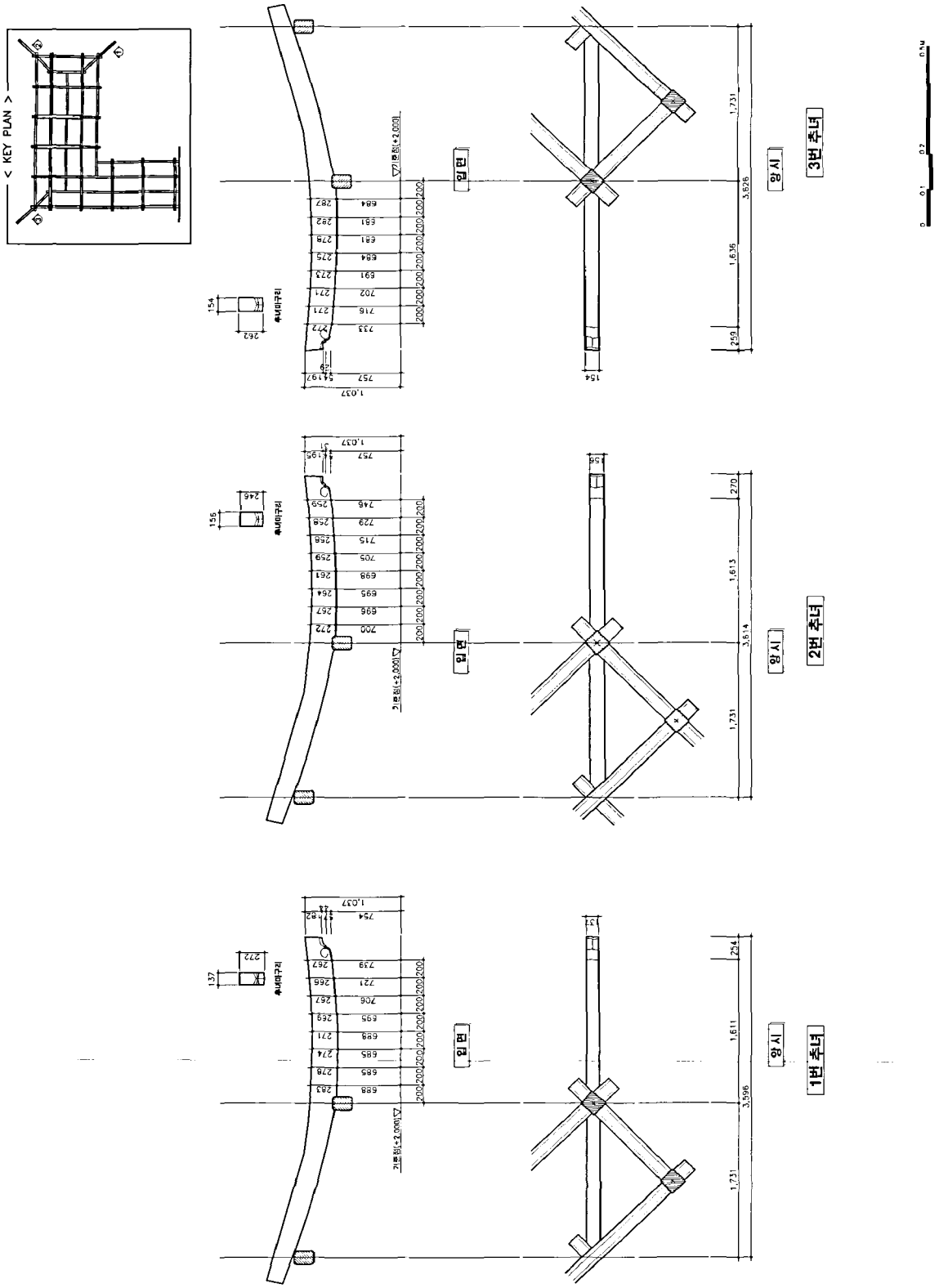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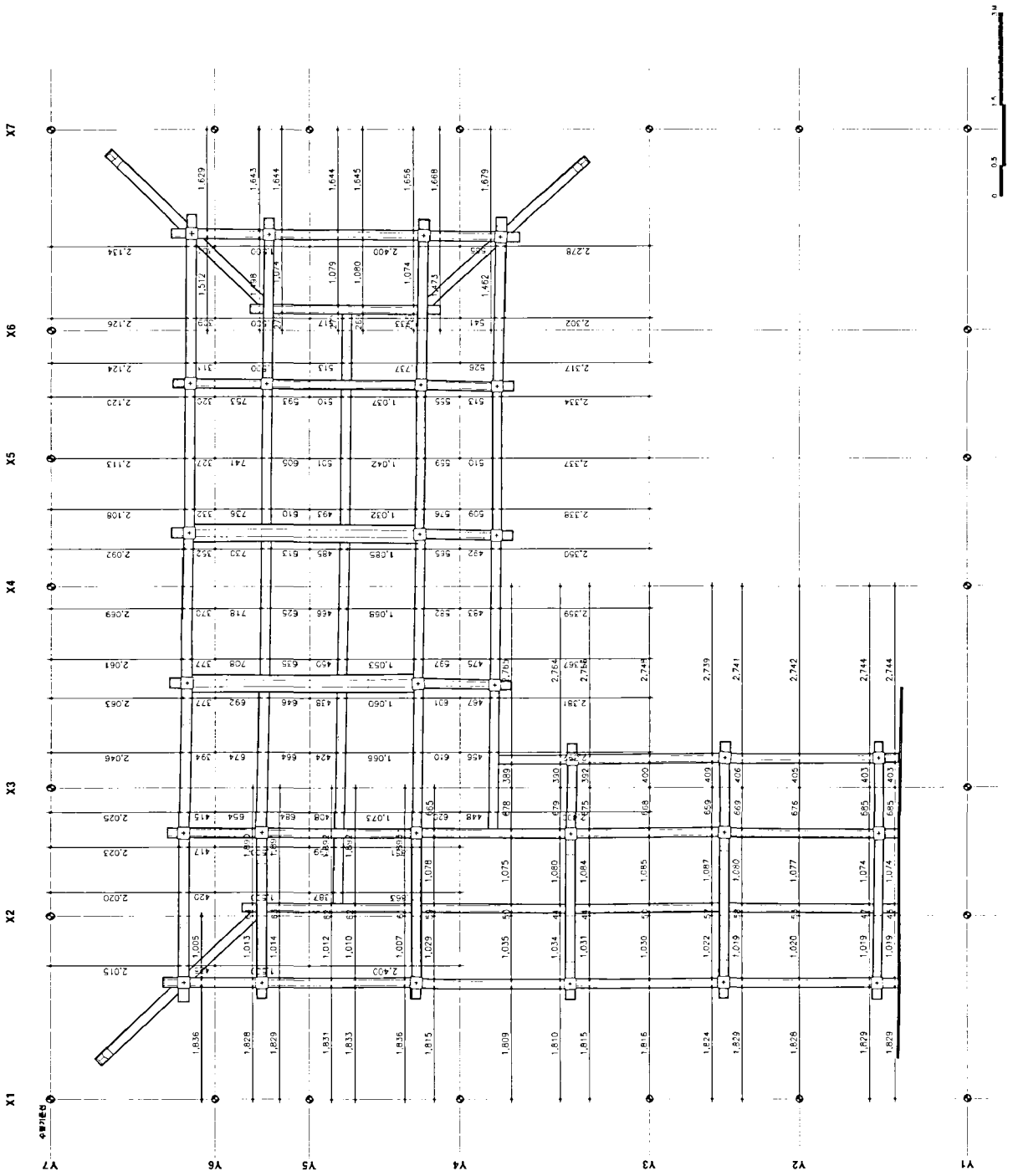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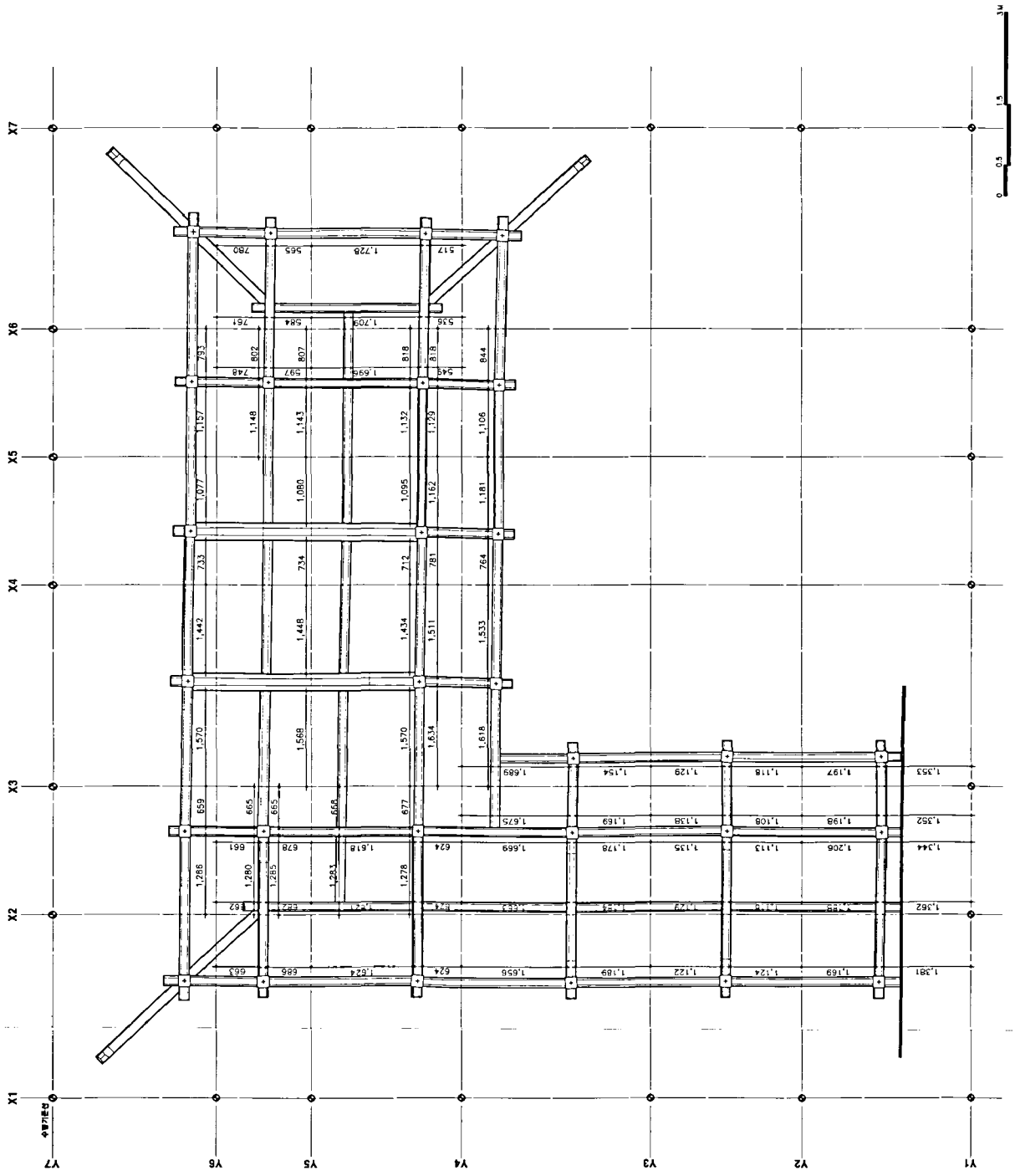
[도면31] 안채 대공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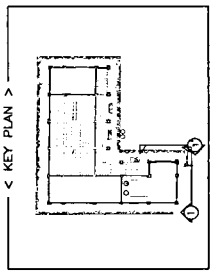
[도면32] 안채 추녀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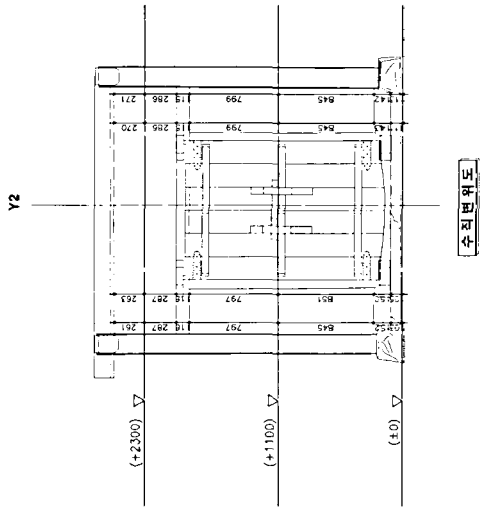
[도면33] 안채 도리 변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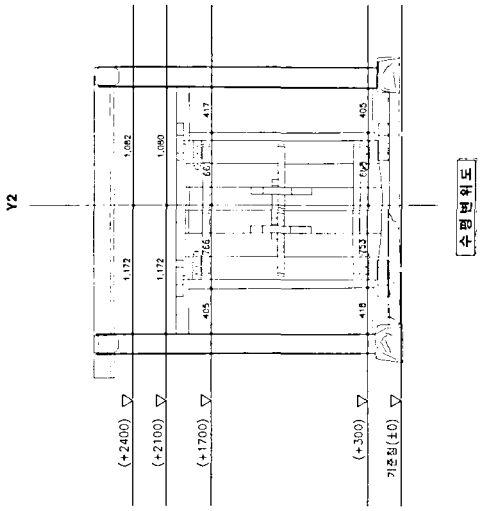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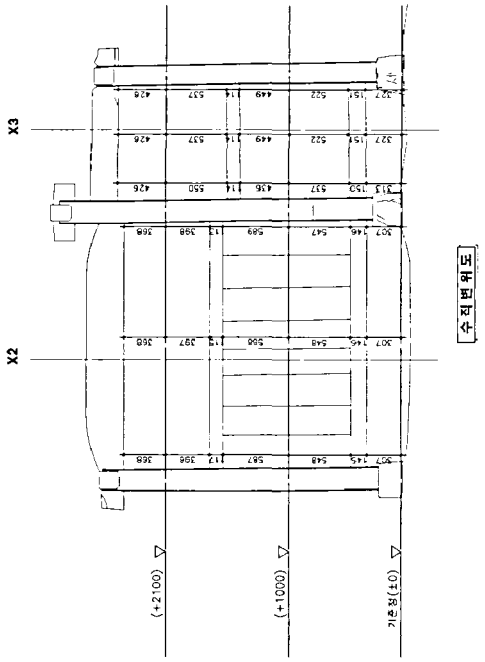
[도면34] 안채 보 번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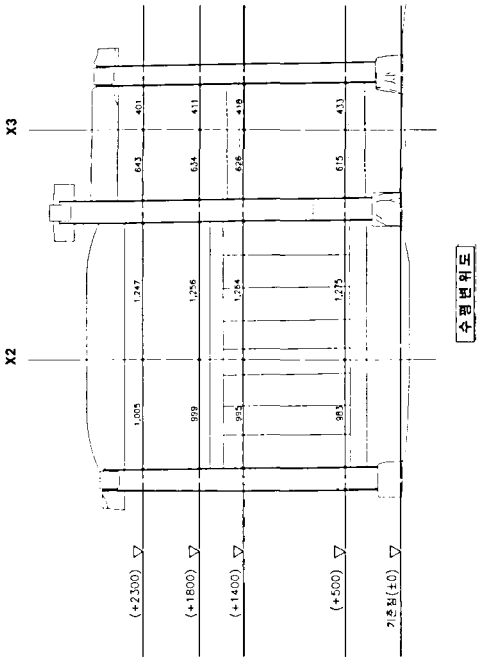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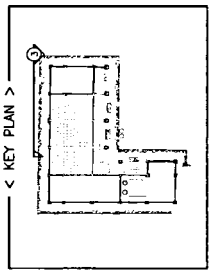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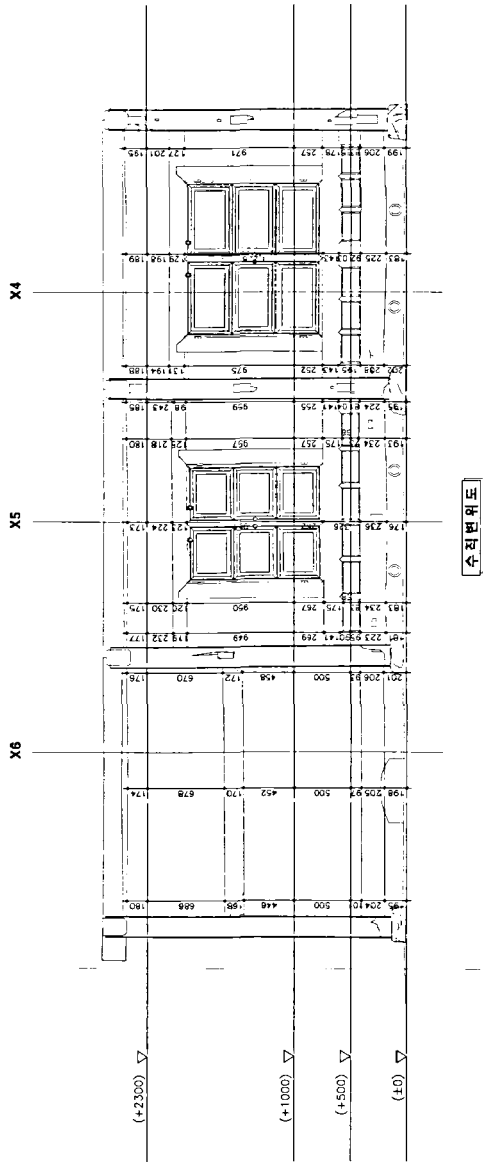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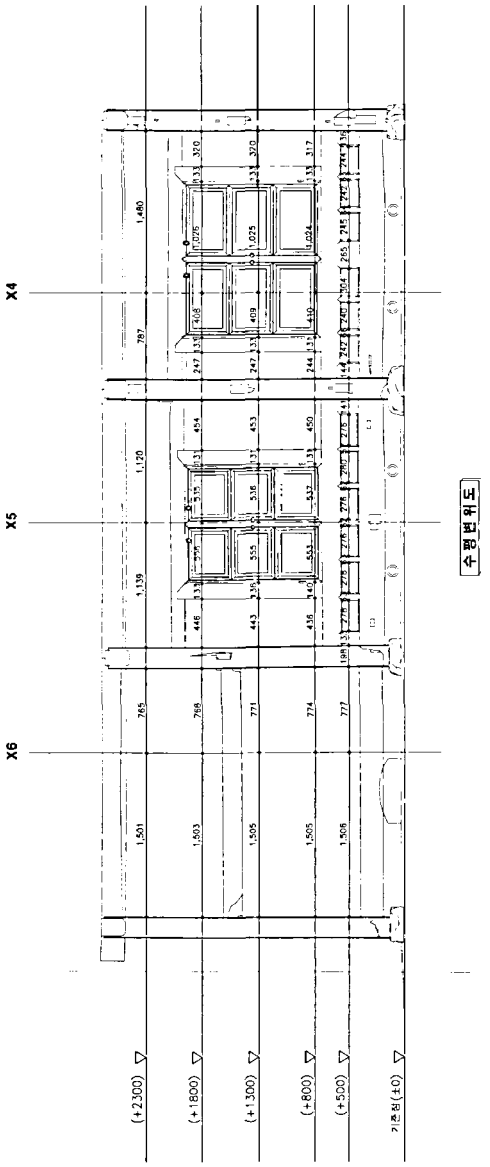


[도면35] 안채 인방 변위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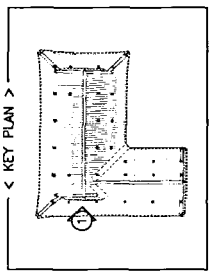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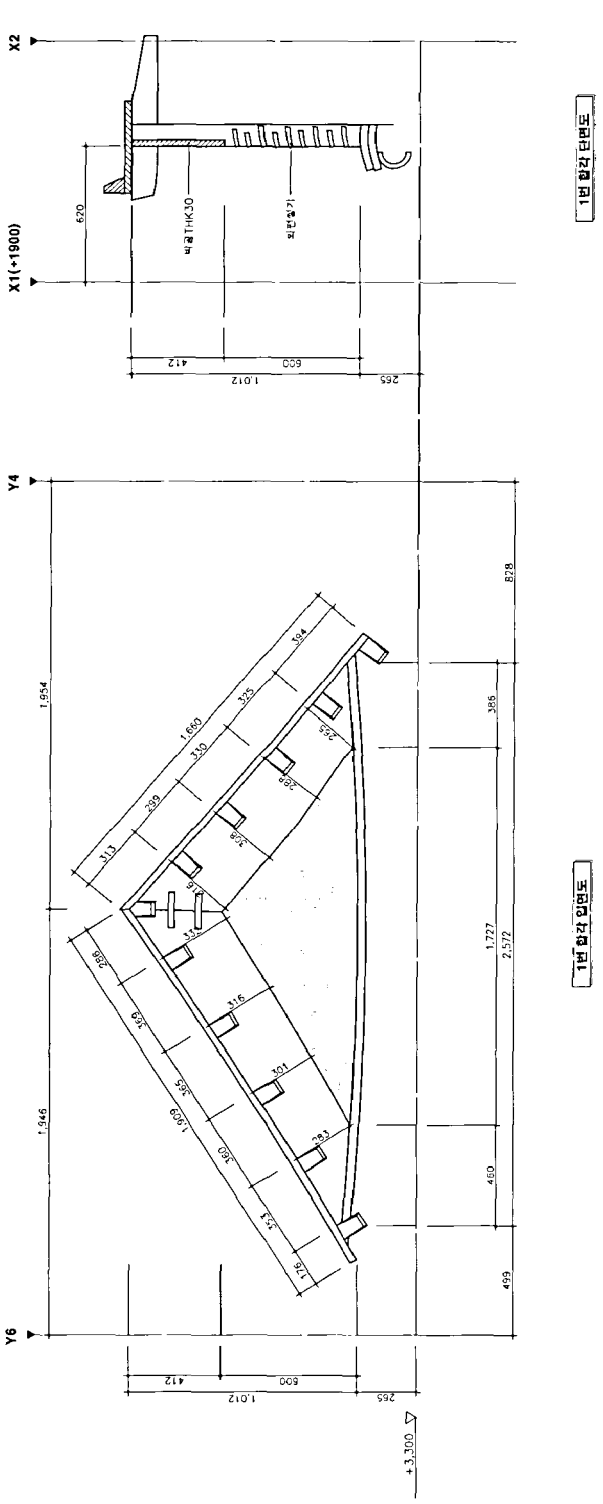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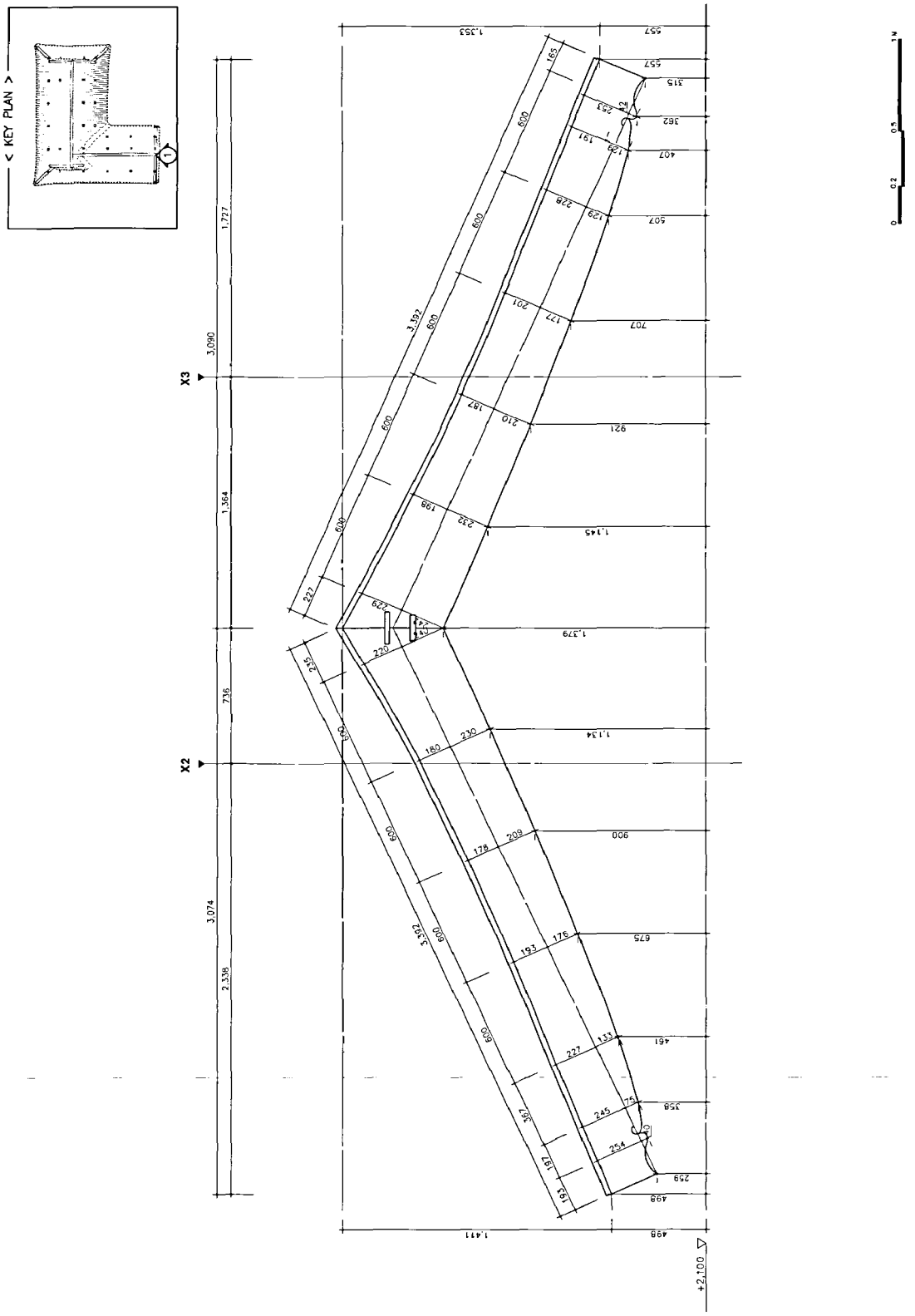


[도면36] 안채 인방 변위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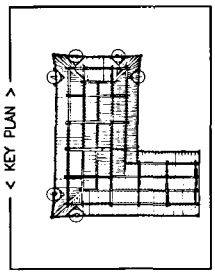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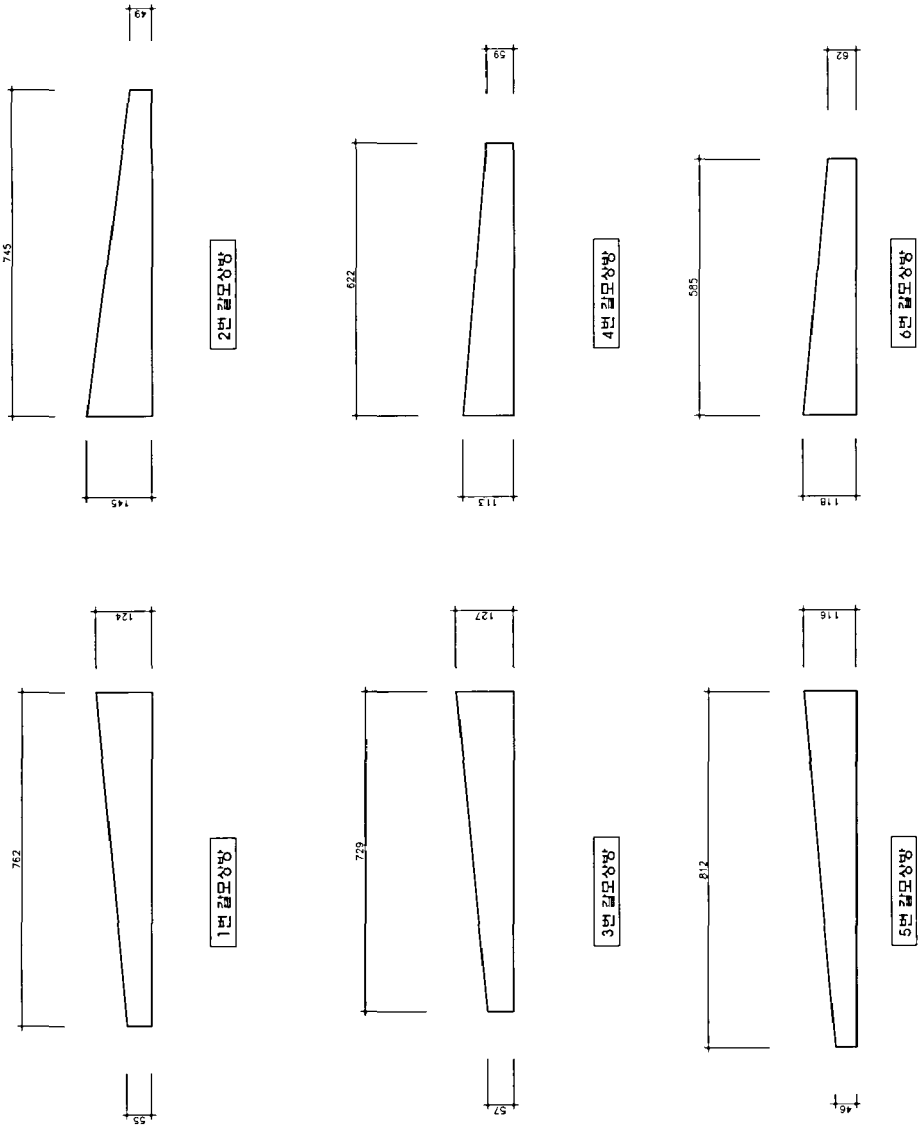
[도면37] 안채 합각 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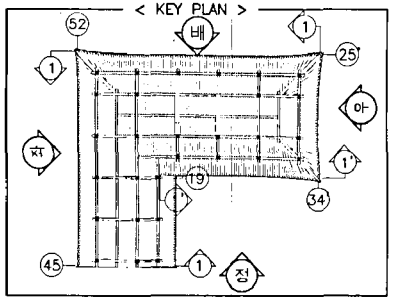
[도면38] 안채 박공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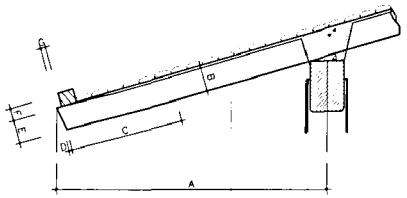






[도면39] 안채 갈모산방 상세도





정 면

연목 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A	1089	1083	1089	1088	1086	1087	1085	1090	1089	1085	1081	1083	1084	1085	1086	1087	1085	1086	1080	1085	1082	1081	1086	1084	1087	1123	1245	1327	1398	1498
B	141	145	140	143	138	139	143	145	144	143	142	140	139	141	142	124	130	133	135	129	130	131	135	138	137	136	132	133	129	134
C	425	420	421	423	422	419	410	420	435	425	438	431	428	445	446	460	454	458	455	449	472	468	452	451	446	439	438	451	453	498
D	30	27	28	29	29	26	24	27	26	26	25	27	23	29	30	36	33	32	35	34	31	30	33	35	34	32	36	30	34	27
E	109	110	114	111	108	113	116	115	112	113	113	114	117	112	115	108	114	113	111	110	118	114	116	117	115	116	112	110	118	121
F	91	90	89	91	90	90	91	91	90	89	92	88	89	90	91	93	90	91	92	93	90	89	90	91	92	88	89	90	91	89
G	27	30	29	30	33	30	28	30	29	29	28	30	30	32	33	34	32	30	31	33	31	30	29	28	29	30	31	32	33	36

연목 번호	㉛	㉜	㉝	㉞
A	1565	1623	1682	1720
B	140	143	139	135
C	547	683	724	758
D	28	26	23	35
E	114	113	117	111
F	89	89	89	92
G	29	29	30	31

좌측면

연목 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A	1155	1157	1156	1158	1155	1154	1157	1151	1150	1152	1153	1154	1152	1151	1150	1152	1153	1154	1151	1152	1158	1159	1152	1153	1155	1157	1156	1152	1155	1158
B	137	136	138	132	130	135	134	136	133	132	130	135	136	137	140	139	141	142	138	139	135	139	138	139	135	136	137	138	140	141
C	590	589	575	592	560	565	580	574	578	568	570	585	584	582	579	570	568	585	589	543	516	525	505	519	514	517	520	521	532	531
D	27	28	30	25	30	29	31	33	32	28	27	26	29	33	35	31	30	29	30	30	24	29	30	29	25	28	26	27	31	32
E	113	109	110	114	111	105	109	112	115	114	113	110	111	110	115	116	113	114	111	112	109	111	115	114	112	110	109	108	107	114
F	90	91	95	99	95	96	92	91	90	89	90	91	93	94	92	91	90	92	93	90	93	91	90	92	89	93	90	90	92	89
G	31	32	35	30	28	29	30	25	28	29	31	30	31	26	28	27	24	26	28	27	29	30	29	28	27	29	30	27	28	29

연목 번호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A	1155	1154	1151	1157	1149	1150	1153	1165	1154	1160	1158	1158	1151	1155	1158
B	150	149	149	148	150	152	151	151	150	152	149	148	147	145	149
C	538	535	532	536	533	530	537	550	525	521	530	529	528	527	519
D	23	24	21	24	22	23	24	21	25	25	27	24	23	22	27
E	108	110	110	109	111	109	108	110	112	115	109	108	112	115	112
F	90	91	90	92	89	89	90	90	91	90	92	91	90	89	90
G	32	30	30	33	29	31	32	37	35	33	34	30	31	33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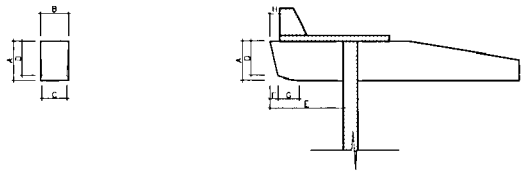
우측면

연목 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A	1085	1082	1086	1085	1086	1084	1085	1086	1088	1091	1090	1089	1088	1095	1094	1085	1081	1083	1089
B	145	146	144	140	138	141	135	142	128	138	140	139	136	139	137	141	119	135	140
C	435	442	440	440	438	425	438	428	485	470	475	480	481	480	472	482	472	480	475
D	36	46	40	38	36	41	30	36	36	38	37	32	30	33	35	31	57	38	41
E	115	111	116	118	109	112	115	116	108	110	115	114	113	109	114	112	110	108	115
F	90	90	91	90	89	90	90	91	91	90	91	90	90	90	91	89	92	90	88
G	32	34	30	31	28	31	34	33	36	30	31	32	30	35	34	33	37	35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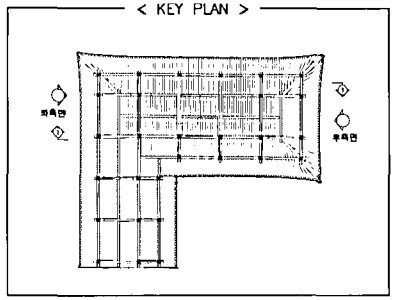
연목 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A	1724	1610	1538	1450	1389	1312	1245	1119	1120	1118	1120	1125	1119	1189	1123	1124	1115	1118	1256	1379	1385	1468	1587	1673	1765
B	136	136	136	136	136	132	138	133	134	135	140	139	131	130	135	134	133	130	136	132	130	128	133	130	136
C	615	628	626	619	609	605	609	621	628	626	620	618	639	654	659	694	685	697	668	675	669	705	698	685	679
D	38	39	35	36	40	38	37	33	35	32	38	33	42	38	37	33	35	32	26	29	28	22	29	28	29
E	110	111	108	113	112	115	114	118	110	111	117	116	109	110	111	108	113	112	115	114	112	112	113	112	115
F	88	89	90	89	90	89	88	90	91	92	93	90	91	89	88	90	91	92	93	90	91	88	90	91	88
G	33	35	31	34	38	37	31	35	33	32	36	32	38	31	35	33	32	36	32	35	35	36	35	33	32

0 0.2 0.5 1M

[도면40] 안채 처마부 상세 실측도1



정면 측면 하부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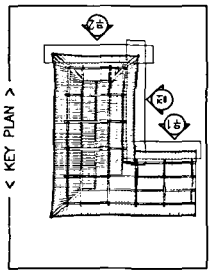
좌측면

목기연번호	A	B	C	D	E	F	G	H	개판 THK
①	114	72	56	99	245	22	98	26	30
②	115	70	58	100	243	20	100	27	29
③	114	71	60	101	245	21	101	29	29
④	116	72	59	99	243	19	99	28	29
⑤	114	70	62	100	246	20	100	29	30
⑥	115	73	61	102	245	21	101	32	30
⑦	113	74	63	100	241	22	102	33	30
⑧	120	75	65	105	245	20	100	35	28
⑨	117	72	59	101	242	21	101	30	30
⑩	114	71	61	99	245	20	99	28	30
⑪	115	73	64	98	240	19	101	26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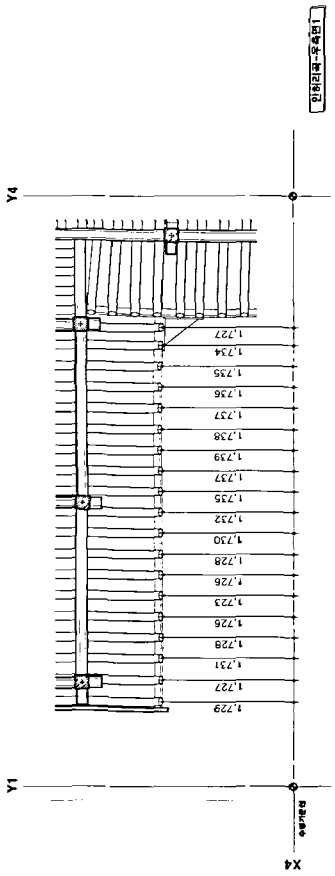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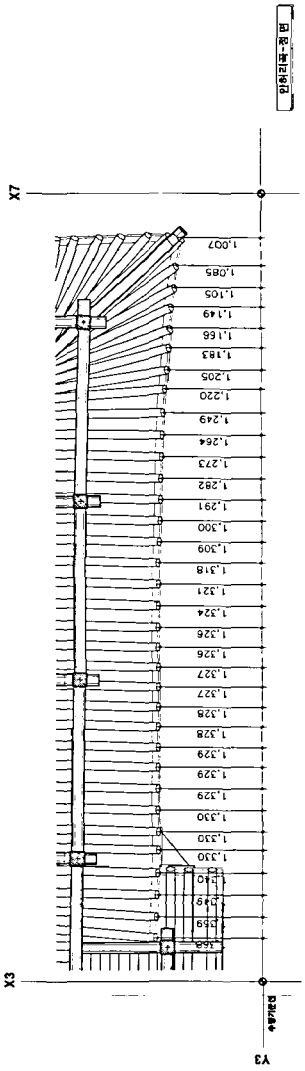
목기연번호	A	B	C	D	E	F	G	H	I
①	119	69	56	110	239	21	81	29	29
②	118	70	66	111	238	18	80	27	30
③	119	71	67	112	237	20	82	29	30
④	115	73	64	109	240	19	79	28	29
⑤	116	75	68	110	235	20	81	29	30
⑥	117	77	70	105	242	21	89	30	31
⑦	114	72	68	108	243	20	90	27	30
⑧	113	71	65	107	242	19	92	29	28
⑨	117	72	66	109	240	20	86	30	30
⑩	116	75	65	108	239	19	81	2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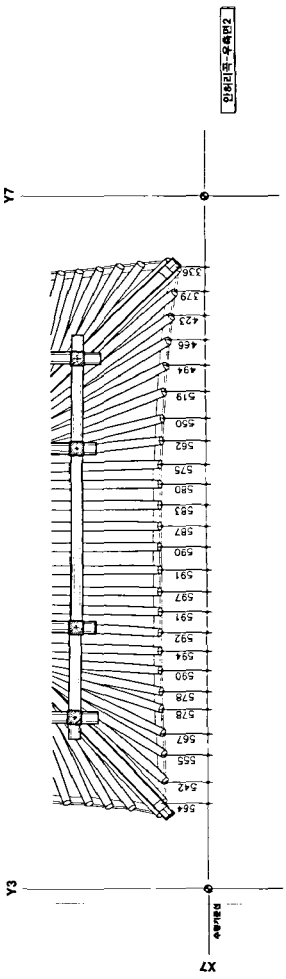
[도면41] 안채 목기연 상세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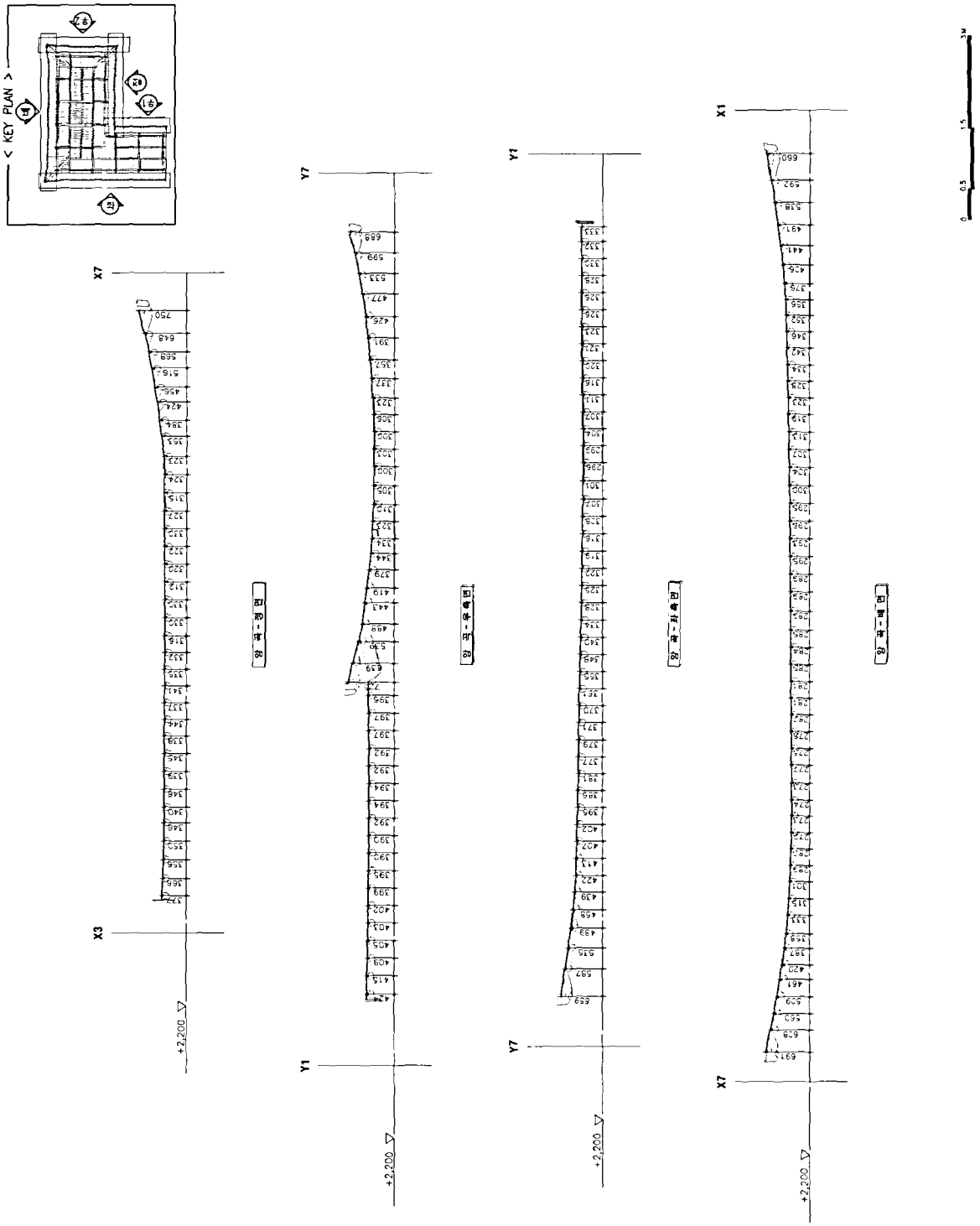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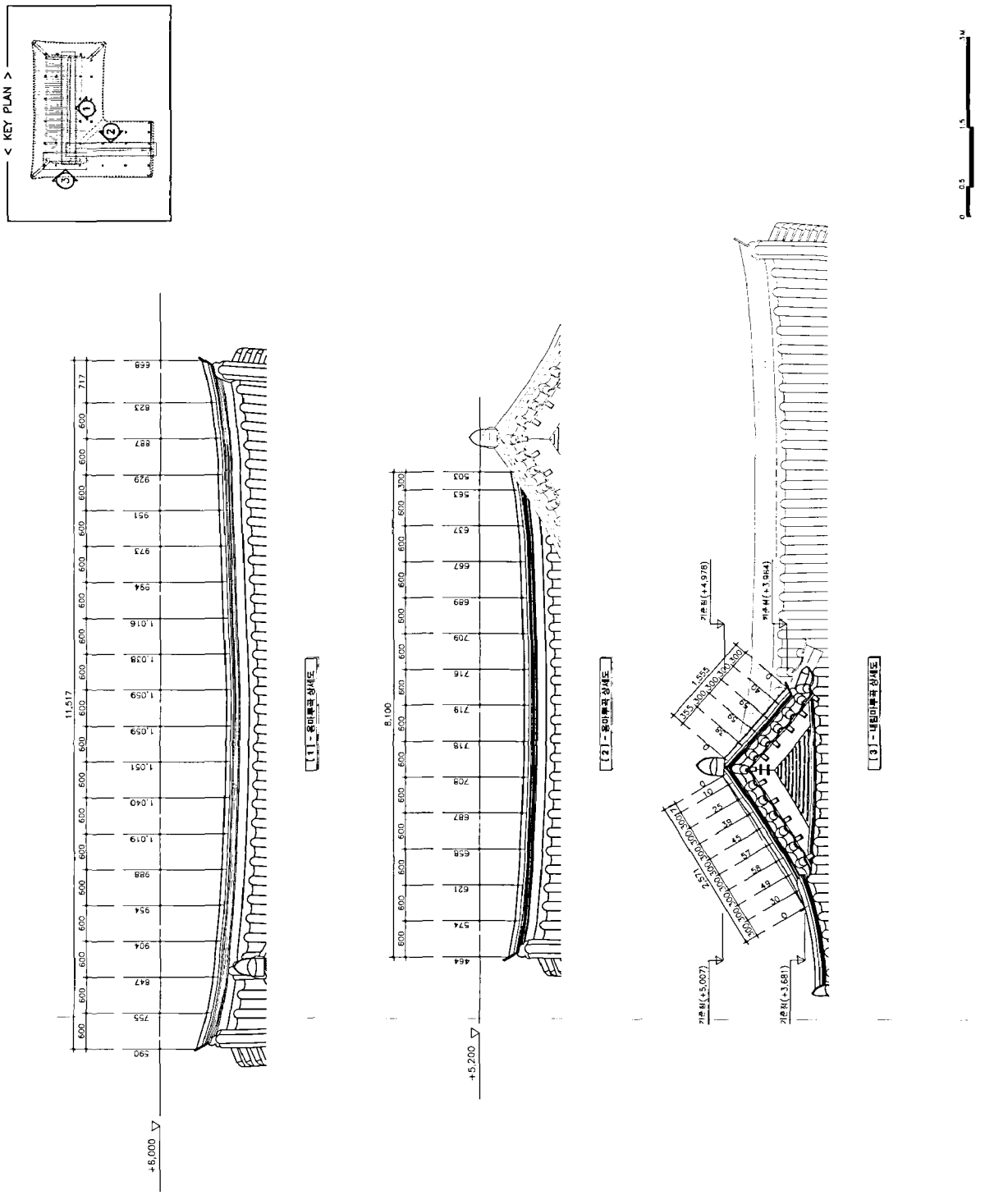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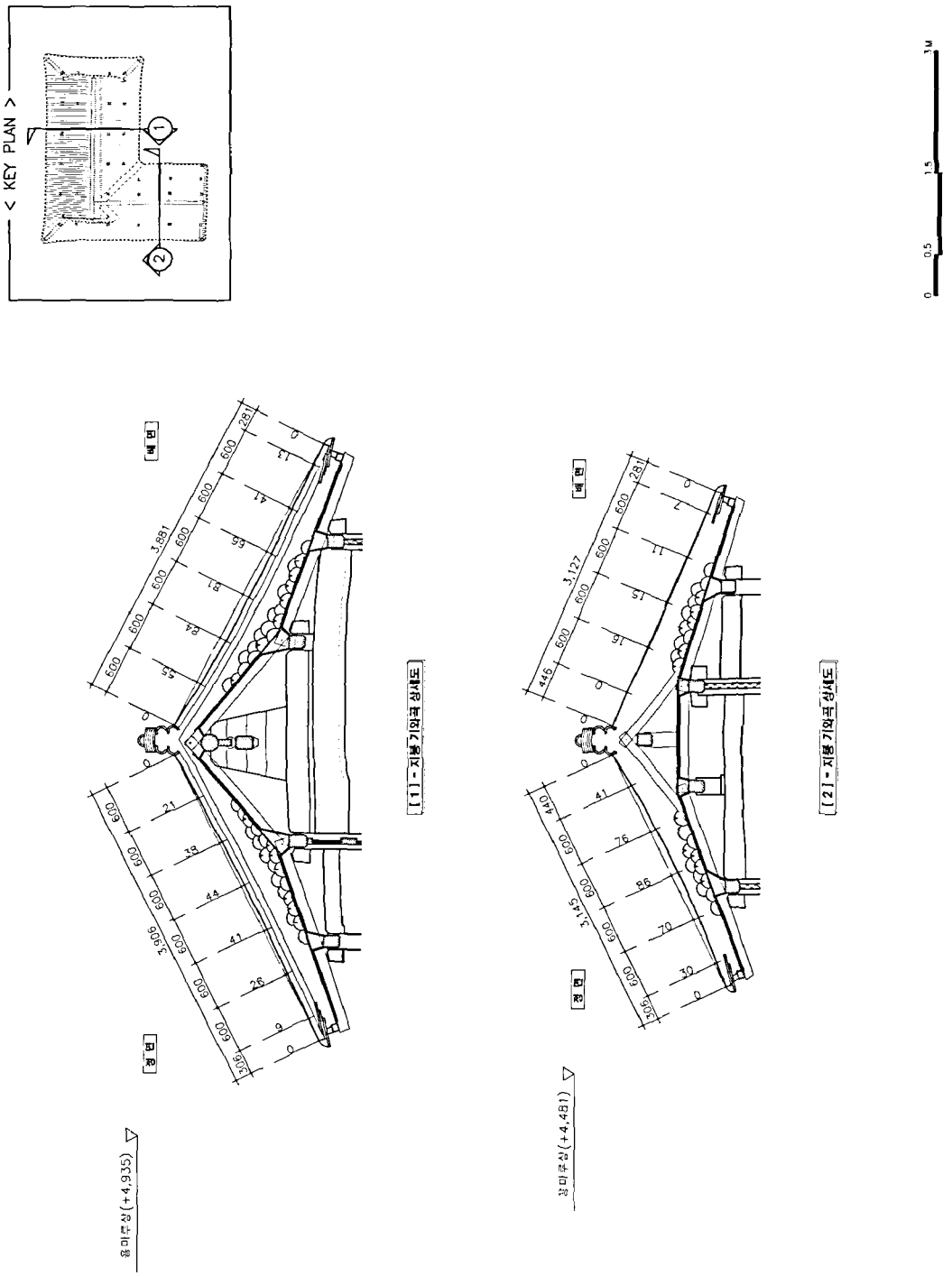
[도면42] 안채 안허리곡 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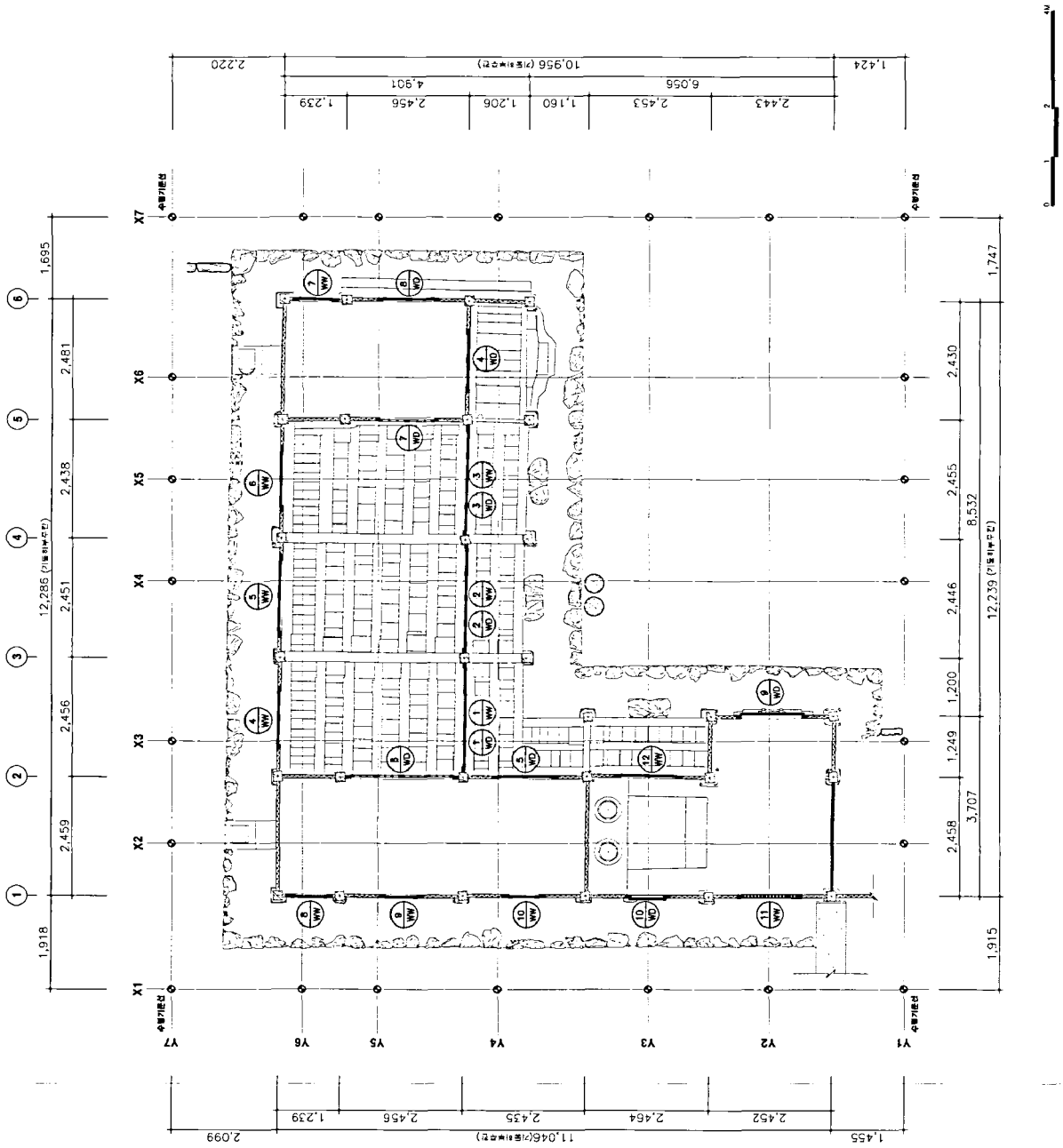
[도면43] 안채 앙곡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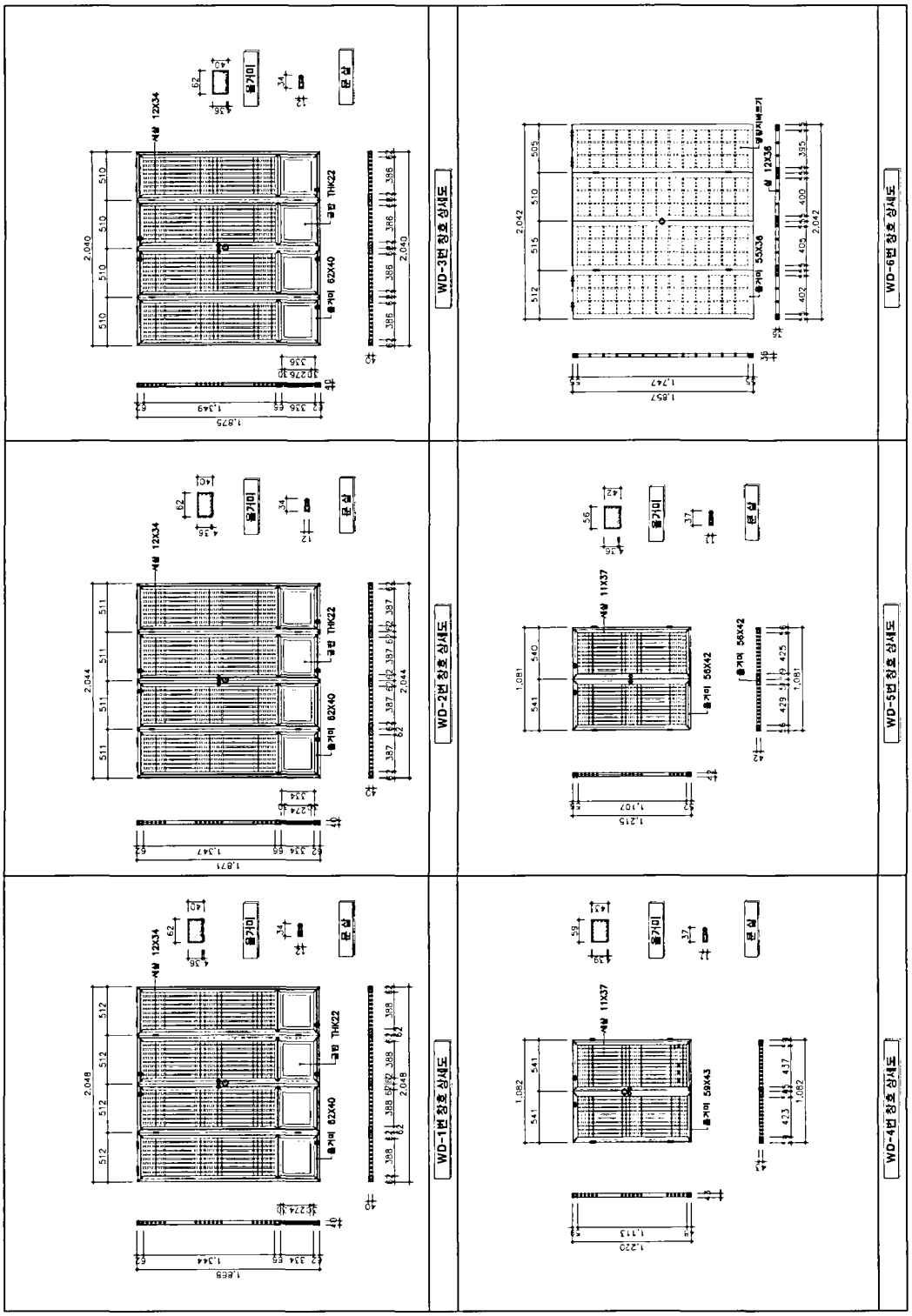
[도면44] 안채 마루곡 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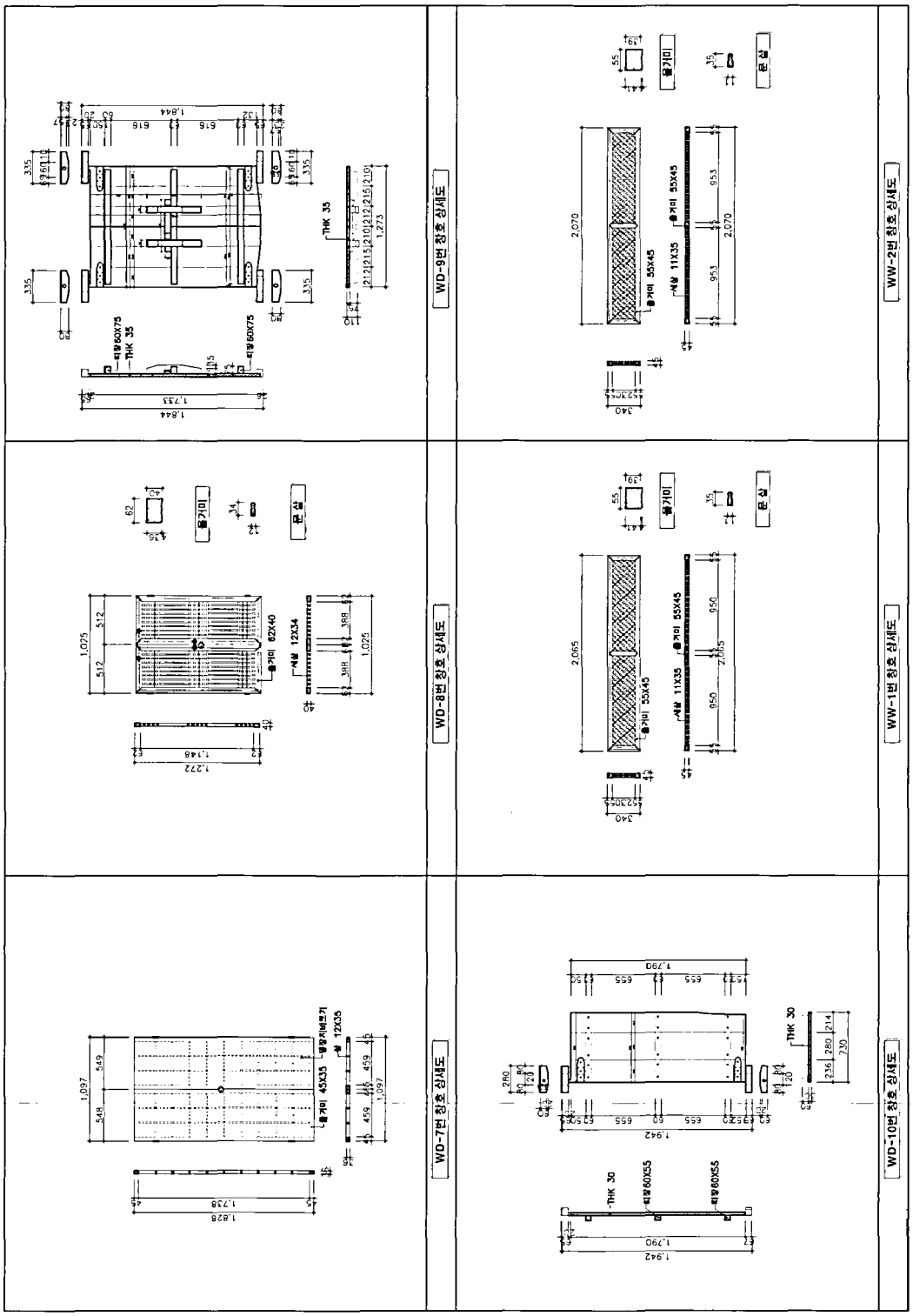
[도면45] 안채 지붕 기와곡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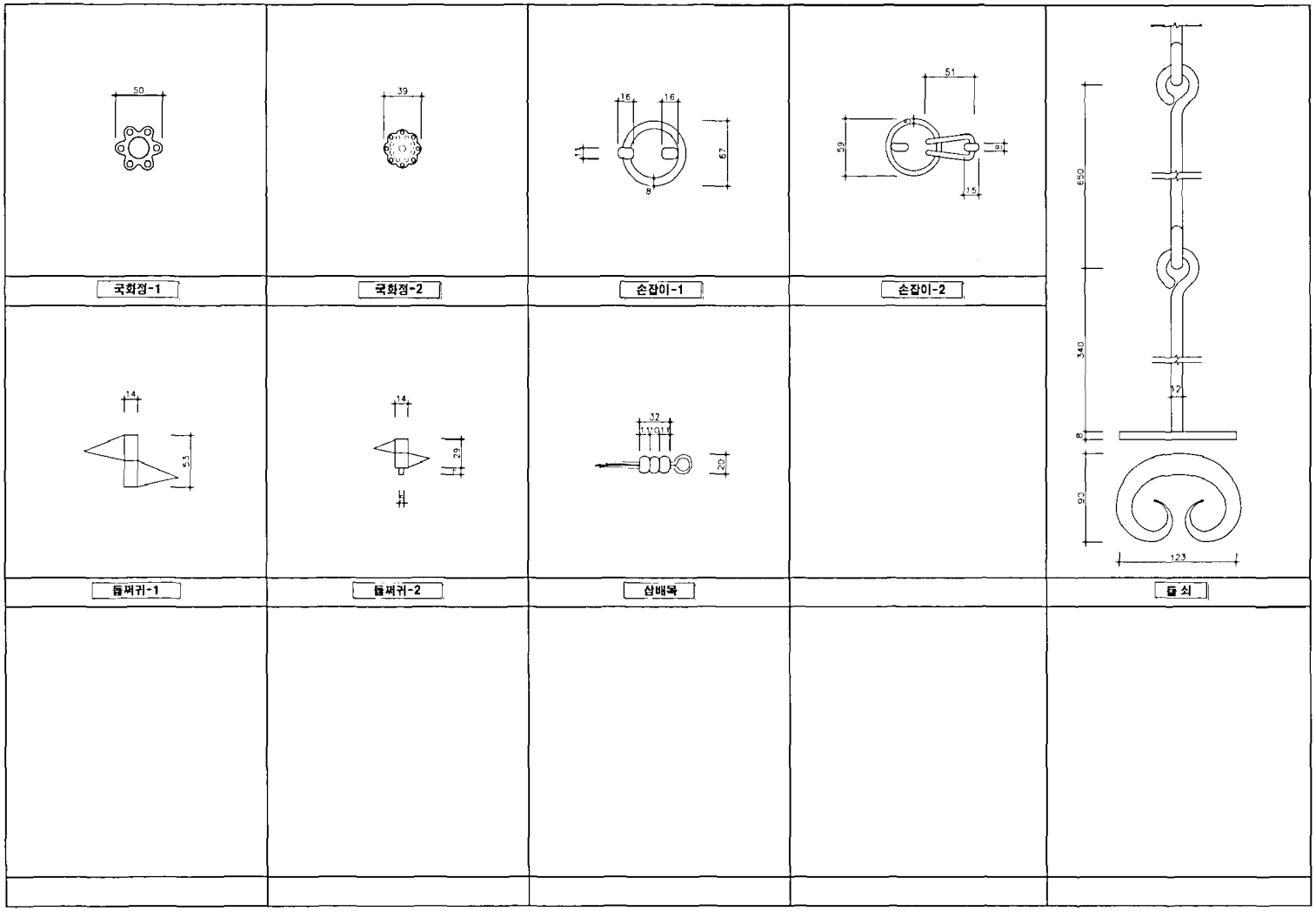
[도면46] 안채 창호 부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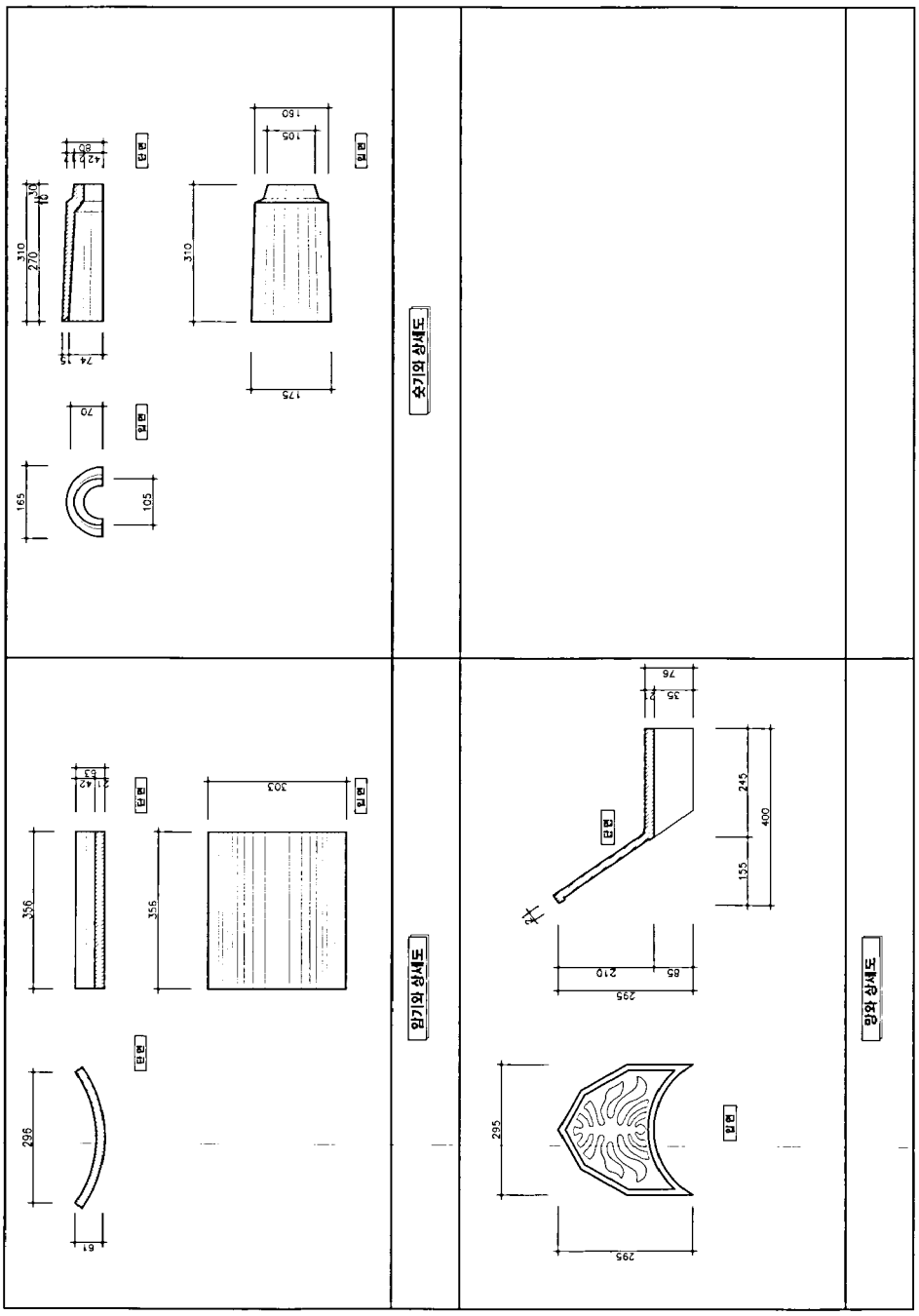
[도면47] 안채 창호 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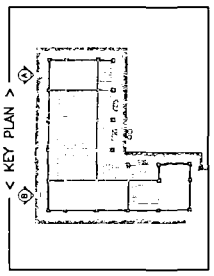
[도면48] 안채 창호 상세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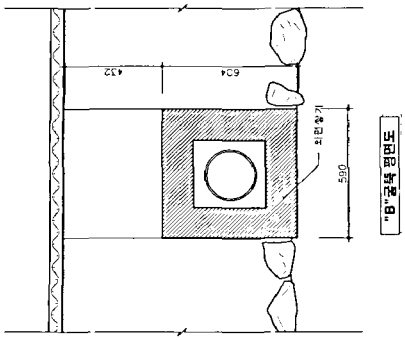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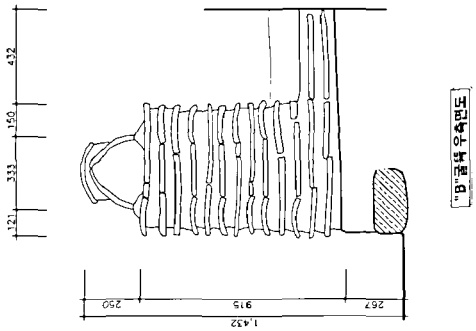
[도면49] 안채 철물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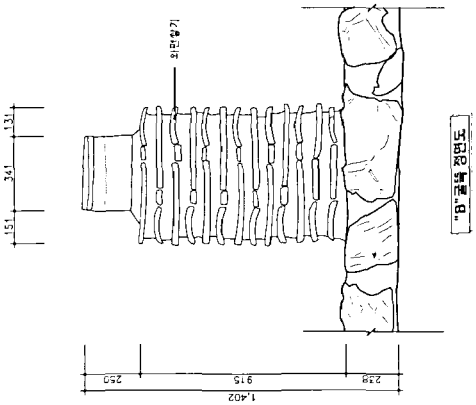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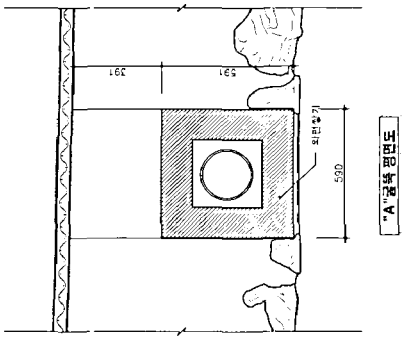
[도면50] 안채 기와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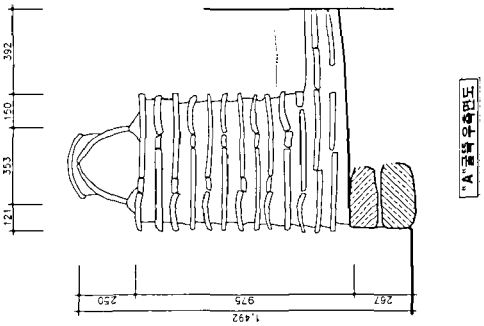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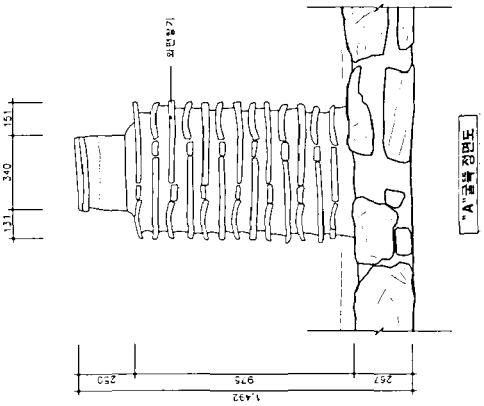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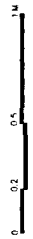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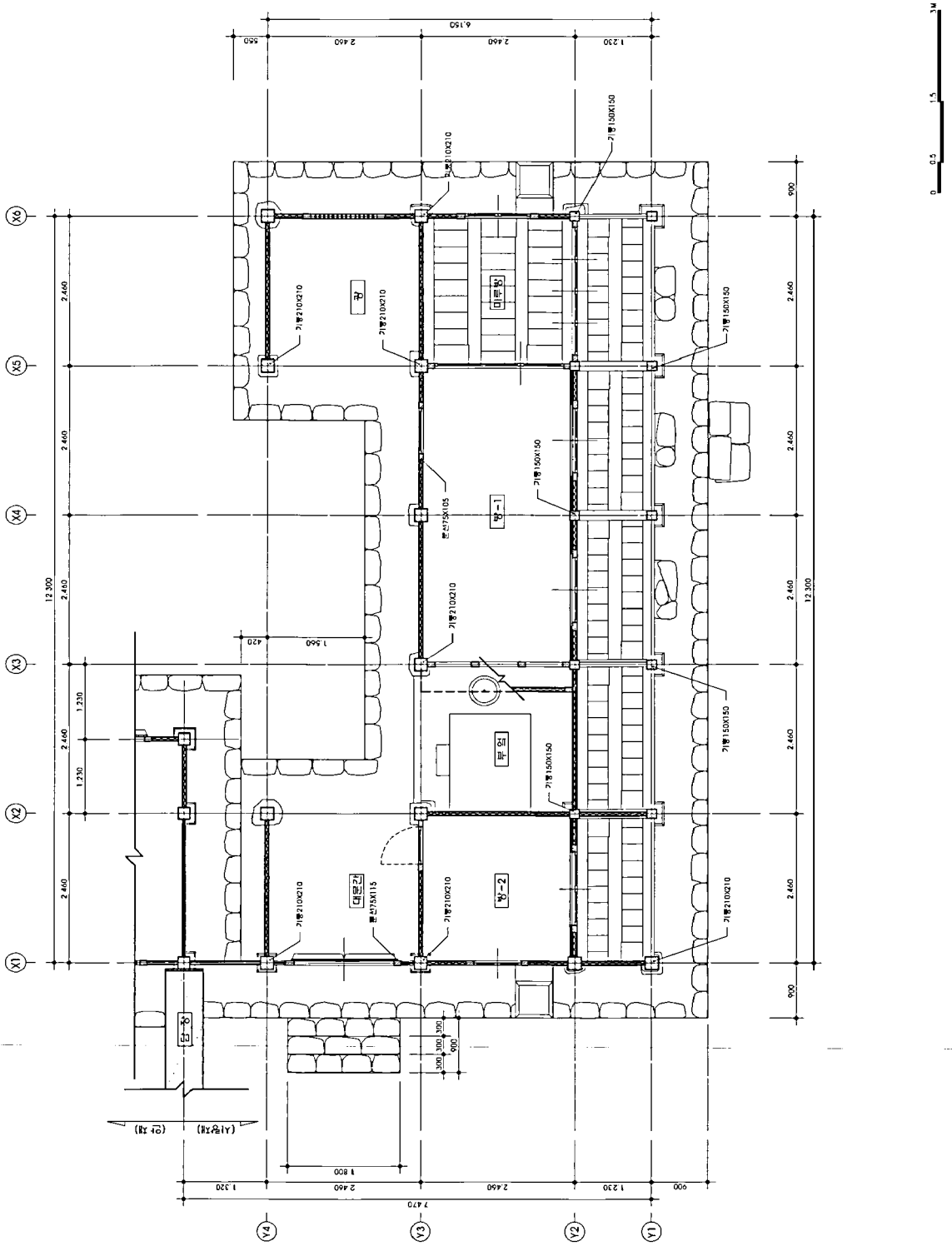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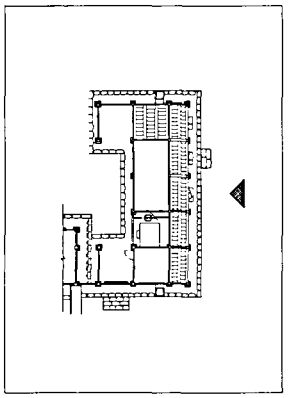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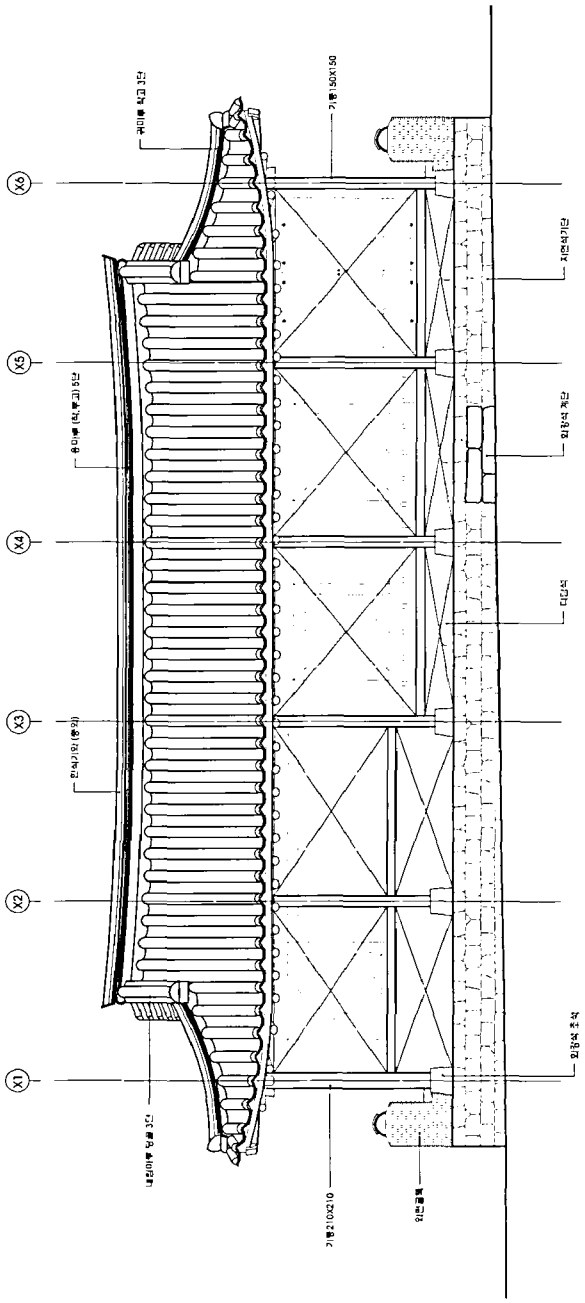


[도면51] 안채 굴뚝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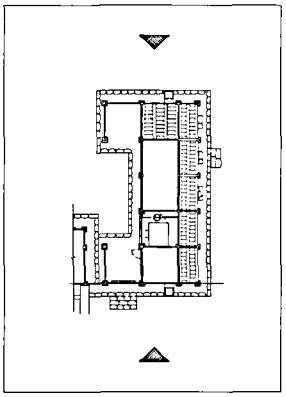
[도면52] 사랑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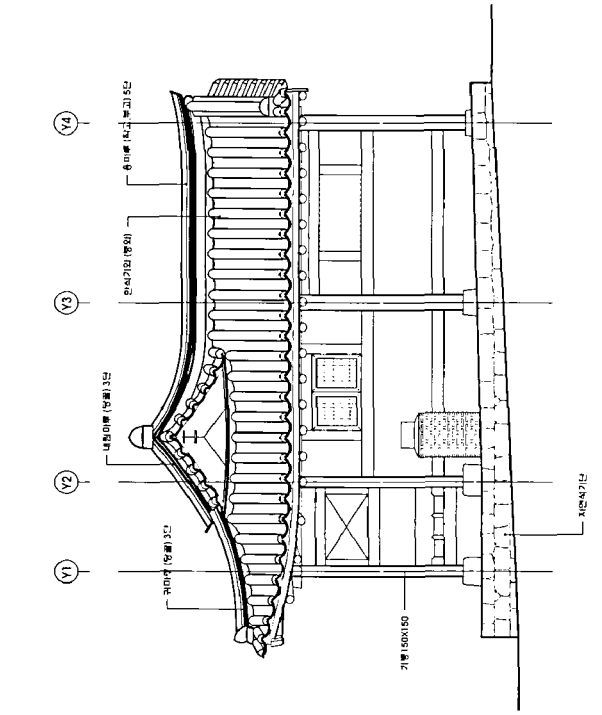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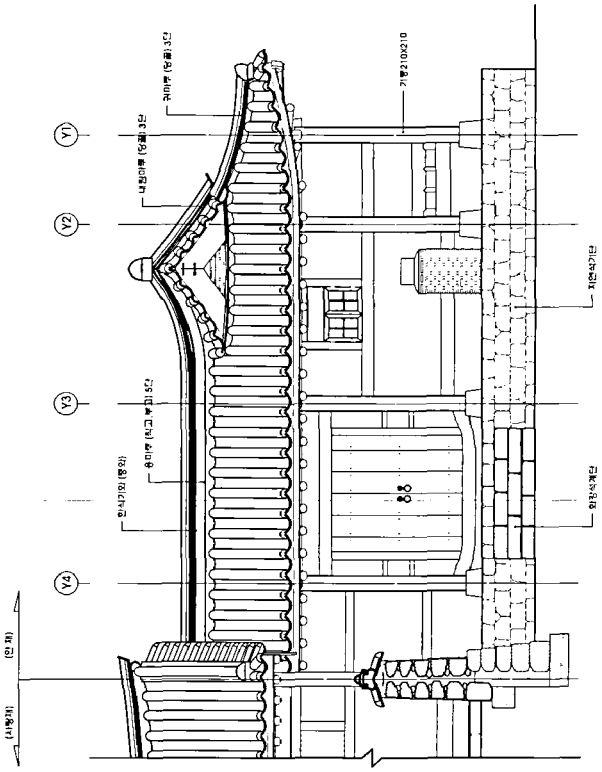
[도면53] 사랑채 정면도



〈KEY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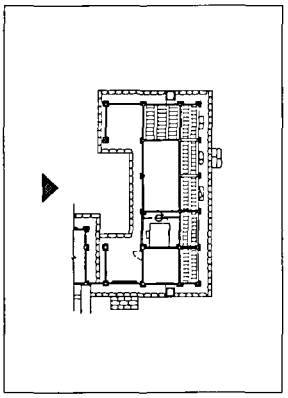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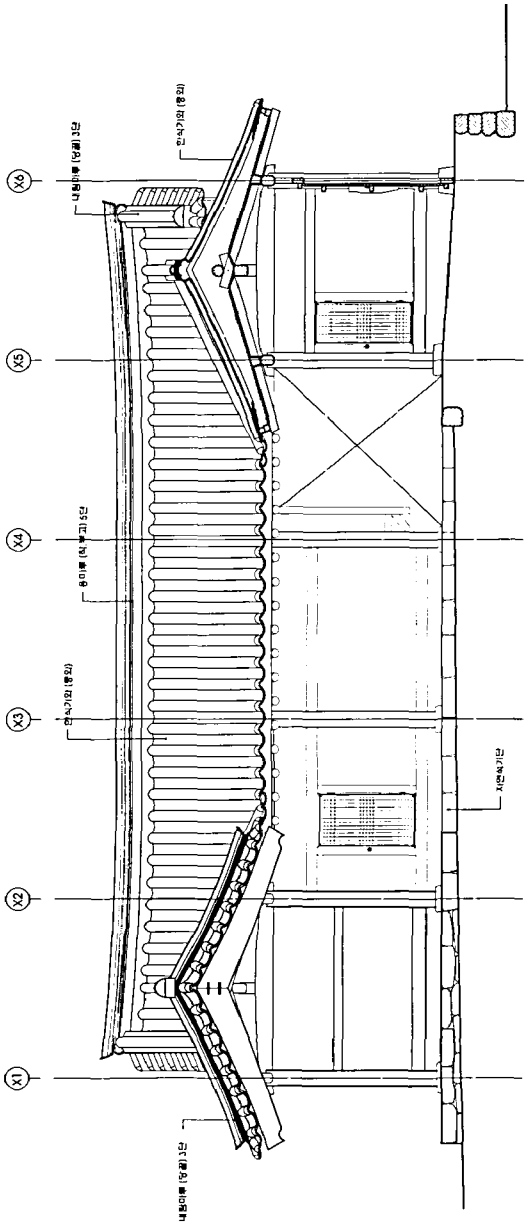
우측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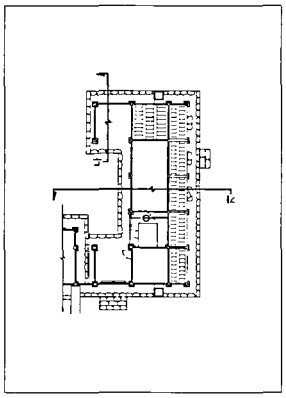
[도면54] 사랑채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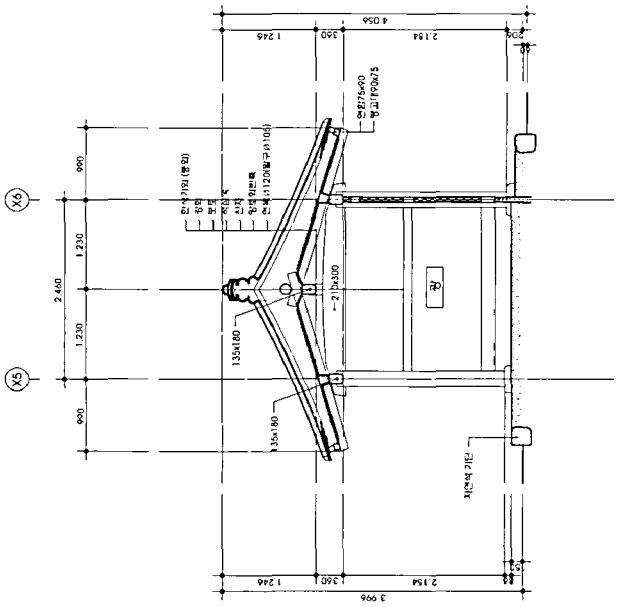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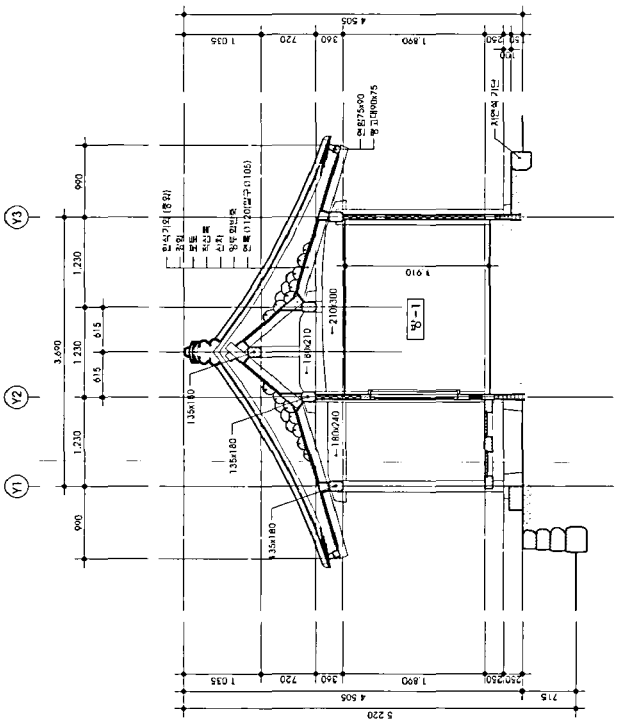
[도면55] 사랑채 배면도



<KEY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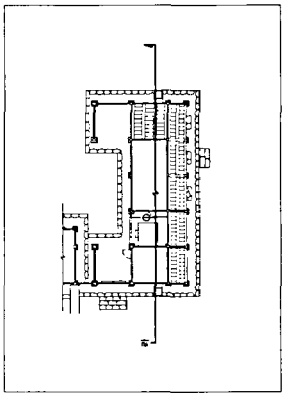


사랑채 종단면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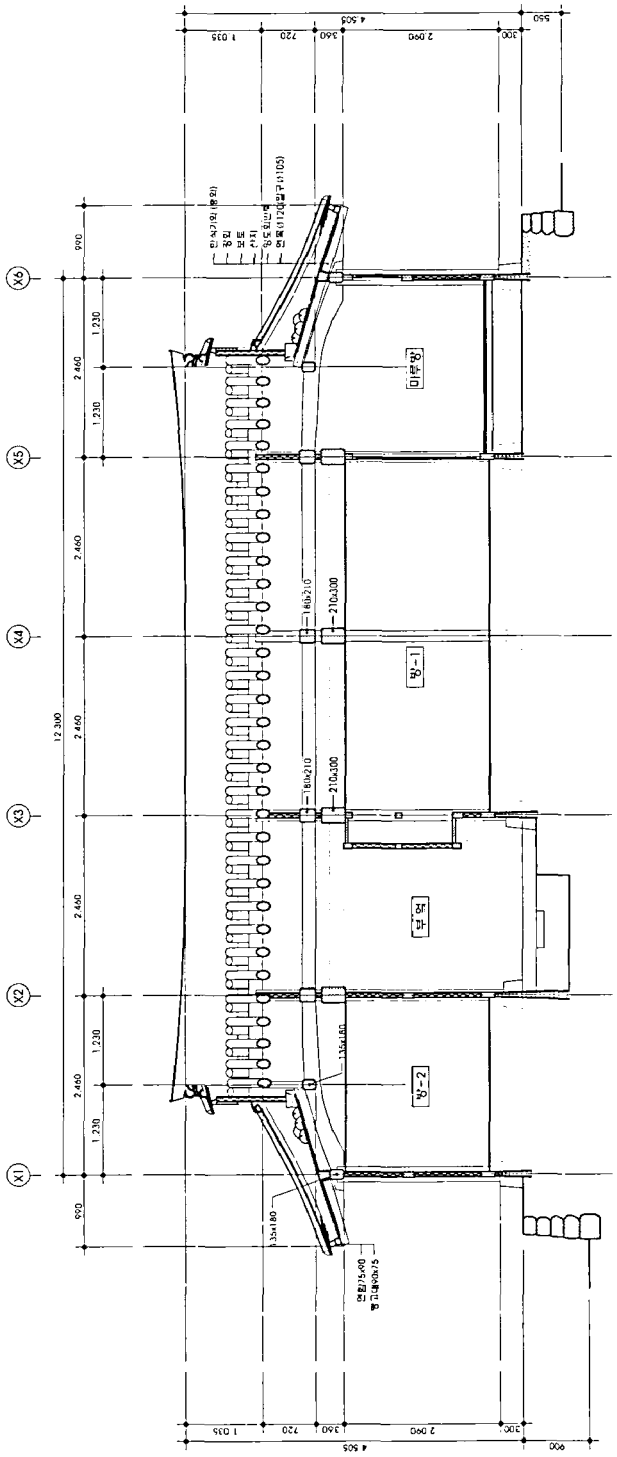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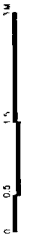
사랑채 종단면도-가

[도면56] 사랑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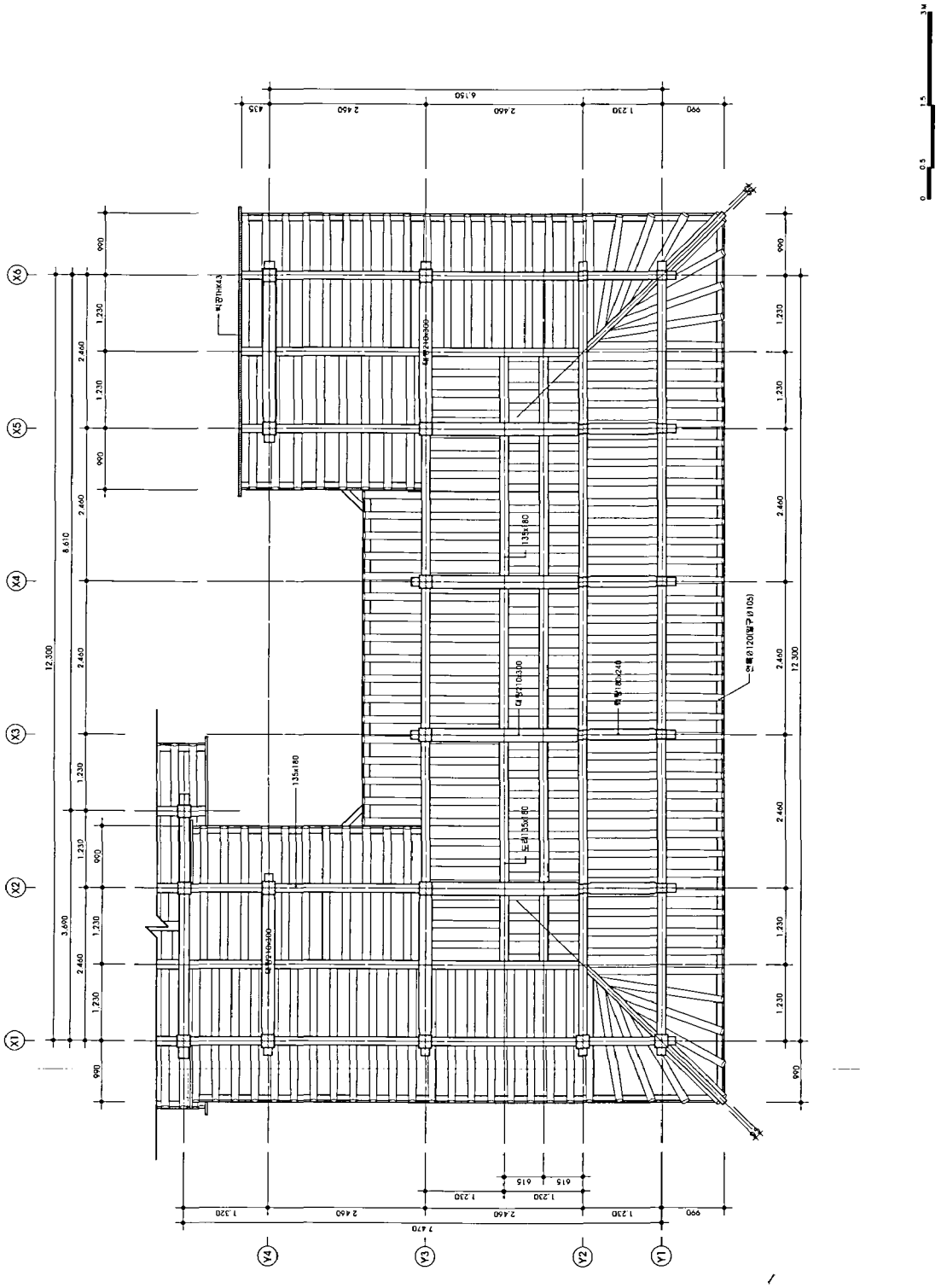


< KEY PLA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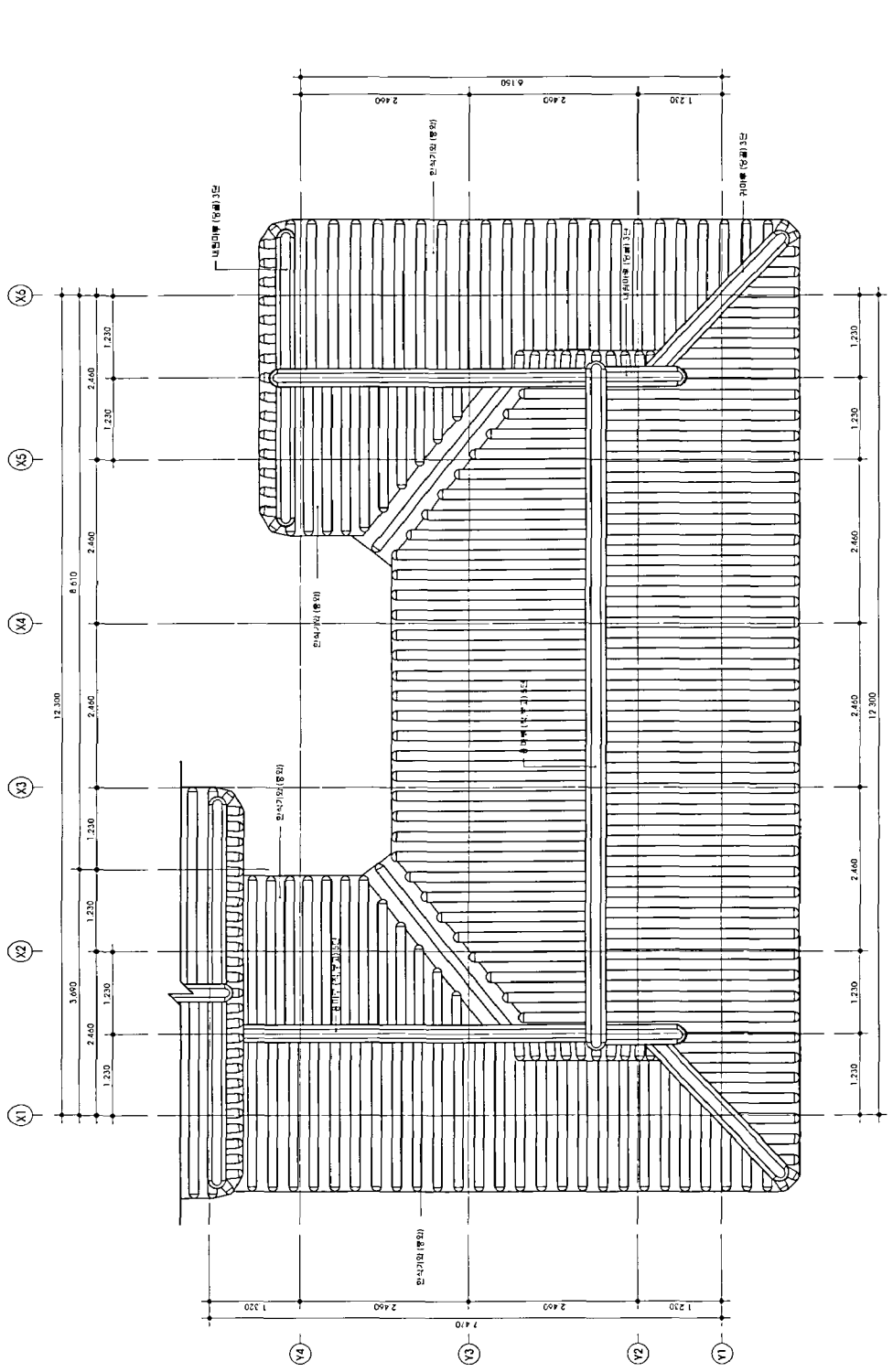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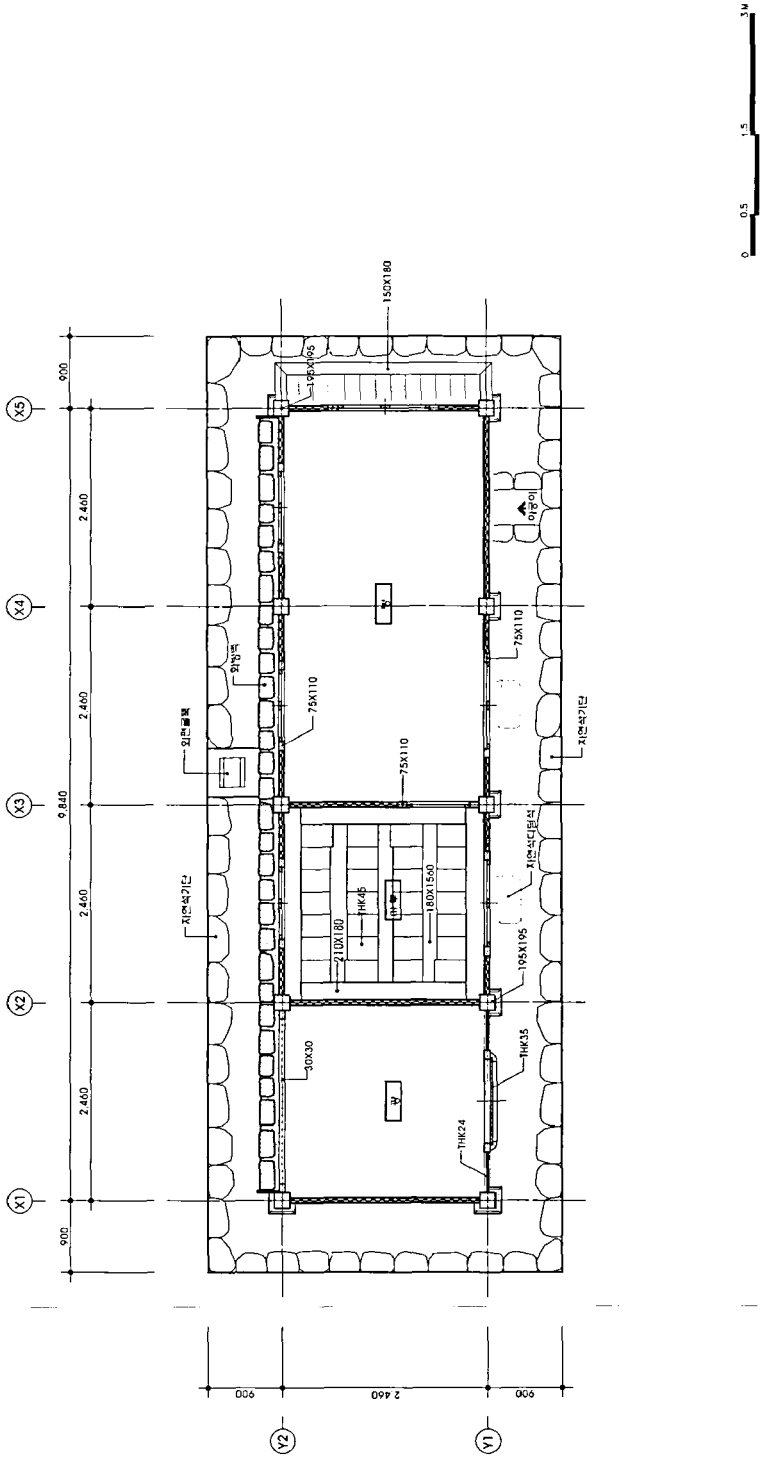
[도면57] 사랑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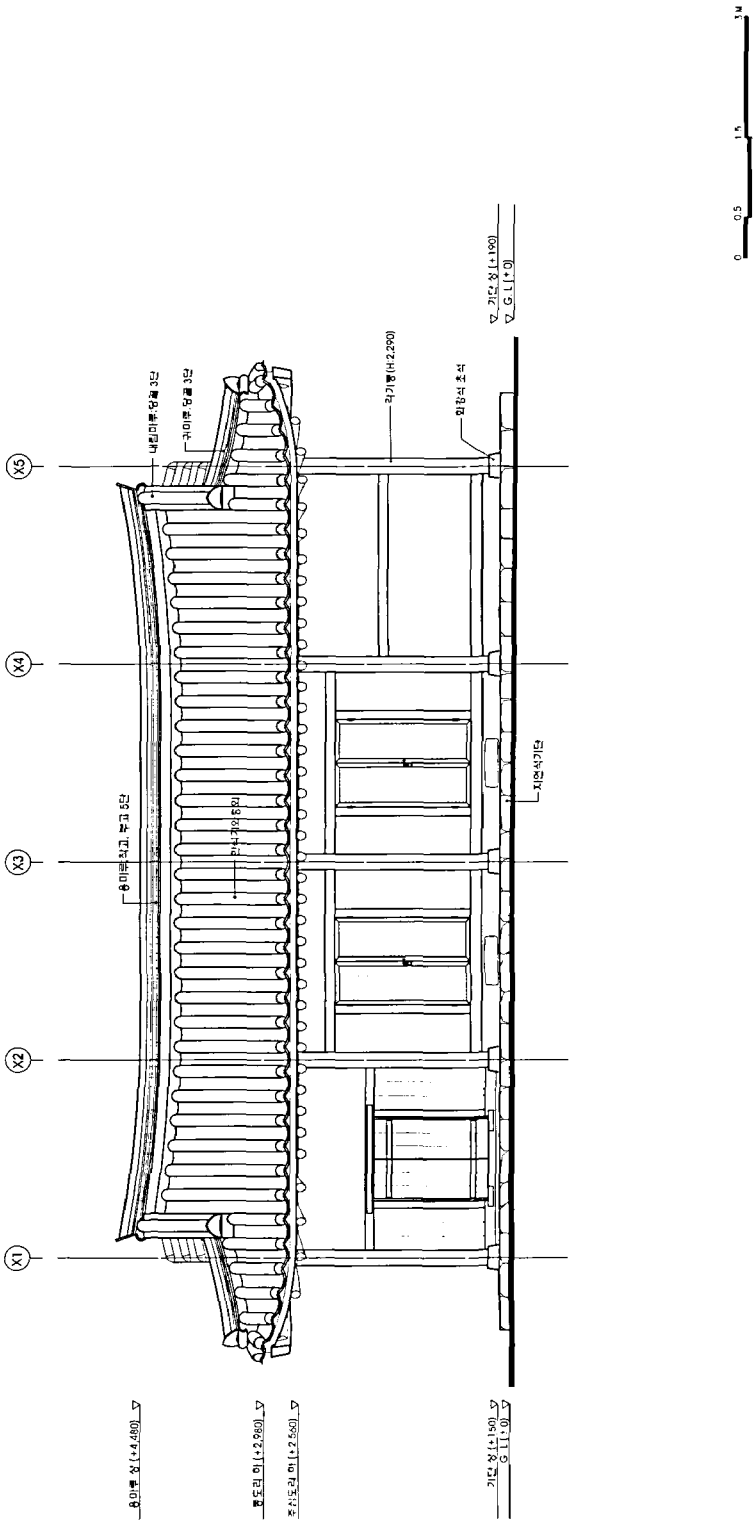
[도면58] 사랑채 천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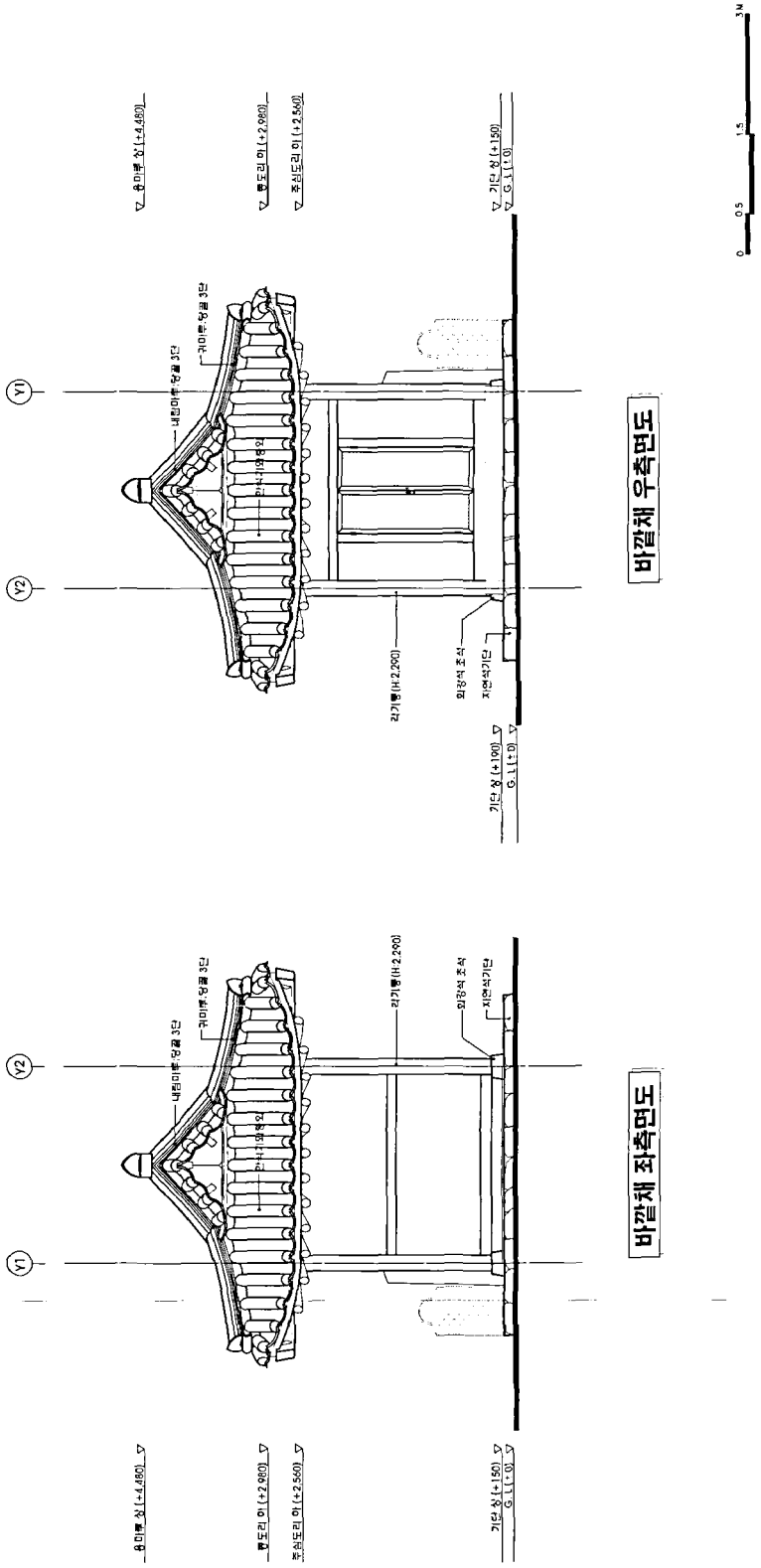
[도면59] 사랑채 지붕 평면도


0
0.5
1.5
3M
150X180
195X195
900
2,460
9,840
X5
X4
X3
X2
X1
Y2
Y1
75X110
210X180
180X1560
THK45
195X195
30X30
THK35
THK24
지연석기단
지연석디딤석
외단물홈
화방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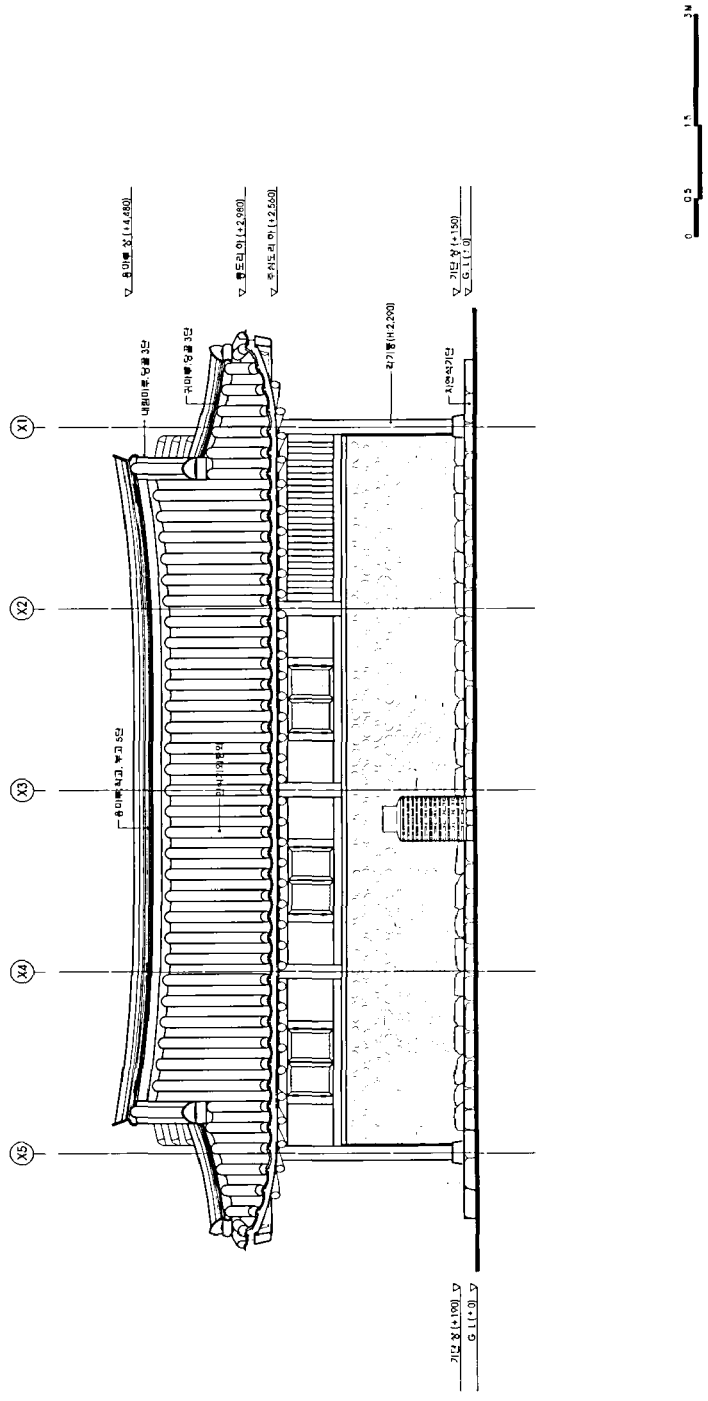
[도면60] 바깥채 평면도


0
0.5
1
1M
X5
X4
X3
X2
X1
내림마루장출 3단
귀마루장출 3단
용마루 장 (+4.480)
추녀도리 마 (+2.560)
뿜도리 마 (+2.080)
기단 상 (+1.100)
G.L (±0)
각기둥(H:2.290)
입장석 초석
지면석기단
용마루 장식 부고 5단
판석 기와 6장

[도면61] 바깥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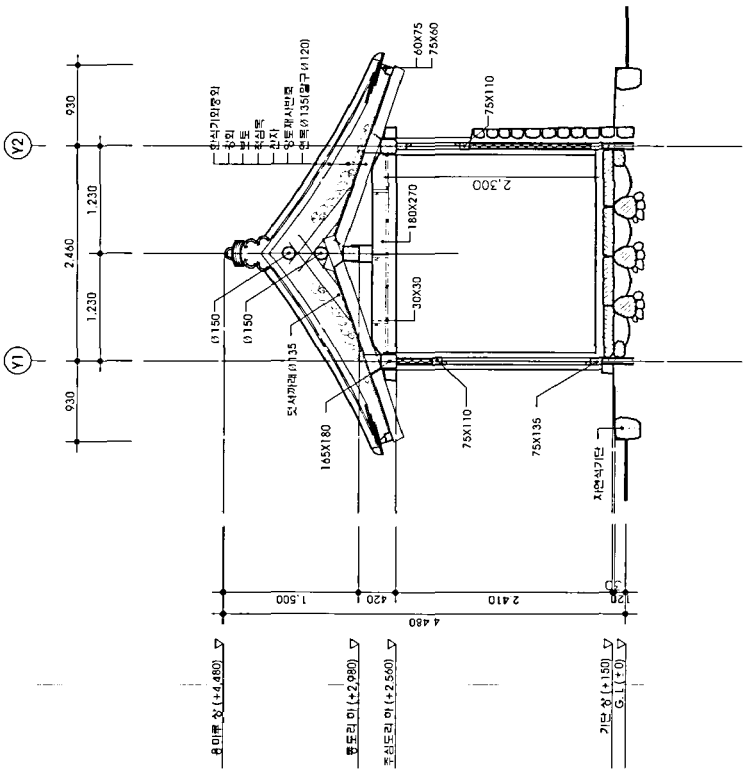


[도면62] 바깥채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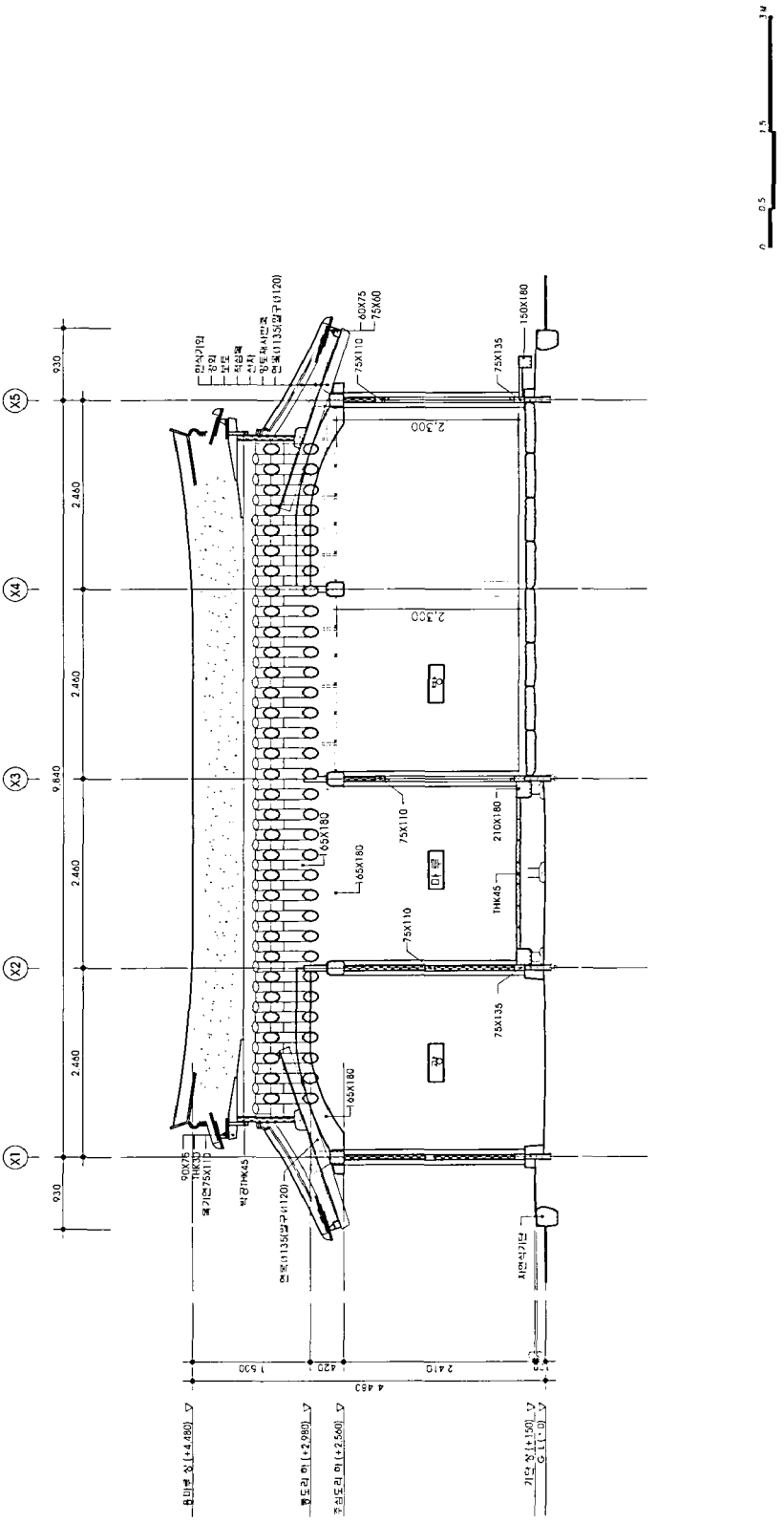


[도면63] 바깥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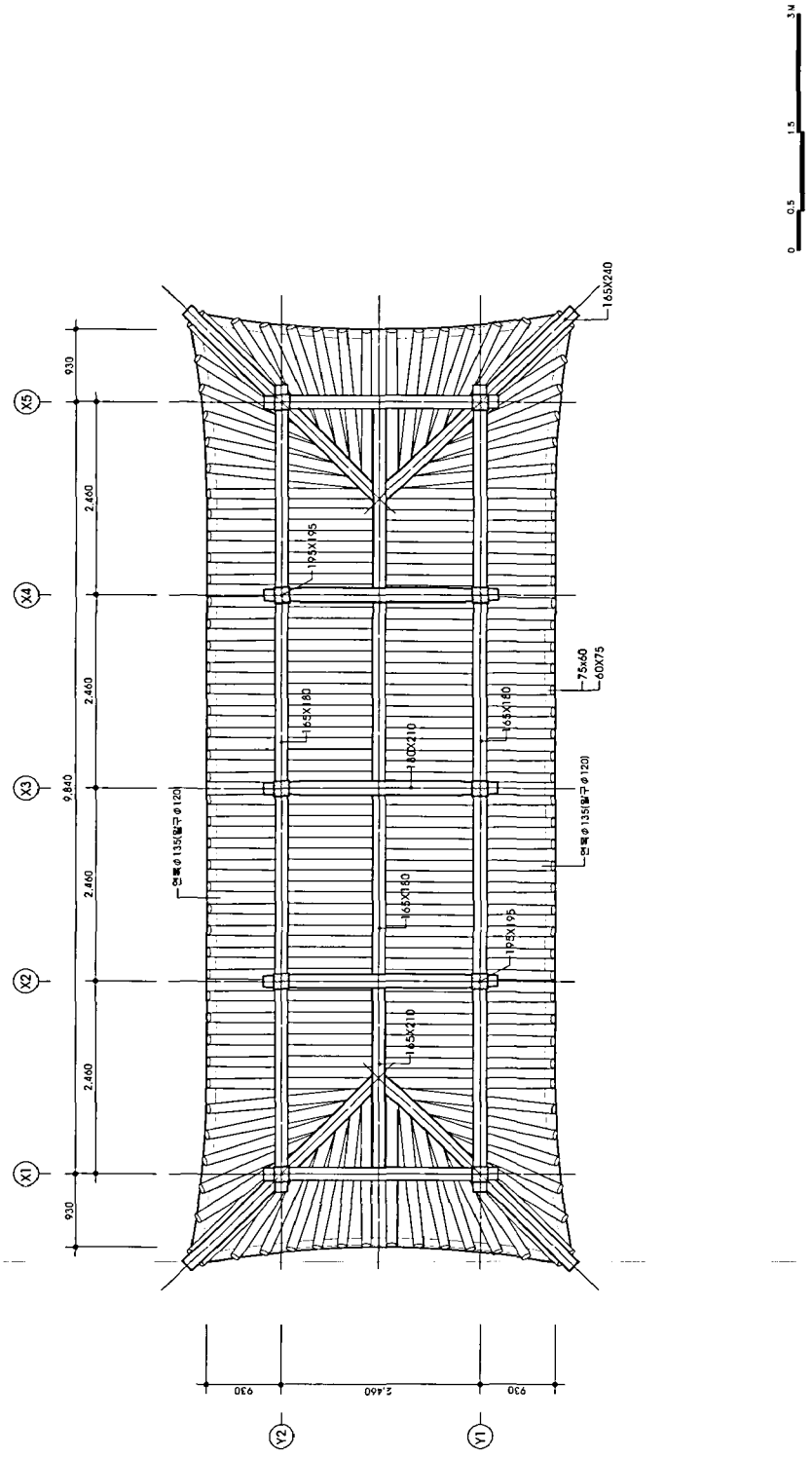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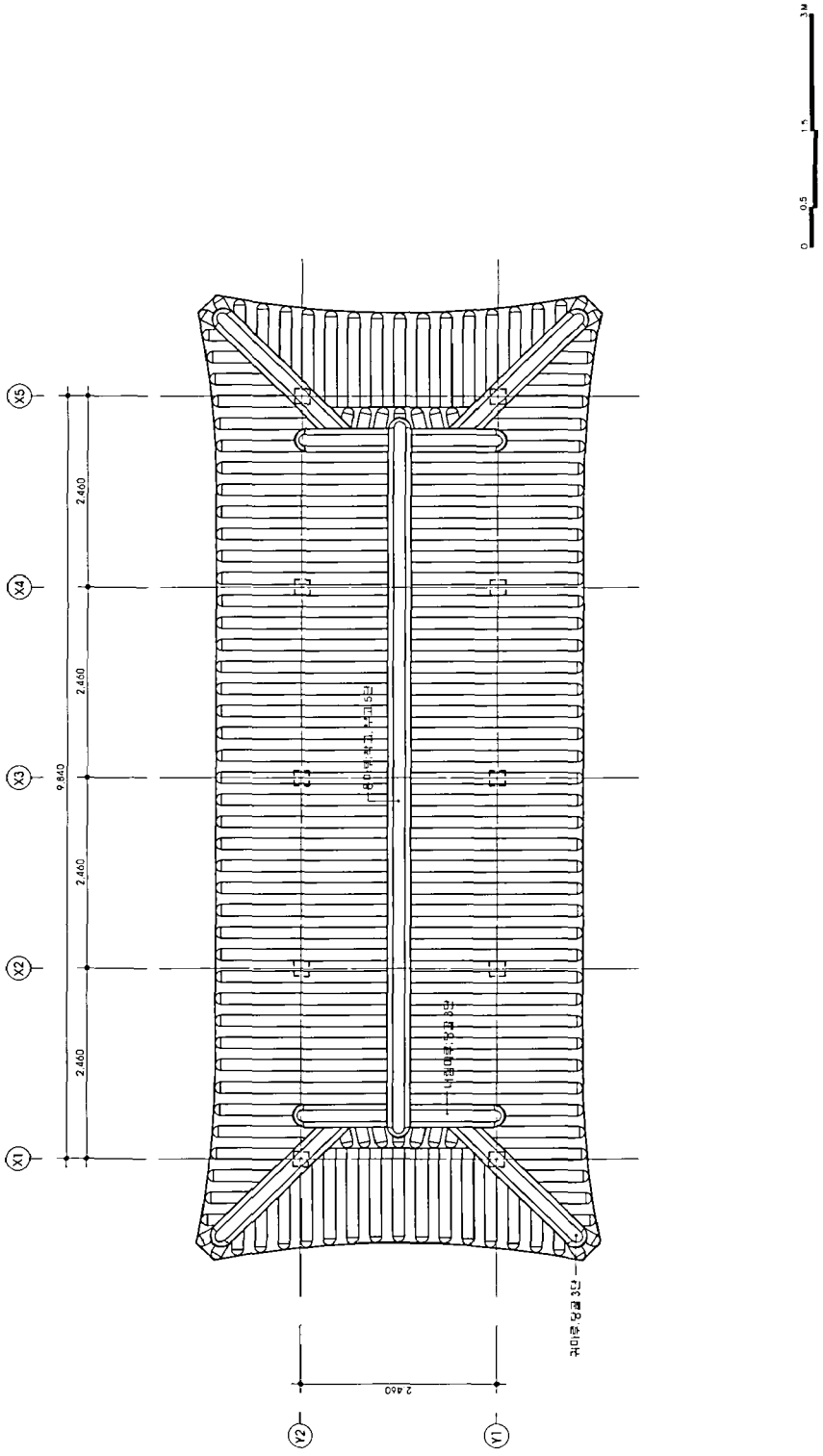
[도면64] 바깥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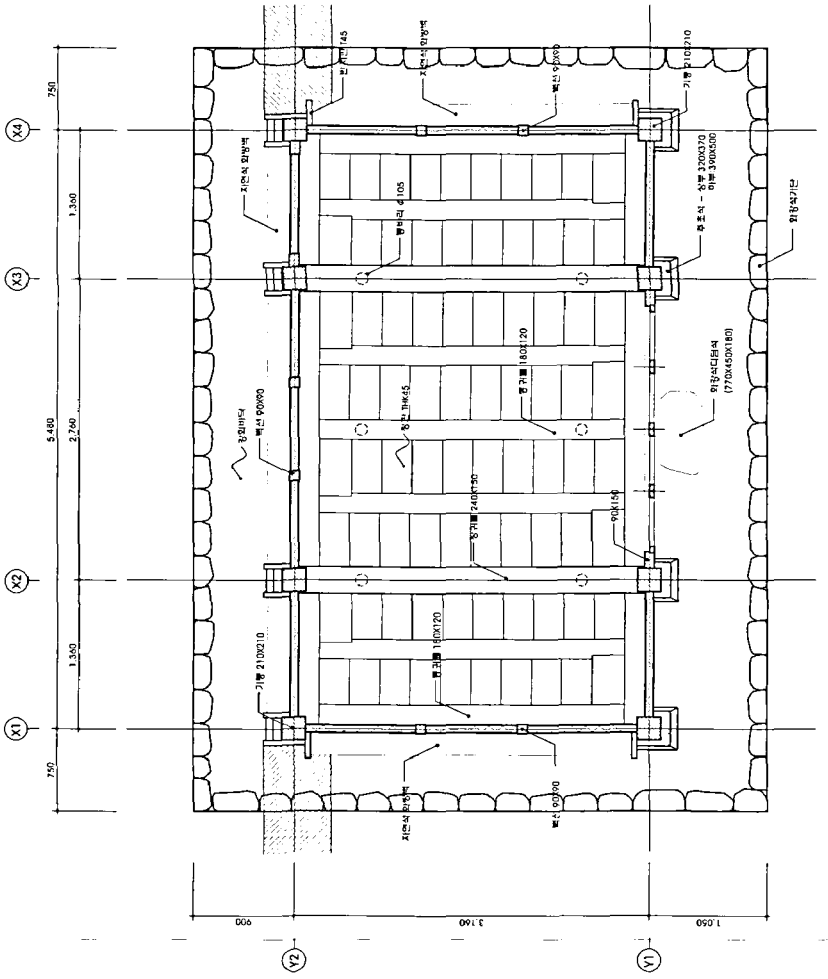
[도면65] 바깥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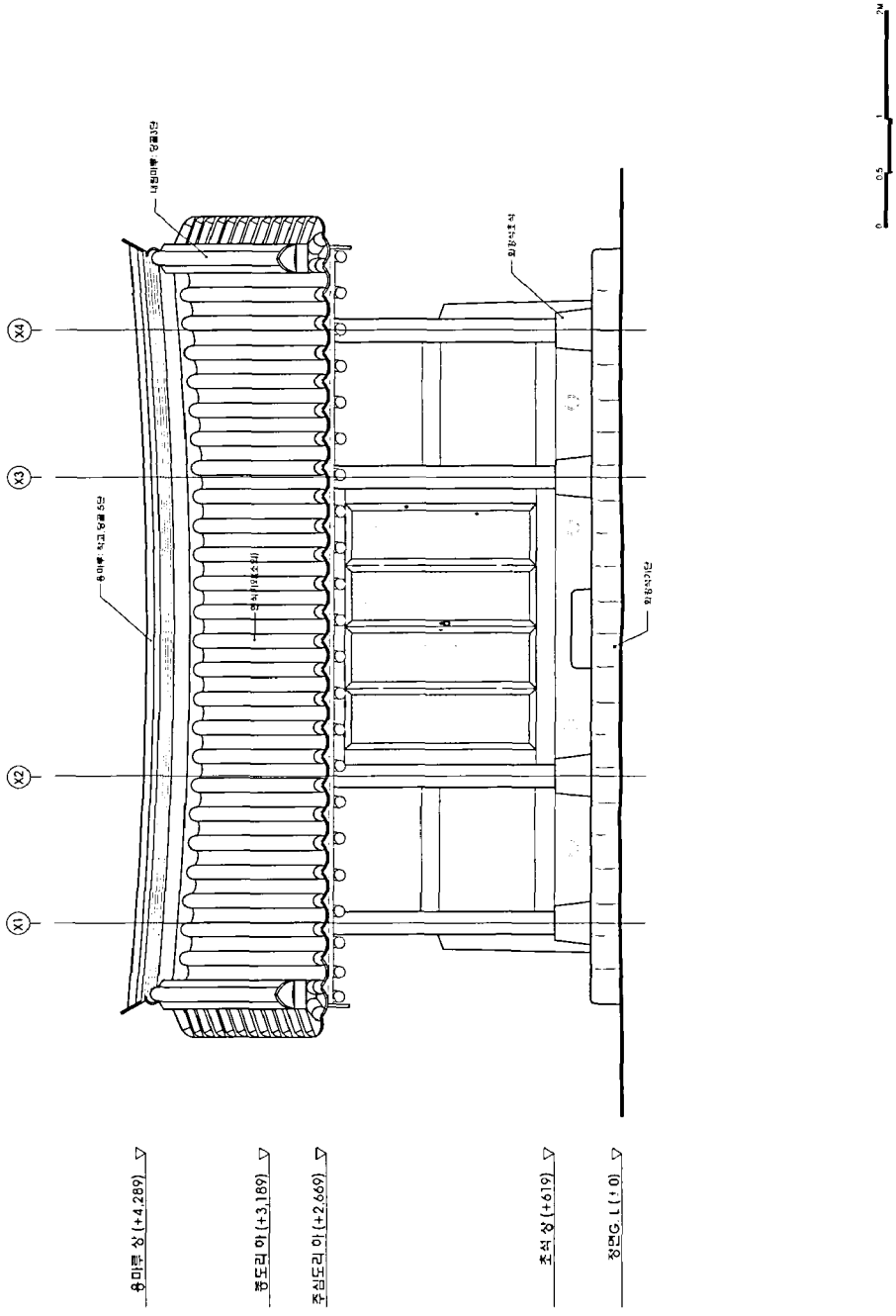
[도면66] 바깥채 천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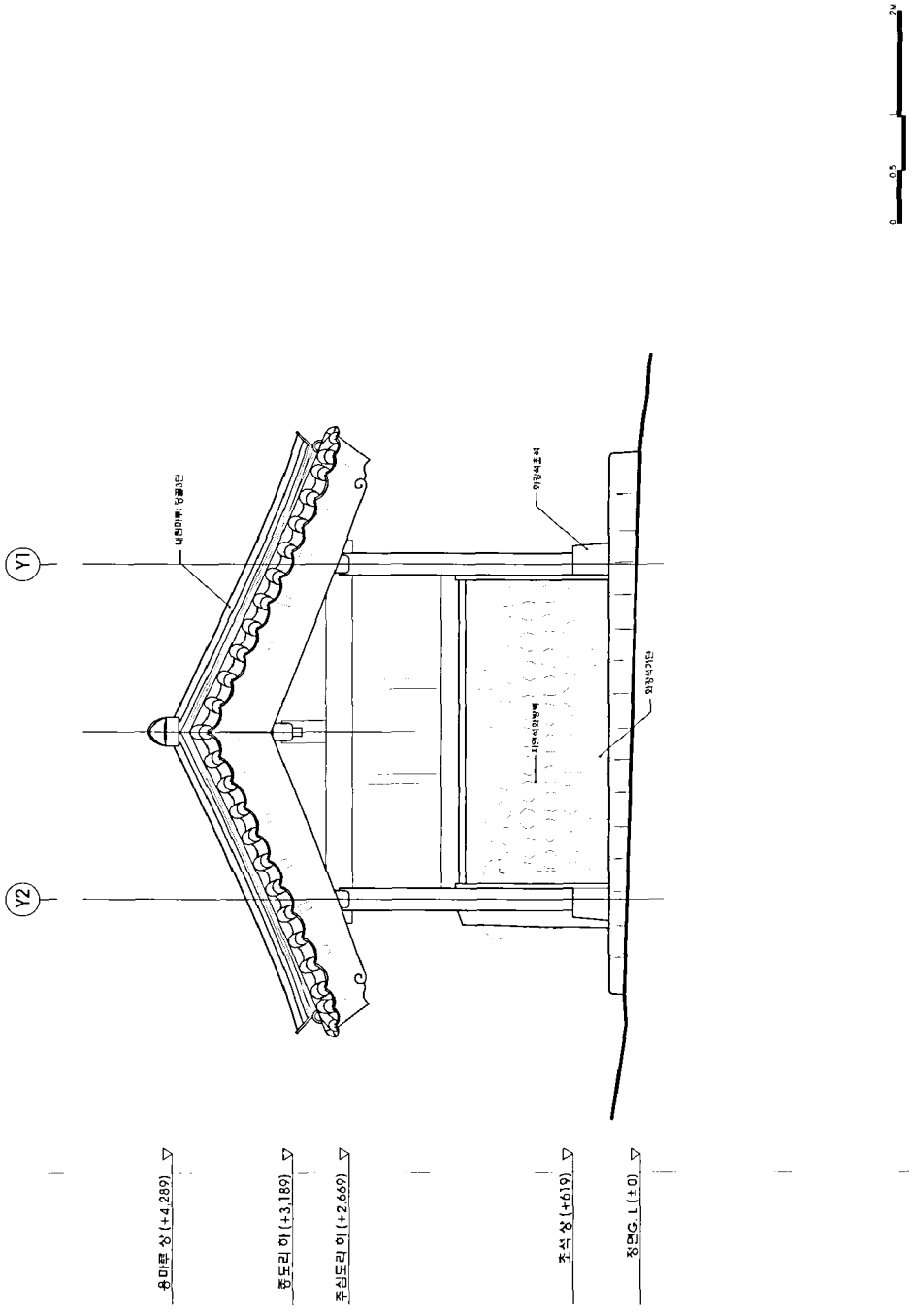
[도면67] 바깥채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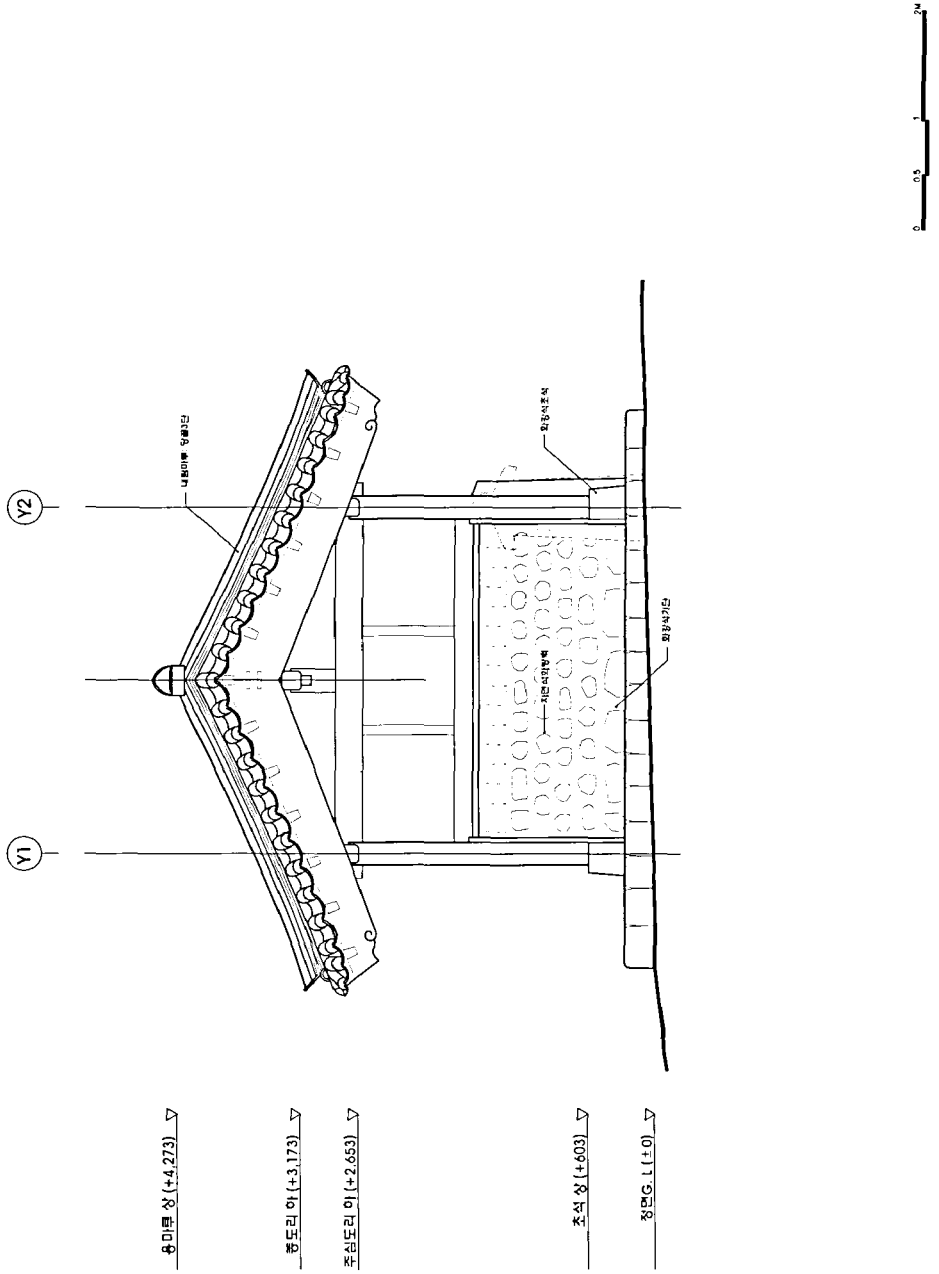
[도면68] 사당 평면도


0
0.5
1
2M
X4
X3
X2
X1
용마루 상 (+4,289)
종도리 하 (+3,189)
추심도리 하 (+2,669)
초석 상 (+619)
장대G.L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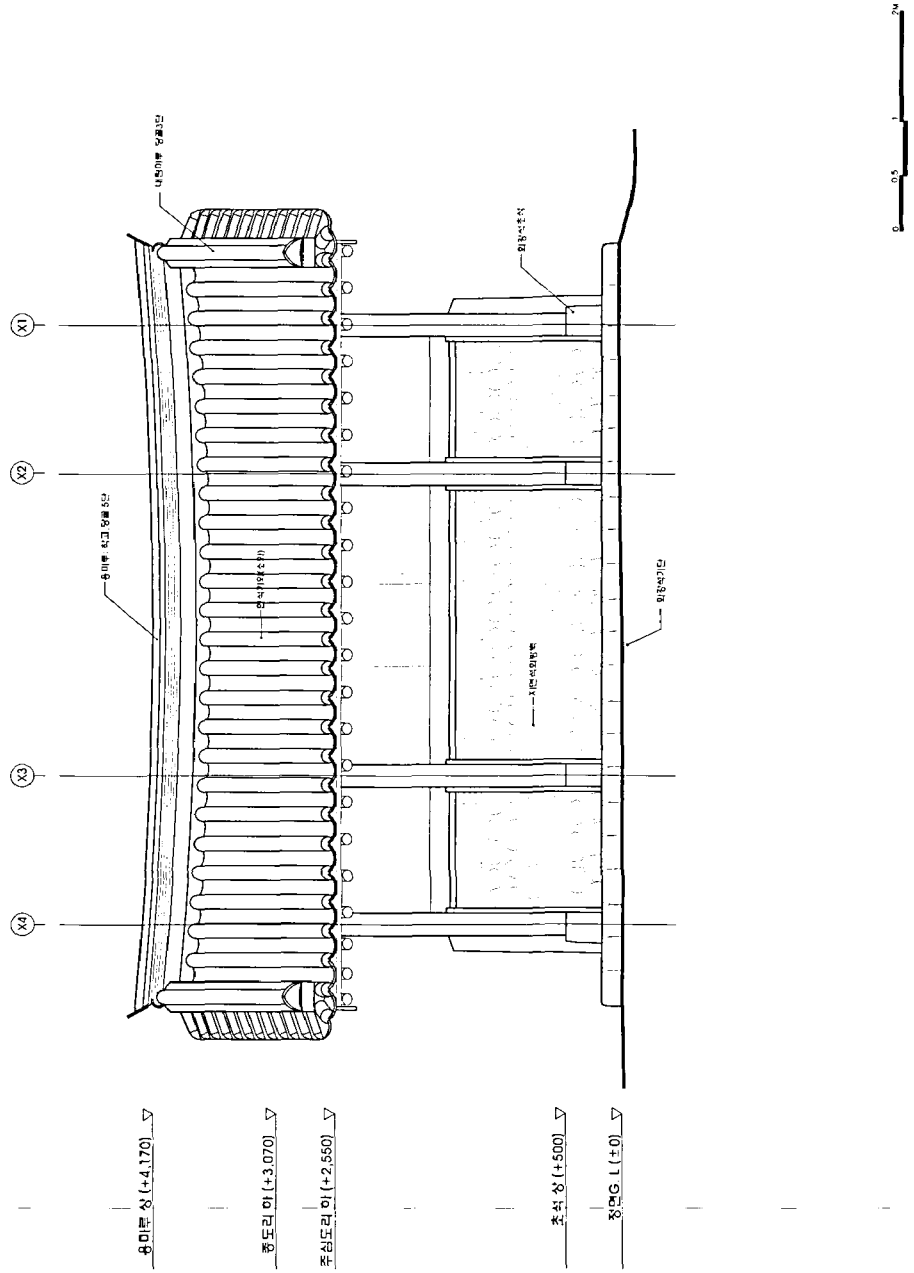
[도면69] 사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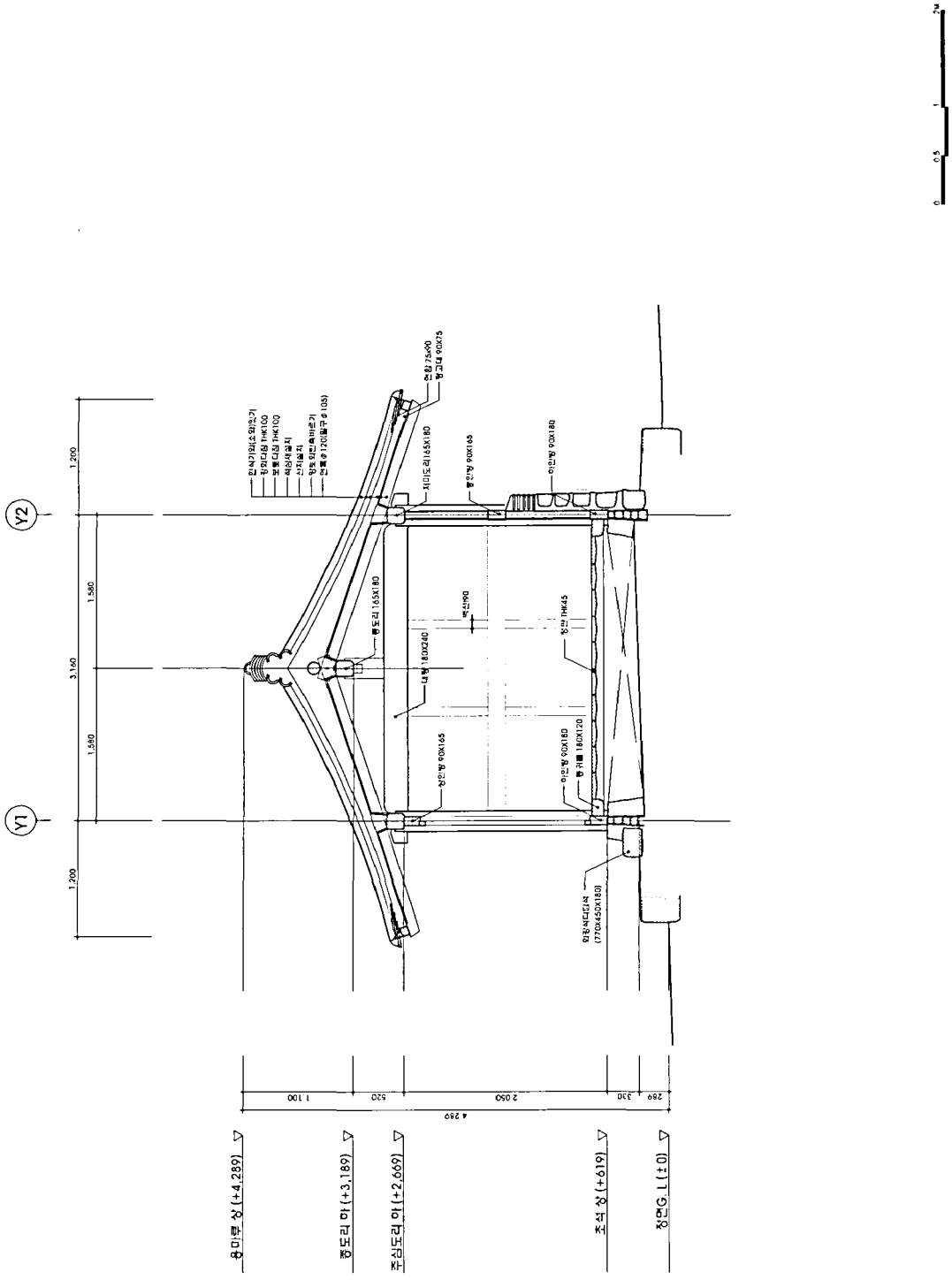
[도면70] 사당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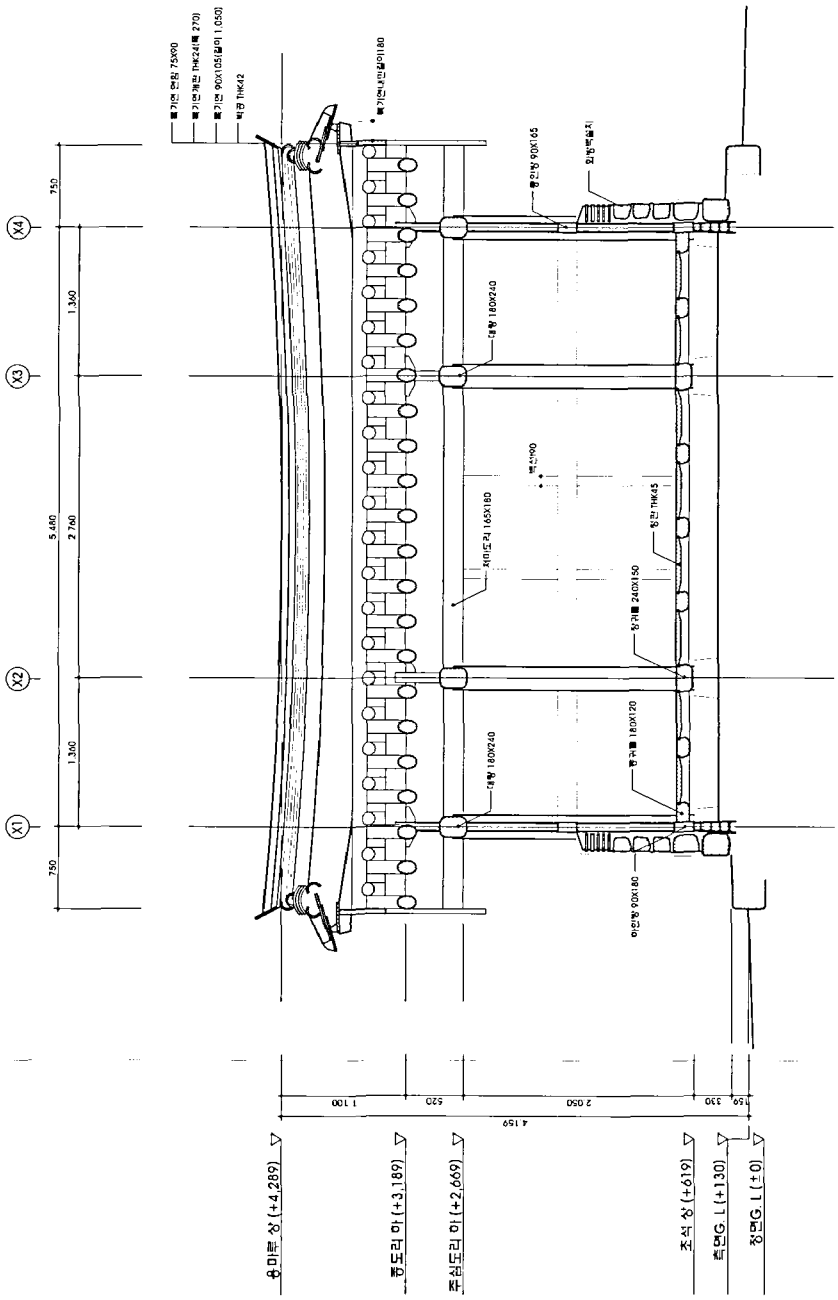
[도면71] 사당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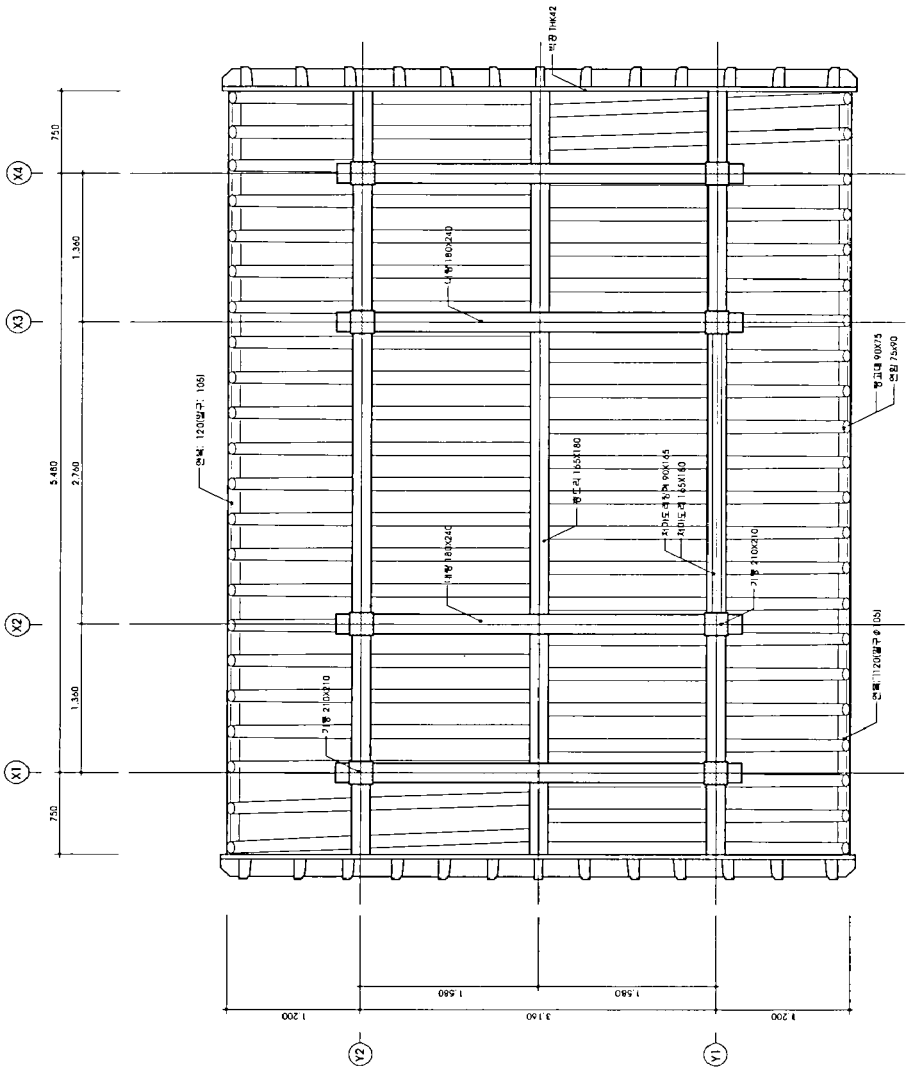
[도면72] 사당 배면도


Y2
Y1
1,200
1,580
3,160
1,580
1,200
용마루 상 (+4,289)
중도리 하 (+3,189)
주심도리 하 (+2,669)
조석 상 (+619)
처마G.L (±0)
1,100
520
2,050
330
260
4,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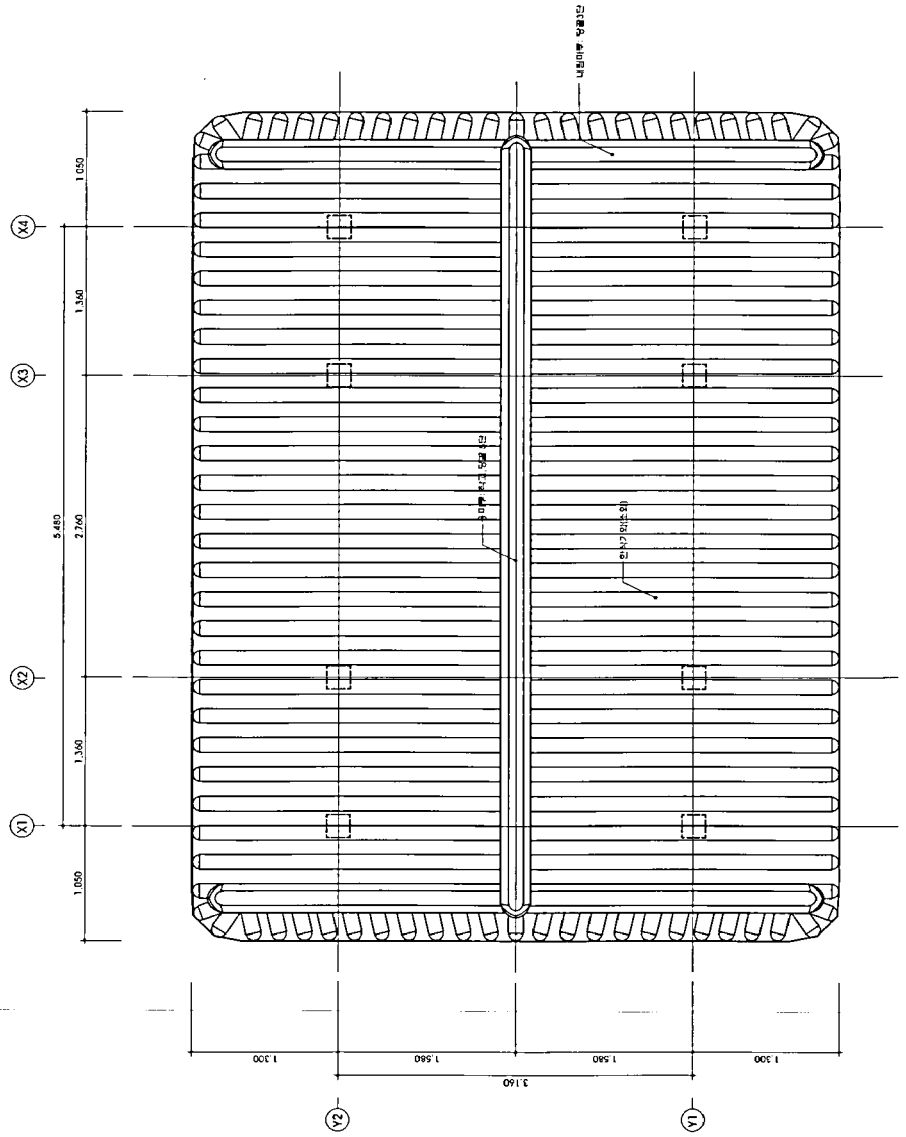
[도면73] 사당 종단면도


X4
X3
X2
X1
750
1,360
2,760
5,480
1,360
750
대청 180X240
대청 180X240
4,159
1,100
520
2,050
330
159
용마루 상 (+4,289)
종도리 하 (+3,189)
주심도리 하 (+2,669)
초석 상 (+619)
툇마G.L (+130)
정G.L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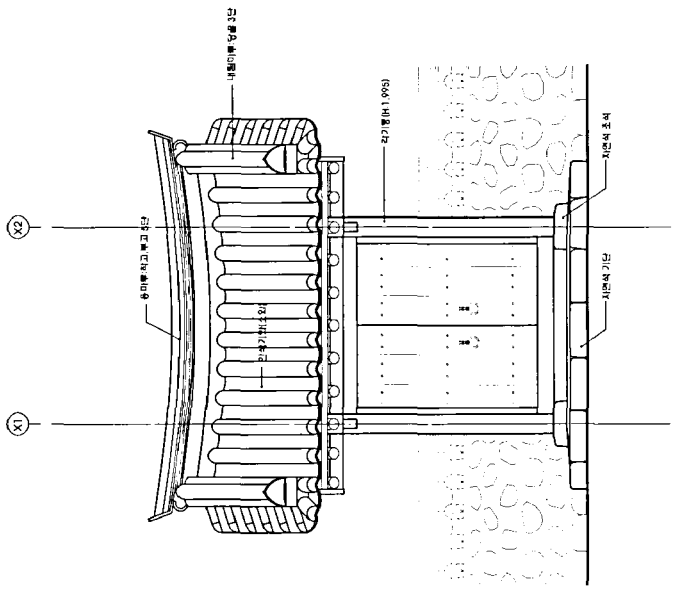
[도면74] 사당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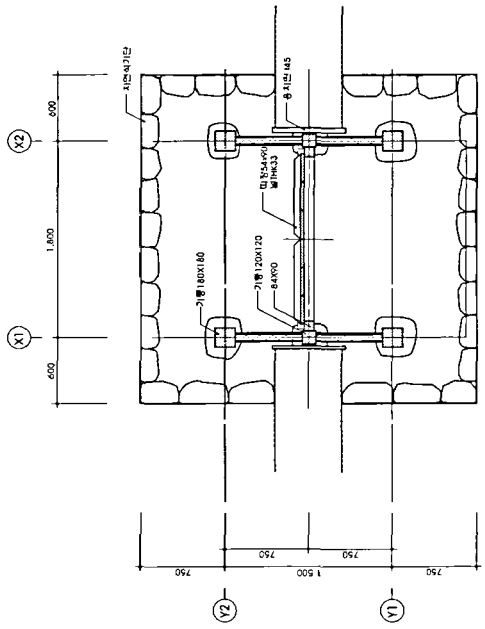
[도면75] 사당 천장 평면도



[도면76] 사당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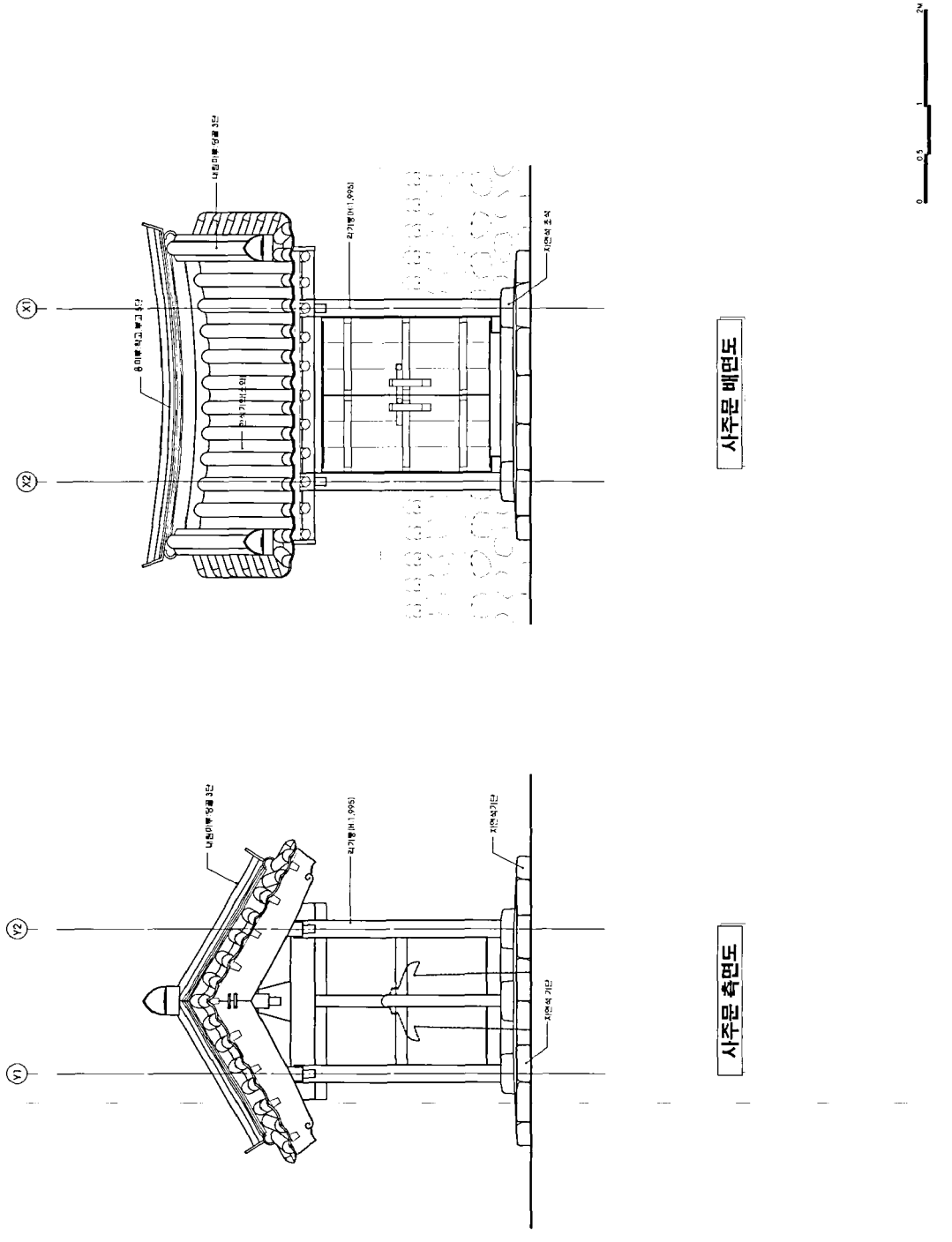


사주문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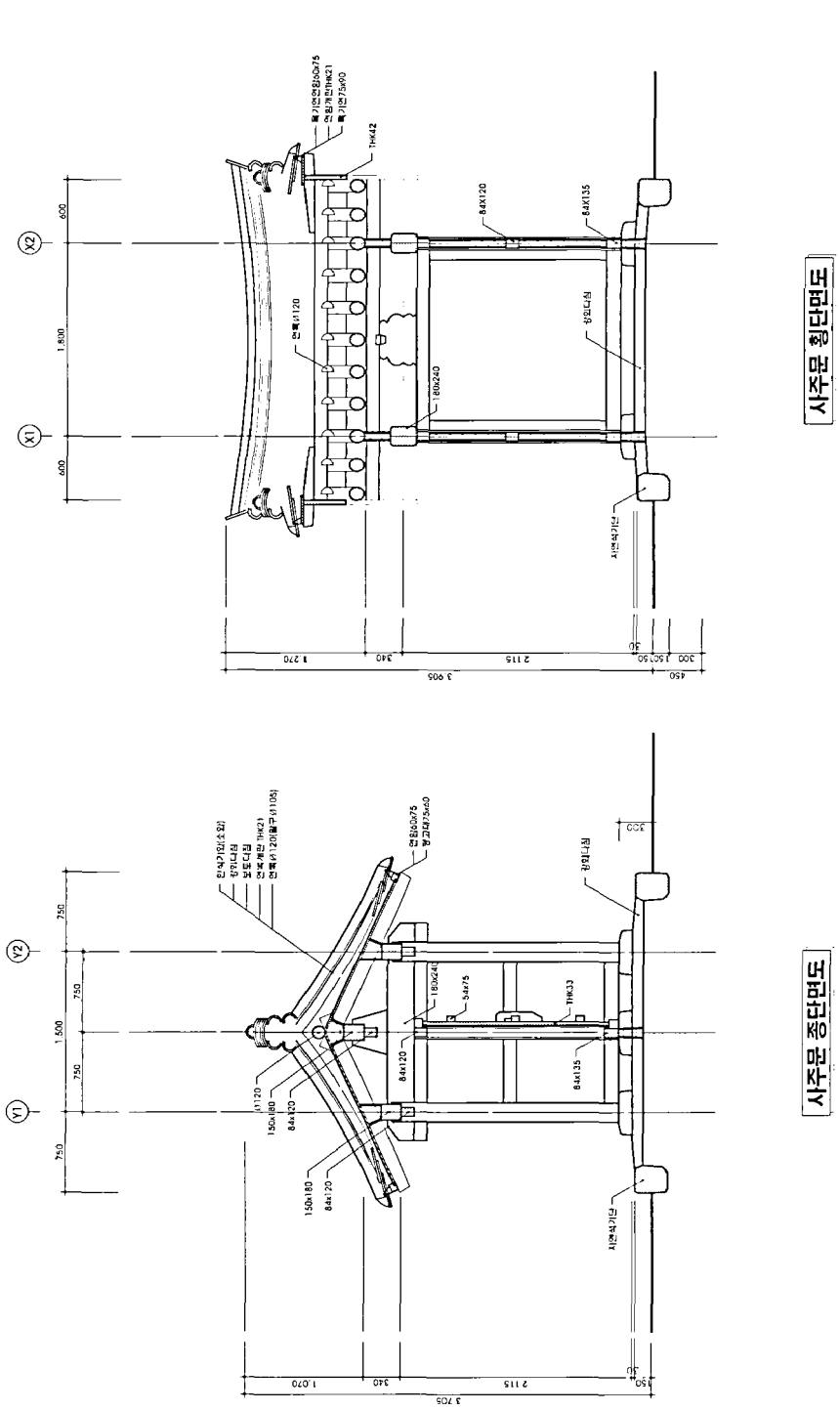


사주문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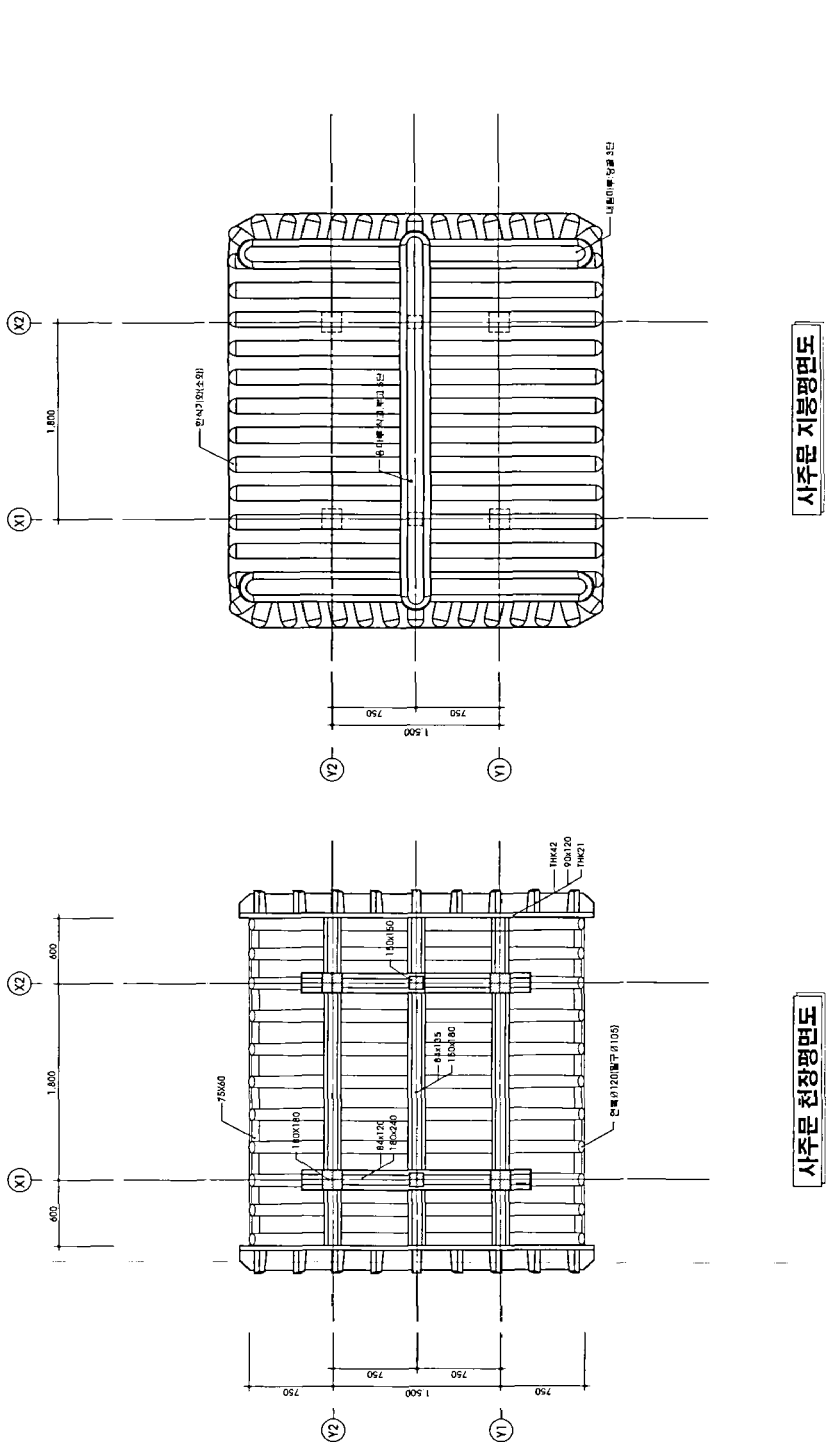
[도면77] 사주문 평면도, 정면도



[도면78] 사주문 측면도, 배면도



[도면79] 사주문 종단면도, 횡단면도



[도면80] 사주문 천장 평면도, 지붕 평면도

3. 참고문헌 (參考文獻)

1) 盧思愼 編著, 東國與地勝覽, 明文堂, 1981.10,
2)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3) 고전국역총서44,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Ⅴ, 재단법인민족문화추진회, 경인문화사,1978
4) 大韓民國文敎部國史編纂委員會, 輿地圖書下-韓國史料叢書第二十, 探求堂, 1973
5) 金正浩編, 大東地志-原本影印, 漢陽大附設國學研究所, 亞細亞文化史, 1976.8
6) 한국학문헌연구소편, 邑誌十-京畿道①, 한국지리총서, 아세아문화사
7) 서울대학교규장각, 양근군 광여도, 채색필사본, 1996
8) 김정호, 대동여지도/청구도, 1834
9) 朝鮮總督府藏, 近世五萬分之一 地形圖, 朝鮮總督府小版, 1918(대정7년)
10) 구한말 한반도지형도, 1:50,000, 성지문화사
11) 경기도의 옛지도-해동지도, 광여도, 2002
12) 國立地理院, 地形圖, 1997
13) 경기도, 경기문화유적지도Ⅱ-경기중부지역, 경기도박물관, 1999
14) 안산시, 안산문화유적분포지도, 한양대학교박물관, 학연문화사, 2007.12
15) 안산시, 안산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박물관, 도서출판 큰기획, 1998.9
16) 영진5만지도, 정밀지도대백과, 영진출판사, 2005
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1992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기지역의 향토문화, 한광문화사, 1997.3
1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8(경기인천-하), 보진재, 1986.8
20) 경기도, 경기문화재총람-도지정편1(유형문화재·문화재자료), 경기도문화정책과, 경인M&B, 2005.2
21) 경기도, 문화재안내문안집, 경기도문화정책과, 도서출판 큰 기획, 2001.3

■ 안산시청, 청문당 관련 제반서류

22) 안산시, 문화재 관리대장, 2011.9
23) 안산시,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2011.9
24) 안산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011.9

■ 기타

25) 경기도, 문화재 실측조사 보고서, 기존 보수설계 도서
26) 안산시, 문화체육과, 문화관광, 인터넷홈페이지
27) 문화재청, 우리지역문화재-안산시, 인터넷홈페이지

京 畿 道 指 定 文 化 財

淸 聞 堂　實 測 調 査 報 告 書

2011년 11월 4일 發行
2011년 11월 4일 印刷

發 行 處 : 京 畿 道 · 安 山 市
調 査 · 編 纂 : (株)미추홀 建築士 事務所
企 劃 編 輯 : (株)미추홀 建築士 事務所
印 刷 製 冊 : 大 明 企 劃

(非賣品 · 限定版)

여 백

여 백